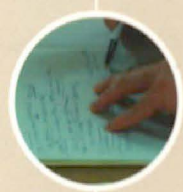


안양을 다시 읽다

# 만남의 기억



여백



目 次

# 여백

目 次



안양을 다시 읽다

# 만안의 기억

여 백

AN  
911.57  
안636만

안양을 다시 읽다

# मानानुकीकृक



 안양문화원



## 연구진

### 연구책임

김성균 행정학 박사, 안양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 연구원

김광남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안양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철하 문학박사, 의왕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이창언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한정은 기록학 박사과정 수료,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센터 출판위원

김민정 사회학 박사, 과줄루 나탈대학 연구원

김정진 다음커뮤니티스 이사

### 녹취

최혜미 아주대학교 3년

### 검록

최병렬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

## 자문

김지석

박영선

권상구

## 구술자 현황

구본철(64년생, 남) : 80년대 안양지역 노동운동

김상학(54년생, 남) : 강릉체육사와 개인생애

김선옥(58년생, 여) : 중앙시장 급창골목

문경식(64년생, 남) : 80년대 안양지역 노동운동

박순덕(56년생, 여) : 안양1동 한 곳에서 30년을 장사한 '대성다방'

백승규(49년생, 남) : 안양1번가에서 40년간 양복점 인생 (에이원라사)

변원신(33년생, 남) : 마을조직으로서의 새마을 금고  
(마을조직-협심새마을금고)

변원신(33년생, 남) : 안양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

송용미(61년생, 여) : 안양6동

신관선(36년생, 남) : 삼영운수

심혜화(78년생, 여)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홍순(36년생, 남) : 안양5동 장미맨션

일람(71년생, 남/방글라데시) : 이슬람교 안양 성원

양숙정(52년생, 여) : 80년대 초반 안양1번가

양지희 원로 : 양지희 이야기

오은영(61년생, 여) : 흥천원조 고추장 화로구이

원명상(35년생, 남)외 1인 어르신 : 안양3동 원씨

이금연(61년생, 여) : 전진상 복지관과 개인 생애

이양우(47년생, 남) : 경주 이씨

이준열(44년생, 남) : 삼덕제지

이천우(64년생, 남) : 석수동 약수탕과 '물'

장석구(41년생, 남) : 박달동 호현마을

장용준(40년생, 남) : 중앙시장 변천과 개인생애사

전영선(42년생, 남) : 대동문교와 개인생애사

정군례(44년생, 여) : 안양예술공원과 석수동 원주민

정애영(37년생, 여) : 안양5동 장미맨션

주진동(39년생, 남) : 박달동 마을

최병렬(58년생, 남) : 80년대 안양 구술, 전진상 복지관

최진홍(82년생, 남) : 씨네마 델리

한병하(47년생, 남) : 안양5동 은행주택

## 만안의 기억을 펴내면서



만안구는 안양의 중심이며, 극락정토 ‘안양’의 모체가 되는 역사적 공간의 특성을 간직한 지역입니다. 안양의 정서가 서려 있는 만안구는 도시 재정비와 변화로 근·현대화과정 속에 형성되었던 자연마을의 흔적이 점차 소멸하여 옛이야기 속으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안양문화원에서는 만안구의 자연마을 속으로 들어가 안양을 다시 읽고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만안구 마을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만안의 기억’을 테마로 하여 만안구가 지난 근·현대화과정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여 종합적인 양상을 담은 「만안구 마을조사 사업」이 안양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한편 지역의 어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설계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안양지역민들의 삶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대호 안양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을 누비며 본 조사사업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향토문화연구소 김성균 책임연구원 및 편찬위원들께 깊은 감사와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안양문화원은 지역향토사 사료조사 및 편찬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양문화발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 2월

안양문화원 원장 원 종 면

## 안양의 정체성과 삶의 흔적을 조망하는 소중한 자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안양시의 근·현대화 과정에 모태라 할 수 있는 만안구의 변천사를 구술과 채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마을지 「만안의 기억」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구술과 채록의 정리는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술자의 생애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시대적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일반적인 자료수집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 각자가 지니고 있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느낌이 종합적으로 표현되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역사 자료집 「만안의 기억」은 우리 시의 근대화 과정에 당시를 체험한 원로들의 소중한 기억과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삶과 생애가 기록,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20세기 만안구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매우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안양시가 전통적인 농업기반 사회에서 50-60년대 신흥 공업도시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당시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현재와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만안의 기억」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향후 우리 시의 정체성과 삶의 흔적을 조망하는 소중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 바라며 안양시 미래발전에도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자료집이 발간되기까지 애써 오신 안양문화원 원종면 원장님과 마을지편찬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안양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안양시장 최대호



##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만안구가 걸어온 문화와 역사를 종합 기록한 향토사료 조사 「만안구 마을조사사업」 책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안양의 발자취를 재조명하여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원종면 안양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안양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만안구는 근·현대화 과정에서 산업화와 도심 재정비사업 등으로 자연마을은 점차 소멸하였고 삶의 환경 또한 많은 변화와 굴곡을 겪어왔으나 안양시 발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안구의 자연마을과 환경, 주거와 생활, 일상생활, 삶의 흔적에 대한 영상 기록물 등을 조사 편집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만안구 마을조사사업」 발간집이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안양문화원이 앞으로도 다방면의 활발한 안양연구와 유용한 자료 발간을 통하여 안양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바라며, 또한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는 커다란 버팀목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만안구 문화와 역사를 종합 기록한 「만안구 마을조사사업」 발간을 위해 애쓰신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안양시의회의장 권혁록

# 목 차

<b>프롤로그</b>		<b>12</b>
<b>만안의 기억</b>		
<b>제1부</b>	<b>선인들의 지혜를 통해서 본 안양</b>	<b>39</b>
<b>안양을</b>	안양의 지리적 형상과 풍수의 이해	40
<b>다시 읽다</b>	안양의 생활문화경관 변천	47
<b>제2부</b>	<b>안양, 근현대사를 걷다.</b>	<b>53</b>
<b>마을 속으로</b>	일제 수탈기와 이데올로기의 상처들	54
<b>들어가다</b>	안양의 교육, 영화 그리고 시장의 출발	60
-	안양 근현대사의 주요 장소와 기억들	67
-	<b>안양을 느끼다. 길과 하천</b>	<b>78</b>
-	만안의 길	79
-	안양천의 역사: 오염과 훼손, 복구와 복원	93
	마을	100
	<b>안양의 입항조 이야기</b>	<b>106</b>
	옛 안양지역을 본관으로 한 성씨	107
	안양의 관적성씨(貫籍姓氏)	107
	대를 이어 살아온 성씨 이야기	108
	<b>안양의 근대화와 노동자노동운동: 한무리교회를 중심으로</b>	<b>123</b>
	안양(만안)의 근대화 개괄	124
	안양의 근대화와 노동자노동운동	130
	70년대 안양지역 노동자와 기독교- 안양 근로자 회관을 중심으로	133
	1980년대 이후 안양지역 노동자와 한무리 교회	138
	마치며	151
	<b>안양 옛보기</b>	<b>152</b>
	시간과 젊음이 교차하는 곳, 안양1번가	153
	어떤 명품 스포츠 브랜드도 부럽지 않은 강릉체육사	154
	역사와 전통을 입는다. 수제양복점, 에이원라사	156
	커피 문화의 공간 _ 대성 다방	157
	<b>세월을 맞보다</b>	<b>165</b>

제3부

안양의  
삶을 읽다

구술생애사

서민의 애환이 서린 삶의 터, 중앙시장, 중앙시장번영회 회장 장용준	192
박달동의 터주, 주진동을 만나다.	198
제지산업의 심장, 삼덕제지 이준열	206
따뜻한 햇살같은 마음이 있는 터, 원명상 어르신덕	209
여성이 여성을 읽다, 이금연	217
책 72권으로 대동문고를 이루다.	238
서민의 발이 되어준 삼영운수 신관선	246
두레정신이 싹 틔운 새마을금고	250
물로 맺은 나눔공동체, 충훈 약수탕	258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은 자생조직, 양지회	264
안양5동 냉천(冷泉)마을 “다 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266

길과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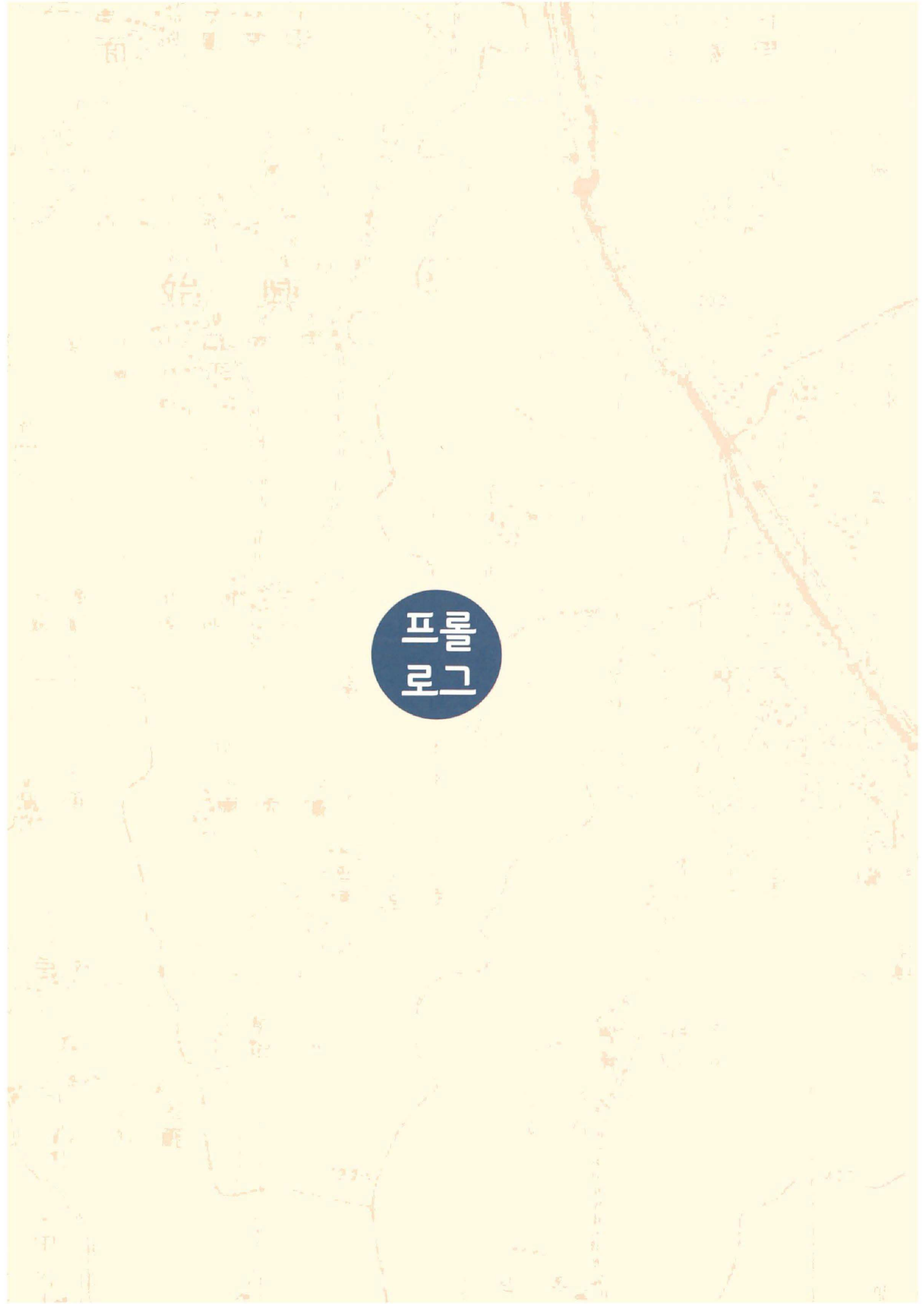
299

부록

만안을  
보다

만안구	317
안양동	320
석수동	384
박달동	408





문화유산

# 만인의 기억

# 만안의 기억

안양사, 종초사지, 만안교, 삼막사, 마애종, 유유산업과 김중업 건축물, 안양유원지,

안양포도, 삼덕제지, 대동단지, (구)가축위생시험소, 안양일번가, 공공예술공원,

양지마을, 충훈부, 안양천, 삼성천, 뉴타운개발, 안양아카데미테마타운

## 기억으로 쓰는 모두가 편안한 땅 이야기

‘만안의 기억’은 안양시 만안구의 사라져 가는 마을자원에 관한 이야기다. 마을자원을 분석하는 과정은 ‘기억으로 쓰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역사가들의 가정과 이미 인정된 해석에 대한 도전으로 역사 서술 자체의 폭을 넓고 풍성하게 하고자 했다.

한낱 빈약한 개인의 회상이 아닌 특정 대상에 대한 집합 기억을 모아내고 그 집합된 기억을 중심으로 세대 간의 살아 있음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기억을 모아내는 작업은 구술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구술작업이 연구자에게 과거를 재현하는 대중매체가 어떻게 구술자들에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연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형성되는 ‘공공의 역사’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역사영화, 역사소설 등을 통해서 정규 역사교과서나 연구서에서 읽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대중에게 상상력을 동원하여 특정한 역사적 기억을 찾아내는 것이 밑으로부터의 역사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이 구술이다. 따라서 구술은 “밑으로부터의 역사 쓰기”이다.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찾는 ‘만안의 기억’은 만안구의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의 자원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자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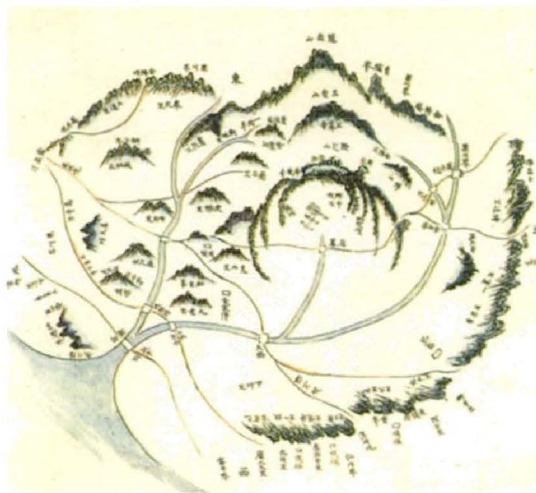


『만안의 기억』 구술자들



## 안양, 행정구역의 흔적을 더듬다.

안양의 행정구역이 기록된 문헌이 ‘여지도서(영조 35년, 1759년)’다. 이 문헌에는 현재의 박달동과 석수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안양의 대부분 지역이 과천현의 상서면과 하서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상서면은 일동리, 이동리, 비산리의 3개 마을과 하서면에는 일동리, 이동리, 도양리, 호계리, 안양리, 발사리, 후두미동, 석수촌의 8개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872년 경기읍지 시흥현도

정조 13년(1789년)에 호구조사한 호구총서에 의하면 상서면을 삼현1리, 삼현2리, 3개리로 기록하고 있으며, 하서면은 귀인1동, 귀인2동, 호계리, 안양리, 후두미리, 도양리의 6개 마을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11개 마을에서 9개 마을로 줄어 든 것은 당시 화산능행차를 하면서 금천현을 시흥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의 행정등급을 격상시키면서 안양행궁이 위치한 안양1동까지 시흥현에 복속시킴으로써 과천현에 속한 하서면의 마을수가 줄어 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순조 34년(1834년)에 완성된 김정호의 청구도에 의하면 안양행궁이 위치한 안양시 만안구 지역의 대부분이 시흥현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고종 33년(1896년)에는 태종 이래 시행되어 오던 8도제가 오늘날과 같은 13도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해이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안양은 과천군의 상서면 일동, 이동, 외비산리, 내비산리의 4개 마을과 하서면의 일동, 이동, 도양리, 호계리, 후두미동, 장내동, 발사리, 석수동, 안양리의 9개 마을로 총 14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

1897년에 일제에 의해 제작된 군사기밀도에서도 삼현, 비산리, 임곡, 신촌, 초계동과 양지촌, 장내촌, 후두미, 창박골 및 안양촌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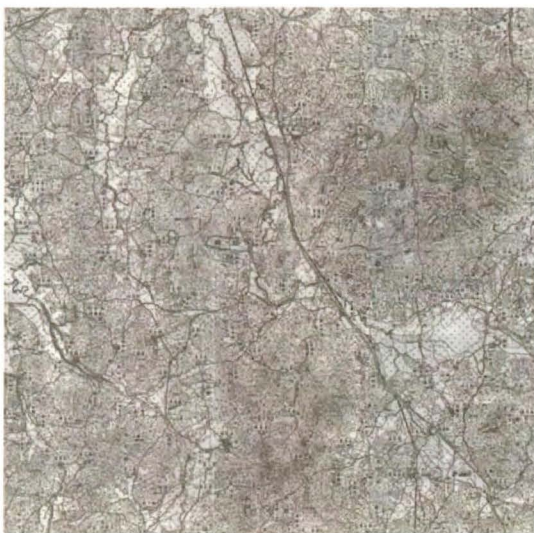
정조시대의 호구조사 기록에서는 하서면 6개 마을 인구를 1,515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광무4년(1900년)의 토지조사기록에 의하면 당시 안양인구 4,000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고종시대의 상서면과 하서면의 호구비율을 정조시대의 인구추계에 적용하면 정조시대의 안양인구는 2,5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정조에서 고종에 이르는 110년 안양의 인구는 약 1,500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문원식, 2001).

일제 강점기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안양역이 개설되었고 1914년 조선총독

부의 행정구역개편으로 안양의 상서면과 하서면이 통합된 서이면이 생겨났다.

조선 시대 말 13개 리는 1914년 4월 1일 서이면이 생기면서 호계리, 안양리, 일동리, 이동리, 비산리의 5개 리로 구성되었고 치소는 호계리에 두었다. 안양리는 발사리, 석수리, 장내동 및 후두미동을 흡수하였다. 1917년에는 호계리에 있던 서이면 사무소가 현재 안양 1동 사무소로 이전하였다.

1924년에는 안양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과 안양우체국, 안양연초제조창이 설립되었고, 1926년에는 안양시장이 안양공설시장으로 인가를 받아 개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27년에는 안양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고 그 외에도 안양척후대, 안양수양단, 안양청년회가 창립되었다. 1930년에는 장로교회인 안양교회가 설립되었고, 1932년에는 석수동 안양유원지 계곡에 안양 풀장이 개장하였다.



1918년 군포장 지도속 안양

1933년 조선직물주식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조선견직주식회사, 삼덕제지, 고려석면 등 한국의 근대화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는 섬유 및 제지산업이 생기면서 공업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였다.

1941년 10월1일에는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변경되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시흥군청사는 안양면으로 이전하면서 정치행정의 중심지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49년 안양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73년에는 안양시로 다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땅, 만안

앞에 열거한 단어들은 안양을 연상할 수 있는 자원의 일부다.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다양한 자원은 천 년이 넘는 세월을 통하여 현재의 안양시 만안구를 만들어 왔다. 인구62만 규모의 안양시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만안구는 노태우 정권 시절 5개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안양의 중심을 이었다. 그러나 평촌이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느낌을



지을 수 없었던 만안구는 평촌의 상징인 아파트단지와 슬럼화된 주택지구로 양분해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만안구는 안양의 정체성 그 자체이며 정신이다. 그리고 천 년의 세월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삶의 애환이 묻어나 있는 곳이다. 만안구는 826년으로 사료되는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신라 말에서 고려 시대로 추정되는 석수동의 마애종을 비롯하여 ‘만안의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수많은 자원이 만안구 여기저기에 있다.

안양시 만안구, 즉 안양과 만안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극락정토 세상에 모두가 편안하게 숨 쉬는 곳’이 안양의 만안이다. 단지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불교 외에 다른 종교가 불만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 속 좁은 마음보다는 넓은 품으로 생각하면 모든 종교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의 의미를 전부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방삼세(十方三世)의 모든 불국토(佛國土) 세상’, ‘모든 중생이 극락에서 왕생할 수 있다’는 정토세상을 기독교 측면에서 보면 천당이 될 것이요, 우리의 전통사상 중의 하나인 동학사상에 비추어 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삼재세상을 의미한다. 이렇듯 누구든지 혹은 어느 종교가 지니고 있는 최고의 선에 도달할 수 있는 의미로 천당, 천국, 극락정토, 삼재세상이 안양이다.

### 안양사 칠층전탑의 비밀, 안양세계 이상향

안양사는 고려초 태조 왕건이 능정스님을 만나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또한, 안양시의 지명유래가 시작된 곳으로 아미타불의 정토신앙이 담긴 안양세계의 이상향을 간직한 사찰이다. 문헌에 의하면 안양사에는 태조 왕건이 건립한 안양사 칠층전탑이 있어 일찍부터 많은 선학자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안양사 칠층전탑은 여주 신륵사다층전탑과 함께 경상도 지역을 벗어나 조성된 고려 시대 전탑이라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 전탑은 다른 전탑과는 달리 회칠과 함께 되어 있는 채색이 매우 특징적이다. 안양사는 고려 시대 법



안양사 터 답도 및 전탑지



안양사 명문기와



상종 사찰로 왕실 및 중앙의 지배층과 고려 후대 까지 지속된 사찰로 추정된다. 따라서 안양사는 불교를 건국이념으로 하는 왕건과 능정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안양사 칠층전탑은 비보풍수에 의한 사탑으로 조성되었다. 그리고 석탑이 아닌 전탑으로 조성된 이유는 신라계 승려인 능정의 주도하에 문화적 회귀라고 하는 고려 초 조탑의 한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안양사 칠층전탑은 외형은 옥개석 낙수면에 기와를 덮고 있어 안동의 신세동과 동부동의 전탑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회칠은 우리나라에서 일군의 모전석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문헌상으로는 백탑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어 조탑 기술의 하나로 평가될 만한 가치가 있는 탑이다. 그리고 안양사 칠층전탑은 회칠을 하고 다양한 채색이 되어 있는 불보상 그림은 경외감과 장엄함의 그 자체다. 이러한 안양사 칠층전탑은 1131년(고려 인종 9년) 또 한 차례의 중수를 거쳐 고려 시대 후대에 이르러 최영에 의하여 두 번째 중수를 하게 된다. 최영은 안양사 칠층전탑 중수를 성조 즉, 태조의 국가 경영을 우러러 생각하고 탑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성조의 영에 죄를 짓는 것이라 맹세하며 군비를 털어 중수할 정도로 깊은 관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려 말 기울어져 가는 국가와 왕실의 권위를 안양사 칠층전탑을 통하여 새롭게 재건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만큼 시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전탑이다(김지석).

### 천년의 평화, 마애종과 안양사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발원에 의하여 안양사가 건립된다. 안양사를 이곳에 세운 것은 안양세계(安養世界), 즉 극락세계(極樂世界)의 실현지이기도 하다. 당시 많은 불주(佛徒)들은 안양사를 지어 이 지역을 상상 속의 극락이 아닌 현실 속의 극락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한 발



석수동 마애종



석수동 마애종이 보이는 풍경

원의 목적으로 대형의 암반에 마애종을 새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애종은 한 승려가 타종구를 들고 있어 마치 종소리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울려 퍼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서양의 종과는 달리 마음을 울리는 울림이 있는 종소리가 암각화를 통해서 느껴진다.

마애종을 새긴 장인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울림이 있는 종소리를 들으며 보도록 의도하였으며, 그러면서 경건한 신앙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한 마디로 그 발상이 기발하다.

불가에서는 범종의 소리가 부처의 진리를 전하며 모든 중생을 구제해 준다고 믿는다. 석수동 마애종의 소속 사찰이 중초사든 안양사든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다 같이 극락에 이르고자 하는 발원과 바로 이곳이 현실 속의 극락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조각이다. 그래서일까 마애종은 안양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마애종을 조각한 것은 불가의 세계처럼 안양 지역을 청정淸淨케 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극락왕생極樂往生을 염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석수동 마애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문화재로 하나밖에 없는 창조적인 유산이다. 현대는 창조는 거의 없고 모방模倣과 변안變案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오래전에 안양에 이러한 전무후무한 마애종이 조각되어 있다는 것은 안양의 역사성을 이해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다. 즉, 안양이 오래전부터 창의적이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창출지로서의 의미가 있다. 마애종은 안양의 지역성이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이 창출될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마애종은 “안양=극락=살기 좋은 곳”이라는 지역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문화유산 중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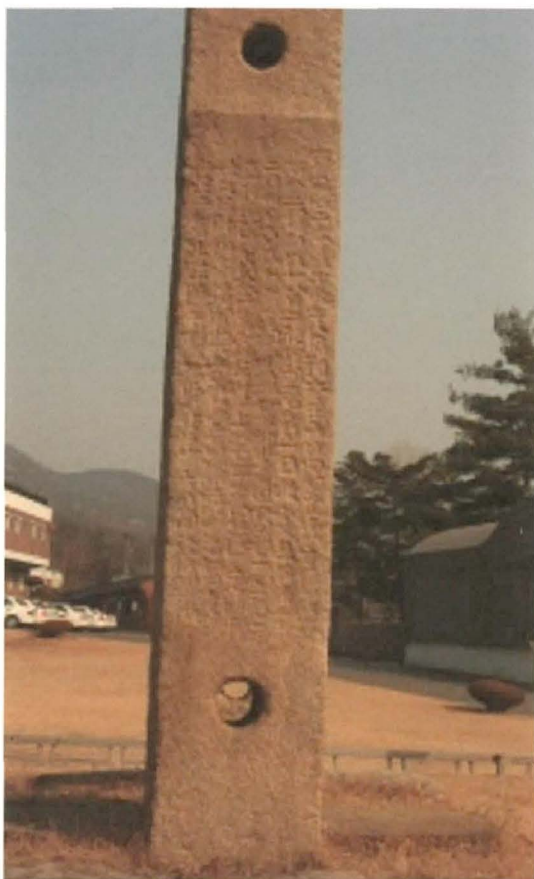
### 역사지킴이, 당간지주

석수동 마애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문화재가 당간지주幢竿支柱이다(안양시청, 2000; 경기도(편), 1989:62). 당간지주는 당간幢竿을 세워 당幢을 걸기 위한 구조물이다. 현재는 두 지주만이 남아있지만, 원래는 높은 당간을 세워 그 꼭대기에 당을 걸어 휘날리게 함으로써 사찰의 위상位相을 드러내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석문銘文이 새겨져 있다. 명문에 의하면 당시 건립 책임자로 절주총 황룡사 항창화상鄆州統皇龍寺恒昌和尚을 비롯하여 10명의 승려가 후원하



중초사지 당간지주





명문이 새겨진 중초사지 당간지주

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불교계의 중심 사찰이었던 황룡사 승려가 후원한 것으로 보아 중초사가 늦어도 9세기 초반경에 널리 알려진 사찰이었으며, 중앙에 있는 사찰과도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안양 지역이 통일신라 말기에는 중요한 사찰이 건립될 만큼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불교가 성행하면서 불세계(佛世界)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사찰이 소재한 지역이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남아있는 문화재들은 고대 시대의 중심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안양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문화재가 당간지주를 비롯한 마애종이며, 이들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안양의 지역성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 길을 만들다. 만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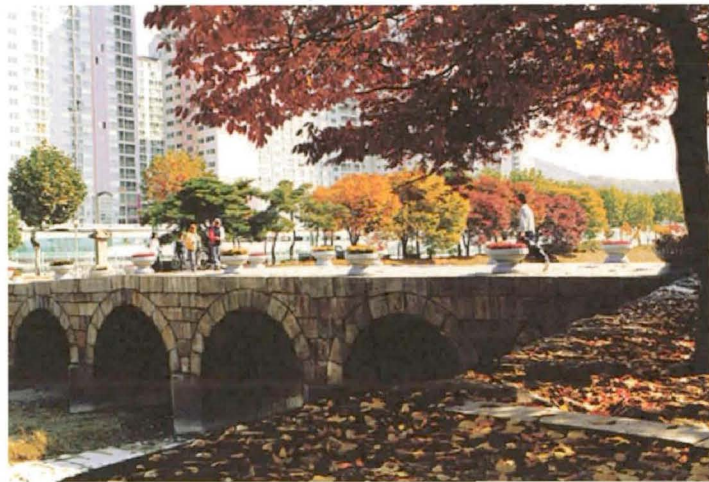
조선조 정조대왕의 효심과 임금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 놓인 만안교의 부설이다. 만안교가 부설되기 전까지는 춘향전에서 나오는 노정처럼, 한양으로 가는 국도를 수원을 기점으로 하여 보면 지지대 고개를 거쳐 호계동, 인덕원, 과천, 남태령 고개를 넘어 노량진 나루터를 건너 한양에 도달하게 된다. 이 노정이 정조대왕의 부친인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을 때에 사부이던 영의정 김상노에게 구해달라는 애원의 눈초리를 보낼 때 “아버님 말씀을 따라야죠” 하는 사부 김상노의 말을 좇아 뒤주 속에 들어갔다가 끝내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 김상노의 형인 김약노의 묘소가 부친 정조대왕의 묘소가 있는 수원 화산능으로 가는 정조대왕 능행차길중 과천을 지나면서 관악산 쪽에 놓여 있어 정조대왕은 이를 몹시 불편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신하들이 이러한 정조대왕의 마음을 헤아려 수원 지지대 고개에서 호계동을 거쳐 안양 만안교를 지나 시흥과 신림동을 거쳐 노량진 나루터로 가는 새로운 노정을 마련하였고 이후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이 이 노정을 거쳐 지나면서 점차로 과

천은 한적한 촌락으로 변모하고 안양이 발전되어 갔던 것이다. 따라서 안양발전의 첫걸음은 분명히 만안교인 것이다. 즉 근대안양의 생김새는 선조의 역사와 같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만안교에는 안양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 답교놀이가 다리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있었는데 만안 답교놀이가 바로 그것이었다. 만안 답교놀이는 일반적으로 답교놀이에서 보여주었던 농자 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대장기만 있었던 것과는 달리 안양답교놀이에서는 천자문에 나오는 효당갈력충즉진명(孝當竭力忠則盡命)이라는 대장기가 또 하나 있어 부모에 대한 효도와 나라(임금)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이곳에 사는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안양은 충효의 고장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만안 답교놀이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정조대왕



만안교

## 1905년, 안양역 개통

안양역(安養驛)의 역사(驛舍)는 우리나라 역사에 치욕적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일본인에 의해 부설된 경부선 철도의 산물이다. 경부선 철도 개통에 따른 안양역의 개설은 안양발전의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조선 시대 말까지 리에 불과했던 안양리가 1905년 경부선과 함께 안양역이 개설되면서 안양의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01년 착공된 경부선 철도공사는 그 이듬해 6월에 1차 구간인 영등포에서 명학 구간의 토목공사를 마치고 건축열차가 운행될 정도로 공사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명학에서 평택에 이르는 제2구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철도부설용 골재를 안양9동의 병목안 채석장에서 채취하여 건축열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 그리고 1905년 1월 1일에 안양역사가 개설되면서 안양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05년 안양역 부근에 안양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



1906년 안양역 풍경



일본강점기 안양역 모형

작하였다. 1925년 6,165명이었던 안양의 인구는 1940년에는 1만 명에 이르게 된다. 안양역의 개설 이후 안양은 인구가 늘고 행정, 경제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 갔다. 이처럼 교통의 발달은 그 지역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 준다. 그러나 근대화의 개념과 기준시기에 대한 논의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서양에서는 17세기 계몽사상으로부터 근대화를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근대화의 붐아(萌芽)는 임란(임진왜란 및 정유재란)과 호란(병자호란 및 정묘호란) 이후, 싹트기 시작했고 영조와 정조에 이르러 크게 일어난 실학사상으로부터 찾고 있으며 이후 동학난을 거쳐 구한말 고종 때의 갑오경장이 근대화를 촉진한 사건으로 이야기한다.

## 일제 강점기의 지역거점, 서이면 사무소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단행된 행정구역개편은 현재 안양시 행정구역의 출발점이다. 이령은 도와 부·군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통폐합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구역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에 따른 여파로 안양에 상서면과 하서면이 통합되어 ‘서이면’ 지명을 사용하였다. 이 서이면은 오늘날 안양을 사용하는 지명이 되었다. 조선 시대 말 13개 리는 1914년 4월 1일 서이면이 생기면서 호계리, 안양리, 일동리, 이동리, 비산리의 5개 리로 구성되었고 치소는 호계리에 두었다. 안양리는 발사리, 석수리, 장내동 및 후두미동을 흡수하였다. 1917년에는 호계리에 있던 서이면 사무소가 현재 안양1동 사무소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과천문화원에서 발간한 「우산만고(愚山晩稿)」에 시흥군 서이면 안양 상량문(始興郡西二面安養上樑文) - 당시 1917년 9월 16일 -에 다음과 당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우산만고」에 기록되어 있듯이 대정6년(1917년) 구월 중양절은 당시 일본 천황의 생일이었다. 일본 천황의 생일에 당시 서이면사무소의 상량문을 올렸고 여러 관직 중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한 것으로 생각되는 조 주임과 신 서기를 칭찬한 기록이 있다.

「우산만고」의 기록과 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서이면 사무소는 일본 제국주의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산만고」 마지막 부분에 “국가의 부역을 그르치지 말고, 아래로는 온 백성의 행복을 온전히 하여야 한다. 다른 데에 있지 않으니, 어찌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랴?”라고 적힌 이 문구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에 순응하는 삶을 강요하고 있는 문구이다. 서이면 사무소는 일제 강점기 시절 식민수탈의 지역거점임이 분명하다.



안양1번가에 복원된 서이면사무소



서이면사무소 기록물

## 유유산업 그리고 김종업

평양에서 태어난 김종업은 1941년 일본 요코하마 공업고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8.15 광복 후 1946~1952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교수로 있었다. 1952년 한국 현대건축가로써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하여 프랑스의 르코르뷔지에 건축연구소에서 4년간 수업하고 귀국, 1956년 홍익대학교 건축미술과 교수, 같은 해 김종업 협동건축연구소장이 되었으며, 1956~1965년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71~1978년 프랑스 파리 및 미국 프로비던스에서 활동하였다. 1972년 파리건축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71~1975년에는 프랑스 문화부의 고문건축가였다. 1976년에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미술대학 교수와 하버드대학교 객원교수가 되는 등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크게 활약하였다.

1944년 서울에 있는 조선주택영단 기수로서 일하였으며, 광복 전 1945년 안양에 있는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 그리고 1950년 김종업은 유희한을 만나 근대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유산업 건축물을 만든다.



유유산업 그리고 김종업



1977년 8월 9일자 경향신문 '비화된 세대 188편 반민특위 비행기 공장' 에 나오는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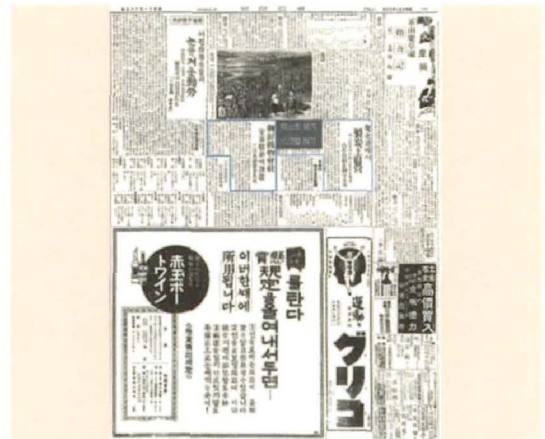
### 일제 수탈로 시작된 산업화 그리고 안양포도

일본에 의해 건립된 조선직물주식회사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오·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포도밭을 조성했다는 설도 있다. 안양포도는 일제 강점기 직후 오키라는 일본이 박달동과 안양2동에 대규모 포도농장을 만들면서 안양포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1950년대 발간된 『금천지』에는 안양유원지에 큰 포도밭이 늘어서 있었다고 소개할 만큼 안양의 포도는 유명했다. 안양연구소의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에는 포도밭에 대하여 “포도밭을 장정 가슴 깊이까지 파서 인분을 붓고 그 위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덕에 토양이 좋아져서 포도알도 크고 맛도 특별했다. 그 맛은 화학비료로는 도저히



안양유원지와 포도



1932년8월13일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역전 설치 동아일보 기사



만들어 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안양의 포도재배면적은 1948년 4만 2,900평, 1960년 21만 3,300평, 1963년 27만 500평, 1970년 23만 5,500평, 1972년 7만 3,500평, 1970년 5만 평까지 축소되다가 1980년대 2만여 평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 지금은 관양동 일원에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 국민유원지, 안양풀장

국민유원지로 각광받던 안양유원지는 안양역 북동쪽 2km 지점에 있으며, 관악산(冠岳山:629m)과 삼성산(三聖山:461m)의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천연수(안양천의 지류)를 이용하여 1950년대부터 이미 수영장이 개설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일제 강점기인 1932년에 일본인의 휴양지로 안양유원지 계곡에 안양푸울장이 개장이었다.

해방 이후 안양유원지는 1960년대에 수영장과 각종 오락시설을 갖추고, 주변에서 안양 명물의 하나인 포도나 딸기를 대량으로 공급받으면서 수도권 유원지의 명소가 되었다. 당시 경부선은 관악역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만큼 안양유원지 행락객이 많았다. 안양유원지 부근 자연마을에서 오래 사셨던 정군례 선생님은 1970년대의 안양유원지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한다.

안양을 이야기할 때 안양유원지와 유원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안양 예술 공원이 유원지였다가 비산공원으로 묶였어요. 1985년에 비산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지역 명을 갖다가 비산동서부터 능선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비산 공원으로 묶였어요.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 거야 공원이니까 우리는 손도 못 댄 거지 공원에는 못도 하나 못 박게 하니까 그런데 1908년서부터 주거 개발 사업을 하면서 2002년서부터 철거를 했어요. 그런 과정이 뭐냐면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많고 주민 간의 갈등 같은 거 환경 개선 사업하는데 결성을 하면서 내가 이제 회장을 맡았어요. 서로 친분이 가까워졌잖아요. 어디 사냐? 유원지 산다. 행정적으로만 비산동이지 우리는 유원지라고 썼으니까 너무 낙후되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옛날에는 영등포 서울에서 전부 여기로 온거야 그냥 정말 옛날에 공동 기계라든지 그런 거만 있으니까 서로 불거리도 없고 바가지에다 심지어 안양 시민까지도.

1979년도의 안양 유원지는 이런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판자촌 아시잖아요. 빈민촌 그 자체죠 아주 제가 손을 못 대니까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집이었어요. 또

이제 여기 주민이 자녀를 결혼을 시키면 방 하나 뒤쪽으로 더 만들어 헛간 같은데다가 자녀들 살림을 거기서 하게 하고 전형적인 시골 그런 동네였죠. 흙벽돌로 짓거나 합판 같은 거 그런 걸로 집을 그냥 어울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정식 집은 없어요. 슬라브로 한 집이 몇 집이 있었지만 다 그 나머지는 흙벽돌 아니면 판자집 그런 생활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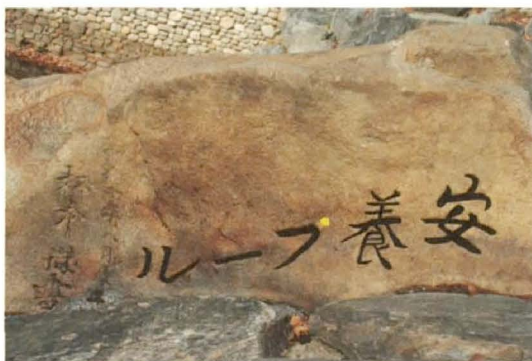
그 자리에서 하천에 한글로 안양 일본말로 푸르 가타가나로 해서 쓰여 있는게 있어 그게 이제 안양 푸르는 안양역장이 옛날에 일본 사람이잖아. 역장이 와서 보니까 너무 물이 좋고 위험하지도 않으니까 그 보를 막았지 막아서 수문을 두 개 해놓고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열고 비가 안 오면 수문을 닫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지금은 수영이라고 하지만 미역을 감았지 모래가 많이 있어 거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거기 살 때는 내가 교외 일을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모래가 많이 떠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보를 해서 삽으로 해서 모래가 떠내려가잖아

물이 많이 지면 사람이 못 들어가지만 다음에는 물이 쪽 주니까 물살에 모래가 쓸려 내려가잖아

그 물살에 의해서 다 떠내려간다 해줘라 그랬거든요. 그전에 70년대부터 여기를 왔다 갔어요. 친정어 여기라서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층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풀을 만드는 위에 77년7월에 떠내려갔어요. 그게 참 낭만이 있는 동네인데 거기 이제 축대를 해놨어 집에서 뭐 옛날에 놀러 오는 사람은 슬단지에 꿰여 먹고 아이들 놀게 하고 길이 미어졌어 길이 아니었어 차도 못 다니고 사람이 말하자면

안양유원지 입구에서 경기도 안양 협회 안양 지회 부스를 만들어놓고 관광협회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때는 50원 20원 그러다가 200원 500원 800까지 올라갔어

오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여기 볼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데 입장료를 왜 받니 우리는 전부다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이 관광객이 그렇게 해놓으면 관광협회를 기구라고 그랬거든요. 기구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그런걸 치워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했어요 우리 주민이 치울 수는 없는 거니까(구술자 : 정군례(44년생, 여), 구술일자 : 2011년 9월 1일)



안양유원지 바위에 새겨진 안양 풀



안양유원지 안양풀(풀)



## 공간의 각축장, 가축위생시험소

민선2기 출마 당시 시장은 4개 분야 21가지 공약 가운데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도시」 분야에 “가축위생시험소 부지(4,145평)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공원조성을 통한 지역문화의 형성을 주요의제로 다루었고, 안양시는 경기도 부지라는 이유로 첨단정보도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거의 이용 가능성이 없는 일부만을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그 공원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원이라기보다는 공원용지 자리에 대신한 안양과학벤처 센터를 위한 쉼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듯하다.

동안구와 비교하면 만안구의 밀도가 높고, 문화시설의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공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안양문화회관과 연계된 문화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의 랜드마크 의미를 제안하고 지역문화 콘텐츠의 내실화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음에도 안양시가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보도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만안구의 공원시설 부족을 강조하면서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지가 수리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면공원화 약속이행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되었다. 만안구에 수리산이 있다면, 동안구는 청계산과 관악산이 있지 않은가? 공원에 대한 약속이행을 요구할 때 동네의 뒷산을 이용하라는 것은 지역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시민사회단체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결국 공간적 각축장이 된 (구)가축위생시험연구소는 경기도가 <뉴 밀레니엄을 향한 경기도정-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경인일보, 2000. 1.6)되고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장기 비전과 ‘몸으로 하는 시대’에서 ‘머리로 하는 두뇌의 시대’로 내건 이슈의 공론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그에 발맞추어 안양시의 주요시책 중의 하나가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동력을 만들었다. (구)가축위생시험소를 두고 문화인가 벤처인가라는 각축장이 되었고 당시 전진상복지관 소속 아이들은 이곳으로 소풍을 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벤처타워와 명학공원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가축위생시험연구소

##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재해, 삼성천

2001년 7월15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집중호우는 안양시 소재 삼성천 유역(당시 안양유원지)을 범람해 새벽녘에 주택가를 엄습했다. 그 결과 안양2동에서 사망 3명(당시 삼성초교 4학년 최민정 양 등), 부상자 6명의 인명피해, 도로 및 하천구조물 파손 등의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주택 및 건물 침수 248세대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삼성천 범람의 여러 논란에도 재해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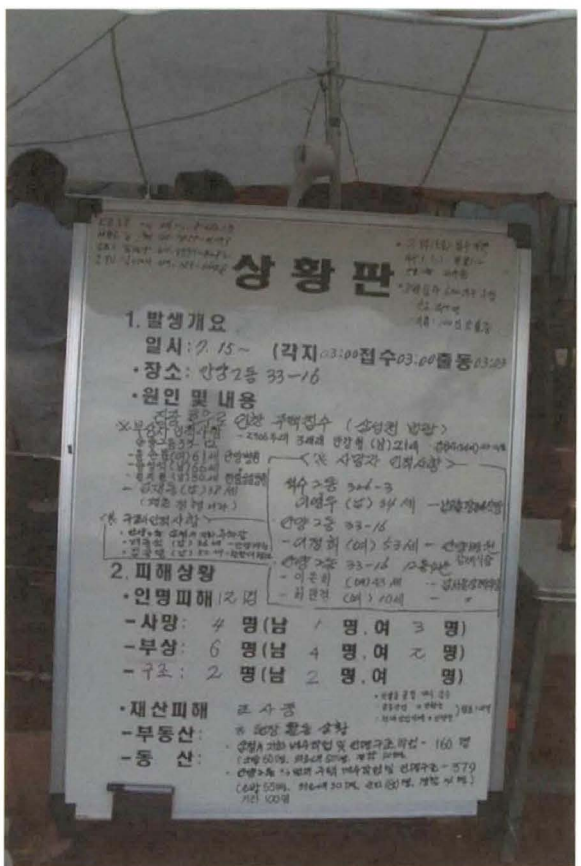
삼성천간판



재해의 현장 삼성천 다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재해, 삼성천 수해



상황판

## 예술이 공공을 만나다. 공공예술

2002년 안양시는 안양유원지와 유역을 같이하고 있는 삼성천이 범람하면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였고 수해로 말미암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당시 안양유원지와 그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비산조각공원 조성’ 계획하였다. 당시 안양시는 삼성산 100여 평에 조각작품을 세우는 등 유원지를 야외조각공원 계획을 세우고 있



었다. 이 계획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은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주장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APAP로 변하게 됐다.

안양시는 2005년 2월 비산조각공원 조성 자문위원단 대신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시 문화예술과 공무원을 파견하고, 일본 전문가 그룹에 사업 기획 및 진행을 민간 위탁을 하였다. 그 해 11월 5일 안양유원지가 새 이름을 얻었다. 지난 2009년 국철 1호선 전철역사인 역명 ‘관악역’에 부기(附記)로 ‘안양예술공원’이 등장하였다. 443억여 원을 투입해 개장과 동시에 40일간 23개국 73명 작가의 작품 전시 및 영구 설치하는 한편, 안양천 주변 정리와 인공폭포·야외무대 등의 시설 구축 사업이 진행됐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APAP다. 1차 APAP를 성과로 2007년에 두 번째 APAP가 열렸다. 두 번째 프로젝트 실행 장소가 안양예술공원에서 벗어나 중앙공원과 안양역 부근 등 도심과 시민의 일상생활로 옮겨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에 3회 APAP에서 실행된 세부 프로그램은 지역민과 예술가들의 참여도가 앞서 진행된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70년대부터 안양유원지와 맥을 같이 해온 정군례님은 초창기 공공예술프로젝트 해설사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의 역사문화 자원과 예술이 만나 조성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이렇게 회고한다.

다른 조각공원들은 들어가지 마시오 건들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하잖아. 그런데 공공예술을 뭐야 내가 만져도 되고 올라타고 되고 그래서 그런데 편한 거고 저기 우리는 미로라고 하는데 거울이 108개가 돼서 미로라고 하는데 원래 작품이 그 작가가 여기 사람이 아니면서도 여기 큰 삼성산의 전설을 살려서 안양의 개국 정도가



공공예술작품 사진

108개의 거울을 세웠어요. 108개 조금 넘는 게 간격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고 108개 그거를 한 바퀴 돌면 내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보여 나는 혼자 스스로 외면은 나를 볼 수 있고 외면은 자신을 봐라 여기를 한 바퀴 돌면 해탈할 수 있어 거울은 거울인 대로 그 거울에 다 그림이잖아. 그래서 지금 그 어디야 삼나무 잎이 거울이 좋아 밖에 벤치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비춰주는 가서 만지고 그런 밖에는 음악 벤치가 있어요. 그거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장난삼아 오션지처럼 의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올라가면 음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런 있고 작품을 해가면서 그 건 뿌듯하고 좋죠.

그리고 공공예술프로젝트 담당 코디네이터 심혜화님은 (구)안양유원지에서 진행된 공공예술프로젝트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한다.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계획되지는 않았고요. 안양 시에서는 2000년도 그 지역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사업이 바뀌면서 워낙 예전에 유원지로 각광받는 명소였는데 이제 수도권이 개발되고 이려다 보니까 낙후가 되면서 그 지역의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를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가서 2004년도 말쯤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했던 작업이 안양시도 김포시에 있는 조각공원이 다른 시와 같은 조각공원이 없다 거기 조각공원을 조성해 보는 게 워낙 그렇게 했던 것이 비산 조각공원 조성계획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왜냐면 그 동이 비산동이고 받침으로 비산 안양시 많고 이름을 조각공원 조성계획을 했었고 그 아래로 교수님들과 밑그림이 어느 정도 거의 끝났었죠. 더 큰 중심부에는 큰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그리고 네 개 정도의 큰 다리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다가 그 추진 위원회 강엽 선생님께서 이제 요즘 도시에서는 작가 작업실에서 이미 완성된 작품을 사다가 지역적 맥락하고 상관없는 것을 놓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왕이면 여기 공간에 재미있게 해주실 분이 추천 돼서 오신 분이 이영철 당시 계원예대 교수님이셨습니다. 이영철 교수님은 워낙 현대 예술에 대한 광주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모든 전시를 하실 정도로 영향이 분이셨는데 워낙 국제적인 행사 경험이 많으셨던 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장소를 둘러보고 몇 개월 만에 지역을 공부하셔서 짧은 기간 안에 집중력 있게 조사를 하였어요. 그래서 면밀히 고찰을 하시고 그 안이 채택돼서 기존에 있던 사업계획들을 수정 보완해서 이름이 안양 공공예술 추진 위원회로 돼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2003월에 11월에 2005년도 5월에 사무국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된 겁니다.

돌아서 생각해보면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그 동네가 왕건이 처음에 남쪽으로 갔을 때 왜 하필 그 장소에서 했을지 거기에 왕명으로 절을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절을 안양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지었는지 처음에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그곳에서 진행했는지 지금 안양사라는 아마 단면을 잘라보면 지금 안양사라는 기와가 최초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 전체적으로 가늠할 수 없지만, 규모라든지 그 터가 가지는 기운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지만, 그 위에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근대건축가로 굉장히 유명한 김중업 선생님의 어떤 그런 건축물이 안양사라는 최첨단 건축기술 위에 1950년대에 또 그 당시에 최고라는 김중업 선생님의 건축물을 올리게 되고요. 그 위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알바로 시저라든지 디디에르라는 굉장히 젊은 건축가라든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세계가 외국사람들이 보기에 그 터가 좋았고 적은 비용이라도 하고 싶어 했고 아시아에서 처음 유명한 작가들이 왔을 때 굉장히 아름답다 그 위에 또 하나의 건축 프로젝트를 그 위에 또 쌓으면서 그 장소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책을 보니까 안양의 명물이 포도라고 했을 때 포도가 처음 나왔던 장소가 유원지라고 들었어요. 일본사람들이 처음으로 포도를 심은 곳이 유원지라고 해요. 거기에서 물론 안양이라는 지명도 안양사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모든 건축의 층위가 또한 장소에서 직선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러면 그때 대한민국 안에 그렇게 안에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서로 모르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 그 장소가 가진 운명인 것 같고 안양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건축의 레이어드 안양사 터의 김중업 선생님의 박물관을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안양사 위에 들어가 있는 유유산업 부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는 안양을 다시 한 번 르네상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요. 지금의 공공예술공원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되면 이미 예술가들이 재미있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콘텐츠하고 다시 한 번 거기를 한다면 안양이 또 하나의 꿈 꿀 수 있는 하나의 벨트로 연결한다면 또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가 있다고 봐요. (구술자: 심혜화(78년생, 여), 구술일자: 2011년 9월 2일)

##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뉴타운개발

유년 시절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하면서 놀던 기억이 새롭다. 우리는 뉴타운개발이 이러한 호황이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 정치출마자들은 뉴타운개발을 하나같이 공약으로 제시하



뉴타운 반대 © 안양뉴스



였고 지역의 비전을 가져올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단지 허울뿐인 공약에 불과하지 않은가? 공약 내용의 핵심은 용적률과 관계된 공약뿐이다. 용적률은 재산증식과 직접적 관계가 있으므로 주민이 선호하는 공약이다.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는 부동산 거품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구감소 등의 문제 때문에 주택수요 적잖은 변화가 오리라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 즉 선거 출마하면서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뉴타운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인구감소 문제, 부동산 버블경기, 관리형 도시로서의 전략적 선택 등은 이들에게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일명 뉴타운개발)은 목적은 무엇인가? 「201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용적률의 문제에 기인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된 계획이라기 보다는 대기업 중심 택지개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면재개발은 지역 공동체 해체와 매우 낮은 재입주율을 보이면서 삶의 질은 더욱 쇠락해 질 것으로 보인다.

### 뉴타운개발 관련 민선4기 지방선거 출마자 공약

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재건축</li> </ul>
광역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li> <li>• 건축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li> <li>•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li> </ul>
기초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li> <li>• 안양 6동)재개발 적극지원</li> <li>• 안양 7동)재개발사업 적극 지원</li> <li>• 안양 8동) 재개발 사업 적극 지원</li> <li>• 박달시장: 현대화시설 및 주차장 확보</li> <li>•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li> <li>• 안양2동, 박달 1동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li> <li>• 동안구와 만안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개발</li> <li>• 화창마을주변 석수2동 빌라단지 재개발 추진.</li> <li>• 안양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추진</li> <li>• 관양새마을지구(관양2동 1490일원)정비계획 추진(2010년 재개발 예정, 2305가구)</li> <li>• 인덕원 삼성아파트 기부체납부지(200평) 주민 의견 수렴후 활용방안추진</li> <li>• 안양 교도소 12만평 부지를 활용 방안 추진</li> <li>• 호계1동 주공아파트, 호계1동 재개발, 호계3동 구사거리 재개발</li> <li>• 안양교도소 이전, 호계 신구 사거리 주변 대대적 활성화</li> <li>•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하여 추진</li> </ul>

## 안양시 뉴타운 관련 정비계획 지구 현황

구분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냉천지구·새마을지구·삼아연립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 덕천지구·삼영아파트주변·예술공원입구주변 • 소곡지구·상록지구·아랫마을 • 화창지구·박달1동사무소주변·임곡3지구 • 호계유황온천지구·구사거리지구·능곡지구 • 삼봉지구·덕천지구·웅창아파트주변·호계초원주변
주택 재건축사업	만안구	• 진흥아파트·향림아파트-1·향림아파트-2·청원아파트주변 • 호진연립·대일연립·석수아파트·백조아파트·대보아파트 • 세우아파트·석수한신아파트주변·동삼아파트·석수주공2단지 • 석수주공3단지·박달1동연합·동성2차동아아파트
	동안구	• 미룡아파트·비산2동사무소주변·비산삼익아파트 • 태광아파트·성우아파트·삼아연립·호계주공아파트주변 • 삼산6차아파트·동양아파트·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포도원지구 • 성광·호계신라주택

출처 : 안양시(2006), 『201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만안구에서 오랜 터를 이루고 살아온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회고한다.

아무리 재개발이 좋다고 재개발도 땅값이 평당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에 맞추어서 집을 뺏어 가까지 600만 원에 집을 압류시키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 공사가 지연되면 이자가 고스란히 땅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송두리째 정부에 받치고 월세 사는데 몽땅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지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자기 땅 아니라고 오산 국회의원이 연설할 때 뉴타운 할 때 1,500짜리 600으로 자기 땅부터 내놓고 하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집 하나 장만해서 사는데 송두리째 다 먹히면 뭐 먹고 살아요. 한 달에 200-300나오는 땅인데 뺏겨버리면 죽으라는 거지 지금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농이라는 데는 딱딱 쳐져 있어 그런데 여기 끝나면 십오 년 동안 내가 알기에는 여기 한 삼십 년 동안을 여기 도로가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건축가, 건설담당들이 무조건 재개발해서 여기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꼭 주민을 내쫓고 도시를 만들어야 해? 그러면 주민은 어디 가라는 이야기야 내가 지난번에 공청회를 갔는데 뭐냐면 그 입장을 지키는 데 찬성하는 사람은 불과 백 명 밖에 없어요. 이천 오백 명 삼백 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 한 명하고 우리 한 명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사람들은 뒤에서 정신없고 일곱 번 진행했어요. 통장들 부동산 철거할 사람들 꼭 차있어요. 안에 그 골목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의



자로 힘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갈 수가 없어. 애들이 갈비뼈 부러진 애가 일도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초래한 것이 안양시가 초래한거예요. 삼천만 원 자기들이 한 거예요. 요구한 게 자기들이 만든 건데 병원도 내가 두 번씩 가서 치료하는 건데 주민한테 자기들이 압박을 주는 거죠 자기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 더불어 사는 도시공동체, 안양아카데미 테마타운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의 안양아카데미테마타운은 국내에서는 도시공동체형 대안주거지인 코하우징의 대표주자로 선보이던 주거단지다. 1991년 여름 서울대 석박사과정의 인문사회과학 동문 10여 명이 모여 서로 함께 연구하며 공동체 생활을 도모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을”을 목표로 설립한 코하우징이다. 코하우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협동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 즉 사회·경제적 실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주형태” 혹은 “공동 주거를 함께 모여서 공동체와 프라이버시간의 균형을 제공하는 소규모 근린집단(10~50가구)으로써 공동생활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대안주거”로 정의한다. 따라서 코하우징은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토지를 선정하여 매입하고 마을을 설계하여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마을을 이루고 개인의 사생활은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의 공동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고민을 나누고 자치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상호의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주거 형태의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코하우징은 구성원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되는 것이며, 공동 주거시설은 활동, 노동, 놀이, 아이 보호 등의 개인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며 이웃과의 공동체를 위해 디자인된 곳. 따라서 공동 주거의 주거디자인은 이웃, 계층, 세대 간의 교류를 도모할 수 있으며, 공동시설물과 정원을 통하여 여가시설의 충만을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간이다.



안양아카데미 테마타운 입구 음악, 영화관, 헬스클럽, 에어로빅



안양아카데미 테마타운 전경

당시 30대 초반의 동문이 모여 1992년 착공하여 1996년 네 차례에 걸쳐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공사를 수주한 삼요건설은 코하우징을 위해 설립된 회사였다. 1992년 1차 1동과 2동 19가구로 시작하여 1996년 11동 88가구로 늘어났다. 3차 분양까지는 코하우징의 성격이 강했으나 8동, 9동, 10동, 11동을 4차 분양하면서 초기에 코하우징을 시작한 가구는 32가구였으며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였다. 애초 계획과는 달리 안양아카데미테마타운은 일반분양 비율이 높기는 했으나 기존의 아파트나 주거단지와는 다르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들은 장을 한 번에 보아서 서로 나누어 사용한 다거나, 가족끼리 모여서 늦은 밤까지 모여서 이야기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이웃집에서 놀고 잘 수 있는 공동체 분위기를 유지해갔다. 당시 자모회라는 조직은 단지의 전체적인 관리운영을 총괄했는데 이 자모회는 놀이방에 자녀를 보낸 주부들이 모여서 만든 자생조직이다. 이들은 단지의 관리를 담당하고 청소용역을 주지 않고 대신에 각 가정에서 순번제로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소풍, 크리스마스장식, 재롱잔치, 매월 생일잔치와 청소 등의 각종 행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단지에 있는 놀이방 원장도 단지 주민이 원장직을 맡으며 공동육아 방식으로 놀이방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단지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시설로는 영화음악감상실, 독서실, 헬스클럽, 전산실 등 각 동마다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건축과정에서 불거진 재정문제 등은 코하우징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양아카데미테마타운과 같은 코하우징은 도시공동체의 특징을 지닌 대안주거지로 건축 시작과정부터 마감단계까지 모두 함께한다는 원칙으로 스스로 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받을 만한 도시 공동체형 주거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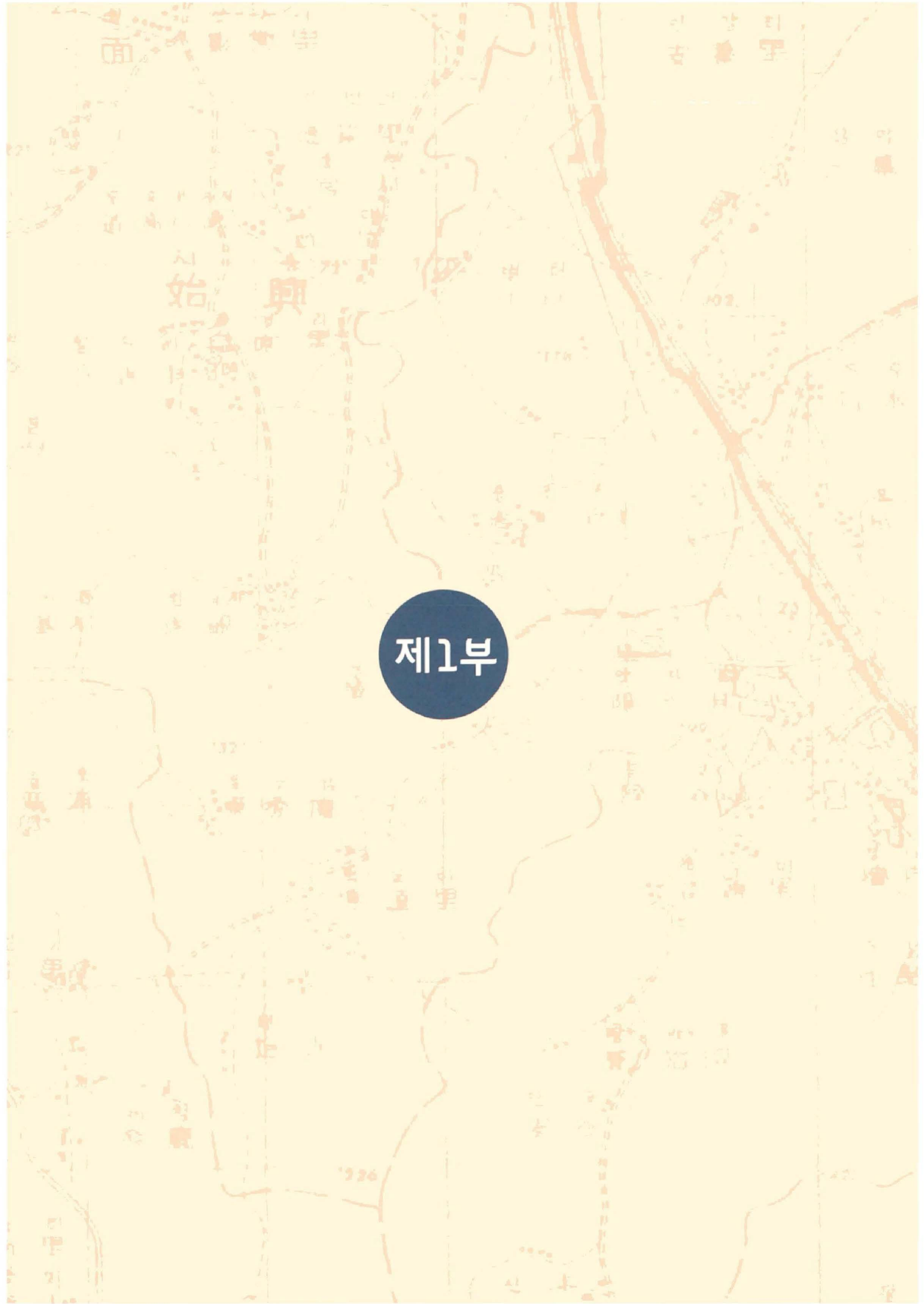
## 모두가 살기 좋고 편안한 만안을 위하여

안양시 만안구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모두가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왔다. 천년의 세월을 통하여 만안을 만들어 왔다. 자연마을을 만들어 온 만안은 일제 강점기와 근현대를 지나면서 지금 현재 많은 몸부림을 앓고 있다. 이제 만안구는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림다. 만안구에서 인사해 볼까요!

만안하세요!

目錄





제1부



안양을 다시 읽다



目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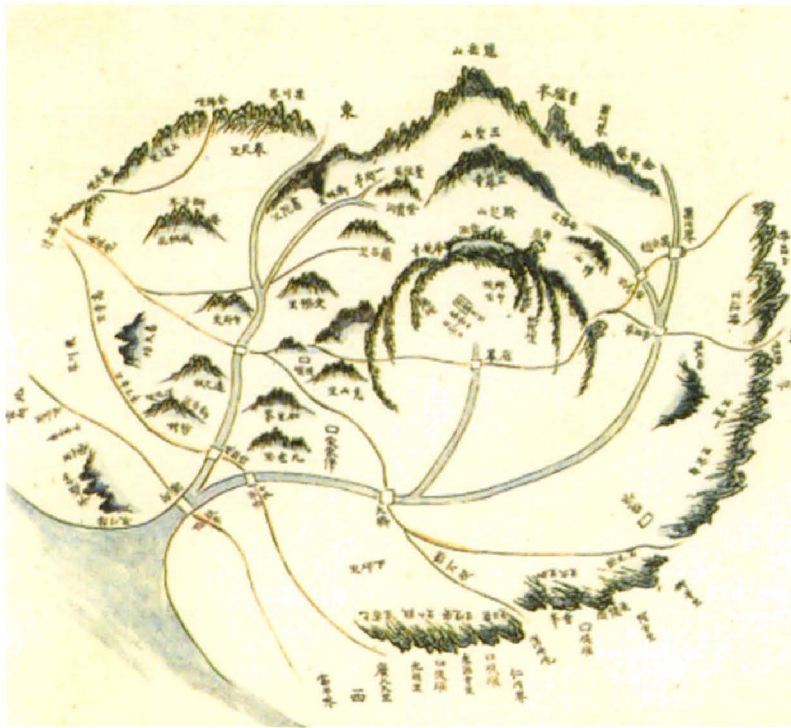
선인들의

지혜를 통해서 본

안양

# 안양의 지리적 형상과 풍수의 이해

## 안양의 나들목



경기읍지 시흥현도

행정구역상의 위치를 보면 안양은 서울의 남서부, 경기의 중부에 있는 옛 시흥군 땅이다. 안양의 동쪽에는 성남, 서쪽에는 안산, 남쪽에는 의왕과 군포, 북쪽에는 서울 금천구 및 관악구 등과 이웃해 있으며 그 사이에 과천, 광명 등과 연결해 있다. 안양으로 들어오는 길은 조선 시대에는 북쪽에선 남태령을 넘는 과천 길과 지금의 석수동을

통하는 시흥 길이 주된 진입로였다.

수원에서 서울 사이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청계산과 관악산, 그리고 수리산 등 큰 산이 가로질러 있다.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로 나아가는 길이 과천 길이고 관악산과 수리산 사이가 시흥 길이다. 과천 길을 흐르는 천은 인덕원천(학의천)이고 시흥 길은 군포천(수암천과 안양천)이다.

조선 시대에 수원을 둘러싸던 5개 군현, 즉 용인·진위·안산·시흥·과천 중에서 북쪽의 두 개 현이 곧 시흥과 과천이다. 4개 시, 즉 과천·의왕·안양·군포는 서로 붙어 있어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두 길로 갈라지는 서울 길 때문에 시흥길에 속한 안양과 군포, 과천 길의 과천 그리고 두 길로 갈라지기 전의 의왕으로 나눌 수 있다. 시흥이 금천(吟川)을 대신하여 정식 읍호(邑號)가 된 것은 조선 정조 임금이 화성으로 원행하던 해인 1795년 2월1일이다. 안양은 때로는 과천에 속해 있었으며 시흥군에서 독립하여 1973년에 시로 독립하게 된다.





경기읍지



경기읍지 시흥현도

## 안양의 지세와 자연경관의 특성

안양의 지세를 변계량은 “산은 관악과 연하여 평야를 둘렀고, 물은 청계로 내리어 큰 하수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안양의 진산인 관악산과 삼성산이 솟아 있고, 삼성산의 안양사에서 발원한 안양천이 한강을 향해 흐른다고 기록되고 있다.

안양은 한남, 한북정맥의 울타리 안에 걸쳐 있다. 안성 죽산면의 칠장산에서 뻗어 나간 산줄기를 한남정맥이라 부르는데 수원의 광교산과 안양의 수리산으로 이어지고 김포평야를 거쳐 강화 문수산성에서 한강으로 몸을 숨긴다.

안양은 서남쪽에 수리산, 북쪽으로는 관악산과 삼성산이 있고 남동쪽의 모락산에 둘러싸인 타원형의 분지에 자리 잡은 안정된 형상을 한 곳이다. 안양의 산악지형은 대부분 만안구에 분포되며, 삼성산과 수리산 권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구릉지형은 산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안구에 주로 분포한다.

수리산은 한남정맥의 주요한 산으로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의 경계지 구실을 하는 산으로 주변에는 수암산, 군자봉 등이 있으며 정상에서는 안양시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 관악산은 서울의 사신사 중 하나이다. 조선 시대의 한양은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여 청룡인 낙산, 백호인 인왕산, 안산인 남산이 있고, 관악산은 조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날의 서울은 동서남북으로 확장되었고 북한산을 주산으로 하여 용마산과 덕양산이 청룡백호, 관악산이 서울의 안산(案山)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악산은 안양시, 과천시, 서울시 관악구와 경계지 구실을 하는 산으로 북한산, 남한산 등과 함께 서울 분지를 이중으로 둘러싼 자연의 방벽으로 옛 서울의 요새지를 이루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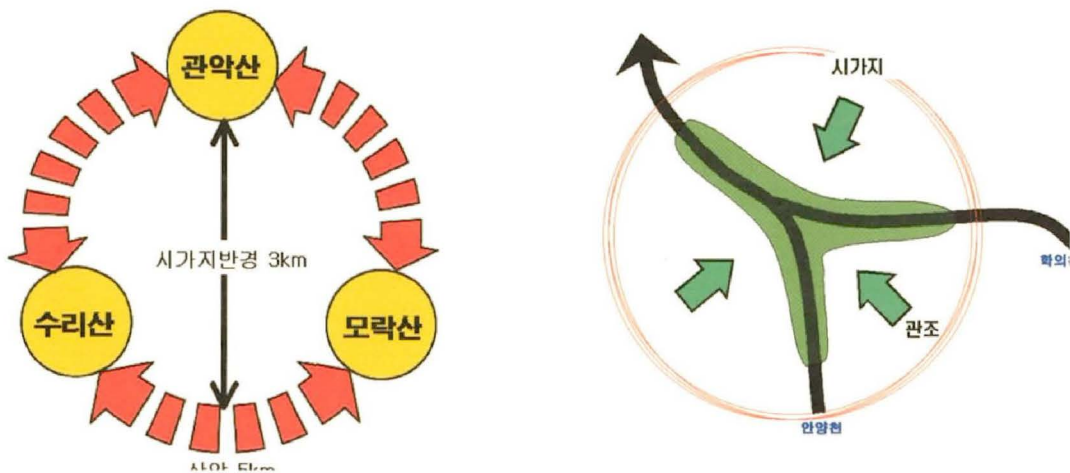
며 예로부터 개성의 송악산, 파주의 감악산, 포천의 운악산, 가평의 화악산과 더불어 경기 5악의 하나로 소금강이라 불렸다. 관악산의 망해암은 조선 태종 때 한양의 풍수적 균형을 위해 중수되었다. 망해암의 창건은 관악산의 연주암처럼 기암괴석 틈바구니에 웅색하게 지어진 지형적 특징으로 볼 때 드센 기를 누르고 취약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비보사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산은 안양시와 서울시 관악구를 경계로 하는 산으로 관악산에서 서쪽으로 뺀어 내린 능선에서 우뚝 솟아오른 바위로 된 암산이다. 왕건이 금주, 과주 등의 고을을 정벌하기 위하여 이곳을 지나다가 능정이란 스님을 만나 안양사를 지어 오늘날의 안양시 명이 탄생되는 유서 깊은 곳이다.

모락산(慕洛山)은 의왕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산으로서 정상에 오르면 시내는 물론 안양, 군포, 과천, 서울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이 아주 좋은 곳이다. 모락산은 해발 385m의 낮은 산이지만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에 이어 다섯 번째로 조망이 좋은 산이라고 하여 북쪽의 관악산, 동쪽의 청계산, 백운산, 광고산을 볼 수 있고 서쪽으로 수리산이 보인다. 근래 발행된 지도에는 모락산(幅洛山)으로 표기 되어있지만 정조 당시 발간된 원행정례(圓行定例)와 전주 이씨 임영대군파 족보에는 한결같이 모락산(慕洛山)으로 되어있다.

### 안양의 자연경관 구조

안양의 자연경관은 크게 관악산 - 수리산 - 모락산의 산악경관이 시가지의 배경이 되어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중심부를 흐르는 학의천과 안양천이 선형 경관축을 이루고 있다.



안양의 자연(산악, 하천)경관 구조





안양의 지형특성

안양시의 하천축은 크게 안양천이 남북축을 이루면서 시가지를 동서로 양분하고 있으며, 학의천이 동서로 관통하여 안양천과 합류하면서 동안구를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다. 안양천과 학의천은 안양시의 중심적인 하천축으로 넓은 시각량이 확보되며,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녹지고리로 자연경관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경관요소가 되고 있다.

수암천, 삼막천, 삼성천, 삼봉천 등 안양천 지류의 일부

구간에서는 협소한 하천 변을 따라 고층아파트단지가 근접하여 입지함으로써 아름다운 하천과 산세를 볼 수 있는 시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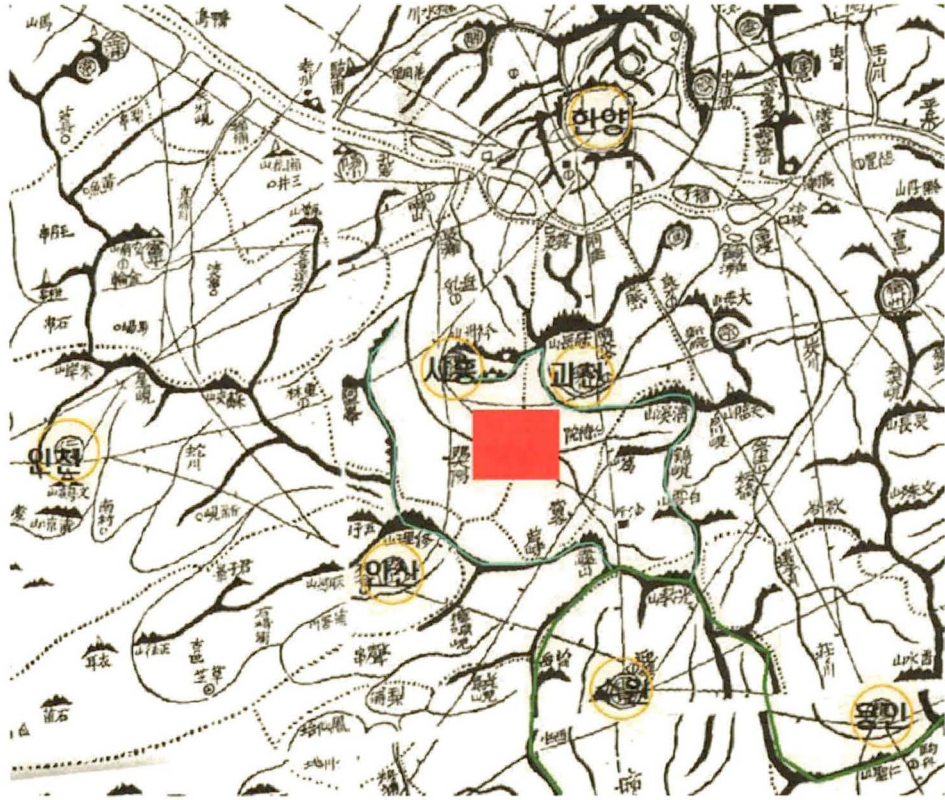
## 한남정맥과 안양의 주산

백두대간에서 분지한 정맥이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인데 한남정맥상의 백운산을 주산으로 안양이 입지하고 있다. 안양을 둘러싼 곳에서 한남정맥의 주요한 산은 광고산, 백운산, 수리산, 수암봉이 있다. 대동여지도에 시흥은 관악산이 주산으로 되어 있으나 관악산은 오히려 수리의 소지맥에 가깝다.

한남정맥은 우리나라 1대간 1정간 13정맥 중 가장 낮게 비산비야(非山非野)를 이루고 있는 산줄기이다. 백두산을 출발한 백두대간룡이 보은 속리산에서 북쪽으로 한남금북정맥을 만들었고 이 산줄기는 죽산 칠현산에서 금북정맥과 한남정맥으로 갈라진다.

백두대간 상 속리산 천황봉에서 분기하는 한남금북정맥은 안성 땅에 이르러 두 개의 산줄기를 낳는다. 하나는 칠현산을 주산으로 하는 금북정맥이고 다른 하나는 칠장산을 주산으로 하여 한강의 북서쪽을 따라 김포의 문수산까지 이어지는 178.5km 산줄기인데 이를 산경표에서는 한남정맥으로 표기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의 안양



백두대간의 한남금북정맥



한남정맥은 칠장산과 용인 부아산(403.6m),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위 석성산(471.5m)을 지나 향린동산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고속도로 신갈 분기점을 낮게 넘는다. 그리고 다시 소실봉(188.2m)을 세우고 심곡서원 뒷산(136m)으로 43번 도로를 건너 응봉(236m)을 만들고 형제봉(448m)을 지나 수원의 주산인 광고산(582m)을 이룬다. 광고산에서 백운산(564.2m), 오봉산(205m)을 거쳐 안양 군포의 주산인 수리산을 만든다. 여기서 한남정맥은 계속 북서진하여 김포 월곶면 문수산(376.1m)과 강화해협을 건너 강화도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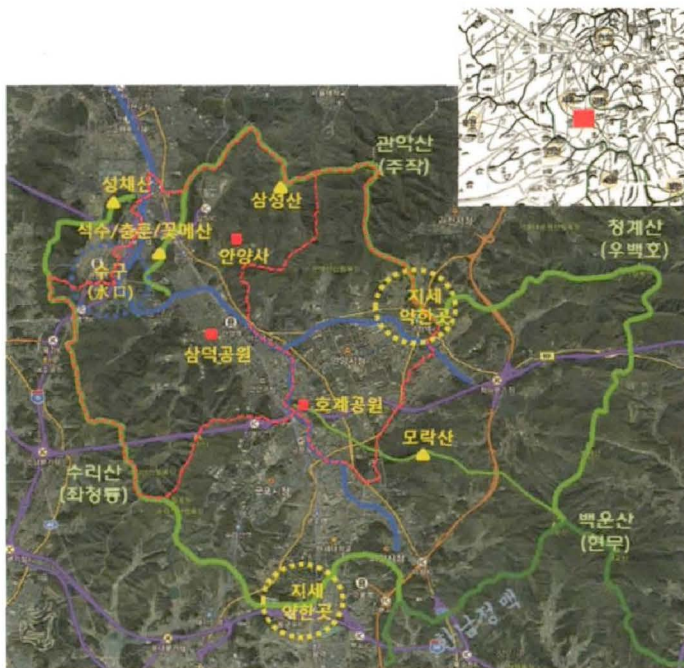
## 안양의 풍수지리와 경관해석

풍수지리상 안양의 입지는 백운산(白雲山)(玄武)을 주산(主山)으로 수리산(左靑龍), 청계산(右白虎), 관악산(朱雀)이 사신사(四神砂)를 이루는 북서향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관악산과 삼성산이 주산이라 표시되어 있다.

백운산에서 분지한 중심지맥은 모락산을 지나 호계공원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관악산에서 분지한 지맥인 석수/충훈/꽃메산과 수리산에서 분지한 성채산이 만나는 지점이 수구(水口)에 해당하며 이중으로 잘 여며져 있다. 일직분기점이 수구를 보강하는 형국이다. 석수/충훈/꽃메산, 일직분기점, 성채산이 3중의 수구막이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석수/충훈/꽃메

산이 서낭당 숲, 마을 숲, 수구막이 숲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안양의 수계(水界)의 상류에 군포와 의왕 일부가 위치해 수환경과 풍수지리 경관보전은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 지역이 지금은 행정구역상 3개 시로 나누어져 있으나 같은 수계에 입지해 있는 동일 생활권으로서 이 같은 행정구역이 자연계를 벗어난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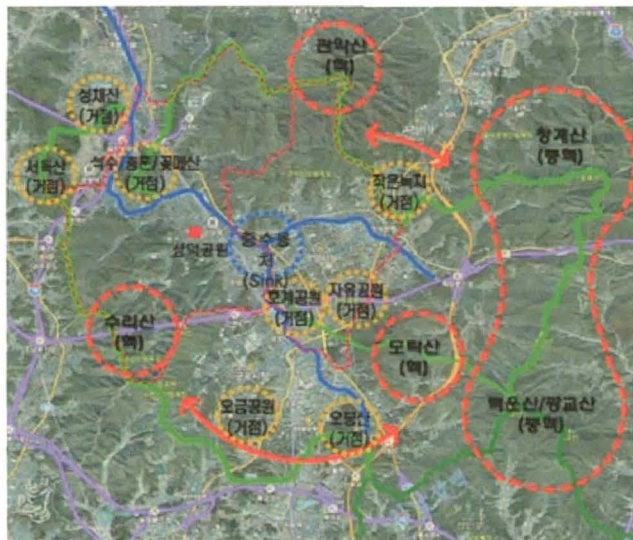
안양의 풍수지리

## 안양의 그린네트워크와 경관체계

안양을 그린네트워크 체계로 살펴보면 1개 중핵, 3개 핵, 8개 거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양은 청계산-백운산/광교산의 중핵을 중심으로 우측 산맥으로는 관악산 핵이 있고 좌측 산맥으로는 수리산 핵이 있으며, 중심산맥으로 모락산 핵이 있다.

청계산 핵은 작은 파편의 녹지거점들에 의해 관악산과 연결되고 석수/충훈/꽃메산 거점 녹지에서 끝을 맺는다. 백운산/광교산 핵은 오금공원과 오봉산 거점녹지에 의해 수리산 핵과 연결되고 광명시가학동과 안양시 박달동에 걸쳐 있는 서독산(書讀山) 거점/광명시 일직동의 성채산(城砦山) 거점에 이르고 있다.

비산동 중앙초등학교와 덕천교 부근이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하천의 중수용처(S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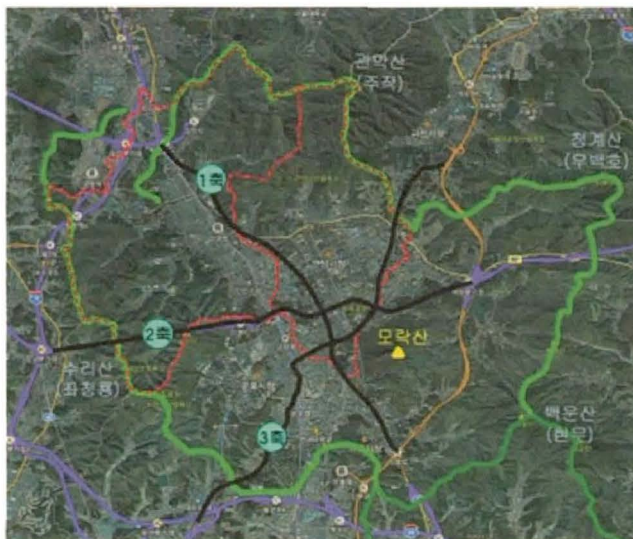
안양의 그린네트워크 체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안양의 그린네트워크 체계는 풍수지리체계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안양의 조망 가로와 풍수지리 체계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십 년간 진행돼온 도시개발에 따라 도시공간 구조가 인위적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안양시의 조망가로는 크게 3가지 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제1축은 석수IC에서 의왕IC를 잇는 축이다. 제2축은 조남분기점에서 학의분기점을 잇는 축이다. 제3축은 둔대분기점에서 과천시청을 잇는 축이다.

조망가로의 조망 대상은 주변의 주요 사신사를 이루는 수리산, 청계산, 관악산, 백운산이다. 백운산은 원거리에 있어 모락산이 조망대상이 되기도 한다.



안양의 조망경관체계



## 안양의 생활문화경관 변천

### 1950년대의 생활문화경관



조선 시대 안양 지역은 왕도 한양의 주변지역으로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양민 거주지역이었다. 현재의 만안구청 일대는 내시 등에게 하사한 토지로 기록에 남아 있다. 1949년 소작제도의 폐해를 타파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농지개혁 조치에 따라 농민에게 분배한 농지가 많았던 지역이다. 조선조 이전부터 원래 현재의 인덕원을 거쳐 남태령으로 가는 길이 주된 길이었다. 조선조 정조대왕 때 석수동에서 주점동을 거쳐 지지대 고개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을 찾으면서 사실상 지금의 만안 지역이 발전하는 전기를 맞게 된다. 나아가 안양은 1905년 일제에 의해 경부선이 개통하고 안양역사가 생기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분수령이 된다. 특히 1930년대부터 철도교통 및 섬유산업의 중심으로 인구나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

## 1960년대의 생활문화경관



일제에 의해 조성된 섬유공장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모여들면서 안양은 광복 후인 50년대까지 인구와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된다. 이처럼 풍부한 노동력과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안양은 60년대 후반 안양천과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기존의 섬유업과 더불어 제조업 공장이 다수 입지하게 된다. 특히, 기계, 전기전자산업이 안양동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안양은 전국 10대 도시로서의 위상과 부를 자랑하게 된다.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평촌동 지역이 농경지인 데 비하여 만안지역은 일본강점기부터 1960년대를 거치면서 안양의 주거, 경제,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 1970년대의 생활문화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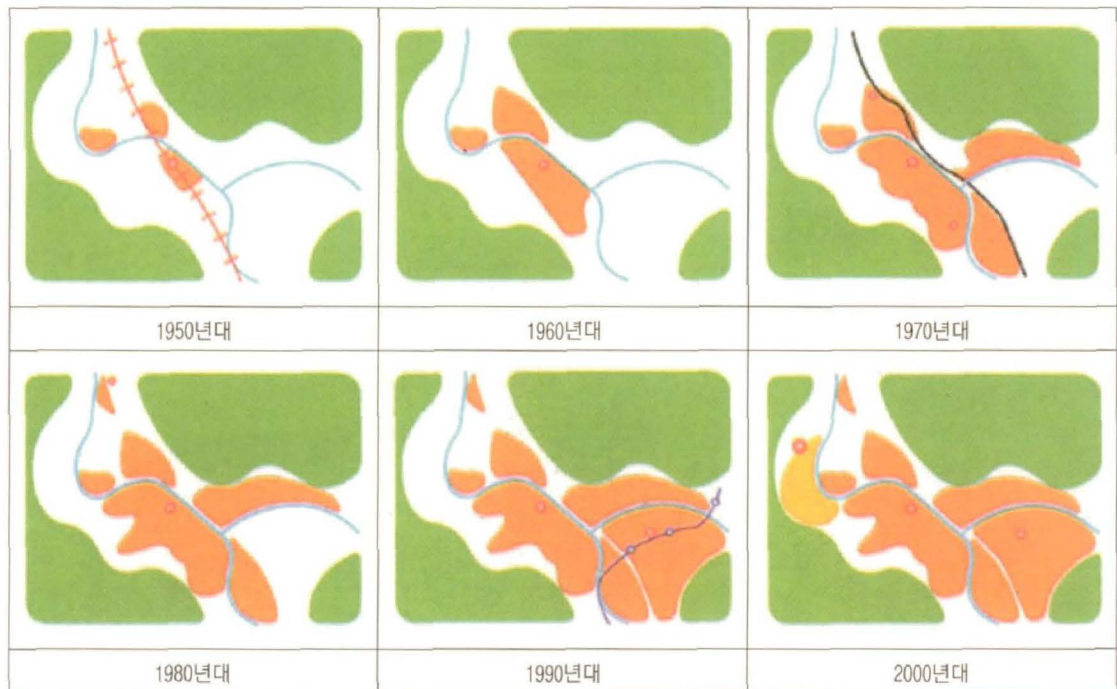
안양은 1941년에 안양면이 되고 1973년에 시흥군에서 분리되어 안양시로 승격하게 된다. 안양은 시로 승격한 이후 경인지역의 공업화와 더불어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급격한 성장을 지속하게 된다. 지금의 중앙로도 70년대 현재의 차로 폭으로 개설되었는데 당시에는 주민으로부터 지나치게 넓게 만들었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다.






## 1980년대 ~ 2000년대의 생활문화경관

아래의 공간구조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양의 공간개발은 만안지역은 특별한 변화가 없이 동안지역을 중심으로 변화된 모습이 뚜렷하여 안양도시권을 동서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생활권을 형성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만안지역의 생활문화경관은 공간구조상의 특별한 외연적 변화는 없이 공간 내부에서 건축물의 개량과 현대화를 통한 점진적 변화가 주를 이루었다. 90년대에는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안양의 생활문화경관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한 만안구의 제1도심(원도심)과 안양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안구의 제2도심(신도심)으로 양분되는 공간구조를 갖추게 된다.



안양의 경관변천(출처 : 안양시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 2001)





제2부



# 마을 속으로 들어가다

目錄



안양,  
근현대사를  
걷다

## 일제 수탈기와 이데올로기의 상처들

### 한반도 침탈을 위한 경부철도 쇄석 공급처:채석장

안양지역은 일제가 경부선 철도 안양역을 개설하고 안양천의 수량을 이용한 방직공장 등을 세우면서 일제에 의한 조선 근대화의 거점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그만큼 안양은 곳곳에 친일 수탈의 아픔과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다.

현재 수리산 시민공원이 들어선 안양9동 채석장 역시 일제가 경부선 철도(명학~평택) 구간을 부설하며 쇄석용 자갈 채취를 위해 1901년경부터 바위산을 온통 파헤치는 현상이었다.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구 화단극장에서 수암천을 따라 병목안에 이르는 구 철길 역시 여기서 캐낸 쇄석을 경부선 철도 공사 현장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한 것이다.

###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의 흔적

최근 공개된 기록에 의하면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친일 인사와 단체의 명단이 일부 공개된 가운데 일제 침략의 수단인 전투기를 제작해 제공하던 비행기 제작 공장이 안양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비행기가 친일파들에 의해 일제 군국주의자들에게 헌납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출처 :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역사문제연구소).

화신백화점을 운영한 박흥식은 일제가 연합국에 항복하기 한 해 전인 1944년에 조선비행기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흥식은 유통업체 화신백화점의 총수로서 1942년 일왕 히로히토를 만나 “대동아전쟁 완수에 전력을 바칠 것”을 맹세하는 등 뚜렷한 친일 행적을 남긴 인물로 1938년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일제의 패색이 짙던 1944년 안양에 조선 비행기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비행기 주식회사는 총독부 힘을 빌려 인근 토지를 몰수하고 그 부지에 건설하였으며 생산시설은 조선군사령부 병참부의 중개로 관동군의 지원을 받았으며 공장 노무 인력은 당시 시흥군 일대에서 차출된 징용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박흥식은 자신이 운영하던 광신상업학교를 조선비행기공업학교로 개편하여 비행기 제조 기술공을 양성하려 했던 사실도 새로 밝혀져 실제로 전쟁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안양에서 비행기 양산체제를 갖추려던 계획은 거의 완성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조선비행기주식회사가 자리했던 위치는 현재의 안

양시 안양2동 일대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 부지는 해방 후 1948년 10월 금성방직이 인수하여, 1967년 대한농산(대농)에 매도하였으며, 1977년에는 한국토지금고에 의해 일반에 매각되어 주택단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비행기 헌납자 명단과 생산 공장이 기록되어 있다, 그 자료에서 보면 경성, 경성제일, 조선경북, 경기시흥 등 행정구역의 이름이 새겨진 비행기들을 확인할 수 있어 안양에서도 비행기를 생산, 헌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금성방직과 태평방직

한편 조선비행기주식회사는 일제 패망 이후 과거사 청산을 하지 못한 채 무죄판결을 받은 박흥식이 조선군사령부로부터 조선비행기에 투자한 금액과 격려금까지 받으면서 운영되다가 이후 금성방직을 설립한 김성곤에 의해 방직회사로 변모하게 된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정부는 연합군의 일본 폭격을 피하고자 일본 내 주요 산업시설을 한국으로 피신시켰다. 이에 해방 직후 안양역전에는 일본방직 소유의 방직기 2천 추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출처 : 한국재벌형성사, 이한구).

금성방직을 설립한 김성곤은 방치된 방직시설을 이용하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관할관서인 미 군정청과 교섭하여 안양에 소재한 조선직물주식회사(조선비행기주식회사)의 일부인 3천 평을 임차해 인조견사 생산에 나서게 된다(출처 : 쌍용그룹 전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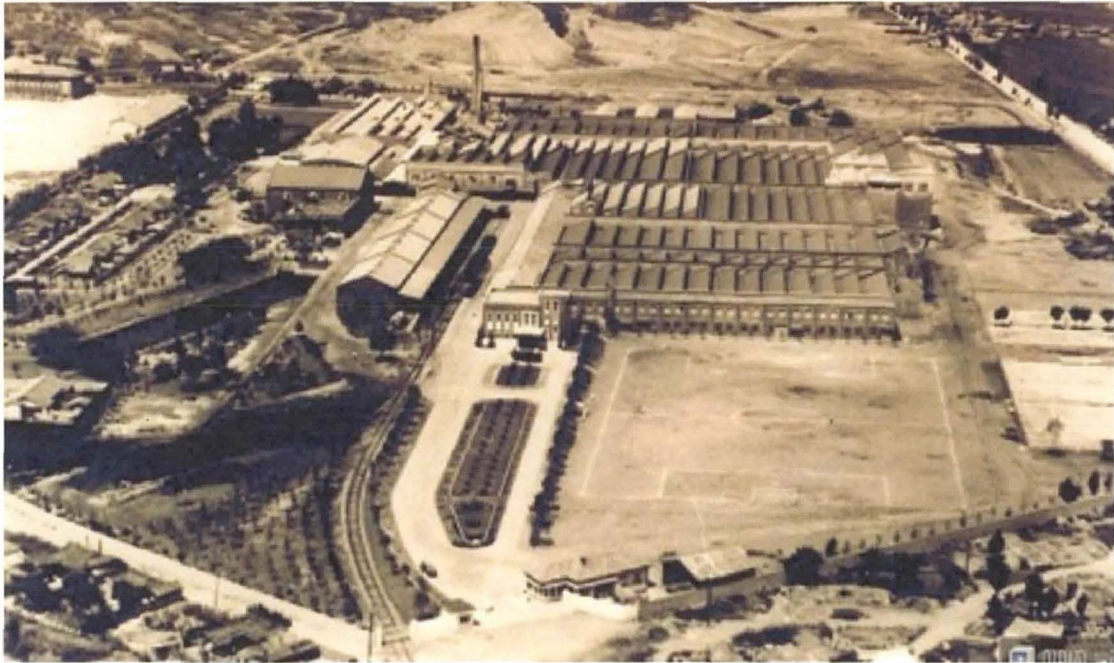
김성곤은 기술자를 대동, 안양역전에 나뒹굴고 있는 기계부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미 군정청 관재처에 제출하여 사용 가능한 431대를 확보해 불하받은 후 공장 귀퉁이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금성방직의 시초이다. 매각금액은 당시 화폐 단위로 2천만 원 정도였다.

6.25전쟁으로 금성방직이 전소되자 김성곤은 UNKRA 원조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성방직 공장 재건에 나섬으로써 재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1956년 5월 15일에는 현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자리에 있던 태평방직을 인수하고 공장 확대에 나섰다.

태평방직은 1953년에 자본금 1억 환으로 안양읍 안양리 97번지 일대에 설립된 삼흥방직의 후신으로 방기 1만 추, 직기 50대를 구비하고 1954년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금성방직에 인수되었다가, 1967년 10월 금성방직과 함께 대농에 매각됐다.

사진은 1960년대 당시 전국에 3개밖에 없던 잔디 구장의 하나였던 금성방직 축구장(현 안양대농단지)이다. 이 시기에 금성방직 잔디 구장에서 열린 축구경기를 자주 보면서 자





금성방직

연스럽게 안양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싹트게 되었다. 이것이 축구도시 안양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 양잠, 포도 그리고 팔도노동자

안양의 산업화는 1929년, 일본인 농장주에 의해서 설립된 ‘고뢰영농법인(高瀨榮農法人)’을 주축으로 하여 양잠, 포도와 같은 과수를 위주로 고부가가치 근교농업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32년에 일본인 자본에 의해 현 대농단지와 석수동에 각각 ‘조선직물주식회사’와 ‘조선견직주식회사’라는 근대적 방직공장이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양의 산업은 1961년 5·16 이후 공업화 정책에 편승하여 1971년에는 제조업체 수 64개를 기록한 후 ‘75년 143개, ‘80년 374개, ‘91년 743개, 그리고 ‘98년 말에는 1,111개 31,509명의 종업원이라는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60년대 당시 안양의 대표적인 공장은 ‘금성방직’으로, 전성기에는 종업원 수가 약 3,000명에 달했고, 금성방직 월급날만 되면 안양 경제가 봉급특수를 누릴 정도로 지역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기업이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금성방직’의 영향이었다. 금성방직 공장이 자리를 잡

고 여공들이 이주해 오면서, 한 명의 여공은 여동생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데려오게 되었고, 이것이 가족 전체가 이주해 오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안양에는 제지공장이 많아서 남자들의 유입도 많았다. 현재 안양에서 8도향우회 활동이 활발한 데에는 그런 배경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금성방직은 1967년 대한농산(이하 대농)에 매각되었고, 대농은 1977년 청주공단으로 이주하였다. 대농이 이주하면서 공장용지는 한국토지금고에 의해 일반에 매각되어 주택단지로 변모한다. 그 자리가 바로 국민은행 안양지점 뒤편. 오늘날 국민은행 뒤편 안양3동 지역을 ‘대농단지’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러한 사연이 담겨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섬유공장의 이전이 있었던 데 반해,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안양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입주한 것을 주요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70, 80년대에 안양이 공업지역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과의 인접성, 교통의 편리함,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하천 폭을 가득 메울 정도(수심 1미터 이상)의 풍부한 안양천에서 제공하는 최상의 공업용수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양명고교 앞에는 드럼통으로 만든 ‘줄배’가 운행될 정도로 수량이 풍부했으며, 당시 논이던 평촌지역은 안양천의 저수조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안양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대농’을 비롯해 31개의 대기업이 타 시군으로 이전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도권 공업입지 억제정책과 국토균형발전법등의 영향으로 안양시 관내에 입주해 있던 만도기계, 한국제지, 삼덕제지, 동아제약, 동일방직, 금성통신, 삼화왕관 등 상당수의 대기업이 외지로 이전하면서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소 잃어가는 추세이기도 하다.

## 노동운동의 태동과 근로자회관

일제에 의한 방직공장 설립 등 수탈경제시대를 거치면서 이후 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지방에서 이주해 오는 10대, 20대 여성노동자들이 많아졌지만, 그들의 주거환경은 여의치가 않았다.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처음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장내동성당(현 중앙성당) 정원진 루가 주임신부였다. 근로자회관은 어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주거환경을 염려한 한 신부의 소박한 꿈이 불씨가 돼 만들어졌다.

정원진 루가 주임신부는 어린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독일 수녀 말가리다 관장에게 얘기하였고 당시 수원교구장의 결정으로 독일/오스트리아 가톨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



였으며, 독일/오스트리아 가톨릭교회는 여자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설립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후 근로자회관은 여성근로자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1969년 여자기숙사에 이어 1976년에는 남자기숙사까지 증축하였는데, 이후에도 근로자회관은 ‘광주항쟁 이후 수배자 보호’ ‘노동법 강좌(서강대 김어상 교수)’ ‘안양에서 유일하게 노동절 행사 개최’ ‘근로자 의식화 교육’ ‘1986년 미술교실’ 등 87년 이전의 암울했던 시기에 안양에서 이루어졌던 노조설립(당시는 옥외집회가 금지되던 시절)은 물론 미술학교, 우리 그림/우리 민요 연구회, 독서회 등을 주도하며, 지역문화운동의 지원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

1969년 9월 10일, ‘근로자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국제가톨릭형제회(AFI)가 운영해 온 안양 전·진·상 복지관은 안양에 산재한 공장의 지방이전 등 산업구조의 개편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천주교 수원교구의 결정으로 2007년 12월 31일 아쉽게도 문을 닫게 된다.

## 한국전쟁의 흔적들

한국전쟁 당시 수리산 전투는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이 1951년 1월 25일부터 재반격 작전을 전개하여 한강 남안으로 진출하고 있을 때, 미 제25사단 제35연대와 터키여단이 수원 서북방의 수리산을 공격하여 중공 제50군 예하의 제149사단을 격퇴하고 수리산으로 진출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35연대와 터키여단은 미 제999포병대대와 미 제89전차대대의 지원으로 수리산을 양의 포위하여 중공 제149사단의 거점을 공격한 끝에 완강히 저항하는 증강된 연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목표를 탈취하였으며, 목표 탈취 직후 개시된 중공군의 역습도 물리쳤다. 이 전투의 결과로, 중공군은 수원 지역에서 물러나 안양 북방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유엔군은 한강선으로의 진격을 계속하게 되었다.

미 제25사단은 수리산을 탈취한 후 2개의 기갑부대로써 국도와 소사도로를 따라 공격하여 중요지역을 확보하면서 한강선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도를 따라 공격하는 돌핀특수임무부대는 제89전차대대장 돌핀 중령과 제27연대 1대대장 길버트 책 중령이 지휘하였다. 돌핀부대는 산본동 99고지에서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하여 수리산이 점령되기를 기다리다가 안양 동북쪽에 솟아 있는 무명 303고지를 점령하고, 바래트 특수임무부대는 소사도로를 따라 신촌-부노리지역으로 이동하여 운흥산-무명150고지를 점령하도록 계획을 하였다.

2월 4일 공격대기지점을 점령한 이들 특수부대는 공중과 지상으로 공격지역을 정찰



한 결과 안양천의 얼어붙은 습지를 통과하여 정면에서 303고지를 강습하고 나서 안양시가지를 통과하여 무명175고지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2월 5일 아침 7시에 돌핀부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75밀리 무반동총과 4.2인치 박격포의 지원으로 일제히 공격을 하였다. 9시에는 보병부대가 전차 사격의 엄호를 받으며 무명 303고지를 공격을 시행하였다. 적의 저항은 강하지 않았다. 13시가 되었을 때 돌핀부대는 무명303고지를 한 명의 피해도 없이 탈취하였다. 이때 산 위에는 56구의 적군의 시체가 있었다. 돌핀부대가 수리산의 후방에 있는 무명 303고지를 탈취하자 슬기봉지역에서 저항하던 중공군도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6일간의 수리산전투는 막을 내리게 된다(중령 임종득(모락산대대장, 안양시민신문 03/07/11일자 발췌).

국방부가 정보사를 이전할 예정인 안양시 박달동에는 현재 정보사 예하부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육군 1113공병단과 155공병대 사이에 정보사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9만 3천여㎡ 규모의 군용지가 있다. 또한, 인근에는 서울시 예비군훈련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에 군용지(평양육군병기창 안양분창)로 건설된 곳으로 산악분지형으로 보안 및 방호에 유리하고 시설 배치에 필요한 공간 확보 등 영구 주둔지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1950-60년대에는 처음으로 미 군사기지가 들어섰고, 이후에도 우리 군 시설이 자리해 왔다. 변원신 선생의 구술증언으로는 어렸을 적 미군들이 대형 트레일러에 미사일을 싣고 흙길을 가던 기억이 있으며, 안양과 서울 경계 야산에는 탄약고 즐비했다고 한다.

현재 석수동 대림아파트 자리는 6.25 당시 83보급대대 미군부대(83rd Ordnance Battalion)가 주둔했던 곳이다. 83보급대대 미군부대는 60년대 말까지 주둔했는데, 여기에서 근무한 닐 미샬로프(Neil Mishalov) 씨는 1968년 3월부터 1969년 4월까지 근무하며 다양한 사진을 찍었다. 그 중 많은 분량이 그의 Homepage인 Mishalov.com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서울 사진도 많이 찍었지만, 그의 사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안양이다.

닐 미샬로프씨는 2003년 10월 34년 만에 안양시의 초청으로 한국을 다시 찾아 안양 시민축제에서 ‘닐 미샬로프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미샬로프는 안양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 안양의 교육, 영화 그리고 시장의 출발

### 안양교육의 효시

안양 유아교육의 효시는 ‘장내동성당 안양유치원’이다. 장내동성당은 서울교구가 1937년 밤나무밭을 교회부지로 매입한 후 목조 함석지붕을 건축하여 설립되었는데, 1956년에는 성당 안에 유치원을 개설하였다. 이것이 안양시 유아교육사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1926년에는 안양공설시장이 현재의 구시장 자리에 들어섰고, 과천공립보통학교(1912), 군포공립보통학교(1926)에 이어 안양공립보통학교(1927)가 개교하게 된다.

당시 안양공립보통학교 개설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그때의 사연을 이렇게 적고 있다.

“公普期成困難, 경찰간섭으로.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안양은 군의 중앙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여 戶數도 상당하므로 장차 발전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보통학교 일개소가 없으므로 수백의 아동들은 멀리 군포장, 시흥, 영등포 등지의 公普에 기차통학을 하게 됨으로써 이를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던 지역 유지 여럿이 전 군수 神尾에게 수차 탄원을 한 결과 學校費豫算에 계상한 後圖 知事의 인가를 얻었으므로 서이면 유지들이 3월초 안양공보기성회를 조직하고 학교건축비 만삼천여원의 의연금 모금에 착수하여 호당 戶稅等級에 비례하여 신청을 받게 팔천여 원에 이르러 일의 진행이 속도가 붙었으나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의연모집을 돌연 중지시킨 후 기부모집허가액을 제출한다 함으로써 동회는 할 수 없이 허가원을 제출하였던바 3월 30일부로 허가되어 다시 일을 진행하였으나 다시 경찰서가 허가증을 가져가고 연락이 없는 등 경찰의 간섭으로 일의 진행이 방해를 받게 되었다. 서의 보안계주임은 허가장을 다시 가져온 것은 정정할 것이 있어서이니 달라면 주겠다고 하였다.

안양기성회장 嚴基承씨는 군수의 양해로 도지사의 허가를 얻은 학교비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의연금을 모집하고자 한 것인데 도지사 밑에 있는 경찰서에서 또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수차 말함으로 또 허가수속을 해서 나온 허가장을 또 가져간 후 말이 없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동아일보 1927. 6. 13).”

“安養公普基地 4千餘坪 寄附



- 李容汶氏 特志.

시흥군 서이면 안양에는 반드시 보통학교 일개소는 없지 못할 지점임에도 지금까지 보통학교는 물론 서당 하나도 완전한 곳이 없어서 많은 아동이 멀리 군포장(軍浦場), 과천, 시흥, 영등포 등지를 기차로 통학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에게 기차의 위협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발전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여겨 서이면 유지 여러 사람이 분기하여 去春에 안양공립보통학교 期成會를 조직하고 邇來不斷의 노력을 거듭하여 온 결과로 약 萬圓의 거액의 의연금이 각 방면으로부터 답지하였으나 교사건축기지가 없음을 본 京城忠信洞 李容汶氏는 안양역전 하단에 있는 시가 二千圓의 四千坪을 기부하였으므로 안양공보의 출현도 불원한 장래에 있을 줄로 일반의 기대가 많다더라(始興, 동아일보 1927. 10. 21).”

현재 안양3동에 유난히 교육기관이 많은데, 그것은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의 안양3동 지역에 학교가 있었던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아사히 학교’가 설립되었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안양중학교’와 ‘안양공고’가 세워졌다. 이후에도 ‘안양여상’ ‘안양예고’ ‘안양전문대학’ ‘안양서초등학교’ 등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안양3동은 명실상부한 안양 교육의 요람지가 되었다.

지난 66년 파란곡절의 영화배우 최은희 씨가 국내 최초로 현재 관악역이 있던 곳에 세운 영화전문교육기관 안양예술학교가 이 학교의 전신으로 지난 82년 재단이 바뀌면서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가 됐다.

우리나라 연예계에는 이른바 「안양예고 사단」이 있다. 31년의 역사를 가진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 출신들을 일컫는다. 그룹 롤라 출신의 김지현, 신세대 탤런트 신은경 김민종 이상아 오현수, 개그맨 조정현 김보현 남희석, 슈퍼모델 김소연 씨 등 일일이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용구 씨는 유년시절 학교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어려서는 이지(理智)가 부실하고 시야가 좁아 활동 범위의 무대가 좁은 어린 마음에 그저 멀리서 못 가고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서만 맴돌았다. 봄에는 노적봉(露積峰)에 올라가 진달래 꽃떡 만들고 여름에는 냇가에서 물장구 치며 고기 잡고 가을에는 알밤 줍고 겨울에는 팽이치고 연 날리고 썰매 타는 등 평범하게 지냈다.

어릴 때 살던 곳은 안양3동이다. 특히 여름에는 안양 3동과 9동 사이 개울가에는 산딸기(복분자)가 많았다. 미역 감다가 알몸으로 가시에 찢러가며 따 먹었으며 그 앞 울창한 밤



나무 숲에는 황버섯, 피꼬리버섯, 밀버섯 등이 많았다. 더 들어가 수리산(修理山) 숲 속에는 싸리버섯이 풍부했는데 이 근자에는 거의 건물로 도시화가 되어 그런지 그 흔적이 없으니 자못 아쉽기만 하고 그저 추억만 있을 뿐이다.

또한, 여름철 가끔 집에서 서북쪽에 있는 박달리(현 박달동)를 지나 안양천 하류로 물놀이 겸 천렵(川獵)(투망 또는 보쌈으로 고기 잡어 매운탕 끓이기)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하나다. 그때 개울 건너 좀 더 가면 지금의 충훈부 마을(현 석수2동)이 있었는데 어려서는 참 먼 거리였었다. 집이 그리 많지 않은 동네였다. 우리는 이 마을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남이 부르는 발음대로 “춘부”라 불렀으며 이것으로 통했었다. 그 후 성장해 알고 보니 춘부가 아니라 충훈부(忠勳府)(나라에 공이 있는 장소)로 역사적인 고장의 이름이었다. 이곳 학생(이경래, 이부래 외 여러 명)들은 이곳에서 안양학교와 시흥학교에 구간 거리가 비슷해 각기 희망대로 양쪽으로 통학했다.

또한, 당시 나는 내가 다니는 안양보통학교(당시 4년제)뿐 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사는 경기도 시흥군에는 당시 내가 사는 서이면(西二面) 말고 동면, 서면, 남면, 수암면, 군자면, 과천면, 신동면 등 각 8개 면 단위로 4년제 또는 6년제 보통학교가 있었다. 북쪽으로 시흥학교(6년제) 서면학교(4년제) 군자학교(4년제) 안산학교(6년제) 남쪽으로 군포학교(6년제) 동쪽으로 과천학교(6년제)와 신동학교(4년제) 현 서울 강동구 잠실동)가 있었다.

그중 한 예를 들면 당시 서이면(안양)은 아직 학교가 없어 군포학교(6년제)와 시흥학교(6년제)로 안양에서 군포역과 시흥역으로 기차통학을 했고 안양에 학교가 생긴 후부터는 호계리(현 호계1-3동)에서는 사는 집과 학교와의 거리상 군포학교에도 가고 안양학교로도 다녔다.

또한, 충훈부(석수2동)와 삼막골(현 석수3동)에 사는 학생(하상호 외)은 안양 서이면에 속한 동네이지만 거리가 조금 멀어도 6년제라 안양학교보다 먼 시흥학교로 다녔다. 당시에는 이렇게 취학 연령(年齡)과 학구(學區)가 없었다.

당시 안양에서 군포와 시흥은 기차통학 말고는 모두가 걸어서 다녔다. (도보통학) 먼 거리는 새벽에 집을 나서야 하고 산을 넘고 내를 건너 논두렁 길이었으며 하교(下校)길은 저녁 늦어서나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맨 끝 수업인 농업시간 먼 거리 학생은 일찍 귀가시켰다.

그런고로 특히 몸이 허약한 자는 학교 출석률이 떨어졌다. 또한, 장마철에는 홍수로 안양천이 범람하면 충훈부 비산동 호계동 학생은 물이 빠질 때 까지 학교를 쉬어야 했다.

또한, 옛 속담에 “바쁠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말과 같이 농번기(보리베기, 모내기)에는 집안 일손 돕기(동생 돌보기 등)로 결석하는 사례가 많은 학생들도 있었다. 우리 세대들은 이렇게 학교생활이 있었다.

이제까지 살아남은 우리 또래 동창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참 고생도 많았고 추억과 시련도 많은 유년시절의 학창시절 이라며 당시와 지금을 비교 한다면 하늘과 땅(天地) 차이라며 현재의 학생들은 지상 천국이라며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 또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았던 옛 이야기를 다 글로 써서 남겨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과 의도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출처: 이용구, <http://www.baekak.or.kr/board>).”

## 아시아의 할리우드, 한국 영화의 시발지 안양

안양은 과거 한국영화의 시발점이었다. 안양시 석수동에 동양최대 규모의 영화촬영소가 자리했으며, 1960-1970년대 수많은 영화가 제작된 한국영화의 산실이자 메카였기 때문이다. 한국영화사를 살펴보면 지금의 석수2동인 신촌(新村)은 명실상부한 한국영화의 메카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동양의 할리우드를 꿈꾸며 (주)수도영화 흥찬 대표가 현재의 안양 석수2동군부대~석수전철역 일대에 동양 최대 규모(2만여 평으로 추정)의 영화제작소를 세워 한국 근대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당시 기공식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까지 참석해 테이프를 끊고 축하했다.

안양영화촬영소는 대지 3만 평에 500평과 350평의 스튜디오 2개 동과 수중촬영장, 현상소 및 영사실 등을 비롯하여 촬영, 편집, 녹음 등 영화작업을 일괄 처리하는 동양최대의 시설로 한국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인 이강천 감독의 ‘생명’을 첫 작품으로 제작했다.

이는 한국영화의 부흥과 1960년대 한국영화의 전성시대를 여는 중심이 되기도 했으나 초기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당시 흥행감독이었던 신상옥 감독이 1963년 인수한다.

신상옥 감독은 명칭을 ‘신필림’으로 바꾸고 1966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 최대의 영화사로 운영했다. 당시 이곳에서는 ‘성춘향’(1961),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1), ‘빨간마후라’(1964), 성웅 이순신 등 불후의 명작을 비롯하여 150여 편의 영화들이 제작됐다.

하지만 1975년 ‘장미와 들개’의 검열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하며 신필림은 재정난을 겪고, 1978년 영화배우 최은희 씨가 북에 납치되고 신 감독도 북으로 가면서 주인 잃은 영화사는 1981년 문을 닫으며 안양영화 역사는 사라지게 된다.

아쉽게도 현재 안양시 석수동의 옛 안양영화촬영소 부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신필림’ 거리 명으로 흔적만을 기억시키고 한다. 또 최은희 씨가 1966년 현 관악역 인근에 세워 운영했던 영화전문교육기관인 안양영화예술전문학교는 현재의 안양예술고등학교가 별도 재단을 설립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안



양영화예술고등학교의 교장 이름도 동명이인인 최은희라는 것도 흥미롭다.

## 서민의 삶과 애환이 서린 시장과 상권의 형성

촌락에 불과했던 안양리가 오늘날 안양의 중심지로 크게 번창하기는 일제 강점기인 1902년에 경부선이 부설공사로 안양역(安養驛)이 건설되고 1905년 안양역사가 개통돼 안양리는 교통의 요충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부선 1구간 역 중 하서면 안양리에 개설된 안양역의 개통은 호계리에 개설돼 있던 군포장을 쇠퇴하게 하고 안양역 일대는 비약적인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1912년 3천412명이던 인구수는 1925년 6천165명, 1935년 8천957명, 1940년 1만 명으로 늘어난다.

안양시사, 시흥군지, 안양상공회의소 등의 기록을 보면 일제 강점기인 1917년 7월에 호계2동 방죽말에 있던 서이면사무소가 안양1동사무소옆(안양1동 674-271)자리로 이전하고, 1924년에는 만안로에 안양지방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 안양역 앞에는 안양우체국과 안양연초조합 등이 속속 설립되면서 안양역 일대가 관공서들이 속속 들어섰다.

광복 직후에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시흥군청사가 안양 일번가 삼원플라자 호텔 자리로 이전하고 곧이어 안양경찰서, 안양읍사무소, 의용소방대 등이 추가로 들어서면서 안양 일번가는 70년까지 시흥군 행정 관가의 거리로 행정구역상 중앙동(中央洞)으로 불렸다.

하지만 1970년대 시흥군의 해체와 안양시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의 변화 속에 공공기관들이 안양6동으로 이전하면서 안양 1번가는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해 1980년대에는 먹거리, 옷가게, 유흥주점이 주류를 이루며 금융, 교통, 상권을 아우르는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1926년 1월 28일에는 철길 건너 인근 시대동에 안양시장(구시장)이 개설되어 상권의 기틀이 다져졌다. 당시 안양의 중심부인데다가 지리적으로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수암, 군자 등이 인접해 있어 시장으로서의 최적지로 서울로 가는 버스가 이곳을 통과해 지나갔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농산물을 위시하여 축산물, 포목, 일용잡화까지 다양했다. 개시(開市)한 1년 후(1927)의 연간 매출액을 보면 농산물이 15만 6천원, 잡화가 21만 2천원, 그밖에 직물, 축산물, 수산물 등 모두 50여만 원에 달했다.

상인들은 개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27년 6월 4일 단오절을 기해 대대적으로 기념식을 거행키로 했는데, <동아일보> 1927년 6월 1일 자에 안양시장 일주기념(安養市場一週



【紀念】이란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안양은 군의 중앙일 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따라서 산물도 상당함으로 동면에서는 작년 중에 안양시장을 설치한 후 유래 성적이 비상히 양호하던바 더욱이 안양번영의 일책으로 오는 6월 4일(단오일)을 기하여 전시장(全市場) 일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리라 하며 여흥으로 예기의 가무와 오산청년(烏山靑年)의 소인극(素人劇) 외 안양소년척후대 주최의 축구대회 및 동화동요회 등이 있어서 많은 흥미가 있으리라더라”

안양시장은 1933년 8월 25일, 8월30일, 9월 4일 등 장날을 기해 안양역 광장에서 안양 씨름대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음력 7월 30일 장날부터 추석날까지 장날마다 씨름대회를 개최해 1등에 황소1두, 2등에 광목 1필이 상품으로 수여하는 등 매우 큰 규모였다. 특히 1929년 안양 최초로 전기가 송전(送電)된 곳이 안양시장이 자리했던 시대동이었다.

그러나 이곳이 저지대로 홍수가 나면 안양천의 범람으로 침수되기 일췌였고, 6·25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유입하며 판잣집들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더욱이 1961년 11월 6일 안양 4동에 시장(현 중앙시장)이 개설되면서 상권이 이전하자 60년 중반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으나 안양역과 시대동 주변이 근대 안양 발전의 시금석이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안양 주민은 시대동 시장을 구시장(舊市場)이라 부르고 중앙시장을 새시장이라 불렀다.

안양권은 예로부터 넓은 평야를 가진 지역으로 조선 시대에는 농산물의 주산지였으며, 서울 인근에 있어 농산물과 축산물을 거래하는 교역의 장소로도 발달하여왔다. 조선 시대에는 현재 안양권인 시흥군 내에 방축시장(防築場市)(시흥시 광석동) 산대시장(山袋場市)(안산시 선부동), 수암시장(秀岩場市)(시흥시 수암동, ‘안산시장’으로 개칭됨) 등 3개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 후 일본강점기인 1924년에 삼거리시(三巨里市)(시흥군 수암면 능곡리), 군포장시(軍浦場市)(안양시 호계3동), 사천시(蛇川市)(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등 3개의 오일장이 형성되었다.

조선 시대 말기에 처음 생긴 ‘방축장시’는 1920년대에 ‘삼거리시’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에는 3/8일, 뒤에는 5/10일마다 열렸는데 1930년대 말기에 ‘삼거리장’, 1956년 12월 28일에는 ‘능곡시장’으로 개명하며 명맥을 유지했지만, 현재는 폐시되었다.

1925년 12월 23일에 개설된 ‘군포장시’는 처음엔 5/10일에 열리다가, 1920년대 후기에는 2/7일에 열리는 ‘군포시’로 바뀌었고, 1940년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군포장’이라 하였으며, 1970년대 전기에는 ‘군포시장’이라 불리다가 1980년대 후기부터는 상설시장으로 바뀌었다.

1926년 1월 현재의 안양1동 지역에는 5/10일 정기시장으로 ‘안양시장(구시장)’이 개

설되어, 1940년대 후반에는 ‘안양장’으로 개칭되었고, 1960년 ‘안양우시장’으로 바뀌었다가, 1960년 9월에 화재로 시장이 전소하였다.

1961년 11월에는 안양4동에 ‘안양공설시장’이 개설되어 1970년대부터 상설시장으로 변모하였다.

“50년 전 안양시장(市場)은 그야말로 궁벽한 산골 촌놈을 어리둥절케 한 별유천지였었다. 당시 수푸르지(지금 비산동)에서 안양천 다리(지금 임곡교)를 건너서 철길을 넘어 경수국도까지의 오른편 넓은 터에 안양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마도 당시 안양의 유일한 시장이었을 것이다. 현재는 상전벽해 시장의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거나 머슴의 지게꼬리를 잡고 힘겹게 걷고 걸어서 그곳엘 갔었다. 구리고개 언덕에 올라서서 한숨을 내쉬면 멀리 신세계 안양의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었다.

구리고개 밑에 운곡 마을을 오른쪽에 두고 산모퉁이를 돌면 제법 곧아진 한길에 뻗어 있었는데, 거기를 걸으면서 안양 쪽을 보면 기차가 하얀 연기를 뿜으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태평방직 공장의 옆모양이 거대한 톱날처럼 보였었다. 풍차를 거인의 팔로 보고 놀랐던 돈키호테가 그것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왼쪽으로 밤나무가 띄엄띄엄 서 있고, 오른쪽으로는 야산에 큰 바위가 있었던 길 끝에서 산자락을 돌아서면 수푸르지 동네였다. 안양의 문간 동네처럼 가게들도 있고 민가도 여러 채 있었던 마을이었다.

수푸르지 다리를 건너면 바로 안양시장이 된다. 다리를 건너면서 왼편으로 태평방직 공장, 오른쪽 작은 둔덕 아래는 소시장터였다. 소시장은 장날에만 열리고 여느 날에는 쇠말뚝만 텅그러니 군데군데 박혀있고 쇠똥 냄새가 풍기는 곳이었다. 소시장 앞길에는 겨울철이면 마차에 뿔나무를 잔뜩 싣고 와서는 구매자들을 기다리는 황소의 워낭소리에 하얀 콧김이 섞여 퍼져 나가고 있었다. 철길 쪽으로 나가면서 닭집이 있었는데, 먼 곳 시골까지 와서 닭을 사다가는 그곳 작은 닭장에 넣고 파는 집이었다. 그 닭집 아저씨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별의별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길가에 즐비했었다. ‘아이스케이크’는 작은 통에다 넣어서 짙어지고 다니면서 팔았었는데, 그 시장 중간 길가에는 테이블을 몇 개 놓고 그것을 공장도 가격으로 파는 가게가 있어서, 그것을 사 먹으려고 이십 리 밤길을 마다치 않고 걸어갔었던 생각이 난다. 철길과 경수국도(京水國道) 사이에는 간, 천엽, 순대 등을 파는 좌판이 있었고, 철길에 거의 붙어서는 만년필 가게가 있었다. 지금의 볼펜류가 나오기 전 만년필은 당시로써는 문방의 보배처럼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 가게 주인은 만년필 진열대 크기만큼의 작은 키의 아저씨였다.

종로의 육의전(六美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안양시장이 안양 근동의 육의전이며 시전이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명, 본견과 인견, 모시, 베 등을 파는 피륙전이 있었



고, 그곳에서 한복을 지어 팔기도 했었다. 냉장시설이 요즘 같지 않은 때여서 생선을 파는 가게는 거의 없었고, 염장한 고등어나 아지, 콩치를 파는 가게와 건어물 가게들이 많았다. 과일전이라야 배, 사과와 고장 토산인 감, 밤, 대추 등을 파는 정도였다. 채소류 및 양념류를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파는 ‘사카린’인가를 사서 우물물에 풀어서 마시곤 했었다. 각종 솥, 양은 냄비 등 주방 기구 등을 밑에서부터 크기순으로 쌓아놓고 팔기도 했었다. 주로 창호지와 도배지를 파는 지전도 있었다. 여러 모양의 장독을 파는 가게는 시장 뒤편에 있었다.

시장 뒤편으로 들어가면 돼지 내장탕, 순대국 등을 파는 곳, 설렁탕집이 있었다. 뒷골목으로는 막걸리집 몇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비가 오면 시장 전체가 검은 흙으로 질퍽거렸는데, 그런 날이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보다 막걸리집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았다. 저녁 무렵 그 막걸리집들이 있는 시장 뒷골목에는 난전(亂田)이 서서 난장판이 되곤 했었다. 당시 막걸리집에는 몇 명씩 작부를 두고 있었는데, 이른 봄 땅에 묻어두었던 배추나 무를 파내서 머슴 지게에 얹어 안양장에 팔러 보내곤 했었다. 머슴은 그때 그 막걸리집에서 낮술에 취했고, 눈에 들어온 작부의 견인에 포로가 되어서 일 년 새경을 며칠 밤에 작부에게 헌납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시지포스의 바위’를 굴렸었다(출처 :안양광역신문 2010.11.12.자. 정진원, 문학박사, 수필가).



## 안양 근현대사의 주요 장소와 기억들

### 안양 풀 - 안양유원지

1920년대부터 ‘안양 풀’은 풍부한 수량과 숲으로 서울시민의 여름철 피서지였다. 1933년 바윗돌과 콘크리트로 둑을 쌓아 성인용과 어린이용 2조의 천연수영장을 만들고 계곡 양쪽에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 수영할 수 있는 공짜 천연풀장이 생겼다. 둑에는 청소 등을 위해 물을 빼낼 수 있는 일종의 수문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안양시사에 따르면 ‘안양 풀’은 일제 강점기인 1932년 일본인 안양역장이던 혼다 사고로(本田貞五郎)가 철도수입 증대와 안양리 개발을 위하여 조한구 서이면장과 야마다(山田) 시흥 군수 및 지역유지들을 설득하여 당시 1,500원의 예산으로 안양유원지 삼성천 계곡을 막아, 1933년에 개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도 안양유원지 초입 바위에는 일본어로 안양 풀과 공사 책임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당시 일본인 공무원들과 지역유지들은 이 계곡에 ‘안양 풀’을 조성한 후 일종의 명패처럼 안양 풀 준공 일자와 공사 책임자 이름을 바위에 새겨 넣은 것으로 보인다.

안양예술공원 입구 주차장을 나와서 하천 오른쪽 도로를 따라 약 100여 미터 즈음 올라가면 목재 기둥이 끝나는 곳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나온다. 여기서 하천으로 내려가면 바로 정면의 바다 암반(바위) 옆면에 일본어 표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자연석 암반 위에 새겨진 글씨를 보면, 한자와 일본어를 섞어 ‘安養プール(안양 풀 pool)’이라고 기록하고, ‘소화 7년 8월 준공(昭和七年八月竣工)’이라는 명문과 ‘마쓰모도(松本)’라는 공사 책임자의 이름이 뚜렷하다.

관보를 보면 1966년 여름 피서철인 8월 6일~28일까지 토요일, 공휴일에 경부선 안양 풀 임시 승강장(시흥~안양역, 안양 풀 입구)이 운영됐으며, 1967년에는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객을 받는 등 안양 풀 임시 승강장은 1969년에도 운영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 변원신 씨의 구술로는 “당시 일제가 서울에서 안양 풀 행 철도를 운영했다”고 하니 안양 풀의 유명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인근 수도권 주민의 피서지로 이어져 1967년 7월 29일 字 <매일경제>를 보면 ‘안양유원지에는 하루 평균 4만여 명(일요일 10만)의 피서객이 몰리고 서울에서 당일 코스로 40원이면 왕복할 수 있고, 기차도 매 시간 입구에 정차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1963년 7월 17일 字 <동아일보>에는 ‘국립도서관이 피서객을 위해 안양유원지 풀

장에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임간문고를 설치해 운영'했으며, 1968년 6월 8일 字 <동아일보>에는 '체신부가 6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안양우체국 임시 출장소를 운영'한 기록도 있다.

1976년 3월 25일 字 <경향신문>에는 '안양유원지에 해마다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자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는 기록도 있다.

'안양 풀'의 쇠락의 계기는 1960년대 말 상류에 대형 풀장, 맘모스 풀장, 만안각 풀장 등 인공 풀장이 들어서고, 또 행락객이 버린 오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연하천인 삼성천이 오염되어 자연풀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다.

또 1969년 1월 2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입구에 아치 모양의 철 구조물로 '안양유원지'라는 간판이 나붙자, '안양 풀' 대신 '안양유원지'라는 명칭을 처음 쓰기 시작했으며 경기도 관광협회 안양유원지지부가 결성되어 입장 수입으로 유원지를 관리하게 되었다.

여름철이 되면 안양 풀장(現 안양예술공원)으로 놀러 오는 피서객들이 늘어나 안양역에서 하차하는 인파가 많았으나 역에서 안양유원지까지 운행하는 당시 몇 대 없는 미니합승버스의 한계로 줄서기에 지친 피서객들이 걸어서 안양 풀장까지 오가곤 했다.

철도청은 당시 안양유원지 입구(現 전철 전력 분배함 설치 자리)에 임시역을 개설하였으며 열차에서 내린 수많은 인파가 유원지 입구인 1번 국도부터 안양유원지까지 걸어가 는 행렬이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

1960년대 도로가 전국으로 뚫리지 않았을 때 안양 인근 영등포 일대와 수원 등지에서 주말이면 안양유원지에 놀러 오는 관광객이 정말 많았으며 안양유원지 임시기차역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현재 철로변 변전소 자리이며 그 당시에는 거짓말 보태서 임시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으며 차로 서울 시흥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주말이면 유원지로 오는 차들로 막혀서 안양유원지에서 여름장사 한철하여 몇 년을 먹고사는 세월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산업도로가 없었을 때이고(1960년 후반에 사업도로가 생김) 1번 국도 현 석수주유소로 해서 영화아파트 사거리에서 유원지로 들어가는 지하도가 없었고 기차가 지나가면 차단기가 내리는 땡땡이가 설치되어 기차가 지나가면 차단기를 올리고 내리는 직원이 24시간 근무한 때가 있었다(출처: I LOVE 안양 사람들 <http://cafe.naver.com/ilovesuksu.cafe>).

그러나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으로, 1973년에는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건축 및 재건축이 억제되는 특별관리 하에 들어가면서 발길이 끊긴다.

더욱이 1977년의 유례없는 안양 대홍수는 기존 안양유원지 계곡의 경관을 참혹하게 파괴하고 지나갔다. 이 때문에 안양 풀은 상류에서 내려온 토사와 자갈, 대형 바윗돌로 메워지고 휩쓸리며 완전히 자취를 감춰서 결국 잊혀버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잃어버린 안양유원지는 이후 계곡을 넘칠 정도로 풍부하던



수량마저 줄어들면서 인적이 끊긴 유원지로 전락하였으나 90년대 말부터 추진된 유원지 정비 및 개발계획에 따라 ‘안양예술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 문화재와 예술품의 보물창고 유유산업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에 자리한 (주)유유는 1941년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제약회사로 1953년부터 의약품 제조 업무를 시작, 1957년 10월 유유산업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 1959년 5월 현재의 중초사지 절터 부지에 안양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2002년 5월 (주)유유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현재는 제천으로 이전하였다.

(주)유유 안에 자리한 건물들은 한국의 손꼽히는 건축가 김종업(金重業)(1922-1988)의 초기작품이자 50년대를 대표하는 산업건축물로 1957년에 설계되어 1959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사무동 지붕은 역보로 되어 있고 생산동은 캔트리버로 형성된 코너가 삼성천의 시야를 확보하고자 하는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건축학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이다.

이와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성년대(造成年代) 명문이 새겨진 보물 제4호 중초사지당간지주와 고려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유형 문화재 제164호 지정된 중초사지삼층석탑이 자리하고 있으며 당간지주 옆에는 하단이 4각형이고 상단이 원형으로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으로 조성된 우물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유유산업 뒤편 길목의 큰 바위 위에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각으로 스님이 종루에서 종 치는 모습을 새겨 넣은 경기도 유형 문화재 제93호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바위벽 마애종이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삼막골사지와 호암사지 및 장석광사지, 고려 시대의 도요지로서 청자와 더불어 고려백자가 출토되는 것으로 유명한 도요지 등이 산재해 있다.

특히 유유산업 건설 당시 유적조사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청동용두와 사자향로 발 등 유물들이 발굴된 바 있어 추가 발굴에 따른 유물 출토뿐 아니라 문헌상의 안양사 존재 여부 가능성도 점치게 하고 있어 숨겨진 안양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복원하는 중요성과 안양유원지 주변을 재조명함은 물론 안양문화 발달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7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주)유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하고 (주)유유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만안구 석수1동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있는 유유산업 이전부지에는 현재 신라 시대 유물인 중초사지당간지주(보물4호)와 고려 시대 유물인 삼층석탑(경기도유형문화재 122호)



이 복원돼 있으며, 예전부터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고려 태조 왕건이 창건했다는 안양사(寺) 터일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었다.

지난 1960년 유유산업이 안양공장을 신축할 당시 시흥군 청년학생단체협의회 회장이었던 그는 현재 공장용지에 이전복원 돼 있는 고려 시대 유물인 삼층석탑을 해체한 회사 측을 상대로 원상복구와 건축허가 취소를 진정했었다. 이에 따라 유유 측은 삼층석탑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했으나 주민 사이에서는 ‘예전의 모습보다 축소됐다, 탑이 하나 더 있다’ 등의 주장이 제기됐었다는 것이다. 정씨가 유유부지에 안양사 7층 전탑이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60년 유유산업 안양공장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이 있었고 복원되는 과정에서 주민이 탑이 하나 더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동국여지승람」의 금천불우조(吟川佛宇條)에 ‘안양사(安養寺)가 있어 그 절 남쪽에 고려태조가 세운 7층 전탑이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때 최영장군이 안양사 7층 전탑을 세우고 왕이 내시를 시켜 향을 보냈으며 승려 천명이 불사를 올렸다’는 기록 등이 옛 안양사의 규모까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고려 시대에 조성된 팔각원당의 부도와 귀부(경기도 유형문화재 93호)가 있으며, 귀부는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글을 짓고 명필 이원부가 쓴 비문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

## 노적봉과 밤나무

지금의 안양예고 산봉우리는 ‘노적봉’이라고 불렸는데, 1932년에 발행된 조선일보를 보면 ‘전국 부녀자 밤 줍기 대회’가 열렸다는 기사가 실렸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안양4동 일대의 대부분 지역이 밤나무가 무성한 밤 동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지금의 벽산쇼핑 일대는 ‘좌백울원’이라는 대단위 울원이 조성되어 밤을 주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울목지구라는 지명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 50-60년대 안양지역경제의 중심 구시장

50년 전 구시장은 그야말로 별유천지(別有天地)였다. 당시 수푸르지(現 비산동)에서 안

양천다리(現 입곡교)를 건너면 철길 너머 경수국도까지 오른편 넓은 터에 구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안양의 유일한 시장이다. 상전벽해, 현재는 시장의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구시장에 살아서 중앙통이 내 세상이던 이은섭 씨에게는 아직도 철도길(땡땡땡 차단막), 못으로 칼 만들던 대장간, 석탄 찌꺼기, 태평방직, 쌀 창고, 넓은 마당 등 추억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시장에서 다리를 건너면 오른편으로는 태평방직 공장이 보였고, 왼쪽 작은 둔덕 아래에는 소시장이 있었다. 소시장은 장날에만 열렸다. 따라서 여느 날엔 쇠말뚝만 덩그러니 군데군데 박혀있는, 쇠똥 냄새가 풍기는 곳이었다. 겨울철이면 소시장 앞길에 마차에 빨나무를 잔뜩 싣고 와서 구매자들을 기다리던 황소의 워낭소리에 하얀 콧김이 섞여 퍼져 나가고 있었다.

철길 쪽에는 닭집이 있었다. 먼 시골까지 가서 닭을 사다가 그곳 작은 닭장에 넣고 파는 집이었다. 이은섭 씨에겐 지금도 닭집 아저씨 얼굴이 선하게 남아있다. 철길 쪽으로는 닭집 외에도 별의별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길가에 즐비했었다. ‘아이스케키’를 작은 통에다 넣어서 짙어지고 다니면서 팔았었는데, 시장 중간 길가에는 테이블을 몇 개 놓고 그것을 공장도 가격으로 파는 가게가 있어 ‘아이스케키’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다. 호떡을 파는 중국집은 그저 선망의 대상이었다.

철길 너머 안양역으로 가는 경수국도 중간쯤엔 간, 천엽, 순대 등을 파는 좌판이 있었고, 철길에 거의 붙어있는 만년필 가게도 있었다. 지금의 불펜이 나오기 전이었던 당시, 만년필은 문방의 보배처럼 대단한 것이었다. 구시장 안쪽에는 무명, 본견과 인견, 모시, 베 등을 파는 피륙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한복을 지어 팔기도 했다. 냉동시설이 요즘 같지 않은 때여서 살아있는 생선을 파는 가게는 거의 없었고, 염장한 고등어나 아지, 콩치를 파는 가게와 건어물 가게들이 많았다.

또한, 배, 사과 그리고 토산품인 감, 밤, 대추가 고작인 과일전이 있었다. 채소 및 양념류를 파는 가게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파는 ‘사카린’을 사서 우물물에 풀어놓고 마시곤 했었다. 그 외에도 각종 숯, 양은 냄비 등 주방 기구를 팔던 가게에서는 그것들을 밑에서부터 크기순으로 쌓아놓고 팔았고, 주로 창호지와 도배지를 파는 지전도 있었다. 다양한 모양의 장독을 모아놓고 팔던 가게는 시장 뒤편에 있었다. 시장 뒤편에는 돼지 내장탕, 순댓국을 파는 곳이 있었고, 설렁탕집도 있었다. 뒷골목에는 막걸리집 몇 채가 있었는데 큰 비라도 내리면 시장 전체가 검은 흙으로 질퍽거리곤 했었다.

## 아픔과 재기: 1977년 7월 대홍수



안양시민에게는 아직도 1977년 대홍수의 기억이 생생하다. 1977년 7월 8일에 경기도 안양·시흥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순식간에 인가가 폐허로 변하고 수백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7월 8일 저녁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는 미처 시민이 대피하기도 전에 주택가를 덮쳐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다.

안양3동 일대는 산사태로 큰 피해를 당하였고, 안양 시내 전역은 온통 물바다였다. 안양대교가 두 동강 나서 주저앉았고 하천이 범람 시내 중앙로가 물에 잠기고 외부로부터의 연락이 두절되고 도로가 유실되었다.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던 안양유원지마저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1977년 대홍수 때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안양시청을 찾아 피해 상황을 브리핑(77. 7. 10)받기도 했다. 안양은 77수해를 계기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석수, 비산주공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도시 면모를 일신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77년 안양3동 수해지역 현장



77년 7월 대홍수로 무너진 안양대교

## 일제와 한국전쟁, 미륵의 기억이 교차하는 안양역

안양역이 처음 생긴 것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이 개통되자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후 역사의 흐름과 함께 노후화하여 1938년 8월에 공사비 4만 원(당시 금액)으로 건평 88평의 목조 콘크리트 슬레이트 식으로 착공하여 2개월여 만인 10월 21일 정오에 신축 낙성식을 가졌다. 안양역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1월 26일 1.4후퇴 때 완전히 소실되었다. 그 뒤 1956년 6월 17일, 공사비 1천3백여만 원(당시 금액)으로 건평 95평의 역사를 준공하였고, 1974년 8월 15일에는 전철 개통과 함께 역사를 증설하게 되었다.

안양을 대표하는 독립투사인 원태우 지사(1873년생)는 23세 되던 해(1905)인 11월 22일 이토히로부미가 열차를 타고 안양을 지나가게 되자 현재의 관악 전철역 인근에서 돌맹



이를 던져 유리창이 박살 나면서 파편이 이토히로부미의 얼굴 여덟 군데에 박혔다.

이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2일 후인 11월 24일 대한매일신보에 의해서였고, 일본에서는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신문에 보도되는 등 일본열도를 한바탕 흔들어 놓았으며 원 지사는 감금되어 징역 2개월에 곤장 1백 대를 맞고 이듬해 1월 24일에 석방되었다.

원 지사의 유품으로는 생존 시 만든 돌절구 2개와 맷돌 1개가 있는데, 그중 맷돌 한 개는 1990년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었으며 의거 결행 85주년이자 원 지사 서거 40년 만인 1990년 8월 15일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안양역 계단에는 조형물이 부착돼 있으며 안양 자유공원에 흉상이 건립되어 있다.

당시 안양역은 보육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同苦同甲巡禮(1) 天涯의 고아 기르기 二十星霜”이란 제목으로 京城保育院의 선행을 기록하고 있다.

“경성보육원은 대정 9년에 창립되어 동아일보와 동감으로 달로 따지면 손위이다. 기독교회 김병찬 씨가 주도하여 孤兒救濟事業으로 京城孤兒救濟會를 조직하고 이십 명을 수용하고 재단법인 경성보육원이라고 하였다.

소화 11년에는 경부선 안양역전에 안양분원을 설치하여 농사와 목축을 하는 등 사회 생활을 체득게 하였다. 당시 안양분원에는 50명이 있는데 농업실습아동 15명, 보통과 8명, 우치부에 29명이 다녔다(동아일보 1940. 4.1).”

한편, 안양역사는 미륵불이 서 있던 자리이기도 하다. 안양 미륵의 기록은 문헌적 기록은 거의 없고 다만 구전으로 전해 오는 설에 의지하고 있다. 안양미륵당이란 말은 정조가



안양역사(1968년)

아버지능이 있는 화성(수원)을 가기 위해 기획한 園幸乙卯整理儀軌에 궁에서 수원(화성)까지 거동의 안전을 위해 척후소로 24곳의 塘馬를 설치하는 중에 제13 당마소가 安養彌勒堂站이란 말이 있고 口傳에는 정조가 안양을 지날 때 번번이 말이 발길을 떼지 못하자 그 연유가 미륵부처에게 불공을 드리지 않는 탓이라 하여 불공을 드리니 비로소 말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 현재의 안양역사 자리는 원래 미나리밭이었는데 역사를 건설하면서 이곳에서 미륵이 발견되어 안양역 앞으로 옮겨놓았다가 광복 직전에 다시 용화사(현재의 본 백화점 자리)경내로 옮겨졌으며 그래서 용화사를 일명 미륵당으로 부르기도 했다.

당시의 미륵불은 1934년 2월 20일 민속학자 송석하(宋錫夏)가 안양역 앞에 있던 미륵당을 카메라에 담았으며 최근 민속박물관이 ‘처음으로 민속을 찍다’라는 제목의 전자책(DVD)으로 펴냄에 따라 75년 만에 실체를 드러냈다. 전자책에는 3컷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 60~70년대 안양의 다운타운

현재의 안양 1번가에 안양읍사무소가 있었다.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인근이 당시 안양의 다운타운(down town)으로 ‘안양읍사무소’, 그 옆에 ‘시흥군청’, 군청에서 작은 길을 건너면 맞은쪽에 ‘안양경찰서’가 서로 가깝게 위치한 노른자위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었다. 지금의 ‘안양역 - CGV안양 - 벽산사거리 - 임곡교(수푸르지 다리)’ 사각형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읍사무소 조금 뒤쪽으로는 ‘이형래 의원’이 있었고, ‘제일의원’도 있었다. 또 국도변에는 비교적 큰 양조장이 들어서 있어 거기에서 찢 술밥 냄새가 근처에까지 흘러나오곤 했다. 국도변에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늘어서 있었고 다운타운을 나와서 왼쪽으로 100m쯤 가면 앞에 광장을 가진 안양역이 나왔다. 천안에서부터 통근열차가 다니던 때라 아침마다 일정한 시각이면 서울로 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통근자들이 떼로 몰려들고, 저녁이면 같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수도로를 건너자마자 아주 오래된 중국집 ‘신흥관’이 있었고, 그곳에는 전족(纏足)한 안주인이 있었다. 당시 안양읍 규모로 따지면 이 정도를 안양의 다운타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운타운 서쪽으로는 안양여중, 조금 더 나아가면 안양중·공고가 있었다. 당시 안양에는 방직공장이 많았다. 산학연계의 필요성이 있어서였을까? 안양공고에는 ‘염색과’가



있었다. 군청의 동쪽으로는 안양국민학교가 당시에 큰 규모의 학교로 읍사무소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안양공고 근처에는 금성방직공장, 안양시장 동편으로는 태평방직공장이 있었다. 두 공장은 아주 큰 규모의 공장이어서 여공원만 해도 수천 명이 되어서 당시 안양에 가면 열은 썩색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여공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다.

안양 최초의 영화관 ‘읍민관(현 외환은행 자리)’과 ‘화단극장’에는 당시 현병들이 임검하는 길목이었다. 안양역 앞 중국음식점 ‘순흥관’에 대한 추억도 새록새록 하고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드나들던 ‘폭포수다방’, ‘금강다방’은 단지 차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기다림과 만남 그리고 소통의 장소였다.

### 박달동 군용지(軍用地)의 슬픈 사연

박달동 군용지에는 이 땅의 식민역사를 포함하여 농민의 아픈 눈물이 배어있는 땅이다. 즉, 안양시 박달동 및 안양동 일원의 23만 677평에 달하는 지역은 귀속농지에 대하여 276명의 경작인들이 300여 년간 조상 대대로 경작해온 세전농토(世傳農土)였다.

8.15해방 직전 간악한 일본군은 이 조상 전래의 농토에다 군용시설을 한다는 핑계로 강제로 빼앗아 버렸지만, 그들은 등기부에만 육군성(陸軍省)이라 해놓았을 뿐 경작은 그대로 해오다가 조국 광복이 되자 그 땅을 되찾은 우리 농민들은 기뻐하였다. 그러나 일본식민지화의 착취의 앞잡이 동양척식이 탈바꿈한 신한공사(新韓公司)가 경작료를 강제로 징수하여 갔으며 그 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이 우리의 농토가 일본인 적산(敵産)이라 하여 귀속농지관리국(歸屬農地管理局)에서 경작료를 받아 갔다가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작자에게 분배되었던 것이다. 즉, 1941년 일본 육군성에 의해 군용지로 강제 수용당했지만 경작을 계속해왔고,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자에게 분배되었다.

이렇게 분배농지상환곡(分配農地償還穀)을 4개년 분납부(分納付)하고 영농을 하여오던 중 농민에게 분배된 이 농지들을 1960년 5.16 쿠데타 후 불법적으로 그 명의만을 국유로 등기하는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에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를 받아 지가상환료(地價償還料)를 4개년분이나 납부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자기들의 유일한 농토재산을 일부 농민들은 부득이 땅값의 몇 배의 돈을 드려 법에 따른 심판을 구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하였던바, 천만다행 사필귀정으로 대법원까지 승소하였다(문원식, 성결대 안양학연구소 소장 2006. 6. 23 안양시민신문).



## 기억과 사진 속 '추억의 맛집'

안양지역에 음식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마도 한양 가는 길목인 인덕원 사거리 일대 자리했던 주막에서 당시 오가던 길손에게 팔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 기록은 없다. 안양시는 2006년 안양시민축제 당시 음식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안양의 대표 음식으로 설령탕을 선정해 과거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다.

자료를 조사한 안양문화원 최태술 위원은 “지금 동안구 평촌에 귀인동이 있다. 이 마을은 이름 그대로 宮中에서 宮人으로 생활하다 퇴역하신 귀인(貴人)들이 살든 곳이어서 귀인동이다. 또 수촌마을에는 내시촌이 있어 두 곳 다 퇴역한 궁인들이 궁중에서 하던 선농제 행사에서 끓이던 설령탕 기술을 알았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설령탕이 일반에게 전해졌으리라 추정한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 설령탕보다 안양 설령탕이 진짜 중 진짜가 아닐까.

1926년생으로 안양3동에서 태어난 이용구 옹은 어린 시절의 풍경을 눈썰미 있게 기록한 [양지마을의 까치소리]에서 1930년 당시 안양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곳에만 겨우 전깃불이 있을 뿐, 그 외에는 밤이면 희미한 석유 등잔불만이 가물거리는 고장으로 하루에 기차가 수회 지나며(단선) 서울-수원 간 경수(京水)버스가 몇 대 지나던 촌락이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안양역 건물은 까만 기와지붕에 몇 평 안 되는 성냥갑만한 역사(驛舍)에 대합실과 개찰구와 짐찰구뿐이었으며, 역 앞 국도 건너에는 미륵당(彌勒堂)이 있고, 그 주위에 수백 년 된 노향목(老香木) 두 그루가 안양의 내력(來歷)을 다 아는 듯 우뚝 서 있었다. 바로 그 밑에 두 개의 목로주점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이 옹이 말하는 목로주점은 한 장 사진 기록을 통해 시간을 넘어 과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1943년 2월 20일 민속학자 송석하(宋錫夏)가 안양역을 지나가다 촬영했던 사진 속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가 촬영하고자 했던 안양역 광장이 존재했던 미륵당이었다. 그가 남긴 3장의 흑백사진 중 1장의 사진에는 한자로 적힌 안양음식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 기억으로는 안양역 주변과 구시장, 새 상권이 형성된 새시장(중앙시장) 일대에 본격적으로 다방, 양화점, 병원, 양복점들과 함께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 일제 강점기부터 피서지로 유명했던 안양유원지에도 음식점들이 성업했었다.

안양을 느끼다

길과 하천

## 만안의 길

김정호의 대동지에는 一大路 의주로, 二大路 경흥로, 三大路 평해로, 四大路 동래로, 五大路 봉화로, 六大路 강화로, 七大路 수원別로, 八大路 해남로, 九大路 충청수영로, 十大路 통영別로 불리는 옛길의 지명이 붙어있다.

특히 옛길은 신경준의 도로고에는 전국 6대로, 김정호의 대동지지로에는 9대라고 적고 있지만, 대동지지에서는 정조의 능행로를 ‘수원별 7대로’라 별도로 적고 있어 정조에 의해 안양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길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만안의 주된 길은 누가 뭐래도 중앙로이다. 그러나 조선 정조대왕이 부친 사도세자 능을 참배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만안로가 안양의 역사나 그 이후 안양의 근현대 과정에서 중요한 동맥의 역할을 한 주된 도로이다. 원래 조선 시대 국도는 과천-인덕원-호계동 길이었는데 정조대왕이 화성에 가면서 현 만안로가 만들어진다.

일제의 의해 건설되긴 했지만 1902 경부철도의 개설과 안양역사가 설치되면서 만안에 인구 집중경 안양의 인구와 산업을 통한 성장을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안양역-시대동-임곡동을 잇는 길은 조선 시대에도 있던 길로 만안을 동서로 소통하는 길이었다. 박달로는 조선 시대 때 인천과 교류하는 길이었으며 시대동을 거쳐 임곡-비산-관양-과천가는 길이다. 현재의 중앙로는 1953년 안양읍 당시 개설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안양 1번가가 조성되게 된다.

## 효행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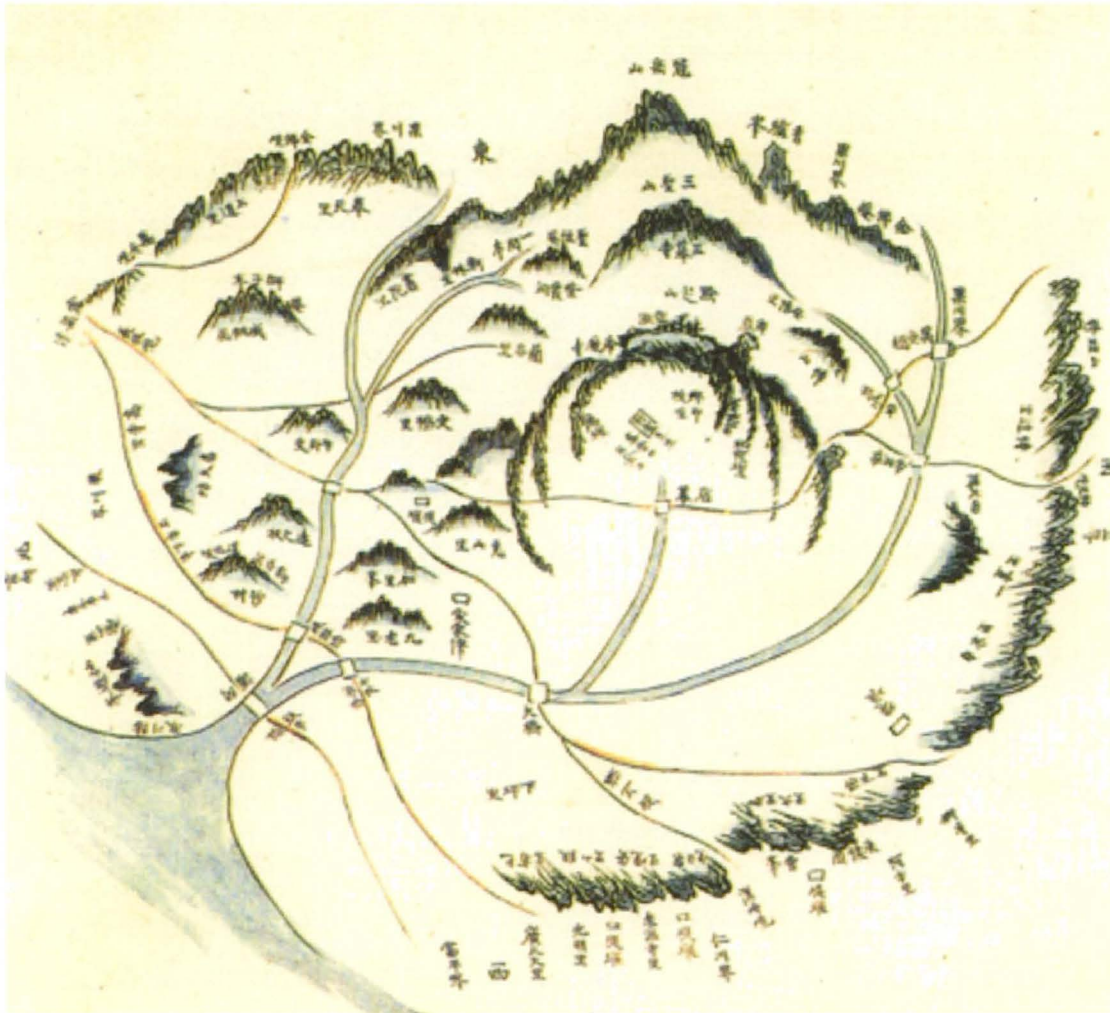
정조의 능행로인 七大路 수원別로는 창덕궁을 출발 수원까지 100리 길이며 송례문(崇禮門)(남대문)-노량진(露梁津)-문성동(文星洞)-시흥(始興)-안양행궁(安養行宮)-사근평행궁(肆觀坪行宮)-지지대고개-노송지대-수원행궁(水原行宮)-건릉(健陵)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특히 정조의 능행로에 나오는 옛 안양지역의 지명을 살펴보면 염불다리-만안교(萬安橋)-안양참발소(安養站發所)-장산모퉁이-군포천-서원넛다리-청천평-서면천교-원동내-사근평행궁(肆觀坪行宮) 등이 나온다.

또한, 七大路 수원別로에 나오는 지명중 안양행궁(安養行宮)과 안양참발소(安養站發所)는 현재의 안양시 안양1동 674-29(안양 1번가) 아카데미극장 일대이며, 사근평행궁(肆觀坪行宮)은 현재의 의왕시 고촌동사무소, 원동내는 과천현 광주현 경계를 말한다.



삼막천 만안교는 효성이 지극했던 조선 제22대 정조(1776-1800 재위)가 억울하게 참화를 당한 생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러 갈 때 참배 행렬이 편히 건너도록 축조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흥예석교이다. 정조는 양주에 있었던 사도세자의 묘소를 정조 13년(1789)에 화산(화성시 소재)으로 이장한 후 1800년 사망할 때까지 12차례에 걸쳐 참배하였다. 정조가 만안교를 지난 것은 1차 능행부터이다.



경기 읍지 시흥현도 (1872, 고종 9년)

이 지도는 전국지도 편찬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현재 사용하는 지명이 많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정조대왕의 능행길에 만안교가 있으며 아치형으로 그려있어 흥미로움을 주고 있다.

이 다리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 왕의 행렬이 지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기관찰사 서용보가 돌로 대체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정조 19년(1795)에 당시 경기관찰사 서유방이 왕명을 받들어 3개월간의 공역 끝에 길이 35.5m, 너비 8m에 7개의 갑문을 설치

하고, 그 위에 화강암 판석과 장대석을 깔아 축조하였다. 원래 만안교는 현재 위치의 남쪽 460m 만안로와 석수로 교차지점에 있었으나, 국도 확장 사업으로 1980년 8월에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다리 앞에는 서유방이 글을 짓고, 조운형이 쓴 만안교비가 있어 그 내력을 설명해 주고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정조는 길 위의 군주라고….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깨우치듯 정조는 길에서 백성을 만나고 조선을 생각했다. 정조에게 길이란 단순히 걷기 위한 도로가 아닌 억조창생의 시작이었다. 정조의 길 떠남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고, 길 위에서 만난 여리고 슬픈 질곡의 백성을 보듬기 위함이었다.

잘 알려졌으나 정조는 능행차를 통해 국왕의 지위를 강화하고 백성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조선 대부분의 국왕이 연중 1회 정도의 능행차를 추진함과 달리 정조는 재위 24년 동안 66회의 능행차를 단행하였고, 행차 중 상언(上言)과 격쟁(擊諍) 3천355건을 처리했다.

더불어 정조는 선대왕의 능을 참배하고 도성으로 돌아오는 도중 자신을 호위한 군사들로 하여금 강력한 군사훈련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국왕 자신과 자신이 다스리는 조선을 그 어느 사람도 침범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백성은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자신의 국왕 정조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능행의 절정이 바로 혜경궁의 회갑연을 치르기 위한 8일간의 화성행차였다.

1795년 윤이월 9일. 드디어 새벽의 정적을 깨는 종소리와 더불어 창덕궁 돈화문(보물 제383호) 앞은 응복을 차려입은 정조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긴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유수부로 행차를 시작하고자 한 것이다.

정조는 행차를 1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수원으로 내려오는 길을 새로 만들었다. 그 길은 지금의 1번 국도이다. 원래 길은 지금의 남태령을 넘어 과천과 인덕원을 거쳐 가는 ‘과천길’이었으나 노량진에서 시흥을 지나 군포와 의왕 등을 거쳐 지지대고개로 통하는 시흥길을 새로 만들었다.

정조는 돈화문을 나와 종루 앞의 큰길로 향했다. 지금의 보신각 종 앞으로 행차한 것이다. 그리고 대광통교와 소광통교를 지나 승례문(국보 제1호)을 지나갔다. 승례문을 지나 현재의 서울역 앞을 거쳐 노량진으로 향한 행차는 정약용이 설치한 그 유명한 배다리를 건너 노량행궁에 도착하게 된다.

정조는 배다리를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해 주교사(舟橋司)라고 하는 특별 관청을 설치하였는데 그 자리가 바로 노량본동의 동사무소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면 아직도 노량행궁의 중심 건물인 용양봉저정(시도유형문화재 제6호)이 초라한 모습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과거 정조시대 노량행궁은 단순히 정조의 수원 행차 시에 점심 수라를 들기 위한 주정소만이 아닌 노량 일대의 조운선을 관장하고 상인들을 통제하던 막강한 곳이었다. 하지만 세월의 변화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건물은 모두 사라지고 용양봉저정 하나만 남아 정조의 옛 자취를 느끼게 할 뿐이다.

첫날 점심 수라를 이곳에서 마친 정조는 6천여 군사들을 거느리고 위풍도 당당하게 시흥행궁에 도착하였다. 현재 시흥행궁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흔적도 희미하다.

정조의 행차길은 시흥행궁을 뒤로하고 현재의 1번 국도를 그대로 따라 수원으로 내려가다 관악 전철역 옆의 만안교(萬安橋)(시도유형문화재 제38호)를 만나게 된다.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위해 새로운 시흥대로를 만들면서 안양천을 건너기 위해 만든 만안교는 원래 관악전철역사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전철역을 만들면서 안양천의 원래 위치에서 약 200여미터 아래로 이동하여 다시 축조되었다.

만안교의 글씨는 일반적인 글씨체와는 완전히 다르다. 무엇인가 튀어 올라가는 이 글씨체는 정조시대 최고의 명필이었던 유한지(兪漢芝)의 글씨로 만안교 아래로 흐르는 장쾌한 물의 역동성을 표현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통해 무수히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를 위해 남아있는 것은 정조시대 문화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정조의 배려가 아닌가 한다.

만안교에서 안양전철역 앞의 안양 1번지를 지나 군포사거리로 그리고 다시 1번 국도를 지나게 되면 정조가 둘째 날 점심을 먹었던 사근행궁에 도착한다. 물론 사근행궁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출처: 백성을 위한 화성행차 그 길을 찾아서, 김준혁, 수원시 학예연구사)

시흥길이 열린 것은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正祖)의 원행(圓幸) 결과다. 정조는 과천과 시흥에 각각 행궁을 설치하고 사근평(肆觀坪)에는 창사(倉舍)를, 안양참(安養站)에는 발사(發舍, 즉驛舍)를, 노량(鷺梁)에는 진정(鎭亭)을 두어 원침 배알 때 연로(驛路)가 머물 곳을 마련하였다. 현재 의왕시 고천동(古川洞) 동사무소는 사근행궁(肆觀行宮)이 있던 자리인데 1989년에 의왕시로 독립할 때 시청이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 안양역 앞 안양행궁지는 일본 강점기에 서이면사무소로 사용되다가 안양옥이라는 음식점으로 개조되었고 이제는 폐가가 되었다. 안양참, 또는 안양미륵당참(安養彌勒堂站)의 위치도 지금의 안양역 앞인데 1940년대에 그 자리에 백화점이 들어섰다. 만안교(萬安橋)와 표석 또한 홍수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약 200m 위로 이동하였다.

이처럼 이제는 복원이 힘들어진 시흥길을 1795년에 있었던 원행 당시 정조임금의 거동을 통해 느껴보자. “비가 올 것을 우려하여 오전 6시에 시흥 행궁을 일찌감치 출발하였는



데 임금의 군복을 갖추고 말을 타고 자궁, 즉 혜경궁 홍씨는 가교를 탔다. 대박산(大博山) 별관을 지나 안양참(安養站) 앞길에 이르러 잠시 머물러 미음 다반을 든 다음 장산(長山) 모퉁이를 지나 청천(淸川) 들에 이르러 임금이 하마하여 자궁의 어가 앞에 나아가 문후하였다. 이어 원동천(院洞川)을 지나서는 사근참(肆觀站) 행궁에 나아가 점심 식사를 하였다. 이곳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1사(舍), 즉 50리가 못되니 때에 맞추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출처: 정승모, 다시 보는 경기 산하, 경기문화재단)

정조의 화산능행은 춘행(春幸)과 추행(秋幸)으로 나누어져 이장 이듬해(1790)부터 정조가 사망한 1800년까지 12차례에 걸쳐 행해졌다. 보통 춘행은 사도세자의 탄생일이 있는 1월 21일을 전후하여 행해졌는데, 농번기를 피하여 농민의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정조의 배려 때문이기도 하였다. 추행은 8월 삭망 사이에 거행되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춘행을 원칙으로 하였다.

정조의 능행로는 제 1 차(1790)부터 제 5 차(1794)까지는 노량진에서 남태령을 넘어 과천행궁에서 1박을 한 후, 인덕원, 호계동을 거쳐 고천의 사근창주필소에서 점심을 먹고,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을 통과하여 현릉원에 이르는 노정을 택했다.

그러나 이상의 노정이 다리가 많고, 남태령과 같은 험준한 고개가 있어 길을 닦고 쓰는 백성의 고초가 심한 것을 정조가 근심하여 민폐를 줄일 방도를 연구할 것을 지시하자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노량진에서 시흥을 거쳐 안양동과 호계동을 거쳐 고천으로 넘어가는 금천로정(吟川路程)이 길이 넓고 평탄하여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자 정조가 윤허하여 도로의 정비에 착수하여 당년(1794)에 공사를 끝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능행을 했던 8차(1797)의 추행에서 김포 쪽을 택해서 간 것을 빼고는 6차례에 걸쳐서 금천로를 이용했다. 금천로정을 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일설에 의하면 부친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 김 상로의 형 김 약로의 무덤이 과천시 찬우물에 있는 관계로 이 무덤을 피하고자 개척한 것이 바로 금천로정이라는 설도 설득력이 있다.

이리하여 금천현의 치소에는 임금의 숙박을 위하여 행궁(行宮)이 설치되었고, 안양에는 쉬어갈 것에 대비하여 안양주필소가 마련되었으며 물살이 센 안양천(현 삼성천)에는 만안교(萬安橋)가 가설되었다. 이듬해에는 금천현감을 현령으로 승격시키고, 읍호를 시흥(始興)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부터는 금천현을 시흥현으로 금천로를 시흥로로 부르게 되었다(출처: 정조의 화산능행과 안양(1), 문원식, 안양학연구소 소장).

## 수리산 병목안과 담배촌길:종교 - 일제수탈 - 군사의 길

### 영성의 길

병목안을 거쳐 담배촌에 이르는 길은 안양지역 천주교 역사의 아픔이 배어 있는 순교와 박해의 길이다. 안양지역에 천주교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뿌리 내려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830년대 초 최경환 일가가 처음으로 안양 수리산으로 들어와 정착하면서 시작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수리산에 들어와 살던 최경환 일가와 교우촌을 이루며 살던 천주도 신도들은 공소를 세우고 기해박해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옮겨 살다 난 이후에 다시 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공소는 지금의 수리산 '최경환 성 프란체스카 성지'가 되었다.

수리산성지는 최경환(프란치스코, 1805~1839)성인께서 기해박해 중이던 1839년 9월 12일 옥사 순교하신 후에 묻히신 유서 깊은 곳이다. 2000년 은총의 대회년과 2001년 신유박해 200주년 기념의 해를 지내며 전대사의 은혜를 받는 순례지정성지이기도 하다. 성인께서는 장남인 최양업(토마스) 신부님을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제로 하느님께 바치셨다.

1970년대까지도 수리산 자락의 뒤뜸이 마을과 좁은 입구로 가려진 병목안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변이 개발되어 흔적이 많이 사라졌다. 수리산 교우촌의 중심지인 뒤뜸이는 본래 아무도 살지 않던 곳인데 신자들이 마을을 이루면서 새말이라고 불리었



수리산 성지 길



고 담배촌이란 지명이 탄생한 것도 이때 이즈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경환 일가와 교우들이 수리산 기슭의 땅을 일구어 담배농사로 생활터전을 닦으면서 붙여진 지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담배촌은 모방 신부가 방문한 적도 있으며 최경환의 장남인 최양업 신부가 신학생으로 간택 받은 성소로 최경환 성인을 탄생시킨 곳이다.

최경환 성인의 아들 최양업은 김대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신부가 된 최양업(토마스)의 아버지이다. 최양업 신부의 흔적은 충북 진천 백곡의 배티성지에서 찾을 수 있다. 안양 수리산에서 진천 백곡까지의 길은 고난과 박해를 뚫고 천주교의 교리를 전차하기 위한 순교의 길인 셈이다.

진천 배티 성지는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중요한 성지로 박해를 피해 숨어 들은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1830년대에 교우촌이 형성되었으며, 1850년에는 프랑스 선교사 다블뤼 성인 주교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조선교구신학교가 자리를 잡았던 곳이다. 1866년의 병인박해 때에는 수많은 순교자가 배티와 인근 지역에서 탄생하여 순교자 묘에 안장되었고 1997년 최양업 신부 기념 성당이 건립되었다.

## 일제 수탈의 길

병목안은 현재의 안양9동(안양3리) 프라자아파트 끝부터 창박골로 갈라지는 삼거리(병목안 삼거리라)까지를 말한다. 병목안은 문자 그대로 병모가지 안쪽 같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양지 초등학교 입구 다리부터 시작되어 통통한 병 모양으로 뻗어 오르다가 좌로는 채석장에서 우로는 창박골 입구 삼거리슈퍼까지의 동네를 병목안이라 했다.

삼거리슈퍼를 지나 담배촌 가는 길로 접어들면 창박골에서 흐르는 작은 개울을 건넌다. 수리산 한증막 지나서 옛 ‘문동바위’부터는 담배촌길이다. 물론, 담배촌도 안골, 굴뚝골, 햇골, 송챙이골, 담배촌, 작은골, 큰골, 옷말 등으로 마을이 또 나뉜다.

안양9동 마을금고 건너편 외환은행 간이점포가 있는 건물까지 예전에는 산자락이 드리워져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는 다리가 두 개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병목안의 병모가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당초에는 사람이 다니던 나무다리였다가 나중에 우마차와 트럭이 다니던 시멘트다리로 발전했는데 그 방향이 지금의 외환은행 간이점포 방향이었고, 다른 하나는 철교(철길)로써 현재의 도로자리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차가 다닌 다리 위로 차와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병목안 다리를 건너 안양 내려가는 길은 지금의 새동산약국과 찬



스 게임장 사이로 난 길이었다. 대성목욕탕 지나 지금의 프라자아파트에서 담을 따라 좌로 굽으면 기찻길과 만나게 되고 이 길은 기찻길과 나란히 안양역까지 내려갔다.

두 개의 다리가 있던 곳부터 시작되는 병목안길의 철도는 경부선 철도공사에 사용할 쇠석을 깨낼 목적으로 눈독을 들인 일제에 의해 개설되었다. 철도공사에는 수많은 자갈이 쓰이는데 경부선 철길에 깔 자갈을 생산 공급하던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전국각지의 슬프고 고단한 사람들이 부평초처럼 떠돌다 모여들면서 이루어진 동네가 바로 병목안이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장비(크랙샤, 함마드릴, 덤프트럭 등)가 없었으므로 망치 하나로 바위를 깨고 또 깨서 먹고 살던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서린 장소이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난리가 났다. 이상하게 길이 넓어져 있었고, 넓어진 길은 딱딱하게 다져져 있었고, 다져져서 이상하게 넓어진 길바닥에는 주먹만 한 자갈들이 깔려있었다. 못 보던 차(군덤프, 군불도저, 군포크레인, 군페이로다, 지프 등이)가 마냥 신기했다.

위문편지애나 썼던 씩씩한 국군 장병 아저씨도 있었고, 새까만 미군도, 하얀 미군도 있었다. 미군을 보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다. 키가 무지 크다는 것, 뚱뚱한 것, 팔에 누런 털이 많이 났다는 것,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골라 한다는 것이 그때 받은 첫인상이었다(출처 : 임부성, <http://cafe.daum.net/susasa>)”



병목안 채석장으로 가는 철길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는 담배촌 다니던 길은 마차가 겨우 지날 정도의 좁은 오솔길 정도였다. 이 땅을 강점한 일인들이 대륙침탈을 위한 교두보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유린한 후 대량운송수단인 철도가 필요해서 경부선을 개설하면서 이곳 채석장의 자갈들을 경부선에 깔리게 된다. 말하자면 수리산의 정기가 경부선에 깔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 군사의 길

일제로부터 독립 후 수리산 꼭대기에 석수동 미군부대에서 파견 나온 작은 통신부대가 지금의 공군부대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군 통신대가 들어오면서 트럭 한 대가 다닐 정도의 길을 지금의 2차선으로 넓힌 건 이때였다. 미군 통신대가 떠나자 한국 공군 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6.25 한국전쟁 1,4후퇴 때는 중공군 일개 사단이 이 길을 통해 수리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수원 비행장 부근에서 미군이 때린 곡사포에 중공군 사단 병력이 거의 전멸하고 후퇴하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출처 : 임부성, <http://cafe.daum.net/susasa>).

## 안양유원지 길: 문화와 위락의 길

지금의 석수1동과 안양2동으로 구분하는 삼성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유유산업에서부터 안양사 주변 거북골에 이르기까지 5000년 한국문화가 누적되어 살아 숨 쉬고 있다. 고대 신앙생활의 유적으로서 그 문화적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만안교(거북다리)에서 시작하여 거북바위(광석바위) - 안양사 귀부(거북형상) - 거북골 -삼귀자바위로 이어지는 길은 거북이의 행렬이다. 염불암에서 삼막사까지 이르는 길에는 장수바위, 미륵장군 등 거석문화의 흔적들이 주변에 산재되어 있다.

바위유적은 염불암에서 정점을 이루고 다시 삼막사의 남근바위, 여근바위, 삼귀자바위, 마애삼존불로 이어진다.

(주)유유 안에 자리한 건물들은 한국의 손꼽히는 건축가 김중업(金重業, 1922~1988)의 초기작품이자 50년대를 대표하는 산업건축물로 1957년에 설계되어 1959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사무동 지붕은 역보로 되어 있고 생산동은 캔트리버로 형성된 코너가 삼성천의 시야를 확보하고자 하는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건축학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이다.

일제 시대인 1920년대부터 이 계곡의 ‘안양 풀’은 경성 거주 일인들을 위한 여름철 피서지였다. ‘안양 풀’은 일제 강점기인 1932년 일본인 안양역장이던 혼다 사고로(本田貞五郎)가 철도수입 증대와 안양리 개발을 위하여 조한구 서이면장과 야마다(山田) 시흥 군수



및 지역유지들을 설득하여 당시 1,500원의 예산으로 안양유원지 삼성천 계곡을 막아, 1933년에 개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60년대부터 여름철이 되면 안양풀장(현 안양예술공원)으로 놀러 오는 피서객들이 늘어나 안양역에서 하차하는 인파가 많았으나 역에서 안양유원지까지 운행하는 당시 몇대 없는 미니합승버스의 한계로 줄 서있기에 지친 피서객들이 걸어서 안양풀장까지 오가곤 했다.

이런 불편이 계속되자 1966년 당시 철도청은 당시 안양유원지 입구(현 전철 전력분배함 설치자리)에 경부선 안양 풀 임시 승강장을 개설하였으며 당시 열차에서 내린 수많은 인파가 유원지입구 1번국도에서부터 안양유원지까지 걸어가는 행렬이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

### 산업화의 길

사진 가운데 공사 중인 현재의 중앙로가 보인다. 사진 하단좌측의 건물이 만안초등학교인데 그 앞으로 수암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쪽은 아직 도로개설 전이다. 사진 좌측의 길은 구 안양대교에서 - 안양역 - 명학역으로 이어지는 구도로인 만안로이다. 이 길로 정조대왕이 부친인 사도세장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왕래하였다. 이 길을 따라 주점동과 같은 지명이 탄생하게 된다. 좌측 연기가 나는 곳은 한국제지 공장이다. 이곳은 현재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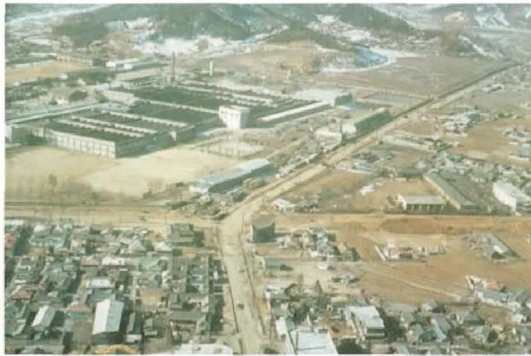


1968년 안양중앙로(1)



아래 사진은 1968년 당시 현재 안양여고 사거리의 모습이다. 북서쪽으로 난 도로는 박달로이고 사진 가운데를 좌우로 가르는 도로가 현재의 중앙로 공사현장이다. 사진 중앙부 좌측의 큰 공장이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장 터로 당시 금성방직자리로 현재는 대농주택단지이다.

아래 사진은 중앙로 현재 벽산사거리 부근이다. 석수동 구근에 비해 이쪽은 중앙로 공사가 많이 진척되어 정리된 상태이다.



1968년 안양중앙로(2)\_현재의 안양여고 사거리



1968년 안양중앙로(3)\_현 벽산사거리

## 모임과 나눔의 길: 안양역과 버스정류장

### 안양역, 기차통학 길의 추억

세월이 녹아있는 흑백사진 속에는 2층 건물로 보이는 한 건물 앞에서 엇갈려 세운 깃대에 매달린 두 장의 일장기를 배경으로, 당시 교복차림을 한 29명의 단체사진이다.

사진 하단에는 ‘16년 2월 11일 안양통학생 일동’이란 쓴 글씨가 새겨져 당시 이들 통학생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한 시기를 알 수 있다. 소화 16년은 서기 1941년으로 당시 2월 11일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1941년 12월 8일)하면서 태평양전쟁이 반발한 직후로 일제의 침략이 중국과 동남아를 뒤덮었고, 일제 군부의 세력과 기세가 극에 달해 한반도 곳곳에서 수탈이 극심하게 자행되던 시기이다.

문학박사이며 수필가인 정진원 선생은 기차통학의 추억을 이렇게 적고 있다.

“천안역에서 출발해서 안양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통근(학)차’가 다녔던 시절이 있었다. 처음에는 증기기관차가 머리였었고, 나중에는 디젤기관차가 되었으며, 지금은 그마저

도 볼 수 없게 된 전철의 시대이다. 정해진 시각이 되면 육중한 증기기관차가 수증기 물방울 뿌리며 기적을 올리면서 안양역으로 들어왔다. 서울 학생들의 등교와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안양역 아침 통근차의 출발 시각은 오전 7시경이 아니었나 싶다. 통근차를 놓치게 되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므로 통근차가 안양역에 들어올라치면 사람들이 허둥대면서 역으로 달려가곤 했었다. 저녁때가 되면 두 번인가 천안행 통근차가 있어서 아침 역의 그 사람들을 토해내듯이 내려놓고는 미끄러지듯이 떠나가곤 했었다.

천안에서 출발한 통근차는 성환, 평택, 오산, 병점, 수원, 부곡, 군포, 안양, 시흥 등 역에서 기다리는 학생들을 차례차례 싣고 서울역으로 달렸었다. 영등포, 노량진, 용산에서 내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나는 노량진에서 내려 한 20분 걸어야 학교에 갈 수 있었다. 달리는 기차 안은 언제나 악동들의 전국시대였다. 자기 동네 역의 명예를 걸고 싸움을 벌여 길어야 두 시간여 치외법권 지역 안의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전사들이 있었다. 어떤 때는 평택파가, 그다음은 부곡파가, 그러다가는 시흥파가 패권을 잡았었다. 돌맹이를 날리며, 유리창을 부수며 적군을 대하듯이 전의가 충천했었다. 기차 안에는 이른바 잡상인들이 들끓었다. 바늘장수, 오징어와 땅콩장수, 각종 약장수 등의 장광설에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출처 : 안양광역신문 2010.11.5.자. 정진원, 문학박사, 수필가.)”

한편, 유한공고 8회 졸업생인 고상호 씨도 기차통학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형님 한 분이 안양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어 당분간 같이 기거해야 할 형편이 돼서 나는 형님의 집에서 통학을 하게 되었다. 형님이 살던 곳은 안양3동 일명 병목안 이라고 불리는 수리산 밑의 새마을주택단지라고 하는 국민주택단지였다. 그곳은 안양역에서 20분 정도 걸어 나와야 한다. 지금은 모두 이전하여 없어졌지만, 중소형 공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안양천 변에는 판자촌이 딱딱딱 두꺼비집처럼 붙여지어져 있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의 이야기이다. 그 많던 판자촌은 1977년 안양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수해로 인하여 모두 철거되었다는 이야기를 훗날 듣게 되었다. 어둠이 채 걷혀지지 않은 안양역사의 플랫폼에는 검은색과, 흰색이 대비를 이루며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로 장관을 이루었다.

안양에서는 나와 기계과 정달영군 그리고 7회 기계과 강세현 선배, 박상엽 선배 그리고 이미 천안에서 통학했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6회 선배 한 분 그리고 성환인지 병점인지에서 다니던 전기과 황성하군, 평택에서 전기과 구재정군, 수원에서는 기계과 하연수군, 전기과 김영호(방영호)군, 군포역에서는 건축과 천준영군, 시흥역에서는 자동차과 김유인군, 7회 기계과 유선호 선배가 탔다(출처 : <http://cafe.daum.net/youhans/>, 유한8회 고상호).”

안양이 배출한 김대규 시인은 안양역을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나의 고향은  
급행열차가  
서지 않는 곳.

친구야,

놀러 오려거든  
삼등객차를  
타고 오렴.

출처 : 엽서 (김대규)

이 시에 대해 이시영 시인은 안양의 추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시의 제목처럼 경쾌하며 어떤 점에선 젊음의 치기까지 느껴지는 작품이다. 그러나 ‘



급행열차' '삼등객차' 같은 복고 풍물이 등장해서인지 낭만적 열기 또한 확 끼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노스텔지어도.... 이 시의 행간 어딘가에 선 채 사라져 가는 급행열차의 뒤꽂무니를 아쉬운 듯 바라보고 있을 소년의 모습이 떠오른다. 결핍과 서지 않는 기적소리는 뒷날 소년을 시인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뜻밖에도 시인의 고향은 안양. 그는 그곳이 어리숙한 포도밭이었던 때부터 요란한 위성도시로 변한 오늘까지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 안양역전 버스정류장

1968년 당시 안양역전 버스정류장은 경향 각지에서 모이고 또 흩어지는 모임과 나눔의 장소였다. 이것은 안양역의 개설과 맞물린다. 안양역사 앞 좌측에는 안산, 고잔 행 버스들이 주차했던 정류장이 있었다.

한쪽에는 여름철이면 안양역과 안양유원지를 오가는 임시버스도 운행되고 또 다른 옆에는 합승용 시발택시가 몇 대 서있기도 했다. 이 자리는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또 지역으로 향하는 시외버스들이 주차하는 사실상의 버스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다.



1968년 안양역전 버스정류장

## 안양천의 역사 : 오염과 훼손, 복구와 복원

### 들임과 합침

안양천의 지명은 안양 시가지 앞을 지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양을 중심으로 그 뒤로는 수암천이 지나고 앞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기 때문에 안양천을 앞개울 이라 하고, 수암천을 뒷개울 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갈천(葛川)이라고도 불렀다.

조선 시대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 금천현 편에는 대천이 현의 4리에 있으며, 과천현의 관악산과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양천현의 철곶포로 흘러들어 간다고 하여 대천이라 기록하고 있고, 과천현 편에는 현의 남쪽 14리에 인덕원천이 있고, 현의 서쪽 19리에 학고개천이 있다고 하여 안양천의 상류를 인덕원천, 중류지역을 학고개천 으로 각각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 과천현 편에는 안양천(安陽川)이 현의 서쪽 20리에 있는데 사근천과 인덕원천이 금천에서 합류하여 흘러간다고 기록하고 있어 오늘날 쓰는 안양천(安養川)의 한자와 다른 글자로도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에는 기탄으로 표기하고 있다. 결국, 안양천이 대천 인덕원천 학고개천 안양천 기탄 등 다양하게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안양천은 원래 큰 하천이란 뜻에서 ‘대천(大川)’이라 불리다가, 고려 태조가 건립한 ‘안양사’라는 사찰의 이름을 딴 ‘안양천’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안양이라는 말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몸을 가다듬어 기른다는 뜻으로, 불가에서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청정한 ‘극락정토’, ‘극락세계’를 말한다. 안양은 이처럼 극락같은 세상을 바라는 선조들의 기원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을 흐르는 안양천은 태조가 염원하는 극락세계의 풍경을 그려내듯이 물이 풍부하고 깨끗해서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다. 그리하여 이곳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천렵장소로, 빨래와 목욕터로, 아이들의 놀이 장소로 모든 생명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안양천 하류인 목동 일대는 말 방목장으로 유명할 만큼 갈대와 목초가 잘 자라는 곳이었으며, 한강과 만나는 하구는 경기 이남지역, 인천과 수원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였다(출처: <http://magazine.jungle.co.kr>, 이옥분).

길이 34.8km. 삼성산(三聖山)에서 발원하는 하천과 백운산(白雲山)에서 흘러나온 학의천(鶴儀川) 및 군포시를 흐르는 산본천(山本川) 등의 지류가 안양시 석수동(石水洞)에서 합류하여 북쪽으로 흐른다. 서울을 지나 목감천과 도림천이 합류하여 한강으로 흐른다. 안양시와 서울시의 경계에서부터 한강 합류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다.



물길은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를 지나 성산대교 서쪽에서 한강으로 흘러든다. 삼성산의 안양사에서 발원하였다 하여 안양천이라 부르며, 조선 시대에는 대천(大川)·기탄(岐灘)이라고도 하였다.

하천의 유역면적은 286km<sup>2</sup>, 하천연장이 32.5km의 하천으로 학의천, 삼성천, 수암천, 삼막천, 왕곡천, 오전천, 산본천, 시흥천, 목감천, 도림천 등 대소 지천이 있다. 안양천 상류 지역에 고도가 높은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 등 산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안양천유역에는 경기도의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시흥시, 과천시와 서울의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고, 유역 내의 인구는 약 329만 명이다.



안양천의 수계도

## 안양천의 변화 과정

1910년경의 안양천의 모습은 상당히 굴곡이 있는 사행하천이었으나 토지이용증대, 도시개발에 따른 하천정비로 현재의 하천모습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1977년 7월 8일 발생한 안양천 대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1978년 안양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함에 따라 현재의 하천모습을 이루었다.



1960년대 안양천 풍경



70년대 안양천 석수3동



##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 시대에 유린당한 안양천

안양 시내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흘러가는 안양천은 뱀이 기어가는 모양으로 굴곡이 심한 사행하천이었다. 이렇게 유유자적 흐르던 안양천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달라지기 시작했다. 철도가 들어서면서 근대적 산업시설을 갖춘 공장이 들어섰고, 안양은 점차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1930년 조선직물이 들어선 이후 조선견직, 제일방직, 금성방직, 삼덕제지 등이 설립되면서, 안양은 섬유와 제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자리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기계, 전기전자산업, 화학 등의 공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섰고, 군포공단, 안양공단, 구로공단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공장이 속속 지어지고 노동자가 모여들면서 천변 일대 지역은 빠르게 변화했고, 이와 함께 안양천도 달라졌다. 수많은 공장들은 안양천의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했고, 공장들은 용수를 공급한 발원지로 다시금 공장의 폐수를 흘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안양천은 사람들과 멀어지며 물과 강이 지닌 상징과 이야기, 신성성의 지위를 잃고 단지 삶을 위한 기능적 도구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1959년 5월 31일 자 조선일보에는 “삼덕제지공장 주변 일대 우물에 유독 폐수”라는 기사가 실렸다.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3만여 주민이 음료수로 삼고 있는 우물물이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독성 폐수에 오염되었다”는 기사였다. 또한, “하루 수십만석의 물을 써 버리는 공장들 때문에 우물을 깊이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기사는 산업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안양천이 이미 오염되고 말라가는 사실, 그리고 물이 사람에게 주는 이로움을 떠나, 특정 산업에서의 생산력을 올려 주는 주된 도구가 되어 가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비록 산업화를 위해 자연의 파괴를 서슴지 않는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자연과 사람은 시대와 환경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왔다. 60년대 안양천 뚝에는 누르스름한 종잇조각이 널려 있었다고 한다. 주변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에 종이 찌꺼기가 섞여 있어서 인근 주민이 물을 막고 폐지 찌꺼기를 걸러내어 김처럼 체에 떠 놓은 것이었다. 뚝에 펼쳐진 이 누런 마분지 풍경은 물이 생명을 잉태하는 힘을 잃었을지라도 인근 주민의 생계를 이어주던 자연의 힘이었으리라.

공장의 난립과 폐수 방출은 더욱 극심해져 인근 마을까지 폐수가 유입되어 못자리가 썩는 등 하천과 마을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졌다. 1968년 최초로 하천 오염도 조사가 실시된 이후 70년 측정한 오염치에서 안양천(672ppm), 청계천(700ppm), 우이천(946ppm) 세 곳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기록했다. 75년 8월 26일 자 경인일보는 “각종 폐수가 섞여 악취를 풍기며 이에 주민이 불안해할 뿐 아니라, 버스나 열차를 타고 이 지점을 지나는 승객

들마저 악취로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마치 공해와 방역의 무방비 지대를 방불케 한다”고 쓰고 있다. 안양천은 산업화가 시작된 지 불과 10여 년 사이 더럽고 시름한 공단의 냄새를 품은 꺼려지는 곳, 오염하천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1977년 안양천은 300여 명 인명 피해와 수백억의 재산 피해를 가져온 대홍수를 겪으며 일대 변화를 맞게 되었다.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시가지의 모든 땅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로 덮였고, 큰비가 오면 그 물이 하천으로 모여 홍수가 빈번해졌다. 이미 60년대 중 후반부터 마을마다 흐르던 소하천은 홍수 예방을 위해 석축을 쌓는 정도에서 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홍수를 계기로 홍수 관리, 호안공사, 고수부지 정비, 하수처리장의 건설 등 하천의 이수와 치수 기능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8세기 실학자 이종환의 <택리지>를 보면, “강거(江居)는 계거(溪居)만 못하고, 계거는 산거(山居)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홍수 위험에 따른 주거의 불안정을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네 선조가 은유적으로 지적한 이러한 홍수의 위험을 고려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더라면 애초부터 물난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출처 : <http://magazine.jungle.co.kr>, 이옥분).

## 77 수해와 복구기의 안양천

77 수해를 계기로 안양천 정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정부는 콘크리트로 독을 쌓아 사행하천을 곧게 펼쳤고, 축조된 제방이 안전하게 홍수에 버틸 수 있도록 비탈면에는 시멘트로 된 호안블럭과 잔디를 심었다. 동물구멍 등 제방을 붕괴시키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풀을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대비해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하천을 직선으로 만드는 것을 직강화(直江化)라고 하는데, 홍수가 발생할 때 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 방식은 홍수를 막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의 파괴 문제를 야기했다. 하도가 직선으로 단순화되면 흐르는 물속의 생태계도 단순화되기 때문이다.

하천 단면을 콘크리트 안벽으로 수직화시키면서 생겨난 반듯한 땅은 도로나 주차장을 만들었다.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에 따라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 이에 따른 도로의 확장 대책으로 하천 연안은 적격이었다. 원래 하천의 양안에는 자연스러운 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도시 간선도로나 고속도로로 확대하면서, 하천폭이 넓은 곳을 제외하고 웬만한 개울은 뚜껑을 덮어 비좁은 도시의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했다. 도로로 만들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비교적 넓은 하천도 복개하여 건물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처럼 넓게 또는 좁게 도시를 싹틔울처럼 잇고 있는 하천은 철저히 도시의 성장과 생활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산업화 이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의 하천은 더러웠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물의 오염과 인위적인 정비작업은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없는 수준으로, 예전과는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폐수가 섞인 오염된 물이 그대로 한강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수돗물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 등 강의 오염은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1992년부터 하수처리장을 가동하고, 강 양편에 하수관로를 묻어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하수관을 통해 강 하류로 보내 한강 수질을 보전하는 작업이 실시됨으로써 수질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출처 : <http://magazine.jungle.co.kr>, 이옥분).



1977수해 안양대교와 안양천

## 다시 삶 속으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90년대 중반에 들어와 안양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둔치에는 농구장, 롤러스케이트 등의 체육공원, 자연학습장과 야외무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이 꾸며지면서 강가는 다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놀이 공간으로 돌아왔다. 일종의 하천 공원화 사업을 통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러 시설물이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예전처럼 마음껏 물을 즐길 수 있는 강이 아니었으며, 모든 생명이 함께 반기는 곳은 아직 아니었다.

안양천을 모든 생명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자연에 가깝게 되돌리기 위한 실천은 2001년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가 조직되면서 이루어졌다. 이 네트워크는 90년대 중반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강하천과 시멘트로 황량해진 강변, 하천 복개와 고수부지 활용 등 그간의 하천 이용에 대한 반성과 보존을 주장하며 일어났던 산발적인 운동들이 하나의 조직체로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이 단체는 이후 생태 하천으로의 복원을 실천하는 구심체가 되었다.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기존의 큰 뚝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물줄기를 자연형태로 복원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콘크리트 블록을 걷어내고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도로와 주차장, 무분별하게 들어선 체육시설도 정비하고, 하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출처 : <http://magazine.jungle.co.kr>, 이옥분).

## 안양천의 추억

어떤 이가 기억하는 안양천은 낚시할 정도로 깨끗한 곳이었다.

“우리 동네 안양천 옆으로 조그만 못이 하나 있었다. 이곳에선 낚시꾼들이며 잠자리 잡으려는 아이들, 철길에서 동전 찌그러트리며 노는 아이들 등등 심지어 제비도 잠자리채로 잡는 시끌벅적 동네 놀이터다.

어려서부터 봐오던 곳이고 나에겐 큰 재미가 돼주던 곳도 아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쯤인가 같은 반 친구들과 이곳으로 낚시를 오게 되었다. 그전까지 낚시대라곤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나. 친구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찌를 달고 바늘에 지렁이를 꿰어 그래도 큰놈을 잡겠다고 긴 낚싯대를 휘둘러 던지고선 속으로 이 정도면 잘 던진 거야. 맞아. 마치 진짜 낚시꾼이라도 된 양 똥똥을 잡는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찌를 바라보는데 찌가 없다. 앵 뭐지? 이런, 입질인가? 낚싯대를 세우는데 저항이 느껴진다. 쿡쿡. 두 손으로 그대로 낚싯대를 세우니 고기가 뒤로 날아간다. 그런데 잡은 고기가 이상하다. 태어나서 처음 잡은 고기인데 생긴 게 괴상하다. 친구들도 황당한 표정이다. 뭘까? 정말 궁금했다. 길이는 30 정도 돼 보였고 빵이 없고 언뜻 보면 미꾸라지 같기도 했고 메기 같기도 했다. 그때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30년 묵은 미꾸라지 같다고 하신다. 지금도 궁금하다. 미꾸라지가 30년 사는 게 가능할까? 그 뒤로 붕어도 여러 마리 잡았다(출처 : <http://blog.naver.com/cnspe/150032220409>)

사진 하단에서 보는 것처럼 1968년 당시까지만 해도 만안초등학교 앞으로 수암천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 만안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주도로인 중앙로 공사를 하면서 뒤쪽 경부선 철로 옆으로 물길을 돌리고 지금의 안양천 철교 방향으로 빠지게 했다.

이용구 씨는 수암천과 안양천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당시 나는 안양리(현 안양3동)에 살았는데 집 앞에 안양9동 수리산에서 발원하여 안

양천으로 합류하는 짧은 내인 수암천(秀岩川)이 있었다. 이 내는 장마철에나 물이 흐르다가 겨울에는 거의 건천(乾川)으로 여름 장마가 지면 하천이 범람해 학교로 가는 직선거리에 있는 돌다리가 물에 잠겨 시멘트 다리가 있는 안양역 앞에 있는 국도(國道)를 건너 학교에 가느라 먼 길로 돌아 가야 했다.

또한, 우리 집 앞 수암천은 장마가 끝나면 돌이 솟아 나와 기차선로 보수용(補修用) 자갈 채취가 시작되어 한때는 자갈차 길이 우리 마을까지 들어 왔었다가 나중에 병목안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당시 얕던 냇가가 해마다 패이고 패어 지금은 사람 키보다 더 깊게 패었으며 일부는 복개(覆蓋) 되었으니 약 70여 년이란 세월의 흐름과 변화를 알 수가 있었다.

이것뿐 아니라 안양천 상류인 군포와 모락산 청계산 관악산에서 흐르는 물이 합류되는 안양천에 비산리(현 비산동)로 통하는 얇은 시멘트 다리(속칭 수프르지 다리)도 물에 잠기면 비산리(현 비산동), 호계리(호계동) 등지의 학우들은 비가 그칠 때까지 집에서 쉬어야 했다.

또한, 그 후 이 안양천은 한때 수질 오염이 심했으나 하천(河川水) 정화사업으로 이제는 말끔하게 정화되어 물고기가 예전과 같이 서식하게 되었으며 이젠 아무리 역수의 장마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건너갈 다리가 얼마든지 있게 되었다.

장마가 그치면 맑고 풍부한 냇물에서 물장구치며 한여름을 나뉜 그 시절의 추억이 마냥 그리기만 하다 이 냇물은 묵묵히 지금도 안양시내 한복판을 지나 충훈부(忠勳府)를 돌아 시흥, 구로, 김포를 지나 한강으로 합류(合流)되어 유유히 서해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출처: <http://www.srkr.or.kr/bbs>, 이용구).”

실제로 1970년대까지는 안양천 맑은 물에서 뱃놀이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1968년 만안초등학교 앞 수암천



안양천에서 가족이 뱃놀이를 하고 있다



# 마을

## 안양읍내

조선조 정조는 부친 사도세자의 능행을 남태령 노선을 버리고 현 시흥대로 길로 바꾼다. 이때 현재의 안양철교 부근인 시흥현과 과천현 경계 하천에 만안교를 가설했으며 한 해 전인 1974년에는 안양리에 임금의 능행 도중에 쉬어가면서 백성을 보살피기 위한 안양주필소-안양행궁(安養行宮)이 건립되었고 이때부터 현 만안지역이 발전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사람도 별로 살지 않던 촌락에 불과했던 안양리가 오늘날 안양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는 일제 강점기인 1905년에 경부선 안양역(安養驛)이 개통돼 안양리는 교통의 요충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부선 1구간 역 중 하서면 안양리에 개설된 안양역의 개통은 호계리에 개설돼 있던 군포장을 쇠퇴하게 만들고 안양역 일대는 비약적인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1912년 3천412명이던 인구수는 1925년 6천165명, 1935년 8천957명, 1940년 1만 명으로 늘어난다.

시흥군지 등의 기록을 보면 일제 강점기인 1917년 7월에 호계2동 방죽말에 있던 서이면사무소가 구 안양1동사무소 옆(안양1동 674-271)자리로 이전하고, 1924년에는 만안로에 안양지방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 안양역 앞에는 안양우체국과 안양연초조합 등이 속속 설립되면서 안양역 일대가 관공서들이 속속 들어섰다.

광복 직후에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시흥군청사가 안양 일번가 삼원플라자 호텔 자리로 이전하고 곧이어 안양경찰서, 안양읍사무소, 의용소방대 등이 추가로 들어서면서 안양 일번가는 70년까지 시흥군 행정 관가의 거리로 행정구역상 중앙동(中央洞)으로 불리웠다.

하지만 1970년대 시흥군의 해체와 안양시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의 변화 속에 공공기관들이 안양6동으로 이전하면서 안양 1번가는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해 1980년대에는 먹거리, 옷가게, 유흥주점이 주류를 이루며 금융, 교통, 상권을 아우르는 상업중심지로 변모하게 된다.



73년 안양읍사무소



이 당시를 한 안양인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도시가 농촌을 먹어버리는 모양을 표현하는 데 잠식(蠶食)이라는 말이 적절할 듯하다. 누에가 야금야금 뿔실을 먹어가듯이 도시화(urbanization)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도시화의 파도에 잠겨버렸다. 시골에서 유소년기를 자란 나로서는 도시라는 괴물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 박탈감을 늘 가지고 있다.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어디 변화되지 않은 곳이 있으리라는 지금 가보면 그야말로 알 수 없게 변화된 곳이 안양과 덕장골 사이이다. 안양은 하루에 몇 번씩 기차가 지나다니고, 플라타너스 가로수 사이로 차들이 왕래하던 지방의 소읍이었다. 삼막사 아래로 안양풀장이라는 유원지가 있었고, 근처에는 포도밭이 많았다. 안양을 산자수명한 곳으로 예찬한 사람도 있는 모양이나, 그렇게 빼어난 경관은 아니었다. 지금의 안양-덕장골 사이를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이다.(중략)

사십여 년 전 안양에는 안양역, 안양읍사무소, 안양경찰서, 시흥군청, 금성방직공장, 태평방직공장, 몇 개의 교회, 약방, 의원 등이 있었다. 당시 안양의 중심업무지구(CBD)는 읍사무소, 경찰서, 군청이 있었던 곳이었다. 지금 무슨 관광호텔인가가 들어선 자리인 듯하다. 당시에는 정오가 되면 읍사무소에서 사이렌이 울렸고, 전기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들어왔기 때문에 전등도 그 때나 켤 수 있었다.

고모님 댁이 그곳에 있어서 얼마 동안 거기서 생활한 적이 있었다. 근처에 치과, 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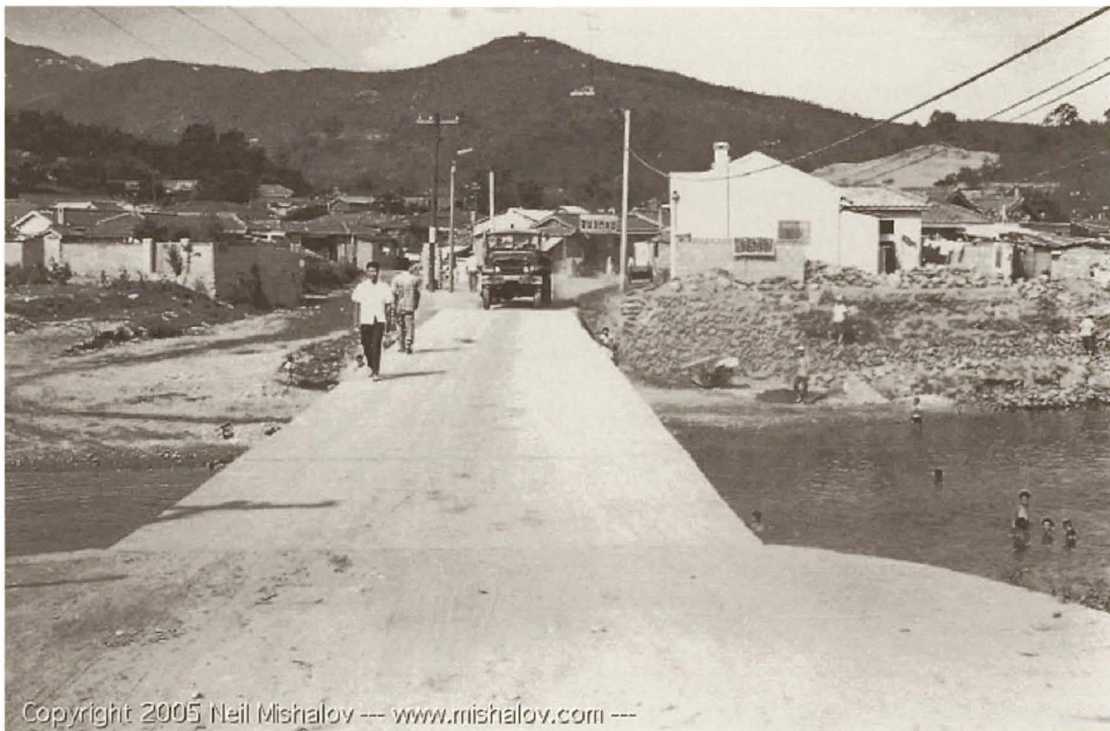
1970년대 안양역 앞

래의원, 만춘관인가 중국집 등이 있었다. 안양역을 지나서 조금 서울 방향으로 가면 화단극장이 있었다. 당시 안양은 소읍이었다. 아침저녁으로 통근열차가 지나가면서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흡입했다가, 토해냈다가 하는 동네였다. 정기적으로 안양장이 열리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유명한 장은 아니었으며, 당시 그곳은 이미 상설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경수 구도로에서 철도 건널목을 건너 수프르지 개천 건너기 전까지가 시장이었다. 시장 끝 부근에는 소시장이 열리곤 하였는데, 시장이 서지 않는 때에는 소 말뚝만이 남아 있어서, 버려진 공동묘지처럼 보였었다. 우시장 뒷골목으로는 장국밥집, 막걸리집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출처: 네이버블로그. 귀천/귀향/귀인)

## 찬우물

주점동 북쪽으로 충혼탑 아래에 찬 샘우물이 있어 그 인근을 찬우물이라 칭했다. 이 우물은 일제 강점기만 해도 식수와 농업용수에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약수로 이용되고 있다.

안양5동이 찬우물이 있다 하여 찰냉자, 샘泉水를 써서 ‘냉천동’이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일이다.



Copyright 2005 Neil Mishalov --- www.mishalov.com ---

구시장 지나 수프르지 가는 다리





70년대 안양5동 뒷골목

안양5동 찬우물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새로운 전설이 있다. 옛날, 찬우물 아래에 오막살이집 한 채가 있었고, 거기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지금말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겠다. 먹을거리와 입을 것, 덮을 것은 변변치 않았으나, 어느 날 이 가난한 집에 아기가 태어난다.

너무 생활이 궁핍한 산모. 출산 후 삼 일째 되는 날인가 하도 배가 고파 물이라도 먹어야 사니까 함박눈이 엄청 쏟아져 내리는 날에 비틀거리며 찬우물을 찾았다 한다.

내리는 눈을 손바닥으로 받아먹으면서도 수리산에 나무하러 간 낭군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지면서 너덧 번 함박눈을 입속에 넣었을 즈음, 이때, 아닌 밤중에 흥두깨 같은 닭 한 마리가 갑자기 산모의 겨드랑이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산모는 닭을 잡기에는 너무도 쇠진한 기력 때문에 결국 닭은 야속하게 수리산 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고 주저앉은 산모, 하염없이 눈물은 흘렸다 한다(출처 : <http://cafe.daum.net/susasa/임부성>).

## 전통마을제

전통적으로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내려오던 산신제, 도당제, 나무제, 우물제 등 대다수 고유제가 도시의 개발로 마을의 정서는 물론 사람도 바뀌면서 이미 없어지고 일



부 명맥을 잇는 것들조차 행정기관과 주민의 무관심 속에 점차 잊혀지고 있다.

안양지역의 마을제사는 산(또는 산신령), 우물, 비석, 나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을제는 의식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마을단위로 기원하고, 도시화 물결 속에 사라져가는 주민의 공동체의식 강화 및 일체감 형성하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또한, 민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민 상호 간의 화합과 연대의식 및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서 명맥을 잇고 있는 전통마을제는 음력 7월에는 열리는 호계1동 덕현정제를 비롯 음력 10월에 열리는 석수1동 삼막골 쌍신제, 비산동 매봉산 산신제, 관양1동 수촌마을 도당제, 관양2동 현감 이태응 영세 불망비제 등 5개만이 남아있다.

### 수령 5~600년 향나무와 느티나무가 있는 삼막골 나무제

삼막골 느티나무제는 석수1동 1통에 있는 수령 600년이 넘는 할머니 향나무(아랫말 서낭할머니)와 2통에 있는 수령 500년이 느티나무(웃말 서낭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주민은 제를 지내고 농악대 풍물 속에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



### 할아버지산과 할머니산에서 제를 지내는 석수동 쌍신제

석수동 지역에서는 안양예술공원 삼성천(구, 유유산업 앞)을 경계 삼아 두 개 마을로 나뉜 같은 날 동 시간대에 두 분의 산신령(할아버지산 산신, 할머니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특이한 풍습을 일컬어 일명 ‘석수동 쌍산신제’라고도 칭한다. 산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애착과 정성이 산을 신성시하고 산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마음에서 예로부터 산신제를 치러 왔다고 한다.

산신께 축문낭독과 함께 소원을 빌며 마을과 개인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석수동 쌍산신제는 매년 가을에 산신께 평안과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산고사는 일종의 추수감사제로 석수동 지역에서 약 300여 년간 이어진 고유 전통문화다.

통복어, 시루떡, 돼지머리, 대추, 밤, 사과, 배 등 조출한 제사음식을 산신께 공양하고

삼배, 헌주 등으로 제를 올리며 축문낭독과 함께 소원을 비는 소지(燒紙)행사 등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할머니산 대동산신제가 같은 날, 동일시간대 (경수산업도로변) 별장가든 뒤편 약수터 위 제단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행사 2-3일 전 행사일정 및 시간을 사전 조율하여 약속을 잡아 같은 시간에 산신제를 올리기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햇불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어이-하고 외치고 신호하며 산 중턱의 산신제단으로 이동했고, 오늘날에는 손전등과 핸드폰으로 통신하며 산고사 시간을 맞춘다.

마을제는 풍요와 무병장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을 공동제사로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민간 무속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을제는 의식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마을단위로 기원하고, 도시화 물결 속에 사라져가는 주민의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일체감 형성하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또한, 민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민 상호 간의 화합과 연대의식 및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 공동체 의식의 약화와 주민참여 및 인식 부족 등의 사유로 수백 년간 우리 안양에서 지켜온 선조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고유 마을제가 무관심과 방치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안양지역에서 수백 년 맥을 이어 전승되어온 일부 마을제는 일부 자취를 감춰 사라졌고 일부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축원하는 마을제(洞祭)를 특정 종교 의식 행사, 미신이라고 폄하하기보다는 마을의 화합과 결속을 꾀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 새로이 인식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마을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의원 등 지역인사 및 마을주민의 절대적 참여와 협조, 문화단체 및 사회단체와 연대한 행사추진, 동주민센터 및 안양시의 홍보 및 지원, 특히 청소년, 학생 등 젊은 층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단위의 전통문화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출처: 안양광역신문 2011.3.23, 조성현).

# 안양의 입향조 이야기



## 옛 안양지역을 본관으로 한 성씨

### 7개 성씨로 시작된 과천현

오늘날 안양지역은 과천현의 일부와 금천현(衿川縣)(지금의 시흥)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오늘날 비산동 일원은 과천현 상서면에 속했고, 호계동과 안양동, 석수동 일원은 과천현 하서면에 속했던 지역이었다. 그리고 안양동 일부와 박달동 인근은 금천현 현내면과 서면에 속해 있었는데, 조선 말기에 이르러 시흥군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 중기 이후 면리제가 확립되어 가던 과정에서 생긴 안양리는 과천현 하서면에 속한 조그마한 리에 불과했고, 일제 강점기에 시흥군의 안양리에서 안양면으로 승격되었다가 해방 이후 다시 안양읍으로 승격되었으니, 안양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없다. 오늘날 안양지역을 아우르고 있던 과천현과 금천현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보면 과천현은 토성이 손(孫), 이(李), 전(全), 변(邊)이요, 망성이 3개로 신(愼), 안(安), 최(崔)씨 등이다.

여기서 토성이란 고려 시대부터 전래해온 고적(古籍)과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 각 도에서 올린 문서인 관(關)에 기재되어 있던 성씨를 지칭했던 것으로 토성은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 이미 없어진 망성과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 온 래성(來姓), 속성(續姓) 등과는 달리 그 지방의 구획 당초부터 15세기까지 그 지방에 토착하면서 그곳 지명을 본관으로 하는 지배적인 성씨집단을 지칭하였다. 망성은 고려이래 전해오던 고적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인 15세기 초에는 이미 없어진 토성을 지칭해 망성은 결국 망토성(亡土姓)이란 의미로서 토성이 확립된 이래 그 성씨의 성쇠소장에 따라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망성이 많은 지역은 고려 시대 경기권이였다. 과천의 토성·망성은 세종실록지리지 이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구분 없이 7개의 성씨를 그대로 기록했고 그 후에 발간된 읍지에도 변동 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 안양의 관적성씨(貫籍姓氏)

안양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과천현의 하서면(下西面)과 상서면(上西面)에 속했다가, 1914년 3월부터 시흥군 서이면(西二面)으로 불리 우다가 1941년에 안양면으로 개칭된 후, 1949년에 안양읍으로 승격되었고, 이어 1973년에 시제실시로 안양시로 승격된 신흥도시인 관계로 안양을 본관으로 한 성씨가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본관이란 본래 현(縣) 이상의 고을이

름이나 그 고을의 별호(別號)를 따서 본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안양에 고아원(보육원)이 생기고, 안양이 독립행정구획으로 시가 되자 관내 고아원에 수용되고 있는 고아출신 난민에게 성과 본을 창설해 줌으로써 안양을 본관으로 하는 새로운 성씨가 창출된 것이다. 안양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안양상의보 1978년 8월 1일 자에 ‘안양 김(金), 이(李), 박(朴), 최(崔) 탄생’이란 기사가 실려 있다.

## 대를 이어 살아온 성씨 이야기

### 전주 이씨 영응대군의 후손, 안양1동

과천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의 안양리(安養里) 발사리(撥舍里) 지역이었다가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1941년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고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1리와 5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1동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에 따라 안양 5동 일부가 편입되었다.

조선 시대에 정조가 부친인 사도세자의 능행을 위해 안양행궁을 짓고 능행 시 잠시 쉬어가게 하였으며 그 후 만안로가 만들어지고 1905년에는 미나리 밭이었던 자리에 안양역이 생겼다. 1924년에는 안양지역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과 안양역 앞에 안양우체국이 설립되었다. 1929년 시대동 일대에 안양지방 최초로 전기가 송전되었다.

안양 1동에 성주 이씨가 정착하게 된 것은 중시조 이장경의 12세손 이군미(李君美)가 1600년경 세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자세한 정착 연월은 알려지지 않으나 병자호란 등의 난리를 겪으면서 은둔할 장소를 물색하다 이곳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군미는 음직으로 종사랑을 지냈고, 안양 3세 이하보는 평택 현감을 지냈으며, 안양 6세손 이효원은 무과에 합격하여 오위장을 역임했다. 이군미의 11세, 12세손에 해당하는 후손들이 현재 안양과 그 인근에 살며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곳에는 인동 장씨(張氏)들도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는데, 180년 전 청주에서 안양1동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장현봉(張鉉峰)의 후손들이다. 장현봉은 인동 장씨 15세손이며, 그 후손들은 지금도 안양 1번가 중심가에서 대를 이어 살고 있다.



안양 1번가에는 전주 이씨 영응대군 후손들도 몇 대에 걸쳐 세거해왔다. 정착 시기는 1909년경으로 보인다. 안양1동은 안양 중심부로 안양역 만안로, 중앙로, 관악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금융, 상가가 운집해 ‘안양 1번가’로 통한다. 전통시장으로 남부시장이 있으며 학교는 안일초등학교가 있다. 중앙동(中央洞)은 북부동과 시대동(또는 남부동) 사이에 있는 마을로 안양시가지 중앙에 있는 마을이므로 ‘중앙동(中央洞)’이라 칭하며, 이 마을을 기점으로 남쪽에 있는 마을이 남부동(南部洞), 북쪽에 있는 마을이 북부동(北部洞)<sup>01</sup>이다. 중앙동이 오늘날처럼 안양의 중심지로 크게 번창 되기는 조선조 제22대 임금인 정조가 1795년에 시흥현과 과천현 경계지점에 만안교를 가설한 후 화산능행의 로정(路程)을 과천-인덕원-수원에서 시흥(현 금천구 시흥동)-안양-수원의로 바꾸면서 유래된 뒤(안양1동 674-67)에 안양행궁(安養行宮)을 짓자 주변에 민가가 생기기 시작했고, 1905년에 경부선 부설로 안양역이 건설되자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하여 1917년 7월에 호계2동에 있던 서이면사무소가 안양1동사무소 옆 안양옥(安養屋)(안양1동 674-271) 자리로 이전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안양금융조합과 안양연초조합 등이 속속 이곳에 세워졌고, 광복 후에는 시흥군청을 비롯하여 안양경찰서, 안양읍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들어서자 관가의 거리로 되었다가, 이들 기관이 1970년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뉴코리아호텔, 안양백화점, 그 밖에 유흥음식점이 붐벼 안양의 1번가로 자리를 굳혔다. 한편, 안양1동에 속하고 중앙동 쪽으로 구한국제지와 진흥아파트 사이에 자리 잡은 마을이 시대동이다. 市垆洞이란 이름은 과거 이곳에 안양시장이 있었던 사실에 기인하며, 일명 구시장이라고도 한다. 예전 안양의 중심지역이며, 안양 1번가와 연결해 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수암, 군자 등이 인접해 있어 시장으로서는 최적지였다. 1926년 1월 28일에 처음 안양시장이 들어서고, 농축산물, 포목, 일상잡화 등 다양한 품목들이 거래되었다. 개장 첫해인 1927년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농산물이 15만 6,000원, 잡화가 21만 2,000원, 그 밖에 직물, 축산물, 수산물 등 모두 50여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은 지대가 낮아 홍수 때문에 안양천이 범람하면 침수되기 일췌여서 1961년 11월 6일, 안양 4동으로 시장을 이전(현 중앙시장)하였다. 이곳은 1929년 안양지역에서는 최초로 전기가 송전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옛 장터는 현재 남부시장이 있다.

## 포도가 먼저 자리한, 안양2동

조선 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석수동이었다가 1914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

<sup>01</sup> 참고로 남부동은 중앙동 사이에 있는 마을로서 안양시가지 남쪽 마을이라는 뜻으로 남부동이며, 북부동과 짝을 이룬다. 이곳은 수리산 줄기를 따라 찬우물에서 흘러내리는 샘물로 농사를 짓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8·15 광복 직후까지 지금의 ‘2001 아울렛’ 앞에 민가 몇 호가 드문드문 있었다. 1960년대부터 원예·청과물 시장이 개설되고, 이어 숙박업소가 번성하면서 급성장하였다. 현재 남부시장이 중심에 있고, 안양 1번가와 연계되어 있다.



다. 1941년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고 1949년 안양읍 안양리라 했다가 1964년 안양읍 안양2리로 되었다. 1992년 만안구에 편제되었으며 1996년 일부가 안양3동에 편입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이 삼성산 밑 안양에서 최초로 포도를 재배한 곳이다. 사회복지시설로 기독교보육원이 오궁선에 의해 설립되었다. 최초의 극장인 화단극장이 있었다.

교통현황은 안양로, 만안로, 경수대로, 박달로가 있으며 학교는 만안초교, 안양여중·고, 양명고, 여고 5개가 있다. 안양 2동에는 북부동(北部洞) 1이 자리 잡고 있다. 안양시가지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북부동이다. 시가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야생조류의 서식처였으나, 일제 강점기 초에 ‘오키’라는 일본인이 안양에서 최초로 포도를 재배한 곳이다. 화단극장 앞 연미예식장(안양상공회의소) 자리에는 일본인 다카세 세타로가 ‘다카세 합명회사’를 설립하여 무역과 농업, 농장 업무를 봤다고 한다.

### 정종의 7남 증손 이공, 안양3동

조선 시대는 과천군 하서면 후두미동(後頭尾洞)이었고 1914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1964년 안양읍 안양3리로 되고 1973년 시제가 시행되면서 안양3동으로 되었다. 1994년 안양9동으로 분동되었고 1996년 시 조례 1392호에 의거 안양2동 일부가 편입되었다.

오래된 자연부락으로는 양지말(陽地洞)이 있다. 양지바른 마을의 지세를 반영한 이름이다. 한자 표기는 양지동(陽地洞) 외에 陽智洞, 陽支洞, 陽知洞 등이 혼용되기도 하는데, 현재는 양지동(陽地洞)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은 조선 2대 임금인 정종의 7남(守道君)의 증손 이공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이래, 원주 원씨 등이 살았다고 한다. 양지동은 문인들의 요람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193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채만식은 고향이 전북 옥구 출신이지만, 1940년부터 약 1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매일신보에 안양복거기(安養卜居記)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재 주거밀집 지역이며 학교는 안양과학대학(전신 안양공전), 안양공고, 안양예술고, 안양외국어고, 안양여자상업고, 안양서초가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아사이학교가 있었으며 1928년 엄기승이 안양 최초의 회사인 안양산업사(安養産業社)를 설립하고 또 1932년 조선직물(朝鮮織物)이 설립되고 광복 후 그 자리에 금성방직(金星紡織)이 설립되어 상업도시로 성장하였다.

## 진주 강씨·원주 이씨, 안양4동

조선 시대 과천군 하서면 장내동(塲內洞)이었고 1964년 안양읍 안양4리와 5리로 된 후 1973년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4동이 되었다. 1989년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다가 1992년 만안구로 편제 1996년 안양5동 일부가 편입되었다. 현재 안양 4동에 속하는 장내동은 장내리(塲內理)라고 했다. 진주 강씨, 원주 이씨 등이 세거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담안(澗安)은 ‘울 안에 있는 마을’을 뜻한다. 예전에 이곳에는 밤나무가 많았으므로 밤나무 울타리 안에 있는 마을을 뜻하며, 이를 한자화하면서 장내동 또는 담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자 담안(澗安)은 순우리말을 한자로 음차한 현상이다. 한편, 뜰안→들안→담안의 변천형태라는 설도 있다. 이곳이 너른 들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는 데서 연유된 듯하다. 안양4동은 일제 강점기에는 대부분 지역이 밤나무가 무성한 밤동산(栗園)이었다. 벽산쇼핑 일대는 좌백울원(左白栗園)이라는 대단위 울원이 조성되어 해마다 유료로 밤줍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안양 변전소가 설치된 후 1961년 삼덕제지와 삼길양산 등의 공장이 건립되었다. 삼덕제지는 그 후 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하여 삼덕공원이 되었다. 1954년 천주교 장내동 성당이 건립되었고 1956년 성당 내에 안양 최초의 유치원이 개설되었다. 1961년 안양1동에 있던 안양시장이 중앙동으로 이전하여 중앙시장(中央市場)으로 명명하였다. 안양 4동은 중앙시장이 번성하고, 안양의 명동 안양 1번가와 주간선 중앙로 사이에 있어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80년대부터 평촌신도시의 상권이 형성되기 전까지 중앙동과 함께 안양 최대의 변화가였으며, 현재에도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가난한 부부의 아들이 과거 급제, 안양5동

안양5동은 교하동(校下洞, 校化洞)으로 불리었다. 1927년 안양초등학교가 설립되면서 그 아래 마을이 생겨 학교 밑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애초 교화동(敎化洞)에서 교하동(校下洞)으로 바뀌었다. 교화동이란 마을 이름은 조선조 중엽 가난한 부부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사양하고 마을에 향교를 지어 백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임금께 간청, 이에 감탄한 임금이 커다란 집을 지어주고 교화당이라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어느 농부의 지성으로 샘물이 솟았다는 찬우물(冷泉)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다.

찬우물은 주집동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안양5동 15통에 속한다. 충혼탑 아래(안양5동 590-5) 찬 샘우물이 있어 그 인근을 찬우물(冷泉洞)이라 칭하였다. 이 우물은 일제 강점기



만 해도 식수와 농업용수에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약수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 난민들이 찬우물 위쪽에 정착하고, 우물 아래의 농경지가 택지로 변모되면서부터인데, 현재는 안양5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장미아파트, 건흥연립, 원불교, 현충탑, 장안 등이 있다.

교하동은 남부동과 주점동 사이에 있는 마을로서 구한말까지만 해도 대부분 지역이 소나무가 무성했던 곳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의 군사훈련장으로 쓰이다가, 1927년에 안양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학교 주변에 민가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

1964년 안양읍 안양6리가 된 후 1973년 시제 실시로 안양5동이 되었다. 1996년 시조례 제1392호에 따라 동 일부가 안양1동 안양4동에 편입되었다. 1997년 11월 5일에 신청사를 준공하여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 나주 정씨의 정착, 안양6동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7리가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시행되면서 안양6동(安養六洞)이 되었다. 이어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로 안양6동을 안양6동·안양7동(安養七洞)으로 분동하였고, 1985년 11월 5일 안양6동을 안양6동·안양8동(安養八洞)으로 분동하였다.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자연마을로 소골안과 주점동이 있다. 한국전쟁 후 수락산 골짜기에 난민을 소골안(小谷安)에 집단이주하여 형성되었고 주점동은 정조가 능행을 위해 안양경찰서 뒤에 정각을 짓고 잠시 쉬게 했다 하여 주점동이 되었다. 이곳에 나주 정씨가 정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고함공파 16세손으로 알려진 신원 미상의 인물이 주점동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정조대 무렵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점동에 세거해 왔던 나주 정씨가 비옥한 토지를 찾아 방죽말로 이거 하였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1900년대 초반이었다. 방죽말로 이주해 간 나주 정씨들은 그곳에서 5대째 살고 있다. 전주 이씨 후손들도 주점동에 정착하여 세거해 왔는데, 이 시기는 역시 정조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골안은 소곡동(小谷洞; 昭谷洞)이라고도 한다. 안양 6동 안양세무서에서 서쪽으로 수리산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의 명칭 유래는 수리산 작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소골안(小谷洞)이라는 설과 골짜기 안이 소(牛)를 많이 기르던 곳이라 하여 '소골안(牛谷洞)'이라는 설이 있다. 예전에 이곳은 소나무 숲이 우거진 한적한 곳으로, 주점동에서 3가구가 이주해 와서 살았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강원도 철원 등지에서 난민들이 들어와 지금의 안양1동 소재 진흥아파트(옛 태평방직) 자리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였는데, 당시



시흥군 안양읍장 조한구가 난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소골이 어감상 좋지 않다고 해서 한자어 소곡(小谷)으로 사용하였다. 1996년 5월에는 인덕원에 있던 신성중·고등학교가 이 마을로 이전해왔다.

학교는 신성중·고등학교, 안양상업고등학교가 있다. 관공서로는 중앙로 개설 후 시흥군청(현 만안여성회관), 안양시청(현 만안구청), 상공회의소, 보건소, 안양세무서가 있다.

## 농경지였던 안양7동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에서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1941년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다. 1949년 안양읍 안양리라 했다가 안양읍 안양7리로 되었다가 1973년 안양6동으로 되었다. 1979년 안양6동을 분동해 덕천마을 지역을 안양7동이라 했고 1989년 동안출장소로 편제되었다가 1992년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조선 시대는 대부분 농경지로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었다. 일제 강점기 초에 시흥시 정왕동에 살던 원정상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하였고 허허벌판이란 마을로 별터(坪村)이라 했다. 1977년 안양천의 범람으로 피해를 입어 수재민촌으로 불리었다. 1978년 마을 유지들에 의해 덕천마을로 개칭되었고 1979년 안양6동이 분동해 안양7동으로 되었다.

별터는 충훈부 북쪽에 위치했던 마을, 서쪽으로는 광명시 일직동 자경리와 북쪽으로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박미마을과 동쪽으로는 꽃챙이 마을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다. 허허벌판 모래땅 위에 자리 잡은 마을이름으로 별터라 불렸는데, 일명 별말(坪村)이라 칭하기도 하고, 또 일제 강점기에는 밤의 명사지라 하여 밤골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 마을에 최초로 세거한 성씨는 진주 하씨로 알려졌다. 석수1동 삼막골에 살던 진주 하씨 문효공(文孝公河演) 후손들이 이곳으로 분가하면서부터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15호 남짓했던 이 마을은 임(林)씨가 1호, 이(李)씨가 1호이고 그 외는 모두 진주 하씨였다. 별터읍은 풍수로 부아 배형국(佈形局)이므로 우물을 파면 망한다는 속설이 있어 마을 내에는 우물을 파지 않고 식수는 안양천에서 물을 길어다 마셨다고 한다. 그 후 일제 강점기 말엽에 죽어도 함께 죽자는 일념으로 마을 중앙에 우물을 파기 시작하자 집집이 우물을 팠다고 한다.

1960년대 초에 럭키아파트 일대에 있던 경기도립종축장이 이곳으로 이전하자 마을이 폐동되었는데, 마을 주민은 마을 안에 우물을 파지 말아야 하는데 지신(地神)이 노해서 마을이 망했다는 말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립종축장은 이곳에 10여 년간 있었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삼리 산 26-1로 이전하였고, 그 후 모 재

단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개인에게 매각하여 현재는 황량한 벌판으로 있다. 폐동전만 해도 벌터 주민은 해마다 음력 10월 1일이면 마을 중앙에 있던 향나무 앞에서 마을의 안정과 무해 및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堂祭)를 지냈다.

덕천마을은 주점동 동북쪽에 있으며, 예전에는 주점동과 한 마을이었다. 이곳에 사람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1900년경부터이다. 시흥 정왕동에서 누대로 세가 해왔던 원주 원씨 출신의 원정상이 분가를 하면서부터였고, 이어 전주 이씨, 창녕 성씨 등이 마을을 형성하였다. 초기 이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벌터였고 이후 77년 홍수로 수재민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실제로 1977년 9월에 안양의 시내버스(삼영운수)가 이쪽에 버스노선을 개설하면서 버스 안내판에 수재민촌으로 명기하자, 당시 새마을 지도자였던 최돈세가 중심이 되어 수재민촌이란 이름이 어감이 좋지 않고 장차 2세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새 이름을 짓자는 의견을 마을회의에서 제기하여 이름을 바꾸게 된다. 즉, 큰 하천인 안양천 변에 있다고 하여 큰 덕(德)자에 내 천(川)자를 취해 덕천마을(덕천동德川洞)로 명명했다. 그 후 1978년에 안양천의 오염문제가 거론되면서 천(川)자 대신에 ‘이곳 어린이들이 샘물 솟듯이 씩씩하게 자라서 나라에 큰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천(泉)자를 사용하여 덕천마을(德泉洞)로 개칭하고 마을 입구에 덕천마을이라는 표석을 설치했다. 이것은 하천이 잠잠하여 더는 수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처럼 덕천마을은 자연마을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긴 이름이다. 이곳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넓은 농경지였고, 이곳을 지나는 경부선 철로 변은 아카시아 꽃이 만발했다고 한다. 이 마을이 번성하게 된 이유는 원정상의 증손인 원종만이 허허벌판에 ‘덕천슈퍼’ 건물을 신축하면서부터이며, 그 후 7동 새마을금고와 덕천초, 우체국의 전신인 우편취급소 등 공공건물이 속속 세워지고, 기업체가 다수 건립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 평산 신씨·함평 이씨의 정착, 안양8동

안양8동은 조선 시대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에서 1914년 주령 제111호에 딸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1941년 부령 제253호에 의해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 1964년 안양7리로 된 후 1973년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6동이 되었다. 1985년 시조례 제739호에 의해 안양6동을 분동해 명학동, 곡내동, 상록마을을 안양8동이라 했으며 1992년 만안구로 편제되었다. 지명의 유래는 인조 때의 명신 심기원이 부친의 묘를 쓰기 위해 광동을 파던 중 암반 위에 앉아 있던 학이 명학초교 아래 바위에 앉아 슬피 울었다가 하여 명학동(鳴鶴洞)이라 불리었다. 명학동(鳴鶴洞)은 주점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평산 신씨 함평



이씨 등이 처음으로 정착했다고 전해진다. 예전에는 명학초등학교 아래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가 1974년 서울-수원 간 전철개통과 도이에 명학역의 건설, 1976년의 명학초등학교(안양8동 349-1), 중앙병원(안양8동 산160)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조 인조 때 좌의정을 역임한 심기원(沈器遠)(?-1644)이 부친 심간(沈謙)의 묘에 묘를 쓰려고 땅을 팠는데, 돌 밑에 학(學)이 두 마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한 마리는 안양2동 소재 양명고등학교 옆에 있는 바위에 날아와 앉더니 슬피운 후 어디론가 날아갔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바위를 학이 울던 바위라 하여 ‘명학바위’라 칭했고, 마을 이름도 바위 이름을 취해 ‘명학동(鳴鶴洞)’이라 부른다고 한다. 학교는 성문중고, 성결대학이 있다.

## 마을이야기가 풍부한 안양9동

안양9동은 과천군 하서면 후두미동이었다가 1914년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고 1941년 안양면 안양리로 1949년 안양읍 안양리로 되었다가 1964년 안양읍 안양3리로 되었다가 1973년 안양3동이 되었다. 1994년 시 조례 제1306호에 따라 안양3동이 분동해 안양9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 능골(陵谷), 담배촌, 병목안(後頭尾洞), 새마을, 안골(安谷)이 있다.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마을 이름이 반영된 예는 먼저 능곡의 예라 할 수 있다. 능곡은 박능곡이라고도 한다. 수리산 아래 안양 9동 현 안양서중학교 위쪽에 있으며, 현대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다. 병목안을 ‘웃능골’, 아 마을을 밧(박)능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능골이라는 명칭은 ‘능 아래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능골’이라는 설이 있다. 또 하나는 이곳이 ‘사도세자 능의 후보지’였다는 연유로 능골이 되었다는 설이다. 사도세자가 일찍이 내가 죽으면 연을 띄어 보고, 연이 떨어지는 그곳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연이 떨어진 곳이 바로 여기였다는 것이다. 그 후 능골에는 원주 변씨가 정착한 이래로 채씨, 김씨 등이 들어와 오랫동안 15호 남짓한 작은 촌락을 이루며 살았는데, 주변에는 공장이 들어서자 안양서여자중학교, 신안초등학교, 신안중학교 등 여러 학교가 들어섰다(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335). 한편, 수리산 자락 안양 9동 담배촌 북서쪽에 있는 마을의 자연부락 안골(安谷)이 있다. 이곳은 조선 시대에는 도자기를 굽던 곳이며, 최근까지 개인 소유의 요지(窯址) 터가 남아 있다. 안골의 명칭 유래는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한자 그대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을’이라는 의미 즉, 지세가 아늑하고 물맛이 좋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여, 편안할 안(安)자를 넣어 유래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설은 ‘수리산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안골(內谷)이라는 설이 있다. 이 경우 安谷이라는 한자 표기는 애초에 순수한 우리



말로 ‘안골’이라고 하다가, 음차한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마을 이름이 정해진 또 다른 곳은 병목안이다. 이 마을은 안양 9동 새마을교에서 옛 채석장에 이르는 지역이며 병목안시민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의 순우리말 이름은 뒤띠미, 뒤뜨미 등이며, 새롭게 채록된 이름은 병모관(兵模關)이다. ‘마을의 지세가 병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여된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말을 초입인 새마을교 부근은 좁지만 마을에 들어서면 골이 깊다고 하여 병목안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설은 ‘수리산 뒤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하여 뒤띠미, 뒤뜨미라 칭했고, 따라서 한자로 표기한 행정 명칭은 과천군 하서면 후두미동이라는 설이다. 2006년 새롭게 채록된 설로 군사를 모집하는 기관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병목안’이라는 이름은 ‘수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옛날 안양 읍내 사진과 함께 그 내역이 올라와 있다. 병목안에 사람이 최초로 살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곳에 소재한 묘소 등을 살펴보면, 대체로 조선 숙종 때 진주 류씨가 처음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진류문헌총집』에 의하면 안산 군수 등을 지낸 류명재(柳命才)의 묘를 이곳에 쓴 후 부터라고 한다. 진주 류씨 이후 원주 원씨, 순장 조씨, 달성 서씨 등이 살았으며, 병목안을 기점으로 서쪽 지역은 ‘새마을’, 서남쪽 지역은 ‘창박골’, 남쪽 지역은 ‘담배촌’이다. 창박골은 수리산 골짜기, 안양 9동 병목안 서남쪽에 있다. 이 마을의 유래는 첫째, 산골짜기여서 바위가 많은데, 바위 색깔이 짙푸른 심청색(深青色)이라 하여 ‘창바위골’, 즉, 창암동(蒼岩洞)이고, 골짜기는 ‘창암곡(蒼岩谷)’이라는 설이다. 또 하나는 예비군교육장 서쪽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 흡사 창과 같다 하여 창바위(窓岩)라 불렀고, 이 바위 안쪽(예비군교육장 소재)을 창암골, 바깥(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창박골(蒼外谷)이라고 불렀는데, 민가가 생기면서 마을 이름도 창박골이 되었다는 설이다.

해마다 음력 7월 1일이면 창박골 앞산 약수터 입구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병목안·담배촌 일대가 시민의 휴양지로 되면서 번창하기 시작했고, 이어 1985년 석산연립과 안양서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산 아래는 작은 사찰들과 예비군교육장을 둘러싸고 있고, 2006년에는 테니스장 및 운동시설을 갖춘 정수장이 건설되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담배골은 수리산 깊은 골짜기에 있으며 담배촌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최경환(프란치스코: 1805-1839)의 성지로 알려진 유적지이기도 하다. 담배골은 1837년 7월에 최경환과 천주교인들이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곳에 정착하고, 담배를 경작해서 생계를 이었다는 데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담배골은 지형적으로 급경사를 이루는 데, 담배는 주로 경사가 완만한 저지대에 심었다. 한강 이남에서는 담배골에서 재배한 담배를 일등급으로 칠 만큼 품질이 우수했다고 전해진다. 담배 외에 땔나무와 토종꿀을 채취해서 안산장(안산시 수암동), 군포장(호계3동 구 군포), 안양장(안양1동 시대동)등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자연마을로 하동 정

씨를 비롯하여 김녕 김씨, 원주 변씨, 청주 한씨 등이 살았다. 이곳이 워낙 두메산골이어서 한국전쟁 때는 인민군 본부가 주둔하기도 했다. 현재 이곳에는 천주교회가 있는데, 성지 입구 못 미친 곳에 자리를 잡은 복지강당은 대홍수 직후에 중건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안양9동은 예전에 밤나무가 많았다. 이를 상징하듯이 울목동(밤골)이 있다. 이곳은 노적봉의 산세에 따라 동서로 길게 생겼으며, 수암천이 마을을 따라 있다. 1933년과 1934년에 동아일보와 자매지 신가정 주최로 전국 부인 밤줍기 대회가 열릴 만큼 밤의 명산지로 유명했던 마을이다. 밤나무 숲이었던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 당시 시흥군 양양읍에 강원도 평강 등지의 난민들을 집단 이주시키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이 마을을 일명 피난민촌이라고도 한다.

## 조선 시대 안양리安養里, 석수1동

조선 시대에는 금천현 현내면 안양리였다가 정조 19년 시흥면 현내리 안양리로 고종 32년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로 개칭되었다. 1914년에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였다가 1963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 1964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1리로 1973년 안양시 승격(석수동)이 되고 1979년 석수1동(석수동에서 분동)으로 1989년 만안출장소 개소(석수1동) 1992년 만안구 승격(석수1동)으로 되었다. 석수동(石水洞)의 명칭은 석공(石工)이 많아石手洞이라 하였으나, 1932년 개설된 수영장을 石水水泳場이라고 하면서 石手が 石水로 바뀌게 되었다. 자연마을로 삼막골, 구룡마을이 있고 안양예술공원과 문화재로는 중초사지 당간지주, 삼막사, 안양사 등이 있다.

구룡마을(九龍洞)은 관악역 동쪽에 자리 잡은 마을로 한국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동국실업(석수동 165, 1968년 설립) 주변에 10여 호의 민가가 있었고, 그 밖의 지역은 밤나무, 참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있었다. 9.28 수복 후 당시 시흥에서 난민들을 이주시킨 후부터 마을이 형성됐다. 그 후 동국실업 등의 공장과 관악역(석수2동 241)이 생기면서 번창하기 시작했다. 구룡마을이란 지명은 석수1동 3통 노인회관 자리가 풍수로 보아 좌청룡이 완전한 명당지라 하여 구룡목이라 부른 데서 연유한다고 한다. 구전에 따르면 이곳이 명당 터라 조선 시대 어느 왕비의 묘를 쓰러다가 조산이 약하다 하여 동구능에 썼다고 한다. 삼막골(三幕洞)과 하씨촌은 구룡마을과 안양소년원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삼막골이란 명칭은 사찰 삼막사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삼막골은 삼막천을 경계로 해서 동쪽 지역을 ‘웃말’, 서쪽 마을을 ‘성재이’라고 한다. 삼막사의 유래는 삼성산의 유래와 같은 맥락으로, 삼성(三聖)이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따라 그 유래설이 다르다. 통일신라 고승 원효, 의상, 윤희 세 성인이 삼성



산에서 수도하며 삼막을 지었다는 설과 고려 시대 고승 지공, 나옹화상과 무학대사가 삼성산에서 수도하며 삼막을 지었다는 설이 있다. 어느 쪽이든 세 명의 성인이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1막을 짓고, 석수1동(241-41) 부근에 2막을 짓고, 석수 1동 산10-1에 3막을 지어 삼막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아래의 민가가 들어서면서 사찰이름을 따왔다는 것이다. 이곳을 하씨촌(河氏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진주 하씨의 집성촌이기 때문이다. 문효공파 후손인 하우청의 묘를 뒷산 학무봉에 쓰고 그 후손들이 들어와 살았다. 마을 어귀에는 시인 이성환의 묘가 있다. 해마다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에 '성재이'에 있는 서낭할아버지라고 받드는 느티나무와 웃말서낭할머니 향나무 앞에서 나무제를 지낸다. 삼막골은 진주 하씨 외에도 밀양 박씨, 청송 심씨 등의 누대 세거지였다. 사실, 삼막골에는 하우청의 처가였던 밀양 박씨들이 먼저 정착해 있었다고 한다. 하우청은 삼막골에 세거해 있던 밀양 박씨 박희명의 사위였다. 한편 석수동에 창녕 조씨들도 정착했는데 시기는 1600년 무렵 선조 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녕 조씨 안양 입향조로 알려진 조난서(1568-1634)는 합천군수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의 손자 조하경 역시 문과를 거쳐 외직을 거쳤다. 최초로 거주했던 곳은 정확하지 않으나 번창할 때는 10여 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에도 비산유원지 공영 주차장 뒤편에 있는 창녕 조씨 묘역은 규모가 100평이 넘는다. 조하경(통정대부 순천 도호부사) 묘, 조윤창(조하경의 손자), 조난서(통정대부 합천군수) 묘 등이 있다. 석수동 산신제는 매년 10월 3일에 지내는 데, 창녕 조씨, 전주 류씨, 청송 심씨 등 인근의 토박이 부락민이 참여한다.

## 서울 가는 길목, 석수2동

석수2동의 변천사는 석수1동과 궤를 같이하다가 1964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2로 1987년 광명시 소하1동 일부 지역이 편입되고 1990년 충훈부 지역이 석수3동으로 분동되었고 1992년 만안구 석수2동으로 되었다.

지금의 안양육교 일대가 예전에는 산세가 높고 후미진 곳이어서 서울로 가는 과객이나 보부상 등이 이곳을 지나치자면 산적이나 강도들에게 수난을 겪을 만큼 험준한 곳이었으나 구한말에 경부선의 철도부설로 고개가 낮추어졌고, 이어 신작로가 건설되면서 교통의 편리로 점차 마을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자연마을로는 꼬챙이(花倉洞, 串昌洞), 연현(鳶峴), 벌터(坪村), 신촌(新村)이 있다.

꼬챙이라는 지명유래는 '예전에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꼬챙이'가 되었다는 설이다. 이곳에는 조선 말기까지 쌀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설로는 봄이 오면 철쭉이 많이 피었고, 또한 일제 강점기에 본격적으로 벚나무 등 '각종 꽃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마을이 ‘꼬챙이’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안양천 변에 위치한 곳(바다나 강에 뽕족하게 내민 땅)’이었던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사료적으로 보면 조선 지리지(朝鮮地誌資料) 경기도 시흥군 편에 곶창(串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곶창이라고 불리던 지명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꼬챙이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마침 꽃이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까지 변화된 경우라는 설이다. 이전의 구술채록(화장 노인 정 회장 이봉식 등)을 보면 현재 폐수·정수사업장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조선시대 쌀창고였다고 전한다.

석수 2동에는 원색적인(?) 지명도 있다. 일명 똥골이라는 곳인데, 이 마을은 충훈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아래 있었다. 이곳은 수리골에 해당하며, 분노를 버린 곳이라 해서 마을 이름을 순우리말로 ‘똥골’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마을이라기보다 특정 구역을 뜻하지만, 분노와 하수종말처리장(환경사업소)이 설치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이곳에 인분을 내다 버렸고, 그 후에도 그냥 구덩이를 파고 묻곤 해서 사람이 빠져 죽은 적도 있다. 신촌(新村)은 연세대 주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악전철역 서쪽, 만안로 변에 있는 마을 지명을 일컫는다. 신촌은 새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은 조선 말기까지 대부분 농경지였다가 8.15해방 후부터 사람들이 점차 들어와 살면서 ‘신촌’이 되었다. 특히 1956년 7월에 수도영화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약 2만 2,000평의 대규모 촬영소를 건설하여 한국영화의 메카가 되었다. 그 후 안양예고가 건립되고, 1974년 관악전철역이 건설되자 공용 주택들이 들어섰으며, 1980년에는 안양문화의 상징이자 경기유형문화재 제38호인 만안교가 이곳으로 이전 복원되었다. 안양문화의 상징인 만안교가 있으며 만안교는 본래 나무다리였는데 1975년 정조가 능행을 위해 예석교로 가설한 후 ‘만년 동안 편안하게 건너다니라’는 뜻으로 만안교(萬安橋)라 하였다. 1956년에는 수도영화사에 의해 안양촬영소가 설치되었었다.

### 광주 이씨의 정착, 석수3동

1964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3리에서 1990년 석수2동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충훈부 지역이 분동해 석수3동이 되었다. 조선시대 시흥군 유일 기관인 충훈부가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밤의 명산지였다. 1983년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충훈부는 꼬챙이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관아 충훈부(忠勳府)의 명칭을 따서 마을 이름을 충훈부라고 했다. 충훈부는 안양천 주변으로 밤나무가 많았으며, 광주 이씨가 최초로 정착하여 전체 60여 호 중에서 33호를 차지하였다. 1906년 당시 시흥군수인 남기선에 의해 보고된 <시흥군전충훈부전친군영양둔내장사추수기>에 의하면 친군영의 둔토(屯土)

는 소하리(현 광명시 소하동), 유등리(현 광명시 가학동 공세동 마을), 가리봉(현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신림리(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철산리(현 광명시 철산동)였는데, 연간 도지(賭地)가 10석(石) 5두(斗) 5승(升)이며, 충훈부 둔토는 사성리를 비롯하여 우두리(牛頭理)(현 광명시 철산동 광명시청 인근 마을), 광화대리(廣火大理)(현 광명시 광명동)에 소재해 있었는데, 연간 도지가 3석 2두였다. 이들 지역에 있던 친군영과 충훈부의 둔토를 일반 농민에게 경작하게 하고 추수 때 도지를 받아 그것으로 충훈부를 관리 운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충훈부는 1950년대에 꽃과 및 고등채소 육성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다. 1981년에 석수초등학교가 개교하였고, 198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이곳 농경지와 자연마을은 대단지 주공 아파트가 되고, 다양한 현대적 시설물을 갖춘 도시형 마을로 변모되었다.

## 민가로 시작된 박달1동

금천현 현내면이었다가 시흥군 군내면에서 1963년 시흥군 안양군 박달리에서 1964년 호현동 일대를 박달1리로 개편되었다. 1973년 안양시 박달동으로 1994년 안양시 박달1동으로 1994년 안양시 박달1동으로 되었다. 지역의 유래는 ‘먹해이들’이라 했고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박토였는데 1937년 평양육군병기창 안양분창이 건설되어 마을이 폐동되었고 지금의 박달1동 부근에 농사를 짓기 위해 민가가 형성되었다. 전통시장으로 박달시장이 있다.

## 자연마을이 풍성한 박달2동

1914년 시흥군 서면 박달리에서 1963년 안양읍 박달리로 1992년 만안구에 편제 1994년 박달동에서 분통하여 박달2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능골(陵谷), 동수암(東秀岩), 막상골, 미름물, 범고개(虎峴), 붓골(筆洞), 삼봉마을(三峯洞), 셋터말(新基村), 선녀골(仙女谷), 양회다리, 옷말, 옷박달리(上博達里) 햇골이 있었다. 동수암, 막상골, 미름물, 선녀골, 양회다리, 옷말, 옷박달리, 햇골 등은 군용지 건설로 폐동되었다. 면적 대부분이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이며 초등학교 2개(삼봉초, 박달초), 안양고가 있고 공장 75개가 있다. 박달동의 여러 가지 유래는 ‘밝다’에서 유래한 밝은 땅, 박치기처럼 박이 머리에서 파생된 말로 머리 산 높은 산의 뜻, 달풀이 있는 바깥 마을, 달동네였던 곳이 안양을 중심으로 밖에 있다 하여 밖 달동네라 하다 그후 박달동이 되었다고 한다. 자연취락이 많은 박달동의 마을 이름



은 대체로 순우리말로 마을명칭은 인접해 있는 산, 고개, 골짜기, 바위 등 자연물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용된 예가 많다. 선녀골(仙女谷)도 이런 예 중 하나로서, 박달2동 곤두래미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이 골짜기는 수리산 자락으로, 주변의 산세가 매우 아름답다. 골이 깊은 골짜기에 항상 자욱한 안개가 맴돌아, 마치 선녀가 사는 고을처럼 신비로운 마을이라고 하여 선녀골이 되었다. 조선 태종 11년 후령군(厚寧君)의 묘를 쓰고,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전주 이씨 후령군파 20여 호가 집성을 이루었다. 일제에 의해 평양육군병기창 안양분창이 건설되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후령군의 묘는 수원시로 이장되었다. 양회다리는 곤두래미고개 초입에 있다. 예전에 놓여 있던 양회다리에서 마을이름이 유래되었는데, 다리 이름이 그대로 마을 이름으로 굳어진 경우이다. 엄밀히 말하면 다리 이름이 아니라 다리의 재질에서 기인한 준명칭이 이름으로 정착된 현상이다. 일제 강점기에 가설된 다리가 있었고, 민가 5호와 주막이 있었는데, 1930년대 군용지로 흡수되었다.

햇골은 박달동 수리산 선녀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구전에 의하면 조선 시대 어느 선비가 군수가 되어 안산으로 부임해 가던중 이곳에 이르렀는데, 이 일대가 한낮에도 해를 볼 수 없을 만큼 산림이 우거진 점에 착안하여 해골이라 했다고 한다. 이는 길제 성질과는 반대로 이름이 지어진 특이한 현상이다. 지리적 환경에 대응하는 심리적인 반응 때문에 해가 들기를 바라는 주민의 소망이 지명에 개입되었다고 추측된다. 그 후 마을이름도 해골이라고 했다가 햇골로 불렀다고 한다. 김해 김씨와 창원 황씨 등이 10여 호의 작은 마을을 이루며 살았고, 옹기동네라고 할 만큼 옹기가 유명했다고 한다. 이 일대는 일제 강점기 군용지로 흡수되었다.

셋터말(新基村)은 붓골 사이에 있다. 셋터말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다는 뜻이다. 사이의 준말, ‘새’와 ‘터’가 합쳐져서 ‘셋터’가 되었다. 조선 중기에 영월 엄씨가 살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달성 서씨, 김해 김씨 등이 세거했다. 이곳도 일제 강점기에 군용지로 흡수되었다. 한편, 인접지명에서 파생된 마을(명)로는 동수암이 있다. 이 동수암의 유래는 고려 때 창건한 사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시흥군 수암면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동수암으로 불리었다는 설이 있다. 이 마을에는 파주 엄씨, 광주 이씨 등 15호 남짓한 마을이 있는데, 이 일대가 군용지로 편입되자, 살던 주민 대부분이 인근 지역인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신촌)과 박달2동 능골로 분산 이주했다.

미름말은 셋터말 남쪽에 있었다. 마을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대동 우물을 미름물이라 했는데, 마을 명도 우물명을 취해 ‘미름물’이라 칭했다. 이 마을에 세거한 성씨는 최씨, 김해 김씨 등으로 알려졌다. 5호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평양 육군병기창 안양분창이 들어서자 폐동되었다. 이곳에는 엄성(嚴惺)(1575-1628, 응교), 엄황(嚴惶)(1580-1653, 영흥부사), 엄정구(嚴鼎九)(1605-1670, 한설좌윤) 등 영월 엄씨 선대의 묘가 많았다.



막상골은 붓골 남쪽에 있다. 안동 권씨, 밀양박씨, 김해 김씨 등 15호 남짓한 마을이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군용지가 건설 폐동되었다. 마을 이름의 유래는 전해지지 않는다. 친목마을(親睦洞)은 범고개 마을 북쪽에 위치해 있다. 마을 명칭은 관악로 변과 안양역 주변의 철거민들이 서로 친하고 화목하게 잘 살자는 뜻이 담겨있다. 그리고 범고개(虎峴洞)는 친목마을 남쪽으로 박달로 변에 있다. 범고개(虎峴) 아래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고개이름을 취해 '범고개(虎峴洞)'라 칭한다. 예전에는 이곳 남쪽(현재 군용지에 편입됨)에 웃말(上村)이란 마을이었다가 어느 부자가 화재로 가산을 탕진하자 마을을 떠난 데 이어, 마을 주민이 범에게 잡혀 죽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하여 모두 지금의 위치로 이주 정착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성씨는 나주 임씨와 안동 권씨로 알려졌다. 마을이 번창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에 군용지의 건설로 안양-안산 간 도로가 개설된 후 1972년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박달동 620-5) 등을 시발로 각종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마을에서는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음력 10월 2일에 요골 초입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냈다.

그리고 박달2동 구릉지는 인동 장씨의 집성촌이다. 현 안양고등학교 안쪽 공병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다. 인동 장씨 옥산태상공파 증시조 장만(1566-1629)의 후손이 안양에 살기 시작한 것은 1700년경이었다고 추측된다. 조선 인조 때 병조 판서를 역임한 장만의 후손들은 원래 경기도 파주 내면 연풍리에 세거해 왔는데, 여러 차례 등과에 실패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군포 부곡동 쪽에 터를 잡아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동 장씨들이 인근에 많이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 인동 장씨 일부가 1900년경 박달 2동 구릉지에 이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월 엄씨 역시 이곳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고 전해진다.

# 안양의 근대화와 노동자 · 노동운동 :

한무리 교회를 중심으로

## 안양(만안)의 근대화 개괄

한국의 공업화와 산업화가 처음으로 본격화된 것은 일제 강점기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에 조선에 진출한 일본자본은 국내에서 독점에 밀려난 군소자본이었다. 일본 독점자본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게 된다. 그 이유는 조선이 근대공업, 건설지로서 몇 가지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로는 풍부한 공업자원이고, 둘째로는 황민화 교육과 파쇼적 통치를 통해 이룩된 훈련된 저임금의 노동인구, 셋째로는 치안의 확보였다.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진출과 대규모 공장 건설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가 아니더라도 내재적인 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후에 정조 대왕이 만든 이 국도가 시작이 됐어. 그전에는 과천 길이라 이겨야. 만안 쪽에는 주 도로에는 사도세자 저기 정조 대왕부터 만안로 1번 국도가 있어. 국도가 된 후에 1902년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1902년에 이 안양철도 부설을 시작했다”라고... 1930년대 20년대서부터 30년도 사이에 이 사람들이 1902년도에 이 부설을 하면서...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구획정리 할 적에 자기네들이 도시를 이야기했을 거야(안양학연구소2006. 변원신 구술).

안양은 1870년 서울-부산 간 국도가 안양을 통과하였고,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역이 생기게 됨으로써 근대적 도시로 점차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근대화의 싹은 조선 후기에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길’과 관련이 있다. 길은 사람이나 짐승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통로, 방향, 순환의 의미가 있는 동시에 형이상학적 개념인 이성, 도덕 등을 의미하며 행정 구역을 뜻하기도 한다. 어떤 길은 단순한 통로와 방향으로 남지만 어떤 길은 근대화의 기반으로 산업의 순환, 대규모 이동이나 차량통행을 전제로 계획적·대규모적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안양 중심부의 안양 1동은 200년 전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천장하고 능행을 위해 유래정 뒤에 안양행궁을 짓고 능행할 때 쉬어가곤 했던 곳이다. 그 후 1870년 서울-부산 간 국도로 이어지고 안양을 통과하게 되고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안양시.안양문화원.안양대학교, 1998: 42). 이러한 여파로 안양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이 생겼고, 안양시장이 개설되어 상권이 형성되었다. 안양의 성장도 철도역을 중심으로 역전취락(驛前聚落)의 마을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만안구에 새롭게 형성된 마을로는 꼬챙



이(석수2동), 덕천동(안양7동)을 들 수 있다(안양시사편찬위원회, 199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권, 2008: 113-4). 덕촌동 역시 안양천변의 별판에 있어 ‘별터’라고 불리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마을들은 하천변 충적지에 터를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는 일제 강점기 들어 본격적인 제방의 축조 등의 수해방지책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 근대화를 경험하는 안양역 주변의 풍경은 다음과 같다.

안양역 옆에는 주재소가 있었다. 주재소에는 일본인 순사 두 명, 조선인 순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안양의 치안을 담당했다. 옆 바로 옆쪽에는 운송점인 마르시보, 지금으로 치면 대한통운이 있었다. 마르시보 옆에는 우편소가 있어서 주재소와 우편소가 마주 보고 있었으며, 금융조합은 지금의 안양농협 자리 쪽에 있었다. 금융조합 뒤쪽으로는 서이면 사무소(안양은 1941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에서 시흥군 안양면으로 행정명 개칭, 서이면 사무소는 안양리가 커지면서 1917년 이곳으로 옮김)가 있었다. 안양역을 마주 보는 앞 쪽으로 300m쯤 떨어진 곳에는 신사가 있었다. 그리고 만안로는 따라 군포 쪽으로 1km쯤 떨어진 곳에는 신사가 있었다. 그리고 만안로를 따라 군포 쪽으로 1km쯤 떨어진 곳에 안양보통학교(1929년 개교)가 있었는데, 지금의 안양초등학교 자리다. 일제 강점기 안양의 경제는 화신상회, 삼광정미소, 양조장 등 이렇게 세 집이 주도했는데 화신상회는 당시 안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잡화상회였다. 1926년 안양역 뒤쪽 안양천 근방에 오일장인 구 시장이 개설되었다. 1년 전 을축년 대홍수로 구 군포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안양시사편찬위원회 2권, 2008: 5-13 재구성).

안양은 경인공업지역의 일부로서 일제가 식민지 강탈을 목적으로 1930년대 본격적으로 공장을 설립한다. 1930년대 초기에 일제는 한국에 방직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국에 걸친 수질 검사를 하였는데, 그 중 안양 박달동의 수질 검사결과 가장 우수해서 안양1동 구 대농 터에 조선직물주식회사가 1932년 설립되었다. 안양지역 최초의 근대적 산업시설인 조선직물주식회사는 당시 안양의 대지주였던 일본인 다카세 세타로가 1만 평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회사하여 자본금 100만 원으로 창립되었다(안양시사 1992: 1256). 뒤이어 석수동에 조선견직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일제가 북선개발이란 이름으로 북한지역에 대규모 중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남한 지역에는 주로 방직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을 배치했다는 점에 비추어 안양지역에 방직공장이 들어선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안양지역은 경부선이 통과하고 서울, 특히 영등포 지역과 인접했기 때문에 산업시설이 자리 잡기에는 좋은 지리적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의 공업은 오히려 발전하고 있었다. 1949년 안양지역에는 총 14개의 공장이 있었다. 그 중 3개의 공장만이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해방 이후에 건설된 것이라는 점을 통해 안양지역의 공업이 해방 직후에도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공장은 대부분 안양읍에 있었으며 공장규모는 면적이 1,000평 이상이 되는 공장이 8개였고, 조선직물주식회사(298명), 조선견직주식회사(165명), 금성방직주식회사안양공장(138명), 제일방직안양공장(117명), 삼덕제지주식회사 안양공장(103)명 등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은 5개에 이르고 있었다<sup>02</sup>.

그러나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은 안양 공업에도 커다란 타격이었다. 전쟁 이후 안양지역의 공업시설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그만큼 한국전쟁의 피해가 컸다는 것이며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안양시사 7. 296-297).

196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는 전쟁 후 복구와 물가안정 및 수입대체 공업화의 초기 단계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안양지역 공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61년 6개에 불과하던 기업체 수가 1966년에는 32개로 늘어났고, 1971년에는 64개가 되어 10년 만에 무려 10배가 증가했다(안양시사 7. 2008: 298). 석유파동 충격 속에서도 안양의 공업은 확대일로를 걷게 되었다. 1971년 64개였던 기업체 수가 1975년에는 169개로 증가했고 1979년에는 369개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는 2차 석유파동에 이은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침체기였음에도 안양지역의 기업체 수는 1981년에 409개를 기록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가히 기업과 공장설립이 폭발적이라 할 만했다. 이렇게 1970년대 들어 안양지역에 공장이 급증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서울지역 공장입주 억제 정책으로 서울에 인접한 안양으로 공장이 몰렸기 때문이기도 했다<sup>03</sup>. 1920년대에 태어나 1930년에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학창시절에 영등포를 공업도시로 배웠지만, 1950-60년대 출생한 사람들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안양을 공업도시로 배우게 되었다.

<sup>02</sup> 시흥군(금천지衿川誌 1950)의 1949년 통계.

<sup>03</sup>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가 급속한 수출증대를 통해 고성장을 지속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안양지역도 1973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연평균 성장률은 11.9%에 달했다. 1973년 29개였던 수출업체는 1977년 34개, 1983년에 53개, 1990년에는 73개로 증가했다. 수출실적은 1975년과 1982년, 1990년에만 감소 추세를 보였고 나머지 연도에는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했으며, 특히, 1976년과 1978년에는 50%의 큰 폭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금액별로 보면 1973년에 8,984만 6,000달러로 시작해 1978년에는 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981년에는 3억 달러를 돌파했다. 1989년에는 노사분규 등으로 다시 6억 달러대로 후퇴하기도 하였다. 수출상품의 구성도 1970년대에는 주로 정공업 제품인 섬유제품이 대종을 이루었으나 1970년대 말부터 중화학 공업 제품이 증가하기 시작해 화학, 기계, 금속, 전기, 전자제품의 비율이 증가하는 대신 섬유류 제품의 비율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섬유류는 1973년에 전체 수출액에서 72.4%를 차지했으나 1985년에 52.3%, 90년대에는 45.9%로 감소했지만, 화학제품류는 1973년 6.8%에서 1979년에는 20.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급속히 감소하다가 1990년대 들어 12.3%를 유지했다. 기계·금속제품류도 1979년 18.8%까지 증가하였다가 1990년에는 6.8%로 하락하였다. 전기·전자제품은 1980년 들어 급속하게 증가해 1985년 21.6%, 1990년도에 27.8%를 기록하였다.



금성방직은 여공이 3,0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러다 보니 안양의 경제는 금성방직이 되었다. 1960-70년대 초 금성방직은 여자 종업원이 3,0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러다 보니 안양 경제는 금성방직에 의해 좌우되었다. 금성방직 여공들을 중심으로 계가 활발하게 조성되었고, 외상을 한 금성방직 직원들이 월급날에 맞추어 외상값을 갚곤 했으므로, 월급이 늦어지면 경제가 멈추는 지경에 이르렀다(안양시사편찬위원회 2권, 17).



1969년 3월 금성방직 작업 모습

지금은 국민은행이 들어선 주변 일대 만안구 안양3동 695번지 금성방직이 있던 자리다. 생산이 한창이던 1968년에 만안구 안양1동, 지금의 태평방직과 합병하여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변신한 금성방직(후에 (주)대농이 됨)은 면직생산의 중심이었다. 회사가 한참 호황이던 70년대에는 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마다 체육대회, 응변대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날은 공장 주변은 축제분위기였다고 한다. 금성방직 노동자들은 멀리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양1동과 지금의 프란체 아파트가 있는 자리, 구 시장 주변에서 자취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안양천 변의 가옥구조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방 하나에 부엌 하나씩 세를 놓았고, 그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여서 환경이 무척 열악했다고 한다. 70년대 안양, 만안구 하면 떠오르는 근대적 공장은 동화약품 안양 공장(만안구 안양7동 189번지)이다. 활명수로 유명한 이 공장은 72년 덕천마을에 세워지면서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빠르게 상가가 건설되었다. 덕천시장 안의 순대볶



음 골목과 옷집은 여성노동자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한다. 한편, 1980년 만안구 석수동에 최신시설을 갖춘 GMP공장이 설립되어 천안으로 이전하는 1998년까지 13년간 박카스가 생산되었다. 석수동(1동)에는 종합비타민 ‘비나폴로(정식명칭 비나폴로 엑스트라)’로 유명한 유유산업이 1959년 5월에 입성해 있었다. 안양역 부근에는 한국특수제지와 금성방직, 골판지를 만드는 삼덕제지, 국내 최초의 나일론 공장인 한일나일론과 오아시스 레코드사가 있었다. 현대양행(이후 만도기계)은 박달동에, 동화약품은 덕천마을에, 동아제약과 유유산업은 석수동에 있었을 정도로 만안구는 공업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안양지역의 공업화 도시화에 있어서 1977년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새 도심을 가로지르는 중앙로가 완전히 형성되었고 중앙로 쪽으로 지하상가가 생겼다. 1983년에는 대규모 백화점인 본백화점이 1985년에는 벽산쇼핑이 생기면서 중앙로 일대는 변화가로 변신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즈음 중앙로 일대를 둘러싸고 먹을거리와 입을 거리가 풍부해지면서 ‘안양 1번가’라는 별칭이 생겨난다(안양시사편찬위원회 2권, 2008: 22).

그러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는 10·26 사태와 그 이후의 정치적 격동, 투기, 인플레이션, 임금인상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급기야 1980년대에 들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쌀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으로 불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안양지역도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업화가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화학 공업화의 영향으로 안양지역에도 중화학 공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04</sup>. 1980년대 안양지역의 산업구조는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 그것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종의 빠른 성장이었다. 1981년 안양지역의 전 산업 사업체 수는 9,717개로 전국의 1%를 차지하였다. 이것이 1986년에는 각각 1%, 1.2%, 1.6%로 증가하였다. 즉, 안양지역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산업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잠시, 안양지역의 산업화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즉,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안양지역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섬유, 식품업은 물론이고 화학, 전자 등의 중화학공업으로까지 급속하게 공업화가 진전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 그 성장 패턴이 급속하게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안양은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는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전통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과 환경 관련 법제 추진으로 공업

<sup>04</sup> 1981년 409개이던 기업체 수가 1985년에는 602개로, 다시 1990년에는 1,118개로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업의 평균 증가율이 27%로 가장 높았고, 기계·금속업도 연평균 13%를 기록했다. 섬유업은 이보다 약간 낮아 11.5% 증가했고, 화학업은 7.9%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종업원 수를 보면, 1985년에는 4만 729명으로 증가했고, 1990년에는 5만 5,048명으로 증가했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1990년 말 대기업이 31개, 중소기업이 1,087개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97.2%로 1981년보다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도 1961년 614명이었으나 1966년에는 219명, 1971년에는 199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역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입주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입지 개발에 영향을 미쳐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도시 과밀화로 인한지가 상승을 부추겨 제조업체들은 보다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다. 이때문에 전통적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의 증가에 따른 경제 기반의 약화, 도시의 과밀화, 환경의 악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1990년대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 확산 및 정부의 정책전환과 수도권 입지의 각종 제한 조치로 안양지역의 제조업은 하강세를 면치 못한 시기였다. 기존의 제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성장률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의 입지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때문에 쉽지 않았고, 공해유발업체는 안양 밖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아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말 IMF 외환 위기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종업원의 대량감원이 있어 지역 노동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다<sup>05</sup>. 사업체 수가 소폭 감소한 것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종업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안양지역의 기업 및 공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물론 생산자동화 등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된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장 규모의 축소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의 급속한 도시화로 대규모 공장들이 외곽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993년~1998년 지방으로 이전한 만안구의 주요 업체는 만도기계(박달 2동), 한국제지(안양1동), 동아제약(석수 2동) 등이 있다. 이렇게 제조업에 빠져나간 자리를 메운 것은 부동산, 금융, 보험 등 각종 서비스업이었다. 여기에 1990년대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안양지역이 주거단위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공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양지역 공업발전의 방향은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첨단산업, 벤처산업으로의 전환이 특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되기도 했다. 안양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92년 10월 만안구 안양 7동 쌍용제지(주) 부지에 유천 팩토피아가 처음이었다. 그 후 동일 테크노타운이 1995~1997까지 4개 동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공장형태만을 바꾸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산업 구조의 전환이었다. 그래서 안양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의 산업발전 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산업의 고도화, 첨단화, 소프트화, 수도권

<sup>05</sup> 이러한 상황은 각종 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안양시 각 연도 안양통계연보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1990년 광공업 사업체 수는 1,050개로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으며 1993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5년 1,394개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97년 1,376개였던 사업체 수가 IMF를 겪고 난 후인 1998년에는 1,113개로 대폭 줄어 IMF의 충격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현재 안양시의 광공업 사업체 수는 1,300여 개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정체 현상을 보인다. 사업체 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종업원 수다. 1989년 5만 3,167명에 달했던 월평균 종업원 수가 1991년부터 4만 명 선으로 떨어진 다음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1996년에는 드디어 3만 명 선으로 하락한 다음, IMF 외환위기인 1998년에는 2만 9,089명까지 떨어져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1999년부터 다시 3만 명대로 증가했지만 2003년부터 다시 2만 명 선으로 하락해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나타냈다.



첨단정보 및 업무정보의 공간적 분담, 환경친화적 산업유지와 계획적 공업입지의 유도, 도시 상업 및 교육도시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안양의 근대화와 노동자 · 노동운동

### 일제 강점기 노동자의 삶

일제에 의해 추진된 근대화 과정에서 노동자는 철저히 소외되었다. 방직공장이 많이 집결되어 있던 안양의 조선직물의 임금과 작업환경을 대단히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아는 지역 사람은 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두메산골의 형편이 어려운 처녀들이 입사하였다고 한다. 공장은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했으며 외출은 금지되었다고 한다. 당시 식민지 노동자들의 삶은 가혹하였다. 몇 군데 공장을 제외하면 거의 나무판자나 양철을 누더기처럼 잇대 만든 창고 같은 공장으로, 변소가 설치된 곳조차 드물었다. 직공의 대다 수는 거지 움막 같은 곳에 기거했는데 방안은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불결했다. 하루 다섯 시간 노동에 오십 전에서 일원이 안 되는 임금을 받아 일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남성노동자들은 작업복이 한 벌밖에 없어 냄새 때문에 곁에 갈 수 없을 정도였다. 여공들의 처지는 더욱 암담했다.

농촌에서 올라온 여공들은 대개 열다섯 살의 어린 나이로 모집되어 온 여공들은 대개 열다섯 살의 어린 나이로 하루 이십 전 정도 되는 임금을 받으며 공장생활을 시작해 몇 년 지나야 겨우 사십 전을 받는 정식공이 되었다. 기숙사는 한 방에 열 명이 넘게 수용되어 발과 머리를 잇갈리게 누어 칼잠을 자야 했으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수위들이 교대로 감시했다. 기숙사 밥은 감옥의 그것과 다름없이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안남미와 통을 절반씩 썩은 콩밥이었고, 반찬이라고는 시커먼 단무지가 전부이다시피 했다. 일본인 감독들은 여공들을 아무 제한 없이 욕하거나 때렸으며 조퇴나 외출은 일절 허가되지 않았다. 어떤 공장은 여공이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의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아놓고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노동하게 했는데 계약기간 전에 퇴사를 하거나 달아나면 몇 배의 위약금을 물게 하고 그동안 강제로 저축한 돈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럼에도 여공들의 유일한 저항수단은 탈출하는 것뿐이었다. 대공장에서는 기숙사 담을 넘어 달아나는 여공들이 속출했다(안재성, 2004: 91-93).

일제 강점기 안양노동자들은 민족적·계급적·성별적 억압이라는 삼중적 억압으로부

터 고통을 받았고 저항하였다. 이 사실은 동아일보의 보도(1935년 4월과 7월 조선직물 노동자의 투쟁, 36년 같은 공장 노동자들의 동맹파업)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해방 후~ 박정희 군사정권 하의 안양지역 노동운동

해방 후 노동자들은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반공주의를 강화시켰다. 노동자들의 일체의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조직을 가질 수 없었다. 잠시 4.19를 통해 열린 공간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노동자들은 또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에 노조는 한국노총으로 전환되고 각 산별노조들이 집중적으로 조직작업에 나서면서, 안양에서도 1961년 고려석면 분회(9월 1일, 48명), 삼덕제지 지부(9월 3일 115명), 한국특수제지 지부가 결성되었고 다음 해 4월 21일에는 삼영하드보드지부(47명)가 결성되었다. 1960년대 안양지역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저항으로는 1969년 태평방직과 금성방직의 파업이 있었다. 이는 전국 섬유노조의 총파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그해 9월 17일 협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이시정, 2007; 안양시사편찬위원회 3권 2008: 583에서 재인용).

### 빼앗긴 메이데이

1957년 5월 22일 이승만은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 도당들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만치 반공하는 우리 대한의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되도록 제정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노총은 1958년 11차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대한독립축성노동총연맹의 결성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보사부의 인준을 받았다. 1959년 3월 10일 제1회 노동절 기념대회가 열렸다.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껍데기만 남은 노동절도 그 이름이 마땅치 않아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이름을 ‘근로자의 날’로 만들었다. 1987년 7·8·9투쟁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1989년 메이데이 100회를 앞두고, “노동절은 세계 노동자의 연대와 해방의 날만큼 일천만 노동 형제들의 강력한 연대와 전투적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것” 입을 선언하고, 전국에서 동맹파업, 총회투쟁,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1993년 5월 1일 탄압 받지 않고 노동절 집회를 열었으며, 1994년 정부는 3월 10일이 아닌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개정하여 ‘합법성’을 쟁취하였다. 공식적인 이름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다.

1960년대 말에는 ‘차관기업의 부실화’ 등 자본축적의 위기와 노동자들의 저항이 커졌지만, 박정희 정권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수출 자유 지역 설치법(1970년)’)를 추진하고, 사채동결을 통해 자본의 이익을 지원하는 ‘8·3조치(1972년)’를 취한다. 1970년대 중반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 이들 업종에 투자가 집중되어 독점자본에게 경제력이 집중됐다.



## 70년대 노동현실

“섭씨 40도가 넘는 현장에서 일하면 얼굴과 손까지도 땀띠가 번지고 뿌연 숨을 뿜어쓴 동료들의 모습… 숨이 턱 달도록 탁하고 더운 공기는 우리에게 폐결핵을 선물하기 일쑤며, 무좀은 1~2년만 근무하면 당연시되어 가려움을 참을 수 없어 시멘트 바닥에 미친 듯이 문지르고서 피가 흐르는 발을 보고 울음… 밤잠 못 자며 배를 졸이며 번 돈은 병원에 갖다 바치고, 폐가 썩어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약값을 위해 또 숨덩이와 싸워야 하는 근로자들이 수출실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불필요할 땐 여지없이 잘라버리는 회사… 저희가 아무리 가난한 설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몰인정한 사회가 공장이란 말입니까?”

(김옥섭, “노동자가 본 예수(2)-동일방직”, 『씨알의 소리』, 1977.10, 64-5쪽)

70년대 안양은 정부의 중화학공업에 힘입어 72년 64개 업체가 70년대는 350여 개로, 1971년에 10만 명이었던 인구가 1979년에는 20만 명으로 늘어났다. 73년 안양이 시로 승격되었는데, 1973년 안양상공회의소의 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5개사에 조합원 수가 5천 291명, 1974년에는 같은 5개사에 10만 94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 이후 청계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전개되지만, 안양의 섬유나 금속 등 대기업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만, 노조운동은 미비했다(이시정, 2007: 48). 그 이유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노동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국가와 국가기구에 의한 직접적 개입’과 관련이 있다. 당시, 정부는 노동운동을 ‘국가안보에 의한 사회질서와 치안유지의 차원’으로 다루면서 ‘노사간의 대립갈등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설파하였다. “종업원을 가족처럼, 공장 일을 내 일처럼”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건 공장 새마을 운동을 통해 노동자의 일상과 의식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노동관계법을 개악하여 단체교섭을 축소, 단체행동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쟁의 자체를 소규모로 제한하는 한편,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조하고 노조활동을 축소했다. 노동자 통제의 중심에는 한국노총도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노총은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는 90년대 전까지 ‘군사정권 승인과 지지’ 및 노조정치활동을 배제하는 ‘노사협조주의’를 표방했다. 일례로 72년 10월 유신 지지 성명발



1970년대 방직공장 내부

표, 74년 한국반공연맹가입, 76년 이후 새마을 교육 강화시행을 비롯해서 87년에는 호헌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한국노총의 영향 아래에 있던 안양지역 노조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금성전선 지부는 10월 23일 유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계몽활동에 들어간다. 금성전선 노조 지부장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가 각종 반공 강연회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양나일론, 삼풍섬유, 유유산업 등에서 노조결성 투쟁이 전개되었고, 한편으로는 동일방직 등 대표적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주노조운동의 싹이 곳곳에서 움트기 시작하였다. 움트기 시작하였다(이시정, 2007).

## 70년대 안양지역 노동자와 기독교 - 안양 근로자 회관을 중심으로

도시산업선교회는 와우아파트 붕괴, 광주대단지 사건 등으로 인해 도시빈민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거리로 부각되기에 이르자 지금까지 훈련의 단계에 머물고 있던 빈민선교를 더 적극적인 빈민선교 활동의 전개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장, 기감, 기장 등 중요 교단의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1971년 9월 1일 초교파적 선교회구인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창립 이후 위원회는 활동지역을 선정, 책임을 배분하였다. 선정된 활동 대상 지역은 서울의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권호경 전도사), 영등포 구로동(김동완 전도사), 한양대 뒷산 사근동(김진홍), 성동지역(윤순녀), 인천의 만석동(전용환 전도사), 안양지역(한성인) 등이었다<sup>06</sup>. 안양근로자회관도 1969년 설립되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1971년 9월 28일 크리스찬 사회행동협의체(KACO-UIM)에 참여하였다<sup>07</sup>.

70년대 안양지역 노동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안양근로자회관은 국제 카톨릭 형제회(A.F.I)의 도움으로 노동자 사목을 시작하였다. A.F.I는 평신도 사조직 단체로서 세상 속

<sup>06</sup> 이 위원회는 도시빈민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 당하는 현실 속에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윤리적, 도덕적, 개인적 회개와 각성을 설교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도시빈민 지대의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보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게 하는” 선교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종래의 시여(施與)하는 식의 구제활동을 근간으로 한 선교활동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목표설정이었다. 초창기 실무자들의 생활비는 소속 교단으로부터 지원받고, 활동비는 크리스찬 사회행동협의체(후에 에큐메디칼 현대선교협의체로 개칭)로부터 지원받을 것을 원칙적으로 하였다.

<sup>07</sup> 여기에는 도시산업선교에 관심을 둔 가톨릭 4개 단체 - 대한가톨릭학생총연합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안양근로자회관, 가톨릭노동장년회 - 와 개신교의 7개 단체 - 크리스찬아카데미,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학생총연합회, 대한YMCA연맹, 대한YWCA연합회,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가 참여하여 사회선교를 향한 신·구교의 연합을 이루었다.



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형제애를 무기로 삼아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가톨릭 조직으로 근로자회관의 1대 관장은 오스트리아 사람인 서정림 말가리다가 임명되었다. 근로자회관은 1969년 9월 10일 기숙사를 완비한 안양 근로자회관의 낙성식을 거행하고 10월 1일, 대농에서 일하던 5명의 JOC 회원이 입사하면서 기숙사업을 시작하였다. 근로자회관은 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가난한 노동자로 연명해야 했던 10대, 20대 청년들은 당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근로자회관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나이 어린 근로자들은 사회와 기업의 무관심 속에서 방황하기 쉽고 직장에서 혹사당하기 때문인지 직장 이동이 상당히 잦은 편이다. 근로자회관은 이런 실정을 참작하여 숙소생활을 오랫동안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직장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하여 정서를 순화시킴으로써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경향잡지, 1980 한성인 관장).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처음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장내동성당(현 중앙성당) 정원진 루가 주임신부였다. 실제적 설립과 운영은 서정림 말가리다 선생님과 한성인 벨타 등을 위시한 AFI들의 하느님의 사랑을 현세에서 실천하려는 헌신적 희생과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처음에는 여자 기숙사만 있었는데 입사조건은 “안양에서 백 리 이상 떨어진 곳에 집이 있는 19세에서 23세 사이의 취업여성”으로 ‘최소 6개월, 최장 2년 이하’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로 청소년이었다. 기숙사비는 기숙사생들의 임금수준에 따라 다른데 기숙사비 책정의 원칙은 기숙생이 받는 기본임금의 열흘 치였다(71년 평균 기숙사비는 3천 원).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나머지 1/3은 문화비와 교육비, 마지막 1/3은 장래나 교육을 위해 저축을 하라는 뜻이었다.

그 후 근로자회관은 청소년 근로자들을 위해 자습실, 도서관을 갖추었다. 기숙사는 남녀 기숙사가 함께하는 것이 특색이다(80년 현재, 남자 36명, 여자 78명의 근로자가 기숙사에 입주). 나이 어린 영세 노동자로서 안양지역 출퇴근이 가능하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기숙사에 입사할 자격을 주었다. 회관에는 4명의 지도자가 상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근로자의 생활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오락지도, 요들송, 고전무용 강습 등 일반 정서교양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재해보상법 강의 등의 노동교육을 했다. 특별히 교회기관인 만큼 산업선교를 위해 주 1회의 기도회, 월 1회의 미사, 예비자 교리 등의 종교교육도 실시하

였다. 그리고 기숙사생들은 월례회, 자치회, 기타 작은 모임을 열어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소비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경험과 협동정신, 자신감을 키워갔다. 그밖에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해 자신들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과 이웃사랑을 나누었다. 근로자회관 시설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기숙사 외에 자습실과 도서관이 있다. 80석을 갖춘 자습실은 기숙생과 수험생, 취직시험이나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지역 주민의 교육공간으로 활용되었다(경향잡지, 1980). 당시 기숙사생이었던 이금

연(전 전진상 복지관 관장)은 근로자회관이 당대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공간이었다고 회고한다.



1970년대 근로자회관 준공 모습



근로자회관 기숙생들



근로자회관 기숙생들 나들이

AFI(아피)라는 회원들을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로자회관(기숙사)에서 그때 우리 독일에서 오셨었던 서정림(말가리다) 선생님하고 한성인 선생님하고 또 여러 스텝 선생님들이 계셨죠,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안양근로자회관에서의 어떤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때가 79년이었으니까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 뭐 상당히 활발하게 짹짹 찻었을 때죠,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면 그것은 안과 밖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깥세상은 오직 일터밖에 몰랐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근로자회관) 안에 들어오면 그곳에 도서관이 있었죠, 그다음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래든 언니든 동생 또래든 같은 여성들이 어 뭔가 그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놀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정성 들인 식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더없이 좋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그런 생활훈련 같은 것, 생활교육 이런 것들이 재미도 있었고, 가끔 성당에 따라다니는 것,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작은 모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기존에 제가 그때까지 10대에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학교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 청결하죠, 그 정원 있었



죠, 탁구도 칠 수가 있었죠! 문화가 있었죠, 또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노래도 부를 수가 있었고, 집단놀이들이 있었죠. 우리들이 스스로 하는 연극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이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 이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저한테 굉장히 어- 새로운 것을 주는 곳이었죠(이금연 구술).

외형적으로는 기숙사의 형태를 띠었지만 근로자회관은 공장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와 소통공간이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지면서 70년대 초반부터 노동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교우근로자 모임은 교회 안의 젊은 근로자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비 복음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모임(1972년)이었다. 일부는 노동절연구회를 만들어 노동절행사(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기획, 근로자 노래자랑을 지역민의 참여 속에서 진행하였다. 75년부터는 경기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농상담도 시작했다. 75년만 상담 건수가 400여 건이 되었다. 70년대 후반에는 탈춤반이 만들어져 활동하기도 했다. 79년에는 안양근로자회관에서 탈춤 강습을 시작하였고 곧이어 노동법 강좌도 설치하였다. 근로자회관이 생기고 나서 회관 프로그램의 성격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당시 한성인 근로자회관 관장과 신정숙이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프로그램에도 참석했다(이시정, 2007: 54-56). 1980년대에도 근로자회관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주요 공간이 되었다. 87년을 전후해 안양에서 이루어졌던 미술학교, 민요연구회, 독서회 등 문화운동이 근로자회관을 발판으로 지역사회로 퍼져 나갔다.

87년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서 활동하던 때였는데, 시대상황이 험했던 때라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이곳만이 유일했죠(안양시민신문, 2007년 12월, 김인봉 안양포럼 총무).

안양근로자회관은 1990년대 안양지역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근로 청소년들의 생활방식이 바뀌면서 그 성격도 변화되게 된다. 1998년 3월에는 전·진·상 복지관으로 이름을 바꾸어 소외되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의료사업을 행하며 영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복음을 선포,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전진상 복지관은 다양한 교육문화운동을 통해서 노동자 문제, 지역 빈민문제 등 당시 사회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시작된 전진상복지관(전신 안양근로자회관)의 어머니 교실, 시민대학의 문해학습(文解學習) 공동체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는데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한글,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함께 지역공동체에 대해

의식교육을 시켰으며 여기서 배운 학생이 가르치는 곳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또한, 2002년 전진상 복지관에서 이주여성 한글교실을 신설했다. 1990년대 이전부터 산업사회의 이주여성 노동자 문제,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 문제가 심각해져 일찍부터 이에 대한 상담 및 후속 지원활동 등을 진행해 왔는데 이주여성 한글교실도 그 활동 중 하나였다. 2003년에는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로 고통받는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인 WeHome이 여성부의 위탁으로 전진상 복지관에 개설됨으로써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활동이 더욱 확대되었다. 전진상복지관은 특별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 나섰다.

근로 청소년들이랑 90년대 초 이렇게 살면서 기숙사는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해왔죠. 92년 ~ 93년, 근로자회관 주변에 시장 보러 오는 노동자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이런 노동자들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로자 회관 안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 쓰러 들어오면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말가리다 선생님과 당시 코리아헤럴드를 보는데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관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300인 이상 업체의 10% 정도는 현지에서 데려온 노동자들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왔었나 봐요. 전화를 거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말가리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독일의 이주노동자 사례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영어로 한 두 마디를 한다는 핑계로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근로자회관 일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93년부터는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사감을 하면서 이주노동자 상담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1990년대 이후에도 60~70년대의 노동자와 양태는 다르지만, 그 고통의 본질을 같이하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근로자가 나날이 그 수를 더해가고 있고,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대변되고 있는 인간소외가 나날이 그 극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어린 근로자들과 복음적 삶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전진상’ 설립 당시의 이 땅의 현실과 오늘의 현실이 결코 그 본질에서 다르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양 근로자 회관(전진상복지관)은 2007년 폐관된다. 그러나 1969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근 40여 년 동안 근로자회관은 땅의 열악한 노동자와 여러 이유로 고통을 받는 수많은 약자에게 역사한 하느님의 축복과 증거였다. 그리고 한국천주교가 이 땅에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적 형제애가 어떠한 것인가를 실천으로 가장 잘 현시하여준 기념비적 장소 중의 하나였다.



## 1980년대 이후 안양지역 노동자와 한무리 교회<sup>08</sup>

한무리 교회는 자신들이 수행하는 일의 규모에 비해 대단히 작은 교회이다. 주일예배 인원이 40명 남짓이다. 그러나 지역에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는 교회이다. 한무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을 섬기며 함께 나누는 일을 시작한 때는 1985년. 한무리 교회는 그때부터 종일 탁아소, 노동자 야학, 무료 진료소, 노동 상담소 등을 통해 지역의 노동자, 빈민과 함께 해왔다. 그동안 상가 전셋집을 14년 동안 전전하며 6번의 이사 끝에 2000년 11월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 군포 시유지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이지만 사용료만 내고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sup>09</sup>.

다른 교회와 뭔가 다르게 보이는 한무리 교회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먼저 민중교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중교회의 시작은 정확하게 어느 한 시기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이준모, 1996). 1970년대 사회인권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있던 기독교운동은 198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기독교 내의 명망가 중심으로 펼쳐졌던 과거의 기독교운동을 반성하며 젊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교회갱신운동을 목표로 하여 빈민지역, 공단지역에서 기층 민중과 연대하는 교회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1960년~70년대로 이어지는 개발독재시대, 지속적으로 배제된 민중의 고난, 이에 항거하는 민중과 학생들을 접한 일단의 그리스도교 지식인들의 신학적, 신앙적 반성에서 출발하였다(김진호, 1994). 실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민중교회를 세운 목회자들은 민중선교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부르짖으며 교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마치 초대교회의 성령운동을 일으켰던 순교자와 같은 길이었다. 안양 한무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지게 된다. 사실 안양지역의 본격적인 노동운동은 인천, 성남, 이리 등에 비해 많이 늦었으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소수의 의식적인 활동가들이 지역의 사업장에 들어와 활동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민중교회는 노동운동 지원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한무리 교회는 ‘일하는 예수회’와 밀접한 관련이 깊다. 일하는 예수회는 1983년 성수 삼일(유재무·정태효), 안양 한무리(박진석·최주상·우예현), 대전 빈들(김규복), 대구 달구벌(안기성·현제식·안미현), 영등포산선(이근복·손은하·진방주·박진석·신승원·손은정), 울산(김영락·박중호·김용식), 복지회(윤창현)가 초기 멤버였다. 이때는 인명진 목사가 회원자격으

<sup>08</sup>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안양지역(만안)의 여러 종교계의 노동운동 지원활동,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의 활동을 다 다루지는 않고 한무리 교회를 중심으로 안양지역 노동, 지역운동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sup>09</sup> 최소란, "군포공단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 품는 - 한무리 교회". 뉴스엔조이(2003-08-14).



한무리 교회 · 나눔의 집

로 모임을 항상 같이했다고 한다.

처음 이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처음에는 노동교회라고 했어요. 목사님들도 그랬고 이 교회는 장신대 장로회 통합 측이에요. 장신대 내에 '현대신학연구회'라는 그런 서클이 있었어요. 진보적인 서클이죠. 말하자면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민중신학, 이런 거 공부했던 분들이죠. 박진석 목사님도 기수가 있더라고요. 몇 분이 같이, 같은 학년이겠죠. 그분들이 기수를 만들어 현장에 들어가서 일 년이면 일 년 현장활동을 하고 나서 교회를 만드는데...(구본철 구술).

초기 멤버들은 이미 신학교에서부터 만났기에 조직에 대한 헌신이나 결합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신학교를 졸업 후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반노동자 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의 재생산 구조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고생스럽지만, 개척교회를 해서라도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하여 기층민중과의 연대를 통한 기독교운동을 도모하였다. 아래 회고담을 통해 이 모임에 참여한 젊은 목회자들의 생각과 활동을 살펴보자.

당시의 민중교회 운동이 진보적이고 젊은 목회자들의 개척교회 운동으로 평가되지만 우리 예상만은 훈련구조를 가지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산업선교'를 하기 위해서 것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는 후배들을 학내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춘 학생들을 발굴하거나 소개받아 권장하는 방식으로 뜻있는 사람을 모았다. 아무래도 '현대



신학연구회'에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갖춘 회원들이 있으니 그곳이 우리 회원들의 활동의 장이고 시작이었다. 현신은 76기부터 시작되었는데 77기, 78기의 핵심인자는 이미 기독교 청년학생운동 쪽에서 만났는데 이들이 다시 신학교에서 만났다. 당시 운동을 평생 하려면 생활을 해결하는 토대 속에서 해야 하는데, 교회의 갱신과 사회 변혁을 위하여 목회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막상 입학하였지만 보수적인 학풍과 열악한 상황 때문에 졸업 후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중략) 76기부터 83기 정도까지는 조직력과 단결력이 높았다. 이미 학내외에서부터 서로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사이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가 만든 '현대신학연구회'도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객관적인 상황도 내적인 요인도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박진석 목사에 이어 한무리 교회에서 사목활동을 한 고 최주상 목사가 한무리 교회에서 민중사역을 꿈꾸게 된 계기는 1979년 장신대 3학년 시절 친구의 권유로 영등포산업선교회에 다니면서부터였다. 그곳에서 최 목사는 같은 또래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에 시달리며, 단칸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저 편하게 대학에 다니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목회자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이런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 후 ‘일하는 예수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안양에서 10개월간 공장생활을 하며 안양공단과 인연을 맺었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가정을 이룬 박광혜 사모는 나눔의 집 부대표로 나눔 사역을 도맡아 하는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됐다.

민중신학에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은 처음에는 산업노동자와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공장을 경험하면서 개인적인 영적 접근은 공허한 것이라는 사실과 공장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그리하여 1960년대 말부터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도시산업선교회의 지도자들은 노조건설을 돕는 데 관심을 두었다(구해근, 2002: 118). 일하는 예수회 소속 목회자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후일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하는 예수회 소속 목회자들의 훈련과정은 교회개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산업선교실무에 관한 훈련과정을 중요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훈련과정은 공장노동을 1년 혹은 6개월을 하였고 노동문제의 이론과 실무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교육받고 유관기관들을 탐방하는 방식이었다(일하는 예수회).

그들은 노동법과 노조조직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노동자들의 사회



한무리 교회 위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후원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기본 목적은 현장의 자주노조운동을 이끌 수 있는 소규모의 핵심적인 노동운동을 길러 내는 일이었다(조화순, 1988; 오글 199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구해근 2002, 118에서 재인용).



한무리 교회 예배 강장

### 한무리 교회와 노동운동

한무리 교회는 버린 돌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 하도다(마태복음 21:42).”라는 성경 구절에서 연유한 교회명은 나중에 바뀌게 된다. 한무리 교회의 ‘한’이라는 말은 크다, 하나이다, 함께 라는 뜻을 가진 교회이다.

버린 돌 교회라는 이름으로 1985년에 출발한 한무리 교회는 박진석 목사님으로 출발하여 1988년 이후 최주상 목사님께에서 꽃을 피운 교회이다. 때로는 교인들 이름조차 가명으로 사용하던 서슬 퍼런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한참일 때 개척된 교회이다. 그 당시에는 지역의 운동권이 마땅한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할 때 교회공간으로 찾아와 변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구 군포다리 개천가 빨간 벽돌 건물. 이것이 한무리 교회의 또 다른 주소다. 구 군포다리는 안양과 군포를 나누는 경계로 다리를 지나면 안양이고 교회 쪽은 군포다.

박진석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열었습니다. 85년 4월 달 그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날짜는 우리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4월 1일 창립한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지 처음에 와서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아마 그 뭐 그렇게 허름한 건물 하나 얻어서 교회도 지금 한무리 교회가 아니었고 버린 돌 교회가 처음 이름이었어요. 성경에 인제 뭐 그 버린 돌이 건축재 모퉁이 돌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따와서 ‘버린 돌 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85년 여름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저는 이야기 들었고... 처음엔 이런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가 ‘버린 돌 교회’가 뭐랄까요? 냄새가 나는 그런 말이었기에 때문에 노회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버린 돌 교회가 뭐냐? 교회가 그래가지고 박진석 목사님이 이름 바꾼 게... 이게 한무리 교회로 바꾼 거지요(구본철, 문경식).



한무리 교회 예배강단은 전통양식을 담아내려고 문 창살로 강단을 들렀고, 강단의 십자가는 정의의 푸름을 상징하는 소나무로 만들었고, 강대상은 밥을 의미하는 쌀뒤주로 되어있었다. 강단 한편의 성찬대에는 전통 다기로 된 성찬기들이 놓여져 있었다. 강대 의자 역시 나무로 손수 제작하여 투박하지만 정감이 가는 의자로 하였다(한무리 교회 카페 <http://cafe.daum.net/hanmoori.org>).



한무리 교회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십자가

한무리 교회는 초기부터 노동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을 위한 탁아소와 진료소, 노동자 교육을 담당하는 야간학교(야학)를 꾸준히 운영하였다. 이어 안양노회 소속의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에서의 노조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였다(이시정, 2007).

탁아소를 교회 안에서 만들었고 교회 안에서 애들 탁아를 하면서 사랑방학교라고 이제 노동자 야학을 시작을 했지요. 그게 교회 시작하는 시점하고 뭐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이 지역의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공장에 다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학을 했는데 기타반, 상식반, 풍물반, 이런 식으로 반을 꾸려서 진행을 했습니다(구본철).

노동자들의 연대와 계급의식 고취를 위해 교회가 후원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소그룹 활동이었다. 기타반, 상식반, 풍물반 등의 취미 소모임은 목사 혹은 교사들(초기에는 대학생 출신이 대부분)의 지도아래 정기적으로 만나서 다양한 문화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때는 박진석 목사님 후배들, 다시 말해 전도사님들이 옆에 있으셨거든요. 전도사님 몇 분이 교사였고 그다음에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가 한 명 있었어요. 몇 분이 교사를 하면서 야학을 꾸려서 했어요. 초창기에 일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기수가 6개월이었거든요, 제가 87년 4월에 왔을 때 4기가 시작이 되었고 4기 때부터 저는 교사로 참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지역에 그 운동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구본철).

탁아소와 야학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이 모임에 참여하였다. 노동자들 일부는 친구집단이나 레크레이션 집단을 넘어 더 노동자 계급의식과 노조의 중요성을 눈뜨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기교회는 파라처치(Para Church)라는 평가도 있었다. 교회의 간판을 달았지만, 교인의 자격을 한정했고 교회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획득한 다음 노동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야학이나 교양반 한문반 같은 프로그램으로 노동자 의식화를 하였다.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하여 선발된 인사들을 지역의 노동조합 활동가와 연계시키고 교회공간도 지역의 운동거점으로 연대의 장이 되었다.

초창기의 조직화된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노동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노동운동 지원이에요, 무슨 예배고 나발이고 없어요. 노동운동이 중요한 거지. 교회는 말하자면 외피 비슷한... 그 양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랬어요. 야학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 교회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몇 명, 그다음에 활동가들, 야학 교사들, 사모님, 목사님, 전도사님 요



렇게 10명, 요렇게 해서 요런 탁자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기관에서) 빨갱이 교회라고 그러고,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초창기에도 “특별히 교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사실 많지가 않았고요. 노동 상담소 만들 때도 탁아서 만들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구본철 구술).

이처럼 노동자 교육과 조직화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였던 한무리 교회는 정보기관의 요시찰 단체였다. 많은 노동자가 이 공간을 거쳐 나갔다. 특히, 한무리 교회에는 안양으로 내려온 운동권(?) 대학생 그룹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80년대 초, 학생운동가들은 자신의 중요한 과제를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것과 노동자의 조직을 돕고 그들의 노동투쟁을 더 큰 정치적 목표로 이끄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공장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크게 증가했다. 그들 중 일부는 대학을 중퇴했고, 일부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공장에 들어갔다. 조지 오글은 1980년대 중반 3천여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학생들이 공장으로 들어갔다고 추정했다. 그들 대부분은 인천·부평·안양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했고 극히 일부가 울산·마산·창원 같은 해안의 중화학공업지역으로 들어갔다(구해근, 2002: 161).

당시에 이 지역에 그 운동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많이 현장 활동들 했었어요. 서울대 친구들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학교별로 이대그룹이 큰 그룹이 하나 있었고... 88년 3월이었는데 그 상담소를 만들면서 그럼 이 상담소 활동가들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 현장에 있는 현장 그룹들이 몇 개 있었어요. 성대그룹 이대그룹 뭐 어디 그룹 어디그룹 있었는데 어- 이야기하면서 그 그룹에서 대표자라기는 그렇고 하여튼 뭐 이렇게 같이 합해서 상담소를 좀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되가지고, 그러니까 상담원이죠. 상담 활동가가 지역 현장에 있던 활동가들 대여섯 명이 상담소로 대거 들어왔죠(구본철 구술).

특히, 84년은 총선을 앞둔 시기로 전두환 군사정권은 대내외적 압력과 내적 필요성에 의해 기만적 유화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유화국면 속에서 노동운동권은 조직적 공간을 확대하면서 자발적인 요구투쟁과 더불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학생운동도 유화국면에서 84년 초 복학생 대책위 활동이 이루어지고 학생운동으로 구속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병역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에 따라 각자 진로를 논의하는데 크게 3개의 진로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복학하거나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재야단체를 선택하거나 현장(노동, 도시빈민 등)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안양지역에도 다수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진입하게 된다(이시정, 2007: 62).

안양지역은 85년까지는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 신원조회 과정이 덜 까다로웠다고 한다. 취업 시 지문조회, 주민등록증 확인도 일상화되지 않아 전과가 있는 사람도 중소기업에는 본명으로 입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85년 대우자동차 파업투쟁, 구로동맹파업 등을 거치면서 안양에서도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86년경부터 안양에서도 취업 시 주민등록증 내용 및 가족사항 암기 여부, 전 직장 근무여부, 손가락 마디 확인(학생출신인지 현장 출신인지 확인), 지문조회, 출신 고등학교에 대학진학 여부 확인 등이 일상화되었다.

이처럼 안양은 84년 말~ 85년 이후 현장 중심의 노동활동가들에 의해 단위 사업장에서 소그룹 활동 단계에서 85년부터 안양노동상담소와 한무리 교회 등 민중교회가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무리 상담소는 정부기관의 감시와 재정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합법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무리 교회는 예정 안양노회 소속의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 노조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는 공개 합법성과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7년 말 겨울부터 시작해서 88년 겨울, 이렇게 해서 노동상담소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노조 만들려고 해도 현장 노동자는 일해야 하니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 어두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노동상담소를 만들어서 법적 측면을 지원을 해주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따라서 박진석 목사님이 노회에서 사회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을 지원받아 노회 노동상담소를 개소한 거예요(구본철 구술).

이처럼 노동자 교육과 조직화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였던 한무리 교회는 정보기관의 요시찰 단체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 공간을 거쳐 나갔다.

탁아소 만들어서도 이제 그 탁아소 만들면 자모, 자부라고 했거든요. 애들 엄마 아빠 있잖아요. 애들 엄마 아빠 있는데 자모회·자부회, 이런 걸 조직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모회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또 탁아소 선생님이 자모회를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데 뭐 의식화교육이죠 뭐. 그런 자모 중에 교회 나오는 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이 교회를 거친 분은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일례로 사랑방 학교와 노동 상담을 했었던 TND 노조 위원장 백다래 TND라는 회사는 일본회사예요. 위장 폐업하고.... 이 친구 제가 진짜 존경했던 친구거든요. 교회 나오고 있고 지금, YMCA에서 전례놀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배출된 지도자들이 꽤 많은 이영희(다우전자)씨, 그 이영희 소장도 다우전자 위장취업같이 의논하면서 했죠.



## 민중교회의 정체성과 한무리 교회의 변화

80년 중후반 이후 노동운동의 지형도 변화된다. 초기 운동이 현장중심의 노동자 소그룹 활동에서 86년 이후 단위사업장 중심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공개적인 연대활동으로 전환된다. 특히 7·8·9 노동자 대투쟁의 경험으로 지역의 노동자 대중의 자주적 역량이 강화되었다. 89년 12월에 들어서는 TND 노조에 대한 연대와 승리의 여세를 몰아 12월 28일 안양역 앞 안양예식장에서 경기노련(전노협 지역조직)이 결성된다. 그리고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민중교회나 상담소도 역할도 변화된다.

89년 88년 말부터 89년 90년 이때가 계속 그랬는데 계속 동구가 무너진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서 활동가들도 많이 떠났죠 현장을.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사회가 무너진 거니까 활동가들도 대거 막 많이 빠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시민운동이 이때 태동을 했잖아요. 88년 말 그때 시민운동이 조금씩 태동하고 그러면서 고 한무리 교회와 같은 노동교회들도 성격을 이제 조금씩(바뀌 나가야 한다) 이제 다는 아니었거든요. 노동운동 지원이 별 의미가 없어지고 또 뭐 활동가들도 다 떠나고 세상도 좀 바뀌고 노동운동같이 시민운동이 생기면서 그러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가? 이런 논의를 많이 했어요. (중략) 89년도에 그 최주상 목사님이 88년 말에 오셨거든요. 전도사로 오셨어요, 사랑방 학교에 교사로 합류를 했지요. 박진석 목사님이 서서히 손을 떼면서 90년대인가 이쯤 최주상 목사님이 담임목사님이 되셨죠. 박진석 목사님이 떠나시고 저도 남아 있었고 교회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일을 할 것이냐? 노동운동지원이 사명은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만든 게 이런 거죠.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85년 말부터 조금씩 시작되었지요. 89년 11월에 (본격적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논의가 되면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고 96년 생협을 만들었어요. 신용협동조합도 사실은 처음에는 공동체 이런 부분보다는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함부로 쓰고 그러니까 그냥 맡아 놓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갔었는데.... (중략)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공동체로 가야 한다, 생활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어요. (중략) 신협, 3,000만 원 넘게 모였어요(구본철, 문경식 구술).

한무리 교회는 동구 사회주의 몰락과 노동조합운동의 성장, 민주화의 진전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신협, 생협 등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사실, 군사정권 시기에는 지역 주민도 한무리 교회에 대해 오해를 했고 은근히 꺼리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집에 혼자 남아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도 함

게 나누며, 지역을 위한 선교활동을 계속하자 차츰 주민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중심이 된 신앙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오전 10시 한무리 나눔의 집에서는 ‘신나는 밥집’ 문이 열린다. 부지런히 60여 명분의 쌀을 씻어 군포그린재활용센터에서 얻은 70인분 가스 솥에 올려놓고 반찬과 국을 만들다 보면 두 시간 반이 훌쩍 지나간다. 오후 1시가 되면 신나는 밥집은 밥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신나는 목소리들로 가득 찬다.

밥집은 원래 결식아동을 위해 시작됐지만, 지금은 어린이집과 공부방에 있던 아이들도 같이 모여 밥을 먹는다. 정부에서 준 식권으로 식당에 찾아가 우울한 어깨를 늘어뜨리고 밥을 먹던 아이들도 신나는 밥집에서는 당당하게 먹을 수 있다. 아이들의 배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가슴을 채워주고 싶다는 게 한무리 나눔의 집 식구들의 바람이다.

한무리에서 운영하는 ‘노인참여 나눔터’는 공동체적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참여자가 비누도 만들고, 힘든 분이 다른 힘든 노인을 돕는 두레라든가, 이런 걸 모태로 탄생했다.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한국헬프에이지’도 이런 과정에서 탄생했다.

화장실 옆에 공간이 또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얻어서 이주가정 사업도 했어요. 갈 곳 없는 가족을 무료로 들어와 살게 하고 필리핀 가정도 모아서 살게 했어요. 이 동네에 이주민 많거든요. 그렇게 쪽 사업하고 또 노숙자들 여기 와서 밥 나눔도 하고... 교회하고 나눔의 집은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지만 일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한무리 사랑나눔회’로 민간단체 등록을 2003년에 한 겁니다.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랬고 2004년에는 노인참여라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 모아서 식사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복지관처럼 밥 나눠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모두가 끈질기게 함께(주체가 되는)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 겁니다. 회장도 스스로 정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교회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문경식 구술).

한무리 교회는 2007년 4월 30일 상을 하나 받았다. 출석교인 100여 명 안팎의 작은 교회지만, 지역의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조직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상의 이름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이다. 이 상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가 시상했으며, 전국 11개 교회가 받았다. 상을 받아 온 한무리 교회 부설 ‘한무리 나눔의 집’ 문경식 대표는 100만 원의 적은 상금이지만 “숙원사업인 교회간판 만드는 데 보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니 진짜 교회간판조차 없는 교회, 한무리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한무리 교회 부설 나눔의 집 문은 8시에 열린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맡기고 시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미취학 아이들은 ‘열린 학교’의 어린이집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를 보낸다. 단, 이곳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살이, 맞벌이 부모나 한 부모 또는 친척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선권이 있고 환영을 받는다. 나눔의 집은 그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공단 마을 초등학생들은 열린 학교 공부방에서 4명의 선생님과 함께 소박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공부방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느끼는 절망감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들에게 일하는 엄마를 잘 이해하기 위해 ‘엄마가 다니는 공장 탐방하기’, 환경오염이 심각한 안양지역의 환경실태를 배우는 ‘우리 동네 공해지도 그리기’ 등 여러 대안적인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방학 동안에는 목공·분해조립·십자수·연극 동아리 등 동아리별로 모임을 하고, 방학이 끝날 무렵 방학과제를 가지고 ‘동아리 축제의 날’을 열어 지역 어른들에게 발표할 기회도 얻는다. 중·고등부 공부방에서는 입시학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거나 학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보통 아이들보다 뒤쳐지지 않을 만큼 교과과정을 가르친다.

하지만 한무리 교회는 안양(만안구)과 군포시의 접경지역인 관계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담당 지자체는 군포인데 빈곤가정 아동 공부방과 결식아동급식소의 아이들은 안양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 때문이다.

군포 쪽에도 공부방 하나가 나가 있어요. 우리 한무리 팀들이 ‘기쁜 공부방’이라고... 이쪽에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이주민이 많이 생겨서 이주노동자센터를 여기 안양에서 한 겁니다. 공부방 아이들이 무허가고 이러니까 지역아동센터로 시스템이 여기에 있으니까 안양 아이들인데 군포에 소재지가 있으니까. 군포에서 계속 지원금 좀 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로 거의 6개월 이상 싸운 것 같아요(문경식).

이런 문제 말고도 한무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또 있다. 공장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구 군포다리는 소위 ‘농심다리’로 불릴 정도로 이 근방 전체가 공단지역으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공장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지, 개발비용을 받아 이동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진 것이다.

이 근방에 유한김벌리도 있었는데, 이런 공장들이 외곽으로 옮겨가면서 노동자들의 주거지도 자연스레 이동했죠. 90년대 들어 민중교회가 다들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 노동자들 중심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주노동자 상담소를 운영하

고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노동사무소도 만들어 운영하는 등 꼭 여기서 감당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레 그 자녀의 문제, 즉 가정의 문제를 짚어보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문경식).”

한 때는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무리를 아는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한무리 교회를 거쳐 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무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여기 한무리를 거쳐 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난치병 센터가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건물주들이 반대했어요. 어떤 분(약사)은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한무리가 이 지역에서 한 게 얼마인데 당신들이 뭐라고 반대하냐! 한무리가 하는 일이면 뭐든 지지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발언을 하셔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구본술, 문경식 구술)

### 지역주민의 벗 한무리 교회

한무리 교회는 민중교회의 정체성의 혼란상을 나름 슬기롭게 이겨낸 것 같다. 이러한 바탕에는 88년 5월 부임한 최주상 목사, 2007년 1월 취임한 박선진 협동목사,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담임 목사로 활동 중인 우예현 목사의 노고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작고하신 고 최주상 목사는 교회를 통해 힘겹게 살아가는 빈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도시빈민과 결손가정의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앞장서서 전개했다. 그와 한무리 교회는 결식아동 밥집 운영,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난치병어린이 돕기,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 공장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쉼터와 노동상담소 운영 등 소외계층을 위해 애써왔다. 군포와 안양지역에서 사회복지와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최주상목사는 지난 2004년 간암 판정을 받고 강화도에서 요양하던 중 2008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주상이 형은 주체의 형이다. 한 사람은 나에게 신학대 선배이고, 한 사람은 나에게 후배이며 운동권의 핵심후배였다. 주상이 형은 나에게 그렇게 인상 저 다가오는 사람이었다. 이사한 그해 99년 교회 송년회에서 보여진 주상이 형은 목사입네 하는 근엄함이나 뻗뻗하지 않고 모든 일에 앞장서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기에 이래저래 조금



은 먼 발치에서 보는 입장이었다. 노동상담소, 쉼터, 공부방, 어린이집, 난치병, 쌀 나누기 그리고 너무도 많은 사람, 사업들... 그래서 그는 아팠나 보다(강현만, 카페 최주상 목사 추모집 <http://cafe.daum.net/20090815>).

현재, 한무리 교회는 한무리 나눔의 집에서 다양한 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한무리사랑나눔회’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별도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난치병 케어센터 ‘희망세움터’도 개소하였다. 한무리 교회는 공부방 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손꼽히기도 한다.

지역의 노동 환경상 일요일도 특근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해봤자 교인도 거의 없는 한무리 교회, 목사님도 관계자들도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단 한 번도 강요한 적 없다는 한무리 교회. 한무리 교회와 함께해온 세 분의 관계자는 한무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한다.

노동교회건 주민교회건 노숙자건 뭐 결식아동이건 그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한무리의 신앙이 그렇게 표출되었던 거로 생각해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고 8-90년대와는 달라진 상황이고 한무리에 나오는 교인들도 그때하고 많이 다른 분들이거든요. (중략) 지금 한무리는 참 인간으로 이렇게 잘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고 올바른 신앙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로 앞으로 한무리의 미래를 찾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구본철 구술).

사각지대라든가, 보이지 않는, 남들이 미처 손대지 못하는 소수자들, 그런 운동, 저희는 많이 찾아내서 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런 게 결국은 지역사회를 밝게 하고 또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중략)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토대로 후배도 실무자도 잘 배양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문경식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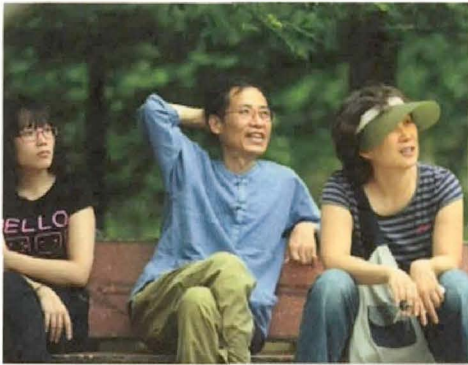
한무리 교회 우예현 현(現) 담임목사는 “한무리 교회에 같은 식구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한무리 교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특히, 교회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일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무리 교회 관계자들은 모두 과거 민중교회의 활동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교회

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언제라도 함께하는 곳”이라는 데 생각이 일치하고 있었다. 그것이 고 최주상 목사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내 몸이 살아있어, 다른 이에게 줄 것(장기)이 있다면 서운해하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냥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오. 가난한 사람들이면 더 좋을 것 같소. 그리고 나머지 내 살과 뼈는, 뜨거운 불에 태워 곱게 빻은 가루만 내가 오르내리던 모락산 골짜기에 뿌려주오. 아니면 내가 사랑한 공단 독방마을 앞을 흐르는 맑은 내에 뿌려주오. 그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내가 사랑한 사람들과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요.

평생 가난한 노동자와 빈민과 함께 주의 뜻을 행했던 최주상 목사의 유언은 우리 시대 참된 삶에 대한 좌표와 같다.

## 마치며



고 최주상 목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노협(경기노련 안양지구협의회)과 민주노총이 발족하기 전까지 즉, 80년대~90년대 초중반, 안양지역 근로사회관을 비롯한 종교기관은 민중교육, 노동문화교육의 산실이었다. 1974년 긴급조치 이후, 그리고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탄압받았던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숨죽이며 피신하며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사회운동을 준비하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종교 단체였다. 지금까지 이들의 역사적 의미는

정치조직에 비해 낮은 수준의 부차적 의미로 평가 절하되어 왔다. 하지만 교회 내 노동야학, 산업선교회, 노동사목, 청년모임, 각종 소모임과 같은 조직들은 사회운동의 물리적 공간만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인문사회과학적 지식과 경험, 고민과 모색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창조와 변혁의 공간이었음이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안양

옛보기

## 시간과 젊음이 교차하는 곳, 안양 1번가

산업구조의 축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10여 년 넘게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안양의 대표적인 상점들을 살펴보자. 체육사, 다방, 양복점 등의 단어를 접할 때 우리는 생경함과 동시에 아직도 이러한 용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오래된 것은 세월의 흔적을 남긴다. 세월의 모진 풍파가 고목의 나이테를 형성하듯이 말이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진부함과 동시에 세월의 경험과 지혜의 축적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세상살이다.

안양 1번가 상권은 안양 중앙로 벽산 사거리 - 중앙 사거리의 우측(서울 방면) 지역을 포괄한다. 조선조 제22대 정조는 1795년 시흥현과 과천현 경계지점에 사도세자인 부왕의 묘에 능행을 위해 만안교를 지은 후 화산능행의 노정을 과천-인덕원-수원에서 시흥-안양-수원의 노정으로 바꾸면서 유래정 뒤 (안양1동 674-67)에 안양 행궁을 짓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 되자 주변에 민가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곳이 바로 안양 1번가 주변이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고 안양역이 건설되고 1924년 안양금융조합과 안양연초조합, 우체국들이 들어섰다. 결정적으로 1926년 안양시장(현 중상시장)이 생기면서 상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1980년대에는 먹거리, 옷가게, 유흥주점이 주류를 이루었던 곳이 1990년대 들어 젊은 취향의 캐주얼 스타일의 의류와 내셔널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하였다. 2000년 이후 컴퓨터, 통신, 시네마 등 쇼핑과 문화가 잘 융화된 거리로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상권을 형성하여 안양 최대의 변화가로 부상하였다. 안양의 금융, 교통, 상권을 태동시킨 안양 1번가는 지역 발전을 일으킨 상징적 의미에서 “안양 1번가”로 부르게 되었고 시에서는 1998년 상가 주변 길을 “안양 1번가 길”로 명칭을 부여했다. 1996년부터 매년 10월에 젊음의 도시, 패션의 거리 안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번가 거리 대축제가 열려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자유와 멋, 낭만을 느끼고 체험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안양 1번가 상권은 유동인구 중 10-20대의 비율이 80%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며 패션 업종과 음식점과 각종 오락시설 및 유흥업종의 비율이 높다. 이런 곳에 오래된 상가들이 보물처럼 곳곳에 존재한다.



## 어떤 명품 스포츠 브랜드도 부럽지 않은 강릉체육사

체육사, 체육사는 체육관련 용품을 취급하는 만물상이었다. 동네의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면 단체 운동복을 맞추기도 하고 각종 운동기구도 팔기도 하던 곳이다. 동네잔치를 스스로 축하하는 명패와 기념품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이쯤 하면 체육사는 동네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거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에 있는 체육용품 판매 전문업체.  
 (변천) 강릉체육사는 체육용품에 관심이 많던 설립자 김상학(1954년생)이 개업 한 체육용품 판매점이다. 고향이 강릉이지만 안양에서 터를 잡아 1978년 설립 당시, 안양 2동에 체육사를 운영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취급품목은 축구공, 축구화 등의 축구용품과 기타 체육 용품이며 교복 및 사원복에 명찰과 마크를 다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체육관련 기타 제품이 필요할 경우 주문을 하면 구입할 수 있다.  
 (활동사항) 체육사를 운영하며 축구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다. 매주 마다 축구를 한다.  
 (현황) 1978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창업자와 아내가 함께 운영을 맡고 있다.

요즘 젊은이에게 ‘체육사’라는 용어는 낯설다. 그나마 체육사 상가 앞에 진열해 놓은 스포츠 용품이 있기에 이곳이 체육용품을 판매하는 곳이라 알 수 있다. ‘체육사’보다는 ‘스포츠용품 매장’이 더 친숙하다. 그런데 상가 설립자는 간판 명으로 ‘체육사’를 고수한다. 고리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



강릉체육사 간판

‘체육사’라는 용어는 단지 단어가 아니다. ‘체육사’라는 용어에는 설립자의 인생이 함께 묻어있기 때문에 간판 명칭을 바꾸지 않는 것은 아닐까.

‘강원체육사’ 설립자인 김상학 씨는 군대를 제대한 1978년 5월 16일 고향인 강릉을 등지고 안양에서 터를 잡았다. 처음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 건축 건설업을 하다가 자금이 마련되어 같은 해 10월 경 안양 2동에 체육사를 개업했다. 2년 뒤인 1980년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딸과 아들을 낳았다.

김상학 씨는 안양에서 청장년기를 보내면서 지역의 조기축구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그가 사랑하는 안양 초등학교 남부 축구회는 회원이 70명 이상으로 꽤 실력이 있는 팀이고 우승도 하는 팀이다. 안양에 초중고 인맥이 없었던 그에게 축구회는 동네 주민과의 교류의 장이자 인맥을 맺어가는 공간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선단체 및 사회단체 특히 새마을

지도자와 자율방범대에서도 활동하여 많은 공로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고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안양 등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강릉고등학교 동문회에도 열의를 다하고 있다. 주소록에는 180명 정도의 동문들이 있고 각 분기별로 만나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문들과 교류를 한다. 무엇보다 그가 다른 모임보다 애정을 쏟는다는 30-40명 정도가 모인 안양의 강원도민회는 강원도도민의 자매결연 맺어서 봉사활동을 한다.

고향이 강릉인 김상학씨는 안양과 강릉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강릉 같은 경우는 교육 관광 도시 관광이니까 관광 그거하고 그쪽 계통으로 많이 하고 교육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은 자꾸만 처음에는 동안구 이쪽에는 논밭 농사짓는 사람이 많았고 만안구 쪽에만 상권이 많았잖아요. 제가 있을 때 동안구 아파트 들어서면서 상권이 분할 됐는데 안양은 상권들이 장사할 수 있는 상권들이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강릉하고 차이가 있었죠... 옛날에는요 공을 차는 공간으로 럭키아파트가 공설운동장이었어. 석수동 1동이죠. 원래가 공설운동장이어서 거기서 운동하고 지금은 아파트 다 들어서서 옮겼지.”

김상학 씨에게 안양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강릉체육사 매장

“안양하면서 제2고향이나 마찬가지로잖아요. 강릉에서 강릉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서울 쪽에서 생활하고 군대 갔지만 강릉에서 생활한 것보다 안양이 더 많잖아요. 제2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뭐야 살다 보면 고향 같은 느낌이 느껴지고 정이 가는 도시죠.”



1980년 부인 결혼식 사진

김상학 씨는 체육사를 오랫동안 운영한 노하우를 겸손하게 표현했다. 현재 상권에서 체육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이 크다.

“애로사항이야 사업하는 사람들 다 똑같죠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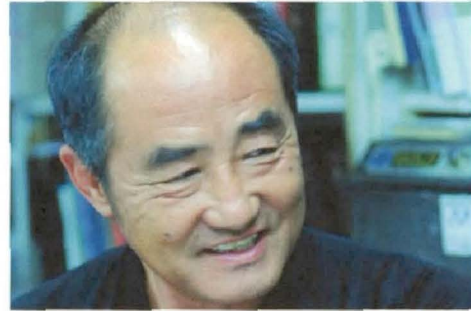


다들 잘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생활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해왔던 거죠... 제 취향대로 취미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하고 운동 같은 거를 좋아하니까 체육사가 나한테 잘 어울리니까.”



강릉체육사 간판

처음부터 장사가 잘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동대문 평화시장 나염공장에서 실크인쇄 기술을 배웠다. 체육사 운영이 잘 되었을 때는 몇몇 규모가 큰 기업에 운동 관련한 기자재를 납품했지만 현재 주요 고객은 학교로 운동용품과 운동복, 운동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또한, 학교 마크 및 각종 마크를 인쇄하는 업으로 사업의 확장을 모색했다.



강릉체육사 김상학

앞으로도 체육사를 계속 운영하실 계획을 묻자, 환한 미소로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렇죠 저는 뭐 어차피 지금이야 얼마 안 있으면 60이다 되겠지만 70대 넘어서도 그냥 놀면 뭐해요 운동하고 몸 건강하니까... 건강이 닿으면 계속하는거죠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영업하면 늙은 사람이 하나 하겠지마는 기술적인 하청일을 하면 되니까 하는 데까지 할거예요 정년퇴직 없잖아요.”

구술자 : 김상학(54년생, 남), 구술일자 : 2011년 8월 2일

## 역사와 전통을 입는다. 수제양복점, 에이원라사

라사, 지금 젊은 층에는 낯선 단어지만 중년 층에는 양복 한 벌의 추억이 어린 곳이다. 대기업의 기성복이 등장하기 이전 동네양복점에 가는 일은 큰 기쁨 중의 하나였다. 양복 맞추러 가는 날, 몸 치수를 재고 나온 후 가봉하던 날을 기다리던 아련한 추억이 있다.



원단 샘플

“어! 양복점이 아직도 있네.”

1970년대는 양복이 오늘날처럼 기성복이 아니었다. 그래서 양복을 만들어 주는 양복점은 고급용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양복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양복점을 차려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 시절 일류 양복기술자는 요즘 잘나가는 직장 못지않았다.

양복기술자들은 도시의 상가 지역에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했다. “oo라사” 서울라사, 반도라사, 동양라사, 장미라사….

라사는 1) 실과 옷감을 취급하는 곳이다. 바느질/재봉하는 곳=옷 짓는 곳=양복점 2) 라사는 유럽 양복지를 뜻하는 말이다. 3) 라사는 포르투갈어 raxa에서 유래한 말로 두꺼운 모직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말이다. 4) 난초 등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잎의 질감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 쓰는 데 잎의 표현이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것을 라사라 한다.

(정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맞춤 양복점.

(변천) 에이원라사는 양복 기술 장인인 백승규(1949년생)가 개업한 양복점이다.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안양에서 1970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수제양복점을 운영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주로 남성용 수제 맞춤양복을 만든다.

(현황) 1970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다.

1970-80년대는 맞춤 양복의 호황기다. 그때만 해도 동네에 100여 개 정도의 양복점이 있었다. 하지만 수제 양복은 1980년대 후반 브랜드를 앞세운 기성복의 등장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특히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기성복시장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에이원라사’는 33㎡(10평)의 작고 평범한 동네양복점이다.

1949년 안양에서 태어난 백승규 씨는 그의 삶 대부분을 안양에서 살아온 그야말로 알짜배기 안양 토박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중퇴한 후 안양에 있던 미도사 양복점에서 양복 기술을 배웠다. 몸이 허약했던 터라 이발기술과 철공기술은 힘이 들었기에 다른 것을 찾던 중 양복 기술을 선택하게 되었다. 바느질 관련 기술은 안양에서 했지만 재단과 관련



된 업무는 서울 명동 에이원라사에서 배웠다. 그 후 기술을 배워서 용산 역점 앞에 있는 유일라사라고 철도청 지정 양복점에서 3년 정도 일을 했다. 17살 때부터 기술을 배우면서 1970년 6월 5일 지금의 에이원라사를 개업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1동 상가 주변에서 오랫동안 운영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것도 운이예요. 건물 주인이 자주 바뀌게 되면 이렇게 오래 있지 못하죠. 이 건물 주인은 내가 개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여태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사십 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임대료를 상당히 싸게 해줬어. 그래서 여태까지 있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걸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운영을 못 해요.”

백승규 씨는 양복 기술을 처음 배웠을 당시를 회상했다.

“저기 들어가서 처음에 연탄불 피우고... 옛날에는 다리미가 전기다리미가 아니고 연탄불 난로 위에 쇠 난로 쇠 다리미를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다림질을 하고 그랬어요. 사고도 많이 났지. 태워 먹기도 많이 태워 먹고 그거부터 시작했지. 그 다음에 바지 기술자하고 일하게 되고 바지기술을 다 배우고 나서 우아기(상의)를 배워서 남의 집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다가 이걸 차리게 됐어요.”

개업하던 당시 상황과 이후 운영하던 일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아주 그냥 이거 차릴 돈은 없었는데... 전세 살고 있는 집 빼가지고 사글세로 가가지고 내줬지. 그때 당시 보증금이 20만원에 월세 8천원이었어. 7만원 가지고 양복값 열 개 가져다 걸어놓고 재봉틀 하나 사고 다이도 짜고 그래가지고 혼자 하다가 나중에 일이 많아지니까 직원들



에이원라사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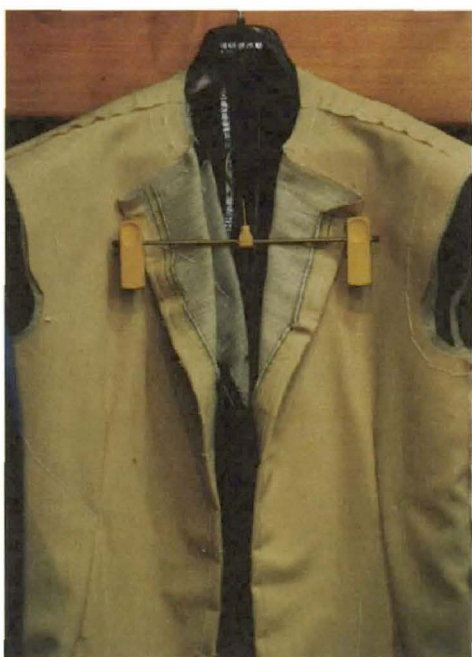
에이원라사 백승규

도 쓰고 그러다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는 명동 에이원 라사에서 맺은 인연을 계기로 자신의 양복점 상호명도 에이원 라사라고 붙였다. 그 당시 에이원 라사하면 꽤 유명했다. 서울에 있는 양장 만드시는 분들하고 교류가 있었지만 사양사업이 된 후에 다 헤어져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양복점은 1980년도에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심지어 10명 정도를 채용하고 중앙시장 등 양복점 인근에 공장을 몇 군데 운영할 정도였다. 하지만 2003년도 혼자 가게를 운영했다. 양복을 해 입는 사람이 적어지면서 맞춤복은 기성복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안양에 양복점들이 한 60군데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았어. 지금은 다 없어지고 안양 일번가에 나 혼자밖에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았어... 다들 다 잘하니까 안양 일번가에서 장사했으면. 특별하게 잘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는 거니까... 옛날에 바쁠 때는 밤새 가면서 일하고 제날짜에 납품도 제날짜에 못 시키고 일감을 삼십 벌 사십 벌 쌓아놓고 일했는데... 안양에서 양복점이 서로 경쟁하고 그랬지 기술자도 서로 빼 가고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는 의학 기술 빼고는 양복기술을 제일 알아줬어요. 옛날에 어려울 때 빅타 이 매고 일하는 직업은 양복집 밖에 없었으니까... 좋은 직업이지.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해서 골동품 장사야 이게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어. 양복점이 기성복 때문에 안된다는 거를 아니까는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어.”



정확한 사이즈와 완벽한 신체 보안을 위한 가봉

백승규 씨가 양복점 운영을 고집하시는 데에는 양복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다. 백승규 씨 자신의 옷도 직접 만들어 입고 두 아들의 양복도 만든다. 양장은 못하기에 아내분에게는 여자 바지를 가끔 만들어 준다.

“내가 이게 뭐 별이 안 돼서 벌써 안 했으면 됐는데... 막상 요즘은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치우고 딴 사업을 해봤댔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난 장사가 안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테까지 장인정신을 갖고 계속 이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양복점을 운영할 계획에 대



해 백승규 씨는 머뭇거렸다.

“그저는 앞으로는 계속 못 하죠. 앞으로 길어야 2년이나 정도... 내 나이가 65세가 되니까... 그 정도 하고 우리도 손 떼려고 이거 사양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밥을 못 먹어요. 지금은요.”

양복 기술 전수에 대해서 조금은 비관적이었다.

“지금 이거는 배우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에서 양복 일을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 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손 떼고 나면 양복은 일을 못해요. 자연스럽게 앞으로 양복점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맞춤 양복은...”

최소한 수제 양복 한 벌이 55-60만원대니 가격대에서 20만원 대인 기성 양복에 밀린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양복값이 만만치 않다. 대량생산에서 가격이 낮아졌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일까?

장인의 오래된 기술이 낮은 가격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래된 재단 기구만큼이나 그의 기술 역시 빛이 바랄 날이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30년 된 가위, 재봉틀, V자, 연적, 어깨 다리미 받침, 모형판, 줄자, 40년 된 통장, 69년 병적증 40년 된 통장

“이거는 진짜 내가 가보로 가지고 있는 건데. 무진장 오래 된 거야. 천원 이천원씩 저금하고 그랬던 거예요. 조흥은행 72년도부터 저금을 하기 시작 했을 거야. 아마 만기 되가지고 이게 얼마야... 1,103원. 이것으로 우리 동생 장가보냈어... 이거는 죽어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저금을 못했다가 개업하고 나서 이년 정도 있다가 그때서부터 천원도 큰



돈이야. 양복한 벌에 칠천원 바지 하나에 천오백원 막 했을 때니까. 지금 바지하나가 십오만원 썩이니까. 천원 이천원 오백원 막 저금한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월세가 팔천원이야. 이십만원에 월세 팔천원 보증금 이십만원에 월세 팔천원 큰돈이지.”

구술자 : 백승규(49년생, 남), 구술일자 : 2011년 8월 3일

## 커피 문화의 공간 - 대성다방

한 때 다방은 도시 문화의 중심이었다. 건물마다 다방이 하나씩 들어 설정도로 많았다. 사업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비즈니스 장소였으며, 문화예술인에게는 삶의 불태우는 문화의 장이었다. 그리고 사랑이 피어나는 젊은이에게는 꿈과 낭만의 장소였다. 그리고 LP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창고였다. 아침의 수고에 감사라고 하듯이 계란을 둥둥 띄우던 모닝커피가 그 당시 다방의 향수였다.

(정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에 있는 찻집.

(변천) 대성다방은 1995년 다방을 인수받은 박순덕(1956년생)이 커피 등 다양한 차를 파는 곳이다. 구 배터리 거리인 안양 2동에 다방을 운영한다.

(주요사업과 업무) 취급 품목은 커피와 쌍화차, 인삼차 등 옛날 다방에서 파는 음료수와 차를 주로 판다.

(현황) 기존에 있는 다방을 1995년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카페와 커피숍이 더 친숙한 시대에 ‘다방’ 간판이 반갑다. 다방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쉴 수 있도록 꾸며 놓고, 차(茶)나 음료 따위를 판매하는 곳이다. ‘찻집’으로 순화되어 부르기도 했다.

커피전문점도 문화적 흐름에 따라 시대에 맞게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커피전문점의 역사는 다방문화에서부터 시작된다. 70-80년대의 다방문화는 젊은 세대의 문화의 중심지며 음악 DJ가 신청곡을 틀어주며 청바지 세대와 통기타 세대를 대표할 수 있다. 이후 다방에서는 커피나 쌍화차 칩차 등을 판매함으로써 성인들이 찾는 다방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지금은 서울이나 변화가 지역에서는 다방이라는 문구를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안양(구) 배터리거리에만 10개가 넘는 다방이 있었으나 지금은 2/3가 사라진 상태이다. 그중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대성다방을 찾았다. 지하에 위치한 대성다방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은 이렇게 후진 곳을 왜 주목하느냐며 의아해했다. 방문했을 때에도 장맛비로 지하 다방 바닥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있었다.



“아무 것도 차려놓을 만한것도 없고 여기 습해서 닦았는데 파랗게 곰팡이 피고 한참 있으면 고이잖아요. 금세 이렇게…. 오래돼서 물이 조금씩 올라와 차요. 다 낡아가는 이런 이것도 뭐 이렇게 후진거래…. 가게가 물만 안 새고 그러면 참 좋은데 주인도 이거를 새로 시설하려면 다 버려야 해. 맨 처음에 탁자가 이게 있잖아요. 85년도에 맨 이게 건물 해가지고 탁자를 저기한 거예요. 맞춰서 그때, 지금도 그냥 후지고 낡았지만 지금 쓰는 거예요…. 습해서 자꾸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 띠어버려야 하는데…”

전북 전주가 고향인 박순덕 씨는 1980년대 초반에 안양으로 이사 왔다. 이사 온 후 처음에는 대성 다방에서 주방업무를 맡다가 1995년 다방을 인수 인계받았다. 2006년까지만 해도 한두 명의 아가씨를 고용했는데 그 후로는 홀로 운영하신다.

다방은 카페와 커피숍에 밀려서 경기가 좋지 않다. 2004년 이후로 다방 운영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지금은 근근이 유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 그 배달하는 아가씨들 뭐 한 세 명 정도 있었어요. 배달을 위주로 다방을 유지했죠. 지금은 뭐 다들 가게들이 IMF 이후로 힘들고 그러니까 배달도 안 하고 길거리 커피가…. 그런 게 생기니까 배달도 안 시키고 가까스로 힘들다 보니까 배달도 안 시키고 그래서 아가씨들도 없게 되고 그렇게 점점 죽게 됐죠….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예전에는 다 힘들게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딱 때려 칠 수도 없고 그나마라도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뭐 그냥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거죠…. 다방 운영만으로는 생계 못하죠. 이거 해가지고는 못하고 다른 거 사실은 제가 조금 다른 것 투잡으로 하고 있는 것 있고…. 사실은 누추해서 때려 치려고 했는데 때려치지도 못하고 이려고 있고요.”



대성다방 실내

단골 손님은 이전에 관계를 맺었던 노인분들이다. 예전에 단골로 다니던 이들은 나이가 많아서 사망하고 살아 계신 이들도 연로하시니 다방에 옛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간간히 오곤 한다.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여러 물품들만이 이곳이 한때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곳이라는



대성다방 간판



대성다방 공중전화

가 격	
커피	3000 울무차
취	500 호박죽
츄	500 생강차
녹	300 영지차
홍	300 영지즙
인삼	300 대추차

메뉴판 가격표

것을 알려줄 뿐이다.

박순덕 씨에게 다방은 어떤 의미일까?

“예전에는 커피를 내렸잖아요. 가루로 근데 지금은 분말커피가 나와서 타서 드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바빠들 살았으니까. 예전에는 정수기가 없었잖아요. 또 가게마다 TV가 없었잖아요. 없는 거를 커피를 끓여서 가게까지 배달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손님을 대접하고 지금은 일회용 커피가 나왔잖아요. 타 먹는 커피도 있고 조그마한 미니 정수기들이 그니깐 그런 것들이 우리 아가씨들의 몫을 하는 거지. 경기도 어려워진데다가..., 커피를 좋아한다기보다 지금은 항상 먹고 살다 보니까 식품처럼 기호식품으로 생각하는데. 좋아하기보다 먹고 살기 위한 그냥 직업이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개선해서 그야말로 옛날 다방답게 꾸며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서는 되지도 않고... 해도 이런 지하라 오래되다 보니까 물 나오고 이렇게 너무 누추하니까. 지상 가서 저런데 변두리 쪽에 산기슭 이런 데 초가집처럼 꾸며놓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1980년만 해도 커피 값이 130원 혹은 150원 그렇게 하던 게 지금은 2,500원, 심지어 5,000원을 하는 곳도 있다.

다방의 메뉴의 변천사에 대해 말을 이었다. 쌍화차, 하이보리..., 요즘 카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메뉴이다.

“예전에는 두양차니 쌍화차니 많이 드셨죠. 하이보리라고 있었거든요..., 사이다 넣고 계란 넣고 우유 넣고 이렇게 거품 내서 먹던 그야말로 티 옛날의 약한 술이예요. 티라고 팔았어요. 약간 티라고 우리가 가게에서 술이 약한 술이 있었어요. 그런 거 예전에 팔았고..., 약간 알코올이 들어간 요즘은 그런거 안 팔고..., 즙, 침즙, 마즙, 생즙해서 몸에 좋다니까 다방에서



많이 팔잖아요.”

손님을 상대로 하는 장사이기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도 있을 것이다.

“큰 백자기를 큰 쌀항아리 있었거든요. 그냥 그렇고 깨부수고 그런 손님들이 있고 또 기억에 남는 손님은 못된 손님들이 많지 좋은 손님들은 거의 없고 좋은 손님들은 차 잡수고 조용히 가시는 손님들이 좋은 손님이지. 장 부수고 또 공중전화도 때려 부순 사람들도 있고 경찰들 불러가지고…. 근데 주변의 다 아는 분들이 술 한잔 잡수고 오셔서 그러는 거니까 나중에는 사과하면 지역사회에 어찌됐어요. 순간인데 자기 정신이 아닌데요.”

안양 발전을 위해 박순덕 씨는 한 마디 덧붙였다.

“여기서부터 2동이에요. 97-98년도 짓다가 정지 상태가 된 옛날에 대영장(카바레) 저 앞에 보면 답답하고 2동 쪽으로는 다 후졌잖아요. 여기를 뉴타운 지역 선정이 돼서 개발이 될줄 알 주민이 개구리처럼 가려고만 하지 장사하시는 분들도 식당도 작년에 그만두시고 거의 이제 뿔뿔이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 그대로 저하고 똑같이 나이 먹은 세 군데 카센타가 지금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가게가 별로 없고…. 젊은이들은 안양 1번가로 가고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뭐 예전처럼 예전에는 화단극장도 있었잖아요. 저기한 시설이 없으니까…. 안양도 평촌 이쪽에만 치우쳐…. 평촌은 신도시 생긴 곳은 깨끗하고 한테 이곳은 큰 건물도 없고 좋아진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좋아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나 가게나 모든 것들이 형성되는데. 이곳처럼 낙후된 곳에 누가 오겠어요.”

만안구에서도 상가들이 울상을 짓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배터리 공장이 밀집해 있고 사람들이 북적이던 곳은 경기침체와 산업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이 떠나기 시작했다. 네온사인이 비추는 화려한 안양 1번가와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떠나지도 그렇다고 정착하지도 못하는 옛 화려했던 추억을 회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방 주인과 그 다방의 단골손님이 남아 있다.

구술자 : 박순덕(56년생, 여), 구술일자 : 2011년 8월 2일



대성다방 박순덕

# 세월을 맛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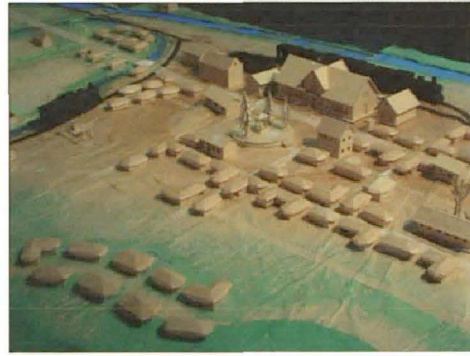


안양지역에 음식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마도 한양 가는 길목인 인덕원 사거리 일대 자리했던 주막에서 당시 오가던 길손에게 팔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 기록은 없다. 안양시는 2006년 안양시민축제 당시 음식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안양의 대표음식으로 설령탕을 선정해 과거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다.

자료를 조사한 안양문화원 최태술 위원은 “지금 동안구 평촌에 귀인동이 있다. 이 마을은 이름 그대로 宮中에서 宮人으로 생활하다 퇴역하신 귀인(貴人)들이 살든 곳이어서 귀인동이다. 또 수촌마을에는 내시촌이 있어 두 곳 다 퇴역한 궁인들이 궁중에서 하던 선농제 행사에서 풀이던 설령탕 기술을 알았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설령탕이 일반에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 설령탕보다 안양 설령탕이 진짜 중 진짜가 아닐까.

1926년생으로 안양3동에서 태어난 이용구 용은 어린 시절의 풍경을 눈썰미 있게 기록한 [양지마을의 까치소리]에서 1930년 당시 안양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곳에만 겨우 전깃불이 있을 뿐, 그 외에는 밤이면 희미한 석유 등잔불만이 가물거리는 고장으로 하루에 기차가 수회 지나며(단선) 서울-수원간 경수(京水)버스가 몇 대 지나던 촌락이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안양역 건물은 까만 기와지붕에 몇 평 안 되는 성냥갑만 한 역사(驛舍)에 대합실과 개찰구와 집찰구뿐이었으며, 역 앞 국도 건너에는 미륵당(彌勒堂)이 있고, 그 주위에 수백 년 된 노향목(老香木) 두 그루가 안양의 내력(來歷)을 다 아는 듯 우뚝 서 있었다. 바로 그 밑에 두 개의 목로주점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이 용이 말하는 목로주점은 한 장 사진 기록을 통해 시간을 넘어 과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1943년 2월 20



1930년대 안양역 일대 모형



기억으로 재현된 안양역 모형



1943년 안양역 앞 음식점

일 민속학자 송석하(宋錫夏)가 안양역을 지나가다 촬영했던 사진 속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가 촬영하고자 했던 안양역 광장이 존재했던 미륵당이였다. 그가 남긴 3장의 흑백사진 중 1장의 사진에는 한자로 적힌 안양음식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 기억으로는 안양역 주변과 구 시장, 새 상권이 형성된 새 시장(중앙시장) 일대에 본격적으로 다방, 양화점, 병원, 양복점들과 함께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 일제 강점기부터 피서지로 유명했던 안양유원지에도 음식점들이 성업했었다.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안양유원지, 봉암식당

안양유원지(안양예술공원)는 일제 강점기인 1932년 일본인들이 계곡을 막아 천연폴장을 만들며 시작된 여름철 피서지로 50~60년에 한강 이남에서는 유일한 물놀이 시설이었다.

안양유원지가 유명했던 것은 이곳만큼 숲이 울창하면서 계곡의 수량이 풍부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락철에는 유원지 입구에 ‘안양 폴장’ 간이역이 생겨 경부선을 달리던 기차가 섰고, 역에서 폴장까지 임시 버스가 운행되는 등 60년대 여름철엔 하루 이용객 2만여 명을 헤아리던 곳이다.

안양예술공원상가연합회 부회장 남창림(71)씨는 “계곡 주변으로 자연스레 음식점들이 하나둘 들어섰어요”라고 당시의 기억을 더듬었다. 안양유원지에는 영남여관, 백운여관 등 숙박시설도 있었다. 특히 안양 최초의 카바레도 이곳에 있었는데 왕궁 카바레였다. 지금의 카페 ‘데이시아’ 건물이 이전 카바레 건물인데 지금도 악사들이 연주하던 반원형의 무대가 지금도 남아있다.

안양토박이인 안양시의회 김성수 사무국장은 안양유원지 안에 유명했던 식당으로 1969년 문을 연 봉암식당과 고바우식당, 우정식당 등을 기억한다. 두 식당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 아마 안양에서 현존하는 식당으로 가장 오래된 식당이 아닐까 싶다. 봉암식당은 1968년에 문을 연 대형식으로 염불암 올라가는 초입에 자리하고 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좋아 예전부터 친목모임이, 회식장소로 유명했다. 필자가 근로사회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독일수녀님 서말가리다 선생님은 이 집에서 60년대부터 불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안양역과 구 시장 일대에 있던 식당들

1920년대 개장한 안양 구 시장은 197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안양역 인근 일번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안양 최고의 변화가이다. 안양역 좌우 구도로 변과 길 건너 현재 일번가 골목길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 추억으로 기억될 만큼 대표적 음식점은 어느 집이 있을까.

1950-60년대에는 안양역 구도로 변에는 가마솥에 설렁탕을 끓이던 경민식당이 있었으며, 안양역 앞에는 고향식당이 유명했었다.

중국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민들이 찾았던 음식점이다. 화교 학교에 다니던 주인공 딸이 너무나 예뻐 당시 남학생들이 얼굴 한번 보기 위해 짜장면을 먹으러 자주 다녔던 순흥루와 동춘관 등은 1950-70년대 안양 시내 중국집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다.

안양역 건너편에는 아이스계끼와 하드를 만들어 팔던 태극당 제과점이 있었고, 미승당, 풍미당 빵집이 있었다. 제과점은 1990년대 안양 중앙시장 입구 옆에 학생들의 데이트장소였던 폼비제과점으로 이어지다가 끝내 문을 닫고 말았다.

일번가 골목에는 동그랑땡이 맛있던 느티나무집이 있었고, 안양우체국 앞에는 술꾼들로 붐볐던 양일해장국이 있었다. 또 안양역에서 대동서점 골목을 지나 안양9동 채석장까지 연결됐던 철길 옆에는 구름다리가 유명했다.

안양 일번가 골목길에는 화진정, 유래정, 진고개 식당 등 불고기와 갈비, 냉면, 육개장, 설렁탕 등을 팔던 한식당이 쭉 늘어서 있었다. 안양아구탕 원조 남촌아구탕, 학생들 데이트장소였던 폼비제과점도 추억 명소였다.

11월 15일 안양토박이로 현재 안양4동에서 흑산도 홍어집을 경영하는 정효진(59)씨를 만나 그가 기억하는 6-70년대 음식점과 먹거리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정씨는 젊었을 때 안양지역을 주름 잡던 주먹(?)이었기에 그가 기억하는 식



1967년 안양역 앞 태극장제과 앞



1967년 안양역 광장



1967년 안양역 앞 중국집(좌측간판)

당과 술집들의 얘기는 추억이자 역사였다.

안양역 앞에는 1960년 제일 유명했던 식당은 고향식당이다. 역전파출소 옆에 있었는데 해장국 한 그릇에 1,200원이었다. 진짜 좋았다. 70년대 중반에 없어졌다.

술집으로는 구 시장에 변무일씨가 하던 빠(bar)가 있었다. 안양에 빠로서는 처음 생겼는데 맥주병에 먹거리를 넣어서 팔았었다. 구 시장 입구 오른쪽 2층에는 다방이 있었고, 비산동 진흥아파트 앞에 술집으로는 개성집, 안양에게 제일 나가던 음식점은 장춘옥이 최고였다.

남부시장에는 금천옥과 경남옥이 있었고, 동춘관은 47년인가 50년인가 생겼다. 안양역 앞에 복어집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했다. 현재의 일번가 청사초롱 앞에 있었다.

동춘관과 쌍벽을 이루었던 순흥루의 딸 이름이 후에미나 였는데 현재 대만에 살고 있다. 아직도 안양시민연대 최병열 대표와는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다.

경민식당은 성결대 앞으로 이전했다가 90년대 초인가 폐업했으며 주인은 미국 LA가서 살고 있다. 경민식당은 절대 다테기를 주지 않았다. 국물 맛이 변하면 안 된다고 철칙으로 고수했다.

60년대 말 구 시장 넘어가는 철길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고, 안양 삼원극장옆 철길의 구름다리는 70년대 중반에 생겼다. 구름다리의 닭 내장탕과 닭 곱창은 정말 끝내주었다.

60년대에 근로자회관에서 운영하던 급식소에서 미군부대에서 지원받은 밀가루로 국수를 3원인가 5원인가 팔았는데 배고팠던 시절이었기에 줄지어 서 먹었다.

안양 일번가 동서연결 지하차도 옆에 있던 남촌식당 자리에는 64-65년도인가 기름에 튀기는 빵을 팔던 집이 있었는데 당시 김두한 씨가 안양 왔다가 맛을 보기도 했다. 건너편에는 계란을 넣어서 하는 이태리빵집이 우와 먹고 싶었지 마음대로 사먹지 못했지, 죽였다.

구 시장 넘어가는 땡땡 철길 옆에는 광창라사가 있었고 중국집 강성각의 호떡도 유명했다.

안양에서 70년대 후반 80년대 해장국집으로 유명했던 양일식당은 안양우체국 아래 큰길에가 있다가 안양병원 옆 골목으로 옮겨졌으나 장사가 안돼 끝내 작년에 없어졌다.

## 쫄깃하고 매콤 고소한 맛 '순대곱창' 볶음, 안양중앙시장, 광주대명식당

안양 중앙시장에는 유명한 순대곱창 볶음 거리가 있다. 안양중앙성당 맞은편 골목에 마주 보고 죽 늘어선 같은 업종의 식당들이 있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다섯 번째 코너가 '광주대명식당'이다. 약 30년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이어오고 있는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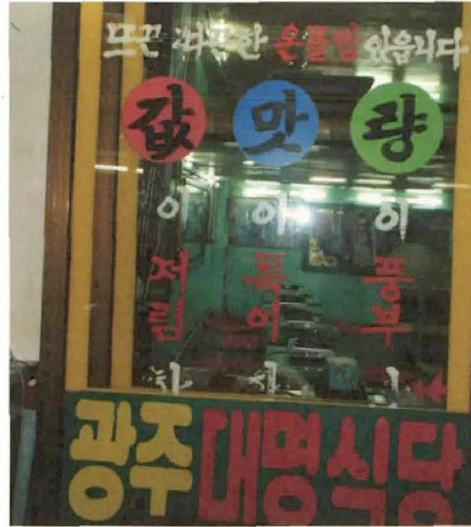


종길, 김선옥 사장은 사진 찍히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다.

두 부부는 전라도 화순에서 상경해 중앙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시작하였다. 건어물과 곱창을 같이 팔다가 건어물을 접고 두 번째로 순대곱창 장사를 시작한 곳이 되었다. 그때가 1980년 초반이다. 첫 번째로 장사를 시작한 가게는 주인이 바뀐 상황이라 광주대명집이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다. 그 세월의 깊이라도 느끼듯이 들어서는 입구는 당시 페인트로 쓴 '광주대명식당'이라는 글귀가 그대로 있어 옛 맛의 정취를 더한다. 순대곱창은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노란 단무지가 전부다. 그런데 대명식당에 오는 단골은 식당이 생길 때부터 오고 가던 손님이 지금도 오고 한다. 오래된 손님은 안산에서 찾아오기도 한다.

골목을 들어서면 이곳저곳에서 자기네 식당으로 들어오라고 적극적인 호객을 하지만, 광주대명식당은 조용하기만 하다. 오직 맛으로만 승부하겠다는 그들의 여유로운 자신감이기도 하겠지만, 외모로 보서는 세상의 때가 묻었을 것 같지 않은 이들이다. 특히 김선옥 여사는 오랜 경력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의 동안인데다 제 발로 찾아온 손님들의 음식에만 정성을 쏟는 본새가 지나치게 순수하지 않나 싶다.

이 순대곱창 골목이 대부분 그렇지만, 하루이틀 장사할 게 아니므로 모든 재료는 가장 좋은 국산으로 사용한다. 순대는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게 손질을 하여야 썰고, 곱창은 초벌 삶은 것을 공급받아서 다시 물로 여러 번 씻어서 모든 냄새를 제거한다. 양배추, 숙갓, 깻잎과 갓은 양념, 들깨가루로 맛을 내는데, 각 식당마다 자신들만의 양념을 개발하므로 같은 순대곱창 볶음이라도 맛은 제각각이다. 또 이 식당의 단무지는 다른 집보다도 아삭아삭하고 시원한데, 같은 단무



그 옛날 페인트로 쓴 글씨들



대명식당 순대곱창



대명식당 김선옥

지라도 보관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라 한다. 살얼음이 얼 정도의 온도에 신선하게 보관하여 손님들에게 내는데, 단무지가 다른 곳보다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볶음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당면도 찰당면만을 사용하여 그 맛을 더한다. “매당면을 써 봤는데, 재료비는 절약되지만 맛이 찰당면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는 조금 비싸더라도 꼭 찰당면만 고집하고 있어요.”

순대곱창 골목은 연중 전체 휴일이 딱 3일이다. 추석과 설, 봄철 야유회 가는 날이라 한다. 개인별로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화, 수요일에 반씩 식당 문을 닫는다. 2주에 한 번씩 규칙을 정해서 쉬는 이곳 사람들은 단합이 참 잘 된다. 자신이 한가한 시간에 다른 가게에서 손길이 필요하면 기꺼이 그 식당의 도우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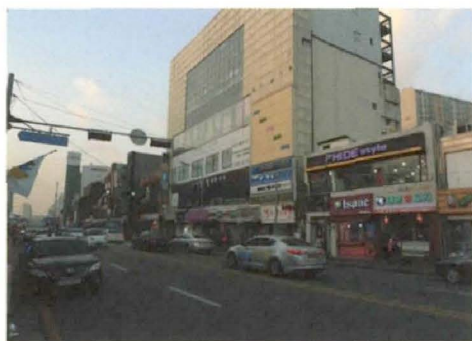
서로 돕는 이곳 사람들의 마음은 넉넉함 그 자체이다.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매콤하고 고소한 순대곱창 볶음은 참신한 맛이기도 하다. 해피투게더 팀이 바쁜 시간을 피해서 갔음에도, 마침 수능 시험이 끝나 일찍 하교한 고3 학생들이 1층 여섯 개의 테이블 중 두 개를 차지하고 볶음 요리를 먹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들 중 한 학생이 이곳 단골손님이란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의 추천으로 처음 왔는데, 이마에 땀까지 맺히며 맛있게 볶음 요리를 먹고, 팬에 볶아주는 볶음밥까지 싹싹 쓸어먹고는 만족한 얼굴로 감사를 표했다.

1인분 6,000원, 주변에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많아서 저녁 시간에는 2층은 주로 젊은 이들이 값싼 회식을 하는 자리가 된다. 맛도 좋고 볶음밥(2인에 1인분이면 충분)까지 먹어도 7,000원이면 해결된다.

## 안양사람들이 기억하는 설렁탕집, 경민식당

안양사람들의 기억으로 안양에서 아주 오래된 설렁탕집은 경민식당이다. 지금 70-80세 정도의 어르신들과 좀 더 내려온다면 60대 중반의 안양토박이들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

안양역에서 비산동 넘어가는 육교 쪽으로 가는 구 도로 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구 시장에 살았을 적 안양역 쪽으로 가다 보면 식당 입구 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있고 그 속에서 팔팔 끓던 아주 뽀얀 하얀 국물과 식사를 하러 아주 많은 사람이 드나들던 모습이 기억난다.



경민식당자리(안양역 인근)



당시 경민식당은 관공서들이 자리했던 안양 일번가와 안양시장(구 시장)이 있었던 시대동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자주 찾던 음식점이었다.

안양시는 2006년 안양시민축제 당시 음식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안양의 대표음식으로 설렁탕을 선정해 과거 자료를 수집했다.

안양문화원 최태술 위원이 조사한 기록에 보면 경민식당 설렁탕이 한창 이름을 날릴 때 안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공무원이나 사업하는 분이나 경민식당 설렁탕을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으로 경민식당 설렁탕이 옛 선농제 후에 끓여 먹던 그 설렁탕의 맥이란 것이다.

설렁탕은 우리들의 대중음식 중의 하나다. 옛날 고기가 귀했던 시절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에 바친 쇠고기를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쇠고기국에 밥을 말아 많은 사람이 먹도록 한 것이 후에 설렁탕이라는 대중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설렁탕은 사골, 도가니, 쇠머리, 우족 등의 뼈와 양지머리, 사태 등의 정육, 우설, 지라, 허파 등 내장을 넣고 하루 정도 푹 고아 끓인 것으로 곰탕보다 국물이 뽀얗고 맛이 담백하다.

경민식당 설렁탕은 우선 소뼈를 24시간 곤 뒤 딱 200명분만 한정하였다고 한다.

김종수 씨의 말에 어린 생각에 끓인 국물에 물 좀 더 부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 할머니는 진실과 음식 맛의 진리를 터득한 달인이었다고 평가했다.

경민식당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며느리가 전수받아 했으나 할머니 때 맛이 나지 않자 차차 손님이 줄어들었다. 또한, 안양8동 성결대학교 앞으로 이전하고부터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히면서 나중에는 문을 닫고 말았다.

## 전국으로 유명세 안양해물탕의 원조, 정호식당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이 갈비라면 안양은 해물탕으로 유명하다. 전국을 돌아 보면 간간이 안양해물탕이라는 상호를 건 음식점을 볼 수 있는데 이 안양해물탕의 원조가 되는 집이 정호식당으로 이 집의 해물모듬찌개가 바다도 없는 안양시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만들었다.



정호식당(2011년)

정호식당은 1970년 안양시 남부시장 골목길에 개업해 38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1980년대에는 유명한 탤런트들이 이 집의 해물모듬찌개를 맛보기 위해 서울 여의도 방송국부터 달려와다가 자리를 잡지 못해 밖에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다반사일 정도로 명성을 날렸었다.

정호식당의 대표음식은 해물모듬찌개다. 왕새우, 키조개, 전복, 삿오징어, 낙지, 바지락, 비단조개, 명란알, 한치알 등 계절에 따라 30여 가지의 싱싱한 해물과 12가지의 야채, 비법 양념장을 넣고 한우양지 육수로 끓여내면 국물이 개운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밑반찬은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마늘쫀, 김치, 깻잎과 젓갈이 전부지만 소박하고 정갈하다. 이 집 해물모듬찌개가 유명해진 것은 작고한 지청자씨가 재료구매에 있어 매우 간간하기 때문으로 살아생전에 새벽이면 노량진 시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직접 들어왔다.

20대 중반부터 음식업에 투신했던 지청자 씨는 해물탕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이 높아 메뉴를 해물 한 가지로 일관했다. 처음엔 해물탕으로 불렸는데 남들이 해물탕이란 이름을 모방하자 메뉴 이름을 ‘해물모듬찌개’라고 바꾸어 차별화했다고 할 정도로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정호식당 해물모듬찌개는 지청자 씨가 작고한 후 아들이 남부시장 내 그 자리에서 대를 잇고 있고, 딸이 의왕 청계 쪽에서 분점을 내고 운영하다 지금은 평촌 먹자골목으로 이전했다.

최근에 오랜만에 맛을 볼 기회가 생겼다. 해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물이 좋다”는 말을 할 정도로 선도가 좋았고 맛도 웬만한 해물탕집보다 한 수 위다. 하지만 국물이 개운하면서 끓일수록 단맛이 나와 하는데 작고하신 어머니가 내놓던 예전의 그 맛이 나질 않아 아쉽다.

해물탕을 다 먹고 나면 도저히 들어가 곳이 없어도 볶음밥을 빠뜨리지 말고 꼭 먹어 보아야 한다. 물론 타의 추종 비교 금물이다. 작고한 주인아주머니와 일해 왔던 연세 지긋한 할머니들이 깻잎에 볶음밥을 한 손가락 올려 싸먹으라고 알려주면 그야말로 최고의 대접이다.

하지만 가격은 다른 음식에 비해 다소 비싼 편에 속하는 반면 맛은 예전의 명성만큼 따라주질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질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 안양역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부대찌개집, 석기정



안양역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은 부대찌개로 유명한 석기정이 아닐까 싶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48에 자리한 석기정에 들어서면 실내 벽면에 since 1981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1970년대 말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 집은 1965년 안성인가 송탄인가에서 처음 문을 열고 영업을 하다가 안양으로 이전해 현재의 자리에서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군포, 의왕, 수원 등에 체인점까지 내고 있지만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대를 이어 지켜온 비밀에 있지 않나 싶다.

돌솥 그릇에 담겨져 나와 강력한 가스 불 위에서 끓는 부대찌개 속에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소시지, 햄, 통조림통, 고기, 김치, 당면 등과 더불어 냉이가 들어가 진하고 깊은 국물 맛이 감칠맛까지 더해주는 것이 특징으로 밀반찬도 몇 가지 안 되지만 대체로 깔끔하다. 예전에 할머니가 운영할 때는 사시사철 냉이를 내놓았지만 요즘엔 봄·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썩잖이 나오기도 해 아쉬움을 주고 있어 대를 잇는 명성을 다소 흠이 되고 있다.



부대찌개집 석기정

## 안양 일반가 터줏대감, 안양감자탕

음식점들이 즐비했던 안양 일반가에 그 자리를 지키며 수십 여년 세월을 맛으로 승부하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몇몇 집들이 있는데 1983년 문을 열고 감자탕을 만들어 내는 안양감자탕(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151번지)이 그중 하나이다.

서이면사무소 옆에 자리한 이 집은 특이하게 콩비지와 감자, 살코기가 붙은 뼈가 수북이 나온다. 아마도 감자탕에 콩비지가 들어가는 집은 안양에서 이 집이 유일하지 않을까? 최근 가격이 좀 세져서 아쉽지만 국내산 고기를 사용하고 그만큼 맛도 인정하기에 그럭저럭. 안양 일반가가



안양감자탕

젊은이의 거리로 바뀌어 중장년들이 갈만한 곳이 마땅치 않지만 이 집만큼은 20대부터 60대 장년층까지 함께 감자탕과 술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곳이다. 이 집 감자탕은 국물이 리필된다. 감자탕 속의 뼈에서 고기를 다 발라먹고 국물까지 어느덧 동날 무렵이면 새로운 주문을 하게 된다. “이모님 밥 한 공기만 볶아 주세요.” 콩비지의 구수함이 묻어나는 볶음밥은 소주 한 병을 추가로 주문할 정도로 또 다른 맛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집의 또 다른 맛은 해물 파전이다, 출입구 옆 커다란 철판 위에서 이모님이 맛있게 부쳐주는 파전은 꾸역꾸역 비라도 오는 날이면 더욱 맛있다. 비밀 한 가지. 메뉴에는 없지만 가끔 계란말이를 주문하면 이모님이 해주시는데 퓨전이 아닌 옛날식 계란말이를 맛볼 수 있다.

안양감자탕은 주인 내외분이 하는데 파전을 부치시는 이모님은 기억으로는 15년 이상을 함께 하였는데 인상도 좋고 마음씨도 좋다. 오랜만에 들리면 꼭 기억해준다.

넓고 허름해 다 쓰러질 것 같은 안양감자탕 앞에는 깔끔한 디자인과 인테리어로 단장한 안양감자탕2가 생겼다. 여기는 결혼한 따님(?)이 독립해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들과 오는 분들은 깔끔한 이곳으로 가지만 대부분은 허름한 옛날부터 있던 원조 집을 많이 찾고 있다.

## 안양시민의 회갑 장소였던 갈비집, 화진정



화진정 자리(안양일번가)

안양의 유명한 갈비집중 하나가 화진정이다. 화진정은 약 40년 전 안양역 앞 일번가 골목에 문을 열었다. 당시 그 골목에는 유래정 등 많은 음식점들이 마주 보고 성업을 했다.

화진정의 주메뉴는 왕갈비다. 다진 마늘, 통깨 후추 등을 넣어 만든 갖은 양념과 정성스럽게 손질한 갈비를 왕갈비 조리실에서 참숯불에 구워 달구어진 철판에 담아 내오는 것으로 육질이 부드럽고 씹는 맛이 일품으로 1980년대까지

회갑잔치의 단골장소이기도 했다.

화진정이 생긴 유래는 수원 화춘옥 갈비가 전국적으로 유명할 당시에 화진정 주인인故 윤금분 할머니가 화춘옥 주방장 집을 수십 번 찾아가 빌고 빌어 스카웃에 성공해 화진정 갈비가 탄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양 1번가에 있던 화진정은 1990년대 중반 전국에 불어 닥친 노조 열풍이 이 집에도



밀어닥쳤는데 마침 병으로 입원해 있던 주인의 충격과 상권의 변화로 자진 폐업하였다.

이후 화진정 자리는 임대를 주어 품목을 바뀌었으며, 화진정의 갈비맛은 아들이 석수동 안양대교를 지나 오른쪽에 화진가든을 열고 석수동시대의 명맥을 잇고 있으나 예전의 명성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편 화진정 설립자인 윤금분 할머니는 생전에 운영하던 50억 원 규모의 화진가든을 기초로 ‘화진윤금분장학회’의 재단을 설립해 매년 40여 명의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1년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윤금분 할머니는 1923년 서울에서 출생해 학교를 졸업하고는 정부기관, 서울 답십리 소학교 교사, 방림방직 초대사감 등에서 오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 후 안양에 자리 잡아 화진정과 그 이후 개업한 화진가든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1995년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윤 할머니는 본인 사후 재단의 발전을 염려해 화진가든을 재단에 기증했으며 화진장학회는 1996년 설립 직후부터 5천만 원 이상을 매년 장학금으로 내왔다. 올해 지급한 장학금 총액만 7천만 원에 이른다. 장학금 규모로는 안양지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힌다.

화진가든은 설립자의 사후 재단이 선임한 김창배, 오정숙 이사 부부가 맡아 운영하고, 화진장학회는 윤금분 할머니 타계 이후 동생인 윤옥분 씨가 이사장을 맡았다가 2009년 교육관료 출신의 전문가인 이현상 씨가 3대 이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삼덕제지 공장 노동자 허기 달래주던 순대국밥집, 삼덕집

안양4동 중앙시장 안에는 순대국밥집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죽 늘어서 있다.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 40여 년이 넘는 삼덕집이다.

삼덕집은 1960년대 초 정명순 할머니가 인근 삼덕제지 앞에서 포장마차를 열고 공장 노동자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내장, 머리고기, 오소리감투가 푸짐한 국밥을 팔기 시작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중앙시장 안에 점포를 마련했으며 지금은 따님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안양 중앙시장 안에는 순대국밥집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죽 늘어서 있다. 삼덕집 간판에는 작은 글씨로 소머리국밥, 고사머리, 막창구이 전문이라 적혀 있고, 팔호 안에 ‘원조할머니



삼덕집 순대국(안양중앙시장)

집' 이라고 써어 있다.

삼덕집은 순대국과 막창구이가 전문이다. 특히 밥이 말아 나오는 순대국밥에는 순대가 보이지 않는다. 아예 순대는 넣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 할머니가 “제대로 된 순대국에는 순대가 안 들어가” 라고 말했단다. 그럼 그게 고깃국이지 순대국일까 싶은데, 삼덕집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왜 순대가 도태됐는지 이해된다.

또 다른 이유는 삼덕집은 삼덕제지 공장이 들어서면서 먼지 많은 종이공장 노동자들의 허기를 채워줬다. 제지공장 노동자들에게엔 당면이 들어간 순대보다 고기 한 점이 더 아쉬웠을 것이다. 따라서 삼덕집 순대국에는 내장, 머리고기, 토실한 오소리감투가 잔뜩 들어 있다.

이 집 순댓국밥을 한 수저 뜨면 밥알이 잘 안 걸린다. 밥보다 고기가 훨씬 더 많다. 하루 종일 우려낸 국물은 잡내 없이 부드럽다. 반찬으로 풋고추, 마늘, 된장, 깍두기, 배추김치, 고추를 썰어 넣은 새우젓이 나온다.

주방 아주머니들의 말투는 투박하지만, 인심은 순대국 속에 가득 들어 있다. 그릇이 넘칠 만큼 푸짐하다.

## 한국 최대 규모 몸보신 회관, 대교보신탕

안양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을 꼽으라면 어디를 지목할까. 안양사람뿐 아니라 타지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곳이 바로 안양 대교보신탕이 아닐까. 1969년에 문을 열었으니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우스개로 안양에서 대교보신탕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다.

대부분의 보신탕집들은 허름하거나 산골, 골짜기, 유원지의 주막 분위기인 것과 달리 대교보신탕은 우선 규모부터가 다르다. 위치야 예전 안양천변 그 자리에 있지만 15평 규모였던 식당은 수도권 주민에게 사랑받는 전국 최대 규모의 초대형 보신 전용회관으로 변모했다.

자고로 동사나 명사는 말할 것도 형용사 문장에도 ‘개’라는 한 글자면 갖다 붙이면 요상하게 바뀐다. 개소리, 개지랄, 개꿈, 개털, 개판, 개놈, 개년, 개새끼, 개밥, 개망신에, 개탕이다, 개발로 쓴 글씨, 개 같은 생각, 개 같은 잠버릇, 개 같은 술버릇, 개 같은 인생 등 끝이 없다.

하지만 개고기는 예나 지금이나 전통적으로 몸보신에 최고로 여겨져 사시사철 즐겨 찾는 음식으로 보신탕으로 불리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교식당에 들어서면 벽면에 부모님의 뒤를 이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장수민, 장수



명 형제 CEO의 인사말과 함께 40여 년간의 연혁을 적은 글 게시판이 걸려 있다.

그중에는 어두운 역사도 있다. 1981년 7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시설상을 받은 다음 달인 1981년 8월 13일 프로판가스 폭발 사고도 발생해 당시 밤 10시 반에 터져서 10명이 사망하고 38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사람 많은 낮에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이 사고로 대교보신탕은 쫓짝 망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1981년 가스업자가 실행을 받고, 1982년 4월 다시 개업을 했지만 1987년에는 88올림픽을 앞두고 보신탕이 혐오식품으로 철퇴를 맞으면서 식당을 안산으로 넘어가는 수암면으로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하지만 대교보신탕의 맛을 인정한 맛객들은 안산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치 않으며 발길이 줄을 이으며 성황을 이루었다. 이후 대교보신탕은 1990년 다시 현재의 장소로 복귀했으며 1992년까지 보상금과 합의금 지급을 마무리할 정도로 보신탕은 부를 가져다주었다.

이 집의 메뉴도 세월의 변화와 함께 많은 변화가 있다. 옛날에는 수육을 주문하면 주인장의 단골 여부에 따라 알아서 부위를 내주었지만 지금은 배부분, 갈빗살, 목살 수육전골, 수육무침 등 세분화돼 나오고 단품으로 전골과 장수탕과 장수왕탕이 있고 삼계탕도 있다.

1980년대 중반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일할 때 서말가리다 독일수녀님이 이 집을 즐겨 찾았다. 당시 주인장은 외국인이 그것도 여성이 보신탕을 먹는 것이 신기해 반갑게 맞아주었다.

1980년 중반 독일에서 근로자회관을 방문했던 한 외국인은 보신탕을 맛보고 싶다고 해서 출국하기 전 보신탕을 맛보고는 맛있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당시 외국에서는 88올림픽을 앞두고 혐오식품을 먹는 한국에 대한 비판이 일어날 때라는 점에서 맛으로 판정하곤 격이다.

대교식당의 보신탕 맛은 일단 깔끔하다. 프랜차이즈라는 틀로 같은 맛을 내놓아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독창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단점도 될 수 있다. 탕을 잘하거나 맛있다는 음식점 대부분의 기본 찬이 무언가 남다른 것처럼 대교식당의 김치와 깍두기 맛도 상당하다.

장수명 대표이사는 “보신탕은 국제적으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기호 식품이고, 보양식으로의 효능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보신음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장 사장은 “앞으로 3세들에게 가업을 물려주어 튼실하게 뿌리내리고 싶은 게 꿈이다”고 말해 안양에서도 1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교보신탕은 현재 마치 대형 공장 건물을 연상시키고 아마 전국 최대 매출의 식당일

것이다. 상호도 대교보신탕에서 장수명가로 바뀌었고, 2002년부터 프랜차이즈에 나서면서 군포(2003년)와 부천(2005년)에 분점을 내는 등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 삼계탕의 대명사, 안양 백제삼계탕



백제삼계탕(안양일번가)

음식점을 오래 운영하려면 손님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손님이 끊이지 않으려면 당연히 맛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래된 집중에서 최소한 맛없는 집은 없다.

안양에서 삼계탕 하면 백제삼계탕이다. 1965년 개업했으니 35년을 넘는 역사로 연륜이 오래도 됐지만 맛도 평범한 수준을 넘어 지역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정도로 삼계탕 하나

로 부동의 명성과 부를 쌓은 집이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3 전 화 : 031-449-3279)

백제삼계탕은 처음에 안양역 앞 안양1번가 골목길에서 하다가 평촌신도시가 들어선 이후인 1980년 중반 평촌 자유공원 정문 길 건너편 갈산동 골목(덕현초교 정문 앞)에 직영점을 냈다. 또 최근에는 산본에 분점을 내 안양 1번가 본점, 평촌과 산본은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손님은 평촌 직영점이 일번가 본점보다도 더 많다. 특히 삼계탕은 인삼, 대추, 찹쌀 등 몸에 좋은 것들과 함께 요리하여 더욱 영양가가 풍부하기 때문에 복날에는 번호표를 받고 1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주말과 평일 점심에도 밖에서 일 이십 분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다.

이 집 삼계탕의 특징은 육질도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한 국물이 아주 맛있고 뒤끝도 깔끔하다. 유명한 탕 집에는 맛있는 깍두기가 있다는 말처럼 이 집의 깍두기는 큼지막한 것이 아삭아삭하게 씹히면서 맛있다. 삼계탕을 나오면 더불어 어울리는 인삼주도 한잔 나온다.

또 단골손님에게는 양념으로 볶은 닭모래집도 살짝 갖다 주기도 한다, 물론 메뉴에 있다.

최근에는 산본에도 또 하나 분점을 차려 지금은 안양 1번가는 본점, 평촌과 산본은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 분은 그래도 일번가 본점이 더 낫다고 평가를 내리던데 지난주 일번가에서 오늘은 평촌에서 식사를 했지만 내 입맛으로는 큰 차이를 모르겠다.

다만 평촌점이 지하실까지 있어 면적도 넓고 자리도 많지만 손님이 많아 빨리 먹어



야 할 정도로 쫓기는 분위기인 반면 일반가점은 자그마하지만 맛을 즐길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상호가 상표등록소송 때문에 백년지기삼계탕으로 바뀌었지만 예전부터 이 집을 드나들던 이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백계삼계탕으로 기억하고 있으니 이름의 기억은 참 중요하다.

## 남부시장의 투박한 사랑방, 남부정육점

1969년 개설한 남부시장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남부정육점. 통칭 남부고기집으로 불리는 이 식당은 안양 일번가 동서연결지하차도 옆 제일교회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남부정육점(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22) 간판이 보인다.

남부정육점은 고 이강순 할머니가 창업해 운영해 오다가 1998년 작고한 이후에는 아들인 이명래씨와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다. 꾸준히 손님이 늘자 1992년 맞은편에 공간을 확장했으며, 최근에는 관양동 먹자골목에 분점을 냈는데 이곳 역시 손님들로 넘친다는 소식이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못하다고 한다. 실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에는 저녁시간이나 금요일에는 자리가 없었으며, 비닐봉지에 신발을 들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남부정육점은 시끌시끌한 것이 마치 장터 주막을 연상케 한다. 그만큼 많은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1인분씩이 아니라 600g 정량을 값싸게 팔기에 매니아도 생길 정도로 알려진 곳으로 안양에서 이토록 오랜 기간 사랑을 받는 곳을 찾기도 사실상 어렵지요.

남부고기집의 매력은 한우와 한 돈을 싸게 먹을 수 있고, 날이 더워도 맛있는 육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상추, 고추, 버섯, 마늘, 국물, 김치 등등 달라면 계속 주는 것도 편안하다.

처음 고기를 주문하면 투박한 철판 위에 비계를 올려놓고 기름을 낸다. 그리고 대충 썰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고기를 내준다. 조금 투박한 느낌이 나지만 얇게 자른 것보다 고



남부정육점

기 맛을 제대로 느끼기에 좋다. 무엇보다 고기를 다 먹고 난 후 남은 고기와 매콤한 김치와 마늘과 몽땅 함께 넣어 참기름으로 볶고 김가루를 얹은 볶음밥은 최고의 술안주가 아닐까 싶다.

밑반찬은 몇 가지 안돼 소박하고, 의자도 불편하다. 하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 무엇보다 20여 년 주방실장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고기를 썰어 주고, 40대 아주머니들이 이제 60-70대 할머니들이 되었지만 오랜만에 찾아간 단골손님을 기억하고 환한 미소로 ‘왜 이리 오랜만에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남부고기집을 찾아가면 꼭 맛을 보고자 하는 것이 육회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계란 노른자 한 알을 비벼 내놓는 그 맛을 잊지 못할까. 아마도 할머니들의 손맛 때문이 아닐까 싶다.

## 팝송과 DJ의 음악다방과 레스토랑

1970년대는 통기타, 장발, 나팔바지와 함께 LP음악을 들려주었던 DJ가 인기를 누리던 음악다방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다방의 추억이 유별났던 곳은 단지 차만 팔고 약속장소만이 아니라 그 시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문화공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뽕얀 담배 연기로 가득한 다방은 유리창 속에 앉아 스피커를 통해 전해지는 ‘DJ’ 목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카펜터스와 아바, 스모키 등의 팝송과 때로는 신나는 디스코 장단에 흥겨워하는 모습은 지난 70년대를 거쳐 80년대 중반까지 자리했던 ‘음악다방’ 속의 한 풍경이다.

음악다방의 얼굴마담은 단연 DJ였다. 유리창 너머 뮤직박스 속의 DJ들은 왜 그리도 멋지고 경외롭던지 그 시절 젊은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화려해 보이는 DJ를 꿈꾸기도 했다.

당시 음악다방에는 정중앙 또는 한쪽 벽면에 유치 칸막이로 되어 있는 DJ석이 있었고, 두 개의 턴테이블이 연신 돌아가며 신청곡들을 들려주었다. 업주의 취향에 따라 음악 분위기가 달랐지만 당시 음악다방의 DJ는 연출가이며 진행자이자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1976년도 다방 커피 값은 100원인가 120원인가 했다. 물론 쓰디쓴 원두커피만 있었던 것으로 아니다. 홍차에 계란반숙에 지금 같으면 먹지도 않을 싸구려 위스키도 판매했다. 단골손님이 아침에 들리면 노른자를 살짝 띄운 모닝커피가 나오고, 맥주도 팔았던 시절이다.

당시 인기 DJ 유치 경쟁도 치열했다. 수많은 LP판 속에서 신청곡이 들어있는 레코드



판을 찾아 달콤하고 때로는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멘트를 날리니 여성 고객들이 인기 DJ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당연지사 일 정도로 당시 DJ의 인기는 요즘 아이돌 부럽지 않았다.

신청곡을 꼭 듣고자 다방에서 내주는 종이 대신 집에서 가져간 고운 꽃종이에 신청곡과 들려줄 사연을 적어내기도 하고,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다방을 기웃거리다 슬그머니 DJ 신청곡 쪽지를 넘겨주는 창구 앞에 놓고 나가는 소녀팬들의 모습도 있던 기억이 나는 그때다.

DJ는 단골손님이 오거나 마음에 드는 여성 손님이 다방에 들어서면 자리에 앉고 차를 주문도 하기 전에 그 손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과 닭살 멘트를 날리기도 했던 여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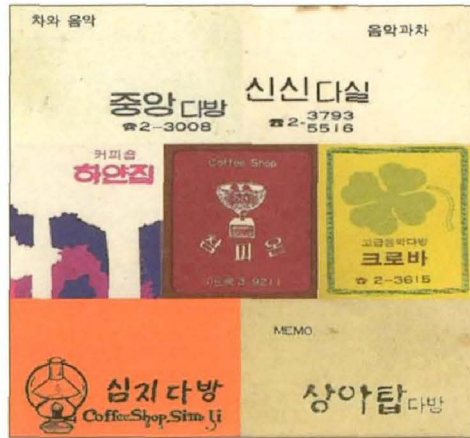
안양 토박이들이 기억하는 다방의 역사를 보면 가장 오래된 다방으로 1950년대쯤으로 기억한다. 안양1동 구도로에서 비산동 당시 구 시장으로 넘어가는 땡땡땡 건널목(현재 육교)을 건너기 전 우측에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적산가옥이었던 2층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는 구 시장(안양시장)과 새 시장(중앙시장)이 혼재하던 시기였는데 안양시장(구 시장)은 우시장에 대장간도 있었고, 엄청나게 규모가 컸던 쌀 창고에 버스가 지나가던 길목이라 지역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무렵이라 광창라사, 유화사, 이발관, 중국집 등 상점들이 즐비했다.

1960년대 초 필자도 구 시장 근처 시대동에 살았다. 부친께서 철길 건너에서 잡화상을 하셨고, 외갓집이 땡땡땡 건널목 옆에 있어 나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다방 누나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으며 당시로써는 매우 귀했던 우유와 계란 반숙을 얻어먹곤 하던 기억이 생각난다.



1980년대 레스토랑 성냥들



1980년대 다방 성냥들



당시의 또 다른 다방으로는 정 다방이 있었는데 언제 문을 열었는지 시기는 정확지 않다.

다방은 1970년대 접어들어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여주인이 운영하며 어른들이 드나 들었던 속칭 노땅 다방과 젊은이들이 드나드는 새로운 유형의 음악다방으로 나누어진다.

음악다방의 원조는 중앙다방과 신신다방이다. 신신다방은 안양4동 중앙시장 입구 오른쪽에 건물 지하에 중앙다방은 도로 쪽 건물 2층에 있었는데 이곳은 LP레코드판이 벽면을 꽉 채우고 인기 DJ로 경쟁이 치열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 레코드판이 많은가도 관심거리였다.

삼원극장(현 CGV) 지하에 있던 삼원다방은 극장 데이트를 앞둔 연인들의 약속장소였고, 지하에 있던 동굴다방은 실내를 진짜 동굴같이 꾸며놓았다. 80년대 생겨난 상아탑 다방에서는 지금 MBC라디오 MC로 일하는 강석 씨가 DJ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다.

안양 시내에서 젊은이들이 갈 곳은 음악다방밖에는 마땅한 곳이 없던 시절이라 낮이고 저녁이고 근처를 빙빙 돌다 보면 마주친 친구를 한두 번 다시 만나기는 예사였다. 지금처럼 핸드폰은 커녕 집 전화조차 백색전화는 거금을 주고도 못 살 정도였으니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안양 음악다방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이는 안양초등학교 41회 졸업생인 김종우(52) 씨다. 그는 다방의 이름이 새겨진 성냥갑들을 아직도 갖고 있어 그의 블로그에 올려놓을 정도다.

그가 기억하는 음악다방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1070년 다방은 주로 중앙시장 입구 쪽과 길 건너편 안양 1번가 중앙통 골목길 양쪽에 밀집되어 있었다. 중앙시장 쪽에는 신신다방, 중앙다방, 약속다방, 삼원다방, 보리수다방이 있었다면 1번가 쪽에는 동굴다방, 신도다방, 금성다방, 동산다방, 전원다방, 원다방, 태양다방, 심지다방, 까치다방 등이 있었다. 또 공작, 코스모스, 청궁, 태양(SUN), 초원다방 등도 있다.

당시 다방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이자 맞선을 보던 곳이기도 했다. 비산동 운동장 앞 대관령 식당의 여주인은 “1970년 안양역 앞의 초원다방에서 선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말한다.

1980년 이후 안양 시내 다방업계는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그 이름도 유명했던 상아탑 다방이 안양 1번가 입구 쪽 건물 2층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개업했기 때문이다. 상아탑 다방은 넓은 실내와 최신 실내 장식, 기존의 다방들과는 차별화된 깨끗한 분위기로 칙칙한 다방 분위기에 식상했던 젊은이들을 하나둘씩 불러 모으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안양의 대표적인 다방의 대명사로 등극하게 된다.

개업 초기에는 음악실에서 강석이라는 DJ가 최고의 인기 DJ로 많은 손님들을 몰고 다녔는데 지금은 MBC방송국의 유명한 MC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상아탑다방 건너편 건물 2층에도 다방이 개업을 하는데 현대다방이다. 지금 생각하면 개업을 한 상아탑다방이나 현대다방의 시설이나 분위기가 그다지 썩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의 욕구는 누가 뭐래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상아탑 다방과 현대다방이 개업한 후에도 계속해서 분수다방, 참피온다방, 크로바다방이 개업을 하는데 다방 상권이 완전히 1번가 쪽으로 넘어오면서 중앙시장 쪽의 다방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된다. 이후에도 안양의 다방 전성기는 4~5년간 계속되는데 1985년 이후에는 그토록 번성했었던 다방사업도 서서히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이름도 고상한 COFFEE SHOP이 하나 둘 씩 생기면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는 손님들이 생겨나고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하더니 시내의 다방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거나 COFFEE SHOP이라는 간판으로 상호를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 다방에서 DJ를 채용하여 음악실을 관리했는데 당시 안양에도 유선방송국이 생기면서 약간의 유선비를 지불하면 하루종일 음악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에 고임금을 받던 DJ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도 음악다방이 사라진 계기라 할 수 있다.

김종우 씨가 기억하는 안양의 마지막 음악다방은 안양 1번가 중심가에 위치했던 클로버(CLOVER) 다방이다. 그는 1988년 폐업한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명 다방 등 시내중심가에 다방들이 계속 운영을 해왔지만 예전의 그런 다방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후에 COFFEE SHOP은 성공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 HAMBURGER에 밀리고 PIZZA에 치이고 빵집에 꼬집히고, 수많은 FAST FOOD에 두들겨 맞더니 현재는 온갖 먹을거리를 다 파는 MULTI SHOP과 수입 BRAND COFFEE 별 다방, 콩 다방에 밀려나 신세다.

김종우 씨는 “30년 전의 아련한 다방의 기억과 추억은 여전히 설레게 한다”며 “한 시대 젊은이들의 해방구 역할과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도 되었을 만한 시기에 사라졌다”면서 음악다방의 사양길을 기억하며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이렇듯 70-80년대 음악다방은 하나의 문화이자 ‘추억’이었다. 신청하던 노래와 사연에 당시의 암울했던 시대가 녹아있고 그 시절 연애, 청춘, 그리움 등 향수가 녹아있으니 말

이다. 최근 가요계에 불고 있는 복고 열풍 속에 세시봉이 주가를 날리는 것처럼 DJ가 신청곡을 LP레코드판을 틀어주는 음악다방이 부활하고 있다.

경기 남부권에서의 원조는 안양예술공원에 자리한 ‘세월이 가면(석수1동 831, 2층)’이다. 지난 2006년 카페 주인이 소장한 LP판 2만여 장으로 시작했는데 80년대 안양 1번가 ‘동굴다방’, ‘상아탑다방’ 등에서 DJ를 했던 성시훈이 뮤직박스에 앉아 손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해준다.

카펜터스와 아바, 스모키 등 올드 팝송이 자주 들리는 이곳에서는 영화 ‘여고시절’의 빛바랜 포스터, 줄이 끊긴 통기타, 낡은 교복 등을 보면서 옛 시절을 추억할 수 있다.

### 끼 있는 이들의 사랑방, 곧망할

“우린 망한다는 확신 아래 여기 작은 꿈을 이름 하여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만 혼란스러운 것이라는 이론으로 출입구를 냅니다.”(곧망할 카페 전단지)

1978년 5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부림상호신용금고 앞 중앙시장 골목길 안쪽 건물 지하에 요상한 상호를 내건 카페가 문을 열었다. 이름은 ‘Gote manghale’(곧 망할)이다.

이 카페의 주인장은 하늘새 조각가로 잘 알려진 이강식 선생과 당시 안양에서 활동하던 연극인 윤고성 씨가 손을 맞잡았다.

곧망할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2번째로 생긴 소극장이자 갤러리 겸 카페였다. 당시로선 이색적으로 실내를 2층으로 꾸미고 미술소품 인테리어로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공연과 연극이 열리는 등 꽤나 분위기 있는 카페로 입소문이 나면서 끼 있는 사람들의 아지트였다.

특히 유신의 몰락과 계엄령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곳을 해방구로 삼았다. 지금은 중견이 된 예술인, 연극인, 연출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79년 당시로써는 보기가 쉽지 않았던 연극공연 ‘정복되지 않는 여자’는 연장공연까지 하는 히트작이 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곧망할’이라는 가게이름 때문에 체제전복을 노리는 불온분자의 아지트로 의혹을 사면서 간판을 내리고 고전음악감상실 대합실로 상호가 바뀌고 만다. 이 과정에서 이강식 작가는 경찰서 보안과에 불려다니는 고초를 겪은 것은 물론이다.

또 대합실에 사람들이 북적여 돈이 될 듯 보이자 이곳에 눈독을 들인 집주인이 임대



비용을 엄청나게 인상해 결국 곧망할은 주인에게 자리를 내주고 안양 1번가에 위치한 3층 건물 지하(현 라이브 세시봉)로 옮겨와 고전음악감상실 ‘대합실’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한다.

카페 ‘곧망할’과 ‘대합실’이 주목받는 이유는 안양지역을 기반으로 문화공동체를 이루려 했던 의미 있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대부분의 다방이 음악다방으로 팝송을 주로 들려주던 시절 고전음악을 틀어대고, 은은한 조명이 켜지는 박공예 조각공방까지 대합실은 징역문화 운동의 거점이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지난 2000년 문을 닫고 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합실이 있던 자리에 커피집 ‘샤갈의 눈내리는 마을’이 들어섰다가 지금은 세시봉으로 바뀌며 문화의 맥을 잇고 있으니 위안이 아닐까 싶다. (이 집 주인 장인 김청래 사장은 1970년대 안양1동사무소 옆 여관건물 2층에 ‘짜즈’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 최초의 카페, 길모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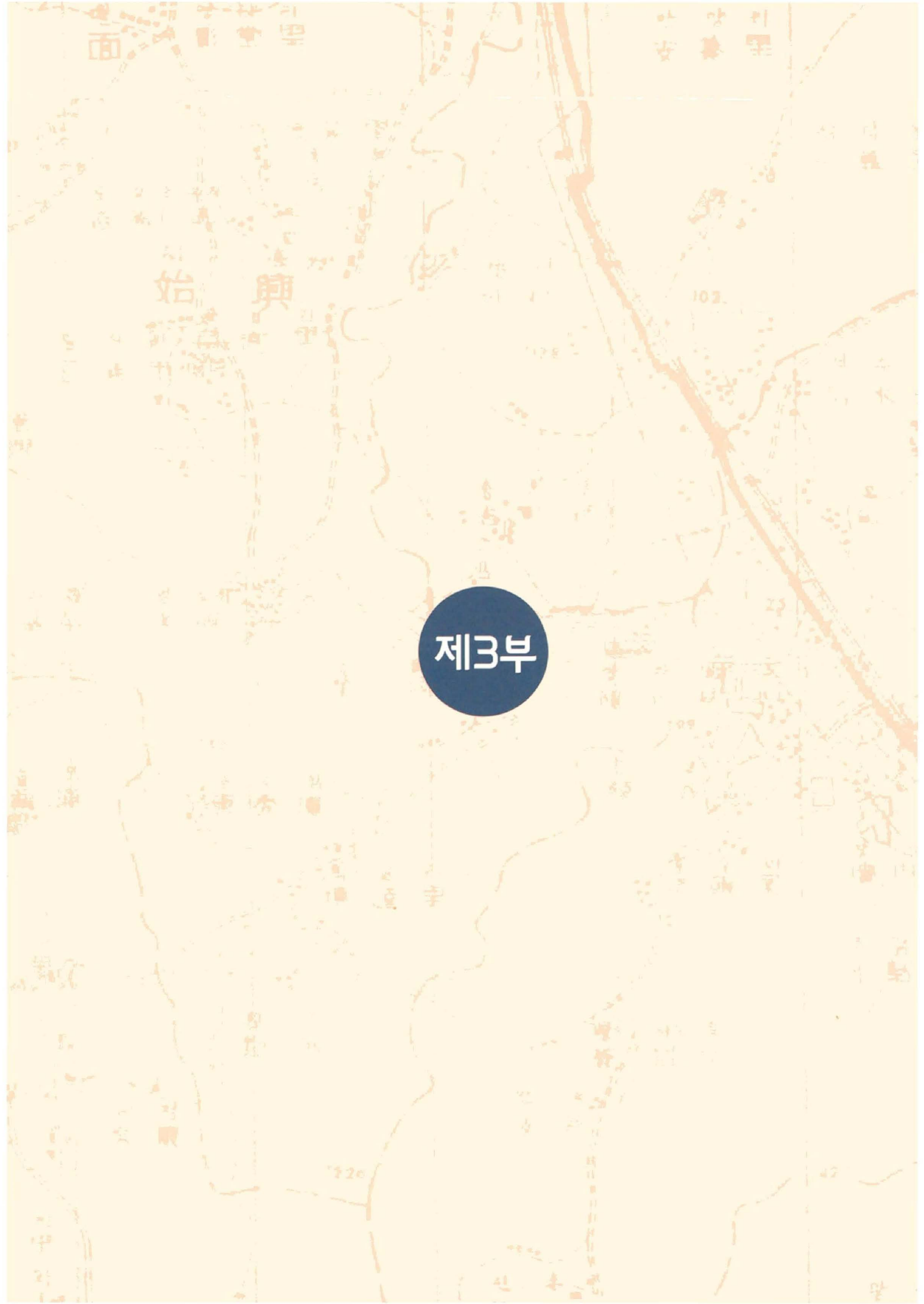
1970년대 안양에서 카페란 명칭을 사용한 곳은 안양1동 CGV 옆 기찻길 골목 2층에 있던 길모퉁이카페가 아닐까 싶다. K연구소에 다니는 남편을 둔 서른 살을 갓 넘은 예쁜 누나가 커피와 함께 진토닉 등 칵테일과 위스키 등을 팔던 가게였다.

지금은 50대 중반이 된 친구들이 겨울에는 난롯불을 쬐며 노닥거리며 암울했던 현실을 고민하고 LP음반을 뒤적거리며 ‘까라마드르 조르쥬(길모퉁이 카페의 작가)’를 이야기했다.

당시 청년들의 주머니가 허전하던 때여서 주인 누나가 공짜로 주는 따끈한 커피와 술 한잔에 고마워하고 푹푹하고 넉넉한 쓰임새에 감동하며 간혹 안양9동 채석장에서 돌을 채취한 화물열차가 지나치기라도 하면 도로에 멈춰 기나긴 차량들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였다.

# 여백





제3부



# 안양의 삶을 읽다



# 여백

# 구술생애사



## 서민의 애환이 서린 삶의 터, 중앙시장 중앙시장번영회 회장 장용준

예전부터 동네의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사는 곳, 재래시장 채소 과일을 팔고 사는 새벽 도매시장이 끝나면 만인만색의 사람으로 채워진 생활공간이 된다 국적 불명의 떠리 떠리 라는 외침과 고등어 사세요 라는 가냘프고 수줍은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콩나물 한 줍에 실랑이를 버리면서 삶의 호흡을 맞추던 곳이 재래시장이다

안양 중앙로를 기준으로 안양1번가 상권 맞은 편에는 중앙시장 상권이 있다 이곳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속한다 1926년 안양시장이 개설되며 1940년대 안양장과 1960년대 안양우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60년 9월 화재로 11월 안양4동에 안양공설시장이 개설되었다 그 후 1970년대 상설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안양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중앙시장은 재래시장 중심의 상권으로서 식품 및 생필품 위주의 도소매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곱창 골목 등을 포함한 한식점들과 포장마차식 주점들이 분포하여 상권 뒤편에는 미용과 댄스, 스포츠 학원들이 입점해 있다 유동인구는 40-50대 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시장은 도심 재래시장이다 도시가 규모를 늘리기 전부터 있던 시장이다 아니 도시의 성장과 함께 시장의 규모도 커졌다 중앙로가 건설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으니 도로가 시장을 잉태한 셈이다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일명 '목이 좋은 자리'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 형성된다 시장 길거리에서 상점과 물건, 사람이 만난다 시장은 북적이는 사람들과 다양한 상품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 1970년도에 안양과 인연을 맺다

용인에서 20살까지 있었고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교에 다녔어요 자취도 하고 친척 집에 서도 있고 내가 온 지가 70년도이지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 안양에 대한 건 잘 모르고 내가 온 후부터 그 이전은 70년 이전의 문제는 내가 잘 모르고 이 건물이 61년도에 지어졌던 거예요 이 건물의 전신이

### 흐르는 물처럼 안양에 터를 이루다



1972년 중앙시장 노점장사

(생각에 젖으신 듯)어찌하다 보니 주위 사람들  
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됐고 장사하러 다니다가 70년  
도에 여기 오게 됐지

처음에는 내복 메리야스 이런 거부터 시작했  
어 고생했지 인생이라는 자체가 고생인데 대통령도  
고생했고 부잣집 자식들도 고생을 했고, 고시생도 고  
생을 했지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유학 갔다 오면 더

고생이고 이거 다 고생하는 거지

중앙시장에서 물 흐르 듯이 들어와 자리 잡은 그는 20년 동안의 노점장사를 밑천으로  
행복한 살림을 꾸렸다

결혼은 34살에 했어 89년도에 20년 동안 노점하고 조금씩 저축하고 가게를 샀어 한 20  
년 걸렸지 애들 셋을 다 가르치고 결혼은 경제랑 연결되는 거지 살기 힘들면 결혼이 늦어지고  
여기(중앙시장) 일하면서 만난 아가씨와 결혼했지

## 안양에 왔을 당시의 상황은

70년도니까 시로 승격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시장에는 두 건물만 서 있고 또 이게 시  
장이니까 여기 옆에는 전부 다 주거지역이었지 그래서 이게 족보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지  
또 허가도 안 됐고 다시 또 허가를 못 내죠

## 안양에 시장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지

이게 장사가 잘되고 이 주위에 안양시의 시장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 당시에  
지금의 평촌 동안구 거기 같은 데는 전부 다 논밭이었으니까 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 큰



1970년대 평촌 모습

거리의 반경 거의 4km<sup>2</sup> 여기서 과전 사람들 전부 여기  
로 왔어요 시흥군도 넓지만 그때는 여기가 장사가 잘  
됐어요 주변에 주택가는 많지 않았지 근데 여기가 활  
성화되면서 도시집중화가 되기 시작했어

71년도에 안양시로 승격됐어 그때 7만 이상이  
니까 (시 승격 기준이) 시가 18만인가? 이게 아무튼 인



구가 시로 승격됐는데, 시장이 이거밖에 없고 다른데 허가 내주지도 않고 장사에 대한 건 그렇게 평가 안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했거든 그러니까 장사가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갔어

## 그땐 1층 건물에 상점이 100개가 넘었어

그때 당시 1층 건물이었는데 가건물이야 아마 그때도 한 100개(상점)가 넘었을 거야  
그때 물건들은 공산품이지 식생활 식품 같은 거는 자급자족이 다 됐잖아 지금 하고 반  
대야 농사 잘되지 고구마 가져와서 다른 거 바꿔가고

그러면서 장용준 회장은 당시 장사 중에 가장 잘 된 장사는 옷 장사라고 한다

입는 게 최고지 옷 장사가 최고지 우리 어렸을 적에는 양말 하나 애들 것이 기본이야  
더 올 돈도 없지만, 지금은 양말이 패션이지만

옷이 공산품이니까 옷하고 한복 포복이지(잘 됐지)

포복 같은 것이 90년대 초까지 아무래도 중간서부터 많이 쇠약해지고 포복 쪽은 여기 3  
분의 1도 안 남았지 옷도 그래 지금은 먹는 것 그계 재래시장이 지금 거의 요기 시장 안에 18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재래시장의 주종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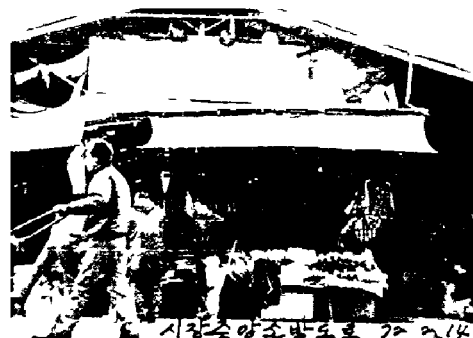
## 당시 시장 모습이

처음에 가건물 두 개가 있었어 가건물이 지붕은 스텔고 기둥을 나무로 하고 가운데를  
시멘트로 했지 꼭대기만 이렇게(지붕) 이어가지고 가건물은 아닌데, 실제 건물을 지을 때 허술  
하여서 다 쭉기도 하고 그랬어 2003년에 저쪽 건물을 헐어서 우리가 지을 때 (지붕에) 올라가  
면 버석버석했어 그래서 허가받고 다시 짝 개축했어

82년도에 헐어가지고 새로 짓고 요거(현 번영회 상가)는 신축을 못 하고 돈 줄 거니까  
그냥 있다가 DJ정권 때 재래시장특별법이 만들  
어져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축을 했어요 옛날  
금방 쓰러질 것 같던 것을 다시 재건축했어

## 버스 타고 서울 가서 물건 떼다 팔았지

내가 70년에 와가지고 그 당시 여기서 런



1972년대 중앙시장 건물



1972년대 중앙시장 골목

닝서즈라고 속에 팔 없는 것도 있고 팔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팔았지 그때는 저기 서울의 신설동에 가면 섬유공업이 가내공업이 엄청 발달됐어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경화시장이 도매시장이지 그당시 가내공업으로 해서 그당시 브랜드 원가가 250원이면 (소매가) 500원 800원 이래 런닝 하나에 3분에 1 가격도 안 되니 거기서 떠다 팔았지

그당시 서운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어 새벽에 전능동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서울운동장 앞에 가서 내렸지 (버스에) 자장들이 있었는데 손님이 많으면 안태워주고 오라이 하고 그랬지 어떤 아가씨들은 잘 태워줬는데 눈지껏 해가지고 타지 어떤 때는 바쁘니까 타려고 하면 보따리까지 있어 자장이 (사람들이) 못 앉는다고 보따리 있어서 못 타고 두세대 지난 다음에 타고 그랬지 (승차시간이)한 시간 넘게 걸렸어

그렇게 한 이십 년을 장사했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약아지니까 여기서 봉고차를 가지고 (운전) 그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 여러 명 모아서 몇 시에 출발한다 하면 각자 n분의 1로 나눠서 (서울로) 다녔지 그 후로는 개별적으로 승용차 한 대씩으로 다녔지

지금은 80-90%로 거의 메이커 같은 것이 많지만 그때는 없었지 가내공업 운영하는 것도 많고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을 주로 이용했지 경화시장 그쪽으로 가면 주로 메리야스가 있었지

중앙시장 옷장사는 서울행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직접 물건을 띠며 장사를 했다

## 월급날이면 물건이 바닥이나

주변에 공장이 많이 있었어 금성방직이니 경춘에 동양나일론도 있고 하여튼 거기에 공원(工員)이 엄청 많았지 공원들이 월급 받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 28일 받는 데가 있고 25일 받는 데가 있고, 18일 받는 데가 있고 한 달에 서너 번에 세 번인가? 네 번 월급 받는 날은 되근 할 때쯤 되면 8시나 9시쯤 된 거 같은데 이 위에 있으면 저기서부터 걸어서 시장에 물건 사러 오는데 표현하자면 개미떼마냥 새카맣게 보여 그리고 메뚜기떼가 와서 짹 굽어먹고 가는 것 마냥 물건이 바닥이나 월급 받는 날이면 물건을 많이 가져다 놔지 한 여덟 시 되면 몰려오기 시작해서 새카맣게 몰려든다고 개미떼같이

그때 재미있었어 한 달만 장사해도 송아지 한 마리가 떨어졌어 그때 송아지면 까지 그런데 그때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월급을 받으면 2만 원서부터 3만 원 한 2만 원 받았을 거야



그 당시 송아지 한 마리면 15만 원이야

유난히 대규모 공장이 많았던 안양에는 여공도 많았다 월급날이면 여공들이 개미떼 처럼 시장을 점령했다

## 리어카로 시작했지

리어카로(노점) 장사를 시작했지 그때 노점도 많지 않았어 단속도 심했고 점포로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이 되고 점포가게가 이런 메리야스니 뭐 이런 것들은 점포에서는 덜 팔고 가게 노점에서 많이 팔았지 (당시 사람들이) 돈도 아껴 써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싼 것) 많이 샀지

안양에는 외지인이 유독 많았다 그래도 그들은 이것저것 하면서 먹고살 수 있었다

60년대 4 19, 5 16 쉼고 (일을) 여러 가지 했지 70년대 4 19 후 나고 5 19 터지고 박정희 정권이 두 번째 정권을 접고 이미 정책적인 기초가 현대사회로 진입하여 상업화, 도시집중화가 되면서 시골에서 사람들이 올라왔고, 조금 배웠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했고, 공장에도 못 가고 직장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장사했지 그때는 맨 밑바닥 사람들 지금은 뭐 그런 게 세상이 바뀌었지만 당시 거의 안양사람보다 외지사람이 70-80%로 봤을걸

나도 장사하기 이전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8남매 장남인데 돈은 벌어야 했고 그까짓 거 데모해야 아무 소용없는 거고 시장이란 시장은 안 가본 데가 없어 장사를 하면서 그게 하나의 인프라가 형성됐지 장사하면서 많은 경험이 바탕이 됐지 평택 오산 인천, 수원시장 안 간 데가 없어

오일장도 있고 시골에는 상설시장도 있고 여기는 상설시장이라 항상 열리고 여기(중앙시장) 정도는 수도권에다 거의 상설시장이지

그때 포복이 잘 됐어 한복 안감이 잘 팔렸어 안감을 서울서 받아가지고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했지 내가 버스 타고 가져와서 팔고 저녁에 수금을 가고 그러면, 빨



1972년대 중앙시장 리어카(손수레)

리 수금을 해야 하는데 9시 10시나 돼야 문을 닫아요 그때는 그래 11시는 보통이고, 추석 때 명절 때는 새벽 3시까지 밤새서 하고, 그러면 명절 때는 대목에 삼일 정도 장사가 잘돼 삼일 정도 장사하면 가게에 물건이 거의 없지

나는 의류장사니까 많이 팔래야 팔 수가 없고 서울 가면 기껏 해봐야 이만 원 삼만 원이지 그것만 팔아도 큰 거지 저녁에 수금을 하고 나면 돌아갈 자비도 없을 때가 있었어 밥사 먹 올라려니까 돈이 아깝고 배는 고프고, 여기 큰길 옆에 막걸리 향아리를 묻어놓고 막걸리 바가지 하나 놓고 떠먹는데(무인가게) 200원이야 도매하는 사람들이니까 200원 신경도 안 써 그 당시만 해도 술 마음대로 못하게 했으니까 시골에서 농사지으면 힘든 일 하나까 한 말두 말사가야 돼 그땐 원양조장이 있고 중간도매를 그렇게 했어요 끝나는 건 7시에 끝나는데 그제(막걸리) 한 바가지 먹으면 배가 부르고 안주도 없이 소금 탁 찍어 먹고 배가 부르면 쥐했다가 한 두 시간 지나면 더 배고프지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이 상당히 인생에 자기를 살찌게 해 고생 없으면 인생의 참맛이 없어 요즘은 일부러 사서 극기 훈련한다는데 그건 사지지 없어서 고생해야지 진짜 고생이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안 나 진짜 없어가지고 저절로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 양식이 되지 않지 배가 아파서 막말로 팔명수 한잔 못사 먹었어 아까워서 막자가 12시까지 있었고 통행금지가 있었지

한 9시, 10시 30분 끝나면 버스를 못 타게 되면 그냥(수금 못하고) 가야지

## 재래시장의 길을 찾다

나는 의류업이니까 셋째 일요일 날 쉬는 날이야

이제 재래시장이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1996년도 뭐야 그 세계 유통 시장개방 아냐? WTO 우리나라 유통업 개방을 시키라 그래 가지고 우루과이 협정이라고 시장을 열으라고 하니까 열수밖에 없었어 외국의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침체됐지

1999년 중소기업 활성화 뒤에 재래시장 발전시키겠다는 법이 만들어졌어 앞에 (아케이드) 이거 띄워주고 (지금) 노점이 꼭 잔 걸 갈(자) 길이 없어 재래시장 중에서 골목시장의 운명이라는 게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50-60%가 이러한 운명에 꿈쩍을 못하고 우리 건물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 옛날에는 조그만 가게도 장사가 됐는데 요즘은 조그



만 가게는 장사가 안돼 소프트웨어 정신교육, 6시내고향도 나가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재래시장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재래시장하고 일반 유통 마트하고 싸움이야 지금은 SSM이 재래시장 500m 안에 못하게 싸우고 입법화시켜놨는데, 그 체계나 지시가 우리는 전부 다 개개인이 하잖아, 그래서 힘들지

90년대 들어와서 시장(일)에 조금 잠깐하기 시작했지 장사하면서 힘든 거 많이 하고 싸우기도 해요 시정에도 가야 되고 전국상인연합회가 있어서 재래시장 대표들 워크숍을 일년에 두 번 참가하고, 내년이 임기가 끝인데 2000년대 들어서 많이 힘들었지 2009년에는 재래시장이 국가에서 재래시장 지원을 전국적으로 지원했어 자기자본 30%를 하라고(지원받으라고) 했는데 다들 안 하려고 했지 내가 병원에 15일 있었어 제일 힘들었지 이런 거 아무도 몰라 정와대 영빈관에 가서 점심 얻어먹고 왔어 그리고 저(손으로 벽을 가리키며) 표창장이 저거야 안양시에서 지역 경제의 많은 공헌을 했다고 도민상 주더라고 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뭐, 제3자들이 인정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나쁠 것 없잖아 그래서 하여튼 내가 그걸 받고 나서 다 알아보더라고 그 후에 이쪽 건물 손을 봤지 81년도에 졌기 때문에 노화돼서 비도 새고 전기 배선이 엉망이야 소방시설 이걸 전부다 그 당시에는 20% 중 안양시 지원 10%, 10%(자기부담금)로 하나까 가져다 쓴 거야 비오면 빗물이 줄줄줄 새고 노화된 것을(정비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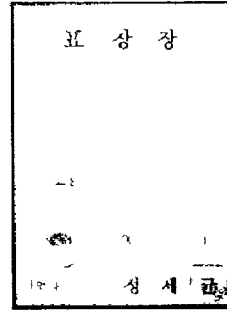
구술자 장용준(40년생, 남), 구술 일자 2011년 8월 5일



중앙시장 아케이드(2011년)



중앙시장번영회 지도



중앙시장 활성화 표창장



안양중앙시장번영회 회장 장용준

## 박달동의 터주, 주진동을 만나다

그 어딜 가도 그 동네를 잘 아시는 어른은 꼭 한 분씩은 계시다 일명 터줏대감 이라고나 할까? 마을 개천에서 먹 감던 코흘리개 유년시절의 아련한 기억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점점 선명해지는 듯하다 그 건 아마도 변할 만큼 동네가 변했을지라도 그 기억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 같다

### 지역이 넓고 확 터진 형세를 지니고 있다하여 부쳐진 동네, 박달동

구씨하고, 엄 씨하고 제일 저음 스타트로 그 지역이 된 것입니다

먼저 박달리라는 유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달동이 12 골짜기에 12 부락이 있었는데 아주 길고 넓은 골짜기가 있어서 앞이 터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앞뒤가 다 터진대서 모이면서 연결이 되고 그런 모양이 삼태기처럼 생겼어요 박달이라는 게 넓은 박자에 통달할 달자 아닙니까 지역이 넓고 확 터진 형세라, 그게 박달리라는 자체가 거기에 저음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달리라는 명칭을 붙여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달리라는 유래가 넓은 박 통달할 달 이 시작 되었고요

태어나기 전, 이미 그는 안양에 있었다



1960년대 박달사거리

## 유년기의 기억

박달동에는 태어나기 전에 여기로 이사 왔지 이 골짜기에 그때 할아버지하고 오신 거지 그래서 토대가 된 거지 농사지으시면서

이 마을이 제일 끝이 박달이고 여기는 서면으로 학생들이 서면초등학교를 4km를 걸어 다녔어요 여기서

나는 초등학교를 1학년 때 거기 서면초로 들어갔어 안가고 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양에 강습소라고 있었어요 거기로 들어갔다고 그게 안양국민학교로 편입돼서 그렇게 해서 안양 초등학교를 제가 나온 것이예요

## 교육열이 높은 부모님

원래가 우리 부진께서 아홉 살 때 조실부모를 하셨어요 아홉 살 때 조실부모를 하다 보니까 그 일자무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딸나무 지게를 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글방에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부러워서 집에서 숯검정으로 지게 등에다 써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야 그래서 이야기책 같은 것 보면, 정신은 이 양반이 좋아서 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유식해도 그렇게 유식해 이야기책을 보면 삼국지 보면 말로 다 술술 하니까 한번 보면 암기력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식만큼은 시켜야겠다고 땅을 다 팔아줘도 실력 있어야 보내준다 실력이 없으면 못 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리고 아예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지

## 안양천에서 떡 감고 천렵하고

수암전도 있고 안양전도 있는데요 수암전은 농사짓는 가운데를 흘러내려 온 거라 눈에 물을 전부 빼 가요 그래서 고기 잡는 데는 거기(안양전)가 많아요

수영을 안양전에서 했어요 원래가 그전에 미역 감는다고 하지 수영이라고 하지 않았지요 그때 당시에 안양전이 그렇게 넓지 않고 지 금의 한 반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런 넓이도 전부 대부분 독으로 되어있었어요 대부분 독은 독으로 막아서 거기에 잔디가 짝 나고, 잡초가 나고, 그래서 그런 독으로 양쪽으로 장마가 지면 떨어져도 나가고 그런데 가서 노는데 밤이면 그저 초롱불 솜방망이에다 불붙여서 물에 쪽



1970년대 안양천 사진 왼쪽이 박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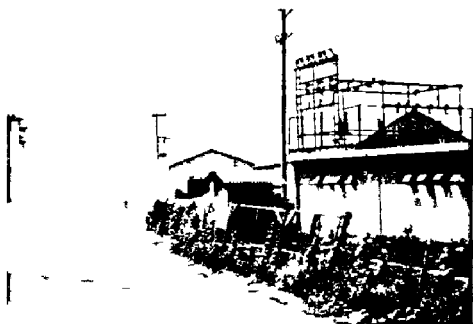


올라가면, 고기가 잡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워담았어요

안양천은 당시 먹감고 물놀이하고 물고기 잡던 놀이터였다

여기 부락이 여기도 몇 군데 안 됐어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전부 다 농사를 짓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지금같이 놀러다니는 친구가 아니고, 시간 있으면 부모 농사 짓는데 돌봐가면서, 틈바구니에 저녁때 모여라 그러면 모이고 호두 서리도 하고 독 밑에 포도밭이 있으면 괜티도 안 입고 밭가벗고 가위하고 자루가지고 기어들어가요 포도밭에 개를 길러서 소리가 나면 개가 옆으로 가고 나면 그걸 따서 독을 넘으면, 안양천의 백사장이야 모래가 짙 있어서 달밤에 모래사장에 앉아서 먹고 나면 손으로 파서 묻어놓고 오고 그랬어요

### 봄이 오면 수암로 비포장 길에 자갈을 깔고



1970년대 박달동 비포장 길

그때만 해도 부락이 박달리로 되어 있을 거야 원래 필동이라고도 불렀어요 얼마 전에 박달이라고 불려서 된 거지 지금 이 큰길 수암로가 길이 이 자선이었어 이자선을 비포장으로 그래서 봄쯤 되면 땅이 얼었다 녹았다가 그래서 땅이 움푹움푹 패이고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스팔트는 생각도 못했을 때니까 그래서 부역이라고 다 나와서 이 자리에 말뚝을 박아 놔요 말뚝을 박아 놓으면 그 안에 돌 자갈을 쌓

아 놔야 돼 어느 날 공동으로 모여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삽쟁이 가지고 씻어서 정렬을 시키는 거야

애들이 적은데(어린데) 쫓아가서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안 할 수 있나 거의 열 다섯 열넷 됐을 거예요

### 도로 주변이 다 눈밭이고 밤에 학교에서 늦어서 혼자 오면 무서워

내 외갓집이 반월인데 구반월 거기를 걸어갔어요 힘이 들어서 못 걸어가면 아버지가 등에 업고 걸어서 갔다고 그게 지금 얼마나 맘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 교통이 좋지 않았고 비포장 때는 도로 주변이 다 눈밭이고 밤에 학교에서 늦어서 혼자 오면 무서워서 그게 왜 그리냐면 비포장에서 차 사고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밖에 실어 놓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거적

때기로 덮어놔 그게 이제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한잠가 그거 덮어놓으면 다리가 다 보여 지고(차 사고) 나면은 밤 같은 때 그 근처를 가기 싫어요

당시 일명 주먹소굴이 광산 덕분에 박달동에 전기가 들어왔다

그때만 해도 송장을 무서워해서 사고 발생이 뭐냐면 그때 당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술집에 거의 다 여자가 있었어요 술 따르는 여자들이 있고 술을 먹고 그럴 때인데 그 양쪽이 다 논이기 때문에 가을 되면 벼를 전부 베어서 논두렁에 넣어놔요 그런데 술집에서 술을 먹고 그러다 보면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사고를 쳐요 그때는 순수한 때지 지금 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식이 벌어질 정도로 이 주위가 아주 뭐랄까 음침하고 어둡고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가로등은 찾아보지도 못하지 처음에 여기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포롱불을 켜고 살았는데 안양에서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것은 박달동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도고내 광산이 있었어 그 광산으로 전기를 놓기 위해서 여기로 지나갔다고 그래가지고 박달동에서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이 근처에서 제일 우범지역으로 되어있었다고 주먹소굴 여기가 안산서 학교를 다녀도 안양공고나 안양중학교 다니려면 박달동을 지나지지 않으면 못가 안산에서 학교에 다녔으니까 안양중학교 안양공고를 그래서 나쁜 애들이 길목에서 텃세하는 거지 어른들 지나가면 나쁜 애들이 담배 한 대 달라고 그러고 그때 어른한테 그러면 맞아 죽었거든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범지역으로 찍혔던 곳이에요

## 중학교 댄 벼를 한 마차를 털고 학교 갔어

소를 키우고 그러니까 가면은 소 풀을 베어야 해 노인네들이 농촌이니까 밭을 팔아야 그 거가지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통학을 하는데 안양역이 그때만 해도 하밭 통이야 건물이 하나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지 내려서 아무 데로 나와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하밭 이었는데 새벽 통근자를 타고 새벽 다섯 시에 나갔는데 그동안 먹을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마차로 벼를 하나 실었다가 가져다 놓고 그거 탈곡기는 밧이 있어야 밟으니까 돌이 밟고 양쪽에 짚을 넣어주고 빼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한 마차를 털고 학교에 갔어

(중학교 때 수업이) 보통 교련이라고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목종으로 아침에 조회 한때는 소대별로 중대별로 조회를 했다고 그래서 1소대 2소대 소대장, 대대장 해서 군대식으로 조회를 했다고

## 수류탄을 가지고

이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군용지에 탄약을 쌓고 뭐 하다보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수류탄이 있어 일본 애들은 수류탄도 구두에 탁 쳐서 던지면요 그게 다 폭발이 돼요 그게 지금 같이 (안전권)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신발창에 때려 던지면 터져요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부락과 부락 사이에 있는 패싸움이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다른 동네 애들이 들어와서 싸움을 하면 박달리 애들이 이 돌을 집어가지고 죽인다고 하면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만큼 부대일 때 군인들한테 깨지고 그래도 광산에 들어가는 전기가, 다른 데는 초롱불을 켜도 여기는 전깃불을 켜고 그래서 다른데 보다는 깨어났지 이 지역은 여기가 변두리라 원래 서면서 안양으로 행정 개편 때만 해도 존구석이야

### 기차소리 들으면 무작정 뛰다

군포 이런 데서 기자 소리가 나면 여기서부터는 뛰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기차 가는 거는 웬만하면 잡아서 타 손잡이 쥐고요 발을 띄면 괜찮은데 끌려가면 죽어요 기차를 못 타서 못 올 적에는 뭐, 어디 고개나 수로를 갈 때 그때 트럭 같은 거 길에서 몰래 잡아타요 그럴 정도로 버스가 있나요? 뭐 없지 집에는 서울역에서 다섯 시 반에서 여섯 시인가 그래요 집에 오면 아홉 시에서 아홉 시 반 저녁 어느 때는 서울역에서 못 타는 애들이 많아요 그 무슨 통근하는 애들만 취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 늦은 대로 해서 그냥 학교에서 서울역까지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 한국전쟁, 우리 동네도 예외는 없었다

625 때 들어오니까 지금 형제들 집이 3채였는데 그게 싹 다 타버렸어 피난 갔다 오니까 재만 있어 안양대교 그거 끊을 때예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후퇴하면서 최종적으로 끊은 게 안양대교인데 그거 끊고선 피난을 같이 가는데 엉켜서 가는데 다리 부러진 놈, 팔 부러진 놈 처음에 반월 우리 진적들이 거기 사니까 거기서 간다고 마자에다가 먹을 거 뭐 다 싣고 끌고 나갔다고 소 마자였으니까 근데 안산 거기가 삼거리인가보다 안산국민학교 그 앞에서 양놈 애들이 다 버리고 쌀만 먹을 거 싣고서 간 거야 그리고 간 데가 수리산 둔대리가 반월인데 거기 가서 전쟁을 거기서 했어 전투를 거기서 했어 비행기가 와서 하루는 때리는데 같이 피난 와서 살던 사람들이 배를 맞고 죽은 놈 이게 또 밤에 비행기가 소나무가 많고 그래서 거기다가 때린다고 밤에 나오라 해서, 배어서 피난민들이 (나무) 그거 끌어내리다 보면 어느 구렁텅이에 송장을 갖다놓고 그냥 덮어놓고 말도 못해



## 생활정치를 하다

의원 생활한 것은 어떻게 하게 됐느냐면, 윤국노 씨가 국회의원 할 적에 윤국노가 2년 선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느냐면 근처에 벽돌 공장을 했어요 사업을 할 적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도 해서 도와준 것이 정당까지 간 거야

삼거리 육교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초대 적에 도로가 육자 도로인가 사자인가 그 도로가 넓혀진 거예요 그게 넓혀졌는데 그 넓은 곳에 건널목을 해놓고 학부모가 기 들고 와서 애들 건너는 것을 저걸 해줬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달초등학교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야 처음으로 그니까 그 들어오기는 그 이전에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학생들 어머님들이 건너는 것을 만들었는데 학교는 거기가 세워질 자리가 아닌데 세워진 거야 세우고 나서 그런 현상이 나왔고 그 옆에 산비탈 위에 서서 겨울이 되면 일조권에 의해서 학교가 음산해서 얼음관이 되어버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시정 질의 한 것입니다 학교 부지를 처음에 만들 때는 진입로부터 봐야 하는데 진입로 자체도 없이 학교만 세우고 해놔서 애들이 하나둘 스러져 가고 있는데 지하도라도 놓고 해야지 부모가 만날 나와서 해도 애가 쓰러져 가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최초로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안양천 옆에 금성방직 있을 때 앞에 내려오는 물이 동네 안양천 앞에 섬동네라고 그랬어 거기서 흘러서 했을 적에 공장에 폐수가 스며드는 저기 하천인데 거기서 물이 뭐야 지하수를 뽑아서 그 물을 그냥 먹었다고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옆으로 때려 박아서(쟁점화하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나오니까 반상회 이런 데서 나 좀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이것을 해결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하수관을 뽑았어 하수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끌어내서 수도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삼봉초등학교 거기가 처음에 입학식을 하는데 교장 선생이 인사자 왔어요 그때 이야기를 했다고 입학식을 하는데 배수로가 잘 안 돼서 논바닥이야 그래서 내가 애들이 당장 뛰어놀 곳이, 운동장이 그게 뭐냐 그 후에 부대 사람을 만났어 부대 들어가려면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로등을 끝까지 다 해주고 자가 부대까지 가지 않고 중간부대까지만 가니까 자의 안장을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배수관계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줄 테니까 바로 할 수 있냐? 자기네들도 해주면 바로 하겠다는 거야 지금 박달 초등학교보다 배수로가 잘돼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교장이 고맙다고 내가 부대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내가 손댄 거니까 자매결연을 해라 신설학교니까 많이 도와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자매결연식을 해서 지금 우리 집에 가면 교장하고 원스타가 표창한 거 다 있어요

## 박달2동을 그리다

그때 당시나 지금 똑같은 건 군부대 각 골짜기에서 한데 합쳐져서 그 부대 중간 쪽으로 개천이 있어요 수암전이라고 그러는데 수암 있는 데서 그게 흘러가지고 안양전하고 합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암전을 따라 열두골이 양쪽에 다 있고 농토가 그 지역 가운데 있었어요 전부 농사를 짓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자 그것이 왜정 때 일본 애들이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강제매수 한 거지 거기가 군사지로서는 아주 요지야 비행기가 폭격을 할 수 없는 지역이 거기이기 때문에 아주 요지여서 일본 애들이 탄약고를 잡은 거야 그다음에 강제매수를 한 다음에 탄약고를 잡으면서 지금 그 입구에다가 경비실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농사지러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은 떠른두르고 거기다가 명패를 달고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제 일본 애들이 망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국방부에서 측정한 거지 그래서 강제매수한 그 땅을 이제 주민은 그걸 내세워서 그 땅을 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그게 군 관계 국방부를 상대해서 싸우니 안돼서 지금도 그게 법에 계류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박달동이 앞으로 발전을 잘하려면 군부대 거기가 최대한으로 민간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 그외의 것을 꾀조해서, 지금 제일 문제는 박달동이 공한지가 하나도 없다고 휴식을 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박달동에는 그래서 그쪽



1960년대 박달동 사진 왼쪽에 보이는 비포장 길이 탄약고 가는 길

으로 들어가면 공기도 좋고 부대는 그쪽에 있으니까 그 농경이 일대를 사실은 안양시에서 흡수해가지고 거기에 대학교가 들어가도 세네 개가 들어갈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부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국방부에서 그것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협조해서 공한지로 이용하여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안 나가 지금 실정입니다



박달동 주진동

부대를 통해서 골짜기 산을 넘으면 거기가 안산시에요 근데 수암 장군재라고 길이 왜정 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길을 쓰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비에 뭐하고 길이 망가지고 그래서 부대에 있는 데에서 그 넘어가는데 까지 그거(길)를 들여 놓으면 교통이 직접 거기로 갈 수 있지 박달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군용지를 이용하는 길이 제일 빠르지 그래서 거기를 공한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고 부대에서 자기네 땅을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군용지) 사용하게 만들어서 진짜 저녁이면 안양천이 이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운동한다고 그걸(군용지) 사용해서 휴식장소로 재택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박달동도 사는 것이 다른 동과 다름없이 되는데 지금은 박달동이 집값도 그렇고 형편없는 게, 공한지가 없어요 이제는 뭐 여기서 지을 때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박달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군용도로(를 사용)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알 적에는 안양전에서 사실은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고기도 잡아서 전렵이라고 그럴까 모래밭이 있었으니까 (안양전처럼 여기도 주민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구술자 주진동(39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7월 17일

## 제지산업의 심장 삼덕제지 이준열

섬유제지산업은 한국의 근대화 전략산업 중의 하나였다 물이 풍부했던 안양천 덕분에 안양은 한국 근대화의 과정에 쉽게 편승해갔다 그리고 전국 팔도에서 많은 젊은이가 안양으로 모여들었다 안양의 사는 어르신 가운데 많은 분의 다수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고향이다

### 제지산업의 심장, 삼덕제지

학교는 안양상고 나왔고, 삼덕제지 입사할 때는 참 어렵게 들어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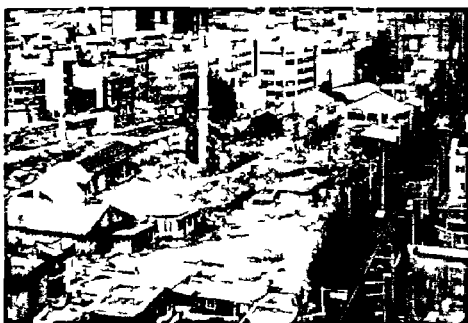
지금은 돌아가신 회장님을 옛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구두쇠고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



아오신 분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이 한 몇천만 원, 몇억을 가지고 있어도 돈 있는 집인데도 일찍 돌아가는 날에 사람이 한 일고여덟 명이 오면 자기는 뒤로 가서 전철 타고 나머지는 자가용으로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삼덕제지가 옛날에는 폐수가 나왔다고 회사는 시의 정책도 있으니 폐수를 정수장에서 걸러서 아래는 피해 없게 내보내려고 그러고

내가 할 이야기는 뭐냐면 (폐수) 내보내가지고 여기 주민이 (있는 곳이) 시커멓게 그랬어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폐수가 나오는데 회사 안에다 묻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건 절대 없어 아주 안에 그 폐수를 묻었다면 파이프 하나가 250kg 나가고 그걸 15개로 그러니까 250kg짜리 15개 묻었다면 그거 몇 톤씩 되는데 무거워서 가라앉지 묻었다면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나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중요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그 땅을 그 아들들하고 상의해서 땅을 내놓은 거예요 폐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했다고 땅을 시에다 준 거예요 그 아들이 과장도 아니고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제일 겸손한 아들이 자기가(노력해서) 지금 사장이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예요 (삼덕제지 터에) 지하 주차장을 640평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굴뚝을 없애지 말라 했던 거예요 시에서 이미 땅은 시행사에 줬으니까 그거는 자기는 이미 줬으니까 우리가 용도를 변경시켜서 지하주차장 하려고 했던 건데 640평이 되려고 하려면 먼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안된다고 그래서 재관까지 갔어요 삼덕제지는 그런 실정이에요



삼덕제지 공사

그 양반이 재산이 무지하게 많은 양반이에요 빌딩도 세 개 있고 마산에도 파이프 공장, 제지 공장을 만들었고, 울산에도 파이프 공장이 있고 그 양반이 성함이 전세 준 사장님인데 잠 좋은 분이에요 빌딩도 내가 알기로는 세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장이 전 안에 있고 경택에 있고 여기 있고, 장원에 있었어요

### 하루 100톤 생산하다

공정이라는 게, 십만 톤 몇십만 톤 쌓아놔 인천에서 25톤 트럭으로 펄프 원료가 오고, 그리고 활석이라고 종이에 글씨를 쓰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원료인데 한 자루가 1톤이고 트럭에 16자루가 올라가 그



삼덕공원 굴뚝

렇게 종이 원료가 들어왔어 이 안에 칼날이 있는데 이런 칼날이 있는데 그게 돌면 막 갈린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했어 돌가루 그놈이 무게가 나가고 그래서 아주 한 1톤씩 되는데 인건이나 외국으로 가져가기도 해요

약품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냐면 조종실이 있어요 모터가 일고여덟 개가 되는데 거기서 모터로 저저 나가면 갈려져 탱크로 가요 (저기에) 돌아가는 게 있어 풀 밑으로 받는데 풀을 만들어 이놈이 싸주면 붙여나가고 앞에 와서 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드라이가 한 20개가 있어 앞에서는 금방 바짝 말라서 나가요

하루에 생산량이 많을 때는 내가 알기로는 100톤 정도예요

### 60명의 여공, 700% 보너스

그 당시 여공들은 60명이었어요

100명 있을 때도 있었고 60명 있을 때도 있었고 100명 있을 때에는 두꺼운 파지로 종이를 만들어 낼 때는 사람이 30명이 필요했었고, 나중에 기계를 시켜서 바로 녹여 갈아서 파이프에 투입해서 바로 나오니까 파이프가 한 300-500M짜리거든요 나중에 사람이 필요 없었어요 앞에 포장하는 사람만 60명 있었어요

여공들은 처음에는 마미라지 두꺼운 거, 그걸 만들 때 접지는 신문지 같은 걸 절사 같은 걸 고르느라고, 이것저것 고르느라고 사람들이 60-70명이(있었지) 그렇게 지금은 다 자동화 돼서

월급이 나오고 보너스가 700% 나왔어요 많이 준거죠 봉급을 하루도 미루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면 무조건 다 술 한잔 마시고 그랬지

### 전국 각지에서 모이다

여기 삼덕제지 있을 때는 사람 살기 좋았지 일터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300명 있었어 가족들을 따지면 1000명 정도가 있었을 거야 그 때 공장에 삼백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처음에 1,000명 있다가 60명 아니 남 자들도 있으니까, 여자들은 단순 노동을 할 거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60-70명 있었고, 위에 몇 명 있었고 따져보면 백 사십 명 정도 있었



삼덕제지 이준열

지 (구성원 중에는) 안양 토박이들이 많이 올라오지 경상도에서 오고, 전라도에서도 왔는데,  
안양 사람이 많지

구술자 이준열(44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11월 4일

## 따뜻한 햇살 같은 마음이 있는 터, 원명상 어르신 덕

마을 사람이 한 우물을 같이 사용한다는 의미가 동네다 물을 같이 쓰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같은 물을 길어 쓰던 동네는 동네 어르신에 있거나 동네에 자리 잡고 사는 입향조 이야기가 늘 따라다닌다 원씨의 집성촌으로 알려진 양지마을도 그 중 하나다

### 제일 먼저 해가 뜨고 부지런한 동네 양지마을

35년 10월 29일 태어났어 애들은 4남매를 두었지 동네가 삼십 가구 정도고 옛날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고 서로 다 알고 젓가락(갯수)까지 다 알고

우리가 군자에서 나왔거든 시흥시에 가면 군자동 있지

부모님도 다 3대째 살았고 고향이 여기지 부모님은 계속 여기서 농사를 하시고 농사는  
생활하실 만큼 넉넉하셨어요

군자동에 우리 10대조 할아버지 비석이 있었어 병자호란 때 삼부자가 전사를 당해서 비



1960년대 양지마을과 수암전



를 거기다 세웠어 여기는 타성이 몇 사람 안 됐어 박달동은 권씨, 비산동은 심씨 저기 4동은 강씨 어른들하고 친구들하고 왕래하니까 자연적으로 알게 되더라고

옛날에는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 고사를 지냈어 집에서 그래서 향아리에 잔뜩 떡들 썰어서 나눠 먹고 겨울에 야경 돌잖아 그럼 먹고 그 제사 지내면 음식 와서 먹고 야경 도는 사람들 목탁을 들고 다녔어

양지동 마을이 여기는 다 공터였고 꼭대기에 지금의 과학대학 있고 거기 공원 조그마한 것 있지 거기는 다 논이야 그 뒤는 다 밭이고 그러면 집 드문드문 몇 개 있고 이쪽은 집이 없어 허허벌판이야 집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조금조금 집 지으면 쫓겨든 여기 동사무소 여기도 공터였고 여기서 조금 비켜서 여기 서호공원 거기도 집 하나인가 두 개밖에 없었어 집 짓고 살아서 그리고 뭐 집 몇 채 있었어

양지마을은 해가 가장 먼저 뜨던 작은 마을이었다

양지마을이 특별한 것은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동네, 부지런한 동네가 여기야 내가 자부해 옛날부터 안양 사시는 분들은 다 알지

여기는 재산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 나가고 없는 사람은 늘어난다고 하지 공업 도시니까 일하면 돈 나오니까 먹고 살게 되고, 서울에서 온 사람은 편안하게 시골에서 살라고 왔는데 안 맞잖아

옛날에는 여기 조선직물이라고 회사가 있었는데요 지방 아가씨들 와서 일했지 그것을 해방 이후에 쌍용 김석원 회장이 그 건물 반을 인수해서 금성방직을 인수했어 625사변 이후 전부 통일했지

## 허릿심 겨루기 행사

(이 동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대보름 옷놀이 어느 지방이나 다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여기 그런 게 있었어 허리 힘 자랑했다는 것은 어릴 때 들었거든 아무리 돌아다녀도 시합하는 것 못 봤는데 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모심으러 가서 아침 밥 먹고 엎드려서 일하고 계속 밥도 엎드려서 먹고 막걸리도 엎드려서 먹고 점심도 엎드려서 먹고 허리 안 펴고 허릿심이 얼마나 세나 겨루기를 누가 생각했겠어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권태평 씨야 내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일하러 가셔도 밥도 엎드려서 먹고, 술도 엎드려서 먹고 엎드려서 구부려서 하잖아요

제일 오래 걸던 분이 그분이야

농사할 만큼 넉넉한 터와 인심이 있던 곳이 양지마을이었다

### 동창 4명의 학창시절

여기서 농사짓고 동장이 4명밖에 없었어

과학대학 거리에 비행기가 딱 뜨는데 유원지야 12시 경인데 비행기가 날고 그때가 1950년 6월 29일 16살 중학교 4학년이야

중학교 4학년 그걸 내가 설명하면 안양에 중학교가 없었어 그래서 고등국민학교라고 강습소가 있었는데, 조선직물 자택에서 몇 명 놓고 그러다가 1948년 1월에 안양중학교가 창립돼서 시흥군청 회의실에 강연회를 했고 거기서 그래서 그때 안양초등학교, 시흥서면초등학교, 동면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과전초등학교, 군포초등학교 이렇게 모였는데 학교들이 공부할 길이 막힌 거야 그때 그렇게 되니까 나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시험을 쳐서 들어간 거야

그러니 안양초등학교에 우리 때 들어간 애들이 나이가 다르죠 그때 들어간 아이들이랑 우리 동갑이 안산초등학교 나와서 들어온 애가 목영부 경원대학교 박사과정 경원대학원장까지 한 애가 제일 어렸지 그래서 중학교를 내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빼고 띄웠고 2년 또 띄웠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지 그래서 우리가 5살 자이가 나 내가 14살에 뒤늦게 들어갔는데 과천 애들은 19살, 17살, 18살이 많았지 영등포초등학교도 많았어 오산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안양의 여기 안양공고 지금 안양 어디냐면 뉴코리아호텔앞이거든 군정 경찰서 읍사무소 삼각형으로 여기가 초등학교였다가 가는 바람에 안양중학교가 설립했어 그때 그게 교무실 하나에 1학년 2학년 이렇게 있었지

여기 맨날 돌 나르고 그랬는데, 그때 4학년쯤에 625 사변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 나이 먹은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네 사람씩 해서 훈련을 시켰어 어디나 학생들이 훈련받는지 몇 달 만에 625 터졌어 그 친구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사병 했다가 시험 봐서 장교하고 전투하고 다 살았어

### 나가 살던 고향은

여기가 서이면이다가, 안양면이었다가 안양읍으로 되었다가, 그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안양시로 돼서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갈라진 거지 그때 만안구 될 때는 벌써 도시가 형성될

때로 다 형성되고 목욕탕이라고 안양역전 옆에 목욕탕이 한군데 있었어 이거 나무 때고 할 때  
 니까 일 년에 두 번 세 번 가면 많이 가는 거고 지금은 때를 불리면 때가 붙어서 그대로 일어나  
 지 그때는 비누도 제대로 없었어 비린내 나는 비누 그거 하나지

비누인데 생선 기름으로 만든 것인데 비린내가 나 그거 목욕탕을 누가 했느냐면 우리 김  
 무재라고 하는 그 친구가 했어

그렇게 목욕하고 나오면 지금은 깨끗하지만, 그때는 내복이 제대로 있어, 거기에 양말이  
 제대로 있어 고무신이 겨우지 운동화는 부잣집만 운동화 신고 내복이 어디 있어

60년대는 농지였는데 80년대는 벌꺼(변했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분가하고 집성촌  
 안데 지금은 뽕뽕이 여기저기 가고 여기는 얼마 없지

그때 60년도까지도 공장 있는 거 회사 다니고 변화라는 게 없었지 공업 도시니까 여기  
 가 물이 좋아서 안양 포도밭하고 배 그게 왜 유명하냐면 일본 사람 오우끼라는 사람이 2동 농  
 장을 가지고 있었어 그 사람이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동네 안에서 어묵 생선 뼈다귀를 가져  
 다 (거름으로) 사용해서 맛이 좋았어 그래서 안양 포도, 안양 포도, 그랬는데 자꾸 발전되면서  
 떨어지고 있어 그때는 비료가 좋아서 그랬고 부천한테 졌어 당분이 떨어져서 지금 대부분 그  
 쪽으로 거기도 바닷바람 불고 괜찮겠더라고 그때는 여름 되면 물이 안 끊겼어 그때는 나무가  
 많아서 여기는 여자 목욕, 여기는 남자 목욕 칸을 나눠서 지금은 전부 (폐수) 흘려보내지만 지  
 하로 안 흘러가 안양에 공장이 많은 게 물이 좋아서야 안양대교 있지 거기서 다 (물을) 뽑아서  
 여기가 공장이 있는데 다 뽑아서 썼어

일제 강점기 시절, 안양천은 일본이 세운 공장에 공업용수 공급원이었다

그때 여유가 있었나? 뭐가 있어 없지 눈 덮이면 길이 어딘지 몰라요 마차가 밭으로 들어  
 가 논으로 들어가고 그랬지 그리고 화장지 있잖아 지금은 화장지도 고급을 쓰지 신문지 지푸  
 락기를 배배 틀어서 그걸로 썼지 그때 그런 세대였어 70년도에 그래도 그때 인심 좋고 어른을  
 알아보고 그랬지 담배는 뭐 나이 많은 사람 근처에서 필 수 있나 그 대신에 막걸리 주전자 심  
 부름하면서 한 모금 맛보고 그것도 맛있는 거야 그렇게 먹고 물 부어 냈지 소주도 집에서 내  
 려 먹지 그때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막걸리 사발 대접으로 먹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심 좋고 도둑놈 없었지 6.25 나면서부터 도둑이 생겼지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때 다 만나던 사람인데 가져갈 게 뭐 있어 가져가 봤자 쌀이나 고  
 주장이냐 그렇지 6.25 사면 나고 고추장 항아리도 들고 가고 그랬어 어린애 기저귀 널어놓은 것  
 가져가고 그랬어 기저귀가 있어야지 애를 낳았는데 그건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기저귀도 도둑질하던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여름에 어른들은 지금은 나이롱 끈(고기담는 것)이지만 그때는 풀에 (물고기) 몸뚱어리 꿰어 허리에 차고 전진하는데 물살 빠른 걸 피하려고 흐르는 물 안에서는 그걸 탁 몰아서 건넜지 여기 고기 많았어 뱀도 많고 고기도 많고

땅꾼이라고 하지 그때는 뱀도 많았어 뭐 뱀, 도롱뇽, 가재 도롱뇽은 1급수에 살잖아 수리산 올라가면 도롱뇽이 많았어 그리고 여기 이 도로가 지금은 이리 가지만 그전에는 서울에서 넘어와서 이리 갔다고 수암봉이라고 하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여기서 걸어가서 개를 잡고

10리 20리 걷는 것은 보통이야 우리가 안양중학교 다닐 때 혼련할 때 여름에 담요도 매고, 더울 때인데 운동화 신고, 배낭 짊어지고, 학교에서 판교 있지 거기까지 하루 만에 걸어갔고 그때는 비포장도로야 지금 생각하면 과전에서 안양중학교를 걸어 다니면 그게 얼마야 자가 어딴지 다 걸어 다녔지 그때는 여기서 인전도 영등포도 걸어 다녀오고

그때는 잵가방이 잵 두 줄 딱 넣으면 얇은 거 있어 그런데 그때는 절대 딱딱하지 않았어 서로 돕고 살았지 안양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는 두 명 밖에 안 남았어 그다음에 한 반에 60명 정도 중에 일고여덟 명이 남았나?

잭가방을 둘러메고 판교, 영등포까지 잵걸음으로 걸어 다녔다

전 친구들과 그전에는 매월 한 번씩 모였지 전부 옛날 학교 다니던 그대로야 어른 애도 없어 어느 학교에나 우리가 서울모임에 갔는데 모이는 장소가 저기 이문설령탕집 동우초등학교 다녀가지고 학도병 나갔다 와서 모이는 사람이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까딱없어 다섯 살 차이 나는데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86명이었어 겨울에 난로 하나에 도시락 쌓아놓고 그랬지 그 후에는 고구마 찌고 감자 끼고 그랬어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탄약고 있었어 탄약고 저기 있어서 군용지에 가고 산에 가서 관솔 따고, 기름내는 것 송진도 가져오고 (부대사람) 개네들이 개도 잡고

**산에 널린 머루가 먹을거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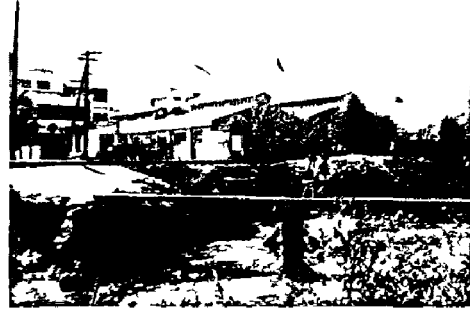
어디 가서 무개 먹고 그때 과수원이 많았지 산에 가면 머루 다래 그게 수리산에 굉장히 많았다고 다래는 그거 고급이야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배 채우고 잘살고 못살고 별

자이가 없으니까

산토끼도 여기서 잡았어 노적봉 꼭대기  
거기에 토끼가 얼마나 많은데 쫓아다녀서 노루  
도 잡아오고 그랬어

거기서 산삼 세 뿌리 나오고 그 뒤에는 없  
어 어디지 8동인가? 거기 사는 사람이 딸나무를  
하러 갔다가 발견했지 그때 항간에는 수리산은

숫산이고 관악산은 암산이래요 짐승이 다리에 걸리잖아 다리가 부러져서 도망간다잖아 정  
제산은 돼지 한번 나타나면 못 잡아요 강원도로 내뺐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수리산 남태령  
여기는 수리산 김포까지 가고



1960년대 삼영하드보드

### 졸업 후 취업을 하며

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녔어 성원아파트 있는데 공장 있었거든 거기 다니다가 그다음부  
터 기술 배워서 인천 뭐 의정부 영등포 사방 돌아다녔지

삼영하드보드에서 삼 년 일했는데 사고가 났어

다이제스트라고 나무해서 송진 나무에서 진을 빼야 제품이 만들어지거든 그런데 내가  
야간근무인데, 그거 하는 과정에 그날 밤 공장에 있는 사람 중에 공작실 책임자가 온양은천에  
서 조카딸이 시집을 가는 날 가 봐야겠다고 교대하자고 그랬고, 그러자고 해서 그날 근무를 했  
어 그리고 (사고가) 그제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폭발을 했어 증기를 안 빼고 열어서 여기 터지  
고 여기 터지고 내가 늘 하던 것이니까 내가 올라가서 한다고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사람 셋  
은 와이어가 끊어진 거야 셋이 한꺼번에 떨어졌지 떨어져서 내가 정신 자려서 살아서 나왔어  
나하고 교대하자고 한 사람이 사고를 났어 죽었어 그 자리에서 앞에 그냥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바람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그리고 그 일 그만두고

고향을 떠나 같은 업종의 일을 했지 내가 절공소를 했어 81년도 1월 21일 지금도 불편  
하고 (손가락이) 따로 따로 고생이야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

일이 워잡하지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뭐 대장일도 해야 하고, 배관도 해야 하고, 난방  
도 해야 하고 배관 전문이란 게 그제 65년도인가 66년인가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 사람들도 한  
가지 밖에 못해 여기서는 이것저것 다 해야 하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가 공업중학교로 변경되었어 그때 금성방직 공장들이 와서 가  
르지고 그랬다고 그때 뭐 정식 교사들이 별로 없잖아 중학교 1학년 때는 일본 애들한테 배운

거지 배울 때가 없잖아

고향에 다시 돌아와 그때부터 농사를 부모님과 같이 지었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지금은 나이도 먹고 지금은 재력이 달려서

농사짓는 사람들 그때는 소로 일을 했지 그때 소 한 마리 가지고 학생 대학교 졸업시키고 그랬지 지금은 소 한 마리 400만 원 500만 원으로 등록금도 안 되잖아 송아지 사다 길러서 크면 팔고 그런 거지 돼지는 짧게 기를 수 있지 일 년 기르면 60kg 나가고 그때는 사료가 없지 그땐 배가 고플 때인데 8 15 해방되고는 먹을 게 있어? 쌀이 아니고 설탕 그거 가지고 견디고 그랬지

### 고생 많이 했어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전북 전주 팔복동 전주제지에 기술자로 갔는데 황달에 걸렸어 전주에는 황달로 죽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콩나물을 일주일에 한 번 기본적으로 끊어 먹어야 하고 대지라고 요만한 조개도 먹고 전주는 교육도시야 모시 한복 입은 한의사 지금 그렇고 그런 데가 있을까? 여름에 한옥집에 문 열어놓고 전주 그 복문 박인가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찾아갔지 거기 가서 잠 황달 약을 지어 먹었지

철공소, 대장장이, 배관 등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하다

### 가정을 이루고

다른 데서 회사 다니면서 결혼하고 내려왔어 파주사람이지 중매로 만났어 동네 분이 소개했어 서울 아현동 서대문 다방에서 처음 만났어 몸이 깡마르지 않고 처음 보고 마음에 들었지 서울에 있을 때 결혼하고 여기서 큰딸이 태어나고



결혼할 때 해온 혼수 낫그릇 세트

아이들이 작해서 그리고 둘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내막염에 걸려서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안 돼서 큰 병원 서울대 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 목의 움직임이 굳어가는 거 그렇게 진단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 마흔다섯인데 장애인이야



1985년에 지금 집을 지었지 업자가 집을 먼저 짓고 세놓으면 돈을 받아갔지

(주거환경이) 시대변화가 5년마다 주기가 변해 그때는 연탄 아니면 다른 것은 비싸니까 그때 싱크대고 뭐고 전부 필요 없는데 연탄 난방을 하고 5년 지나니까 석유 또 5년 지나니까 석유 그러니까 내부 시설, 주차하고 저기 풍진 시설 다 구비를 해야 해 방도 크고 주방도 크고 화장실도 크고 넓게 해야 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집 가격이 안 올라 처음에는 수리비가 안 들어갔는데 이십 년 삼십 년 되니까 그게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나까 체력의 한계도 느끼고 정신도 흐려지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지금도 밭농사 조금 짓고 있어

슈퍼는 처음에는 나이 먹어도 일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심심풀이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거에 손을 쓸 수가 없어

슈퍼를 85년도에 하다가 90년도 끝냈다가 99년도에 다시 시작했어

지금은 큰 게 생겨서, 그때는 뭐냐면 웬만하면 집에서 김치거리도 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화하면 가져오잖아 물건도 싸고 우리가 사는 가격에 (대형마트) 개네들은 관다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전부 있어서 물건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어

작년 김지 아직도 조금 남았을걸 그전에는 김지 담그면 땅 파서 향아리 묻고 거기다가 얼지 않게 무도 구덩이 파고 묻고 그게 진짜 맛이라고 그전에는 걸어 다녔는데 자 타고 다니잖아 여름 겨울이 없어졌지 마진이 점점 줄어 가잖아



양지마을 원명상



절구



옛말 밥그릇과 국그릇



양지마을 원명상

## 안양이 편안하게 사는 동네가 되었으면

그때는 발전이 지금 민심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먹고 살까? 돈 되는 것은 뭐든지 했어 우리 세대는 노후대책을 지금 생각나는 게 중학교 1학년 한문 선생님이 학생들 눈 똑바로 떠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는 책장을 버리지 말라고 나중에는 인분제조기가 되지 말라고 하셨지 지금은 노인네들 그게 바로 인분 제조기야 생각하면 참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 노인인구 많아지고 일자리 당장 줄고 편안한 일만 찾고

안양 편안하게 사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 6.25 나서 안양이 거기서 그 사람들은 내가 일 나가면 전원을 벌 수 있지만, 전 원짜리 없으면 백 원짜리를 해 백 원짜리를 하게 되면 일하는 동안은 돈 쓸 일이 없잖아 내가 버니까 그 사람 일 잘하면 자꾸 그 사람 시키고 하면 이 백 원짜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일하고 그런 보람이 있는

구술자 원명상(35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11월 15일

## 여성이 여성을 읽다, 이금연

1969년 9월 10일 완공한 근로자회관은 안양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 근로자회관은 고향을 떠난 근로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숙식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건축된 기관이다. 1998년 4월 <전진상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 이후 <전진상사회복지관>이 소멸하는 그 순간까지 안양 여성노동자를 위해 몸으로 실천한 이금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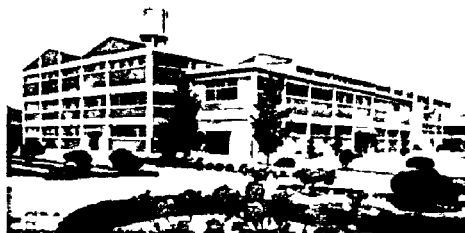
### 삶을 가르쳐준 시몬느 베이유(Simone Weil)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10대에 잘 몰랐죠. 누구인지는 잘 몰랐는데, 잘리 재플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단편적인 정보로만 10대에 알게 됐고 예술가로서, 그 다음에 시몬느 베이유는 20대 대학생 때 그런 사람의 책을 읽고 사회 롤모델처럼 아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었던 사람이 시몬느 베이유예요. 그랬지마는 그 나중에 오히려 근로자회관에 가서 그 잘리 재플린의 영화를 옛날에 그 영사기로 봤죠. 그러한 게 뭔지 몰랐을 때에 왜 재플린의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그 자료로 돌렸기 때문에 그때에 필름 영화를 보고서는 막연하게 좋아하고 막 이랬었던 사람들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많은 기쁨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다 소개하는 것 하고 그 사람이 실제 했었던 작품을 만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게 80년대 그런 것을 만나는 게

##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서 일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 과정이 별거 있나요, 그때 홍천여고를 다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교 그만두고 그러고선, 다시 학교로 돌아갈까 그런 가족들과 의논이 있었죠 아버지하고 이상하게도 저 학교 돌아가는 것을 동네 분들이랑 아저씨들이 왜 학교에 다시 가야 하는 것 아니야 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때 제가 아마 다시 학교로 다시 가지 않기로 마음으로 결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제가 학교 휴학을 하는 과정에서 홍천여고 선생님들에게 가졌던 어떤 실망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린 마음에 그 실망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게 갖는 기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장례는 지렸는데, 그 분명히 기억이 나요 동네 아저씨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학교 다시 가라 막 그런 것이었죠 그랬는데 제가 안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큰오빠가 안양에 사세요 한국제지 다니셨어요 한국제지 다니는 노동자였기 때문에 큰오빠와 울케를 따라서 안양으로 오게 됐지요 큰오빠네 집에서 지내면서 그냥 일하면서 공부하는 길을 내 스스로 선택하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서 일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죠



1970년대 한국제지

## 근로자회관 인연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었던 거죠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기가 인덕원, 아! 인덕원이 아니고 그 명학동 있는 그쪽 공단쯤이었던 것 같아요 명학역에서 이쪽 공단 이렇게 명학역에서 철로를 위로 이쪽 말고 이쪽에 공단 쪽이었던 기억이 나요(시정방향 현재 만안구정) 시정 그쪽으로 지금 뭐 덕전마을인가 뭐 그 밑에 왜 명학역에서 그 공단이 막 그때 별관에 공장이 지어졌을 때였었는데, 그 어떤 전자회사를 울케가 알아봐 줘서 잠시 다녔었어요 아마 그 근처인 것 같아요 무슨 전자회사였었는데 저기를 한 5-6개월인가 다니고 그다음에 인제 그 군포 구사거리에 있는 금성통신 있잖아요 옛날에 키폰 만들고 전화기 만드는 데로 옮겼어요 금성통신은 이르면 8-9개월 다니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때에 근로자회관을 안 거예요 (000 79년에요) 79년에, 79년 1월에 근로자회관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래서 가톨릭의 문화하고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AFI(아피)라는 회원들을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로자회관(기숙사)에서 그때 우리 독일에서 오셨었던 서정림(말가리다) 선생님하고, 한성인 선생님하고 또 여러 스텝 선생님들이 계셨죠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안양근로



자회관에서 어떤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었던 거죠 굉장히 새로웠어요

### 모이고 공부하는, 근로자회관

그때가 79년이었으니까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 상당히 활발하게 팍팍 잤었을 때죠 그런데 뭐가 달랐냐면은, 안과 밖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깥세상은 매일 그때 아침에 그 성당하고 근로자회관 사이에 금성통신 출근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밥만 먹고 나가면 되고 6시 반이면 그 자를 타고 일찍 출근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술렁술렁 대는 곳이었죠 매일 그 노동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살고 그러는 안양이었는데 그 바깥세상은 오직 일터밖에 몰랐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오면 그곳에 도서실 있었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래든 언니든 동생 또래든 같은 여성들이 뭔가 그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놀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정성들인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더없이 좋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그런 생활훈련 같은 것, 생활교육 이런 것들이 재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가끔 성당에 따라다니는 것 그 안에서 작은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기존에 제가 그때까지 10대에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학교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 정결

하죠 그 정원있었죠 탁구도 칠 수가 있었죠 문화가 있었죠 문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뭐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노래도 부를 수가 있었고 가끔 집단놀이들이 있었죠 우리들이 스스로 하는 연극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이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 할까? 이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상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것을 주는 곳이었죠



1969년 근로자회관 준공



1970년대 근로자회관 거리

그때에 기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피정이라는 형태로 토요일 날 같은 때에 일찍 퇴근해서 오면 주말에 그 노동자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뭐 자기들 나눔을 한다든가 이런 피정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교댄스 같은 것 있잖아요 포크댄스 이런 그룹이 있었고 들어가서 젊은 정준의 남녀 노동자들이 그렇게 품

위 있게 줌을 배워서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것이었죠, 그다음에 거기 자습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와서 공부하는 고학력의 대학생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기숙생들한테 가끔 영어 수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독일 선생님이 영어 지도한다거나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공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를 위한 것이었고, 저희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일을 많이 해야 했어요 일요일이면 또 방송통신고등학교 다녔으니까, 그 학교를 갔어야지 기억하기론 종로까지 와서 창덕여고에 제가 안양역에서 1호선 타고 장덕여고에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3년 다녔어요

### 음악, 커피, 과외 그리고 대학 시절

(바로 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는 그 금성통신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근로자회관을 나와서, 서울에 있는 어떤 다른 저희 가톨릭의 대모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또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일하는 곳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 공부하고, 입학했고, 입학할 때는 다시 큰 오빠네 집에서 다녔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죠 어떻게 학교만 다닐 수 있어요? 저기 커피 그때 난다랑인가? 무슨 커피 전문점 있었잖아요 그때 마침 학교 앞에 친구의 진적되시는 아주머니가 우리 학교가 화양리에 있었어요 세종대학교 다녔는데, 화양리에 건대하고 갈라지는 그 변화가에 그것을 자린 거야 그 난다랑을 그래갔고 친구들이랑 재미로 아르바이트하고 그때 대학동기들 친한 친구들 네 명이서 같이 우리 아줌마가 하나까 같이 일하자 해서 그래서 같이 일했죠, 저한테는 재미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 좋아하죠 이런 커피 같은 것 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좋아하



근로자회관 서정림 말가리다 관장과 기숙생들



근로자회관 기숙생들 나들이

니까 정말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커피도 날라다 주고 아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커피도 끓이고 지금 이렇게 핸드드립 하는데 그때 핸드드립 했죠 그러면서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입시과외 했어 그리고 졸업했어요

82년 입학했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입학하자마자 뭐 비자금 그때 김대중 씨가 해금 됐다는 등 어쨌다는 등 그래서 신문일간 뭐 이런 것 그런 것 준비 다니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3학년인가, 4학년 때쯤 돼서 복학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와서 학교가 계속 재단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에 그 이사장들이나 뭐 그분들이 학교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시게 하고 거기를 점거하고 농성도 하고, 교생실습도 나가야지 학교에도 그런 것이 있지, 다 혼란기여서 아무 기억도 없어요 지금도

86년에 그 졸업을 하고 그 근로자회관에 있었던 제가 지금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는 한성인 선생님이 저한테 ‘근로자회관에 와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혼자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인생의 고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고비들의 고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많이 느끼고 그것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저희 진적 고종사촌 오빠가 그때 학원도 차리고 이러자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사업을 하거나 학원을 하거나 이런 동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졸업하고 그 고종사촌 오빠랑 그 일을 그때부터 했었더라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무조건 내려가서 혼자 오랫동안 사셨던 아버지하고 한 8-9개월, 9개월 정도 같이 살았는데 안양에서 인사 와서 일하자고 그러시기에 그러자고

### 다시 안양으로 그분들이 달달 거리는 봉고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달달 거리는 봉고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그때 독일 회원이셨던 서정림(말가리다) 선생님, 한성인 선생님, 죄병렬 선생님, 그다음에 또 다른 AFI 회원이셨던 양금자 선생님 등 네 분이 또 그 우리 김경웅 기사님이랑 같이 포그만 봉고차가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하직 인사드리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한성인 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분한테 그랬대요 다시는 돌려보내지 마시라고

우리 아버지도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아버지가 아셨던 거 같아요

그게 아버지에게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기회였죠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농부이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세상과 만난 첫 번째 권력이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



들이었고 그런데 그 첫 번째 권력이셨던 아버지하고 우리 가족의 형제들 중에서 유독 많이 싸웠어요 대항해서 아버지랑

##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죠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랑 지낸 9개월간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었죠 그래서 나도 성장했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죠

왜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게 수박에 없었나? 우리가 밥을 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산업사회가 되게 야만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다 우리 어렸을 적에 땅도 많았고 그렇게 모두가 열심히 농사일을 했고 밥을 굶은 것도 아니었는데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했나?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는 사실이었지 그다음에 흥전여고 다니면서 그만두게 된 것도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셨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소 팔아야죠, 땅 팔아야 되죠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해서라도 제가 혼자 스스로 가서 아버지 도장을 들고 휴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럴 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현실 앞에 그 뭐 장학제도를 마련한다거나, 그런 걸 알아본다거나,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뭐 부모님이 와야지 받아주는데 너니까 아버지 도장 하나 찍고도 받아준다는 식으로 주무과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모습 앞에 저는 뭐 이런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죠 어린 나이에 저는 제 안에 깊은 곳에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그- 실망스러움이 굉장히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뭐냐하면 너희는 가난했다 평가하는, 가난 안 가난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게 어디있어요 저는 제가 사회주의자들이 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교육은 정말 공부하고 싶은 누구나 공부해야 된다” 돈이랑 그런 걱정 없이

두 번째, 의료 우리 엄마 그거 농촌에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짓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어느 날 암 걸리셔서 서울에 원자력병원에 왔는데 병원비 대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 걱정하시고 뭐 어디서 돈이 나오냐구요? 시골에서 일 년 농사 다 지은 것 팔아도 엄마 그 병원비가 안 되는 것인데 그래놓고 어느 날 너네 가난하니까, 농촌에서 가난해서 학교 올라온 그 이런 식의 집단으로 이렇게 그 뭐죠 레벨을 붙여대는 이 세계가 저는 이보다도 더 야만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그런 거 마음이 계속 분노로 남아 있었죠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 그 데모를 했다고 그 학과 우리 지도교수가 불러서 자기 그 연구실로 불러서 한다는 얘기가 나가 가진 개인적 불만을 데모로 풀어 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는 이 교수가 나중에

는 학교 뒤에다가 슈퍼마켓을 사가지고 슈퍼마켓 주인이 되는 어용교수들을 보면서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면 그 뭔가 새로운 세상을 체험할 줄 알았어요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래서 아~ 아카데미 공부 좀 하고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그런 것 안에서 그 안도 시끄럽구나 그 돈도 벌어야 되지 학교 공부도 해야지 어쨌거나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경이롭고 정직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학생을 진짜 생각하고 잘 가르치는 실력 있는 그랬는데 제가 4학년 때 그 순위교사인가? 뭔가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졸업정원제 실시, 입학하는 세대였는데 82년에 시작인가 그랬을 거야 잘 찾아봐야겠지만 그게 없어 진거야 그래서 그냥 에이 휴~ 그냥~ 관두자! 그러고서 아버지한테서 내려가서 지내는 동안에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땀벌에 혼자 나가서 일을 그 밤낮 없이 해도 엄마가 막상 아프니까 병원비 제대로 대기에는 너무 힘든 거지

그때는 뭐 구제역인지 뭔지 몰랐지만 이상하게 소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 가족들의 그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 소도 가족의 일부였고 지금 생태주의 생태주의 하지만

생태주의의 모든 원리는 아버지, 어머니 시골에서 다 배웠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100%로 순환되는 것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줌도 싹혀가지고 삭혀서 보리밭에 갖다주고 이랬으니까 그릇 씻은 물까지 다해서 소 돼지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100% 순환하는 그 생태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다시 생태 생태 이런 거 그렇게 살아왔던 부모님들은

가난한 시절의 농부에 대해, 이러는 이런 제가 50초반인데, 그때 그 어린 시절의 그 조금 세상이 뭔가 모순이 있네 뭔가 잘못됐네, 왜 이렇지 이런 눈을 뜨고 봤었던 게 초등학교 4 5학년 때인데 11,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세월 안에 완벽하게 이렇게 다시 사람들이 주장과 이념으로 이념화된 생태주의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렇게 50년 앞도 못내 내다볼 수 없을까? 그렇게 우리의 어떤 감, 감각 내지 직관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스스로 하게 되죠

### 올라오자마자 청소년들이랑 같이 살았죠

86년 10월이에요 10월 한 20인가? 그때 가을에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청소년들이랑 같이 살았죠 사감이에요

기숙사 여성들이 여자애들이 청소년 여자 50명, 남자들도 한 40명 그렇게 됐었어요 4-50

명을 다 하면 8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한 30명이었던 것 같다

(기숙사 입소) 자격조건 있었죠, 일단은 생산직 노동자들 중심이었었고 그다음에 임금이 적어야 했고, 25세 미만이어야 했고, 지방에서 올라왔어야 됐고, 그러한 청소년들이 이제 기숙사에 올 수가 있었죠

## 생산직에서 서비스업종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80년 후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면, 아시안게임이 86년에 있었고 88년에 올림픽 이런 게 큰 줄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투쟁이 87년에 있었다면 이미 제조업이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조업이 막 붐을 이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안양의 그때 지금 1번가에 무슨 동부다방이니 뭐니 다방 몇 개, 술집 몇 개 또 그때 금성통신 제가 80년 다닐 때 79년 다닐 때 무슨 뭐 그 안양1번가에 무슨 삼겹살집에 가서 또 뭐 화진정 한식집 이 정도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갑자기 그때 금성통신 때 기억나요 월급을 탕다 하면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뭔가 그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게 이제 유흥문화죠

3차 산업이, 제가 연구자는 아니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이게 뭐지 이렇게 계속 이게 뭐야 하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러네 이게 이렇게 여기에 영향을 미쳤나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공장에 다닐 때 79년, 80년에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가서 막 그냥 사람들이 이것저것 구매도 하고, 그대에 노동자들의 월급이 평곤없었지만 그래도 소비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생산직에서 이런 서비스업종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제가 다시 대학을 졸업하고 근로자회관에 와보니까 이미 그때는 벽산 그 슬레이트가 있었던 자리에 벽산 쇼핑이 생긴 거예요 제조업이 있었던 자리에 벽산쇼핑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쇼핑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걸까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제조업자들의 노동자들이었는데 와보니까 3차 산업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슈퍼마켓의 캐시, 캐셔하는 사람들이 기숙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 생각은 또 뭐였냐라면, 사고를 바꾸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조업의 노동자가 노동자라고 생각한 거야 근로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슈퍼마켓의 캐셔라든지, 엘리베이터 걸이라든지 너희들도 노동자야 너 서비스업에 일하잖아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 사고를 깬 것이 그대에 87년 그쯤에 독일에서 가톨릭 노동장년회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근로자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이 독일의 임금노동자는 다 노동자다” 했어 어! 우리는 그 사고를 좁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는데, 어렵게 가졌죠 쉽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숙사에 많이 들어오고 그 대신에 뭐가 생겼냐 하면은 서서히 이제 집단생활을 하는 걸 선호하지 않았죠



그때만 하더라도 여자기숙사 한방에는 4명 5명 우리 살았을 때 5명 가득 살았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5명을 다 채울 수가 없었어요 많아 봐야 4명이나 대부분이 3명 그러니까, 옛날에는 6-70명이 살았지만 그때 되면 보태봐야 50명밖에 잘 수가 없었죠 그래도 아이들이 자그만 방이라도 내 방을 가지고 살고 싶다고 생각했죠 이제 들어오고 싶은 사람보다는 그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어야 했죠

그러면서 87년 그런 과정을 거치고 88년, 89년, 90년이 되면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 하나면, 그전에는 집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길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만 알게 된 거예요 가난하다고 우리가 집단으로 싸잡아 말한다거나 두 번째로는 여자아이니까 집안의 뭐 생계를 책임지거나, 언니 오빠들 아니 오빠들 남동생 학비를 대거나 이런 명분이 있었겠죠 여성노동자들이 올라오게 된 것들이 그 대신에 남자기숙사는 학력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부산기계공고 졸업하고 금성통신에 와서 그런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조금 있었죠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낮았죠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여성 근로자들도 야간고등학교를, 근명여상에 다닌다거나 이렇게 되었는데 3차 업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무슨 문제가 발생 하나면 옛날에는 그런 게 문제도 되지 않았었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 어떤 집의 오빠가 여동생을 때려가지고 피할 데가 없냐? 그러니까 기숙사에 들어가면 안되겠냐?

그다음에 엄마가 가출을 했는데 어린애가 갈 데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연락이 돼서 올라온,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완전히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문제에 이제 막 드러나는 아이들이 기숙사에 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런 복지의 문제 현재 세계의 문제들이 80년 말 90년 초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게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고 가난이 먼저 문제로 드러났죠

그러나 80년 말 90년 초로 오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지, 엄마가 가출했다든지, 아니면 애가 어디로 갈 데가 없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개인주의가 등장하면서 집단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나가서 사는 것, 이런 문제가 기숙사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 고민들이 많았어요 제가 있을 동안에는

## 근대화의 그늘, 그리고 기숙사

많이 등장했죠 그때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기숙생들이 많이 등장했죠 잠 기가 막혔어요 저희들이 매년 임금을 평균을 냈었어요 그런 정보들이 어디로 다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거기 기숙사 생활비를 내야 되는데 월급봉투를 다 가지고 오게 했어요 (월급) 쓸데 그래서 우리가 신용협동조합을 사실 불법으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월급 받을 때 ‘야 얼마라도 출자를 해라’

단 2-3만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몇 년이라도 해야 내가 나갈 때 방 보증금이라도 얻든지 다음을 뭘 하든지 지금 이주노동자들에게 똑같이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런 협동조합 운동이 뭔지를 훈련한 거예요 저희들도 같이하고 스텝들도 뭐 감사도 하고, 이사도 하고 이러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누가 우리 출자금 얼마고, 빌려주는 것 용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여신 있잖아요? 신용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다든지 얼마만큼 갚은 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집단구매를 했지 녹음기가 필요하다거나, 등산장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도매시장에 와서 집단으로 구매해서 우리가 같이 싸게 좋은 물품을 살 수 있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초기에 저희가 기숙사에 살 때는 소비조합도 했었어요 우리가 음료수라든지 비누라든지 생필품이 필요한 거면 그 안에서 사 먹고, 그것에 대한 남은 돈을 유가증권처럼 해서 소비한 사람이 다시 그 이익금을 돌려받는 이런 운동을 그 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와 우리가 저축과 내가 받는 돈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이런 게 됐죠

그런데 내가 느낀 게 뭐냐하면, 내가 79년 80년 다녔을 때에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86년, 87년 이때에 와서 임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진짜 지금 돌아보면 뭐 무슨 박정희가 잘했니, 전두환이 잘했니 못했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모르지만 정말 진짜 기업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을까? 정말 이렇게 이윤이 남으면 지금도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가 크레인에 올라가 있고 92년 박장수 씨가 안양병원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 그래서 근로자회관에서 밥 가지고 국이랑 나르고 이랬었던 그것이 개인적인 연결이 돼서 사실 한진중공업 김진숙씨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양에 너무나 이미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때 와가지고 우리 기숙생들이 월급봉투라고 선생님 가지고 와서 뭐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달라졌나? 여전히 아이들은 돈이 없고 옷 하나 사 입으려면 여전히 힘들고 그다음에 저축하나 하려면 너무 힘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90년대 초에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것은 더 나

빠졌죠 왜냐하면 연수제도라 해서 현지의 임금 수준으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산업사회는 완벽하게 야만적일 수가 없어요 제 체험으로는 그리고 그런 기업의 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재벌의 회장님이든 정말 양심 손에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성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에 제가 지금 학교 다니기 입학하기 전에 여기 서울에 있는 어떤 골프공 그 뭐야 장갑 만드는 공장에 다녔는데 저희 대모가 그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다녔었던 그 친구들이 주로 다녀가지고 같이 집에서 살면서 일을 했는데 수출하는 날 짜에 이렇게 맞춰야 되면 막 그냥 24시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무슨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들은 얘기는 어디에 뭐 땅 샀데 어디 뭐 샀데 그거 조그만 공장이니깐 다 알게 되죠 그럼 대기업들은 안 그랬어요 지금 온 나라를 이렇게 부동산 투기 열풍에 자기네들 골프장 짓고, 건물 짓고 또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온 이런 건데요 저는 제가 볼 때에는

그 노동자들은 무죄예요 죄가 있다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근로청소년들이랑 90년대 초 이렇게 살면서 기숙사는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해왔죠 그러자 제가 거기 근로자회관에 있으면서 92년 93년 이제 서서히 우리 근로자회관 근처는 중앙시장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보러 오는 노동자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이



1969년 3월 금성방직 여직공들



런 노동자들이 주변에 왔다갔다하고, 그 안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를 쓰기 위해서 들어오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우리 돌아가신 독일 말가리다 선생님이 코리아헤럴드 매일 아침에 함께 보는데 그 헤럴드 뉴스에 외국인노동자들에 관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300인 이상 업체의 10% 정도는 현지에서 데려온 노동자들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얘기해주시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가 어떻게 되고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제가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영어로 한두 마디를 한다는 핑계로 어떻게 왔냐, 어디에서 일하냐, 바자회를 한다면서 초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근로자회관 일하면서 제 개인사조 완전히 거기서 이런 일을 했다는니 마느니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3년부터는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사감하면서 이주노동자 상담 시작하게 된 거예요

## 근로자복지관에서 전진상복지관 관장으로

90년에 저음 갔어요 90년에 그렇게 그 87년 하여튼 안양도 시끄러웠잖아요 87년에 뭐 안양1 대로가 가득 잘 만큼 시끄러워 보였을 당시 우리 기숙생들이랑 나가서 뭐 같이 뛰어다니고 데모하고 밤낮 그랬죠 그러다가 우리 그 강당이 있었잖아요? 그 강당에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때 그 강당에 뭐 매일 그냥 87년 6월, 7월이 뜨거웠죠 그 강당 그래도 안양지역에 쓸 만한 강당이 거기였기 때문에 무대도 뭐고 가득 밤낮없이 토론이 벌어지고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다 지켜봤죠 저는 뭐 관찰자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에너지가 굉장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단체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저런 운동들이 안양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았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앞날이 안 보였었어요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기숙사 사감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삼협전기다 무슨 전기다 뭐 어디 전자회사다 우리 기숙생들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청소년 여자 근로자들이 매일매일 회사에서 노조 만들어져서 좋았다가 힘들었다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러면 밤에 노조 만들어주는 것 좀 도와주세요 자기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면 밤에 기숙사에 와라 막 정관이니 뭐니 이런 것 배끼고 가서 노조 만들었다 뭐 이려고서 왔는데 그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픈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뭐 분위기가 좋았다가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험악해지니까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게예요 사실 그게, 노동자들의 조건이 좋게 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나 그 투쟁과 개인적으로 막 대치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단으로 볼 때는 힘인데 개인적으로 와서는 집에 와서는 막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보람들이 자꾸 떨어지고요 사회는 시끄러

운데 개인적으로 와서는 뭐 계속 조금만 노조에 가입했다고 그러면 어느 날 발령 내고 막, 어느 날 이 일을 했던 애들을 저-쪽에 갔다 막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갔다 와서는 우리 같이 자는 기숙생들이 막 아프거나 못 일어나거나 그다음에는 거기 회사 다니기 싫어지고 맨날 3교대 돌아가다가 아프고 사실 그렇게 일을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나면 아파요 그러니까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똑같은 부품의 하나예요 그냥 그 기계의 부품의 하나 일회용품처럼 처리되는 거예요 일 그만두고 퇴직금 조금 받고 나면 아프고 아프면 온통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이러면 뭐가 남아요

그러니 저 개인적으로 그런 기숙생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졌어요 자꾸 우울하고, 80년 말 90년 초 이쯤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죽겠더라고요 이게 뭐가 좋아지는 세상인지? 어떻게 앞날을 볼 것인지? 그러는 자에 그때 여행자유화니 이런 게 생기면서 우리 가톨릭 내에서 사회교육협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우리 근로자회관처럼 유럽에서 오신 신부님들이나 우리와 같은 기관들이 전국에 많이 있었어요 안양에는 근로자회관, 대구에도 근로자회관, 구미에는 근로자센터, 마산에는 가톨릭 여성회관, 장원에는 사회교육센터, 이게 다 오스트리아라든지 독일에서 오신 신부님들이 지으신 또 안양에는 AFI들이 지었고, 이런 곳이 같이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사회교육협의회를 가톨릭집단 내에 거기에서 유럽에 사회교육기관들을 방문하는 세미나가 89년 시작이 되었는데 2회 때 90년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처음 가보면서 막 눈을 떴죠 이런 사회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닫힌 곳에서 우리들이 쓸러가며 우리는 아픈가? 그때가 동독하고 서독하고 동독되기 바로 직전이었던 거예요 둘러보면서 우리와 차이가 뭐고 다른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와서 노인대학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그만 근로자회관을 떠나고 95년 2월에 다시 오스트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달 훈련을 받았죠 지금 하고있는 훈련프로그램인 감마를 거기서 한 달 훈련프로그램을 받고 돌아와서 실습을 하고 7월에 그쪽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트레이너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 이런 비영리단체 바꾸자 아니면 교회도 달라지자!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95년에 다시 필리핀에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감마니 뭐니 일로써 공무를 하게 된 거고, 한 축으로는 제가 근로자회관을 교회신분인 AFI라는 공동체인데 일 년부터 거기에 수련자로 입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다가 95년에 8월에 벨기에 가서 서약을 했어요 벨기에에서 한 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고 그리고 나서 국제 수련을 해야 했기 때문에 10월에 필리핀에 갔죠 1년 동안 지내면서 신학공부 하고 가난한 지역에 가서 살기도 하고, 96년에 다시 와서 근로자회관 관장으로 준비하고, 97년에 안양전진상복지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관장을 하면서 왜냐하면 복지문제들이 막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97년에 대학원 과정을 다녔죠 가톨릭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금 신학공부하고 있어요 서강대학교에서 지금 3학기 끝났어요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전공 왜냐하면 계속 질문이 올라오니까 대체 이 복잡한 문제, 이 90년 중반 이주노동자들이 올라오면서 너무 복잡한 세상이 되고 이러면서 저 스스로 갖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을 밖에서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찾고 그러한 사람들하고 연결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인간이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자 하고 이제 3학기째예요

## 나눔과 쉼터의 설치, 이주노동자상담소

근로자회관에 이제 안양전진상복지관이 되기 전에 근로자회관 시절에 돌아오자마자 이주노동자 상담소를 설치했죠 97년에는 그 이름으로 개소식을 한 것이고 오자마자 이제 이주노동자 상담을 97년 3월부터 실무자가 정식으로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같이 일했었던 성미영 안젤라라고 지금 과테말라에 가 있어요 매리놀 수녀가 되어 가지고 같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집에서 상담을 93년에 시작을 한 것이고 관장이 되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집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안양시 '노동자의 집'이라는 걸로 이렇게 실무 일을 성미영 안젤라가 시작했죠 97년 3월에 그 일을 실무로 해서 세팅을 하고 그 해 97년 10월인가에 개소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나서 여러가지 여성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1366이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특별법들도 생기고 이런 변화도 있었으니까 가능하게 된 거죠

## 샤말 타파와의 인연

한국감마연구소 소장인데 그것도 이제 곧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서 후배들에게 전달을 해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200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느냐면 복지관 안에 이주노동자 쉼터에서 와서 아파가지고 쉬었던 샤말타파라고 있는데, 샤말타파가 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그 지부장이었어요 우리나라 기록은 잠 꾀한데요 지금 현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그런데 1대에 그것에 전신이 이제 그 '서울경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평등노조이주지부, 이주노조 처음에는 이은주라는 한국인이 지부장이었는데 이후에 처음으로 이주노동자로 지부장이 된 게 샤말타파예요 안양에서 노동자였죠 이주노동자 그러다가 이제 이 이주노조로 독립해 만든 게 지금 현재 이주노조거든요 사실 그게 나오기까



지는 이주노조지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부장을 맡았던 샤말타파가 안양에 같이 살았었는데, 고용허가제법이 만들어지고 명동성당에서 2003년 11월에 농성이 크고 길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샤말이 경찰에 연행이 되어가지고, 여수보호소에서 오랫동안 수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식하던 중에 2004년 4월 1일 날 만우절 날 자기 생일날 그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이 양쪽 손을 팔짱 끼고서 네팔까지 송환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네팔로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샤말이랑 같이 연결해서, 그전에는 IMF 때 98년에 1세대가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한 사람들이랑 약속한 게 있었어요 네팔에 돌아가면 사회복지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원을 어떻게 해보마 해서 내가 네팔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했었던 김옥기 선생님이 이제 그쪽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되어서 그 전에 많이 왔다갔다해서 학교도 설립이 됐었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가게 된 것은 2004년이에요 2004년에 가서 샤말이 만든 샤말이 여수보호소에서 편지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죠 그것 판매를 해서 기금을 가지고 가서 샤말이 그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때부터 2005년부터 아동노동 하는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5월에 아시아어린이와 함께 라는 NGO를 서울시 국제협력과에 등록했어요 그것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교구를 맡았겠죠 그리고 인재 서정림 선생님 돌아가시고 제가 96년에 와서 준비하는데 97년에 관장이 되자마자 그때에 그 죄턱기 주교님께서 주교님으로 작좌를 하셨어요 그때에 97년에 96년, 97년에 그러자 어느 날 제가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국장 신부님이 오셔서 가지고 뭐 집을 한 바퀴 쓱 둘러보시더니만 그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집이

## 그 집은 근로자들의 집이에요 수많은 사람의 집이죠

운영을 지금까지 교구 소속으로 잘했으니까 뭐 10년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연장을 할 수 있다 사업 승인 뭐 이런 걸로 한다 갑과 을의 계약을 계약서를 써서 보내 줬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인재 그걸 아피(AFI)랑도 우리 거기 설립자이신 한성인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우리가 10년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있는 한은 하겠다 (일을) 하는 한 뭐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10년 하고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서는 그때 제가 도장을 팡 찍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사업을 저희는 그것 때문에라도 못할 것 없으니까 계속 사업을 이어왔는데, 저 스스로 그 10년을 다 채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도모하는 것보다는 너무 내 개인적으로 지쳤고 힘들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후임자로 관장을 좀 이렇게 물려나서 다시

협력해서 이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모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후임 관장이 오자마자 그 약정서를 근거로 뭐 문을 닫으라고 하기 시작했죠 그걸로 이제 끝내는 걸로 하라 교구에 서 신부님들하고 교회 방침으로 결정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것에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죠 완전히 저는 교회를 믿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도 하고, 우리가 해온 역사도 있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 사업을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임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을 의논하면서 '나가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후에 연장을 할 거냐 이것을 계속해 나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이런 의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새내기 후임자가 되자마자 갑과 을의 관계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것 저는 교회에 대해서 뭐 너무나 참 실망을 하고, 교회 안에 오랫동안 해왔었던 일들이 도대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한 인간으로서의 그 허탈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하죠 저의 존재가 그곳에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근로자들의 집이에요 그곳을 그 자기 집처럼 생각해 왔던 그리고 해외에서 왔었던 그 노동자들도 누구나 도와가며 그곳에 가야 될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죠 한 공간 자체가 그냥 하나의 이래도 그만 저래도 될 공간은 아니죠 이런 프로젝트도 왜 하겠어요 만안구라는 지역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삶에서 터, 그 삶의 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될 텐데, 뭐 단순히 누가 사업을 하고 안하고 이 문제가 아니죠 거기는 우리 아피들이 삶을 가꾸어 놓은 곳이죠 그런 곳을 어느 날 약정 기간이 있으니까 떠나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지낸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지

한두 달 사이에 싹 정리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진통을 알았죠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이렇다저렇다 속 시원히 공개하기도 참 힘들었고 그 모든 원인을 제가 제공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도장을 찍어 줬으니까 저 때에 시작할 때에 그런데 저는 시작할 때에 뭐 이런 식으로 저러 될 거라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어떤 그 공적 개인적, 단체 하나 이 시대 역사가 고스란히 있는 곳이니까 물론 뭐 집도 낡았고 수리비다 집도 전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별도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신부님들이 우리가 잘 해볼 테니까 당신들께서 떠나도 그것을 유지하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참 여성들이 발붙일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신부님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

지금도 아마 거기 근로자회관 기숙생들의 모임은 계속 그 뭐가 그 카페도 있고 근로자회관 다음카페 지시면 뭐 몇 명들이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

여서

안양근로지회관 지면은 있을 텐데 저로서는 특별히 모임 하는 것 없어요 거기 스텝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이렇게들 하시는데 저는 특별히 모여서 그럴 일도 아닌 것 같고 그 안양이주노동자의 집이 이제 군포 아시아의 장으로서의 이제, 그 실무자들이 자기들이 남아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잠반가운 일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시아 어린이와 함께 그 몇몇 이렇게 운영사업 하는 분들이 있고 옛날에 실장님이라든가 자원봉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이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자 이리지는 않아요

전진상복지관에서 생산된 기록들이 많았는데 없어요 저는 그냥 그때에 저는 35년 되기도 전에 빨리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때에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도 있고, 이거라도 정리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내가 뭘했나? 이러한 그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분산해서 해도 되겠죠, 그렇지마는 거기를 짓고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혼신의 힘을 쏟아 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융합돼서 일구어냈었던 그 인간적인 에너지, 그 에너지, 그 삶을 좀 더 낮게 갖고자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에너지를 담아내겠느냐 고민 무지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면 까딱했으면 시기적으로 35년사를 못 할 수도 있었겠죠 그사(35년사)를 쓰기 위해서 3년 이상 걸렸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고 이렇게 뭐 어떤 선생님이 먼저 시작했다가,



근로자들의 집



그다음에 또 다음 선생님이 그 필진도 그 두 번 두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상저죠 저희가 거기에서 그렇게 나온 것 자체가 상저죠 그냥 그걸 교회가 원망스럽다 주교님이 그럴 수가 있는냐? 이런 문제보다도 일단은 좀 더 우리가 논의가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가 아닌가? 함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구가 그런 것을 지금 정말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의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죠 신부님들 주교님들이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게 무조건 하시는 건가? 그러면은 우리 이런 그 여성들이 그런 40년 동안 가까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해왔던 역사는 뭔가? 하는 의문이 남죠 잠

## 관심을 갖고 계획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영리단체들에게 가서 학사 지도하고 지도력 교육이라든지 감마프로그램은 95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복지관에도 감마연구소가 있었고 안양에 그리고 전국에 트레이너도 100명 이상이 있고, 이것은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룹이 함께해온 거죠 직책과 상관없이 이것은 저희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온 것인데, 이것도 인제 올해 아마도 정리해서 3/40대 젊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인재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7월 15일 12주년 기념식도 하고 잘 물려줄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노동자들 만났던 80부터 지금 살아왔었던 사람들, 이주노동자들 또 이런 사회운동을 이주노동자 운동을 했던 친구들을 후배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관계를 해오면서 갖게 되는 고민은 사람들이 자기가 꽃피어지고, 좀 더 자기답게 성장하고 좀 생명력을 잃지 않으면서 소실되지 않으면서 더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활동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아픈 거예요 소진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 월급을 많이 받아 활동비가 많이 있어요? 저희 이주여성인권연대, 이주노동자연대 이주연대 두 개 네트워크를 2000년 이후에 함께 해오면서 거기서 만난 활동가들이 제가 접한 가까이 접한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다 아- 뭐 개인적으로 힘들어하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사람들이 아프면 자유 받으면 참 좋겠다 사람들이 더 이렇게 깊은 곳에 스스로에 내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참 좋겠다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상담도 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도 해주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앞으로 미래에 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영성이든지 명상이라든지 상담교육인지 이런 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심한 고민도 하게 되는데 구조나 이런 것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안양집을 그 60년대 그렇게 근로자들을 위해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인해서 제가 한 것은 없는데 그런 노동운동분야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다는 것 알게 됐다는 것은 저에게 큰 그 행운이고,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게 됐다는 게 큰 행운이고, 그다음에 감마를 하면서 전국의 여성복지나 사회복지 또 NGO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런 속살을 열어 보이는 것이잖아요? 자기 조직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 같은 몇 박 며칠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젊은 사회복지사들이나 NGO 활동가들이나 여성 관련된 상담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지를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은 저 자신에겐 큰 행운이자 자산인 것 같아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자산으로 사람들이 더 잘 성직자답게 자기답게 성장할 수 있는데 제가 함께 이렇게 동반을 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지금 현재 계속 질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이런 것을 하겠다 뭐 크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만나서 서로 밥 먹고 대화하고 자 마시고 이러면 서로에 회복되고 좋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데 지금 환경이 공사다 개발이다 뭐다 다 파헤쳐지고 이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어디 지금 여기는 공동제이니까 와서 그나마 두 경짜리 방 한 칸이라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 그다음에 몸 뉘을 곳이라도 있을 것인지 그런 궁금증이 들죠.

## 근로자의 심장, 만안

만안이라고 하면은 저희에는 안양4동 중앙성당과 그 안양역에서부터죠. 그죠 안양역에서 쪽 내리면 일번가를 지나서, 사거리 외환은행 지나서, 그다음에 성당 있는 그 앞길을 지나갔고 근로자회관 중앙시장 그리고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살았던 덕전마을 그냥 안양5, 6동 이쪽에도 굉장히 조그만 공장들에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거든요. 그런 기억들 그다음에 박달동에도 우리 그 네팔 노동자들이 진짜 몇 100만 원 월급을 안 줬다고 제가 이 신협에서 대출까지 해줘서 월급 좀 주세요 돈 2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저한테 갚지 않고 도망간 사장님도 있어요. 저 없는 살림에 그것을 일 년 동안 한 달에 20만원씩 대부분을 갚았어요. 그런 노동자들을 봐주러 사장님 만나러 갔다가 있는 대로 욕을 들어먹었던 박달동.

그다음에 유원지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소풍도 가고 관악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던, 이런 그 지역 전제가 추억이고 삶의 터였었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항상 우리 집 중심으로 생각했으니까 그 근로자회관이 있었던 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생명이 숨 쉬는 곳이죠.



1970년대 안양4동 벽산로

여기는 안양이 어떻게 허파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 자체가 가지는 정원 식물들, 그리고 그 체육관 옛날에 있었던 그 방안에서 체육관 유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정원을 내다보면 파라다이스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걸 체험하는 것들이 그 체험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때 복지관 안에 나누리예술단이라고 엄마들의 공연예술단이 있어서, 그분들이랑 사이판도 가고 독일도 공연하러 갔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서 춤 무슨 민요 이런 것들을 다 지하실에서 하고 그 체육관에서 연습했었는데 그분들의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곳은 정말 영적인 기운들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을 그저 오면은 저절로 기도가 일어나고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자기들끼리의 작용이 일어나서 따로 치유니 뭐니 할 말을 할 필요도 없었죠 그다음에 그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생명력, 그리고 중앙성당에 모여서 새벽이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아주머니들, 그리고 그 하나하나 상가 상가마다 있었던 분들의 어떤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만안구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각각의 재주를 가지고 그 작지만 그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구어내는 어떤 문화의 그 생산지 인간답게 어우러져 어우렁 어우렁 투박하게 사는 생산지다 이런 곳이죠 만안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곳이 시멘트 바닥이 되는 곳은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전진상이라는 곳이, 근로자회관이라는 곳이 그 안에서 자원자, 이용자, 그곳의 스태프들 모든 사람들이 아 여기는 우리들만의 어떤 그~ 공간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곳이다**

그러니까 저기는 정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해요 어디를 생각하면 가고 싶어야 해요 그리고 그곳을 생각하면 누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아 거기 가면 저기 자 한 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해요 그저 가면 진짜 그런 곳이어야 해요 그럼 거기 가서 그냥 차도 마시고 밥을 먹고 막 웃고 떠들면 어느새 회복됐구나, 그런 곳이 어딘가는 있어야 해요 우리 마음 안에 고향 같은 곳이 고향이 그런 데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슬퍼진다는 거예요 시멘트가 해결해주지 않아요 저녁에 퇴근하는 곳이 그런 것을 절대로 해결해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너무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몇 개 문을 지나가서 만나야 되는 그런 곳으로 해결해줄 수 없어요 접수실에서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나고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가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어디라도 저도 뭐 관장이 되고 그러니까 저음에는 이렇게 접수실에서 ‘어-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랬나 봐요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높은 사람 아니니까 오면 누구라도 만나겠다 하면 만나자!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느냐면 거기서 무슨 국선 아니 태극 태극권 프로그램을 한번 열었을 때인데 약간 정신장애인 남자 분이 오셔서 가지고 관장님을 만나고 싶어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태극권 도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태권도 도장하면 관장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태극권을 하니까 그 태극권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관장님을 만



나고 싶다 내려가니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태극권 배우러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태극권 선생님 있어요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 접근성이라는 것은 위치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접근성이라는 것은 그곳에 가면 열린 곳이다 누구도 만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전진상이라는 곳이, 근로자회관이라는 곳이 그 안에서 자원자 이용자 그곳의 스태프들 모든 사람들이 아 여기는 우리들만의 어떤 그 공간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곳이다 그다음에는 그 돈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었던 유형무형의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 인간적으로 그것은 문화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의 사회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시멘트로 모든 것이 덮어지는 순간에 그리고 그냥 하나의 그냥 공간으로서나 이렇게 개념화될 때는 이미 그것은 사라진 거다 그리고 우리가 떠남과 동시에 그곳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갔었던

그 모든 것은 추억으로 남았다 남았는데 그것도 가고 있는 사람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없다 남아있는 신부님들이 그런 걸 잘 만들어 내셔라 어 그리고 싶죠



전진상복지관 이금연 관장

저는 지유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가능하다고 하면 동네에 생긴다면 좋은데, 군포에서 지난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군포를 떠나 안양 군포에 있던 지하실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었던 애기지 거기 안양 집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과 원망과 막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랬는데 나름대로 그 지하에서 여성들 송용미 신용선 선생님, 수원여성의전화 최종숙 선생님 윤순영 선생님 영성모임을 하면서 그때 여성분들끼리 모여서 자 마시고, 밥해 먹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생산적인 에너지가 나는 것 그런 시간 좀 갖고 싶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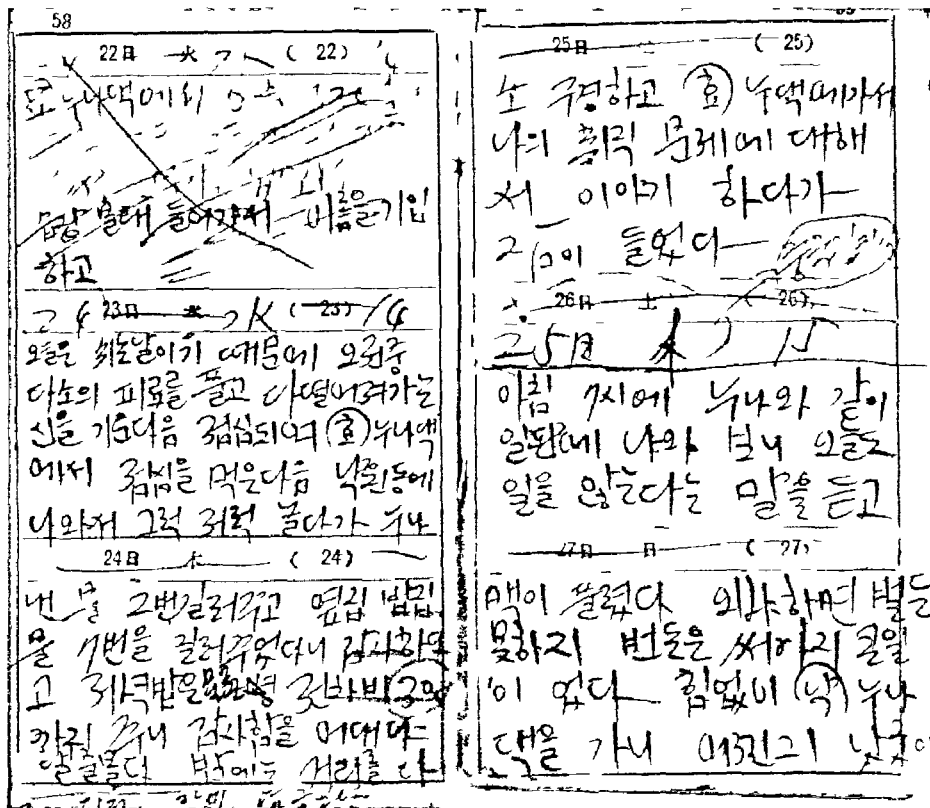
구술자 이금연(61년생, 여), 구술일자 2011년 7월 2일

## 책 72권으로 대동문고를 이룬다

안양의 자존심 대동문고, 현재 안양1동 668 33 본프라자 1 지하 1 2층에 약 1 000여 평 넓이로 자리 잡고 있다 종업원 50여 명,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도서는 줄잡아 40여만 권 운영하는 규모로 보아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 최상을 자랑하는 대형서점이다 단돈 1만 원으로 시작한 책방을 오늘날 대동문고로 일구어낸 사람은 전영선님이다

### 전영선 씨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영광에서 서울로 상경했다

나야, 고향을 떠난 것은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가난한 정말, 돌밥 속의 조밥 술갈로 찌르면 아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처진 동네고 그래서 떠날 돈이 없으니 까 중학교만 나오고 상급 학교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남의 집에 양자를 보냈는데 그 양자 가지고도 그냥 공부만 하겠다고 하니깐 그 집에서 베푼 가마니를 주터니 나가라고 하더군 우리 집에는 하도 가난하니까 단 십 원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영광 거기에서 시간이 꼭 16시간 걸렸더라고 영광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서울 책가방 하나 들고 공부하고 싶어서 떠난 거지 그리고 가난하니까



오래된 일기장 물 7번 길러주고 저녁밥과 전자비까지

## 서울에 올라와 처음 시작한 일은 물을 길러다 주는 일이었다

맨 처음 한 일이 종로2가 낙원동에 거기 가면 공동수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음식점이 아래층위 따다닥 붙어있지 관장집처럼 공동수도가 있어서 물을 길러다 줘야 하니까 벼 한가마 가지고 서울 와서 내복도 없이 1958년 12월 1일 날 왔는데 와서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 밥은 인제 물을 7번 길러다 주면 밥 얻어 3번 길러주면 누룽지 얻어먹고 연명하고 거기 장갑이 없잖아요 거기서 장갑을 빌려가지고 하루노동하면 예를 들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현금을 안 주고 전표를 주잖아 거기서 또 아리짱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만원 현금 받아야 할걸 종이로 받으면 팔전원에 장갑값이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하루하고 그때는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 죽 있잖아요 점심에는 삼원짜리 그거 먹어봤잖아

## 그 후 그는 중국집에 취직하게 된다

그때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그때 겨울을 지내야 하잖아 12월 1일 날 나와 가지고 12월 이십 며칠부터 저기 했더라고 도저히 어려우니까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을지로2가의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았지 회영루라는 있어 회영루라는 중국집의 주방에 취직을 했지

<p>4日 金 (4)</p> <p>손을 활 붙어이러 물 2번 은 길러하는 날 하던 생애 는 배장간이신 신시외장 한대기 물 7번은 인제나나나 미군부대에 가서 장갑 과 5日 土 (5)</p>	<p>7日 日 (7)</p> <p>3</p>
<p>6日 日 (6)</p>	<p>8日 火 (8)</p> <p>1일 2일이나 (무동서 한대기 다음집한도 한대에 신시 농장지 한대물 갖다 미군 일한대 나기나 9일</p>
<p>6日 日 (6)</p>	<p>9日 火 (9)</p> <p>이날 나브 반복은 조으 리9 마는 인제한 고생이 인으로부터 나기 악리는 7일 를 하기 비교는 건지 4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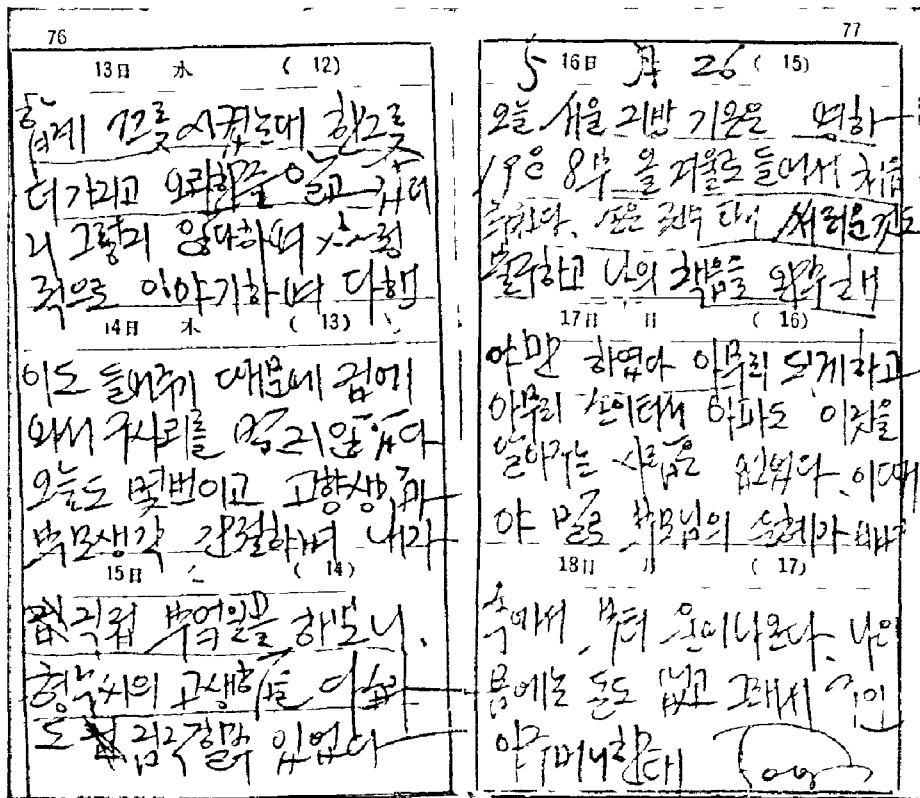
오래된 일기장 물 3번 길러주고



거기 주방에 취직을 했는데 이게 그릇을 씻고 말이야 그러니 뭐 서투르니까는 삐뚜르면 그릇이 깨지지 그래서 우동만드는 주방장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하나씩 깨지면 나중에 깨지면 몰래 눈치 보고 감주는 거야 중국 사람이 12시에 끝나면 뭐 석탄 같은 거 그런 거 끝나고 제일 하바리 주방에서 한 놈이 다 깨서 아집에 난로를 다 피고 또 주방에 피고 창고에 가서 영하 18도 20도 그럴 때라고 구정물 같은 거 문 열고 버리면 잔바람에 아가리 짹짹 갈라지는 거지 그리고 그냥 창고에 가서 이게 깨면은 이 저기하고 올라 보면 씻다 보면 얼굴이 거기도 까맣게 되어있더라고 석탄의 까만재 다다미방에서 뭐 이불이 있어 뭐가 있어 새벽에 벨 울려서 또 깨우는 거지 또 그때 일어나는 거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주방에 있는데 야 저놈의 폴에 우동 배달이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원인이 돼서 배달을 했어

중국집에서 일하던 시절 그는 공부하고 싶은 의지를 신문 읽기로 대신하곤 했다 하지만 그에게 신문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내가 공부하려고 나온 놈인데 이런 데서 이 짓이나 해야 하나 그러다 보니까 피할 길은 화장실밖에 없잖아 화장실에 신문이라도 가져가서 읽을 라고하면 거기 딸년이 말이야 뚱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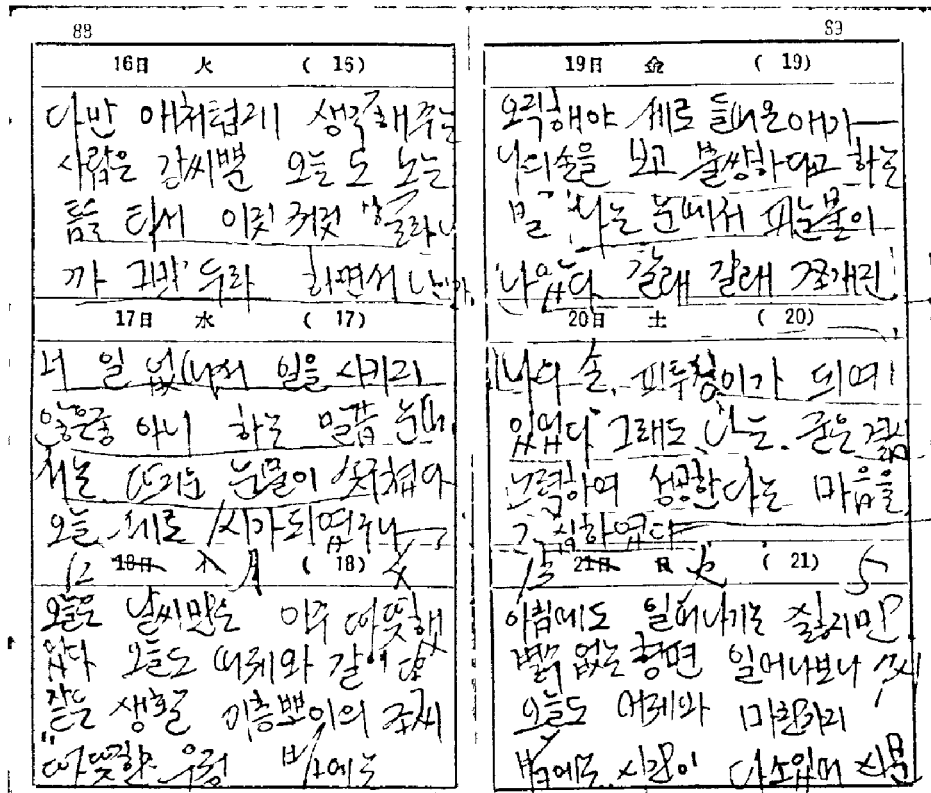


오래된 일기장 서울 기온 영하 19C 손이 터서 아파도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때야 말로 부모님의 은혜가 뼈속에서 부터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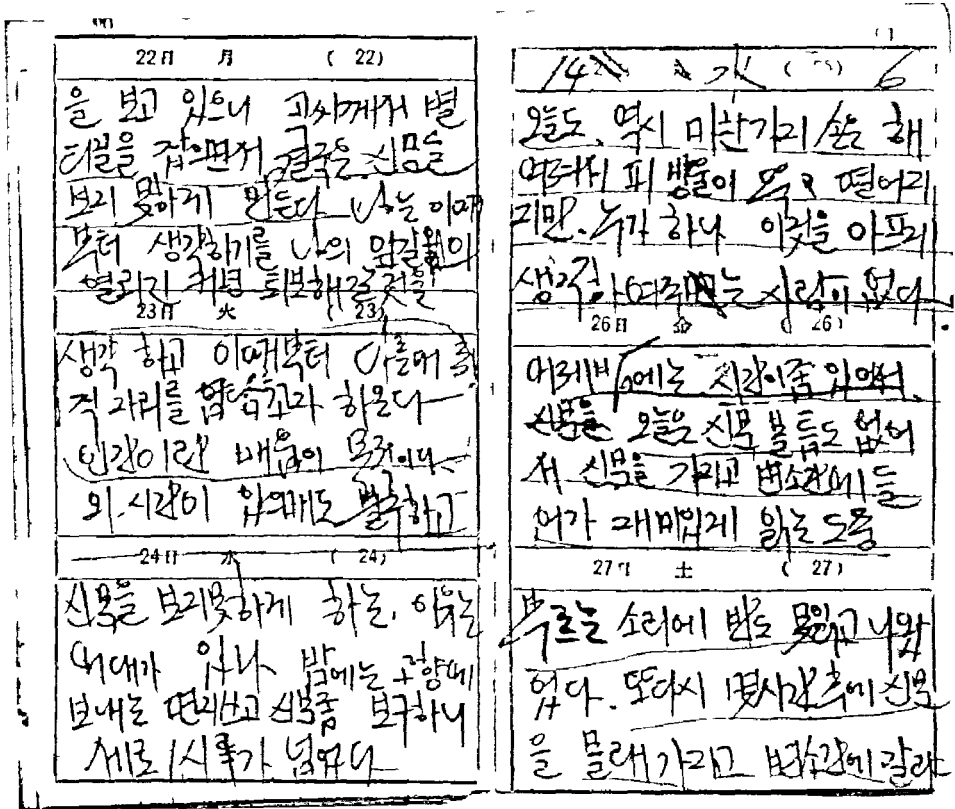
한데 말이야 신문 가져가면 풍냄새 나니까 가져가고 말라고 더럽게 신문을 꼭 붙잡고 뺏어버리고

1960년도 그는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봄이 되자 따뜻할 때 그때는 아이스끼끼 있잖아요 아이스끼끼 아이스크림 집에서 거기서 이놈의 아이스크림 소리가 나와야지 골목에 가서 외쳐보는 거지 아이스끼끼 옛날에 병 같은걸 받고 아이스끼끼를 주는데 그 병이 아이스끼끼를 예를 들어서 세 개를 주면은 고겨 병을 팔면 네 개 다섯 개 값이 된다고 맥주병이 비쌌다고 현금으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전원이지면 세 개인데 고겨는 전 이삼백원 벌수 있다는 거야 아이스끼끼 집에서 다수거하지 아이스끼끼 끝나고 그다음에 등등 미는 거 등사 이런것도 뺑뺑이를 했잖아 뺑뺑이를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다 해가지고 실로 다 꺾어서 양쪽에다가 매고 산동네 구멍가게 다 매고 구멍가게 마다다 외상으로 끼는거야 그다음에 동대문에 가서 머루지 장사를 했어 등에다가 한 열포 사면은 의정부 동두전 할 것 없이 팔려다녔지



오래된 일기장 나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왔다 갈래 갈래 찌개진 나의 손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나는 굳은 결심 노력하여 성공을 다짐하였다



오래된 일기장 오늘은 신문 볼 틈도 없어서 신문을 가지고 변소에 들어가 재미있게 읽는 도중 부르  
는 소리에 반도 못 읽고 나왔다 또다시 몇 시간 후에 신문을 몰래 가지고 변소에 갈라

1961년 5월 15일 친구의 권유로 그는 책자판을 시작했다

친구가 나보다 내 살 더 먹었는데 그놈이 고향의 동장은 아닌데 이장도 십삼 년 하고 그  
런데 그래가지고는 야 이 새끼야 너는 전냥 책장사나 해떡을 놓이다 거기서 계기를 준 거야  
왜그러냐면은 이게 단어장을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보고 거기서 계기가 되어서, 책장사 하려면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한탄장 여기가 괜찮을까 그래서 글로 간 거야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리  
어카 팔고 그래가지고 인제 소자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인제 드디어 61년도 그때 61년도  
4월인가 거기 저거였는데 내가 생일이 음력으로로는 4월 20일인데 내가 태어난 날이 양력으로  
5월 15일 스승의 날이거든 그래서 내가 스승의 날이 태어나고 서점을 한 동기가 장사가 아니고  
교육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했기 때문에 아 스승의 날 태어났구나 해서 내가 장립기념을 저기  
를 장사 일을 내가 5월 15일로 날짜를 그래서 리어카 팔아가지고 그 앞에 포천상회라고

책이 72권이더라고 그래서 인제 돈을 계산해서 21만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그 양반이 내가 지금 안양에 와가지고 신세를 좀 평생 동안 갚아  
야 하는데 그 기독교를 다니는 아주머니 한분이 있는데 거기서 팔죽장사를 서울에 인제 와서



결혼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진정에 와서 외동딸인데 나보다도 계산해보니까 열열살인가 지금 팔십칠팔세 되겠구나 그 양반이 앞에서 하다가 내가 조그마한 가게는 한 세 평정도 되나 방이 다섯 평 정도 방이 있길래 그 앞에 있길래 가게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앞에 팔죽장사를 하면서 나보고 자꾸 그러는 거야 젊은 사람이 이런 데서 있으면 전망이 없으니까 자꾸 나가라고 자꾸 나가라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고는 안양과 연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그러자 사고가 났어 동맥정맥 다 잘리고 거기서 미군부대 의정부에 다 후송 되가지고 동맥정맥 다 이어서 지금 내가 병신이 됐어 군부대가 시설이 잘됐으니까 헬리콥터가 빨리 저기해가지 의정부 해가지고 후송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거기서는 1막이 끝났지 치료도 하고 서점도 하고 저기하는 동안에 아줌마가 하여튼 돈 얼마인지 털어서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저기저 안양에 발을 디뎌가지고 드디어

### 사고 이후 그는 안양에 정착하게 된다



1970년대 안양여고 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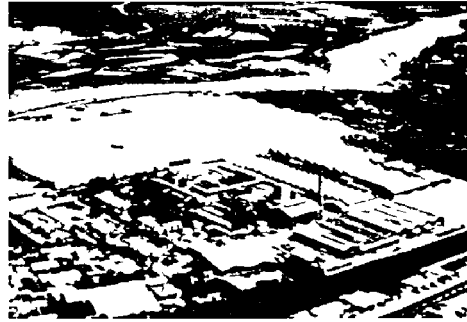
안양에 63년도 7월에 인제 안양여고 앞에 그때 옛날에 콩밭 수수밭 있는데 딱 집 한 채 있더라고 거기 콩밭 수수밭 집 한 채 안양여고 바로 앞에 그래가지고 내가 안양여고 그때 내가 와가지고 이제 거기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연탄불 피우고 그래가지고 좌판을 손수 사다가 짚지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군용 야전용 침대 놓고 자면서 국수먹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인제 지금 전번에 그 아주머니 만났는데 나보다 한 살 나

하고 동갑이던가 그런데 거기 아주머니가 보편하고 그러는데 지금 살아있어 가끔 만나 저번에도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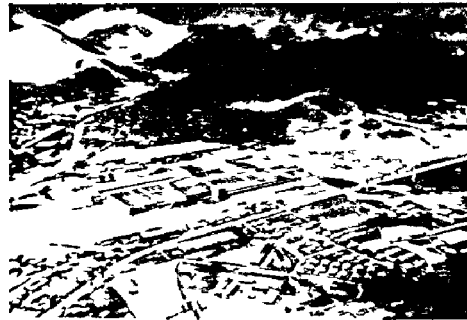
안양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그는 좌판 장사를 시작했다

가장 크게 좌우된 것은 금성방직 태평방직이 좌우가 됐고 몇 시에 교대냐면 아짐여섯시에 교대가 들어가는 사람은 한 다섯 시반이나 들어가고 오는 사람은 여섯시 교대로 가서 장사해야 돼 일찍가서 주운데 거적대기 같은거 물고 딱 깔아놓고 자리찾고 있어야 돼 새벽 다

섯 시까지 나가서 좋은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거기 앞에다가 장사꾼들이 꼭 이렇게 양쪽에 길을 내야 될 거 아냐 정문에서부터 꼭 양쪽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책 대여섯박스에다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지금 돈으로 삼십 만 원 정도 됐다 그렇게 양쪽에다 쪽 놓고 나는 책 다섯박스 정도 거든 그전에는 책 박스가 덮고 열고 있어 책 두줄로 하면 박스가 요만큼 책도 들어가고 요런정도 다섯박스정도 실으면 그러면은 다 실어서 이렇게 놓고 옛날에는 카바이트 불빛이 있어 카바이볼 빛 꼭 켜놓고 거기서 이제 외상도 주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수금도 하고 새벽에 다섯 시나 짓고 있다가 여섯시 일곱시면 다 끝나 이제 들고 나와 한 두 시간 두 시간 자야지 아침에는 본 점포를 열어 또 가져다 본점 이제 학생들이 또 몇 권 팔아 또 이제 짐싸 각 공장 회사 정문으로 가 회사 직원들은 책을 많이 봤어



1960년대 태평방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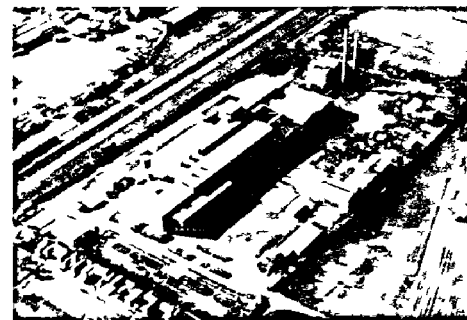
1960년대 금성방직

### 좌판 장사를 하면서 그는 새로운 인연을 맺기도 했다

책을 많이 봤어 각 공장마다 순회하는 거지 동공물산 유유산업 아트제지 한국제지 뭐 그런데 다니면서 정문에다 점심때 깔아놓고 예들 들어서 한국제지 같은 그런데는 정문수위가 정진황 씨라고 나하고 잠 끝까지 인연 되다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딸이 정은혁이라고 남편이 한미은행 다니는데 그 인연이 지금까지 되는데 정진황 씨가 수위를 할 때 많이 권리를 봐주고 그래가지고 55세 때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또 다른데 취직해서 육십세 정년퇴직했는데 칠년인가 내가 서점에 있어가지고 77세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퇴직한 그런 인연도 있고

### 그에게 편의를 봐줬던 수위아저씨의 정년퇴임 이후 그는 서점에서 일하게 되었다

68년도 1월 7일날 이사 갔는데 거기다 세평 네 평 저기하고 서점하고 세 평 네 평은 방인데 거기서 뭐 가난하니까 여동생도 오고 남동



1960년대 한국제지

생도 오고 우리 어머니고 오고 서너평에서 자면서 거기서 68년도 1월 19일날 그래서 결혼을 7일 날 해가지고 그니까 한 19일 이니까 12일 만에 결혼한거지 금반지 하나 해줬지 그러가지고 한 달 만에 금반지 잠깐 빌려달라고 그거 팔아서 그걸로 빚 갚아버리고

그는 대형 서점에 맞선 자신의 서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내가 서점을 시작했으니까 서점은 책을 통해서 교육이란 말이야 교육 쪽은 안양의 나는, 내가, 그 정말 어떻게 말아야겠다면 잡 건방진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에 자꾸 작고 큰 것을 양심껏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를 비오는 날 뒤에 헤드라이트를 보고 가면 실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누구는 지난번에 대학에서 리포트를 쓰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머니라고 리포트 썼다고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내가 아주 감동해서 칭찬했는데 난 그거야 뭐 지금 현재 책을 통해서 위인전의 무슨 공자다 맹자다 하느님이다 부저님이다 무슨 뭐 베토벤, 아니 언제 봤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야, 신념이나 의식이나 행동이나 그것도 재우지 못하면서 그 유명한 사람은 왜 그거를 읽어가지고 실천도 못하고 하냐는 거야 나는 그런 주의야 내가 이렇게 자취 하는 거 보다는 노점장사 그때 돈 21만원부터 이만큼 일어났으면 뭔가 그 사람들 신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7층부터 9층까지 해서 서점 하나를 일궈냈으면 현재 바로 옆에 인물 있잖아 내가 가장 여기서 실재한 게 교보 저놈 새끼들이 와가지고 오기로 저게 그대로 있어야 내 인생도 그렇고 안양의 문화나 정서나 말 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멋있게 게임이 끝나는데

그의 서점은 아쉽게도 2008년 11월 26일 부도가 났다

구술자 전영선(42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7월 14일



대동문고 전영선



## 서민의 발이 되어준 신관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이 대중교통이다 안양에서 판교까지 그리고 영등포로 등집을 지고 가던 시절에 서민의 발이 되어준 버스는 커다란 위로가 아닐 수 없다 다 쓴 드럼통을 망치로 퍼서 자재를 충당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희미한 백열구 하나로 버스정비를 하던 노고들이 모여 안양 대중교통의 산실이 되었다

### 안양 대중교통의 산증인, 신관선을 만나다

안양 공립 초등학교 17회 졸업생인 신관선 씨는 안양 중학교에 다니던 중에 6·25 사변을 겪었다 아버지 고향인 충남 예산으로 피난을 갔다 온 신관선 씨는 이후 자동차 관련 일에 몰두하였다

17살 때 왔다 갔다 했어 폭격 맞아서 다 없어졌거든 없어졌는데 우리 집이 역전 앞에 롯데 백화점과 맞은 편인데 거기 집이 타다 말았다고 그래서 그걸로 거기에 살기 시작했지 그때는 내가 면허증도 없었지 내가 18살 19살 때 운전을 하기 시작했지 눈에 세워 놔던거 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면허증을 56년 8월 10일인가 따고 58년도 군을 갔어

### 신관선 씨는 제대 후 본격적으로 자동차 관련 일에 종사하였다

69년도 그전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었죠 56년도 그때에는 그런 게 두들겨서 만들고 타서 시작을 한 거지 제일 처음에 운수사업 시작을 한 것은 서울역에서 전호동 가는 자를 했었다고 그때는 서울에 전자가 있었지 그런데 전자가 없어지고 거기서 서울역에서 쫓겨나서 저기 을지로 6가에 국민의료원이 있었다고 거기서 전호동 가는 자를 했었고, 그리고 정량리에서 화랑대까지 가는 차를 했지 그전에 안양에서 서울을 가는 버스가 없었고 합승자가 있었다고 9인승 합승 절로에 마루 깔고 넘나드는데 그 당시에 버스는 노량진까지 밖에 못 가고 이 합승이 수원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합승이 있었다고 그래서 전호동까지 가는 우리 합승자가 덕수운수라고 수원까지 다니는 합승운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서울에서 잠시 서울 자를 샀다가 그 차를 바꿔서 수원에서 서울로 다닌 거야

### 이후 운수 사업은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 신관선 회장

수원에서 서울까지 다니는 회사가 덕수운수가 있었고 협진운수가 있었다고 협진운수 사장이 수원 시 의회 의장까지 한 이지원이라는 사람인데 그 자를 갖게 된 거지 서울 지나 경기도 자가 병합해서 다니는데 나중에는 통합을 했죠 경기도 협진운수를 계기로 자가 마이크로 버스 그러니까 17인승으로 커졌지 그 연도는 그때가 61년이었지

그는 61년도에 생애 처음으로 버스를 샀다 버스 운영에는 안내양과 운전기사의 식사 제공, 심지어는 숙박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1980년대 삼영운수 7번 버스

우리가 버스 망기고 나서 이듬해에 화폐 교환이 됐다고 화폐교환이 됐는데 다른 데는 돈이 없잖아 우리는 버스가 망기니까 금방 돈(현금)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돈(현금) 만진 기억이 나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해



1980년대 삼영운수 버스 안 모습

협진여객에서 12대 가져왔을 때 이 당시에는요 협진여객으로 가기 전에 개별적으로 자가가 되었잖아요 그때에는 우리 자가 여기 안양에 열 몇 대 되었을 때 당시에 역전의 마당에서 다녔을 때인데 안내양, 기사를 우리 집에서 밥을 해먹었다고 거기다가 세워놓고 막 뛰어와서 밥 먹고 점심때 또 나가고 그래서 유원지도 가고 삼부리도 가고 정계도 가고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자 시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차가 있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가 고생을 많이 했어 밥 해먹이느냐고 아주 안내양 밥도 먹어야 하고 안내양 잠자리도 제공하고 운전사는 자기 집에서 다니고, 안내양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 드라마 나오고, 텔레비전 와서 구경하고 차도 집으로 가져와서 고치고

69년 12월 22일 삼영운수에 대한 창립과 이후 성장 과정을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운장로라고 윤금로 사촌 형인데 지금은 80도 넘었죠 그때 당시에 안양읍 당시인데 자가 그때는 열대 이상이었는데 그래서 13대를 가져왔다고 수원서 안양으로 와서 안양서 유원지도 다니고 3번지도 다니고 그러다가 시흥에서 서면 4대가 있었고 전부다가 자동차가 13대 있었다고 그래서 시흥 군 안양 읍 당시에 13대로부터 이제 간관을 달고 상호가 생긴 거지 그랬다가 69년 사장님이 자가 35대까지 늘어났어요 나중에 번장해서 그러니까 번장을 했는데 운사장님이 경영도 그렇고 옛날에는 자 운영을 기업으로 한 게 아니라 개개인이 회사는 삼영운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세금이며 뭐며 돈을 내서 돈을 벌었어 지가(자기가) 월급 주고 지가 운영을 한 거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기업화라는 문제가 생겨서 회사에서 기사한테 월급 주고 그런 시대가 들어와서 그게 70년도 안양이 73년도에 시가 되었거든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나도 자가 몇 대 있었고 자주가 그때는 자주라 그랬거든 차주가 서울 사람도 있고 시흥 사람도 있고 뭐 정계 사람도 있고 많이 있고 그랬는데 사장이 못하게 되었어요 이후 77년 9월 13일 날 임시 주주 총회를 해서 내가 사장이 된 거지

이후 날로 높아지는 대중교통의 수요로 인해 삼영운수는 부광교통으로 분리되었다

안양시가 번장을 하다 보니까 자가 많이 늘어나, 늘어나서 79년도 그니까 77년 78년 79년도에 자가 82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것 아니네요 뭐라 그럴까 의견들도 그렇고 그래서 79년도 말로 버스 자격 면허 분리인가를 해준다는 공고가 있었다고 12월 말로 다 부광교통이라는 것이 탄생이 됐지 그래서 80년 1월 5일 자로 부광교통 회사가 분리됐지 삼영운수는 그대로 있고 부광교통이 분리된 거지

버스 운수 계속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는 서울시에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 그런데 경기도에는 토큰이라는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 자가 서울로 다니고 영등포로 다니고 다니니까 토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토큰을 서울에서 찍어서 서울버스만 쓰는 거라고 경기도는 토큰이 버스 회사에 반 이상 그걸로 들어왔다고 교환을 해야지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가서 이야기할 것 아니야 경기도에서는 답변하기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



1980년대 삼영운수 차고지와 직원들



다 서울이 만든 것이다 서울 가서 만든 것이다 서울 가서 이야기하면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경기도 업자들은 다 그랬을 것 아니에요 행정계장이 그 당시에는 대위급 이런 사람들이 과장 사무관 그걸 했거든 그렇다고 이야기를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안양시 그전에는 통일주체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걸 교환을 그전에도 교환을 해줬다고 업자들끼리 통해서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뽀따구가 나면 안바꿔주고 동결시키고 아주 고질적인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완전히 통일시켜서 바꿔줘라

### 버스 노선에 대한 사연도 깊다

서울 노선 새로 생기면 서울 신계에서 서울 쪽으로 15km를 우리 경기도 자가 갈 수 있고 시계에서 15km 경기도로 올 수 있고 이런 교통 사업법이 있다고요 우리가 15km를 가려면 여기서 시흥으로 해서 사당동으로까지 밖에 못 간다고 못 가는데 서울 고등학교가 서초구에 있거든 서울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야 하는데 자가 거기까지 밖에 못가니까 수원시에서 학교에서 들고 일어난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 여러가지 말도 못해 지금은 안정이 돼서 고정된 것 같지만 그때는 법이 라는 게 없는 시대야

### 그는 만안구를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만안구는 발달이 거의 없었죠 뭐 아파트도 현대 아파트가 삼익아파트가 처음 생기고 두 번째 현대 아파트 단지가 생긴 건데 이쪽으로다가는 아파트 단지도 없었고 그때까지는 평촌이 생기기 전에는 평촌이 절대 놓지였기때문에 이쪽으로만 발전이 있었는데 평촌이 박정희가 짓고 나서 절대 놓지가 없어져서 근대 신도시가 된 거죠

### 버스 운수업 종사자답게 그는 안양시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안양은 내가 뭐 안양 본토고 그러니까 사는 동안 여기 살 테니까 안양이 잠 좋아요 그런데 행정관 몇 사람이 결과적으로 시장이랄까 관공서 직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몸을 던져야 한다! 시민한테 던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눈물 나는 일이 있었어 2002년도에 모든 버스를 안양시에 헌납한다는 공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시장한테 주고 나는 잘 못하겠다 나중에 추진위원 선정해서 해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 팔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지금은 6월 공용 자고지가 됐지만 그전까지는 안양 공용 자고지가 없었다

고 그러면 안양 시장이 늦게까지 광명이고 의왕  
이고 군포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안양은 없는 거  
북이 행정은 이걸 운수업자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잘 한 게 아니고 이게 급해요,  
유원지 그게 급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 580억  
들여서 유원지 만들고 장사꾼들 그거 장사 잘돼  
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분위기에 따라서 먼저



신관선

만들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뭐든지 그렇지 우리 버스 터미널 만든다고 그럴 때 노력을 했다  
고 하지만 결과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 평촌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 만들 때 공영 차고지  
1000편 마련을 못하나

신관선씨의 생애사를 만안과 안양시의 기억과 연결시켜 보려 했다 그 중 버스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양시에 대한 그간의 감정은 당분간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듯 보였다

구술자 신관선(36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9월 6일

## 두레정신을 싹 띄운 새마을금고

안양의 대표적인 사회 조직으로 협심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끈적끈적한 전인적 관계는  
사람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고 사회관계를 윤택하게 해주는 순기능이 존재한다 인간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하고 이웃끼리 화합하며 서로 돕는 삶을 위해 협동을 통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조직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조직의 틀 속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협동사회의  
모습을 추구한다

### 조합원 모두가 주인,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서로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생활 전반을 향상시켜 이웃끼리  
화합하여 서로 돕는 가운데 조상전래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상부상조의 윤리와 근면  
하고 절약하여 저축에 의한 경제력 증진원리를 통하여 더불어 잘 살아 보자는 목적 아래 자  
발적으로 조직된 협동체이며 그것이 곧 새마을금고 기본 이념이다

새마을금고의 이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상부상조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력 증진의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돕고 협동하여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는 근검 절약하여 저축을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 경제력 증진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개인 및 지역에 기반을 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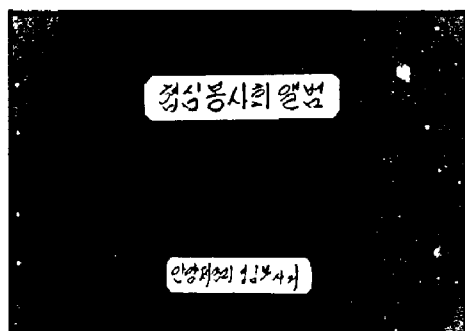
새마을금고가 주민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운동인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협동조합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차용할 수 있다 우선 보수적 견해로 경제 약자가 자본주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의 모델이 있다 반면 자본주의의 비판적 대안제도로 ‘협동조합’은 현행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려는 진보적인 협동조합 모델이다 이러한 협동조합론

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이념적 성격은 전자 쪽에 가깝다

새마을금고는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고 경제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 조직한 결사체”이다 다만 협동조합이 구성원 스스로 “자발적”인 결합체인 반면에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결사체인 성격보다는 관변적인 성격이 강하다 새마을금고의 관변적인 성격은 우리 역사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1961년 5 16 군사혁명은 대국민 의식개혁 운동인 재건국민운동의 도화선이었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내세운 ‘혁명공약’의 최우선 과제가 낙후한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재건국민운동은 우리 민족 인고의 세월인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 6 25 동족상전의 비극,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핏박을 겪으면서 도탄과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거국적 의식개혁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마을금고운동은 빈곤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근검절약의 철학을 일깨워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준 협동운동의 실천이었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재건국민운동이 주창한 자주, 협동, 개혁의 지도이념과 운영방향은 마을금고 지도이념의 줄거리 또한 70



안양3리 협심봉사회 앨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역군이 모였나(현장기록)



1971년 협심봉사회 회원

이렇게 길 가요 (금정방적살 ~ 라드보트급 파격추진)



1971년 협심봉사회 활동



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인 운동으로 생겨난 새마을운동 이념의 뿌리로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왔다(새마을금고 25년사 p 92)”



1977년 8월 4일 시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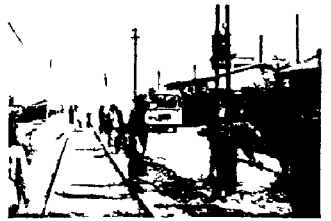


1977년 8월 4일 시보담

내고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들은 청년봉사대를 선봉이 되어 일한다



1977년 8월 4일 시보담



1977년 8월 4일 시보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청년봉사대

1964년 관 주도형의 재건국민운동은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주요 사업의 중 하나로 마을금고 운동을 추진하였다

“절미운동을 통한 마을금고(재건 신용조합)운동은 중앙회 사무국 산하 개발국에서 담당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이의 담당자들에 의해 주도된 강습회는 정제된 농촌사회를 일깨우는 동기를 부여하고 마을금고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몽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설립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두 번에서 많은 경우 서너 차례 강습회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의 금고가 탄생되는 수순을 반복하였다”(새마을금고 25년사 p 97-98)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여타의 서민금융기관의 설립 목적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서민 금융기관의 분류는 특수은행인 국민은행과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저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명	목적
국민은행	일반목적이나 소규모기업에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경제적지위를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신용금고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협동조합	상호유대를 가진 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구성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정신의 배양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지역개발”과 “국민정신함양 , ‘자주적인 협동정신’을 강조한다 이러한 설립 목적의 취지는 현재까지도 남아서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08년 현재 안양에는 10개의 새마을금고가 존재한다 전제 자산액은 812,403백만원이고 711,342 예금액, 578,115 대출액이다 회원 수는 263, 123명이다

### 마을 조직, 협심새마을금고

1963년 이래 재건국민운동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마을금고는 주요 시책사업으로 육성되었다 새마을금고(Community Credit Cooperative)는 이웃 간의 서로 돕고 사랑하며 협동하는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 마을생활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의한 신용 사업, 공제사업 등의 생활금융과 문화복지 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회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금융협동조합이다

1970년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협심새마을금고가 창립되었다 이 모임을 주도한 변원신 씨는 협심새마을금고의 창립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1969년 4월 19일 당시 내가 안양3리 이장으로 있었는데 그 일을 해보니까 60년도에 걸려온 길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도로가 포장도 안되어 있고 괴난 나오신 분들이 동네 많이 사시고 그 당시에 관자존으로 봐야 되고 사는 사람들이 어렵고 마침 그 당시에 조선직물주식회사 일제 때 있었던 거에다 금성방직이라는게 들어와가지고 경북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여공들을 많이 와서 직물을 짜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안양3동이 가난하지만 셋방을 그러는 그 사람들이 많이 살은 시기가 그때라고

사회간접시설이 지금처럼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봉사회를 중심으로 동네 복구 사업이 진행되었다 동네 복구 사업을 하던 중 지역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마을금고 설립은 필수적인 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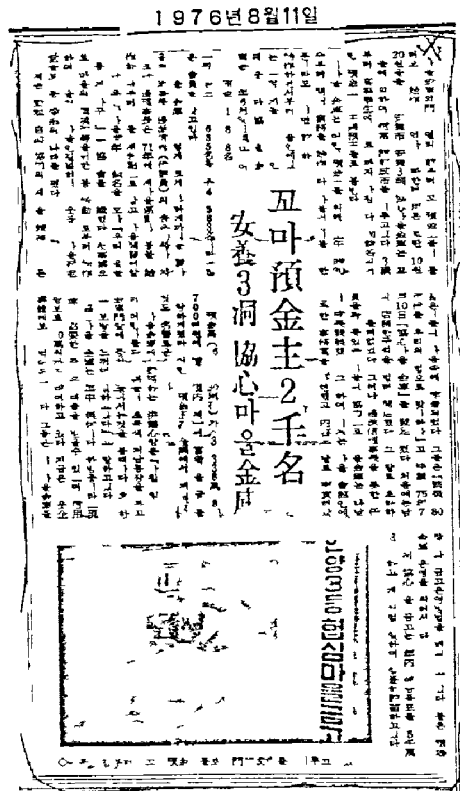
‘마을금고를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72년도까지 봉사를 하면서 이전에는 동네에서 그냥 일만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동네에 하수도를 만들어 줄래도 이때만 해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봉사회가 손으로 삽으로 팽이로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돈이 있어야 하니까 마을금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72년 4월 19일날이 장립 발기인 총회를 하는데 당시 우리가 30명이니까 그 당시에 돈이 전원씩 해서 삼만원이 있었는데, 에~ 삼전원은 먹는 데 쓰고 이만 질전원가지고 장립총회를 만든 거예요

### 창립 이후 마을금고는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의 안양 협심새마을금고가 되었다

새마을금고를 72년 5월 5일 마을금고 설립 등록을 하는데 73년도에 그때 시흥군 시대니까 나중에 안양 협심으로 되는 과정은 등기 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동참해주시고 이거 만드거지 우리들 협심 새마을금고에 협심 봉사회가 물론 앞에서 섰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해주신 거야 호응을 해주셔야 하니까

### 1970년대 당시 안양 협심새마을금고는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의 믿음과 신뢰성 같은 거는 조금 보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봉사를 했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도 잘 해주리라고 동참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당시에 사실 조금씩 저축을 해주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정부보다는 마을금고 자금 운동 본부에서 굉장히 우리가 인기가 있었어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하는 거니까 운동을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래저래 초대 이사장이 취임이 돼



1976년 협심새마을금고 신문기사



요 73년 5월 31일부터 75년 5월 30일까지 내가 이사장을 하고 마을금고 등록을 하고 시흥 협심 새마을금고 만들어서 초대 이사장이 내가 되는 거죠 그게 73년 원래는 72년도에 했다고 봐야지 장립총회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설립등기하고 이사장 취임을 하고 73년 5월 31일부터 75년 5월 30일 마을금고 연합회에 가입도 하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마을금고니까 가입을 해서 마을금고 육성을 잘했다고 해서 최우수 금고를 받았고요

#### 협심새마을금고의 지난 과정들

- 1972년 4월 19일 시흥협심새마을금고 창립 및 발기인 총회 발기인대표 변원신 외 29명 자산 2만7천원)
- 1974년 6월 18일 마을금고 연합회 가입
- 1975년 7월 11일 마을회관 준공 여수신 업무 개시 회원 909명 총 자산 4 109천원
- 1979년 3월 4일 새마을금고 지도자 전진대회 대통령 표창
- 1979년 10월 16일 시흥협심새마을금고에서 안양협심새마을금고로 변경
- 1980년 1월 29일 총자산 10억원 달성
- 1980년 11월 17일 총자산 10억원 달성탑 수상
- 1983년 12월 16일 경기도 새마을금고육성 최우수금고 표창
- 1988년 1월 3일 총자산 50억원 달성
- 1990년 8월 28일 총자산 100억원 달성
- 1992년 9월 1일 새마을금고 공제 새마을금고 임직원 상조복지회 업무 개시
- 1992년 10월 27일 안양시 공과금 수납 대행 계약 체결
- 1992년 11월 26일 연합회 제1회 새마을금고 특별포상 동장 수상
- 1994년 12월 22일 총자산 200억 달성
- 1997년 5월 26일 제2회 새마을금고의 날 내무부장관 표창
- 1997년 11월 17일 총자산 300억원 달성
- 1998년 7월 20일 새마을금고 전국 온라인망 개통
- 2000년 6월 21일 총자산 400억원 달성
- 2002년 4월 18일 총자산 500억원 달성
- 2005년 총자산 700억원 달성
- 2000년 1월 16일 제 2지점 대농지점 개점
- 2006년 12월 7일 총자산 800억원 달성
- 2008년 6월 11일 수표발행 실시
- 2008년 6월 30일 총자산 900억원 달성
- 2010년 11월 26일 총자산 1000억원 달성
- 2011년 4월 40일 자산 1 061억 공제 700억 달성

변원신 씨는 개인적으로 마을금고를 만들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근면과 협동보다는 두레 정신 품앗이 정신을 강조했다

원래 일을 해보니까 동네가 가난하잖아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하니까 가난한데 돈 버는

거 밖에 더 있겠어 협동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협동정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류달영 회장님은 두레 정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두레 품앗이 어떻게 보면 근면 자주 협동은 새마을 운동에서 이야기한 거고 류달영 회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두레협동품앗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말은 우리가 교육받을 때 그런 말을 받았지 근면 자주 협동은 그 후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회원이라는 게 출자금은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단 말입니다 출자금은 이 마을에 자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출자금 그다음에 적립금 그게 자산이거든 근데 마을금고에 회원들이 가져다 놓은 돈을 가져다 넣어서 대출받고 예금하고 그런 사람들은 준회원이라고 하는 거고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출자를 하니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상부상조라고 할까 두레정신이라고 할까 좁혀가면은 그렇게 되고 넓으면 협동정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옛날로 말하면 두레정신 품앗이 운동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안양3동의 지역이 발전이 된거죠

협심새마을금고가 마을에 기여한 점을 변원식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육대회 등 마을 곳곳의 복지를 제공해준 것이다

마을금고 운영해서 어떠한 주민에게 환원 사업을 뭐했냐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 요 마을금고는 보험금이나 타 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매년 그 당시는 제육 대회 이런 것이 안양시의 예산이 적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도와줬다고 마을금고를 만들어가지고 순이익을 그다음에 동네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복지혜택이라고 해서 별의별 혜택이 다 있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지 마을 경로당에서 모두 한 곳에 마을금고에서 5만원 정도를 지원해드렸지 동네 제육대회다 동네 이웃돕기 뭐 이런 거 있다던가 동네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환자가 발생한다 하는 데는 마을금고가 나름대로 개입이 안 된 데가 없었죠'

근래에 여타의 은행이 넘쳐나면서 협심새마을금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는 그들만의 자력갱생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일을 나의 일처럼 서로 돕는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여타 은행들은 경제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것에 비해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지 초심인 두레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인기가 엄청 많이 떨어졌지 그나마 시에서나 동에서 공무원하고 연결해가면서 안양시에서 무슨 단오제 행사한다 그러면 단오제 행사는 시에서 돈이 나와요 제육대회도 돈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못한다 이거예요 뭐 교통비 해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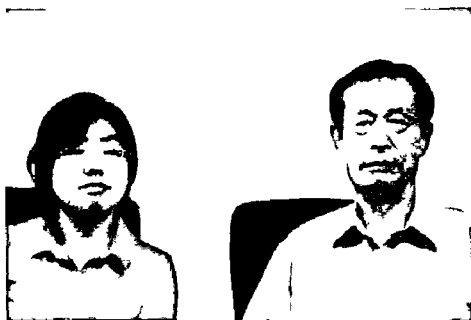
금고에서 지원은 해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우리 마을금고에 뭐 특별히 봉사 하는 것은 없는데 여기 우리 안양3동 협심은 여성 마을금고 부녀회라는 걸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내가 알고 노인네들 한 달에 한 번이고 밥을 해주면 안 되니까 부녀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삼계탕도 만들어 준다던가 마을금고 자원봉사자 부녀회 그러니까 일일 잣집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음식 만들고 다과 같은 거 사가지고 과일도 짚아주고 뭐 이런 거지요

그는 안양 협심새마을금고가 자산이 튼튼하다는 점에서 특색을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타 새마을금고가 부실하고 자산이 적다는 점보다 안양 협심새마을금고는 투명하게 자산이 관리되고 자산의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든든하다



협심새마을금고 연혁

2008년 이후부터 부실 저축은행과 엮이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경제적 부실에 대한 이야기도 술술 나오곤 한다 은행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두레정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새마을금고의 설립 정신이 남아있기에 지역적 연고가 더욱 공고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새마을금고이다



면담자 김민정과 구술자 변원신

금융화의 시대에 두레정신에 기반 한 새마을금고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지, 여타의 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지역주민과 '정'을 쌓을 수 있는 관계 설정이 관건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두레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 새마을금고가 지역적 협업정신을 고양할 수 있을 지가 사회조직으로서의 새마을금고에게 기대하는 바이다

구술자 변원신(33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8월 1일



협심새마을금고 전희장 변원신



## 물로 맺은 나눔공동체, 충훈 약수탕

대형 찜질방에 밀려난 동네 목욕탕, 그러나 목욕탕 옥상에 바람이 사뭇히 흔들리고 있는 목욕탕 수건은 지나가는 중년층에게는 아련한 추억 중의 하나다. 명절 즈음이면 목욕탕에 북적대던 아련한 추억 하나쯤은 만들어 주던 곳이 목욕탕이다. 아직도 안양의 공간 한 켠에는 그 추억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충훈약수탕이 있다.

### 충훈 약수탕과 인근 지역민들의 지하수 사용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살면 수돗물사용을 당연시한다. 2010년 안양시 상수도 보급률은 99.9%이다. 수돗물 보급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0.1%가 존재한다. 충훈 약수탕을 사용하는 지하수 이용자가 그런 사람들이다.



충훈약수탕

### 석수3동에 있는 충훈약수탕

석수3동은 조선 시대 충훈부 관아였다. 옛날에 충훈부는 지금의 보훈과 같이 공신들의 집과 농토가 있었던 곳으로 경주이씨가 10대째 살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충훈 약수탕이라는 목욕탕이 있는데 그 탄생 배경과 사연이 매우 독특하다.



1970년대 충훈부 파란색 지붕 옆으로 비닐하우스가 보인다

이천우 씨의 부친은 경주이씨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충훈부에서 논농사를 크게 지을 만큼의 넓은 땅이 없었다. 그래서 6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꽃끼를 수입해서 꽃 재배를 시작했다. 당시에 하우스재배를 시작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70년대 이천우 씨의 부친은 꽃 재배에 이어 당시 수원농촌진흥청에서 시험재배 중이던 느타리버섯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느타리버섯을 키울 물로는 공업화로 오염된 안양천이 어렵게 되자 지하수를 개발해줄 것을 요청하고, 70년대에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된다. 지하수 개발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던 중 80년대 충훈부 들녘을 토지공사가 주택단지로 개발을 하면서 농토는 단지로 편입을 시키고, 기존에 있던 자연마을은 토지 개발이 안 돼 보존이 되는 상황



충훈부 약수물



이천우

이 발생한다

농토에서 주택단지로 변화하게 된 마을에서 더 이상 농사는 힘들다고 생각한 이천우 씨의 부친은 지하수는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자 목욕탕을 하기로 하고 85년에 목욕탕 공사를 착공하게 되고, 지하수인 약수가 올라오는 물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약수탕으로 지으라는 충고에 충훈약수탕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지하수 개발로 천연암반수가 나오는 상황에서, 주택단지에 들어오는 상수도를 충훈약수탕 인근의 계량기 기준 30개(지금은 빌라로 변해서 100호 이상 사용)가 상수돛물을 거부하고 기존의 지하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하수 계량기 30개를 현재까지 충훈약수탕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천우 씨 부친이 살아생전에는 본인이 관리하다가 이후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30개 계량기 가구가 빌라로 전환된 상황에서 현재는 이천우 씨 모친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전의 지하수 개발과 택지개발에 대해 잘 모르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지하수 물에 대한 고마움과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훈 약수탕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인 이천우 씨(1964년생)는 충훈부 약수탕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업화의 과정 속에서 안양천이 더 이상 농업용수와 음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충훈부를 중심으로 지하수 사용을 추진했던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 농사를 짓던 안양천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던 지역인데 60년대 이제 안양이 공업화가 되면서 안양천이 매우 오염이 되었잖아요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도 없고 또 식용수로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깐 75년 정도로 기억이 나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안양시에서 안양천 물로 농업기반시설인 식용과 농업용수로 쓰는 게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서 몇 개 마을에 간이 상수도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자체 주민이 약간의 자부담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충훈부 지역에 간이 상수도라는 것을 관거죠 지하수를 파서 이

용을 했는데 물이 좋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이 스스로가 약수 물이 나왔다 물이 좋으면 약수물 이라고 그랬지 옛날 사람들이 약수 물이 나온다고 스스로가 약수라는 명칭이 정해진 거고 이방 인이 정했다기보다도 만안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입에서 입으로 나오게 된 거지요

현재 지하수 물을 이용해 목욕탕을 건설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농업과 도시 근 린 지역의 화훼농업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자 지하수 물을 활용하게 된 방 도를 모색하게 되었다

안양전이 오염돼서 그 물로 농업용수를 쓰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오염된 물 이니까 그 물을 끌어서 벼농사를 지었거든요 물이 오염돼 더 이상 벼농사가 될 리가 없죠 그러 다 보니까 시에서 그 당시에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마을 주택 단지로 택지개발하는 걸로 조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토가 없어지다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뭘 할까 하다가 지하수 물을 활용 하자 이런 게 있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제 벼농사도 지었어요 느타리버섯을 대량으로 재배했었는데 그 벼농 사가 지하수 물을 사용했어요 순수하고 깨끗한 물인 지하수가 자체적으로 그때 농업용수(지 하수)를 관 거죠 아주 깊이 그래가지고 깨끗한 지하수가 대량으로 자체적으로 약수물 말고도 나왔어요 대량으로 많이 나왔어요 좋은 지하수가 많이 나온 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무언 가를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아버님이 목욕탕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고요 그 물을 이용해서 목욕 을 하다 보니까 이름을 지을 적에 약수물 가지고 목욕탕을 하니까 약수탕이다 해서 이제 약수 탕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사업장의 명칭이 그렇게 유래가 된 거죠

깨끗한 지하수 물인 약수물을 사용하는 목욕탕이 바로 약수탕이다 약수(藥水)는 먹 거나 몸을 담그거나 하면 약효가 있는 샘물이다 약수물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통 한다

현재 목욕탕 운영 상황은 어떤가가 궁금했다

요새 뭐 24시간 켜진 방에서 대형으로 시설이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 재래 식 뭐 동네 목욕탕이니까 잘 되지는 않죠 동네 그냥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순수한 동네 주민이죠 외부에서 시설 잘 됐으니까 찾아가고 썩질방 같은 것 젊은 사람들 멀리서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목욕탕은 순수한 재래식 목욕탕이라고 봐야 죠 동네 재래식은 다들 안 되는 추세 아니에요 슈퍼마켓도 대형 마트나 이런 데가 잘되지 동



네 조그만 구멍가게 안 되잖아요 이지가 다 이런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러저럭 유지해 가는 거죠

좋은 물을 사용한다고 하던 약수탕도 찹질방과의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대도심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탕이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도심에서 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하는 공동체는 흔하지 않다 그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지하수 관리 문제가 관건이다

지금은 계량기 한 30개 정도인데 세대수로는 계량기 하나에 여러 가구가 쓰다 보니까 가구 수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60-70가구 이상은 쓸 거예요 계량기는 3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전에는 훨씬 더 많았죠 한 마을에 다 쓰던 거니까 물이 여유분이 생기니까 그 당시 85년도에 시작한 건데요 그 당시 그것만 가지고 가능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고 빌라지역으로 완전히 주거지역이 돼버렸어요 손님들이 늘어나니까 약수물만 가지고는 이제 물 양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는 음용수로만 쓰고 버섯 농사용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만 가지고 지금은 목욕탕 영업을 하게 된 거죠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하수 계량기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어머니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머니도 젊으시고 저도 활동을 하고 그럴 때니까 그랬는데 어머니도 관절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가지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전기요금이 한전에서 우리한테 와요 그주를 사용한 양을 다 이제 계량기를 30개 정도를 조사해서 1/N로 나누는 거죠 각 가정에 쓰는 집에 전기요금 받아요 그래가지고 모았다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내는 거죠 그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연로하시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일부터 쓰시는 분들한테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분에게 의뢰를 하던가 지금 같은 세상에 자기 직장 생활하거나 자기 사업하는데 그걸 누가 관리를 하려고 해요 일일이 돈 만지고 계산하고 다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물을 없애자 뭐 그냥 상수도를 썼으면 귀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도 변하고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대부분 서민이고 수십만원의 돈을 대야 상수도를 대잖아요 안양시 상수도를 대려면 돈도 들어야 하고 수돗물을 주민 입장에서는 목돈을 들여가면서 안 좋은 물을 들이는 거야 돈 안 들이고 그냥 깨끗한 약수물 마시는 거를 돈 들여가면서 수돗물

을 대려고 해요 끓여 마셔야 하고 요금이 비싸요 상수도 요금이 이저는 전기세만 1/N로 나누다 보니까 리터당 가격이라고 해야 하나 가격이 싸요 사용요금도 싸지 목돈도 안 들어가지 깨끗한 물이지 그것을 누가 버리려고 하겠어요

지하수 관리를 노부모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사용에 난감한 상황이다 사용자를 위해서는 폐지하기도 난감하지만 관리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

지하수 사용자들은 물에 대한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종교 만족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그 물을 쓰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정에 전화 한통만 하면 시정에서 바로 다해주는데 물론 돈을 내야 하지만 뭐 자기가 일 년 365일 마셔야만 하는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물처럼 신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해롭다고 하면 억만금을 줘도 본인들이 싫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면은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문제를 수십 년간 그렇게 하겠어요 주민이 스스로가 만족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관리하기가 벅자니까 꺼리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건 봉사라는 게 원해서 불가피하게 또 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 거고 봉사죠 스스로 어떻게 아는 사람들도 지금은 언젠가 한번 시정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터져요 지하에 매설된 관이 겨울에 얼기도 하고 옛날에 매설한 거라서 터지기도 하고 그런 거를 바로 설비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하고 그런다고요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터진 관 밑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이 안 나오잖아요 불편하죠

이러한 지하수 사용에 대한 애로사항은 세입자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안양시청 담당 관련 부서에도 지하수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 제반 사항을 관리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역할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날이 갈수록 지하수 관리에 대해 어려움이 더해져만 간다

어머니께서 목욕탕 운영하시면서 에피소드나 약간 지역의 지하수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물은 공공사용하고 있지만 지하수 관리는 한 집안에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잘모르고 항의를 해요 마지 뭐 우리가 봉사하는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항의를 하고 그래요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옛날 충훈파출소 자리는 지금 카페로 변했다 저  
음 이사 온 주인은 지하수를 쓰는 것에 대해 신기  
했다고 한다

끄덕끄덕하고 알았다고 하고 가죠 그런 게 애로상황  
이 있죠

지하수 사용에 가장 큰 어려움은 다음과 같  
다 지하수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막대  
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의 문제이다 1996년  
도에는 그나마 이천우 씨가 시의원이었기 때문  
에 안양시에서 지원금을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난감하다

노후가 되가지고 큰 전환점이 그때가 96년인가 97년인가 시의원 초선 때인데요 그때 설  
날 직전이에요 겨울이지 한겨울이지 그게 한 75년도쯤에 파고 나서 96년 정도니까 약 20년 정  
도가 지나서죠 그때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나고 지하 상태가 안 좋게 됐나 봐요 20년 지나가 보  
니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물이 안 나왔어요 겨울에 물은 안 나오지 설날은 다가오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 화장실도 못 써요, 밥도 못해 닭는 것은 고사하고 얼마나 큰 난리예요  
주기적으로 교체공사를 하고 그래야 해요 교체공사를 근본적으로 20년 지나다 보니까 큰 공  
사를 다시 해야하는데 그런 시점에 도달해서 돈은 없죠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 당시 구정장에  
게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만 해도 구정장 허가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산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임의대로 긴급 사항 때 투입할 수 있는 명칭이 포괄 사업비인데 긴  
급 시 투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투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목돈이 구정장이나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돈을 써서라도 급하니까 시급하니까 당장 밥도 못해 먹잖아요 해달라  
고 하니까 그때 당시 구정장께서 큰 결정을 내려 주신 거죠 그때 재공사를 한 거죠 지금은 지  
하 200m로 그 당시에 96년 정도니까 그것도 15년이 지난 거고요 그것도 5-6년만 지나면 또다  
시 큰 문제로 봉작하는 거예요 다시 재공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 올지도 모르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가서는 2-3년 뒤가 될지도 몰라 지하 200m에 있  
는 상황이니까 시에서 예산 달라고 하면 아마 안 해줄  
거예요 제가 현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신경 써주  
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민이 큰 어려움이 그때 가서  
닥쳐올 거라고 예상은 하죠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버  
티고 사는 거죠



충훈부(2011년)

지하수 사용의 존폐여부는 지하수를 사용



하는 공동제 안에서 해결해야겠지만 좀 더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하수 사용에 관련한 업무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구술자 이천우(64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8월 2일



자전거를 고치는 이천우

##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은 자생조직, 양지회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면서 동네가 생겨나고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 만남 속에 동네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임들이 생겨난다 그 모임 가운데 대를 잇는 자생조직 양지회가 있다

### 양지회, 단군전봉건회로 시작하다

“단군전봉건회 시흥군 지회 결성식은 1946년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안양공회당에서  
한창수 시흥군수이하 회원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이날 피선된 역  
원은 회장 박장동, 부회장 장배근, 정육조”라고 1946년 11월 8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바 있  
다 단군전봉건회는 단군전 제사를 모시는 모임이다 당시 단군전봉건회 시흥군 지회는 구  
화단극장 바로 앞 과천향교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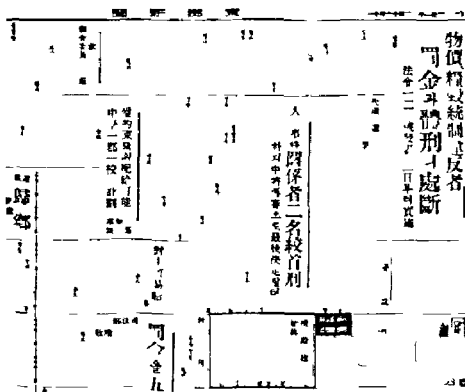
단군전봉건회 시흥군 지회가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양지회가 되었다 즉 단군  
전봉건회가 양지회의 전신이다

### 자손으로 이어지는 향토조직

단군전봉건회의 초대 임원이셨던 장근배 옹의 자손이 지금 양지회의 회원이다 이분  
들은 안양에서 유일하게 대를 이어가는 안양 양지회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회장을 하고 있  
습니다마는 아주 자부심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아끼신다

그리고 한 원로는 단군전봉건회를 이렇게 회고한다

단군전봉건회는 시흥군 시흥동에 단군전을 모셨어요 매년 제사 지낼 때 거기서 단군전  
제사 모셨어요 예 그건 인제 옛날 식으로 이 저 한복입고 에 제사를 모시다가 몇 가지 문제가 생  
겨서 제사 못 모시게 돼서 화단극장 앞에 과천 향교 건물로 옮겼습니다



경향신문 1946년 11월 8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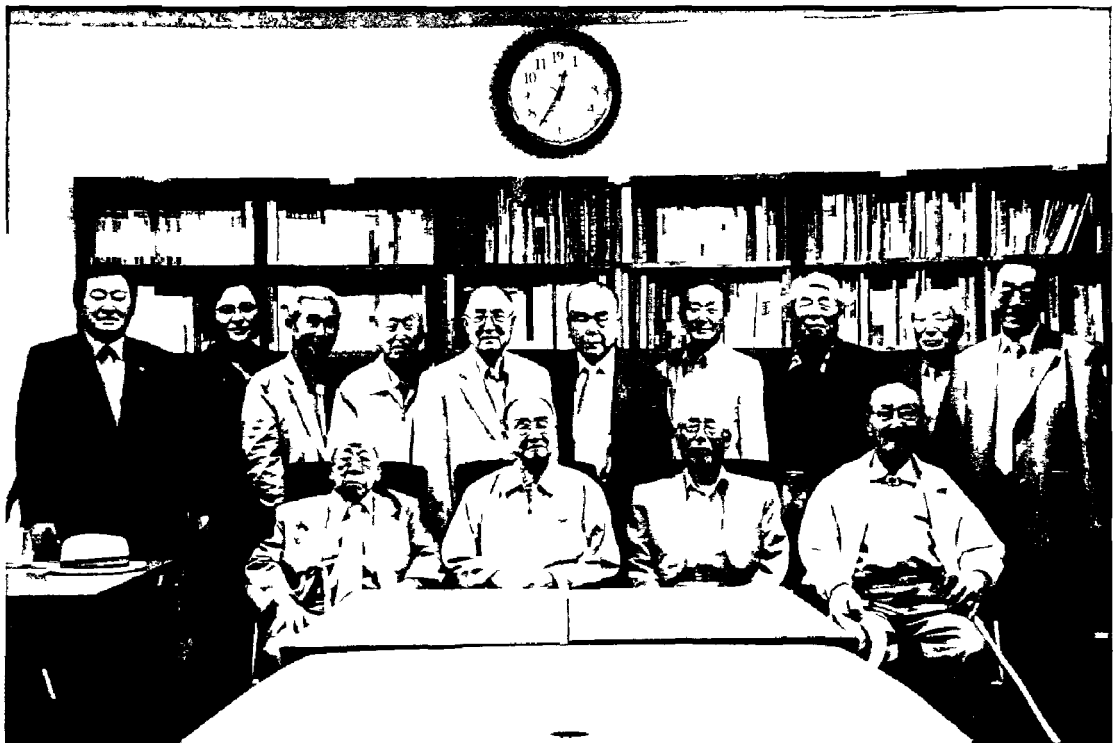
## 제목 단군전봉건회시흥지회결성

(안양)단군전봉건회시흥군 지회 결성식은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안양공회당에서 한창수시흥군수이하 회원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이날 피선된 역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정동 부회장 장배근 정욱조

## 향토조직에서 지역조직으로

양지회는 특별한 활동은 없었다고 한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친목모임정도다 양지회는 과거 지명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당시 시흥군이 안양을 포함하여 수암(지금의 안산)도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양지회 회원은 수암(지금의 안산), 군포, 시흥, 광명 등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여럿이다

여기가 예전에는 시흥군이지 옛날에 시흥군입니다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양지회 회원에 수암면 사람 뭐 여러사람들이 많이 있어 당초 모임을 만들 적에 광명, 소하 뭐 등등 옛날에 시흥군을 보고 만든 거예요 옛날 시흥군, 과전 이쪽으로 쪽 가서 이거 남면 이쪽이고 다 맞아, 네 그러네! 강남에서도 오시고”



양지회 원로들

## 지금 관악회의 전신

양지회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관장 모임의 성격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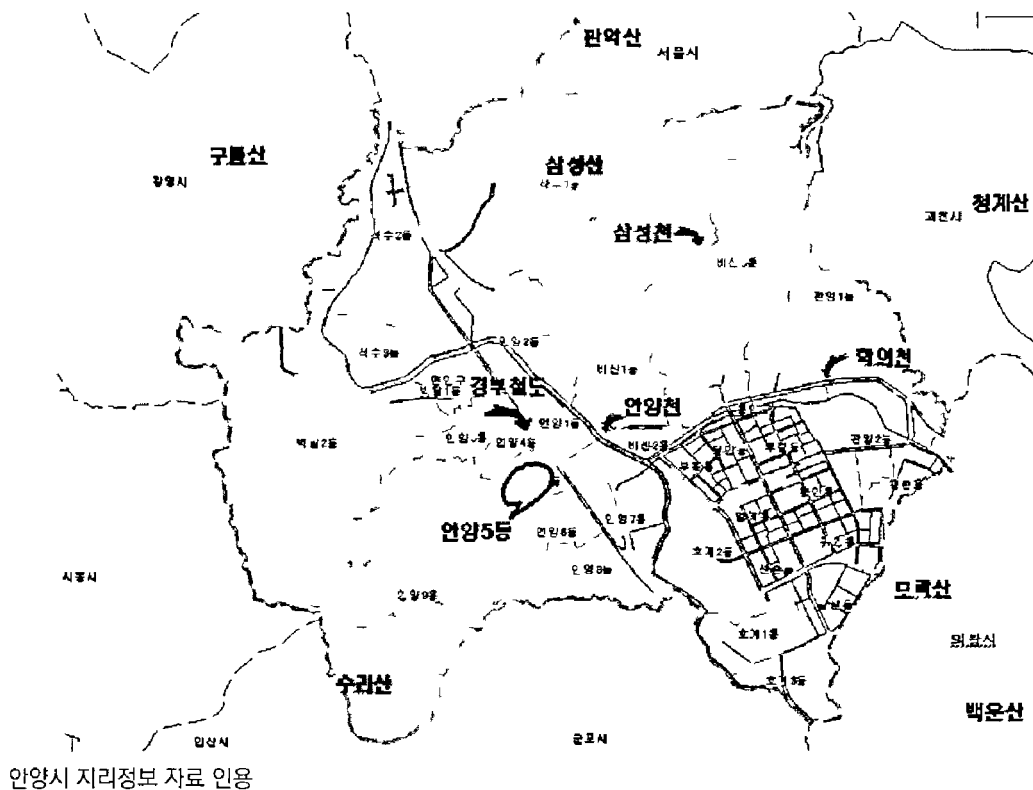
저음에는 상조회가 여기 시흥군 경찰서장이 같이 했었다고 “장수회로 내려오다가 양지회로다가 변경이 된 거지 그걸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장수회가 기관장들이 참석했는데 지금 안양에 관악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기관장을 맡거든요 저음에는 장수회에서 했는데 나중에 그게 관악회로 변경이 됐어요

양지회는 단군제사를 모시는 단군전봉건회에서 시작하여 자손과 자손으로 이어지는 지역원으로 자생조직이 되었다

구술자 양지회원로들, 구술일자 2011년 9월 26일

## 안양5동 냉천(冷泉)마을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도판1 안양5동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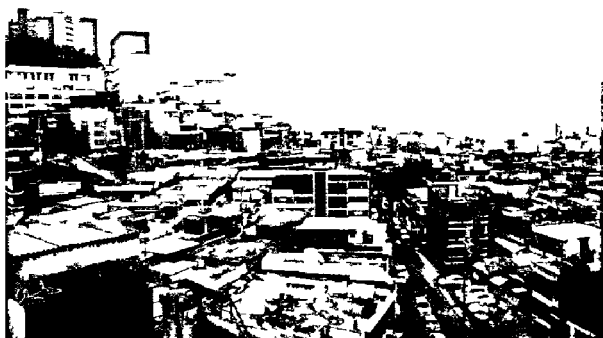




〈도판2 냉천마을 구역도〉



안양시 냉천지구 계획도 인용



냉천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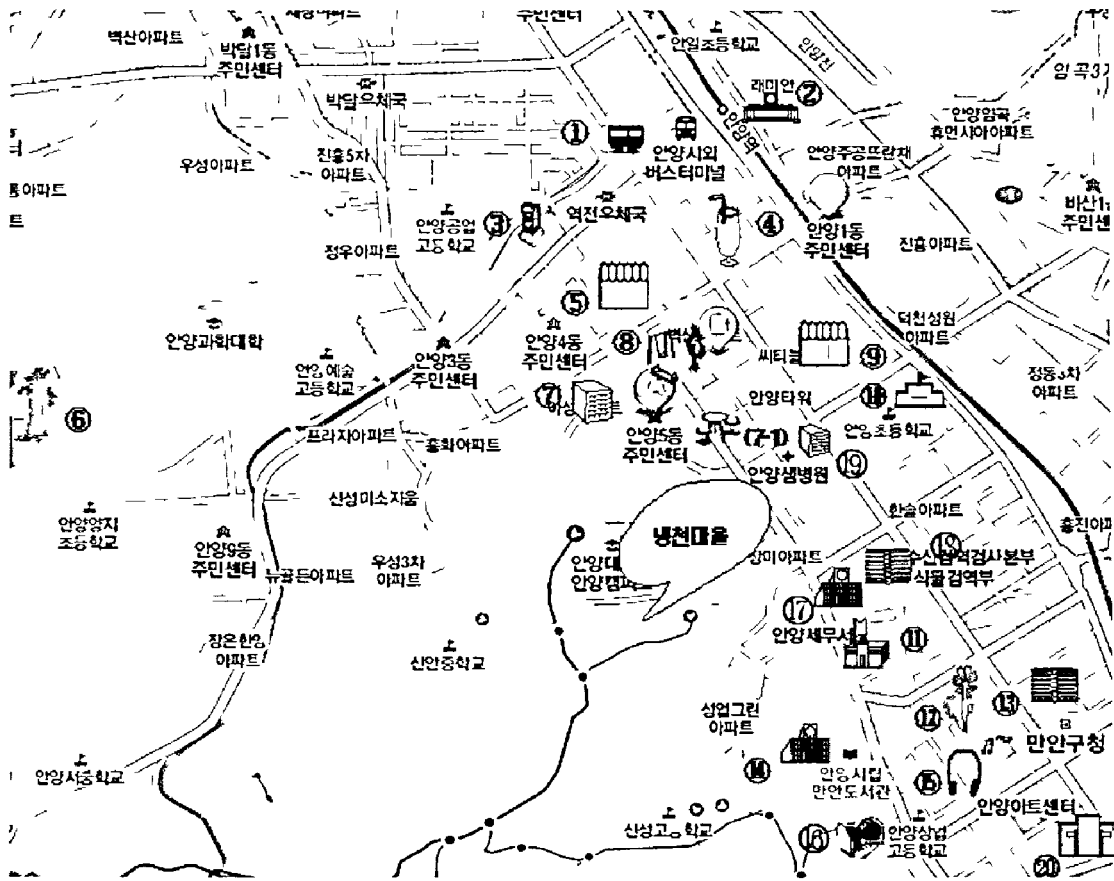
## 마을 보기

안양 5동은 안양시 면적 58 46km<sup>2</sup>의 약 0.86%인 0.50km<sup>2</sup>의 면적을 지니고 있다. 지리적 위치는 안양시의 남서향으로 북서향의 안양 4동과 남동향의 안양 6동 그리고 동북향에는 안양 1동이 인접하고 있다. 안양 5동의 서남향에 위치한 냉천마을은 면적 128 745m<sup>2</sup>에 전체적으로 수리산을 등지고 관악산을 향하는 자세인 동향을 취하고 있다. 마을의 배후를 둘러싼 지형을 살펴보면, 수리산 관모봉(426m)에서 흘러 내린 동북향 줄기의 한 자락은 오른쪽인 남북방향으로 흘러 안양 8동의 성결대와 명학초등학교 방향에서 끝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락은 왼쪽인 동북향으로 흘러 세무서 뒤에서 멈추어 소골안을 이루고, 이어서 안양대학교와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를 돌아 성원상떼빌 아파트에서 멈춘다. 따라서 냉천마을의 자연 지리적 경계는 남쪽의 소골안에서 충혼탑이 자리 잡은

능선 부근을 거쳐 안양대 입구를 지나 현대 아파트와 상떼빌이 위치한 옛 수태골 골짜기를 휘어도는 형태로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앞의 도로 냉천로와 현충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삼덕로와 장내로가 만나는 삼덕로를 분기점으로 마을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 수계의 흐름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려우나 1970년대까지도 냉천마을을 감싸는 개천이 남아 있었다. 개천은 소골안 골짜기에서 출발, 안양 세무서를 지나 남부시장을 거쳐 안양천에 합류하는 소곡천과, 안양대 정문으로 오르는 삼덕로길의 개천, 그리고 수태골에서 흐르는 개천으로 안양 5동 사무소 앞을 지나 남부시장에서 소곡천과 합류하여 안양천으로 연결되었다.

〈도판3 공공시설의 연계성〉



번호	명칭	도보 거리(km)	번호	명칭	도보 거리(km)
1	역전 버스터미널	1.25km	11	안양 세무서	0.68km
2	안양역	1.29km	11	안양 세무서	0.68km
3	역전우체국	0.94km	12	명학공원	1.72km
4	안양일번가	0.83km	13	만안구청	1.42km
5	중앙시장	0.54km	14	시립 만안도서관/ 수리 장애인 종합 복지관/ 만안 여성회관	1.1km~ 1.16km
6	병목안 공원	2.92km	15	안양 아트센터	1.7km
7	안양 5동 주민자치센터	0.18km	16	만안 청소년 수련관	1.36km
7.1	만안구 노인 복지 회관	0.102km	17	안양 소방 파출소	0.52km
8	냉천놀이터/ 청소년 지원 센터	0.29km	18	안양 문화원	0.53km
9	남부시장	0.38km	19	서안양우체국	0.37km
10	안양초등학교	0.6km	20	안양 만안경찰서	1.82km

냉천마을의 입지 조건을 살펴보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양쪽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자연환경은 배후에 위치한 도립공원 수리산이 쾌적한 자

연경관과 함께 휴게 및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인문환경은 마을 주변에 시장과 공원, 학교, 복지과 문화시설, 행정편의시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오래된 공공 시설로 만안구청(옛 안양시청 1973년), 안양 소방 파출소(옛 안양소방서 1976년)가 있고, 교육의 경우 안양초등학교(1929년), 상업 시설은 중앙시장(1961년)과 남부시장(1972년)이 있으며, 문화시설은 안양문화원(1970년) 등이 있다 마을의 연결도로는 마을 앞 도로인 삼덕로와 마을 내부로 연결되는 소곡로와 현충로 그리고 냉천로가 있다 도로는 도로변 주차 공간을 제외하고 2차선을 유지하며 인도는 비교적 협소한 편이다 도로환경과 함께 마을의 대중버스 교통여건은 안양 남부시장 입구에 서울과 수원 등 인근도시와 연결되는 버스정류소와 역전 앞의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다 그리고 냉천마을의 삼덕로를 따라 2번(예술공원 → 중앙시장 → 안양대 → 소곡마을) 버스와 10-1번(중앙시장 → 냉천마을 → 평촌 → 범계동 → 안양시청) 버스가 운행된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도판2를 살펴보면, 냉천마을의 경우 주변 시설물과 도보거리는 평균 1.3km에 활용 빈도가 높은 시설은 대부분 1km 이내로 평균 10분 정도의 보행 거리를 지니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와 함께 도시의 주요 필수 시설물 외에도 냉천마을과 주변에는 다양하고 오래된 종교적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음도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마을 내에는 현충탑 주위로 회교인 이슬람사원과 함께 사찰의 경우 원불교 안양교당을 비롯하여 한미사, 천광암, 도광사, 법계사, 용천사, 장안사, 대각명사 등이 존재한다 교회의 분포는 규모가 큰 교회와 역사가 깊은 교회가 밀집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로 은혜와 진리교회(1982년), 구세군 교회(1961년), 안양5동 중앙감리교회(1967년), 안양중앙교회(1930년), 안양제일교회(1930년) 등이 있다 특히 안양4동의 중앙시장 앞에 있는 장내동 안양성당(1954년)은 시간을 알려주는 종소리와 함께 뽕족한 침탑과 교회의 조형물이 종교적 위엄과 경의감을 알려주는 명물이다

이 같은 안양5동과 냉천마을의 특징은 도심과 가까운 배후 주거지로 기본적인 공공 시설과 경제, 상업, 문화적 요소 등 삶의 질을 영위함에 있어 비교적 우수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은 안양지역의 근현대화 과정속에 만안구가 지녔던 역사와 함께하는데, 일제 강점기 외세자본에 의한 1905년 경부철도 개통과 안양역의 설치와 한국전쟁 이후 만안구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상공업의 발달, 현대화의 과정을 겪게 되며, 이는 동시에 전통문화의 해체와 외래문화의 유입, 농업에 기반한 삶의 기반 변화 등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소위 안양동이라 부르는 지역은 안양의 근현대화 과정이 모범답안처럼 나타나며, 지역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건에 있어서도 과거 시흥군의 중심 지역이었다



### 안양초등학교와 교하동(校下洞 教化洞) 유래

안양초등학교의 주변마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조선조 중엽에 이 마을에 어느 가난한 부부가 외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 아들을 공부시킬 수 없었으나 서당 선생의 도움으로 무료로 글을 배워 노력 끝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이에 나라에서 그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려 했으나 끝내 사양하고 이곳 마을에 향교를 짓고 백성을 가르칠 것을 임금에게 아뢰자 이에 감탄한 임금이 이곳에 커다란 집을 지어주고 교화당(教化堂)으로 명명해 주었다 이후 1927년에 안양초등학교가 세워져 교육의 요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안양지역의 개신교 전래

최초의 전래는 1895년으로 1900년에 발행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과천덕고개교회에서 1895년에 허대진이란 인물이 세례를 받은 기록이 등장한다 이후 1897년의 「그리스도인 회보」에 시흥 범고개(현재의 박달동)에서 교회를 세운 기록과 1900년에는 석수동의 하영홍이 삼막골 교회를 세우고 봉헌하였다 이러한 초기 개신교 전래는 외국인 선교사에 의한 것이며 당시 교회가 남아있지는 않으나 1910년 미국인 선교사 피득에 의하여 전래된 부림교회(현 동은교회)가 있다

### 주요 교회 연혁

- 동은교회 1910 4 15일 과천군 하서면 일동리에서 부림교회로 설립하여 1911년 개인 초가집을 교회로 사용하다 1975년 동은교회로 개칭하였다
- 안양중앙교회 1930년 5월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현 안양1동)에서 기독교장로회로 창립 예배를 보고 같은해 10월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1934년에 안양4동 중앙시장 입구의 현 자리로 이전하였다
- 안양제일교회 1930년 안양중앙교회에 속하였으나 교파가 예수교장로회로 분파되며 1954~55년도에 현 위치(안양1동 남부시장)로 이전하였다
- 안양감리교회 1939년 9월 안양1동 대동서점 옆에서 창립한 후 1967년 안양5동 소재 중앙감리교회가 분리되었으며 2002년에 호계 2동으로 이전하였다
- 안양교회 1939년 8월 안양3동에서 예수교성결교회로 창립하였으며 1943년에는 일제에 의하여 반일교단이라 하여 일시 해산되었고 1947년 재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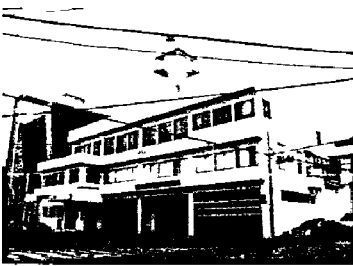
삼덕로에서 남부시장으로 연결되는 방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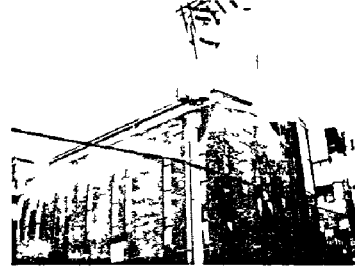
방전 놀이터와 정소년 지원센터



안양5동 주민자치센터



안양문화원과 소방 파출소



안양 구세군 교회

## 주거와 생활

## 〈도판3 마을 경관과 주거〉



다음(daum) 지도 인용

번호	명칭	번호	명칭
1	수태골	9	환경단체연합 광복회 서울음악센터 / 옛 5동 사무소
2	삼덕로 / 마을 외곽길	10	M 마트 / 옛 냉천목욕탕
3	흥전 고추장 화로구이	11	장미 아파트
4	안양대 입구길 / 옛 실개천	12	은혜슈퍼 / 해바라기 길
5	씨네마 델리	13	냉천 약수터(잔우물)
6	은행주택	14	원불교당
7	안양대 / 옛 은성고등공민학교	15	현충탑
8	이슬람 사원	16	소곡마을 / 소곡전

## 수태골 (안양5동 708번지 일원)

수태골은 근명여자정보산업고와 동덕아파트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지금은 현대 아파트와 수리산 성원 쌍떼빌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골짜기를 따라 작은 실개천과 샘이 있던 곳으로 땅이 질어 물탕골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 골짜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옛날 이곳에 금실 좋은 한 중년 부부가 있었으나 이들에게 자녀가 없어 오두막엔 항상 정다운

이야기와 맛있는 된장찌개가 있어도 어딘지 모르게 허전함이 있었다 생각다 못한 중년 부부는 골짜기 샘을 찾아와 치성을 드리게 되었는데, 목욕재계와 옷을 정갈히 입고는 정한수를 떠 놓고 촛불을 밝히며 산신령님께 온 정성을 다해 백일기도를 드렸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던지 백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중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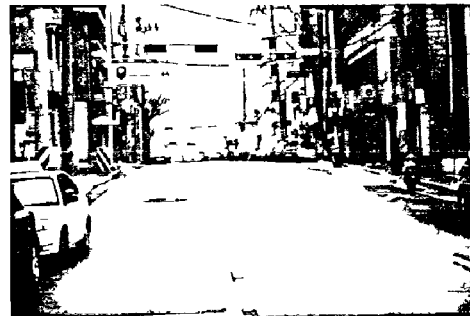


수태골(현대 아파트 단지)

부부는 꿈에서 산신령님의 계시를 받고, 곧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탐스럽고 튼튼한 사내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 아들은 후에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소문이 점점 널리 퍼지면서 자녀가 없는 부인들이 이곳을 찾아와 정성을 들이고 자녀를 얻었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이 골짜기를 사람들은 ‘수태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삼덕로(三德路)

삼덕로의 도로명은 안양4동에 위치했던 삼덕제지(三德製紙)에서 유래하였다 삼덕제지는 1961년에 조성된 인쇄용지 제조공장으로,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아파트 등의 용도로 매각하지 않고 2003년 7월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이 안양시에 기증한 것이다 면적은 공장 부지 16,008㎡와 인근 사유지 3,368㎡를 합쳐 19,376㎡이며 안양시는 여기에 14만 그루의 수목과 야간조명 분수, 수암천과 연계한 폭포, 야생화 길, 소규모 야외무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2009년 4월 22일 삼덕공원으로 탈바꿈하였다 사업비는 12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부지를 쾌척한 전 회장의 뜻을 기려 전재준 회장의 흉상과 1960년대 지역의 산업시설을 상징하는 13m 높이의 굴뚝을 설치하였다



삼덕로(안양대 입구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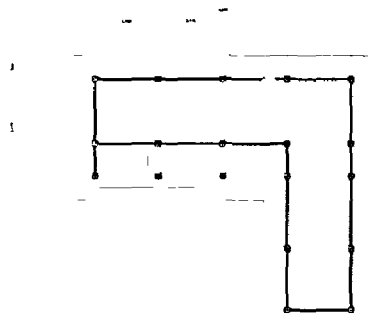


삼덕로(현충탑 입구 앞)

### 홍천원조 고추장 화로구이

- 소재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27-152번지





안채 평면도



가옥전경



내부1



내부2

- 건축 시기 1958년(상량문)
- 규모 형태 안채 8칸, 뒷채 8칸, ‘ㄱ’ 자형
- 가구 짜임 1고주 5량
- 지붕 형태 우진각, 시멘트 기와

안양5동에 소재한 흥천원조 고추장 파로 구이는 1958년에 건축한 한옥집으로 안채와 뒷채로 나누어져 있다 예전에는 살림집이었으나 지금은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채와 뒤채 모두 남서향의 간좌곤향(艮坐坤向)으로 곱은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면으로 퇴가 있는 일고주 오량집이다

안채의 경우 몸채는 6칸에 날개채는 2칸이다 살림집 당시에는 전면에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건넌방이 있고, 좌측으로 안방과 날개채에 이어진 부엌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형의 화장암 초석 위로 쇠시리가 있는 기둥을 올리고 굽지 않은 보와 도리로 가구를 구성하였다 납도리에 기둥 굽기는 115mm×115mm, 높이는 2,270mm이다 서까래의 경우 처마 내밀기가 600mm에 지름은 100mm 내외이다 마루의 높이는 약 320mm로 높지 않은 편이나 예전의 초석의 높이를 참고하면 평균 650mm 정도의 높이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의 평면 공간을 이루는 칸 사이는 평균 2,400mm 전후로 8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안채 상량에는 “龍上梁檀紀四二九一年陰八月二十六日巳時梁家主丙辰生成造大運備人間之五福應天上之三光龜”라 쓰여 있다 즉 1958년 음력 8월

26일에 집을 지었고 집주인은 병진년생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안채의 경우 가구 짜임만 확인되며, 대청간의 미닫이 창호는 원래 모습으로 파악된다 뒷채의 경우도 안채와 같아 가구 짜임만 확인되는 수준이며, 천장은 베니어판으로

막아 조성 시기는 파악할 수 없다 안재와 뒷재 모두 비슷한 양상의 규모를 지나는 집으로 표준화되고 세장한 가구의 짜임을 볼 때 1950년대의 한식집을 짓는 집 장사의 가옥으로 추정된다

### “오신 손님 건강하세요”

홍천원조 고추장 화로구이집은 서안양우제국 사거리에서 서편으로 100미터 지점의 길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50대의 오은영 박종희 부부가 15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안재와 뒷재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식탁 20개에 한꺼번에 100명이 식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830제곱미터(250평 정도)의 넓이로 한여름에는 안재의 넓은 마당에서도 손님을 맞이한다

오은영 씨 부부는 직접 강원도 홍천의 화로구이집에서 ‘홍천사모님’에게서 양념기술을 전수받았다 양념은 여사장 박종희 씨가 직접 준비하며, 주방장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한다 고춧가루는 부안 태양초로 만들며, 모든 양념은 최고의 국산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명절날 3일 정도 쉬는 것 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사를 쉬는 일은 없다

음식점 안에 들어서면 두 개의 나무판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천객만래(千客萬來)” 천 명의 손님이 만 번씩 온다는 뜻으로 많은 손님들이 번갈아 계속 찾아오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는 “오는 손님 건강하세요” 이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몸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걸어두었다고 한다

단골도 많다 주로 주변의 보험회사와 은행, 샘병원, 안양대학교 등지에서 단체 손님이 많다고 한다 10년 이상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너무 고맙단다 처녀총각으로 만나서 찾아주던 손님이 결혼해서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는 고객도 있다 손님의 자녀들이 오영은 씨 부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할 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며, 여사장 박종희 씨의 얼굴이 환해진다 종업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에서 식사하시는 분은 복 받으시는 분이예요”

음식점 방으로 들어서기 전 계산대의 벽에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도 보인다 탤런트 이덕화 최수종과 함께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여사장님



사진을 비롯해 텔런트 박상면, 뽀빠이 이상룡, 축구인 신문선, 무술감독 정두홍 등과 각각 찍은 사진들이 쪽 걸려있다 방 안 벽에는 신문에 ‘맛집’으로 소개된 기사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다 1998년경 경향신문에 “맛집”으로도 소개된 기사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암퍽지의 삼겹살을 양념고추장에 재어 졸깃졸깃한 맛이 일품이다 주인 오은영 씨가 집에서 만든 양념고추장에는 더덕, 도라지, 배, 마늘, 참기름 등 10여 가지 재료를 넣었다 인공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참숯구이는 건강식으로도 좋다 일반 숯은 고기의 겉만을 태우지만 참나무숯의 연기는 고기 안에까지 스며들어 기름기를 빼내고 골고루 훈제시키기 때문 양념맛이 골고루 배어 고소하고 담백한 육질을 즐길 수 있다 고기의 단맛이 살아 있어 어린이들도 좋아한다 참숯은 강원도 인제에서 구해다 쓰고 있다”

(구술자 오은영(61년생, 여), 구술일자 2011년 8월 20일, 8월 28일)

#### 씨네마 델리 최진홍 씨의 꿈 (안양5동 708-38)

최진홍 씨는 안양대 입구에서 샌드위치 전문점 씨네마 델리를 운영하고 있다 10여 평 남짓되는 작은 점포이나 그의 꿈은 앞으로 요식업계, 특히 샌드위치를 주종목으로 하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영인의 꿈을 꾸고 있다 현재 29세 서울 난곡에서 자라 고등학교를 마치고 안양대학교 관광학과 재학 중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는 졸업한 상태이다

졸업 후에는 동남아 등지에서 전문적인 관광 가이드를 계획하고 경험도 쌓을 겸 해서 필리핀으로 6개월 정도 어학연수 겸 관광을 했다 직접 경험하며 고객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거나 습득하기도 했다 국내에 돌아와 여행사와 이벤트사에 취직하여 직장 생활을 하였으나 본인이 원하거나 기획하는 의도와 차이가 있어 직장 역시 그만두게 되었다

직장시절에 최진홍 씨가 원하는 관광이란 1차적인 눈으로 보는 상품이 아닌 여행국의 내면적인 모습들, 즉 사는 모습과 문화적 현상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상품이 필요하며 그러한 면에 있어 본인은 가이드가 아닌 관광 상품 기획자로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은 요구하는 여행자의 수요와 여행사의 경제성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 관광이 아닌 문화 향유라는 점에서 그의 말은 진솔하고 깊이 있게 들린다 다른 취업도 고민했으나 여행사와 이벤트 중심의 기획사를 잠시 다닌 경력으로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 취업난은 어깨가 무겁지만 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에 샌드위치 전문점을 개업하였다 창업 자금으로 본인과 지인의 돈을 빌려 약 1,500만원을 준비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미국 교포로 오하이오주에서 샌



드위치 전문 제인점을 하다 지금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한국에 들른 동포를 만나 샌드위치 요식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영 등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샌드위치 전문점을 차린 계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만 이곳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식성과 특성에 맞는, 더구나 학교 앞에서 젊은이의 기호와 주머니 사정 등에 맞는 경영전략과 수완, 사업 구상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샌드위치를 다양하게 하고, 가격은 저렴하되 맛과 재료, 신선도에서 승부를 걸려고 한다 샌드위치 가격은 평균 3,500원으로 7종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외 4종류의 추가적인 식사류가 이곳 점포의 메뉴이다 현재 하루 매출은 약 150,000만 원 정도 아직은 후배들도 들려주고 해서 다행스러우나 향후 연고 없이 들려주는 또 다른 고객 유치의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최진홍 씨는 현재의 이득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실험적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학교 앞 골목이 2005년을 기준으로 백반이나 면종류 등 분식 중심에서 지금은 커피점과 간단한 인스턴트류에 서구식 음식으로 바뀌는 추세다 향후 학교 앞 골목의 추이가 본인이 원하는 샌드위치 고객수요와도 맞물려 증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이 추구하는 샌드위치의 맛과 식재료 서비스로 맛과 영양이 있는 한 끼 식사대용으로 충분한 사업적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학교 앞 샌드위치 가게가 아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로까지 그의 꿈은 넓고 크다

커피향과 빵 냄새가 가득한 점포 안에서 밝은 느낌의 병아리색 내부 치장은 마치 갓 구운 빵의 색과 같다는 느낌을 준다 그 벽에는 포토샵으로 고쳐 붙인 두 장의 영화 포스터가 찾는 손님들을 유쾌하게 한다 “두사부일체”와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패러디하여 “밀반찬 일체” “지금 먹으러 갑니다”로 바꿔 밀반찬 셀프 코너 안내와 식당 홍보를 겸하고 있는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상쾌하고 즐겁기만 하다

2011년 11월 토요일인데 문을 열어 놓았다 안양대에 행사가 있어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손님이 오던, 오지 않던 학교 가게 문은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사업가의 꿈도 있지만 최진홍 씨는 아직 젊은이다 친구도 만나 술도 한잔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조기축구회에서 공을 차기 때문에 쉬는 날이면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하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며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최진홍 씨의 꿈은 무지개처럼 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스터가 이곳에 붙기를 바란다 그가 좋아하는 축구, 한국의 꿈이 이루어지던 2002년 우리 모두의 꿈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구술자 최진홍(29세, 남), 구술일자 2011년 11월 27일)

### 집장사가 지은 국민주택 - 안양5동 은행주택 한병하 가옥(안양5동 708-128)

안양5동의 은행주택은 1968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다 내부 평면 구성은 당시 유행 하였던 공영주택의 기본적인 평면 구성과 규모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960년대에는 재래식 한옥 구조가 중심을 이뤘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민의 증가로 인하여 60년대 이후 도시 주택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주택 부족 현상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부분의 주택 공급은 미약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주택업자에 의한 주택 보급은 활발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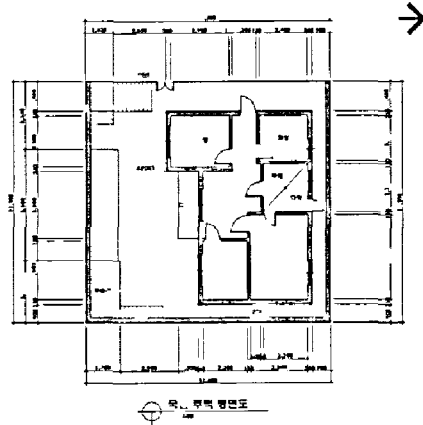
안양5동의 은행주택 역시 당시 주변에 살던 개인 주택업자에 의하여 지어진 집이다 지금은 이웃하는 주택들이 증축 내지 개보수되어 원형이 많이 사라졌으나 유사한 형태의 건물 외형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로써는 서구적 내부 구조에 중산층을 겨냥한 단독주택이었다 특히 은행주택이라 불리는 이유는 당시 건축업자가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지었다고도 하고, 은행주택 건축업자의 신랑이 은행간부였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한병하 씨 집의 대지면적은 51.5평이고 연건평은 32.5평이다 1968년 준공 당시의 17.5평에 이후 1988년에 새롭게 증축된 2층(15평)이 포함되어 있다 집의 구조를 살펴보면, 서향으로 집이 있고 남쪽으로 마당이 있으며 마당에는 화초를 키울 수 있는 작은 화단과 함께 간이 창고 및 야외 화장실이 있다 가옥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마루를 중심으로 하는 겹집 형태로써 남쪽으로 문간방과 마루, 안방이 있고 북쪽으로 화장실과 부엌, 부엌방이 연결되는 평면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각 방마다 독립적으로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굴뚝은 두 개였다 진입로는 남쪽 마당에서 봉당을 올라 마루로 오르는 진입로와 서쪽의 건넌방과 화장실 사이에 현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인 가옥 구조와 근 현대적인 가옥 구조가 함께 조합되어 있는 점도 이 집이 지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내부 구조에 있어 특히 부엌과 화장실은 당시의 시대 변화상을 가장 잘 보여준다 경제생활의 향상에 따른 가구 변화는 당시 건축 내부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

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엌과 관련한 시설물, 구체적으로는 상하수도의 보급과 취사와 연료 문제, 화장실의 실내화에 따른 내부 환경의 변화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집 역시 그와 같은 요소가 전형적으로 발견된다 건축 당시 현관 입구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수세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집이 위치한 지역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 까닭에 화장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다 결국 1983년에 내부의 화장실은 바깥의 마당으로 나가고, 애초의 화장실 공간은 작은 방으로 바뀌게 된다

부엌의 경우 처음에는 레일식의 아궁이로 방에 직접 열을 공급하고 취사를 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집주인이 1983년에 입주 하면서(당시 시세는 2천만원 이었다) 19공탄 2장이 들어가는 연탄보일러, 즉 새마을보일러로 교체하였다 이때 부뚜막은 솥 2개를 걸도록 되어있었다 1988년에는 19공탄 9장이 들어가는 연탄보일러 하나로 세 개의 방을 모두 돌렸는데, 다른 집들보다는 좀 늦게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1990년대 초에 다시 기름보일러로 교체하였다 최근까지도 부엌 위로 작은 다락이 있었으나 집을 수선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부엌 위의 다락은 깊은 부엌이 있을 때 가능한 공간으로 집안의 작은 물건을 수납하는 등 실제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부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거의 사라져 버렸다



은행 주택 평면도



가옥전경(2층은 후대에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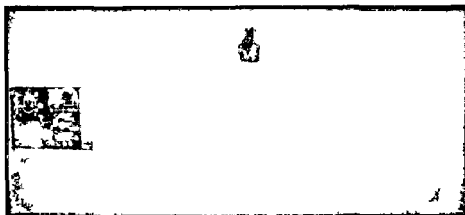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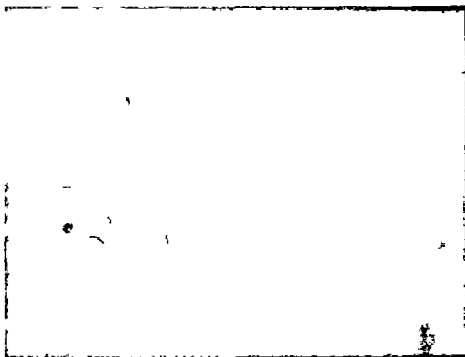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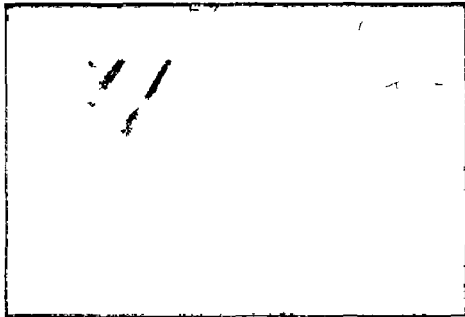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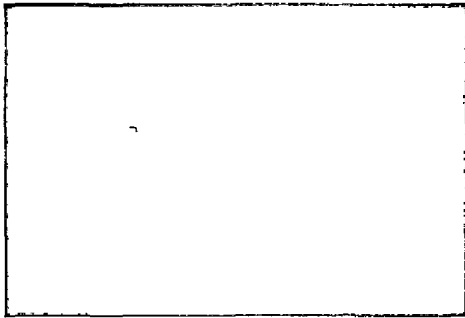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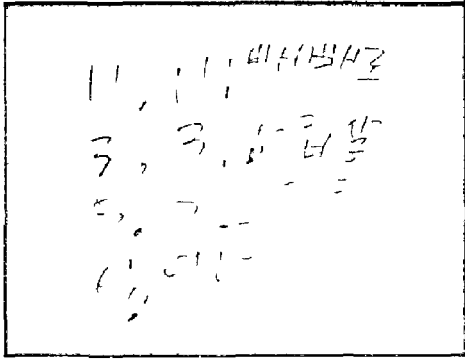
주택 정면

## 살맛나게 해준 물

한병하 씨는 1983년 이곳 은행주택으로 이사했다 넉넉지 못해 집을 구입할 때 전세를 끼고 사서, 한 집에 2가구가 살았다 현관 옆방을 전세로 세를 주었다 은행주택은 안양대학 입구 산비탈에 자리해 있다 시내에서 보면 꽤나 높은 곳이다

이사 오자마자 제일 큰 걱정은 물이었다 수도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물이 잘 나오지





않았다 산 중턱에 있는 주택까지 물이 도착하기 전에 산 아래 가정집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면 밤 열두 시가 되도록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자정이 지나야 물이 졸졸 나왔고 새벽에 일어나 물을 받아놓아야 했다 실내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냄새가 심하게 났다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개조하여 방을 만들었고, 화장실을 집 밖에 새로 지었다

우물을 파기로 했다 혼자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필요했다 옆집과 함께 담을 터서 공동 우물을 만들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물이 말라 들어가면서 물맛이 퉁퉁해서 먹기 곤란했다 이후 수도시설이 완비되어 수도물이 팔팔 쏟아졌다 한병하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한다 “살맛이 났다”

### 벽지, 메모장이 되고 도화지가 되고

한병하 씨 아래층 세입자의 방을 보면 참 재밌다 1층은 최근 집수리를 하기 전까지 두 세대가 살고 있었다 두 집은 마루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뉘어 생활했다 한 세대는 과거 현관으로 들어서서 좌우측의 방 두 개를 사용했고, 현관 밖에 부엌을 따로 마련했다 다른 한 세대는 마루와 부엌 및 좌우 방 두 개를 사용했다

서편의 현관으로 들어서서 왼쪽 방을 살펴 보면, 이곳은 ‘은행주택’으로 지었을 때 실내 화장실이었다가 개조하여 방을 드린 것이다 방의 한쪽에는 각종 세금과 월세 납부 일자가 기록되어 있다 그 맞은 편 벽에는 가수와 노래제목이 빼곡히 적혀있다 이 방은 거주자가 두 차례 이상 바뀌도록 도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까지 살던 가족의 큰아들 ‘홍규’라는 학생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기를 좋아했는데, 노래제목은 아마도 그 친구가 써놓은 듯싶다 이곳은 건넌방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안방으로 쓰이던 현관 오른쪽의 방은 부모님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친지 및 각종 음식점의 전화번호가 벽에 쓰여 있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3월 3일 삼겹살 데이 등의 낙서도 있다 특히 방문 바로 옆으로 아이들 키를 재어 표시해 둔 것이 눈에 띄인다 2003년 8월 20일에서부터 2009년 8월 1일까지 여러 차례 표기되어 있는데, 마지막 키의 크기는 180cm 정도 되었다 이 집에 세 들어 살던 집의 큰아들 ‘홍규’의 성장과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사 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평촌으로 이사했다 동편 또 다른 세대의 안방 벽은 온통 어린아이들의 그림판으로 쓰였다

### 평범한 부모 밑에서 자랐더라면

한병하 씨는 올해로 예순넷이다 여기 안양 ‘은행주택’에 터를 잡고 지내온 지도 어느덧 30년 한 세대가 흘렀다 하지만 이곳의 터줏대감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살아오진 않은 듯하다

늦가을 비가 내린다 현관문 밖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인터뷰 중 ‘개인정보’에 대해 매우 거부반응을 보였다 조금 전 보이스피싱을 당했기 때문이란다 아들 이름을 대면서 사고를 당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으니 병원비를 보내라는 것이었다 강원도에 가있는 아들에게 연락이 닿아서 다행이었지만 남들에게나 있으리라 여긴 일이 자신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몹시 분해했다 ‘덕분에’ 우리의 인터뷰 출발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평범한 부모 밑에 있었더라면 한자리했을 것이라며 혀를 찬다 인생에서 가장 아쉽다고 했다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서 공무원 생활이라도 할걸 “할 게 없어서 5급 공무원이냐” 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한병하 씨의 고향은 능곡이다 지금은 고양시 능곡동이다 일찍이 부모와 헤어졌다 세 살 때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출가하셨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따라가서 배다른 형 밑에서 생활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의 배재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통근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등교했다 그의 얘기로는 처음에 경기고에 가려 했는데 서울역에서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배재고를 택한 것이라고 한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줄곧 장학생이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재학 중 ‘장난삼아’ 육사시험에 응시해서 덜컥 합격했다 그것도 400명 가운데 73등이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육사를 포기하고 서울공대로 진학했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위에 참가했다가 강제로 군대에 끌려갔다 1학년 재학 중에 27사단 이기자부대로 입영했다 1968년 김신조가 청와대 가까이 잠입했던 시절로, 이후 군복무가 3년으로 연장되었다 군대에서는 매일 맞았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35개월 24일 한병하 씨가 군복무한 기간이다 집에 돌아오자 형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 스스로 인생을 살아라” 너 스스로’ 실제로는 내쫓김을 당한 것이라고 그는 기억하고 있다 이후 노숙생활을 전전했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즉결에 넘겨져 벌금을 두 번이나 내야 했다 그런데 속상한 건 그보다도 군대에도 다녀오지 않은 판검사에게 충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즉결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었다고 그는 회고한다 군대에 가지 않은 이인제, 안상수, 그리고 몇몇 도지사들 이후부터는 예비군 중대에 전화해서 훈련 일자를 확인했다 당시는 라면 1박스를 중대본부에 가져다주면 훈련을 빼주던 시절이었다 그때부터는 예비군 중대장을 정말 싫어했다

서울에서 동아일보 답십리지국의 신문배달부로 일하면서 겨우 노숙생활을 면할 수 있었다 비록 사무실 책상 위에 마련된 잠자리이지만 예비군훈련 통지서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76년 특채로 동아일보 관매국에 입사했다 1983년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동아일보 관매국에서 일할 때 동아일보 기자 언론투쟁을 지지했다 이후 진급에서 누락되고 말단 지방부로 발령받아 고생을 많이 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약 20여 년 동안 근무했다 “이제는 기억도 하기 싫다”

### 나이 먹을수록 고독함,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병하 씨는 퇴직 이후 자영업을 했다 동아일보 안산지국을 운영했다 1998년에 안양 중앙시장 옆에서 PC방을 냈다 IMF 때 실업자가 양산되던 시절에 그는 과감하게 1억 원을 투자했다 PC 한 대에 350만원 하던 때였다 PC방은 24시간 영업했다 직원을 두지 않고 낮에는 사모님이, 밤에는 한병하씨가 12시간씩 맞교대로 열심히 일했다 3년 정도 경영했다 몸이 많이 상했다 점차 여기저기 PC방도 급증했다 그는 지체 없이 문을 닫았다

나이가 50 후반만 되면 자기 몸 관리를 철두철미 잘하는 것이 큰돈을 버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 병없이, 우환없이 사는 게 제일이다 “당뇨, 고혈압 몸이 아프면 말짱 개털이야’ 그는 고혈압, 부정맥 증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무리하면 안 돼서 집에서 쉬면서 건강을 회복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1년에 마늘을 일곱 접이나 먹었다 우연히 TV에서 서울대 병



원 의사가 한 끼에 마늘 세 쪽씩을 먹고 혈압을 80-120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방송을 보고 서부터다 이때부터 마늘과 양파를 먹기 시작했다 겨울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현재 80-120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리산 8각정에 올라가는데도 3번은 쉬어야 할 만큼 몸이 나빴다 지금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다 20년 정도 되었다 아마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전의 일로 기억된다 안산에서 신문지국을 운영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갈비뼈와 어깨뼈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에 투표도 하지 못했다 이후 지국을 그만두었고, 담배와 술도 완전히 끊었다고 한다

요즘은 한병하 씨는 자기 자신만의 생활비로 쓰는 돈은 거의 없다고 한다 집 밖의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사회활동도 없다 '나이 먹을수록 고독함,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살아온 환경 때문인지 고독, 외로움에 익숙하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번잡스럽고 사람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 수리산 자락에 올라 심호흡을 많이 하고 명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구술자 한병하(64세, 남), 구술일자 2011년 8월 6일, 8월 23일, 9월 18일, 11월 27일)

### 은성고등공민학교(현, 안양대학교 안양5동 708-113)

공민학교는 1960년대 어려웠던 시절 초등학교를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학교 과정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현재 그 수는 몇 개 학교만 남아 있으나 한때는 전국에 500여 개 학교가 넘을 정도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은성고등공민학교는 1964년부터 79년까지 운영된 학교로 이 학교가 있었던 곳은 현 안양대학교 자리이며 설립자는 안양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낸 이세종 교수이다 이세종 교수는 당시 형편들이 어려워 등록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생도 많았고 "가정방문을 처음 나갔을 때 끼니로 밀기울을 끓여서 먹고 있는 학생을 보고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며 당시를 회상한다 그는 공민학교의 교장이었지만 경비원이기도 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숙직을 도



안양대 입구(병전로)



동아리 행사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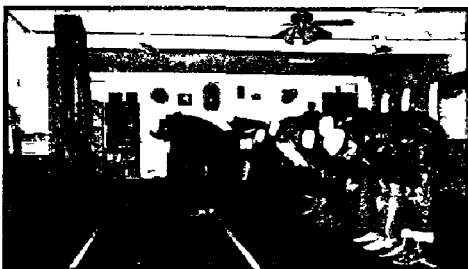
입구 상가

말았기 때문이다 그 흔한 라면도 나오기 전이라 맨 국수를 저녁마다 삶아 먹으면서 학교를 지켰다고 한다 학생들 또한 그런 교장을 보기가 애뜻했는지 “선생님께 따뜻한 떡을 드리고 싶다”면서 집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밤중에 달려온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옛이야기가 되었고 당시 학생들은 이제 초로의 나이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일꾼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한밤중의 따뜻한 선물은 그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다 (안양시민신문 2008 05 15 기사 참조)

### ‘알라’의 땅, 이슬람교 안양 성원(안양동 618-133)



“안양 성원은 한국 무슬림 독지가 후세인 유창식 형제가 사재 5천만 원을 들여 기존 기독교 교회 건물을 매입해 개조한 이슬람 성원으로 1986년 4월 26일 개원되었다 안양 성원은 1985년 12월 세계무슬림연맹(라비타)에 의해 라비타 성원으로 명명되었으며, 현재에는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 무슬림 근로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http://www.koreislam.org>)



이것은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사이트에서 라비타 안양 성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슬람 선교를 위해 1964년 10월에 발족된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는 국내 유일의 이슬람 선교기구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앙성원에 본부를 두고 부산, 안양, 부천,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에 8개 지회와 60여 개의 임시 성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슬람은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세계 140여 개 국가에 13억 명의 신도가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한다



후세인 유창식 이맘과 아들 하산

## 이슬람교 안양 성원의 창시자, 후세인 유창식 이맘

안양 성원은 안양대학교 정문 앞에서 왼쪽으로 200미터 정도 가면 길가에 바로 붙어 있다 북향으로 문이나 있는 건물 입구에는 세 가지 종류의 현판이 걸려있다 현판문 위에는 아랍어 현판과 함께 ‘ANYANG AL-RABETA MOSQUE 안양 이슬람사원’이라 쓰여 있고, 옆에는 ‘이슬람교 안양 성원’이라고 쓴 현판이 길게 걸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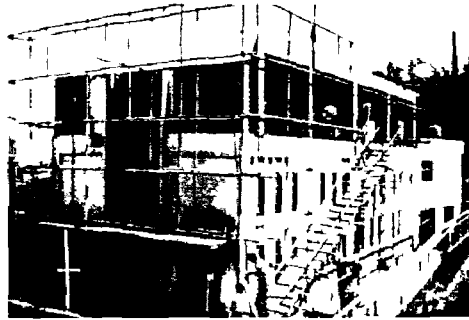
안양 성원은 처음 설립할 당시 라비타의 지원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성원에 모이는 무슬림들이 각자 돈을 내 운영하고 있다 토요일마다 15~20명 정도 모이고, 마지막 토요일에는 50~70명 정도, 금요일 점심 정식기도 때에 20~30명이 성원에 모여 기도를 한다 지금 이곳에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모로코, 이집트,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의 유학생들도 드나들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의 하루 의식으로는 Fajr, Sunrise, Dohr, Asr, Maghreb, Isha 등이 있다

기도는 “알라 후 아끄바르(알라가 가장 높습니다)”로 시작하여, “아쌀라 무 알레곰 와라마 툴라(하나님 당신에게서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로 끝을 맺었다 2011년 10월 27일 오후 4시 의식에는 1명의 인도자와 17명의 예배자가 참석했다 예배는 10분 동안 진행되었다

안양 성원은 1986년 4월 안양의 한 한국인 무슬림이, 교인이 없어 매물로 나온 교회건물을 매입하여 이슬람사원으로 개원한 것이다 한국 내 다섯 번째 이슬람사원이지만 교회를 이슬람사원으로 개원한 최초의 사례이다 그 한국인 무슬림이 바로 후세인 유창식 이맘(교회의 목사에



이슬람 사원



1986년 신축 모습





해당)이다

후세인 유창식은 이북 영변 출신으로 호적상 1940년생이다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친 뒤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유신시대 때 말씀을 잘 못해서” 퇴직하게 되었다고 한다(사모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후 사업에 뛰어들었고 중동지역을 자주 오갔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이다 꿈속에서 아잔(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 중에 누군가 와서 얘기하기를 “여기 말고 너희 나라에 가서 아잔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를 꿈의 계시로 여겼고 곧 이슬람교에 입교했다 국내로 돌아온 유창식은 한남동에 거주하면서 무슬림 공동체 설립에 노력했다

안양으로 내려온 유창식은 이곳 냉천동 기독교 교회를 매입하고 1986년 4월 이슬람 사원으로 라비타 안양 성원을 개원하였다 그는 명학동 일대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슬림의 모임을 만들었다 점차 중동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사원의 모습을 갖추나갔다 가족이 모두 무슬림을 받아들였으며, 아들 하산은 아버지 유창식 이맘을 잘 따랐다 안양 성원을 운영하면서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 사모님은 유치원을 경영하다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1년 유창식 이맘은 사업차 쿠웨이트에 갔다가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안양 성원은 한 때 문중 재단의 소유로 하였으나 현재는 유창식 이맘의 아들 하산과 그의 고모의 소유로 되어있다

### 이슬람교 안양 성원의 이주노동자 무슬림, 알람

이슬람교 안양 성원에서 ‘알람’이라고 하는 이주노동자를 만났다 원래 이름은 ALAM-GIR BIN SOLAIMAN CHOWDHARY이었다고 한다 CHOWDHARY는 ‘땅 부자’를 뜻하는데 알람의 아버지 때까지는 이것을 성으로 하였으나, 알람이 초등학교 때, 땅 부자도 아닌데 이것을 성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이를 빼자고 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알람은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키가 크고 매우 친절한 사람이다 나이는 1971년생, 우리 나이로 꼭 마흔 살이다 6남매(남자3, 여자3) 가운데 장남으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님과 동생들이 함께 살고 있다 방글라데시 치

타공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다고 한다

알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95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였다 1997년에 산업연수를 마치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여 2003년까지 일하다가 또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 2004년 다시 입국하여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아내는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과 사별한 뒤 한 살 아래인 알람을 만났다고 한다 현재 18살과 20살의 두 딸이 있다

알람은 처음 경기도 여주에 있는 애자공장에서 8년간 일했다 회사식구들은 매우 친절하게 잘 대해줬다고 한다 현재는 두 달 전에 입사한 안산의 대림포장(박스회사)으로 출근하고 있다 결혼한 이후 장남으로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여 방글라데시의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30살의 친동생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알람은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한다 테러를 반대한다 전쟁은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거듭 말한다 그는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안양 성원에서 다른 무슬림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

### 반한단체로 몰린 이슬람교 안양 성원의 이주노동자들

2004년 10월 13일 밤 텔레비전 뉴스 “국내에서 이슬람 반한(反韓)단체가 적발되었다” 안양 성원의 사람들은 황당하고 어이없어했다 당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다와툼 이슬람 코리아’(이하 다와툼)라는 방글라데시 반한단체가 안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어 핵심조직원이 추방당했다는 보도가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다와툼’은 실상은 “무슬림끼리 기도하고 소식을 나누는 모임”일 뿐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안양 성원에 모이는 인근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다와툼’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해고된 친구들의 직장을 알아봐 줬다 인근 지역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인은 물론 파키스탄인, 인도네시아인 등 중동지역 및 동남아시아 여러 국적의 이주노동자 무슬림들이 모여 예배를 보며 정보를 교환하는 사원공동체가 한순간에 반한단체의 중심지로 둔갑돼 버린 것이다

그들은 기존 안양 성원이 규모가 작아 자신들이 돈을 모아 3층을 올렸고, 2002년 성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자 자신들의 공동체로서 직접 건물을 구입하고자 했다 주

변의 이주노동자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보내왔고, 1억 여원을 한국인 명의로 외환은행 안양 지점에 저금해 두었다. 이러한 돈이 방글라데시 한 정당에 송금됐고, 불법 체류자 취업 알선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반한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한국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반한 이슬람 단체가 적발됐다”고 한 국회의원과 몇몇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다. 당시 날벼락을 맞은 당시 안양 성원의 한 무슬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테러 반한단체라니요 한국의 발전상을 동경하다 이곳에 온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을 해치려 하겠어요. 더구나 열심히 일하고 아껴 써서 가족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내고 싶어하는 우리가 테러단체에 송금할 리가 없죠. 반한단체 이야기가 나온 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느나라 출신이냐고 물어 ‘방글라데시에서 왔다’고 하면 잔뜩 경계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이주노동자들이 반한활동가로 둔갑한 것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불법체류자 반한활동 종합대책>에서 반한활동의 내용에 “정치적 주장을 하며 정부시책을 비판 오도하고 이를 선전 주동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음날부터 흐지부지되었다. 지도자로 지목된 세 사람은 불법체류자로 추방당했을 뿐이었다. 당시 ‘다와툰’ 회원이었던 알람과 마믹은 ‘방글라데시 반한단체 보도’가 나간 이후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시사저널』 제783호와 『한겨레21』 제531호 참조)(구술자 알람(71년생, 남, 방글라데시), 구술일자 2011년 11월 27일)

### 포도밭에 들어선 안양 최초의 아파트, 안양5동 장미 맨션(B동 203호)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1932년 일본 기술로 세운 서울 충정로 유림아파트가 처음이었다. 광복 이후 1961년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마포에 도화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이후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함께 크고 작은 아파트가 붐을 이루게 되었고,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아파트 투기’라는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아파트 열기와 관련해 당시 경제 상황을 살펴보자. 1970년대 초까지 경기 호황에 힘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동시에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투기 목적을 띤 부동산 경기는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간접적 시장 개입에서 직접적 시장 개입으로 전환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목적으로’ 1978년 8월 8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 대책인 ‘8·8조치’를 단행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5동 장미 맨션 역시, 대형 아파트는 아니지만 70년대의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 과정 속에서 1978년에 준공된 안양지역 최초의 아파트라는 건축사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78년 8 8조지와 함께 언론에 나타나는 건설 분양 등의 관련 기사는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장미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한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자

“아파트 반값에 바겐 세일, 분양 부진에 할인 사태, 평당 11만원 깎아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밖에 정우개발의 경우 안양의 장미맨션을 입주시킨 후에 분할하여 상환을 받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으며 다른 주택업자들의 경우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보너스로 설치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아파트 바겐세일 등 할인 분양 등은 울 들어 주택경기 침체로 아파트가 남아돌고 있고 금융긴축정책에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심리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1979년 6월 23일)”

### 안양5동 장미맨션의 구조와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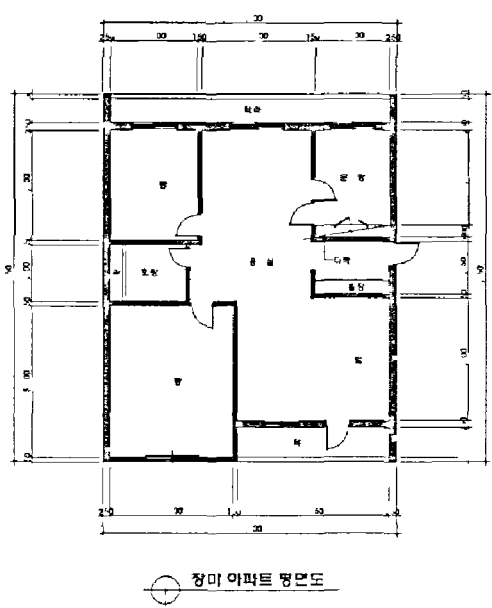
장미 맨션이 있는 이곳은 포도밭이었다 안양포도는 1930년대 일본에서 묘목을 가져다가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60~1970년대에 안양포도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물이었다 이 땅의 소유주는 중국인이었는데 한국 사람과 결혼하였고, 아파트가 건축되자 세를 주었다가 입주하여 1년여 살았다고 한다

장미 맨션은 1978년에 준공되어 1979년에 입주하기 시작한 장미 맨션은 두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향의 배열에 가운데로 중정을 두고 동쪽 A동이 29가구, 서쪽 B동이 21가구이다 건평은 32평, 44평, 48평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B동 203호는 32평으로, 현재 1980년에 입주한 안홍순 정애영 부부가 살고 있다 A동의 경우 도로를 따라 1층에는 제과점과 미장원, 피아노 교습소, 가전제품 보관소와 같은 소규모 상가가 남아 있어 건립 당시 맨션아파트와 이에 따른 상가 형성의 설계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내부 구조는 북쪽의 현관에서 실내로 진입하게 되어 있으며 거실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빨래널기 용도의 발코니가 있고, 동쪽에는 부엌과 다용도실, 작은 발코니가 있다 방은 북쪽으로 현관과 연결된 방이 있고 남쪽으로 안방과 화장실, 건넌방이 위치한다 내부 구조의 특징을 보면, 거실을 중심으로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현관과 연결된 방의 경우 현재는 서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별도의 옷장과 수납공간이 있어 공간이 지닌 세대의 살림의 분화와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간별 주요 살림살이

구분(바닥, 벽재 조명)	위치	명칭
거실 (비닐 장판 백색 벽지 원형등)	서향 남향 북향	좌식 책상 선풍기 목제 문갑 2조 화분 티브 소형수납함 가족 액자 도자기 소품 장식류 벽시계 달력 액자 기념품 및 상패류 (독립훈장증 및 서대문 형무소 벽돌) 벽걸이 족자(동양화) 액자(비구상 작품) 벽걸이 액자 에어컨 소파 자전거형 운동기구 달력
안방 (비닐 장판 백색 벽지 원형등)	동향 서향 남향 동북향	장식용 선반장 2조(도자기류 가족 사진 상패류) 벽부 옷걸이 의자 소형 책장 벽시계 액자(불경) 자개장 침대
건너방 (비닐 장판 백색 벽지 형광등)		옷장 및 집안의 허드레 물건 정소 도구 등 수시로 쓰지 않는 물품 보관
문간방 (종이 장판 유백색 벽지 원형등)	동향 서향 남향 북향	벽부 옷장 책장 옷장 책상 컴퓨터 책상 접이등 책장 3조 책장 및 3단 옷장 행거용 옷걸이
부엌 (비닐장판 백색벽지 삼파장등)	동향 서향 남향 북향	목재 식탁 소반 전기밥솥 양념병 벽걸이그릇장 가스 랜지 전자렌지 김치냉장고 목재 그릇장 냉장고 2인용 식탁(기도용 대좌로 사용) 소형냉장고 그릇장 싱크대 달력 거울 원형 접이 식탁 부엌 요리 도구 수납함



평면도



아파트 전경



A동과 상가

안홍순 정애영 부부는 슬하에 1녀 2남을 두었다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구조가 불편했다 다용도실을 확장해 주방으로 사용했다 그 이전에는 다용도실에 세탁기 하나 놓을 공간뿐이었다 주방을 확장하면서 세탁기는 베란다로 옮겨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장미 맨션은 처음에 7층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안양시장이 바뀌면서 너무 높으면 산이 가린다고 3층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안양시민에게 장미 맨션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입주하려면 경제력이 좀 있어야 했다 전 안양시장, 유한규, 국회의원 윤국노, 원용희, 읍장 김기복 등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많이 입주했다 처음 분양가는 1,950만원이었는데 1980년 안홍순 정애영 부부가 이사 올 때는 1,900만원에 매입하였다고 한다

초기 장미 맨션에 입주한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모두 이사했다 현재 이곳은 재건축 예정이다 이미 설계까지 했었다고 한다 도장 찍은 사람들만 350만원씩 냈다고 한다

### 안홍순 정애영 부부의 하루

정애영님은 올해 75세이다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하고 사회활동 또한 활발하다 안홍순님은 올해 76세로 매우 차분하며, 매사 합리적이고 겸손하다 부부의 하루일과는 어떨까

정애영님은 새벽 3시를 전후해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보통 1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난다고 한다 곧바로 세수한 다음 108배를 하며 기도를 한다 기도는 정애영님만의 예식에 따라 2시간가량 진행된다 5시경이면 아침 준비를 하고, 6~7시경 남편과 함께 아침식사를 한다 식사 후에는 부부가 함께 잠시 쉰다 남편 안홍순님은 잠시 누웠다가 광복회로 출근하다 보통 월, 수, 금에 나가서 일을 보지만 요즘은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한다

정애영님은 쉬면서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가 9시경이 되면 찜질방에 간다 찜질방에서 1~2시간 보낸 뒤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11~12시경이면 집에서 점심을 먹는다 오후에는 통장관리를 비롯해 집안일과 바깥일 등 각종 사무를 본다 때때로 집 뒤에 있는 수리산 자락 언덕배기의 찬우물 약수터 주변을 청소하기도 한다 수영장에 가는 날은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12시에 가서 3시 반쯤 귀가한다

남편 안홍순님은 4~5시경이면 광복회 일을 마치고 귀가한다 귀가 후에는 컴퓨터로 사무를 보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일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애영님은 저녁을 준비하고, 6~7시경 부부가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저녁을 마치고 나면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컴퓨터를 한다 부부가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곤 하는데, 안홍순님은 정애영님께 좋은 글귀들을 메일로 보내곤 한다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며, 때때로 정애영님이 안홍순님의 온몸을 주물러 드린다 안홍



순님이 대장암으로 고생한 이후 줄곧 그래왔다고 한다 밤 9~10시가 되면 정애영님이 먼저 잠자리에 들고, 안홍순님은 11시경에 하루를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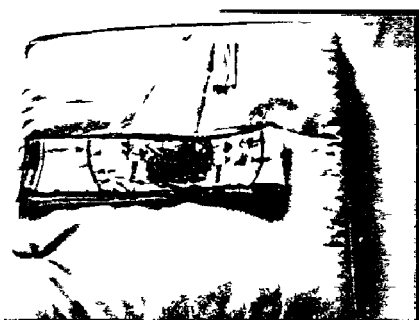
### “이것을 먹은 자들은 원하는 것으로 태어나라”

정애영 씨는 몇 가지 의례와 의식을 소개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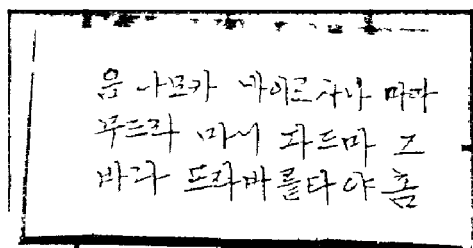
정애영 씨는 자신이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명절과 제사를 모신다 제사는 지차라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제사만 모신다 시어머님은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사셨다 아예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다고 한다 “자네 시어머님께 얻어먹고 살았어”라며 명절이면 고맙다 하며 고무신이나 기름을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시부모님 제사나 차례를 모실 때면 따로 “결상”을 하나 더 놓는다 시어머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다 결상에는 밥과 숟가락을 많이 놓는다 또는 후손이 없어서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어른들을 모셔서 드시고 가도록 하곤 했다 명절 때는 반드시 토란국을 끓인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항상 음식과 술 등을 골고루 담아 향을 함께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던진다 “이것을 먹은 자들은 원하는 것으로 태어나라”라고 말하면서 던진다 산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정월 초순에는 시루떡을 하고 정월고사를 지낸다 음력 1월 14일 정월보름 전날에는 오곡밥을 짓는다 오곡밥을 뭉쳐서 산이나 우물에 가져다 놓는데, 장소는 마을 뒷산에 있는 수리산 자락의 충혼탑 뒤와 찬우물 두 곳이다 사월 초파일에는 절에 간다



〈새벽에 기도할 때 쓰이는 도구들〉



〈기도할 때 외우는 광명진언〉

칠월 칠석에는 집에서 부침개와 제철 과일을 놓고 기도한다 우물이 없으므로 베란다 앞(찬우물 방향), 아이들 방, 부엌 등 일곱 곳에 물 또는 술을 놓는다 구체적으로는 대청(술), 현관(술), 부엌(물), 방 3곳(물), 베란다 앞(물) 등이다

올 추석에는 쌀 3되로 송편을 빚었다 아들이 꼭 밀가루 반죽을 만든다 과일값은 하나도 안 들었다 광복회 지부에서도 보내온다 금년에는 대통령 부인이 남해 멸치와 북어포를 보내주셨다 사돈택에서도 조기와 명태를 보내오셨다 추석 당일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와서 하루 머물고 간다 올해 딸은 명절 전에 미리 와서 25만 원을 주고 갔다

정애영 씨는 삼막사 안도스님이 계실 때 절에 다녔다 이후 집 뒤 수리산에 있는 작은 암자에 다녔는데, 나중에 암자의 비구니께서 안양6동의 민가로 내려왔다고 한다 절에 가서 100일 동안 매일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신량을 위해서였다 신랑 안홍순님은 그 모습이 안쓰럽다고 ‘불심(佛心)’이라고 쓴 붓글씨를 직접 써서 액자에 넣어 집에 걸어두었다

특히 2010년부터 ‘광명진언’을 하며 매일 같이 108배를 올리며 기도하고 있다 ‘광명진언’ 기도법은 신라의 원효대사가 들여왔다고 한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타야 흠” 이 진언을 귀로 듣기만 해도 모든 죄업이 없어지고, 죄를 지어 죽은 뒤 악도에 떨어져도 이 진언을 외우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정애영 씨는 새벽에 일어나 불심을 가지고 2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 조상님께 감사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며 베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음력 9월 1일이 되면 꼭 1년이 된다 남편 안홍순님 생신이 음력 9월 20일 인데 그때까지만 하고 회양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은 시어머님의 기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편의 생일잔치를 따로 하지 않고 다만 가족과 함께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하는 정도로 보낸다고 한다

정애영 씨는 “바깥양반은 겸손하고 차분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배울 게 많은 양반”이라고 거리낌 없이 얘기한다 그뿐인가 남편에 대한 사랑은 더 깊다 “다시 태어나면 다시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못다 이룬 것, 하고 싶은 것, 좋은 일 더 하면서 살고 싶다”

### 늘 봉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배움을 찾아서

정애영 씨는 초계 정씨이다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집성촌이 있다 1963년 12월 12일 안양의 안홍순 씨와 혼인하여 이곳에 정을 붙이게 되었다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었다 시 아버님은 3·1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유공자이시다 슬하에 큰딸과 두 아들을 두었다 정애영씨는 스스로를 성질이 불같다”고 한다 그만큼 매우 활동적이다 그러면서도 배려가 깊다 우리가 인터뷰하러 가자 집에 냄새가 날까 봐 일부러 메밀차를 끓여 구수한 냄새가 나도록 했다

장미 맨션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바로 뒤 단독주택에서 살았다 한 100여 평 남짓 뒀다 지금은 도로와 주차장에 편입되어 10여 평 채 남지 않았다 이곳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그



〈안홍순씨가 아내를 위해 직접 쓴 불심(佛心)〉

자리에 새집을 짓고 살려고 했었다고 한다 남편 안홍상씨는 초등학교 교사여서 전근이 잦았다 시어머님을 모시면서 아이들을 키웠다

그러면서도 정애영 씨는 마을 곳곳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달려갔다 마을의 부녀회장을 맡아서 했다 집 뒤 수리산 중턱에 충혼탑이 생기고 나서는 담배꽂초를 치우고 충혼탑 주변 쓸기운동을 시작했다 미망인들의 생일잔치상을 차려드리기도 했다 장미 맨션 부녀회를 만들고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아파트 주변에 화분걸이, 꽃심기 등을 추진했다 장미 친목계에서는 이집저집 다니며 꺾죽을 끓여먹기도 하고 동남아여행도 다녀왔다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이곳에 살다가 이사한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

안양5동 새마을금고를 만들 때에는 처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장롱에서 돈을 내놓도록 설득하며 애썼다 이 일로 상도 받았다 이후에도 곳곳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안양대학교 설립 초기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다 정애영씨가 주선하여 보험회사 소장, 보험회사의 중앙 간부 등이 함께 해줬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남편 안홍순씨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복회 안양지회원들과 함께 차에 태극기를 꽂아주는 활동을 했다 태극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줬다 삼일절이나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태극기를 나눠줬다 국기나눔운동은 2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2005년경에는 국기사랑모임이란 정식 카페를 만들고 1,000원씩 모았다 현충일인데도 사무실에 태극기를 달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태극기 달기운동도 시작했다 태극기를 달더라도 관리가 안 돼서 새까맣게 때가 탄 태극기를 보면 일부러 찾아가 바꿔주기도 했다

정애영 씨는 시아버지의 애국지사 등록이나 남편의 광복회 활동을 도우면서 ‘우리 것’을 찾기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전통가정예절, 孝禮 茶교육, 전통천연염색, 우리문화연구, 안양문화원 이사 등 우리나라만의 것을 찾고 널리 알리는 데 여념이 없다 정애영 씨는 신분증 사진은 모두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다 우리나라에서나 외국에 나가서나 진짜 ‘나’를 알리는 일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임을 늘 강조한다



〈천연염색으로 손수 만든 방석 위에 앉으신 정애영 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고 색깔이 있는데 제대로 전수를 못 하고 있다 요즘 젊은 이들이 외래문화만 쫓아가는 것은 문제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하지 않는가 옛것 가운데 좋은 것은 잘 보존하고 널리 알려야 하지 않는가

떡을 먹으면 무김치를 먹고,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이치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절이라도 가르치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 독립유공자의 집

장미맨션 203호는 ‘독립유공자의 집’이다 안홍순 씨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현재 광복회(光復會) 부회장을 맡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2002년 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교단을 떠났다

아버지는 1919년 4월 전남 순천군 낙안면과 보성군 별교읍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 안용갑(安鏞甲, 1892~1947) 선생이다 하지만 1936년생이신 안홍순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아버지의 생활이라야 나무나 하면서 술로 인생을 보내는 일상을 지내시던 것이 아버지에 대한 첫인상이다”

“1947년 12월 24일(음력)에 아버지가 운명하셨으니 내 나이 9살이다 사진기가 귀하던 시절이라 내 판에는 아버지의 얼굴을 연필로 쓰러져가는 벽에다 그렸는데 그 이후로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마당에는 산에서 생나무를 베어서 화톳불을 활활 피우고 있었는데 조문객이 무척이나 많았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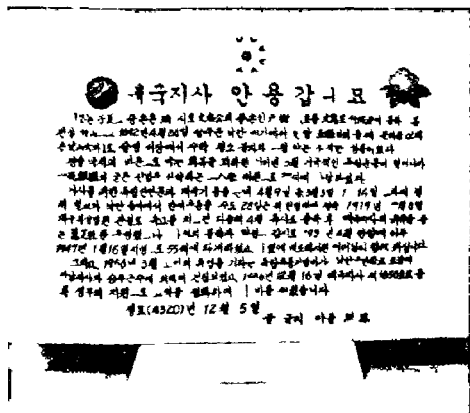
안홍순 씨는 홀로 5남매를 키우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서야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전까지는 어머니의 삶의 애뜻함에 가슴을 절였을 뿐이었다 그는 1998년 파주 교하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자서전 『수리산 자락』을 간행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1918년 8살에서 황(장수)씨네 맏딸로 태어나 출가한 다음 해 31운동으로부터 아버지의 독립운동이 시작되면서 일경에 대한 수모로 집을 버리고 도피생활로 인한 집안의 모든 살림을 혼자 감당해야 했고, 아버지가 1년이란 대구형무소 옥고생활 끝에 출옥한 뒤에도, 독립운동 시 먼저 간 동료들의 유족을 돕는 “혜지사”를 조직, 활동을 계속하니 일경의 감시 속에 가세는 몰락하여 당신의 정든 고향을 등쳐야 하는 불운과 함께 1936년 초겨울 큰 집을 따라 안양으로 이주하였으나 타향의 생활이란 가난과 허탈뿐이다 일정한 직업도 없는 실의와 노동도 할 줄 모르는 아버지, 자신을 저주하고 건강도 나빠진 상태로 술만이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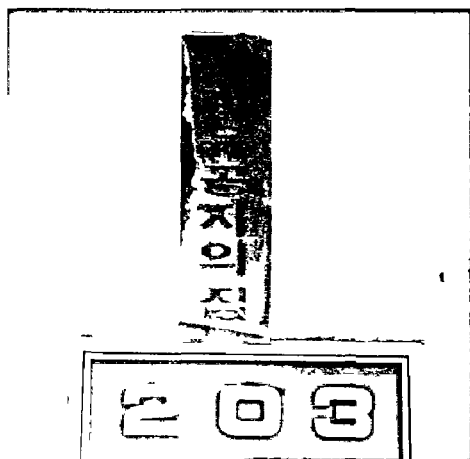


의 전부인 것을 이제야 알만했다”

독립유공자 안용갑 선생은 전남 낙안 태생이다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순천군 낙안면 신기리에서 동지 33명과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다짐하는 비밀결사 이팔사(二八社)를 조직하고 그 대원으로 가담했다 4월 9일과 13일, 14일 ‘대한독립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벌교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4월 28일 일본 헌병대에 검속되어 7월 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9일 감형되어 출옥하였다



안용갑 선생의 기념비문



현관문의 독립유공자의 집

은혜식품과 해바라기 길 (안양5동 618번지 일원)



은혜식품

출옥 후에도 애국지사의 유족을 돕는 혜지사(蕙芝社)를 운영했다 하지만 가세의 몰락과 일경의 감시를 피해 1937년 4월 정든 고향을 등지고 안양으로 이주하였다 1947년 1월 16일 5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1956년 3월 고인의 유업을 기리고자 낙안초등학교 교정에 당시 전남지사와 승주군수의 의해 독립운동기념비가 건립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6년 12월 16일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구술자 정애영(37년생, 여), 안홍순(36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9월 18일)

은혜식품은 약 40여 년 전에 쌀가게로 시작된 냉천 마을 끝의 작은 점포로 살림집을 겸하고 있다 시멘트 벽돌조에 외장은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건물로 계단식 축대를 이용하여 건조되었는데 정면의 출입문은 상단 축대에 접하여 있고 하단 축대에는 건물의 배면 벽체가 세워져 있

다 따라서 상단 축대에서 보면 1층집이지만 아래에서 바라보면 영락없이 2층집이다 특히 건물의 정면과 배면 사이로 작은 골목길이 통과되므로 방형의 통로를 만들어 지나가는 골목의 역할을 그대로 살려 놓았다 골목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되었겠지만 의도야 어떻든 참 재미있는 집이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공간은 집의 중앙을 관통하는 집과 골목의 만남 공간이다 작은 공간은 비도 피하고 햇볕도 가려 주지만 작은방이 있어 이런저런 물건을 모아두는 썸지같은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아주머니들의 수다 공간이며 동시에 정보가 교류되는 커뮤니티 센터이기도 하다

2010년 이 공간은 다시 태어난다 일명 “누구나다.방”으로 안양시가 추진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햇살과 웃음이 오가는 골목길 다방인 셈이다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 공공예술(公共藝術)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술은 특별함이 아닌 삶 속에 함께 할 때 훨씬 더 유쾌하다 은혜식품의 “누구나다.방”은 그래서 즐겁다 예술아! 같이 놀자!”

해바라기 길은 2011년 11월에 냉천마을의 골목길 벽화사업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골목길이다 이곳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밀집하는 주거지역으로 지형상 주택의 담장과 계단식 축대가 좁게 골목을 형성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도시 기능 개선 또는 마을과 골목의 재생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지역주민,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참가하였다 벽화구간은 현충로 84번 길과 98번 길로 은혜식품 구간 70m(현충로 84번길)와 한미사 구간 50m(현충로 98번길) 등 전체길이 120m에 달한다 2011년 11월, 늦가을 햇살 아래 담장에 핀 해바라기와 양귀비, 멀리 보이



은혜식품 측면과 골목의 소통



한미사 구간의 벽화



은혜식품 구간의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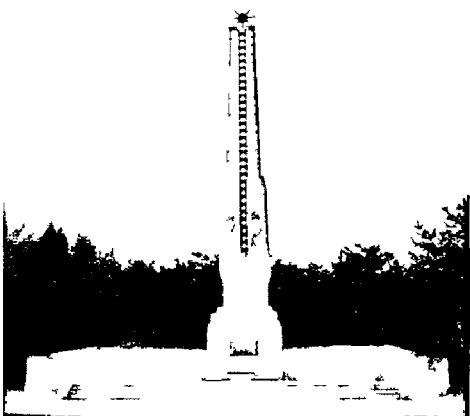
벽화작업후 모습



찬우물



원불교 안양 교당



현충탑



정동 조형물

는 초원에 집은 도심 골목을 동심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해 보인다

#### 찬우물(冷泉洞)(안양5동 590번지 일원)

충혼탑 아래에 오랜 역사를 가진 샘이 있는데 그 인근을 찬우물(冷泉洞)이라 부른다 수량이 많아 예전부터 식수와 농업용수로도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주민의 약수물로 이용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 시대에 가뭄이 극심했는데, 인근에 사는 농부가 수리산 정상에서 산신령에게 간절히 기도하자 맑은 샘물이 솟아나왔다고 한다 이것이 곧 냉천마을 유래와 냉천로 명칭의 근원이 되었다

#### 현충탑(顯忠塔)(안양5동 산103-118)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현충탑은 원래 1971년 10월 15일 시흥군 관내의 유족과 군민의 뜻에 따라 당시 안양5동에 거주하던 고(故) 권용식 선생이 부지를 희사하여 19.6m의 높이로 건립되었다 이후 시설물이 낡아 경내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1996년 12월 14일 탑신 25m의 높이로 현재와 같이 새롭게 건립되었다

6.25 전쟁과 각종 국난위기시 희생한 육군, 해군, 해병, 공군, 방위병, 애국단원, 청년단원, 군속노무, 경찰, 전투경찰, 소방등 각 소속별 637위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1998년 6월 6일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를 추가로 세웠다

안양을 굽어보는 현충탑 주위로 간단한 제

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은 물론 수리산을 산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중 이곳을 찾는 대표적인 현충시설이다 비신에는 김대규 선생의 시 “하늘이여 땅이여”가 선현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 소곡마을(小谷洞)(안양6동 587번지 일원)

안양세무서 뒤쪽인 수리산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다 수리산의 작은 골짜기 안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소골안이라 부르며 일설에는 이곳이 예전에 나무와 숲이 우거져 골짜기 안에서 소(牛)을 많이 기르던 곳이라 하여 소골안(牛谷洞)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러나 지형상 다량의 소를 방목할 정도의 초지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는 와전이라 하겠다



소곡로

다 1980년대부터 소곡(昭谷)으로 부르기도 하며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소곡천은 길이 약 1.1km에 안양세무서 앞을 거쳐 안양천에 유입된다 냉천 마을의 남쪽 경계를 이루며 소곡로 역시 마을지명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길과 마을

## 길은 길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길’이라는 표현보다 ‘도로’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도로를 몇 차선 아니면 몇 미터로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공학적인 이해는 과거 길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해왔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길은 예전부터 마을 구성에 있어서 공동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망이었다.

길은 물길과 관계가 있으며 지형이 갖는 원만한 위계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 길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사람이 걸으면서 공간과 시간을 함께 느끼는 곳이기도 하다. 좋은 마을길은 마을입구로부터 마을안이 보이지 않으며 산의 맥에 따라 구부러짐과 징검돌 및 계단 등 통과요소의 변화, 길 주변에 있는 나무 등 시선 표적들에 의해 공간마디가 연속 반복되는 울동에 의해 주거지를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길은 큰길, 어귀길, 어귀, 안길, 셋길, 골목 등으로 위계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큰길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통과교통이 지나는 길로 마을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바깥길이며, 어귀길은 큰길에서 어귀까지 이르는 길로 큰길과 마을이 갈라짐에 따라 마을을 지나가는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는 안정된 장소이다. 지형지세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서 어귀길은 내를 건너거나 산모퉁이를 돌아들듯 굽이쳐 전개되는 길이다. 그리고 어귀는 마을바깥과 안의 경계로서 공간의 전환점이 되는 곳이다. 어귀는 마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자나 공공 공간을 설치하여 외부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간이 된다. 시골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가끔 등장하는 장면 중의 하나가 외지에 나갔가 돌아오는 남편이나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와 기다리거나 배웅하던 곳이 동네어귀였다.

안길은 어귀를 지나면 바로 만나는 길로 마을사람만이 사용되는 길로서 마을생활의 중심이 되어 가장 공공성이 큰 곳이다. 셋길은 안길에서 다시 생겨난 길로 길목이라고도 한다. 길목은 길마당이 되어, 마을 모임의 자리가 되기도 하며, 빨래터, 집회소 등의 공공생활 시설이 놓여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마을의 길목이기도 한 셋길 중간중간에 놓여 있는 빨래터는 신랑과 시부모의 뒷담화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은 가장 작은 단위인 이웃과 연결되는 길이다.

큰길	어귀길	어귀	안길	샛길	골목
마을과마을 연결하는길	큰길에서 어귀까지이르는 길	마을바깥과안의 경계가되는곳	어귀를지나면 바로만날수 있는길	안길에서다시 생겨난길	가장작은단위인 이웃과연결되는 길
통과교통이 지나가는길	마을을지나가는 외부인이	마을로들어가는 사실이강조되는 곳	마을생활의 중심이되는길	길목이라고도함 마을의공공생활 (빨래터, 집회소)	
마을안으로 들어오지않는 바깥길	들어오지않는길 지형지세에 순응한길		마을의공공성이 가장큰곳	시설이놓여있는 공간	

## 안양7동, 유일하게 마을과 관련된 길 이름

안양시사에 만안구의 길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 정리한 바 있다 이 분류 가운데 마을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소망 기원 의지’를 상징으로 한 길 이름, ‘도로의 형태 및 기능’에 유래한 길 이름, 그리고 ‘역사와 인물’에 근거 한 길 이름 등으로 만안구에 소재한 길 이름을 정리한 바 있다 그리고 길 이름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마을의 안길과 어귀를 벗어나 큰길을 만나는 지점, 즉 큰길과 큰길이 만나거나 교차하는 지점 등으로 볼 수 있는 고갯마루가 있다 만안구의 고갯마루는 오미고개, 서리재고개, 박달고개, 범고개, 장군재고개, 정문고개가 있다

‘소망 기원 의지’를 담은 길 이름은 만안구의 전통마을에 근거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기 보다는 근현대의 전개과정에서 불린 이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로의 형태 및 기능’에 의해 유래한 길 이름은 각 동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안양1동의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집적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 신용길이다 이 길의 의미는 근대현사의 과정에서 안양의 지역 자본이 한 곳에 집적된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안양2동은 향림로, 문화로, 철도길이다 우선 길보다는 路로 표현했다 전통적인 길의 의미보다는 도로에 가까운 해석이다 그나마 마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 이름은 철도길이다 철도길은 병목안 재석장에 철도가 있던 길에서 유래한 길 이름이다 안양3동은 양지마을의 마을 지명을 길로 표기한 양지바른길이 있다 이 길은 양지마을의 의미를 그대로 갖다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양4동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중앙시장의 상점의 특징을 고려하여 만든 지명 포목길, 청바지길이다 안양5동은 전통적으로 안양5동이 용기를 굽는 일을 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의 길 이름이다 만안구의 각 동 가운데 유일하게 마을과 연계된 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안양7동이다 샘물길, 뜰안길, 사북길, 원터길의 지명이 그렇다 샘물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콘텐츠였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 동네에서 우물을 사용하는 것은 동네의 공동체적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의 의미는 한자어로 물 水와 한 가지 同이 만나 洞으로 사용한다 즉 “물을 같이 쓴다”가 지금 동네의 의미인 것이다 그 의미를 해석이라고 해주듯이 안양7동의 샘물길은 샘물이 있었던 곳을 나타내는 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사용해오던 길의 의미가 그대로 녹아 있다 어귀를 지나 만날 수 있는 길이며, 마을 생활의 중심이 되는 길로 마을의 공공적 성격이 잘 드러난 곳인 안길이었다 안양7동에는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뜰안길이 있다 그리고 당시 안양7동의 장소성을 나타내는 사북길, 원터길이 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양7동은 다른 동과는 다르게 마을의 의미가 내용적으로 그대로 녹아 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석수동은 동산길, 장터길, 저자길 등이 있다 특히 장터길과 저잣길은 석수시장의 주요 길목이다 장이 열렸다하여 붙여진 장터길, 저잣거리가 있다하여 붙여진 저잣길은 안양7동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길 이름이다 안양7동은 마을 내부의 길 이름을 중심으로 붙여진 지명인 반면, 석수동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큰길을 중심으로 붙여진 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박달동은 당시 마을의 장소적 특징이 반영된 두렁길, 울전길, 솔모랭이길, 솔방울길, 양천길, 주미길, 성정길 등을 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을길 이름들은 정부의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많이 변경되었다 들으면 아름답고 정겨운 마을길 이름도 이제는 어르신들의 회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안양7동 샘물길



## 소망 기원 의지 등 상징적 의미를 담은 도로명

구분	지명	내용
안양1동	효덕길	부모를 잘 섬기어 덕행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의미다
	성실로	정성스럽고 참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
	진실로	믿음성 있고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결1~3로	정과 물상점이 모여 있다 시장 환경을 정결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화합로	남부시장 중심도로다 남부시장의 번영회의(會)인 화합에서 따왔다
	화목길	남부시장 상인들이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자는 의미로 부여된 이름이다
안양2동	정학길	정학동을 본받아 웃어른을 공경하고 내적 생활을 건실하게 하자는 의지의 이름이다
	삼락길	항상 3가지의 즐거움을 갖고 살자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달무리길	은은하고 정감이 넘치는 지역 주민의 성품을 담고자 한 이름이다
	신산1~2로	뒷산에 신비감을 부여하는 이름이다
	채전로	전원적 고향의 시골을 연상하는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한 이름이다
안양4동	삼덕길	지(智)인(仁)용(勇)의 세 가지 덕을 함양하자는 의미를 반영한 이름이다
	관서길	마음이 넓고 인정 있는 동민이 되자는 의미를 반영한 이름이다
	총담로	마음이 허심하고 담박한 주민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다
	옥주길	기름진 밭이란 뜻으로, 풍요로운 안양4동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신일로	민심이 넘치는 사회가 구현되길 바라는 마음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안양5동	희망로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기도한다는 의미로 인근에 교회가 있어서 반영되었다
안양6동	수정길	모든 것을 올바르게 고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안양7동	진화로	안양1동과 접한 도로이며 타동 주민과 사이 좋게 지내자는 의미다
	연마길	공장이 밀집해 있어서 쇠붙이 등 갈고 닦는다는 뜻으로, 마을의 번성을 바라는 소망이 담긴 이름이다
	웅비길	경부선 철로변 지역에 있다 철로와 같이 곧고 기운차게 활동하자는 의미다
	담소길	빌라와 주택이 많은 지역에 있다 사이 좋은 이웃이 되자는 의미다
	동화길	공장단지 내에 있다 노사가 함께 화합하여 잘 살자는 의미다
	융화길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있다 화목하게 잘 살자는 의미다
	동성길	여러 계층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각종 사안에 대해 견해나 의견을 한데로 모아 같이 함으로써 한마음으로 정을 나누며 살자는 의지를 뜻한다
	대영길	공장과 주택 지역이 있는 도로며, 다 같이 크게 번영하자는 소망을 담고 있다
	장공길	공장과 주택 사이에 있는 도로다 깨끗한 공장 환경이 조성되고 자연을 보호하여 푸른 하늘을 항상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공명길	주택 밀집 지역인 관계로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교육열을 반영하여 공명을 세우는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담고 있다
	홍성1~2로	덕전시장을 통과하는 길 경기가 왕성하고 번창하여 안양7동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즐겨 찾는 시장이 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인양7동	영재길	연립주택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있으며 뛰어난재주와 지혜를 가진 어린이가 많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뜻을 담고 있다
	자애길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같이 있는 복지회관이 있는 지역의 길이다 아랫사람에게 두터운 사랑을 전하며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정길	공장옆 하전이 흐르는 도로인데, 공장의 폐수로부터 하전이 보호되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업길	도로변에 각종 사업체가 있어서, 사업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고 있다
	아지길	아름답고 풍지있는 도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인양8동	매진1~2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뜻의 이름이다
	한빛길	밝은 도로라는 뜻이다
	송풍로	솔숲을 스치어 부는 바람처럼 산뜻하게 남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이름이다
인양9동	자미로	백일홍 같이 아름다운 길임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정수로	신양지역수터로 가는 길이다 항상 맑은 물이 솟아나기를 기원하는 이름이다
석수1동	지란길	지란지교(芝蘭之交)에서 따온 이름이다
	관포길	관포지교(管鮑之交)에서 따온 이름이다 관중과 포숙의 고사처럼 우정을 소중히 하자는 교훈을 담은 이름이다
	유통길	흐르는 시냇물처럼 주민 사이에 좋은 마음이 흐르게 하자는 의미다
	화심길	화훼농장이 있는 곳으로, 꽃처럼 아름다워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번장길	안양예술공원(옛 안양유원지)의 간선도로로 식당이 운집한 곳이다 항상 번창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은행1~5로	은행나무가 많은 곳으로, 은행나무처럼 장수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았다
석수2동	덕성길	어질고 너그러운 성품을 쌓아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자는 의미다
	성서길	전주교회가 길의 중심에 있으며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자는 소망이 담겨 있다
	경배길	노인들을 공경하자는 의미다
	공화길	석수2동의 중심 길이며 주민이 화합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의미다
	정안길	푸른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요하고 편안한 곳이란 뜻이다
석수3동	화평길	주민 사이에 늘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친목을 다짐하자는 기원을 담았다
	가화길	항상 동네에 아름다운 이야기와 경사스러운 징조가 있기를 기원하는 이름이다
	정단길	늘 상쾌하고 맑은 아침을 대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반영되었다
	심월로	도를 닦는 마음을 밝은 달에 비유하여, 달처럼 맑고 티없이 살자는 의미다
	동유길	어린이를 상징하는 뜻이며,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호전길	호전은 넓고 큰 하늘 이라는 뜻으로, 부모의 은혜가 하늘과 같음을 의미한다
박달동	웅성길	박달시장 중심도로이며 시장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홍일로	새벽의 붉은 해를 뜻한다 항상 일출을 대하듯 근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덕정로	덕으로 동민을 편히 보살피자는 의지를 반영하는 이름이다
	보배길	서로 돕고 모자라는 것은 보태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다

박달동	방전길	관내소방도로다 관내주민을보호하는의지를담고있다
	보정길	주민모두총익인간이되자는의미를담고있다
	효경길	효행과공경을강조하는이름이다
	연미길	부드럽고아름다운길이되기를바라는이름이다
	애징길	애정을부르듯이주민끼리다정한관계를맺기를바라는이름이다
	경민길	관공서가위치한길로,주민을공경하자는계도의의미를담고있다
	홍명1~2로	홍명은근명성과분명함을뜻하는말이다
	새실로	새로운열매를뜻한다
	양오길	양오(陽鳥)는태양의별칭이며태양처럼밝게살자는의지를나타낸다
	연지길	연지(連枝)는형제자매를뜻하는한자어다아웃들이형제자매처럼다정하게지내자는소망이 담긴이름이다
	용지길	용기와지혜를뜻하는이름이다
	다정길	다정함이넘치기를바라는이름이다

### 도로의 형태 및 기능에서 유래한 도로명

구분	지명	내용
안양1동	신용길	한주상호신용금고 대양상호신용금고 안양상호신용금고 등이 위치해 있다 신용길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신용금고들이 많이 위치한 것을 가리킨다 신용을 쌓고 지키자는 소망도 담고 있다
안양2동	향림1~4로	원래는 살구나무 행(杏) 지었는데 발음상 향으로 대체하였다 과거에 살구나무가 많았음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주변에 향림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문화1~6로	문화센터 복지회관 초등학교 등이 모여 있는 특성을 반영한 이름이다
	철도길	예전에 병목안재석장으로 가던 철도가 있던 길이다
안양3동	양지바른길	양지마을 내 양지바른 곳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안양4동	포목길	중앙재래시장내 포목점이 모여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름이다
	청바지길	예전에 청바지를 파는 옷가게가 즐비한 거리의 특성을 반영한 이름이다 현재도 중앙시장 내에 존재한다
안양5동	가마길	항아리를 만들던 지역의 길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항아리길	항아리를 만들던 지역의 길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웅기1~3로	항아리를 만들던 지역의 길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웅기로 종기로 라는 이름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지금은 통합되어 웅기로만 남았다
안양7동	샘물길	샘물이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뜰안길	동네 안길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사북길	옛날 사북다리가 있던 지역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원터길	옛날 원두막이 있던 지역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안양8동	노루백이길	예전의농경지로노루들이공을 먹으러 왔다 하여 노루먹이라고 불리던 지역이름을 반영한다
석수1동	동산길	옛날에 조그만 동산이 있던 곳이었음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석수2동	장터길	석수시장의 주요 길목이다 예전에 장이 열리던 곳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저자길	석수시장의 주요 길목이다 예전 저자거리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전원1~2로	전원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석수3동	다솔길	소나무가 많았던 곳임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밤밭길	옛날 밤나무가 무성했던 특성이 반영된 이름이다
	중정길	뜰의 복판을 장하며 충훈부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동길	대동은 큰 동네를 지칭하는 말이다 충훈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변화한 환경을 나타낸다
	심장길	충훈부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박달1동	두령길	예전에 논밭이었던 지역에 위치한 작은 길이라는 의미다
	울전길	밤나무가 많았던 밭이었음을 의미한다
	솔모랭이길	소나무가 많았던 곳으로, 길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져 있으며 모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솔방울길	솔모랭이길과 짝을 맞추는 이름이다
	양전길	순미천이 두 갈래로 흐르는 곳에 있다 개울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의 의미다
	주미길	주미(酒味)는 주막이 있던 자리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송정길	소나무가 우거졌던 곳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 역사와 인물에 유래한 도로명

구분	지명	내용
안양1동	행궁길	정조대왕이 수원으로 부왕 사도세자의 현릉원 참배를 다닐 때 쉬어 가던 행궁이 있는 곳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원태우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애국지사 원태우의 출생 지역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안양2동	선영길	이 지역 출신 열녀의 효행과 인품을 본받고 기리기 위해 그 이름을 따왔다
안양4동	울원1~3로	예전 안양4동 일대가 밤나무 동산이었다 과거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이름이다
안양5동	법장1~2로	고국회의원 권수창의 집주변길로, 법장은 권수창 의원의 호이다
	서당길	옛날 임금이 서당을 지어 학문을 가르치도록 명한 곳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안양6동	능행1~10로	안양 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정조의 능행을 기리기 위한 이름이다
	만수1~6로	옛날에 있었던 만수원의 이름을 반영했다
안양8동	효행1~4로	정조 능행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정조가 화성 현릉원 참배길에 명학바위를 지키게 하려고 이 근처에 장교와 적사를 배치했다고 한다
석수1동	조건로	조선견직터가 있던 자리다 조선의 조 견직의 견 자를 따왔다
박달1동	어수길	임금이 마셨다는 우물 이름을 반영했다



## 고개를 통해서 본 지명

구분	지명	내용
안양2동	오미(烏尾)고개	안양고등학교에서 석수동으로 가는 구길에 위치한 고개, 오미산에 있는 고개라 하여 산명을 취해 오미(烏尾)고개라 칭한다
안양6동	형제(兄弟)고개	안양초등학교 동편 만안로에 있던 고개, 김마형의 두 고개가 흡사 형제같다 하여 형제고개라 칭했는데 일제강점기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고개를 낮추었다
석수1동 석수2동	서리재고개	동아제약 입구에 있는 안양육교(安養陸橋) 부근이 원래는 높은 고개였는데, 구한말에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고개를 평탄하게 하였다. 현재는 솔개고개(鶻峯)라 칭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곳 일대가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졌을 뿐만 아니라 으스스한 곳이라 과거를 보러가는 과객이나 보부상(報負商) 행인(行人) 등이 한양을 가지면 반드시 이 고개를 거쳐야 했는데, 그때마다 오래 산적과 강도의 습격을 받아 빈털터리가 되곤 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연현마을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이곳이 농경지여서 참외, 수박 등 청과물을 이들 산적과 강도가 떼를 지어 서리를 해가는 바람에 농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시흥(금전) 현령이 골머리를 앓곤 했다고 한다
박달2동	박달(博達)고개	범고개마을과 붓골사이에 있다. 예전에 이 고개를 넘어야 원박달리를 갈 수 있다 하여 박달고개라 칭했다. 비포장소로이다
	범고개(虎峯)	박달동 범고개마을과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범고개 주민이 더푼물을 왕래할 때 다니는 고개라 하여 더푼물고개라 부른다. 예전에는 고개 길이 험하고 으스스해서 강도, 도둑 등이 득실거리며 도둑놈고개라 불렀다. 이 고개 유래에 대하여 여러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조 중엽 범고개마을에 어느 부자(파평 윤씨라고 함)의 시종을 범이 물고 이 고개를 넘어 시흥시 목감동 방향으로 간 데 유래했다는 설 둘째, 이 고개 산중턱에 호랑이가 다들 조아리고 고개길을 향해 응시하고 있는 범바위에서 유래했다는 설 셋째, 일제강점기 초까지만 해도 고개길이 험준하고 삼림이 울창해 으스스해서 범이 많아 이 고개를 넘으면 장정 5명이상이 함께 동행해야 무사히 지나쳤다는 범의 서식지설 등이다 이 고개는 1976년 안양-수인산업도로간 포장공사 때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었으며 1991년에 박달로 확장공사로 4차선으로 확정되었다
	장군재(張君叻)고개	예전에 안산(주로 시흥시 조남동 장군재) 사람들이 안양 다닐 때 이용하던 고개, 헛골과 정군재 사이에 있다. 비포장소로 이미 폐로가 되었다. 고개 마루터기에 서낭이 있었다. 장군재 사람들은 헛골고개라 칭한다 × 장군재 조선조 인조 때 인조반정 공신으로 신흥부원군(新豐府院君)에 봉해진 장유(張維, 1587~1638)의 묘가 시흥시 조남동 장군재에 있는데 장(張)은 장유에서 군(君)은 부원군에서 각각 취함
	정문(旌門)고개	범고개마을과 군용지 사이에 있는 고개, 예전에 이곳에 임진왜란 때 충신으로 숙종 34년(1708)에 명정(命旌)된 구만의 정문(旌門)이 있어 정문고개라 했는데, 이 정문은 일제강점기 때 군용지가 건설되면서 훼손되었다고 한다. 고개가 낮으며 현재는 군용지에 속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박달동 주민은 범고개라 불렀다고 한다

## 골목길, 삶의 문화가 숨쉬다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만안구 골목길은 뺨뺨떨 어린아이가 줄을 그은 듯한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배여 있다. 만안구의 골목길은 흑백사진같이 시간이 정지된 느낌이다.

술래잡기, 무등타기, 자치기, 구슬치기 등 유년시절의 향수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래도 골목에는 삶의 문화가 숨 쉰다. 머리카락 장수, 칼 가는 아저씨, 메밀묵 장수, 생선장수, 동동구리모 아줌마, 옛장수, 뽕푸는 아저씨 등 골목을 오가며 삶의 소리가 묻어나던 곳이 골목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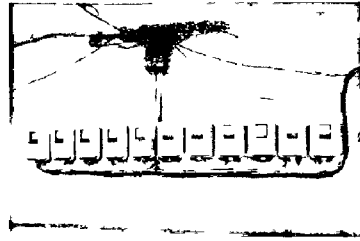
시멘트를 거칠게 발라놓은 만안구의 골목은 삶의 문화가 숨 쉬고 있다.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어린이들의 쉼터가 되기도 한다. 골목길로 나온 평상은 쾌적한 거실을 대신하며 마을사랑방이 되기도 한다.



덕전마을 공동주거 전경 얼마 지나지 않는 과거에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집을 꿈꾸는 건축물이 있었다



덕전마을 공동주거 중정 마당 한가운데는 정원으로 가꾸어져 있어 화려함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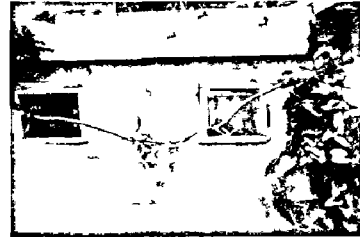
덕전마을 공동주거 계량기 하나로 와서 여럿으로 되고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된다



덕전마을 공동주거 작은 채소밭 넓지 않지만 어느 대형마트보다 더욱더 싱싱한 채소를 제공해 준다



덕전마을 거리 풍경 골목길은 또 하나의 생활공간이다



덕전마을 골목길 화장실 장문 센스 있는 나뭇가지가 화장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



덕전마을 재개발 반대 현수막 주민은 그들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고 있다



냉전마을 은혜슈퍼 할머니 모진 세월을 다 보내시고 우리에게 추억의 골목길을 선물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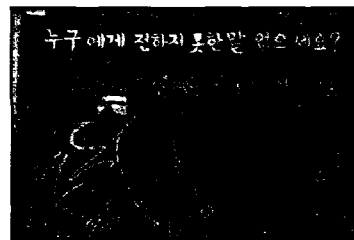
냉전마을 은혜식품 간판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은혜식품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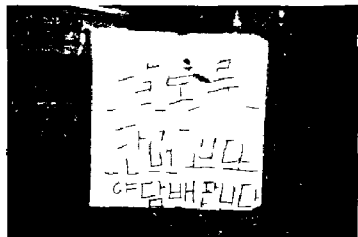
냉전마을 은혜슈퍼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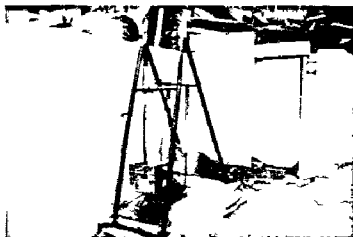
냉전마을 은혜슈퍼 누구나다-방 약간의 관심으로 버려진 공간이 다-방이 되었다



냉전마을 은혜슈퍼 누구나다-방 스저 지나가는 길에 흔적을 남기면 추억이 되어 돌아온다



냉전마을 은혜슈퍼 말보루 판매합니다 양담배 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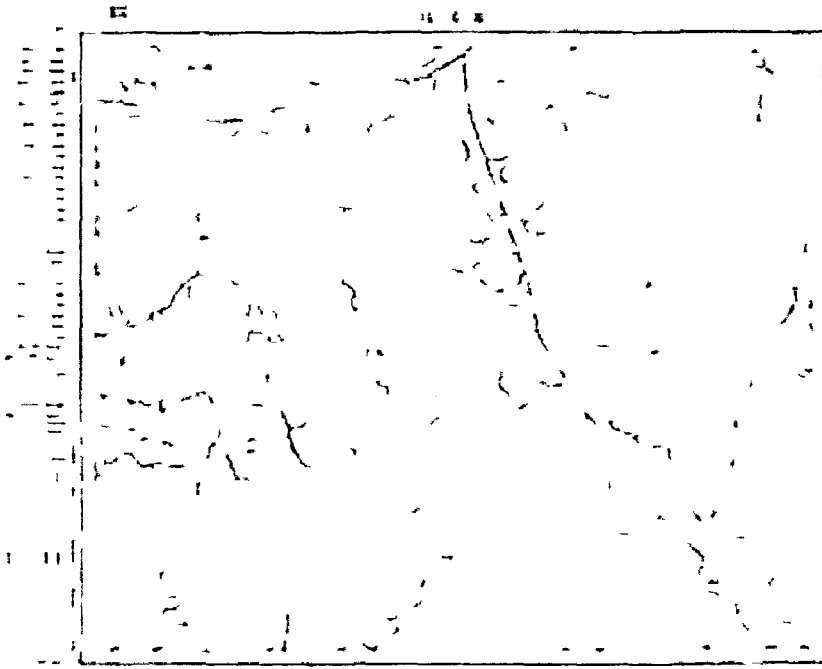
냉전마을 은혜슈퍼 앞 놀이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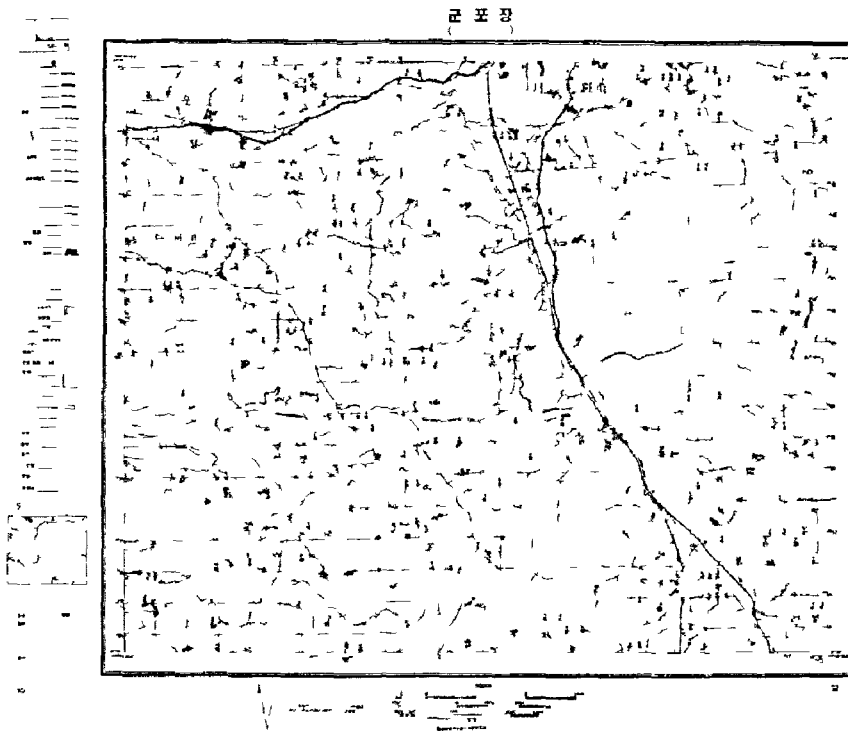
냉전마을 골목길



냉전마을 골목길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냉전마을 골목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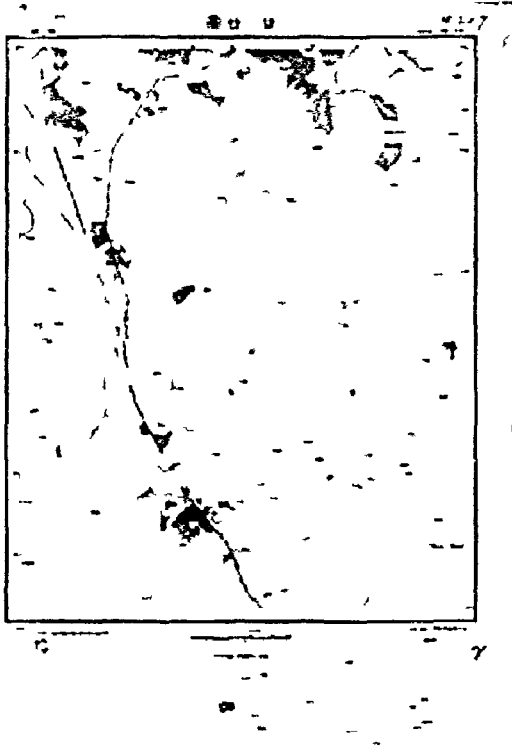


1918년 일본강점기 안양 지도 오른쪽 아래 평지가 평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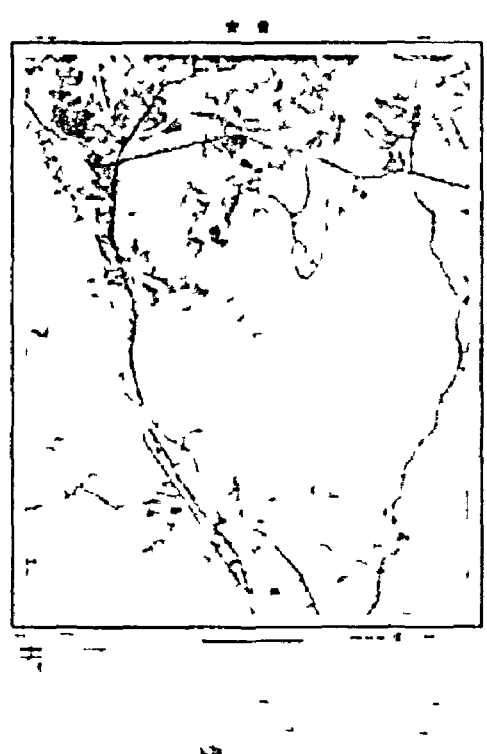


1959년 안양지도 안양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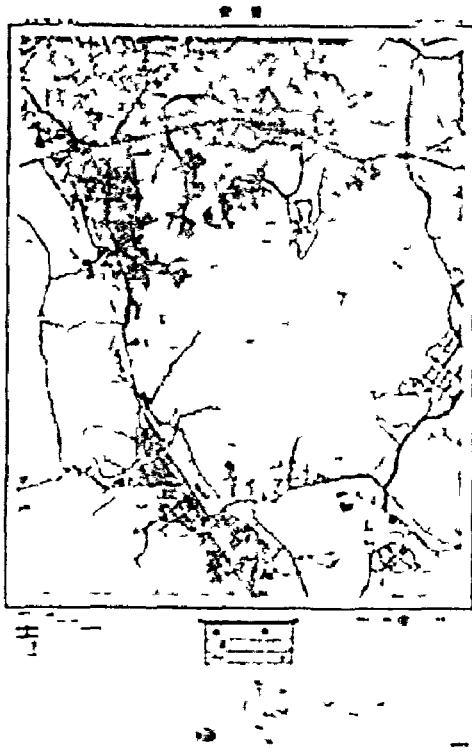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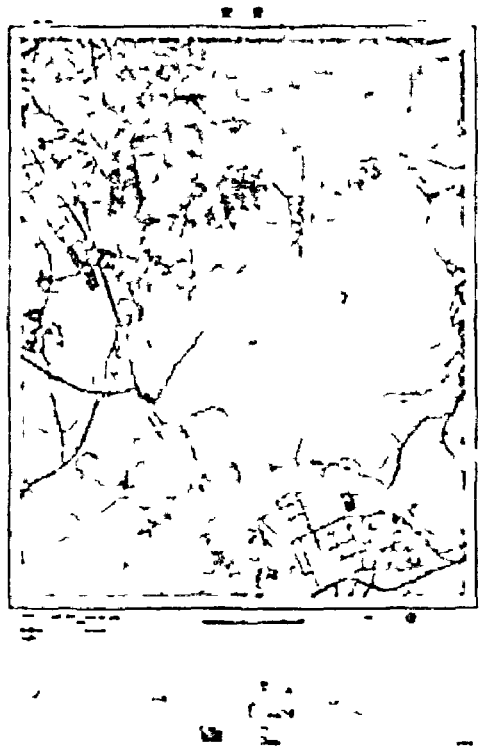
1970년 안양지도 안양역 주변은 더욱 확장하고 도시는 석수동 박달동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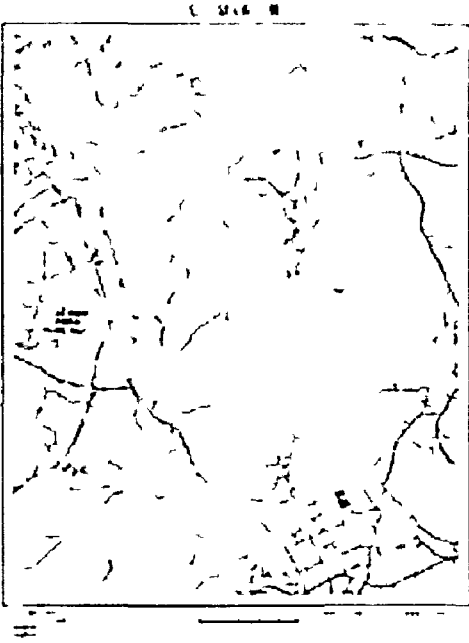
1978년 안양지도 도시의 확장은 비산동까지 이어진다



1988년 안양지도 안양시는 10년 사이에 급격한 확장이 진행되었다 평촌은 논밭으로 표시되어 있다



1996년 안양지도 평촌신도시의 등장으로 안양은 다시 한번 급격한 확장을 한다



2004년 안양지도 서서히 도시의 확장이 정제되고 있다

여 백





만안들보다

여 백

## 만안구(萬安區)

조선시대의 안양리(현재 안양1동-9동)는 과천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지역이고, 박달리(박달1동-2동)과 안양리(현재 석수1동-3동)는 시흥군 동면(始興郡 東面)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이 시흥군에 흡수통합되자 안양리는 시흥군 서이면(始興郡 西二面)으로, 박달리는 시흥군 서면(始興郡 西面)으로, 안양리는 시흥군 동면(始興郡 東面)에 속했다가, 안양리는 1914년 10월 1일 부령 제235호에 의거 시흥군 안양면(始興郡 安養面)으로 되었다가 다시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시흥군 안양읍(始興郡 安養邑)으로 승격되었다 박달리와 안양리는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에 편입되었는데 안양리는 기존의 안양리가 있으므로 신안양리로 되었고,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안양리는 안양 1, 2, 3, 4, 5, 6동으로 되었고 신안양리는 석수동으로 박달리는 박달동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그 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다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에 따라 안양6동을 안양6동과 안양8동으로 석수동을 석수1동과 석수2동으로 분동하였다 1985년 11월 5일 시 조례 제 739호(11 11 공포)에 의거 안양6동을 안양6동과 안양 8동으로 분동하였고 1987년 1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2007호(1986 12 23 공포)에 따라 광명시 소하동 일부가 석수2동에 편입되었다

1989년 5월 1일에는 시 조례 제931호(1989년 4 10공포)에 의거 안양1동부터 안양6동, 안양8동, 석수1 2동, 박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가 설치되었고 1990년 1월 1일 시 조례 제1000호(1989 12 20 공포)로 석수2동을 석수2동과 석수3동으로 분동하였다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1992년 10월 1일 공포)에 따라 만안구(萬安區)로 승격되었다 이때 동안출장소의 안양7동이 편입되었다,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1994 6 28공포)에 의거 안양3동을 안양3동과 안양9동으로 박달동을 박달1동과 박달2동으로 각각 분동한데 이어 동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4434호(1994 12 22 공포)로 안양의 일부가 군포시에 편입되었고 동령에 따라 군포시 산본동 일부가 안양동에 편입되었다 동년 12월 26일에는 시 조례 제1338호(1994년 12월 26일 공포)에 따라 안양동의 일부가 박달동에 편입되었는가 하면 박달동 일부가 안양동에 편입되었고 법정동간 경계 변경이 있었다

만안구의 구명은 조선 정조대왕이 1795년에 만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뜻(정조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이 다리를 편안히 지났다가 편안히 오기를 만만년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만백성에게 튼튼한 다리로 건너게 되어 만만년토록 성은(聖恩)을 입게되고 자덕(혜경궁 홍씨)

을 기리기 위함)으로 삼성천에 다리를 축조하여 만안교라 칭하였으며, 이 전래를 따라 1989년 5월 1일 안양시 지명위원회에서 구의 명칭을 만안으로 하였다

만안구는 정조 19년(1795)에 과천현과 금천현(시흥현)의 현계인 안양천에 만안교(萬安橋)를 가설한 후 정조의 능행로정이 시흥에서 안양을 경유하는 시흥로정(始興路程, 금천로정)으로 바뀐 후 1905년에 경부선부설로 안양역이 설치된데 이어 1932년에 안양3동 대농단지에 조선직물을 건립한 후 곧 이어 조선견직, 금성방직 대규모 공장건설이 이루어졌다 또한 1932년 비산공원(안양유원지)에 석수동수영장을 건설하였고 안양9동의 울목동마을에서는 전국부인밤줍기대회가 열렸다 안양2동은 안양포도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며 안양의 뿌리인 안양사와 안양을 대표 문화재가 대부분 이곳에 있다

구청사는 옛 시흥군의 청사로 1979년 2월 15일에 건립(지상 6층)되었으며, 1988년 12월 31일에 시흥군이 해체된 후 1989년 5월 1일에 만안출장소 개소를 위해 건물을 매입을 하였다

2011년 11월 현재 구의 총면적은 36.6km<sup>2</sup> (G B 21.4km<sup>2</sup>)이며 주거지역은 10.68km<sup>2</sup>(29.2%), 상업지역은 1.59km<sup>2</sup>(4.3%), 공업지역, 1.79km<sup>2</sup>(4.9%), 녹지지역 22.54km<sup>2</sup>(61.6%)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동은 안양 1동부터 9동, 석수 1동부터 3동, 박달 1 2동으로 총 14개동이고 행정조직은 7과(행정지원, 민원봉사, 세무, 복지문화, 환경위생, 건설교통, 도시관리)와 35팀으로 이루어졌다 인구는 102,671세대 264,600명(시의 43%, 2011년 10월 현재)이며 외국인은 7,624명이다

주택은 총 가구수가 66,388이며, 구성은 단독주택이 9,268가구, 공동주택이 57,120가구, 아파트가 39,082가구, 연립이 3,619가구, 다세대주택이 13,704가구이며 상가건물 내 주택이 715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는 특수학교 1개,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3개, 대학교 4개로 총 42개가 있다

기업체는 총 556업체 10,847명으로 대기업은 1업체 477명(노루페인트)이며 중소기업은 555업체 10,370명이다



## 만안구 행정구역 변천사

시기	내용	법령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잉벌노현(仍伐奴縣)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곡양현(穀壤縣)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州) 금주(衿州)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금천현(衿川縣)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금천현(衿川縣)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 시흥군 동면(始興郡 東面)	
1914 3 1	시흥군 서이면(始興群 西二面)	부령 제111호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始興郡 安養面)	부령 제235호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始興郡 安養邑)	대통령령 제162호
1963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박달리 신안양리 (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博達理, 新安養里)	법률 제1175호
1973 7 1	안양시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安養市 安養洞 石水洞 博達洞)	법률 제2597호
1979 4 28	안양6동을 안양6동으로 안양8동으로 분동 석수동을 석수1동과 석수2동으로 분동	시 조례 제340호
1985 11 5	안양6동을 안양6동 안양8동으로 분동	시 조례 제 739호 (11 11 공포)
1987 1 1	광명시 소하동 일부 석수동으로 편입	대통령령 제12007호 (1986 12 23 공포)
1989 5 1	만안출장소 설치	시 조례 제931호 (1989년 4 10공포)
1990 1 1	석수2동을 석수2동 석수3동으로 분동	시 조례 제1000호 (1989 12 20 공포)
1992 10 1	만안구(萬安區)로 승격	시 조례 제1173호 (1992년 10월 1일 공포)
1994 12 26	안양동 일부 군포시로 편입 군포시 산본동 일부 안양동에 편입 안양동 일부 박달동 편입 박달동 일부 안양동으로 편입	시 조례 제1306호 (1994 6 28공포)

# 안양동

근현대사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이 여기에

안양동에 정조는 효(孝)를 실천하기 위해 만안교가 있는 만안로를 만들어 주었다 이 길 위에 일제는 교통과 수자원이 풍부한 안양에 경부선철도 안양역을 만들고, 공업도시의 탄생을 알리는 조선직물주식회사를 건설했다 그 결과 다른 지역보다 앞선 공업화로 안양역 일대는 안양1번가로 성장했지만, 공업화의 아픔은 무관심했다

천주교 성인이 된 최경환 신자는 담배촌에서 생활하며 사랑을 전하고 순교했다 그의 사랑 실천은 훗날 오갈 곳 없는 금성방직 근로 청소년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준 근로자회관을 만들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근로자회관은 상처받은 780년대 안양을 포근하게 안아주었다

옛날 가난한 선비는 배고픔을 이겨내고 과거급제해서 교화당을 만들어 교육의 도시 안양으로 승화시켰지만, 일제의 전시동원체제로 만들어진 임업시험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축시험연구소로 이어졌다

계속되는 공업화는 도시의 확장을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에 덕천마을을 만들었고, 이어서 명학바위의 전설이 전해지는 명학동으로 이어졌다

수리산 골짜기 따라 흐르는 맑은 수암전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양지마을을 적시고 유유히 안양천으로 흘러 그 소식을 저 멀리 서해까지 전해준다

그렇게 안양동은 한국 근현대사의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말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 안양1동

들 사이에서는 구시장육교라 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92]

## 자연자원 경관자원

### 안양1번가 안양1번가야경

오늘날 안양을 대표하는 중심거리는 안양1번가와 함께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 등은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안양1번가는 그 역사가 짧아도 20세기 전반에 걸친 상업적 진개를 담고 있어 다른 중심거리와 차별된다

안양1번가는 안양의 도시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안양이 20세기에 들어와서 근대적 도시로 성장하는 중심지였다 1992년 평촌신도시의 건설로 잠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선의 지중화 사업 등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한 결과 옛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범계역과는 다르게 안양1번가에는 근현대사의 회노애락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으며 골목골목에는 젊은 정준들의 추억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현재의 정준들에게도 추억은 진행 중이다

[안양시사2권 pp 33 34] [안양시사7권 p 앞 사진첩]

## 자연자원 지역자원

### 77수해 안양1동 수해현장

엄정난 수마가 모든 것은 한순간에 휩쓸고 지나간 거리에 시민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해현장은 바라보고 있었다 안양1동 구시장이 있던 뒷골목의 수해현장은 관찰집들이 들어서 있어서 더욱 피해가 심했다 짐수로 흐트러진 가재도구와 짐구 옷가지 등을 달라고 어느 것이 낫 집 것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안양시사8권 p 350]

### 경민옥경민식당(사골만 고집한 경민식당)

경민식당은 조복순 할머니가 운영하던 설렁탕집으로 1950 ~ 1960년대를 살았던 당시 안양시민에게 맛 집으로 기억되고 있다 경민식당 인근에는 시흥군 군정소재지여서 멀리 군자면 서면 등지에서 군정에 일온 보러 오는 사람들이 설렁탕 맛을 보고는 그 맛을 잊지 못해 단골이 되었다 그 소문은 멀리 수원과 영등포 까지도 알려졌었다  
당시 위치는 안양역에서 남쪽으로 1번 국도를 따라 100m쯤 내려간 곳이다

[안양시사7권 p 130-132] [안양시사2권 p 18]

### 1번 국도 건너편에 있던 푸줏간(경민식당 소고기대는 곳)

설렁탕으로 유명한 경민식당은 단백질 사골 국물 맛을 일정한 게 내기 위해 1번 국도 건너편 있는 푸줏간에서만 사다 썼다

[안양시사7권 p 131]

### 과전육교

만안로에서 시대동가는 진입육교로 예전에는 이곳은 거쳐야 과전을 갈 수 있었다고 하여 과전육교라 부르게 되었다 주민

### 낙랑실업공사터

안양의 원로 장배근(張培根 1909년생 작고)에 의해 1949년 2월에 창설되었다 김원필병원과 중앙의원 사이에 있던 이 회사는 일본식 적벽돌 1층 건물로 공장평수는 61평에 본건과 인건울 15만마(碼) 생산하며 종업원은 남자가 15명 여자가 22명 모두 37명이었다

규모는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광복 후 안양일대의 빈민을 구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회사로 덕망이 높았다 당시 장업주 장배근은 조선직물 안양공장과 경기도직물조합 이사 및 시흥군직물조합장 등을 역임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6]

### 남부동

교하동(안양5동)과 중앙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안양시가지 남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남부동(南部洞)이라 한다 일제시대만 해도 잔우물(안양5동)에서 흘러 내리는 샘물로 농사를 짓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광복 직후에 벽산쇼핑 앞에 집이 드문드문 있었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원에 정과 시장이 개설되고 이어 숙박업이 번성하면서 급성장한 곳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56]

### 거리질서 캠페인 1970 남부시장

1970년대 중앙로 남부시장 앞 양지에식장에서 거리질서 캠페인은 벌이고 있다 당시 거리에는 버스와 택시 트럭이 중심이었다

[안양시사8권 p 247]

### 노무라병원

안양역 바로 옆에는 일본인이 하던 담배가게가 있었는데 안양에서 일본인이 경영한 유일한 상점이었다 일본인 담배가게 옆에 하상철네 포목점이 있었고 그 옆에는 수호장이라는 여관이 있었다 그 맞은편으로 안양에서 유일한 2층집이었던 신영조네 술집이 있었다 신영조네 뒤에 노무라병원이 있었다 노무라병원은 안양에 처음 생긴 병원으로 조선 사람이 장끼개명해서 이름을 노무라로 바꾸고 병원 이름도 그렇게 불렀다

[안양시사2권 p 10]

### 대동문고

안양의 자존심 대동문고 현재 안양1동 668 33 본프라자 1 지하 1 2층에 약 1 000여 평 넓이로 자리 잡고 있다 종업원 50여 명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도서는 줄잡아 40여만권 운영 하는 규모로 보아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 최상을 자랑하는 대형서점이다

단돈 1만 원으로 시작한 책방을 오늘날 대동문고로 일구어낸 사람은 전영선 대표이다

[안양시사7권 p 218]

### 창업당시 대동서점

1963년 9월 전영선 대표는 안양여고 정문 건너 날 모퉁이에 있는 건물 일부를 빌려 대동서점 간판을 다시 내걸었다 도로변 쪽 공간 약 5평에 널빤지를 비스듬히 세워서 앞에는 책 진열대를 만들어 구색은 갖추었고 그 뒤에는 야전용 침대를 하나 놓아 2년 동안 그곳에서 기거했다 추운 겨울에는 작은 연탄난로 하나에 군용담요 한 장으로 신발도 벗지 못하고 새우잠은

자면서 거의 국수로만 1개월 정도를 연명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생활한 전영선 대표에게 주은겨울 냉기를 차단하는 것은 유리문 편관이 전부였다  
[안양시사7권 p220]

### 우마차를 만들었던 대장간

안양장(현 주공프란제아파트)에 가면 시장 뒤쪽으로 우시장 입구 현재 진흥아파트 6동 앞쪽에 서씨네 상설대장간이 있었다  
[안양시사7권 p 123]

### 대한식량공사 시흥지사터

안양역 서북쪽으로 현 연탄공장 자리에 있었다 이곳은 일제 때 마루보시(대한통운의 전신)사무소가 있었다가 광복이 되자 대한식량공사 시흥지사가 설치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7]

### 동춘관

815해방 후 동춘관 순흥루 영흥관 같은 중국집들이 1번 국도를 끼고 안양역 주변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당시 동춘관(현재 양지남시 자리)은 중국 사람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운영했는데 중국 할머니는 진죽을 한 발에 작은 신을 신고 뒤뚱뒤뚱 걸어 나와서 음식점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을 내쫓곤 했다  
1번 국도변에 있던 동춘관은 1979년 도시계획 때 국도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안양1번가 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안양시사7권 pp 129 130]

### 롯데백화점

안양역에 있다 2002년 5월 10일 개점했다  
[안양시사1권 p92]

### 일제시대 마루보시

안양역 앞에는 주재소가 있었다 주재소에는 일본인 순사 두명 조선인 순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안양의 지안을 담당했다 역 바로 옆쪽에는 재만식이 말한 운송점인 마루보시 지금으로 치면 대한통운이 있었다 마루보시 옆에는 우편소가 있어서 주재소와 우편소가 마주 보고 있었으며 금융조합은 지금의 안양농협 자리에 있었다  
[안양시사2권 p8]

### 안양미륵당터

미륵은 인도의 과라나국(波羅奈國)의 과라문(婆羅門)의 집안에 태어나 석존의 화도(化道)를 받고 미래에 부처가 될 수기(受記)를 받은 후 도솔천으로 올라가 현재 그 곳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을 권도(權導)한다는 보살로 미륵보살을 자칭한다 미륵이 있었던 곳은 지금의 경부선 안양역과 은성다방 사이의 로타리로 광복 직전에 지금의 안양 본백화점 자리로 옮겼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2]

### 안양평(安養坪)

조선 숙종 때(1699) 과전현의 생원이었던 허오(許煥)가 저술한 □과전현신수읍지□불우초에 안양미륵재현서이십리안양평대로방불신고이대허유자(安養彌勒在縣西二十里安養坪大路傍佛身高二大乎有字)라는 자료가 있다 안양평(安養坪)은 지금의 안양역 일대를 지칭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2]

### 밭데리 골목

안양역 건너편 북개전(수암전) 앞 골목이 그 옛날 번성기를 누렸다는 속칭 밭데리 골목이다 1960년대만 하도 이 밭데리 골목에 가면 없는 부속품이 없고 고치지 못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골목이었다 시흥이나 수원에서도 이 골목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  
[안양시사7권 p 120]

### 비산대교

비산1동과 안양1동 안양7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다리로 1975년 6월 25일에 준공되었다 1990년 9월 홍수로 일부가 넘어지거나 무너진 바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79]

### 삼광정미소

일제시대에 삼광정미소가 있는 곳은 지금 진흥아파트 자리 조업에 있었다 정미소 주인집은 현재 안양1동 사무소 자리에 살았고 그 뒤쪽에 정미소가 바로 붙어 있었다 모두 조가집이었다 삼광정미소는 이상운의 둘째 큰아버지인 이광순이 운영했는데 모락산 아래 갈피 사람이다  
[안양시사2권 p 8 9]

### 삼길양산공장터(안양 최초 양산 제조공장)

1945년 7월 박철재(朴鐵載 과천시 갈현동 출신 작고)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양산과 우산을 제조했다 1949년 현재 공장평수는 400평에 연간 생산량은 10 000본이며 종업원은 6명(남자 5 여자 1)이다 이 자리에 1969년 3월 4일 삼원극장이 설립되었다 안양 최초의 양산 제조공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30]

### 1969년 삼원극장 설립

1969년 3월 4일 삼길양산공장터에 삼원극장이 설립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30]

### 1970년대 삼원극장

1970년대 당시 안양의 중심극장은 삼원극장이었다 당시 삼원극장은 지하에는 삼원다방이 있었고 그 이전에 백만불이라는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한 적도 있다 삼원극장 자리는 현재 CGV빌딩이 들어서었다  
[안양시사7권 p 146] [안양시사8권 p 81]

### 구 삼원극장

1960년대 건축물로 읍민관(구 삼원극장) 모습이다  
[안양시사5권 p 359]

### 삼원극장

1960년대 말 시흥군 안양읍의 극장은 읍민관과 화단극장으로 유지되었다 읍민관은 안양극장으로 면모를 새롭게 하고 본격적인 극장으로 등장하였다 1970년대에 화단극장의 경영주였던 박경재가 설립한 삼원극장은 당시로서는 최신 설비를 갖춘 데다 영화배급에서도 외국영화를 주로 상영함으로써 안양영화 흥행을 주도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양의 극장가는 화단극장 안양극장 삼원극장의 3관 제제로 변화했고 뒤늦게 등장한 삼원극장이 대표적인 영화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안양시사5권 p 392]

### 삼표연탄공장



수암전 북개도로 아래 안양역 옆 국도변에 자리했던 삼표연탄 공장(현재 숯불구이 자리)은 명씨네가 운영을 했다 까만 석탄이 항상 산처럼 쌓여 있는 제법 규모가 큰 공장이었다 무연탄 가루를 시흥이나 영등포에 있는 저탄장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연탄공장은 길길이 나는 곳에 있었다 이곳은 원래 일제시대 때 철도운송을 담당했던 마루보시(현 대한통운)가 있던 자리였는데 해방이 되면서 대한통운이 그 일을 대신했고 그 후 대한식량공사 시흥지사가 있었다 [안양시사7권 p 118]

**새마을 대청소 캠페인 1973**

1973년 7월 9일 정장자림의 옷을 입은 여성들이 새마을대청소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가로수의 크기로 보아 도로정비단이 이제 막 한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사8권 p 226]

**서이면사무소터**

서이면사무소는 호계2동 소재 안양시교육청 앞에 있었다가 1917년 7월 6일 안양1동 사무소 옆 안양옥(女養屋 안양1동 674 271)자리로 옮겼다 이는 종전에 안양의 중심지가 호계리(호계동)에서 안양리(안양동)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곳은 1941년 10월 1일 서이면이 안양면(安養面)으로 승격되면서 안양백과점 자리에 안양읍 정사가 신축되자 이전되었다 만하자면 1917년 7월 6일부터 1941년 9월 30일까지 24년간은 서이면사무소로 1941년 10월 1일부터 1949년 8월 13일까지 8년간은 안양면사무소로 모두 32년간 면사무소로서의 행정사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32]

**서안농약사 1970년대**

지금 신도예식장이 있는 자리에 서안농약사가 있었다 가게 유리문에는 당시 인기 있던 퇴비VS34(도양미생물제)와 수박씨앗 광고가 붙어 있다 당시 서안농약사에서는 농약뿐만 아니라 종자 묘목 농기구도 함께 판매했다 [안양시사8권 p 327]

**수어장 여관**

안양행궁은 정조 사후 행궁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되고 후에는 민간인 소유로 되었다가 1986년 경에는 안병일(安炳日 1943년생)이 이곳에 수어장(宇峯莊)이란 여관은 신축하였다 주인 안씨에 따르면 여관을 짓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계약하기 하루 전날 꿈에 임금이 상궁과 하인들 대동하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상한 꿈을 꾸 안씨는 후에 이 터가 옛날 정조가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하여 일시 머무르던 곳임을 확인하고 여관의 명칭은 임금이 주무시던 옛터는 지키겠다는 뜻으로 수어장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 곳을 큰 집이 있었다 하여 대궐터라 불렀고 그 집을 대궐이라 칭했다 현재도 그 주변을 파면 행궁의 지주 때 사용되었던 장대석 지대석 등이 출토된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54]

**순흥루**

8 15해방 후 동춘관 순흥루 영흥관 같은 중궁집들이 1번 국도를 끼고 안양역 주변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안양시사7권 p 129]

**시대동**

중앙동 동쪽으로 한국제지와 진흥아파트 사이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안양의 중심부인데다가 지리적으로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수암 군자 등이 인접해 있어 시장으로서는 최적지였다 1929년에 안양지방에서는 최초로 전기가 송전된 곳이기도 하다 시대동이란 마을명칭은 안양시장이 있었다는 연유에 기인한 것이며 일명 구시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84] [안양시사2권 p 370]

**시외버스정류장**

현재 안양역앞 시외버스정류장이다 [안양시사4권 p 31]

**삼일절 기념행사 1960년 시흥군청**

시흥군청 앞에서 열린 제14회 3 1절 기념행사에서 이설경 당시 시흥군수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271]

**새마을운동축진대회 1972 시흥군청**

새마을 사업 초기에는 일선 행정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공무원 한 사람이 몇 개의 마을을 맡아 지도를 담당했고 마을의 지도자들은 군청에 모아 축진대회는 열었다 당시 시흥군청은 지금 삼원프라자호텔 자리에 있었다 새마을축진대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년도 사업 보고와 다음 해 사업은 계획하는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가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안양시사8권 p 239]

**시흥군청터**

시흥군 정사는 본래 시흥군 군내면으로 현재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32일대 범일운수 종점 부근인 옛 시흥군의 전산인 금주산 아래에 있었다가 1910년 12월 7일 방림방적 길 건너편(후생의원 옆)으로 이전 되었다 서울시 확장책에 의해 1936년 4월 1일 부령 제8호에 의거 서울시에 편입되자 영등포읍 영등포리에 있던 시흥군 정사를 안양에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시흥군 정사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36년 3월 5일 시흥군내 유지 다수가 잠석한 가운데 안양조선직물 구내에서 시흥군 정사 유지운동을 적극화하기 위하여 군민대회는 개최하였는데 일본인 공직자 2명도 진정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시흥 군민들의 끈질긴 유지운동에도 불구하고 군정사는 이전 되지 않았다가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되자 안양읍 안양리 688(현 안양1동 674 251 뉴코리아 호텔자리)로 이전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36-439]

**어린이날 기념식 및 우량아 선발대회 1962 시흥군청**

포동포동 살핀 아이 큰 본 수 있다 못 먹고 배고팠던 시절 우량아 선발할 정도로 영유아 발육은 좋지 않았다 [안양시사8권 p 275]

**유엔의 날 기념행사 1961 시흥군청**

한국전쟁 때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것은 기리는 의미로 1950년부터 국제연합장설일을 유엔의 날로 제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274]

### 제16주년 광복제 기념식 1961 시흥군청 앞

흔히 8 15 경축사가 곧 현대사를 읽는 키워드라고든 한다 1959년 광복절의 조국통일의 성취는 8 15 감격으로 달성하자 국민정신 선양하자 민족정기 등의 슬로건이 1961년 광복절에는 재건국민운동 촉진 통치자 건설하자 혁명정신 받들어 등으로 바뀌어 5 16군사쿠테타 직후인 당시 시대상황은 설명하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273]

### 제헌절 기념식 1967

제19회 제헌절 시면식이 안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었다 제3공화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증산 전진 근면 건설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기념행사에 자주 등장한다

[안양시사8권 p 272]

### 시흥군청사 뒤 예비군훈련 1970년대

1968년 1 21사태를 계기로 당시 정부는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였다 당시 훈련이 요원(중앙에 있는 사람)은 에워싸는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1 21사태의 영향이 훈련에 묻어내고 있을 볼 수 있다

[안양시사8권 p 96]

### 1970년대 안양1동 구국도

1970년대 안양1동 구국도의 모습이다 1960년대에 비포장 길이었던 것이 1970년대엔 포장도 하고 자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도 했다

[안양시사8권 p 7]

### 안양1번가 도로명

안양1번가는 안양의 금융 교통 상권을 태동시키고 지역 발전을 일으킨 상징적 의미에서 1998년 시에서 상가 주변 길에 공식적으로 붙여 안양1번가가 되었다

[안양시사7권 p 22 23]

### 안양1번가 전신주 지중화사업

주요 도로변의 도시 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상 전신주 및 가공선로를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지중화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다 먼저 안양1번가 중앙로 박달로 주변을 정비하였는데 예산은 28억 6 500만원이 소요되었다

[안양시사3권 p 328]

### 안양경찰서터

안양지역(옛 시흥군 관할구역)의 지안 업무는 본래 영등포경찰서에서 관장하다가 광복 직후 1945년 10월 21일 경부선 안양역 앞 이화순가(家)에서 처음으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어 1947년 10월 5일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 660(현 안양1동 674 245 금강빌딩 자리)에 새 정사를 신축하고 초대 서장에 정감 정규설(丁奎高)이 임명되었다 그 후 한국전쟁으로 정사가 파괴되자 새 건물을 짓고 1953년 10월 20일부터 1973년 1월 까지 있었다가 현재의 안양6동 576-2로 이전하였다 당시 안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현 서울시 관악구 서초구 구로구(일부) 경기도의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안산시(일부)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의 제 지역이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0]

### 안양고등공민학교터

안양고등공민학교는 처음에는 제일방적 기숙사에서 임시 가

교사로 개교했다가 얼마 후 임업시험장 안으로 이전했는데 한국전쟁 직후 운영난으로 폐교되었다 설립자 박영래씨는 일제 때 만주에서 살다가 광복 직후 안양에 터전을 마련하고 조창기 안양 교육에 헌신한 교육자라고 안양의 원로들은 한결 같이 증언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0]

### 안양곡물검사서터

만안로에서 조흥은행 안양지점으로 들어가는 조입에 있었다 곡물검사서는 미곡(米穀)과 맥류(麥類)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건조 조제 포장 등의 개량절저를 기하기 위하여 곡물검사규칙에 의거 설치되었다 1950년대에 안양2동으로 이전되자 신영순의원이 일시 있었다가 까지다방 건물이 들어섰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1]

### 안양금융조합터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이 있었던 곳은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안양1동 674 93) 앞(현재 만안로에 편입)으로 9 28 수복 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2]

### 안양당금은방

안양 최초의 금은방인 안양당금은방의 창업주는 1912년 서울 종로구 장신동에서 삼형제 중 둘째로 출생했지만 안양에 있는 큰집에서 자라며 중학교에 다니면서 안양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안양시사7권 p 236-240]

### 안양당금은방 보증서

안양당금은방에서 발행한 보증서는 오랜 금은방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단기 4288년(1955년)과 단기 4299년(1966년)에 발행한 보증서들 액자에 넣어 상점 안에 걸어 놓았다

[안양시사7권 p 237]

### 1970년대 안양백화점

1974년에는 안양시에 시장이라고 해야 2개밖에 없었고 백화점 같은 대형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6년 안양1동사무소 옆에 건립된 안양 최초의 백화점인 안양백화점이 문을 열었지만 경영 부실로 곧 문을 닫았다

[안양시사3권 p 611]

### 안양소방대터

광복 직후 안양읍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한국전쟁 직후 도시계획으로 훼손되었다 경기은행 안양지점 부근에 있던 안양소방대는 1950년 통계에 따르면 대원은 250명에 대표자는 조남찬이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7]

### 안양시 개정 기념식 1973

1941년 10월 1일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되었고 1949년 8월 14일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었다

1959년 안양읍민의 날 기념식에서 김양국 안양읍장이 개회사를 이설경 시흥군수가 읍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시국 계몽강연을 했다

1973년 7월 1일 안양읍은 안양시로 승격되었다

[안양시사8권 p 278]

**안양시민대학**

안양1동 622 3 광흥빌딩 3-4층에 있고 1996년 9월 시민대학으로 설립하고 성인한글학교 성인영어 한자교실을 운영했다  
[안양시사5권 p 160-161]

**1926년 안양1동 안양시장 개설**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정부로부터 경부선 철도부설권을 얻고 1905년 경부선은 개통하면서 지금의 군포역 이름을 처음에는 (1905년 1월 1일부터) 군포장역(軍浦場驛)이라 하였으며 경술국치 이후에는 이곳에 군포장 순사주재소를 들만큼 중요시하였던 곳이다 그후 1926년 안양시 안양1동에 안양시장이 개설되었다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p 46]

**안양시장 역사**

안양시장의 역사는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에서 18세기 중엽에 군포장이 지금의 동안구 호계3동에 있었다는 기록에서 출발한다 그 후 1830년대 「임원십육지 林園十六志」에 따르면 안양장이 3 8일장으로 열렸다고 한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5 10일에 개장하던 공설시장으로 새롭게 개설된 안양시장은 안양1동 구시장 자리에 입지해 있었으며 1960년 안양우시장으로 바뀌었고 개장일도 3 8일로 다시 변경하였으나 화재로 전소되었다 이듬해인 1961년에 안양공설시장이 새로 문을 연었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설시장으로 변모하였다 1973년 시 승격 당시에는 중앙공설시장과 남부시장 2개소가 있었다  
[안양시사1권 p 91]

**안양신사터**

안양신사는 처음에는 양명고등학교 옆 오미산(烏尾山)에 있었다 그 후 신사터는 여러번 이전을 하는데 오미산이 외진곳이라 하여 일제시대 중엽에 안양의 변화가인 현재의 안양 본백화점(안양1동 668 33)자리로 이전되었다 다시 이곳이 길지(吉地)가 못 된다 하여 일제강점기 말엽에 외환은행 안양지점(안양1동 676-116)자리로 옮겼다가 광복이 되자 주민들에 의해 훼파되었다 신사(神位)는 일본 황실의 조상이나 신대의 신을 모신 사당으로 일제는 전국 각 고을에 신사를 짓고 우리 민족에게까지 강제로 참배를 하게 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7]

**1906년 안양역 풍경**

1906년 안양역 풍경에서 한복에 갓을 쓴 승객이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안양시사7권 p 183]

**1930년대 안양역 주변 거리지도**

당시 안양역 주변은 기억하고 있는 죄감판과 이상윤의 기억을 통해 1930년대 안양역 주변 거리큰 복원해 본 자료이다 지도에서 안양역 앞에 입직선으로 뻗은 도로가 만안로이다 그 만안로는 중심으로 관공서와 상점들이 입직선상에 늘어서 있다 만안로는 옛날부터 중심도로였으며 근대적 개념의 1번국도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 대전에서 목포 가는 길도 모두 1번 국도인 만안로로 죽으로 내었다  
[안양시사2권 p 6-7]

**1960년대 안양역 주변 사진**

1960년대 말 안양역 주변의 모습이다 저 멀리 삼덕제지 굴뚝

이 보이고 있다  
[안양시사7권 p 앞 사진첩]

**1970년대 안양역**

1970년대 안양역 일대큰 보여주고 있다 한국제지 보일러실 굴뚝이 보이고 있고 한국제지 터 끝으로 자연마음이 보인다  
[안양시사1권 p 87]

**안양역 앞 풍경(1984)**

안양역 앞에 택시가 기다리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15]

**KAL기 폭파궤기대회 1988 안양역 앞**

KAL기 폭파사건으로 국내외에서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비난여론이 들끓었고 안양역 앞에서도 대규모 궤기대회가 열렸는데 안양역 로터리 큰 가드 메운 시민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284]

**거리질서 캠페인 1980 안양역 앞**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교통량이 늘고 인구가 많아지자 거리행진은 통한 캠페인이 아니라 한곳에 집결하거나 군데군데 모여 홍보전단을 나누어 주는 등의 형태로 바뀌었다  
[안양시사8권 p 248]

**미나리밭과 안양역**

안양은 1905년 미나리밭이던 자리에 경부선 안양역이 생기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하였다 안양역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곳이 안양평(安養坪)이라는 기록이 있다  
[안양시사7권 p 126-127]

**새마을 대정소 1970년 안양역 앞**

1970년대 안양역 앞 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에서 새마을 대정소를 하고 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별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정소는 진행되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226]

**안양역 기차 정차(1906)**

1905년 미나리밭이었던 곳에 안양역이 건설되어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최초의 안양역사는 일제가 지은 슬레이트 양철지붕에 목조 콘크리트 건물이었다가 1 4후퇴 때 폭발사고로 역사가 완전히 소실되었다 다시 목조로 가건물을 지었다가 1956년에 슬레이트 지붕의 콘크리트 단층 건물로 재건축되었다  
[안양시사8권 pp 12 13]

**안양역 대물통지서(1956)**

안양역에서 함안까지 가는 수탁용 대물통지서이다 안양여자중학교 교장이 함안여자중학교 대표에게 보내는 문건으로 대물은 양회(시멘트)이며 운임지불 방법은 현금으로 8 775원이라고 적혀있다  
[안양시사8권 p 13]

**안양역 뒤쪽 구시장 주변 1970년대와 2000년대**

1970년대 안양역 뒤쪽 구시장 주변 시대동 마흔의 모습이다 이곳은 1929년 안양 최초로 전기가 송전되었으며 안양역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곳이 변화하게 되었다 구시장에서는 각종

농축산물을 거래하였으며 구시장 뒤편에 있던 우시장에서 소 씨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1960년대에 구시장이 중앙시장으로 이전을 한 후 텅 비어있는 모습이다 좌측에 태평방직(현 진흥아파트)이 있고 2000년대 이곳은 주공드림재이파트가 들어섰다 안양전 위에 놓인 임곡교와 안일교가 있다

[안양시사8권 p 43]

### 안양역 로타리(1960년대, 1980년대)

1960년대 당시 몇 대 밖에 없었던 시외버스 자부였다 이 버스터미널은 현재에도 여전히 성황 중이다 기차와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드나들던 심터의 공간인 폭포수다방 금강다방 등이 있었다 차량이 많아지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이 로타리를 주차장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1960년대에 없던 로터리 중앙에 우뚝 서있는 시계탑은 1980년대 당시 만남의 장소의 상징이었다

[안양시사8권 p 14]

### 안양역 로터리 주변 상점 1960년대

1960년대 안양역 로터리 주변 상점들의 모습이다

[안양시사8권 p 326]

### 안양역 주변 풍경(1960년대)

1960년대 안양역 앞으로 늘어서 있는 상가든 앞 국도변에서 사람들이 느긋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문맹이 많던 시절 대서소 간판이 딱집과 절물상회 사이에 있다

[안양시사8권 p 15]

### 안양역 열차 폭발사고

한국전쟁은 안양역에도 예기치 않은 재난을 가져왔다 14후퇴 때는 탄약을 싣고 내려가던 열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탄약이 실린 열차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매달리듯 타고 있었는데 탄약이 터져 폭발해 버린 것이다 인명 피해도 엄청났을 뿐 아니라 안양역 주변은 물론 안양읍이 불바다가 되었다 폭발하면서 새우젓 독 크기의 폭탄이 석수동 관악역 앞까지 날아가 떨어졌다고 한다 당시 신문이 없어서 신문에 안 나왔을 뿐이지 1977년에 있었던 이리역 폭발사고보다 더 컸을 것이라는 게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안양시사7권 p 127]

### 안양역 청소년 선도캠페인 1974

195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까지 학생들은 반공행사 북괴반행 규탄대회 송중이잡기 식목행사 퇴비증산 자연보호 교통질서 같은 정부시책 홍보 혹은 사회 이벤트 캠페인 등 해야 할 수조차 없는 많은 행사에 동원되었다

안양중학교 학생들이 안양역 앞에 모여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경찰로 보이는 어른이 줄을 맞추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 앞줄의 키가 큰 상급학생과 달리 뒤에 서있는 어린 학생들은 이제 막 중학생이 된 1학년으로 보인다

[안양시사8권 p 140]

### 안양역전 시외버스정류장(1968)

전안 대전 온양 등 1번국도를 달리던 버스와 군자 인전 소재 방항으로 가는 버스의 큰발점이자 종점이기도 했다 자전거를 받쳐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버스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왼쪽에 당시 유명했던 중화요리집인 영흥관의 간판이 보인다 영흥관은 국도확장 때 1번가 쪽으로 이전을 하였다

[안양시사8권 p 18]

### 안양연초조합 현금강탈사건 1929

일제시대 때만 해도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연초조합과 같이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곳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강도들에 의해 수난이 잦았다 안양연초조합의 경우 1920년대에만 수 차례나 현금을 강탈 당해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가 막심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8]

### 안양연초조합터

서이던 일대에서 경작된 연초를 수매하고 관리하던 기관 안양 9동 소재 담배존의 전주교 신자들에 의해 생산된 연초도 이곳에서 관찰했다고 한다 조합이 있던 자리는 안양역 앞 삼장정 비소(구 대영창) 부근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8]

### 안양우제국터

안양역과 삼표연탄 사이에 안양 최초의 우제국인 안양우편소(후에 우제국으로 개칭)가 있었다가 일제시대 말엽에 동화은행 안양지점 옆으로 이전했고 이어 광복직후에 삼원극장 옆(안양 4동 782 5)으로 옮겨졌으며 다시 안양5동 613에 새 건물을 짓고 이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양에 최초로 우제국이 생긴 것은 1911년 10월 1일로 처음에는 안양우편소로 칭하다가 1950년 1월 1일부터 안양우제국으로 개칭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9]

### 마을청소 안양읍사무소 앞 1965

1965년 마고자에 털모자를 쓴 노인들이 정소를 하고 있는 옆에 봄보리 파종하여 식량증산 합시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른 봄으로 보인다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를 봄에 파종하라고 계몽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식량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안양읍사무소가 있던 곳은 현재 안양1번가인데 당시에도 안양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다 전봇대에 소음방지 옛날교통표지판도 보이고 공장 근로자로 보이는 유니폼 자리의 여성도 보인다

[안양시사8권 p 221]

### 안양읍사무소터

안양읍은 안양시의 전신으로 일찍이 과전군의 상서면 하서면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서이면으로 되었고 다시 1941년 안양면으로 개칭된 후 1949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안양읍으로 승격되어 1973년 시로 승격될 때까지 실로 34년간 안양의 읍행정을 총괄하던 곳이다 읍사무소가 있었던 곳은 지금의 안양백화점 자리(안양1동 674 208)로 본래 포도밭이었는데 1949년 읍으로 승격되자 콘크리트 2층 건물을 신축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9]

### 안양인쇄소터

바산동 수프루지 출신인 김동호(金東浩 풍안농지개량조합장 역임 작고)가 광복 후 설립한 인쇄소로 안양 최초의 인쇄소로 알려지고 있다 동화은행 북쪽 약 30m지점에 있었다가 그 후 정미소를 거쳐 김홍규가 사법대서소를 개업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52]

### 안양제일교회

안양1동 622 158에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이다



1930년 5월 17일 양동의 전도사에 의해 창립되었다  
[안양시사5권 p558]

**안양 부근의 지도 변화(1917 1932)**

1917년도와 1932년도 안양역 부근의 지도변화이다  
[안양시사6권 p36]

**안양행궁터**

안양행궁은 정조 사후 행궁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되고 후에는 민간인 소유로 되었다가 1986년 경에는 안병일(安炳日 1943년생)이 이곳에 수어장(水魚場)이란 여관을 신축하였다 예전에는 이곳은 큰 집이 있었다 하여 대궐터라 불렀고 그 집은 대궐이라 칭했다 현재도 그 주변은 과연 행궁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장대석 지대석 등이 출토된다고 한다  
[안양시사6권 p20] [안양시 지명유래집 p453]

**안일교**

경수산업도로 선상에 있으며 안양전은 가로지른다 안양1동에서 나왔다  
[안양시사2권 p411-418]

**안일초등학교**

안양1동 85-6번지에 있고 2002년 3월 2일 21학급으로 개교했다  
[안양시사5권 p83]

**양지1~5교**

안양1동과 안양2동에 걸쳐 있다 양지동에 진입해 있어서 양지교라 했다  
[안양시사2권 p411-418]

**양지교**

중앙로와 수암전이 만나는 대동서점과 성심병원 사이에 있는 다리로 1973년 12월 11일에 준공되었다 양지동에 진입해 있는 다리라 하여 양지교라 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385]

**제2양지교**

만안로와 수암전이 만나는 연탄공장 옆(북)에 있는 다리로 1979년 6월 25일에 준공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388]

**양지보도교**

양지마을에서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411-418]

**영흥관**

815해방 후 동촌관 순흥루 영흥관 같은 중국집들이 1번 국도를 끼고 안양역 주변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안양시사7권 p129]

**정호해물탕**

안양1동에 위치한 정호해물탕은 남부시장 안에 있다 1972년 이곳에서 고지정자씨가 문을 연 뒤 한자리에서 지금까지 출몰 손님은 많고 있다 안양 해물탕을 유행시킨 원조이다  
[안양시사2권 p23] [안양시사7권 p33 34]

**제일방직안양공장터**

당시 시대동 진흥아파트 자리에 있었다 이 회사는 모직물을 생산하는 업체로 1946년 12월 7일에 창립되었다 1949년 현재 공장광수 10810평에 종업원은 남자 60명 여자 27명이다 1950년대 불이 나자 동양방직이 들어섰고 이어 태평방직 대농을 거쳐 대단위 아파트단지(진흥아파트)로 변모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461]

**중앙동**

북부동과 시대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안양시가 지 중앙에 있는 마을이므로 중앙동이라 한다 이 마을은 기점으로 남쪽에 있는 마을이 남부동 북쪽에 있는 마을이 북부동이다 지금은 안양1번가로 명칭이 변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197]

**새마을운동 촉진대회 1977 중앙로**

새마을운동 촉진대회는 점차 전진대회로 발전한다 요식업조합 숙박업협회 등 안양시위생점검업자의 새마을 전진대회 모습이다 거리 행전에 현수막이 등장하고 귀켓에는 “새마을 운동으로 새역사를 창조하자”라고 쓰여 있다  
[안양시사8권 p243]

**중앙로 확장 공사 1976**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던 귀로구호사업을 새마을노임소득사업으로 명칭은 변경하고 농한기 준공기의 농민들과 도시영세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임을 주었다 이 노임은 모두 현금이었는데 이 돈을 모아서 농토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970년대 초반 해도 농토나 임금이 샅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일 것이다  
[안양시사8권 p237]

**안양1번가 진영사사진관**

1968년 안양1번가에 진영사사진관을 개업한 강운원 사장은 1970년대 초 시흥군정과 안양시정에서 10여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에 나섰다  
[안양시사7권 p244 247]

**장민여관**

1960년대 당시 전국에 3개밖에 없던 잔디구장 중 하나였던 안양의 금성방직 축구장은 외지에서 안양을 찾은 축구단들이 자주 이용했었다 그때 축구단들이 가장 많이 묵었던 숙소가 안양역 근처에 있던 장민여관이었다고 전한다  
[안양시사5권 p494]

**청록서원터**

안양은 물론 옛 시흥군지방 최초의 서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의 농협중앙회 안양중앙지점 길 건너편인 정하장여관 자리(안양1동 146-14)에 광명시 가학동 가골 출신 설운규(薛運圭 1923년생)가 광복직후에 개점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때 폐점되었다 서점의 규모는 약 10평으로 단층 초가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467]

**1960년대 태평방직**

태평방직은 금성방직과 함께 안양의 섬유공업을 주도했다 안양1동에 있던 공장은 1968년 금성방직과 함께 주식회사 대농에서 인수했고 1977년 정주루 이전 그 자리에 진흥아파트가 건립되었다

[안양시사1권 p 71 481] [안양시사3권 p 502]

### 태평방직 1980년대

1980년대 안양천 옆에 있는 태평방직과 구시장의 모습이다 덕전마을은 아직 농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점동(안양6동)은 이미 주택가로 많이 변화된 모습이다

[안양시사8권 p 197]

### 로빈 통학열차 모임

안양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모임이 정의(Right) 의무(Obligation) 신념(Belief) 지혜(Intelligence) 국가(Nation)의 것 글자를 딴 이름으로 안양에서 서울까지는 50분 남짓 걸렸는데 기자 통학생들의 선망을 받으며 통학열차 내의 분위기를 정화한 것은 물론이고 아래 후배들에게는 모범적인 선배로서의 기틀을 닦는 데 일조했다

[안양시사7권 p 552 554]

### 통학열차

경부선을 이용해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가까이는 시흥 안양 군포 부곡(의왕)에서부터 오산 평택 멀리는 전안까지 있었다

그 중에도 안양과 수원인 통학생들이 가장 많았는데 안양에 통학생들이 많았던 이유는 해방 전에 중등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려면 서울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안양시사7권 p 183 184]

### 1960년대 중반 한국제지 안양공장 전경

1960년대 중반 한국제지 안양공장의 전경이다 당시 안양에 있는 대기업으로는 한국제지가 유일했다

[안양시사3권 p 522]

### 1970년대 한국제지

1970년대 한국제지와 만안구 일대 수리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안양시사7권 p 153]

### 1980년대 한국제지

1980년대 한국제지의 모습이다 보일러실 굴뚝이 보인다

[안양시사1권 p 301]

### 77수해 폐허가 된 한국제지 1977

1977년 7월 8일 일명 77수해에 안양전이 범람 한국제지의 기계설비와 원자재가 모두 잠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당시 외국기술진이 한 달 이상 수리해야 한다는 걸 임직원이 철야작업 끝에 불과 1주일 만에 재가동에 성공해 놀라움은 안겨주기도 했다

[안양시사8권 p 202]

### 한국제지

우리나라 종이산업은 해방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1960년대 가동된 한국제지 안양공장

과 1961년의 삼덕제지가 그 시발점이었다 한국전쟁 후 하천 공해를 문제 삼을 여유도 없이 어렵던 시절엔 제지공장에서 안양천으로 불법 방류한 화학폐포 종지죽을 건져 올려서 펄감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안양역과 안양천 사이에 있던 한국제지의 모습이다 1960년 장

업 당시 이곳은 연인들이 즐겨 찾는 포도밭이었는데 포도나무를 베어내고 공장을 건설했다

한국제지 안양공장은 현존하는 인쇄용지 공장 중 역사가 오래된 공장의 하나로 수입에 의존하던 백상지를 국산화하는 점 병역할을 했다

한국제지 안양공장은 1999년 12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공장 부지는 삼성레미안아파트로 탈바꿈하였다

[안양시사1권 p 88] [안양시사8권 p 200]

### 한국제지 안양공장 보일러실 1959

1959년 5월 완공된 한국제지 안양공장 보일러실 모습이다

[안양시사8권 p 201]

### 한국제지 안양공장 정원 1970년대

1970년대 한국제지 안양공장 내에 있는 정원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217]

### 한국제지 안양공장 폐수처리시설

한국제지 안양공장 폐수처리시설 모습이다

[안양시사8권 p 201]

### 안양여고 화단극장 공연하다

안양여고 목련제를 화단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하였다

[안양시사7권 p 334]

### 화단극장

안양에 극장이 처음 설립된 것은 1953년 3월 한국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화단극장이 개관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극장은 서울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도시에나 있는 것이었는데 작은 소읍에 지나지 않았던 안양에 극장이 생긴 것은 새로운 오락거리에 대한 시민적 수요가 높아 가고 있었으며 도시 규모도 그만큼 커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안양역에서 왼쪽으로 500여m 거리의 1번 국도변에 734석 규모로 세워졌으며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시설이었다

[안양시사5권 p 384]

### 화단극장 포스터가 붙어 있는 담벼락

화단극장이 생기면서 극장 이급이 인쇄된 선전지가 붙은 영화 포스터도 안양읍 내 여기저기에 나붙기 시작했다 그 옛날 초가지붕 담벼락에 붙어 있는 화단극장 포스터도 있었다

[안양시사5권 p 390]

### 화신상회

일제시대 안양의 경제는 화신상회 삼광정미소 양조장 등 세 집이 주도했다 화신상회는 당시 안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잡화상회로 쌀 포목에서부터 암모니아(비료) 농기구까지 없는 게 없는 만물상이었고 장사도 제일 잘 되었다

[안양시사2권 p 8 9]

### 김원필병원 일제시대

안양의 원로 장배근(張培根 1909년생 작고)에 의해 창설된 낙랑실업공사 인근에 김원필병원이 있었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426]

### 중앙의원 일제시대

안양의 원로 장배근(張培根 1909년생 작고)에 의해 창설된 낙

량실업공사 인근에 중앙의원이 있었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426]

안양행궁은 1868년 고종의 명에 의해 허리게 되었다  
[안양시사7권 p 293]

## 문화자원 시설자원

### 미륵불 1934년 모습

용화사는 미래부처인 미륵불이 모셔져있던 곳인데 현 대동문고 자리에 있었으며 많은 신도를 거느린 유서 깊은 도심 사찰이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은 용화사가 안양역 앞에 있던 미륵당 시설의 미륵불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석탑의 옥개석인데 용화사 미륵불의 보개로 당시에는 석탑 위에 올려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사진의 스님은 장삼을 입고 있는 건고 보아서 조파일행사른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파일 연등 밑에는 정성은 올리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당시 연등은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는데 대나무 골조에 종이든 바르거나 북고 주름비단을 바르기도 했다

[안양시사8권 p 184]

### 미륵불 보금자리 대동서림 자리

1947년 안양역 앞 대동서림 자리에 미륵불은 모실 미륵당이 세워지게 되었다

[안양시사7권 p 303]

### 미륵불 시멘트 갓

안양역 앞에 있던 미륵당은 1978년 음력 2월에 미륵당에 불이 나면서 30년이 넘는 역사를 안고 모두 불타 버렸다 미륵불도 시커멓게 그을렸지만 다행히 형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화재의 피해가 커서 복구는 불가능했고 미륵불은 호계동 용화사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호계동 용화사는 미륵불은 밖에 모시게 되면서 갓을 끼야 했는데 호계동 용화사 시절부터 시멘트로 만든 갓을 쓰고 몸은 자역석으로 되어있다 화재로 겪고 난 뒤 안양의 미륵불은 원형의 모습을 잃었다 지금도 몸세 밑을 보면 자연석이 산화되어 붉은 빛이 감돈다

[안양시사7권 p 304]

### 안양 미륵불

용화사는 안양미륵당의 후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지금의 안양역 일대가 미나리밭이었던 당시 반주인 한머니가 꿈속에서 미륵보살을 만난 후 다음날 미나리밭에 가보니 꿈속에서 본 석조미륵보살이 있어 이른 지금의 안양역 앞에 움막집을 짓고 봉안하자 안양미륵당이라 칭했는데 일제만엽에 이곳(현 안양역 앞 로터리에서 약간 북쪽) 인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자 1943년 안양의 원로 장배근등에 의해 현재의 안양본백화점 자리로 옮기면서 용화사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그후 1978년경 전기누전으로 화재로 당해 1983년에 호계동으로 이전되었다

[안양시사7권 p 302]

### 백년암

남부동 정호식당 앞(안양1동 622 234)에 있다 상불암에서 수도학 신백년 니사(尼師 여승)가 1932년 장사했다 종과는 조계종이며 사명은 장건주의 범명을 취한 것이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255]

### 1868년 안양행궁 헐리다

### 안양행궁지 표석

현재 안양1번가에는 안양행궁지 표석이 있다

[안양시사1권 p 199 446]

### 용화사 경내와 석탑 1948

1948년 용화사 경내와 석탑이 보이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184]

### 용화사 미륵입상

용화사는 안양미륵당의 후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미나리밭에서 미륵불이 발견되고 안양역 앞에 움막집은 짓고 안양미륵당이라 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도로용지로 편입되자 1943년 안양본백화점 자리로 옮기면서 용화사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282]

## 문화자원 향토설화자원

### 미륵불 탄생 신화

안양 미륵불의 탄생 시기는 400 500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양에서 발굴된 시기는 1940년대다 어떻게 해서 미륵불이 안양에서 발견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어느 길에 있던 미륵불이 자연재해로 유실되었다가 뒤늦게 안양에서 발견되었다면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와 얼추 맞아떨어진다 왜냐하면 정조가 안양을 거쳐 수원 화산에 있는 아버지의 능우오 고간 시대가 18세기 말이고 그 당시 미륵당잡에서 정조가 쉬었다 간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저음에는 이 미륵불을 사당에 모셔 놓고 신주 모시듯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시대에는 마을마다 거의 만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만신에 의해 안양역 앞에 미륵당이 세워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래저래 미륵불의 탄생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여러 전설은 만들어 내고 있다

[안양시사7권 p 303]

### 정조와 안양 미륵불 구전

정조가 아버지 능이 있는 수원 화산에 가기 위해 안양의 미륵불 앞을 지날 때 번번이 말이 발길을 떼기 못했다 정조가 그 연유를 묻자 미륵부처에게 불공은 드리지 않은 탓이라 하여 정조가 말에서 내려 불공을 드리니 비로소 말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안양시사7권 p 303]

### 안양1동 연혁

안양1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의 안양리와 반사리 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1리와 안양5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1동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6년 1월 1일 시조례 제1392호에 따라 안양5동

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동쪽으로는 비산1동 서쪽으로는 안양4동 남쪽으로는 안양5동 안양7동 북쪽으로는 안양2동이 각각 위치해 있으며 자연마로는 남부동 시대동 중앙동이 있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72 75]

### 안양역 유래

안양1동 88 1번지 경부선 서울 지점 23 9km 지점에 위치한다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이 개통되자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원래는 이곳이 미나리밭이었다 안양역사 건설 당시 미나리밭에서 미극불이 발견되었다

이곳의 역명은 안양역으로 한 것은 옛 안양리(安養里)에서 지명을 따온 것이지만 안양이란 시명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의 별칭임을 감안할 때 이곳에서 미극이 줄토된 사실도 안양의 역명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이다

[안양시사2권 p 485-486]

## 인적자원 과거인적자원

### 집성촌-안양1동 성주이씨 인동 장씨

안양1동에 성주 이씨가 정착하게 된 것은 중시조 이장경의 12세손 이균미가 1600년경 세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균미가 안양1동 지역에 정착하게 된 연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으로 이곳에는 인동 장씨들도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는데 180여 년 전 청주에서 안양1동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장현봉의 후손들이다

안양1번가에는 전주 이씨 영응대군 후손들도 몇 대에 걸쳐 세거해 왔다 정착 시기는 1909년경으로 보이며 현재에도 안양 인근에 40여 호 정도가 살고 있다

[안양시사2권 p 511 512]

### 안정호(1912 1965)

의사이고 본관은 순흥 권영의 손자이고 고종의 전의를 지낸 상호의 아들이다

경성시대 지대를 졸업하고 안양1동에서 안정호 지과의원을 개원하여 의료 활동에 종사하였다 1929년에는 안양지역 전기 송전에 앞장 섰고 해방 후에는 경제계에 투신하여 조선과이프 공장장은 역임하였다

아버지 때부터 안양 구시장 남부시장 일대의 많은 땅을 소유한 안양지역 최대 지주였다 1947년 안양시 안양3동의 땅 10만여 평은 희사하여 안양중학교 및 안양공업고등학교의 설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어 안양에 보육시설에도 1만 5000여 평을 희사하였고 한국전쟁이 끝나자 비산대교에서 한국제지에 이르는 안양천 제방을 자비로 축조하는 등 안양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

[안양시사2권 p 570]

### 원태우(1882 1950)

독립운동가 본관은 원주 태성의 아들로 안양1동에서 태어났다 원태우는 1905년 11월 22일 을사조약의 핵심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 인형의 특면열자가 암흑리(현 석수동 육교 지점)를 지나가자 그가 앉아 있는 자장을 향해 돌을 여러 개 던졌다 이토 히로부미는 돌에 깨진 자장의 유리조각으로 등쪽에 8군데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은 국내와 일본의 신문에 연일 보도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원태우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징역 2개월에 태형 100대에 처해졌고 인본 경찰의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그 후 비산동 수푸루지에서 석공으로 불우하게 살다가 한국전쟁 때 사망하였다 그의 유품 중 멧돌 한 개는 1990년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어 보관되고 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안양시사1권 p 앞 사진첩] [안양시사2권 p 560]

### 장배근 낙랑실업공사 설립자

안양의 원로 장배근(張培根 1909년생 작고)에 의해 1949년 2월에 창설되었다 김원필병원과 중앙의원 사이 에 있던 이 회사는 일본식 적벽돌 1층 건물로 공장평수는 61평에 본건과 인견을 15만마(碼) 생산하며 종업원은 남자가 15명 여자가 22명 모두 37명이었다

규모는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광복 후 안양일대의 빈민을 구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회사로 덕망이 높았다 당시 창업주 장배근은 조선직물 안양공장과 경기도직물조합 이사 및 시흥군직물조합장 등을 역임하였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426]

### 혼다 사고로 안양역장

1932년 당시 일본인 안양역장 혼다 사고로(本田眞五郎)가 철도수입 증대와 안양리 개발을 위하여 조한구 서이 면장과 야마다 시흥 군수 및 지역유지들을 설득하여 1500원의 예산으로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의 계곡을 막아 2조의 전연수영장을 만들어 안양뜰이라고 명명하였다

[안양시사7권 p 186]

### 야마다 시흥군수

1932년 당시 일본인 안양역장 혼다 사고로(本田眞五郎)가 철도수입 증대와 안양리 개발을 위하여 조한구 서이 면장과 야마다 시흥 군수 및 지역유지들을 설득하여 1500원의 예산으로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의 계곡을 막아 2조의 전연수영장을 만들어 안양뜰이라고 명명하였다

[안양시사7권 p 186]

### 전주 이씨 안양 집성촌 거주배경

전주 이씨 영응대군은 세종대왕의 여덟 번째 왕자이다 영응대군 의사당 및 경효제를 신축관리하던 이종복이 1909년 군자면에서 이곳 안양리 644번지로 이주한 것이 안양정착 시조였다

[안양집성촌자료집 p 112]

### 성주 이씨 안양 집성촌 거주배경

성주 이씨가 최초로 안양에 거주한 것은 중시조 이장경의 13세손 균미(君美)라고 한다 정착 시기는 1600년 이후로 본다 어떤 연유로 그가 안양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안양집성촌자료집 p 156]

## 인적자원 현재인적자원

### 진영사 강윤원 사장

1960 70년대 안양읍 및 안양시 사진 봉사활동

[안양시사7권 p 244]

### 김종국 동물병원장

1949년 안양읍 안양1동 674-65번지에서 태어났다 1970 80년대만 해도 안양 과전 시흥 군포 의왕 안산 등에는 소를 키우



는 목장이 많았다 김종국 동물병원 원장은 주로 모장에 왕진은 다녔기에 활동 범위가 넓었다 2003년까지 동물병원은 운영했던 건물에는 안양행궁터 일명 대갓집터 라는 표석이 놓여 있다

[안양시사7권 p 372 375]

**박종근 한국노총 대부**

1949년 부전에서 안양으로 이사 온 박종근 씨는 태평방직에 근무하면서 열악한 여공들의 근무환경 부당한 저우 노동자의 불이익을 보며 근로자의 비애를 느껴 노동법은 공부하기 시작했다 1970년 단위노동조합장이 되면서 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후 1988년 마침내 전란 노동자의 대변인으로서 한국노총위원장에 올랐고 1994년까지 3차례나 연임하며 노동계 큰 이끌었다

[안양시사7권 p 367 369]

**통학열차 신동석 통학회장**

경부선 통학열차 안양지역 통학회장 신동석 씨

[안양시사7권 p 184]

**1954년 권태현 안양1번가 친구와 자전거 사진**

1954년 안양1번가의 모습이다 북덕방 앞에 군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집들은 한국전쟁 직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23]

**1951년 권태현, 안양역 철길 사진**

1951년 안양역 철길 모습이다 철길 옆 담은 양철로 된 것이며 담벼락 사이사이에 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17]

**1964년 노춘자, 안양역 앞 외출 사진**

1960년대 안양역의 모습이다 출입구 옆에 우제통이 보인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69]

**1961년 이용찬, 용화사(구 본백화점 부근) 사진**

1961년 화제로 얻어지기 전의 용화사 모습이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53]

**대동문고 전영선 회장**

사진은 장업당시 대동서점 앞의 모습이다

[안양시사7권 p 218]

**1960년대 태평방직 여성 근로자들 나들이 사진**

겨우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다리에 태평방직 여성 근로자들이 곱게 옷을 차려입고 나들이를 가는 모습입니다

[안양시사7권 p 앞 사진첩]

**한국제지 여사원 자기 개발 교육 1979**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기업 형편이 좋아지면서 경영인들은 근로자들의 교육과 복지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안양시사8권 p 217]

**1960년 라기봉, 화단극장앞 구도로 사진**

1960년대 1번국도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44]

**안양2동**

**자연자원 경관자원**

**망해산(望海山)**

비산1동과 석수1동 및 안양2동에 걸쳐있는 해발 290m 높이의 산이다 이 산 정상에 올라가면 멀리 서해바다가 한 시야에 들어 온다고 하여 망해산(望海山)이라 부르고 있다 산중에 망해암(望海庵 안양2동 산 19)이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31]

**망해천(望海川)**

망해산(望海山 망해암 뒷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전에 합류된다 하천길이 190m 하폭 2m 물리면적 0.5ha이다 반원지인 망해산의 산명을 따와서 망해천(望海川)이라 일컫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93]

**서울대 관악수목원**

만안구 안양2동에 위치해 있으며 1967년에 연구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말 현재 면적 1,501ha에 1,700여 종 약 10만 그루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부 지방의 주요 자연생태교육 및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식물원의 구성은 보편 자생과목관찰원 활엽수관찰원 침엽수관찰원 특산외국식물관찰원 외래과목관찰원 외래유용수목관찰원 관목관찰원 유실수관찰원 특용수관찰원 숙근조관찰원 등 10개 관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양시사3권 p 653]

**오미(烏尾)고개**

양명고등학교에서 석수동으로 가는 옛길에 위치한 고개이다 오미산에 있는 고개라 하여 산명을 취해 오미(烏尾)고개라 일컫는다 비포장 소로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9]

**오미산(烏尾山)**

양명고등학교와 구 국제수영장 사이에 위치한 작은 산이다 산세가 마치 까마귀의 꼬리 같다고 하여 예로부터 명당자리로 이금난 산이라고 한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조선 인조 때(1623년) 인조반정에 공을 쌓아 1등공신에 올랐다가 후에 좌의정우 지낸 심기원(沈器遠)의 아버지 묘를 대림대학 뒤에 쓰기 위해 광중을 가는데 바위 밑에 있던 두 마리의 학(鶴) 중 한 마리가 이산 동쪽으로 날아 갔다고 하여 그 주변을 학뒤(鶴後)라 부른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44]

**낙원마을과 화심천**

낙원마을은 안양2동 안양예술공원 입구 오른쪽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다 안양시는 1999년 낙원마을을 물의 고마운은 기려 우물제를 지내며 마을 공동체를 결속하는 전통마을로 지정하였다 낙원마을을 흐르는 하천이 화심천이다

[안양시사7권 p 337 339]

**자연자원 지역자원**

###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2동 22 1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1995년 2월 10일 안양시와 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허가년월일은 1995년 2월 10일이다

[안양시사4권 p 231]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 1960년대 기독교보육원 앞 쪽다리

안양천을 건너기 위해 하천 위로 난 쪽다리는 한사람만 겨우 지날 수 있었다

[안양시사7권 p 앞 사진첩]

### 결혼식 1962 기독교보육원

초장기 신식결혼식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많이 했다 신랑 측 어르신인 한복과 증절모 옷자림에서 시대의 의복을 엿볼 수 있다

[안양시사8권 p 340]

### 보육원 신축 1956

1956년 새로 지은 보육원 건물 앞에서 있는 오공선 원장과 후원자들의 모습이다 1950년대에 전후 경제 사회 정지가 취약하고 혼란스러웠으므로 외국원조단체의 자선구호활동에 의존적인 수밖에 없었다 건물 신축에 자원을 아끼지 않았던 미군도 준공식에 참석했다 성탄절에는 보육원 내 교회에서 기념 예배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안양시사8권 p 252]

### 안양시 여성글짓기 대회 1978 기독교보육원

1978년 5월 9일 제1회 안양시 여성글짓기 대회를 기독교보육원 마당에서 진행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글짓기라는 문화적 활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168]

### 안양시 여성글짓기 대회 1982, 기독교보육원

1978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여성 글짓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제1회 여성글짓기 대회가 열렸던 기독교보육원은 좋은집 의 옛 날 명칭으로 후원이 넓고 풍광이 좋아서 글짓기와 같은 행사를 하기에 알맞은 장소였다 글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 주된 행사였으나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먹기도 하고 담소든 나누며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은 즐거운 소풍 분위기가 만들어지곤 했다

초기에 입상자들을 중심으로 여성문우회를 조직했는데 후에 파요동인의 모체가 된다

[안양시사8권 p 169]

### 한국전쟁 당시 보육원 건물과 식구들 모습 1953

어린이 보육시설인 좋은집 은 기독교인 의사였던 오공선 박사가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는 독립운동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조직한 경성고아구제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1919년 1월) 그 후 1922년 5월 서울 정운동에 경성보육원을 설립했는데 이는 최초의 본격적인 고아원이다 경성보육원은 1936년 안양으로 장소근 옮기고 1972년 기독교보육원으로 1998년 해관보육원으로 2006년에는 좋은집으로 개명하였다

사진의 좋은집은 한국전쟁으로 1951년 1월 경남 가덕도로 피난했다가 9월에 돌아왔다 가덕도 피난에서 돌아왔을 때 건물은 전쟁의 상흔에서 아직 정비되지 못한 채였다

[안양시사8권 p 251]

### Board of managers 기독교보육원 방문 1956

1956년 4월 3일 Board of managers의 기독교보육원 방문 전쟁 기간 중은 물론 전후 1960년대 초까지도 보육원에 필요한 재원은 유엔구호계획에 의하여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물자에 의존하였다 그래서 미군이나 미국 민간원조단체의 방문을 받는 일이 많았다 후원물품은 대개 의약품과 식료품이었다

[안양시사8권 p 259]

### 만안초등학교

1962년 3월 10일 만안국민학교로 개교 후 도시의 확장에 맞추어 1972년 3월 1일 안양서초등학교 분리 1981년 10월 10일 박달초등학교 분리되었다 2011년 현재 38학급 유치원 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만안초등학교 홈페이지]

### 안양여자고등학교

1950년 3월 7일 재단법인 혼세사 설립인가 후 1960년 3월 8일 3학급 편성으로 안양여자고등학교 설립되었다

[안양여고 홈페이지]

### 안양여자중학교

1951년 3월 7일 재단법인 혼세사 설립인가 후 1952 3월 22일 설립인가 받았다

[안양여중 홈페이지]

## 문화자원 시설자원

### 공덕사(公德寺)

안양예술공원 남쪽 산등성이에 자리잡고 있다 법파종으로 1981년에 장건되었다 공덕사(公德寺)란 부처님께서 공덕을 이룬 후 큰 법을 세운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50]

### 망해암(望海庵)

양명고등학교 동쪽 망해산에 있는 절이다 망해암(望海庵)이란 사명(寺名)은 바다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암자에서 나온 것으로 맑은 날에는 멀리 서해바다를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양시까지 또한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사람의 전체적 규모는 큰 편은 아니지만 아담하게 자리한 법당과 사찰 뒤편의 경지가 잘 조화되어 있다 일제 때에는 봉은사(奉恩寺)의 말사였다가 현재는 용주사의 말사로 종파는 조계종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51]

### 안흥사(安興寺)

안양예술공원 남쪽 산등성이에 있다 중남 공주출신의 비구니 방보성(方普聖)스님이 범주사 수정암에서 득도한 후 여러 사찰의 안거(安居)를 거쳐 1965년에 이곳으로 자리를 잡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한 기도도장(祈禱道場)이란 뜻으로 안흥사(安興寺)라 일컬었다 고려 때(926년) 장건한 안흥사(현 염불암)와는 동명이절(同名異刹)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의 비구니(比丘尼) 수도장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79]

## 문화자원 향토설화자원

**낙원마을과 화심전의 유래**

1959년 안양예술공원 인근 부허가 관갯집에서 생활해오던 박정원 안학순 부부가 무허가주택 철거라는 정책에 따라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 부부는 이곳 야산 숲속 큰 느티나무 옆에 움막을 짓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식수가 없어 이곳저곳 물을 찾아 헤매던 중 문이 고여 있는 웅덩이를 발견하고 그곳을 가 보니 옛날 우물로 사용하던 못이 계속 흘러나와 식수로 사용하게 되었다 우물은 발견한 이후 움막을 뜯어내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렇게 집은 완성하였으나 언제 또 무허가로 헐리게 될지 문라 불안한 마음은 달래기 위해 매일 초하루 보름에는 우물가에 떡시루를 갖다 놓고 집이 헐리지 않게 해달라고 용왕님께 정성을 들인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낙원마을과 화심전 용왕제의 시작이었다 1993년 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생활을 이 못로 했지만 지금은 식수로만 쓴다 그리고 전통행사 때는 이 물을 사용한다 1993년 마을 회장 김재복이 낙원마을이라고 이름으 지어 부르게 되었고 유지원을 운영하던 방유자가 우물의 이름을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화심전(和心泉)이라 지었다 [안양시사7권 p 337 339]

**망해암약수**

안양2동 망해암 아래에 있어서 망해암약수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처럼 물맛이 특이하다는 말이 전해 온다 [안양시사2권 p 492]

**안양2동**

안양2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석수동이였다가 1941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2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2동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 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그뒤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로 동의 일부가 안양3동에 편입되었다 안양2동은 동으로는 비산1동 서로는 박달1동 남으로는 안양1동 북으로는 석수1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북부동과 석수동이 있다 조선시대 급전현과 과전현의 현계에 위치한 안양2동은 안양문화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만안교가 소재해 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지극한 표성으로 그 이름이 높았던 정조가 능행은 위해 1795년에 가설한 이 다리는 본래 나무다리였던 것을 홍예석교로 가설한 후 만인이 만년 동안 편안하게 건너 다니라는 뜻으로 만안교(萬安橋)라고 명명하고 가설하던 해(1795년) 윤력 2월 13일 어머니(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거행기 위해 진히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 이 다리를 건넜다 그 후 보잘 것 없던 이 다리가 유명해져 정조의 능행은 과전로정에서 시흥-안양으로 노정을 바꾼 후부터 과전에 딸린 작은 마을이 오늘날의 60만의 거대도시로 비약하는데 건inja 역할을 했다 삼성산 아래에 있는 안양유원지는 수도권외의 위락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오끼(口井)라는 일본인이 안양에서는 최초로 이곳에 포도른 재배해 안양의 명물로 명성은 높였으며 기독교보육원은 안양의 첫 사회복지시설로 고아의 할아버지로 칭송을 받았던 오금선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75 77]

**북부동**

안양시까지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북부동(北部町)이라 일컫는다 시가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야생조류의 서식지였으나 일제강점기 초에 오끼(口井)라는 일본인이 안양에서는 처음으로 포도를 재배한 곳이며 화단극장 앞 구 연미예식장(→ 안양상공회의소) 자리에는 일본인 고퇴정태랑(高退政大郎)이 고퇴합명회사(高退合名会社)를 설립하여 무역과 농업(농장) 업무를 관장하였다 광복 후에는 안양에서는 최초로 극장(화단극장 안양2동 815)이 들어섰고 여성교육기관인 안양중학교와 안양여자고등학교 및 만안초등학교 등의 학교와 시민회관 도서관 안양지구 축산업협동조합(현 농협) 등이 들어서 있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74]

**고리합명회사**

화단극장 앞 구 연미예식장(→ 안양상공회의소) 자리에는 일본인 고퇴정태랑(高退政大郎)이 고리합명회사(高退合名会社)를 설립하여 무역과 농업(농장) 업무를 관장하였다

**새마을유아원 설명회 1982**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집 군목 유아원 농번기 탁아소 등이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되었다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설명회에 높은 관심은 보였다 [안양시사8권 p 103]

**새마을유아원 개원식 1982**

1982년 안양2동 새마을유아원 개원식에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여사가 개원식에 참석 유아원생들은 격려하고 있다 영보현 경기도지사과 안경진 안양시장이 배석하였다 [안양시사8권 p 103]

**세심전약수**

망해암 입구에 있다 즉 동안구 비산3동과 만안구 안양2동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다 주로 안양2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1일 이용자 수는 약 300명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1]

**안양2동사무소 1970년대**

사진은 1970년대 안양2동사무소의 모습이다 간접신고는 113 반공방첩이라는 문구에서 군사정권의 반공의식이 볼 수 있다 [안양시사8권 p 90]

**새마을 대청소 1984 안양2동 뒷골목**

1984년 9월 15일 안양2동 뒷골목에 새마을 모자큰 쓰고 새마을 대청소를 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엔 쓰레기가 별로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안양시사8권 p 229]

**안양교**

안양대학교와 경부선 철도 사이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109.8m 교폭 20m 1986년 12월 20일에 착공하여 1987년 8월에 준공되었다 본래의 교명은 안양교였으나 1978년에 안양대교가 가선되자 안양구대교로 통칭되었다가 다시 안양대교로 명명되었다 노선명은 만안로 하천은 안양천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84]

**1960년대 안양여자고등학교**

1960년대 안양여자고등학교와 운동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른쪽 학교 건물 옆으로 관악산이 시원스럽게 보인다. 선생님들의 가슴에 꽃이 꽃혀있는 모습으로 스승의 날 행사로 보인다. [안양시사5권 p 앞 사진집]

### 안양여고 난로에 도시락 데우기 1967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난로가에 둘러앉아 뜨개질을 하기도 하면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겨울 아침이면 주변학생들이 배당받은 조개탄 한 양동이씩을 교실에 가져와 불을 피웠다. 점심밥을 데우기 위해 난로 위에 겹겹이 도시락을 올려놓았는데 난로가 매우 뜨거웠으므로 간혹 맨 밑의 도시락은 밥과 반찬이 타기도 했다. 단발머리의 소녀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주운 겨울날 추억의 도시락이었다.

[안양시사8권 p 131]

### 안양여고 등교하는 학생들 1960

1960년대 중반 안양여고 교문 앞 풍경이다. 분쇄하자 간접적 탁성취하자 혁명과업이란 위압적인 표어가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5.15군사구테나 직후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한다는 혁명공약 아래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그림자가 서쪽으로 길게 늘어있는 것이 등교시간으로 보이는데 나무로 된 교문이 반쯤 열려 있고 기둥 옆에서 있는 학생은 선도부원인 듯하다.

[안양시사8권 p 126]

### 안양여고 전국체육대회 1963

1963년에는 전주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렸다. 그해는 안양여고 배구팀이 장설된 해로 경기도대표팀 선발 예선경기에 참여하였다.

[안양시사8권 p 134]

### 안양여고 수학여행 1950

1950년대 수학여행은 주로 기차를 이용했고 기차가 긴 터널을 지나갈 때는 어둠을 이용해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기도 했다.

[안양시사8권 p 146]

### 안양여고 애국조희 1960년대

눈이 내린 주운 겨울날 학생들은 운동장 조희대 앞에 일렬로 정렬하여 서 있다. 월요일 아침이면 국민교육헌장 낭독으로 시작해서 재건제조로 끝나는 애국조희를 했다.

[안양시사8권 p 128]

### 안양여고 입학시험 1960

안양시 고교입시제가 평준화되기 이전 각 학교에서는 연합고사로 입학시험을 지냈다. 가슴에 다는 수험표엔 수험번호와 명함판 사진을 부착했다.

[안양시사8권 p 124]

### 안양여고 재봉틀 기증식 1960년대

1960년대에는 재봉틀이 텔레비전 전화와 함께 부의 상징이었으며 혼수품으로도 각광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재단과 바느질을 배우는 여학교에는 피아노만큼 귀한 학습기재였다. 당시의 재봉틀은 수동방식이어서 발로 페달을 밟아 바늘을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피곤에 잠깐 즐기라도 하면 안양여고에 재봉틀 2대가 기증되었다.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환하게 미소지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당시 재봉틀이 얼마나 귀한 물건이었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안양시사8권 p 130]

### 안양여고 청소시간 1950년대

용기종기 모여앉아 교실 바닥에 물걸레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다. 교실 바닥은 마루로 되어있었는데 청소시간이면 나무로 된 의자와 책상은 한쪽으로 밀어가며 기름걸레나 양초른 이용해 교실 바닥에 길을 들였다. 주변이란 완장을 찬 학생이 눈에 띈다. 이 완장은 후에 표찰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사라졌다. 여고의 모습답게 흰 앞치마와 머리에 쓴 두건에서 간조사의 이미지가 느껴진다.

[안양시사8권 p 135]

### 안양여고 제조 1960년대

조희시간에 제조를 하는 모습이다.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는 재건제조가 있었고 이어 신세기제조를 거쳐 1973년에는 아직도 감회가 새로운 국민보건제조가 탄생했다.

[안양시사8권 p 129]

### 안양여고 퇴비중산 봉사활동 1958

195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행사에 학생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

사진은 퇴비중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 멀리 삼성산과 관악산 자락이 병풍처럼 보인다.

[안양시사8권 p 140]

### 안양여고 수학여행

수학여행을 출발하려는 안양여고 학생들의 모습이다. 검은 운동화와 교복 상의를 보면 1970년대로 보인다. 드문드문 가죽구두 형태의 학생화도 눈에 띈다. 가방은 손가방 정도로 많지 않고 기자가 아닌 버스를 통해 수학여행을 떠났다.

[안양시사8권 p 147]

### 학도호군단 창립 4주년 기념식 1953 안양여고

1940년대 초 전시체제에서 일제가 활동이 편리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일본 여성의 노동복인 왜바지(폼페)를 입게 하자 이근 피하기 위해 여학교에서는 바지 교복을 제정하고 착용하였다. 흑색지마에 흰 저고리 복장은 1930년대 전후의 여학생 교복이다. 무엇이든 새로 장만하거나 바꾸는 일이 쉽지 않았던 때였다.

1950년대 안양여고의 모습은 담장도 없이 작은 흙담으로 운동장의 경계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식 한옥으로 보이는 가옥이 학생들 너머로 보였다.

[안양시사8권 p 121]

### 안양여고 목련제 학교축제 역사

안양여고의 목련제는 1954년 11월에 제1회 교내 예능발표회로 시작되었다. 당시 시내의 화단극장을 빌려서 두 차례 공연을 하였다. 그때 안양의 인구가 3만명에 불과했으며 안양여고에 재학하던 학생수는 200명 미만이었다. 사실 교내 예능발표회는 학교의 규모로 보아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불과 7-8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오직 불타는 의욕과 정성으로 밤을 지새우며 노력한 결과 연극과 음악회로 이어지는 약 2시간짜리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때 상연된 연극 작품이 「바보 온달」이었다.



목련제에는 연대별로 변화가 있었다 1954년도 방식에 세련을 거듭하여 그대로 지속되다가 1970년대에 연극과 음악경연대회에다 특기발표와 작품전시회 큰 추가하였다 1975년에는 다시 문학의 밤을 추가하였으며 그 후 격년제로 시행되면서 동아리별 발표회도 추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양시사7권 p 333 335]

**1952년 안양여중 앞 사진**

1952년 안양여중 앞 사진이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건물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학교 앞 도로 큰 양산은 쓴 여인이 지나가고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20]

**안양여자중학교 망해암 소풍 1953**

한국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1952년에 개교한 안양여자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신입생은 맞이하였다  
[안양시사5권 p 14-15]

**안양여중 1회 졸업식 1952**

당시 금성방직 안에 있던 임시교사에서 지어진 졸업식 안양여중이 개교한 것이 1952년이다 하지만 한강다리가 끊어진 상태이고 전쟁 중이어서 미처 서울에 귀향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 현 거주지에 있는 학교에서 수학하도록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 편입한 학생들이 1952년에 졸업은 했다 전쟁중인 시대적 상황을 상징하는 군인이 졸업식장에 있다  
[안양시사8권 p 136]

**안양여중 2회 졸업식 1953**

안양여중 2회 졸업생은 모두 43명인데 1회 졸업생 23명과 대조해 꽤 증가한 편이다 전쟁 시기에 학창 시절은 보내며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이기에 졸업의 의미가 각별했으 것이다  
[안양시사8권 p 137]

**안양여중 교복 1954**

안양여자중학교 개교 당시의 학생들 모습이다 가슴에는 금속 마크와 함께 전으로 된 교표 큰 달았다 운동화는 당시 보편적이던 여학생화인 반면 들고 있는 책가방은 흰 전으로 만든 수제품이다 당시만 해도 공장제품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다 교복의 전도 엄격한 미국 군복은 뜯어서 다시 재단한 것이거나 대부분 질이 좋지 않은 것들이었다  
[안양시사8권 p 123]

**오끼농장 자리(현 안양대교 부근)**

사진은 1940년대 안양축구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곳인 오끼농장 자리이다 현재는 안양2동 안양대교 부근이다  
[안양시사5권 p 489]

**정심사**

안흥사 부근에 있다 마을을 맑게 하고 수도에 정진하는 곳이라 하여 정심사(淨心寺)라 일컫는다 1974년에 창사되었으며 종파는 총파종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84]

**1951년 1월 경남 가덕도로 증은집 피난 후 9월 복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경남 가덕도로 피난 후 9월 복귀한 증은집의 모습이다 전장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안양시사8권 p 251]

**증은집 34주년 기념식 1952**

1952년 5월 25일 증은집 34주년 기념식이 연리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250]

**증은집 교회 1961**

1961년 증은집 교회의 모습이다 [안양시사8권 p 252]

**증은집(1956)**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사람의 출입은 삼가고 있는 낡은 건물의 아랫부분은 돌로 쌓았고 윗부분은 벽돌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멘트로 덧칠을 했으며 지붕은 기와를 올렸다 얼핏 보면 단층 한옥 같지만 한옥과 양옥이 어우러진 건물이다 남아 있는 근대 건축물의 하나인 증은집 구 원사(院舍)는 이제 지나온 세월을 말하듯 헐고 낡은 재료 새로 지은 원사에 가려져 밀려나 있다 불꽃이 낡은 건물이지만 그 건물에서 훈훈한 정을 느끼고 서로의 시린 가슴을 보듬으며 성장해서 이 사회의 일꾼이 되었을 주인공들에게 부모와도 같은 장소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 증은집의 옛 건물을 보면서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을 수 있듯이 오늘이 있어 야 내일도 기약할 수 있다는 말을 되새긴다 우리도 삶의 과거 자취를 지우기보다는 흔적으로 남겨 두고 반주하며 미래의 지혜로 삼는 것은 어떨까  
옛 건물은 원생들의 생활공간은 아니더라도 그 대안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구시대의 유물로 지부하기보다는 교훈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였으면 한다  
[안양시사7권 p 256]

**중앙로 국민은행 앞 육교**

안양2동 광성전기 한양당구장과 안양3동 성심병원 국민은행 안양지점을 연계하는 육교로 중앙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이 육교의 통과 높이는 5m에 총 길이는 30m이고 교폭은 5m로 1994년에 개설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98]

**항림육교**

장애자복지회관과 항림아파트를 연계하는 육교로 경수산업도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안양예술공원 내거리에서 남쪽으로 약 150m 지점에 있는 이 육교는 총 길이 47m 교폭 3m로 1995년에 개설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99]

**노숙자쉼터 희망사랑방**

노숙자 쉼터는 노숙자들에게 숙식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돕는 등 지역사회에서 반생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숙자 관련 종합보호센터의 역할 수행하는 시설이다 안양2동 688 38번지에 있는 노숙자 쉼터 희망사랑방은 대안예수교장로회 안양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안양시사4권 p 242]

**인적자원 과거인적자원**

**일본인 오끼(沖井)**

일본인으로 안양에서는 안양2동에 최초로 포도밭 재배했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77]

### 안흥사 방보성 스님

충남 공주 출신의 비구니 방보성 스님은 안흥사를 장건했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279]

### 오금선 박사

기독교인 의사였던 해관 오금선 박사는 지난 1907년 미국 루이빌 의대를 졸업하고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우리나라 최초의 피부과를 창설했으며 1934년에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제2대 교장에 취임했다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는 독립운동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1919년 1월 경성구제회를 조직하고 그 후 1922년 5월 서울 정운동에 최초로 본격적인 고아원인 경성보육원을 설립했다  
경성보육원은 1936년 안양으로 장소를 옮기고 1972년 기독교보육원으로 1998년 해관보육원으로 2006년에는 좋은 집으로 개명하였다  
사진은 1950년대 좋은집에서 원아진료를 돌보고 있는 오금선 박사의 모습이다 좋은집 설립자 오금선 박사가 몸이 아픈 어린이를 돌보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251 p 256]

### 박정원 안락순 부부

1959년 안양예술공원 부근 무허가 관갯집에서 쫓겨나 낙원마을에 처음으로 들어온 부부이다 낙원마을 화심전을 발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용왕님께 지성을 드렸었다  
[안양시사7권 p 338]

## 인적자원 현재인적자원

### 1977년, 만안초 운동장 수해 현장 사진

사진은 77수해 현장 중 만안초등학교 운동장을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어린이 3명이 있는 장면이다 나무가 쓰러지고 전봇대는 기울어졌으며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 내려왔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103]

### 1962년 권정옥 안양2동 고추 팔리는 가족 사진

사진은 집 앞마당에 고추를 팔리고 있는 모습이다 아이들 뒤에 콩깍지가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54]

### 1968년 유흥근, 안양2동 관악산 배경 사진

1968년 안양2동에서 관악산이 모두 보이는 사진이다 사진 맨 오른쪽에는 큰 미구나무가 서 있고 길에는 아름드리 가로수가 늘어서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82]

### 1964년 심재덕, 현 양명고 근처 구기독교보육원 사진

행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71]

### 1964년 김영례 안양2동 집안 우물 사진

1964년 안양2동 집안의 우물이다 두레박에는 영어로 써진 글씨가 있는데 미국 구호품을 활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68]

### 안양여고 탁구부 전국대회 우승 1975

전통의 탁구명문 안양여고가 1995년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안양시사8권 p 180]

### 1957년 백영희 안양여중 들 모으기 사진

넓은 공터에 학생들이 모여 돌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37]

### 1957년 백영희 안양여중 조회 사진

저 멀리 군복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있고 학교 주변에 높은 건물 없이 산의 모습이 훤히 보이고 있다 한복을 입은 선생님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15]

### 1957년 안양여중 소풍 사진

신입생관영 소풍이라는 글씨로 진달래가 활짝 핀 봄날 꽃을 한 아름 안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복과 교복이 섞여 있으며 한복을 입은 학생들도 가슴에 이급표가 붙어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38]

### 1960년 안양여중, 여고 입학식

안양여자고등학교 개교 및 입학식 기념 사진이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45]

### 1963년 안양여중 가뭄 물대기 행진과 하계봉사

뜨거운 여름 가뭄 물대기를 위해 양동이와 세숫대야를 들고 행진은 하는 모습과 하전에서 물일 길어 나르는 모습이다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그 시절 학생들도 일을 해야만 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64]

### 1963년 안양여중 송충이 잡기 사진

야산에서 학생들이 송충이를 잡고 있다 집게로 잡아 송충이는 양은 주전자에 넣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63]

### 1963년 안양여중 입학식 신체검사 사진

입학식 신체검사 시간 멀리뛰기를 위해 준비하는 학생을 지켜보고 있는 선생님의 의자가 6개 구멍이 있는 벽돌이다 운동장에는 농구대 2개와 커다란 룬러가 있다 그 당시 학교는 1층으로 되어 있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65]

### 1963년 안양여중 주산대회 사진

1963년 11월 6일 학생들이 한곳에 모여 주산경진대회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긴장한 탓에 카메라도 의식하지 못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몇몇 학생들은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66]

### 1963년 안양여중 학생들 모내기 사진

모내기철 학생들도 모내기를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못줄을 대지 않고 바로 심고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62]

### 1960년 유흥근, 전통 결혼식 신랑 신부 사진

1960년대 전동 혼례복은 입고 결혼한 신랑신부와 하객들의 모습입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46]

### 1981년 김귀연, 양명고 나무다리 건너는 교복입은 학생 사진

양명고에서 안양전은 건너 오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80년대 젊은 교복과 모자 녹색 책가방 교련복에서 옛 추억을 떠올린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105]

### 좋은집을 찾은 윤보선 대통령 1960년대

좋은집으 방문한 윤보선 대통령 사진의 왼쪽 끝에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좋은집의 설립자 오궁선 박사 가운데 안경 쓴 사람이 윤보선 대통령이다 당시 경찰서장과 시흥군수가 함께 배석하였다  
[안양시사8권 p 297]

### 좋은집 보육원 가족들 1962

보육원 가족들이 오궁선 박사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다 한복은 입을 사람이 설립자 오궁선 박사이다  
[안양시사8권 p 268]

### 좋은집 방문한 미군 장교 1950년대

1950년대 전후 보육원에 필요한 물자를 전달하는 미군 장교들과 함께 있는 오궁선 박사 사진에는 의약품은 제공하는 사진이 있다 ANOTHER AFAK PROJECT 활동의 일환으로 미군들은 자주 보육원은 방문했었다

미국 한국지원단(AFAK 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활동이란? 한국전 정전 후 민간 복구 활동은 지원하기 위한 미8군 산하 미국 한국지원단이다 지원 형태 장비 및 인건비 내역 프로젝트 별 전체 예산 등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으며 건설 부문과 비건설 부문(보건 위생 교육 의료 등)을 별도로 분리해 프로젝트 별 진척 상황 등은 정리해 놓았다 주로 1935-1954년 시기의 것이다(Box#13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과일 No 09840044794)  
[안양시사8권 p 258]

[네이버 블로그 이흥환(KISON) 편집위원 / 국립중앙도서관 워싱턴현지 해외기록수집팀 <http://blog.naver.com/dlibrary1004/30083428206>]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관대사이트 이용안내 > 디브리리모털 > 온라인 자료 > 해외수집기록물 > RG84 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88 1964

# 안양3동

## 자연자원 경관자원

### 수암천 사진

사진은 수암천에서 물놀이하는 하는 모습입니다  
[안양시사4권 p 438]

### 쓰레바위

안양과학대학 뒷산 정상에 있다 쓰레(끼레)처럼 생겼으며 일명 수리바위 라 칭한다 \* 쓰레란 갈라놓은 논의 바닥은 고르거나 흙덩이든 잘게 하는 데 쓰이는 농기구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8] [안양시사2권 p 476 484]

### 문바위

안양3동 문바위골에 있다 지붕처럼 커서 지붕바위 라고 한다 문바위 옆에 있다  
[안양시사2권 p 480]

## 자연자원 지역자원

### 77수해 안양3동 유가족

안양3동 77수해 현장의 유가족 사진이다 판잣집으로 지은 집은 토사에 힘입어 무너져 내리고 아이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머니에게서 깊은 근심이 묻어난다  
[안양시사8권 p 350]

### CGV 안양

구 삼원극장 자리에 현재는 CGV로 변화였다  
[안양시사5권 p 394]

### 1960년대 금성방직 잔디구장

1960년대 당시 전국에 3개밖에 었던 잔디구장 중 하나인 금성방직 잔디구장 중 하나였던 안양 금성방직 축구장 모습이다  
[안양시사5권 p 494]

### 금성방직

금성방직은 경북 달성군 편풍 출신인 김성곤씨가 1940년 비누회사인 삼공유자합자회사를 설립하여 크게 부른 이루자 사양길에 접어든 안양의 조선직물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세운 회사이다 조선직물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 설립한 인조견우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였고 1944년 비행기를 만드는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로 잠깐 경영하였다 해방이 되면서 방지된 공장은 1948년 9월 27일 자본금 1억원으로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872번지에 금성방직 공장은 세웠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피해는 입었지만 한국의 산업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발족한 온크라(UNKRA 유엔부흥위원단)의 지원으로 제기에 성공해 1950 60년대 안양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안양시사1권 p 54 480]

### 금성방직 1954년 신제품 “은하

전쟁의 피해를 입은 한국의 산업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발족한 운크라(UNKRA 유엔부흥위원단)가 제일 먼저 방직공장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UNKRA의 지원을 받은 금성방직은 이 자금으로 영국기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시설로는 너무 적다고 하여 정부 보유물로 일본제 기계 OKK 방직기 11 600주를 추가 도입하여 1953년 6월 금성방직 재건에 착수했고 다음 해인 1954년 5월에는 첫 제품 은하라는 상표의 면사가 첫 생산품으로 선을 보였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소생한 금성방직의 새 제품 은하는 품질도 우수했지만 시장 사정도 좋아 없어서 못팔릴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5]

### 금성방직 1960년대 안양3동

1960년대 금성방직의 모습과 주구장의 모습이다  
[안양시사8권 p 194]

### 금성방직 내부 모습 1957

1957년 금성방직 내부 모습이다  
[안양시사8권 p 196]

### 금성방직 내부모습

금성방직 내부시설의 모습이다 여성 근로자가 마루로 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안양시사7권 p 145]

### 금성방직 사원운동회 기념 1958

1958년 금성방직 사원운동회 기념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이다 당시 사원들은 여학생처럼 머리를 하고 교복과 비슷한 유니폼을 입었다  
[안양시사8권 p 210]

### 금성방직 연못 1962

1960년대 금성방직 내에는 연못이 있었다  
[안양시사8권 p 196]

### 금성방직과 UNKRA(유엔 한국부흥위원단) 관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안양을 인민군들이 점령하여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더니 이해 8월 7일에는 안양일대에 B 29기 10여대가 안양상공을 맹폭격해 금성방직은 삼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전쟁의 피해를 입은 한국의 산업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발족한 운크라(UNKRA 유엔부흥위원단)가 제일 먼저 방직공장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국민의 생활필수품 중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경공업 분야 중 방직 분야를 특히 제일 먼저 재건해야 된다고 결정은 내린 것이다 그러나 운크라와 정부에서는 원조자금을 쓸 수 있는 방직공장은 38선에서 멀리 떨어진 한강 이남에만 준다고 단서를 붙였다 당시 우리나라 방직공장은 부산에 조선방직 대구에 삼호방직 내외방직 대한방직의 전신이 있었고 광주에 전남방직 인천의 동양방직 서울의 경방 안양의 금성방직이 있었다 이 중에 38선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방직에 원조를 많이 주고 금성방직은 38선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원조계획에서 누락되었다 그러자 김성곤 등 간부들은 운크라와 정부 당국을 찾아가 부당성을 지적하고 자금 배정을 강력히 주장하자 결국에는 금성방직도 운크라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졌는데 방직기 18 480주의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액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5]

### 금성방직터

금성방직은 안양3동 695 209에서 박달동 소재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제 지역으로 1950 1960년대 안양경제계를 좌우한 정도로 영향이 컸던 굴지의 회사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직물주식회사가 해방 후 방직되어 있던 것은 김성곤씨가 인수해 1949년 2월 12일 공장의 재만시설을 완성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는 금성방직회사 안양공장 완성 이라는 제목으로 총 공사비 3천 만원으로 작년 9월부터 착공한 금성방직주식회사 안양공장은 지난달 12일에 완성되어 김약수(金若水) 국회부의장 구(具)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관민 다수 참석하에 증업식(從業式)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동 공장은 현재 10 000주로 운영하나 앞으로 40 000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 방직계에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된다 (동아일보 1949 3 10) 그러나 1년 뒤 한국전쟁으로 산업시설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게 되었지만 운크라(UNKRA 유엔 한국부흥위원단)의 지원금을 우여곡절 끝에 지원 받아 일본제 기계 OKK 방직기 11 600주를 도입하여 새 제품 은하를 출시해 재건에 성공하였다 이렇듯 광복 후 안양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금성방직도 1967년 10월 5일 동해 대단위 시멘트공장 건립자금 조달을 위해 시대동에 있던 태평방직과 함께 대한농산(대농이라 칭함)에 매도되었고 대농은 그 후 정주공단으로 이전되었다 1977년 한국토지금고에 의해 일반에 매각되어 주택단지로 변모되자 현재는 대농단지로 일컫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3]

### 한국전쟁 B 29기 10여대 안양상공 폭격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안양을 인민군들이 점령하여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더니 이해 8월 7일에는 안양일대에 B 29기 10여대가 안양상공을 맹폭격해 금성방직은 삼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4]

### 대농단지

광복 후 안양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금성방직도 1967년 10월 5일 동해 대단위 시멘트공장 건립자금 조달을 위해 시대동에 있던 태평방직과 함께 대한농산(대농이라 칭함)에 매도되었고 대농은 그 후 정주공단으로 이전되었다 1977년 한국토지금고에 의해 일반에 매각되어 주택단지로 변모되자 대농단지라 불리워 오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6]

### 안양3동 철로변 초가집 1960년대

안양3동의 철로변 모습이다 경부선 철도로드 아닌데 무슨 철로가 있을까? 그것은 병목안 재석장의 돌들을 나르는 작은 철길이었다  
[안양시사1권 p 75] [안양시사8권 p 44]

### 삼양하드보드공장 1960년대 후반

현재 안양3동 성원아파트 자리에 있던 삼양하드보드공장은 톱밥 등 나무자투리를 압축해 만드는 하드보드를 생산하였는데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사진은 1960년대 후반의 삼양하드보드공장 주변의 모습이다 울퉁퉁 쪽으로 놓인 다리를 건너는 어린이가 다정스럽고 다리 아래는 빨래를 하는 여인들이 보인다 재석장으로 연결된 철로변으



로 소달구지가 짐을 싣고 가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203]

**1960년대 삼영하드보드 공장**

1960년대 삼영하드보드 공장 모습이다 수압전 위에 놓인 나무 다리 위를 사람이 지나고 있다  
[안양시사3권 p 앞 사진첩 | 안양시사3권 p 520]

**새마을로**

삼원극장(현 CGV빌딩)에서 안양3동 병목안에 이르는 폭 16m 연장 1 800m의 길로 새마을(안양9동)을 진입하는 도로라 하여 새마을로 일컫는다 일명 병목안 진입로라 부르기도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62]

**새마을 가꾸기 공동작업 1970 안양3리**

당시에는 수압전변의 미루나무가 높이 있었으며 마을주민들이 흙폭 과인 곳은 흙으로 메우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222]

**새마을 사업용 양회 하자장소**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전국의 33 267 개의 자연마을 단위로 일률적으로 양회(시멘트) 336부대를 나누어 주었다 이 시멘트로 공동우물 공동빨래터 개천의 세월교(장마 때는 물이 다리 위로 넘쳐흐르는 간이교량) 등을 만드는 일이었다 자연마을 단위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었던 시멘트는 효율성 있게 잘 이용한 마을에는 그 다음해(1971년)부터 지원 규모를 늘려 시멘트 500부대에 절근 1톤씩은 추가 지원했다  
[안양시사8권 p 223]

**아시아 학교터**

안양공업고등학교(안양3동 795)자리에 있던 학교 일제시대 만엽인 1940년대 초에 조선직물공장의 중역인 기리다(桐田元次)가 주동이 되어 안양거주 일본인의 자녀를 위해 설립되었다 교사는 모두 4칸인데 일본인의 주립으로 세웠다 광복이 되자 폐교되어 1948년 안양중학교와 1949년 안양공업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39]

**안양3리사무소 앞 후두미다리 1960년대**

1960년대 안양3리사무소 앞 후두미다리의 모습이다 당시 수리산의 모습인 현재와는 다르게 울창한 숲을 볼 수 있다 수리산 아래에 밭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양시사8권 p 42]

**안양3동사무소 부근 1980년대**

수리산 아래로 밭이던 농경지가 1980년대 이후 주택들이 들어서 번잡한 마을로 변하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42]

**안양3리사무소 1960년대**

1960년대 안양3리사무소 모습이다 계시판 자전거 주차장 그리고 현판은 현대식으로 변한 지금의 모습과 외형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 다만 현대식으로 좋아졌을 뿐이다  
[안양시사8권 p 88]

**안양공고 고교 교련수업 1974**

학생들의 교련수업은 일종의 군사훈련이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에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는 유사시 조국 수호를 위한다는 이유에서였다 1950년대에는 남자 고등학생들이 실제 군용 소총과 똑같이 생긴 모형 중으로 집중 훈련을 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열 분열 등 질서 훈련으로 바뀌었다 사진은 1974년 안양공고 학생들의 사열식 광경이다 학생인지 군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은 정도로 훈련이 잘되어 있다  
[안양시사8권 p 122]

**안양공고 국민제조 1974**

1974년 안양공고 운동장에서 국민제조론 하는 모습이다 운동장 너머 언덕이 보이는데 지금은 모두 주택가로 변한 곳이다  
[안양시사8권 p 129]

**안양공고 여주 신록사 수학여행 1955**

1955년 안양공고 여주 신록사 수학여행 사진이다 당시는 모두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다녔다  
[안양시사8권 p 146]

**안양공업고등학교**

1948년 3월 15일 시흥학원 안양중학교 영색과 6년제 6학급으로 개교했다 1951년 3년제 공업고등학교로 개편하면서 업직과 전기과 신설 1962년 건축과 신설 1964년 기계과 신설 1969년 화공과 1978년 토목과 1986년 방직과를 섬유과로 과명 변경 1987년 병설 안양중학교 분리 이전(석수동으로) 1988년 남녀공학으로 전환 인가 2003년 학과 개편 승인(섬유디자인과 전기제어시스템과 건축디자인과 건설정보과 컴퓨터응용기계과 생명환경화공과) 학과목의 신설 및 변경은 우리나라 산업의 변천사를 잘 선포해주고 있다  
[안양시사5권 p 118] [안양시사5권 p 앞 사진첩]

**안양과학대학**

1977년 3월 15일 안양공업전문학교로 개교하였다 현재 6개 학부 28개 학과에 6천 1백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안양시사1권 p 70]

**안양교회**

안양3동 695 73에 있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이다  
[안양시사5권 p 560]

**안양산업사터**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안양 최초의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자본금 10만원에 안양사람 20명으로 발기된 안양산업사는 자본부족과 경영 미숙 등으로 설립한 지 3년여 만에 도산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을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알아본다  
産業社 組織  
시흥군 서이면 엄기승의 20명의 발기로 자본금 10만원의 안양산업사를 창립하고자 그동안 준비중이던 바 각 방면 유지로부터 존자 승낙이 정수(正數)에 달하였으므로 불인(不日)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리라는데 동 회사의 목적은 점점 궁핍하여 가는 조선 농촌에 가장 적당한 부업 즉 양잠 양계 양돈 수리 개간 사업 등을 주로 하여서 순전한 농촌 구제기관이 되리라 함으로 일반 동사 탄생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더라 (시흥) (동아일보 1928 12 1)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5]

### 안양서초등학교

1972년 안양서국민학교로 개교했다  
[안양시사5권 p 48]

### 안양예술고등학교

1966년에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로 문을 열었고 2000년에 현재의 안양예술고등학교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수도영화사 안양촬영소 1966년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와 안양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안양시사3권 p 704]

### 안양외국어고등학교

1996년 안양외국어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인가(영어2 영어1 중어1)  
[안양시사5권 p 140]

### 제3양지교

안양공업고등학교와 삼척제지(현 삼척공원) 사이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18m 교폭 12.6m 다리높이 2.8m 경간수 3개 설계하중 10톤이다 노선명은 안양공고 진입로 하천명은 수암천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88]

### 양지동

안양공고 주변에 위치한 마을로 안양3동 1 2 3 4 6 25 26 27동에 속해 있다 이 마을은 조선조 제2대 정종의 7남인 수도군(守道君)의 종손 이공(지제부수)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이래 원주 원씨 등이 세거해 왔다고 한다 이 마을명칭에 대하여 陽智洞 陽地洞 陽支洞 陽知洞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지세가 양지바근 곳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양지동이라고 표기함이 옳다 이곳은 1928년에 지금의 안양3동사부소 부근에 안양산업사란 안양 최초의 공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광복 직전에는 아사 이학교가 설립되었고 광복 직후에는 안양중학교(1948) 안양공업고등학교(1949) 등 많은 학교가 운집되어 안양교육의 요람지로 변모되었다

양지동은 안양을 대표하는 시인 김대규의 출생지이며 방송작가 이서규(1899 1981) 소설가 재만식(1904 1950) 시인 평론가 정규영(1919) 시인 정기조(1934) 등 문인들이 오랫동안 이곳에 살며 문학활동을 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재만식은 전북 옥구 출신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자로 있으면서 1925년 단편 「세길로」로 「조선문단」지의 주전을 받고 문단에 데뷔했다 「태평전하」 「허생전」 「아름다운 새벽」 등의 장편소설을 발표했는데 1938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탁류」는 그의 대표작으로 현실을 비판하여 풍류작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만식이 양지동에 살기 시작한 것은 1940년으로 그는 이해 6월 5일부터 8일까지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매일신보에 「안양복거기(女農卜居記)」를 발표했다 그 후 이듬해(1941) 3월에 양지동을 떠나 서울 광장리로 이사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89] [안양시사2권 p 351]

### 양지로(보조간선)

박달1동과 안양3동을 경유하여 벽산로와 만나는 도로다  
[안양시사2권 p 385]

### 절미운동 1970년대

1970년대에는 절미 저축 운동을 했다 부두막에 조그만 단지나

빈 분유 깡통을 두고 밥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손가락씩 퍼서 모아 두었다가 이웃을 돕거나 공동 사업의 자금으로 썼다 삼양연탄 3동 판매소 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길로 빠져 안양3동 절미수집소로 보인다  
[안양시사8권 p 315]

###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자료는 1977년 8월 9일(화요일) 경향신문 비화한세대 188면 반민특위 비행기 공장이라는 제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홍식(朴興植)이 반민특위의 심판을 받게된 구체적인 혐의는 반민법4조7항에 해당하는 비행기 병기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었기 때문이었다

박홍식(朴興植)은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인 1944년 12월 2일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5천만원으로 경기도 안양에 거대한 비행기 생산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이 당시 이미 일제는 남태평양과 동남아 일대의 모든 전선에서 연합군에 밀려 각종 군수물자가 달리고 있었으며 모든 병기는 크게 부족한 상태였다

박홍식(朴興植)도 법정에서 당시의 정세를 설명하며 비행기 공장은 세우게된 경위를 비화를 털어놓듯 소상히 밝혀갔다

1944년 조선에 징병령이 실시된지 얼마 후 박홍식(朴興植)은 소기(小磯)종독에게 불러갔다 조선에 징병령이 실시되어 조선인들이 명실공히 전황의 적자로서 황을 입게되었으니 기념으로 전투비행기공장을 세우도록 하시오 박홍식은 터무니 없는 소리에 말문이 막혔다 비행기공장을 황을 입게된 조선인의 손으로 꼭 만들어야겠다는 소기(小磯)의 말은 명령과 다름없었다

저는 세밀(細密)공업이나 기계공업에는 문외한인데요” 박홍식은 얼마전 조선군참모들로부터 사이판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의 패망을 예감해온 것을 생각하며 될 수 있는대로 빠져나갈 궁리를 했지만 종독의 태도는 확고했다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하고 종독실을 나온 그는 궁리 끝에 비행기공장을 세우기로 결심한다 여자피 패전이 가까운데 지금부터 공장은 세워봐야 일본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종전 후 종합자동차공업으로 키울 수 있겠다는 계산과 군수공장 종업원들은 징용에서 제외되는 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파산산하 직원들을 지키자는 속셈이 생겼다고 박홍식은 종독부의 제의에 굴복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박홍식은 필요한 물자 인적의 확보 공장건설에 일체 간섭하지 말것 등을 조건으로 공장건설의 대권을 맡았다

그는 공장을 작공도하기전에 전사원을 비행기회사사원으로 겸직발령하는 등 2천8백명이나 사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중에는 애국선열독립운동가의 가족 유망한 청년들이 많아 유익겸 신흥우 이모목(전영국대사) 오전석(전문교장관) 이홍직(월남이상재 선생 영손) 신태환(전서울대총장) 주요한(전부총부장관)등이 끼여있었다 다만 중역진에는 절저한 진일파인 박준금 방의석등을 앉혔다

그는 공장건설은 위해 만주비행기공장을 시찰하고 돌아온 후 만주중국등지에서 필요한 시설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소기(小磯)종독과 조선군사령관의 소개장을 갖고 상해로 건너간 박홍식은 상해 주둔군 노보리부대장 중장을 만나 그곳의 시설을 반출해 주도록 요구했다

“정신이 있소? 지금 비행기가 평평 쏟아져 나와도 될까 말까 할 판에 이제 공장을 지어서 무엇을 할니까? 당신은 안될 줄 알면서도 공장시설에 탐을 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서는 하나도 내드릴 수 없습니다

중진의 완강한 태도에 박흥식은 후에 책임 추궁을 할것이라고 협박을 해대며 간신히 허가를 받았다 그는 이 기계설비비삼정이 갖고 있던 고려인삼 독점권을 강제로 넘겨받아 흥삼은 주고 사들이는데 성공했다 상해에서 들여온 시설만도 비행기 1천4백대든 생산해낼 수 있는 시설로 당시 6억원 상당의 엄청난 것이었다

안양의 공장은 이렇게 곳곳에서 들여온 비행기공장시설로 거대하게 완성돼가고 있었다 그러나 종전시까지 이곳에서 만들어낸 비행기는 고작 시작기(試作機) 1대뿐이었다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른 받은 일부 종업원과 폭도들이 기계시설은 몽땅 뜯어가거나 파괴해 버려 박흥식이 노렸던 해방이후 최대의 기계공장과 자동차공장의 꿈이 무산된 것은 그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까운 일이 되고 말았다」

[경향신문 1977년 8월 9일자 기사]

**조선직물주식회사 창립**

사진은 동아일보 1932 8월 조선직물주식회사 창립 기사이다 [안양시사1권 p 296]

**조선직물터**

중앙로 안양 시외버스터미널(하행) 서권에 이르는 지역 이곳이 지리적으로 서울의 근교인데다가 인접 지역에 안양역이 있어 수송에 편리한 뿐만 아니라 더욱이 수원(水原)이 풍부해 일찍부터 공장부지로는 최적지로 평판이 높았던 곳이다 그런데 이 일대(안양2 3 4 5동)의 땅은 대부분 일본인 지주 다카세 세타로(高橋政太郎)의 소유여서 한국인의 공장 건설은 자본과 기술에 앞서 토지의 구입이 용이하지 못해 상당히 어려웠던 때였다 이때(1932) 지주 다카세 세타로(高橋政太郎)가 공장부지 1만여평을 피사하자 공익사(公益社) 중역이었던 고정(高井) 등의 발기로 자본금 백만원으로 조선직물주식회사를 창립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62-465]

**문화자원 향토설화자원**

**능곡약수 유래**

안양3동 안양서중학교 동남쪽에 있다 옷이 오븐 과부에 특효가 있다고 해서 일명 옷우물 또는 소리 나는 대로 오뚜물이라고 한다 능골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서울제지발천 유래**

안양3동과 안양9동에 걸쳐 있다 서울제지에서 발원하여 수암전에 함유되는 하천이다 길이 450m 하폭 3.5m 물리면적 1ha 이다 발원지인 서울제지에서 하천 이름을 취했다 [안양시사2권 p 458-462]

**안양3동 연혁**

안양3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후두미동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3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3동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그 뒤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에 의거 안양2동 일부가 편입되었다 자연마은로 양지동이 있다 일제시대 아시아학교가 설립된 후 안양공고 안양여상 안양예고 안양과학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속속 설립되어 안양교육의 요람지가 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77 78]

**지붕바위 유래**

안양3동 문바위골에 있다 지붕처럼 커서 지붕바위 라고 한다 문바위 옆에 있다 [안양시사2권 p 480]

**인적자원 과거인적자원**

**김성곤(1913 1975)**

기업가 언론인 정치가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성곡(成谷) 광도(光度)의 아들로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출신이다 1922년 현풍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25년 대구로 이사하여 달성보통학교 4학년으로 편입하였다 1928년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이듬해 대구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였다 4학년 대 교내항일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퇴학당하자 다시 상경하여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후 1937년 보성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한 뒤 대구부정과 대구상공은행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1940년대 대구고등보통학교 동창생인 최재영 이종건 등과 함께 비누공장인 삼공유지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하였다 비누공장은 통에 재산을 축적한 후 안양에 소재한 조선직물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 조선직물은 안양의 대지주였던 다카세 세타로(高橋政太郎)가 1932년 설립한 인조건은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였다 193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직물공장이 별로 없고 경제도 호황이어서 조선직물이 안양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은 지극히 컸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과 해방으로 방직기계 대부분이 수원에 방치되고 일본 기술자들이 결수하여 문을 닫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직물을 인수하여 1948년 자본금 1억원으로 금성방직주식회사를 등기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한국전쟁으로 공장이 잿더미가 되었지만 다시 복구하여 1954년 3만여대의 방직기와 250대의 직기른 설비한 한국 최대의 방직회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금성방직은 안양경제의 젖줄과 같은 곳이었고 구직자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시설 확충으로 여종업원 200명 모집 공고를 내면 전국에서 2000명 이상이 지원하여 제대로 면접은 지르지 못할 정도였다 종업원 선발이 끝나도 구직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양에 머물면서 다음 모집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안양지역에는 숙식만 제공받고 무급으로 일하는 가정부가 넘쳐났다 [안양시사2권 p 571 572]

**김영실(1920 2006)**

교육자로 1985년 대한신학교를 인수하여 1993년 정규대학인 대신대학교로 개편하였고 1995년 안양대학교로 교명은 변경하였다 [안양시사2권 p 571]

**염기승(1900 1953)**

사업가 본관은 영월 진사 장섭의 아들로 후에 명우로 개명하였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출신이다 1928년 자본금 10만원

으로 안양3동 부근에 양점 양계 양돈 수리개간을 하는 안양 산업사글 설립하였다 1928년 안양공립보통학교 설립에도 기여하였고 후에 안양보통학교 기성회장으로 교육진흥에 힘썼다 1929년에는 지역 유지인 안정호 등과 함께 안양지역 전기 송전에 앞장섰다  
[안양시사2권 p 567]

### 금성방직 이승만 대통령 시찰 1956

1956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안양의 금성방직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섬유산업체였던 만큼 근로자들의 애환도 역사가 깊다  
[안양시사7권 p 145]

### 양지동 최초 정착인

안양공고주변에 위치한 마을인 양지동은 안양3동 1 2 3 4 6 25 26 27동에 속해 있다 이 마을은 조선조 제2대 정종의 7남인 수도군(守道君)의 증손 이공(지제부수)이 처음으로 살기 살기 시작한 이래 원주 원씨등이 대대로 살아왔다고 한다  
[안양집성촌자료집 p 85]

### 재남식

재남식은 전북 옥구출신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자로 있으면서 1925년 단편 「세길로」 「조선문단」지의 주전을 받고 문단에 등단했다 「태평전하」 「허생전」 「아름다운 새벽」 등의 장편소설을 발표했는데 1938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탁류」는 그의 대표작으로 현실을 비판하여 풍류작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남식이 양지동에 살기 시작한 것은 1940년으로 그는 이해 6월 5일부터 8일까지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매일신보에 안양북거기 「安養卜居」를 발표했다 그 후 이듬해(1941년) 3월 양지동을 떠나 서울 광장리로 이사했다  
[안양집성촌자료집 p 86]

## 인적자원 현재인적자원

### 1959년 김영례, 금성방직에서 골프 치는 사진

1959년 금성방직 여직원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잔디 위가 아니라 시멘트로 만든 피팅장에 중간 중간 장애물을 설치한 점이 특이하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41]

### 1960년 박영호, 금성방직 정문 사진

1960년대 금성방직 정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57]

### 1960년대 금성방직 여성들 모습

전성기 금성방직 여직공들의 수는 3 000명에 이르러 금성여대 라고 불리기도 했다 시골에서 올라와 동생들의 학비를 벌어야 했던 당시 우리 누나들의 모습이였다  
[안양시사7권 p 146]

### 1962년 리기봉, 금성방직 모형비행기 사진

1962년 금성방직 내 모형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다 금성방직 정문 사진의 깔끔한 포장도로와 달리 모형비행기가 있는 곳은 비포장으로 되어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57]

### 금성방직 사원 봄, 가을 유니폼 1961

1961년 금성방직 여사원의 봄 가을 유니폼이다  
[안양시사8권 p 210]

### 1974년 박미례, 안양3동 기업은행 건너편 전경 사진

1974년 안양3동 기업은행 건너편의 모습이다 비포장길 끝편지 날리는 거리에서 세발자전거와 목마를 타는 아이를 볼 수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99]

### 1954년 한국 축구계 대부 김용식 선생

한국전쟁 후 1954년 무렵 한국 축구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김용식 선생이 금성방직 김성곤 회장과 의 인연으로 금성방직 간부로 안양에 오게 되면서 안양이 축구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당시만 해도 전쟁 직후라서 기업에서 축구단은 육성할 여건이 되지 않아 국가에서 군대를 중심으로 축구단을 운영했는데 김용식 선생이 맡은 육군병참축구단이 안양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많은 축구인들이 안양을 찾았고 안양에서 크고 작은 훈련과 시합이 어려다 이때부터 축구들 직업으로 선택하는 그야말로 축구의 전문화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안양시사5권 p 493]

### 김종필 감독

전 안양공고 축구부 감독  
[안양시사5권 p 502]

### 김진강 원로

전 안양중 안양공고 축구부 담당교사  
[안양시사5권 p 497]

### 안양공고 축구부와 김진강 감독

사진은 안양공고 축구부와 김진강 감독이 함께 찍은 기념 사진이다 김진강 감독의 지휘 아래 조운환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굵직한 선수들이 배출되었음은 물론이고 안양축구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축구 명가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안양시사5권 p 521]

### 1977년 정기장, 안양3동 병목안 절길 사진

1977년 수암전 옆으로 나 있는 절길의 모습이다 병목안 재석장을 향하던 절길이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104]

### 1956년 심재덕, 안양공고 가는 길 사진

1956년 당시 안양공고 가는 길이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30]

### 1972년 안양공고, 거리행진 사진

1972년 안양공고 학생들의 거리행진 사진이다 군대 사열을 보는 듯 하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94]

### 1972년 안양공고, 도로정비하는 사진

1972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마을 도로를 메우는 작업이 한창이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93]



**안양공고 kbs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우승 카퍼레이드 (1986)**

1986년 안양공고가 KBS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시내에서 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사진에는 군용 지프 차량이 카퍼레이드에 이용되었다  
[안양시사5권 p 417]

[안양시 지역유래집 p 머리말 21]

**안양공고 축구부 사진**

지금이야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있는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르지만 당시만 해도 맨땅의 운동장에서 경기를 했다 전반전이 끝나고 편하게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운동장 한 귀퉁이 맨땅에 앉아 감독의 지시를 받고 있다  
[안양시사7권 p 360]

**한준우 공장장**

1970년 1981년까지 안양중학교와 안양공고에서 축구부 담당 교사로 맡았던 김진강 원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만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었고 선수 수급을 위해 2년간은 서울에 있는 아동보호소 아이들은 데려다 선수로 키우기도 했다 금성방직 한준우 공장장의 도움으로 기업 및 단체와 개인이 매월 5000원씩 지속적인 후원은 해주었다  
[안양시사5권 p 500]

**안양공고 축구부 아시아학생체육대회 축구 우승 카퍼레이드(1982)**

1982년 제11회 아시아학생체육대회 우승은 하고 봉고트럭에 타서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안양시사5권 p 473]

**안양공고 축구부 역사**

1940년대 전조선축구대회 우승은 시작으로 안양공고 축구부의 화려했던 시절까지 안양의 축구에서 안양공고 축구부는 그 중심에 있었다  
[안양시사7권 p 50 53]

**안양공업고등학교 축구부**

1967년 3월 장단한 이래 지금까지 많은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은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이영표 선수가 안양공업고 축구부 출신이다  
[안양시사5권 p 473]

**전선축구대회 임원 이서구 원로**

안양축구의 공식적인 태동은 1940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인제시대 그해에 아산군축구회가 주최하고 「중선일보」의 후원으로 전국의 유명 축구팀은 조정한 전선(全鮮)축구대회가 열렸는데 안양팀이 우승을 했다 당시 축구대회에 참석했던 원로이다  
[안양시사5권 p 488]

**이영표 자료**

1977년 4월 23일 강원도 홍천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영표 선수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군포시 금정동으로 이사왔다 초등학교 4학년에 안양초등학교 축구부로 전학 와서 안양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 후 안양중학교 안양공고를 거쳐 우리나라 대표 축구선수가 되었다  
[안양시사7권 p 66-71]

**조윤환**

안양공고 출신으로 1980년대 국가대표팀의 부동의 수비수로 화려한 선수생활을 한 안양공고 출신의 축구감독이다  
[안양시사5권 p 522]

**「안양복거기」 재만식 1940년대**

1940년에 안양3동 양지동에 일시 산했던 소설가 재만식이 쓴 작품이다

# 안양4동

## 자연자원 경관자원

### 수태골

근명여상과 동덕아파트 사이에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4]

### 안양4동 전경 1968

이곳은 옛 장내동마을로 밤나무 뽕나무 등이 많았던 곳 밤나무 울다리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장내동 또는 담안이라 불렀다

## 자연자원 지역자원

### 2001아울렛

1997년 12월 16일 개설했고 시장면적은 25 426m 81개 점포가 있다

[안양시사1권 p 94]

### 1998년 3월 실직자를 위한 쉼자리 <IMF 사랑방> 개설 신문기사 사진 및 소개

1998년 3월 <IMF 사랑방>이 문을 열었다 안양지역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IMF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목적으로 문을 열었던 다른 쉼터와 확실히 구분됐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p 199]

### 2003년 1월 외국인 여성 보호시설 <WeHome> 개소 CI 및 소개

2003년 1월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쉼터 <WeHome>이 문을 열었다 <WeHome>은 'Women s Home'을 줄여서 만들 말로 국적과 피부색을 떠나 이 세계의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하나이며 한 가족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89년 5월 1일, 젊은이들의 피정 위한 <나그네집> 개관 사진 및 소개

1989년 회관은 예수회 한국지부의 이한택 신부로부터 젊은이들 특히 가난한 근로 청소년들이 적은 부담으로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피정할 수 있는 공간은 제안했다 근로자 회관은 그 제안을 수락했고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젊은이들이 피정과 세미나 연구회 등을 통해 정신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나그네집>을 개관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93년 7월 무료 급식소 나그네집 개소 사진 및 소개

80년대 후반부터 근로자회관 앞에 행려자들과 노인들이 모여 들었다故 서정림 고문의 퇴직금과 기타 후원금으로 무료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장만했다 그리고 중앙성당 레지오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꾸려 1993년 7월에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당시 <나그네집>이 책임을 맡았다 지금도 지역 주민들 중에는 <근로자 회관>하면 불

쌍한 노인들에게 공짜로 밥 주는 곳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나그네집>이 회관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73 사감모임

1969년 안양에 여성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인 근로자회관 이 국제가톨릭청계회(AFI)의 도움으로 세워진다 이후 근로여성 지도자 모임은 구성하여 1973년 1월 첫 모임을 가졌다 이후 안양과 인근 지역 기업체의 여자 기숙사 사감과 노동조합의 부녀부장이 참가했으며 나중에 사감모임으로 바꾸고 경기 지역에 있는 30여 개 기업체의 사감들이 이 모임의 회원이 되었다 [안양시사4권 p 332]

### 1976년 9월 13일 남자 기숙사 낙성식 사진 및 소개

1975년 오스트리아에서 편지가 왔어요 내용은 우리가 <근로자 회관>을 지은 당시에 계획했던 대로 남자 근로자들은 위한 기숙사 사업을 시작할 의향이 있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때 교구장 서리로 계시던 장덕호 신부님께 그 문제로 의논을 드렸더니 사제 피정을 다녀와서 결정을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피정 중에 깊이 생각하셨던 듯 피정이 끝나던 날 회관에 들러서 그 사업은 마땅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요 당신(AFI)들이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로서고 마울 따름인걸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새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추진력을 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남자 기숙사를 짓는 일에 들어갔고 1976년 9월 16일에 남자 기숙사 낙성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한성인 선생 인터뷰 중에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76년 9월, 남자 기숙사 완공

10개월의 공사 끝에 완공된 남자 기숙사의 낙성식은 노기남 대주교와 오호상 공화당 의장서리 안양시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지는 71년 신축한 강당 위에 2 3층을 얹은 남자 기숙사의 공사비는 7천여만원으로 40여 명의 기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로써 회관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의 모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남자 기숙사 낙성식은故 김수환 추기경님도 참석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99년 7월 여성복지 사업이 <마라의 샘>으로 새로 다 사진 및 소개

1999년 7월 하느님께서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어 사막을 해매던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름을 해결했다는 <마라의 샘> 가정 폭력과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이 설치되었다 복지관이 이 이름으로 안양시에 설치 신고를 한 후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70년대 만춘한의원 사진

1970년대 만춘당 한의원 사진이다 지금은 빌딩숲에 쌓여 있지만 당시만 해도 단층짜리 초라한 건물이었다

[안양시사7권 p 229]

### 1930년대 안양 밤나무 밤줍기 대회, 동아일보 자매지 <신가정> 잡지사 매년 행사

안양의 밤나무는 1930년대 동아일보 자매지인 「신가정」 잡지사에서 매년 가을 장내동성당 부지에서 밤줍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더욱 유명해 졌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79]

**1999년 2월, <방과 후 열린 교실> 실시 사진 및 소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열린 교실>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1999년 2월 안양시 여성회의 지원을 받아 복지관이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실직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 하려는 안양시의 계획과 방과 후에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지역 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도우려는 복지관의 바람이 맞닿아 시작되었다  
[7년간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첩]

**벽산로(보조간선)**  
만안로에서 냉천로로 이어진다 벽산상가(현재는 2001 아울렛) 및 벽산아파트 이름을 반영하였다  
[안양시사2권 p 387]

**안양4동 일대 벽산아파트 주변 1988**  
1960년대 모습과는 달리 1988년 안양4동 벽산사거리의 모습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안양시사8권 p 34]

**순교성인 불리의 루도비코 신부 순교기념비**  
순교성인 불리의 루도비코 신부의 초상화이다 아래 사진은 병인박해 때 루도비코 신부의 은신처였던 자연동굴을 1989년 신자들이 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삼덕집**  
안양 중앙시장을 꼭 따라 올라가면 40여년 전통이 살아 있는 순대국집이 모여 있는 곳이 나온다 유난히 북적거리는 집이 있으니 그 집 이름은 보기에든 웬지 수더분한 삼덕집이다 1대인 정명순 씨는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어머니의 노하우를 전수 받은 딸 2대 양순옥 씨가 열심히 손님을 맞고 있다  
[안양시사7권 p 40-41]

**옛 삼영운수 차고지(1960년대) 안양결혼회관 부근**  
이곳은 안양결혼회관 부근으로 당시 안양에서 서울시정까지 다니던 삼영여객 차고지였으며 정비소까지 갖춰진 제법 큰 버스중점이었다 삼영운수는 1970년대에 의왕시 고전동으로 차고지를 이전하였으며 1번 시내버스로 업종전환을 하였다 버스를 타려고 차고지에 와있는 할아버지의 등에 업힌 어린이의 흰 런닝셔츠와 흰 고무신이 앙증맞다  
[안양시사8권 p 19]

**새안양 신용협동조합 건물 1983년 준공**  
새안양 신용협동조합 건물이 1983년 9월 10일에 준공되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새안양 신용협동조합 업무수행 광경**  
새안양 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 업무수행 광경과 초대 이사장인 한성찬(요한)의 사진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신자피정, 성 라자로 피정의 집에서, 1984**

신자들의 성 라자로 피정의 집 모습이다 1984년 10월에는 여성 피정 다음달인 11월에는 남성 피정을 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성체노인학교 간판 현판식 1989**  
1989년 3월 7일 성체노인학교 간판 현판식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고령화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지만 당시만 해도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은 동네 경로당이 전부이던 시절에 성체노인학교를 설치했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수태골 무허가촌 사진 1970**  
옛 공동묘지가 있었던 곳으로 무허가촌이었으나 현재는 동덕아파트와 화양아파트가 들어섰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4]

**신일항아리 가게**  
중앙시장 건너편 장내동 성당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신일항아리 가게는 안양에서 유일하게 항아리를 파는 가게이다 주인인 신영철 씨는 1970년부터 부인과 함께 항아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를 이를 둘째 아들이 일손을 돕고 있다  
[안양시사7권 p 122]

**2001년 7월 1일, <안양 전 진 상자활후견기관> 사업 시작 사진 및 소개**  
<안양 전 진 상자활후견기관>이 2001년 7월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복지관이 운영하는 이 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곳으로 안양지역의 조건부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들과 함께 협동하는 노동을 통해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7년간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첩]

**결혼식 1980, 안양결혼회관**  
삼영여객 차고지가 결혼식장으로 변한 1980년대 안양결혼회관 결혼식 사진이다  
[안양시사8권 p 341]

**벽산사거리 안양극장 1970년대**  
1970년대 안양4동 벽산사거리 안양극장의 모습이다  
[안양시사8권 p 81]

**안양변전소터**  
안양에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는 1929년 11월 30일이고 이때 안양변전서도구 삼덕제지와 안양역 앞 우제국 사이에 설치되었다 사진은 안양변전소터 삼덕제지 옆의 모습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3]

**1960년대 안양우제국사거리 중앙로**  
1960년대 안양우제국사거리에서 바라본 중앙로의 모습이다 비포장길에 자보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10]

**1970년대 구획정리사업으로 확장된 우제국사거리**  
1960년대와는 다르게 1970년대의 중앙로는 포장이 되고 자동차들의 이용이 많아졌다 하지만 자동차 옆으로 경운기가 지나가고 있다 1970년대에는 구획정리라 하여 도로와 인도의 경계

를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이다  
[안양시사8권 p 10]

### 1980년대 도로확장으로 포장한 우제국사거리

1980년대 중앙로는 도로포장이 완료됐고 차들의 통행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안양시사8권 p 11]

### 안양유지원 1972년 졸업식

안양지역 최초의 유지원은 안양유지원이다 1956년 5월 4일 안양중앙성당(구 장내동 성당)의 최순금(말지나)에 의해 시작되었다 1972년의 졸업식에는 유니폼을 갖춰 입고 사각모를 썼다  
[안양시사8권 p 101]

### 안양유지원 1960년대 제4회 졸업식

안양유지원의 1960년대 졸업식 사진이다 유니폼이 없던 시절 졸업식에 나름대로 꼬까옷에 색동저고리가 많은 걸 보면 당시 어린이들에게 한복은 훌륭한 예절복인 듯하다  
[안양시사8권 p 101]

### 안양유지원 1961년 3월 폐원 후 1963년 3월 재개원

1956년 5월 4일 안양본당은 안양 최초로 유지원을 개원했다 1957년 2월 31명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안양유지원은 1961년 3월 유지원 사정으로 폐원하여 1963년 3월 재개원할 때까지 2년간 원아 모집을 중단한 공백기도 있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85]

### 안양유지원 졸업기념(1960)

단기 4293년(1960년) 3월 30일에 안양유지원 제4회 졸업식이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고운 한복을 입고 남자 아이들은 예쁜 아동복을 입고 있었다 복장 중에서 흰색 와이셔츠에 나비넥타이를 맨 아이도 있었다  
[안양시사5권 p 앞 사진첩]

### 안양유지원 초창기 원아들 모습

안양유지원 초창기 원아들의 모습이다 장내동성당 점탑이 보이고 무성한 밤나무들로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양시사8권 p 100]

### 안양유지원 현황

1956년 5월 4일 안양4동 627 75 장내동성당(현 중앙성당)에 안양유지원이 설립되었다  
[안양시사5권 p 36 39]

### 안양유지원은 안양경찰서의 철거된 담장 벽돌을 옮겨 신축

안양유지원은 투자가 필요했지만 간접전교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사업이었다 설립 당시 본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후원하기 시작하여 안양경찰서의 철거된 담장 벽돌을 옮겨다 근로자 회관 후권에 유지원 원사를 신축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85]

### 안양최초의 유지원 설립, 1956년 5월 4일

1954년 5월 4일 안양 본당은 안양 최초의 유지원을 개원하여 안양지역 유아교육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 당시의 안양 본당은 유지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만한 재정이 없고 또한 준비

도 전무한 상태였으나 몇몇 열성적인 신자들이 있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84]

### 1998년 10월 19일 <여성 위기의 전화 1366> 상담 시 작사진 및 소개

복지관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여성 위기의 전화 1366>을 위탁받은 것은 1998년 10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위탁으로 시작했던 이 상담 전화는 처음에 안양 지역권만을 담당했으나 2000년 6월 경기도가 4개 권역으로 축소되면서 안양과 군포 의왕 등지로까지 그 관할 구역이 넓어졌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첩]

### 1969년 10월 1일 첫 기숙생 입사 사진 3장 및 소개

1969년 10월 1일 금성방직에서 일하던 5명의 JOC회원이 입사하면서 본격적인 기숙사업이 시작되었다 저렴한 기숙사비와 좋은 시설 그리고 회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기숙생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근로자 회관>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했다 당시 안양의 여성 근로자들 사이에는 소속된 회사와 직종에 따라 서로 경원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로자 회관>은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에도 적지 않은 몫을 했다 기숙사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로 무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준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첩]

### 안양 근로자회관 여자기숙사 1969년 9월 10일

안양 근로자회관 여자기숙사가 1969년 9월 10일 준공되었다 비슷한 시기 안양시내의 모습에는 대부분의 건물이 1층이거나 2층이었는데 3층짜리 건물인 여자기숙사가 준공되었다 오갈 때 없는 여성 근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 1980년 9월 영세근로자 임대주택 낙성 사진 및 소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로자회관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방편으로 회관 옆 교구정 부지에 영세민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짓고 세를 놓아 사업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가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 예정보다 시공이 늦어졌을 뿐 이 계획은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상가에 입주할 상인들의 협조로 무리없이 진행되어 1980년 9월 10개의 상가와 10동의 영세민 임대주택인 장내촌 아파트가 완성되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첩]

### 1999년 11월, <옹달샘 학교> 실시 사진 및 소개

<옹달샘 학교>가 문을 열었다 1999년 11월에 문을 연 <옹달샘 학교>는 문제 청소년들과 중고등학교 중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복지관에 위탁한 사업이었다 교육 목표는 문제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들이 속한 환경에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첩]

### 1993년 1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실시 사진 및 소개

"1992년이었어요 어느 날 필리핀 사람 두 사람이 회관을 찾아왔어요 그때 내가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만났는데 렌리



와 소나였어요 비쩍 마른 얼굴에 뺨한 눈빛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첫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겠더군요 한국에서 일을 끝내고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자리를 찾아준 서정립 딸가리다 관장님께 인사든 드리러 왔다더군요 짧았지만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은 내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때부터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은 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돕는 일이 교회의 몫이라면 신자로서 나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93년 1월에 서울 교구의 리디아 자매님께서 전화하셔서요 안양에 있는 프레스사출 공장에서 6개월짜 임금만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근로자 회관>에서 해결해 주려고요 마다한 이유가 없었지요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상담을 하고 공장을 찾아가 업주를 만나기도 하면서 그 일은 해결했는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 열심히 하다보니까 지금의 <이주 노동자 상담소>가 만들어졌어요 (이금연 관장 인터뷰 중에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은성고등공민학교와 중앙시장 순복음교회**  
 은성고등공민학교는 최초로 설립한 것은 중앙시장 안에 있는 순복음교회 안이었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인가가 나지 않아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안양대학교 자리에 대지든 확보하고 건물을 지었다

[안양시사7권 p 180]

**1998년 10월, 제1기 인권영화제 사진 및 소개**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회복 즉 인권의 회복은 설립때부터 보지관이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목표이자 과제였다 <안양 전 진 상 복지관>으로 거듭난 이후 복지관은 근로 청소년과 노동자에 초점은 맞추었던 인권 문제의 폭을 여성과 장기수에게까지 넓히는 한편 지역민들의 인권 의식은 향상시키기 위해 연중 기획 프로그램으로 <작은 인권 영화제>와 <인권 학교>를 실시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장내동**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장내리라 칭했던 마을로 전주 강씨 원주 원씨 등이 세거하면서 취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곳은 밤나무 뽕나무 등이 많았던 곳인데 밤나무 울타리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담안(甘安)이라고 부르고 이를 한자화 하면서 장내동(蔞內洞) 또는 담안(甘安)이라 부른다고 한다 1961년 11월 6일 안양1동 소재 시대동에 있던 안양시장이 이전되면서 상권이 형성됨과 동시에 중앙로의 개통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1980년대까지만해도 중앙동과 함께 안양 최대의 변화가 있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96]

**장터문화제**  
 장터문화제는 매년 10-12월 중에 열리는 전통시장축제로 안양중앙시장 일대에서 벌어진다

[안양시사7권 p 322]

**1998년 6월 1일, <전 진 상 가정폭력 상담소> 개소 사진 및 소개**  
 일어서라 폭력 있는 가정은 향하여 '이란 캐지프레이즈를 걸고 <전 진 상 가정폭력 상담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연 것은 1998년 6월이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전 진 상 가정폭력 상담

소>는 피해여성들을 위한 쉼자리 사업과 함께 가정폭력 예방은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오다가 2000년 6월 30일 문을 닫았다 피해여성들을 위해 여성부와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여성 위기의 전화 1366>과 쉼자리 사업인 <마라의 샘>의 운영이 복지관에 위탁되면서 더 이상 상담소든 운영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1968년 장내동성당 앞 근로자회관 부지 사진 및 소개**  
 <근로자 회관>의 부지로 정해진 곳은 장내동성당(현재 중앙성당) 앞에 있는 1600평의 땅이었다 초대 관장인 서정립 딸가리다는 것 서울 교구에서 분할되어 넉넉하지 못한 교구 재정은 감안해서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 등의 후원은 받아 마련한 총공사비 12만 3천 달러 중에서 일부를 대지구입비로 교구에 지불했다 그리고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AFI의 회칙에 따라 그 땅과 건물을 전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중앙성당의 일부 신자들은 <근로자 회관>이 성당의 땅을 빼앗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본당에 건립하게 협조하지 않는다하여 분란은 가졌고 그로 인해 생긴 미묘한 갈등과 오해는 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1969 근로자회관 낙성식**  
 1969년 근로자회관 낙성식에는 전주교 관계자분들과 근로정소년이 낙성식 테이프 컷팅에 참여했다 근로정소년의 참여는 근로자회관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주교 관계자 가운데故 김수환 추기경님도 참석하셨다

[안양시사4권 p 332]

**1969년 9월 10일 근로자회관사진 및 소개**  
 근로자회관은 착공한지 1년 만에 지하 1층에 지상3층의 현대식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향을 떠난 근로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숙식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은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낙성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故 서정립 초대 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은 이렇게 밝혔다 중요한 것은 기관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은 앞으로 이 기관의 주인이자 이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 근로 청소년들에게 가져주시시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1969년 건축 현장에서 서정림과 한성인 사진 및 소개**  
 1968년 5월 있었습니다 수원교구 운주교묘으로부터 <근로자 회관>의 설립은 부탁받은 한성인 선생님과 나는 처음으로 안양에 와서 결정된 토지를 보았습니다 성당 앞에 아무 것도 없는 덩그러린 밭 앞에서 우리는 조금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 '앞으로 여기에 큰 건물을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건물에서 함께 살아야하는 어린 노동자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머릿속에 이미 완성된 회관과 기숙사에 들어올 아가씨들을 생각하면서 근심스럽게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가씨 한명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언제쯤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한성인님과 나루 저다보는 그 아가씨의 희망에 가득 찬 모습에서 우리는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안양에서는 정만고 이런 기관은 필요로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건물이 완공되기 전부터 여러 근로자들과 우정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그 어린 근로자든은

위에 봉사를 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  
다 (서정림 만가리다 선생의 글에서 발췌)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70년 1월, 교육프로그램 실시 사진 3장 및 소개

개관과 함께 여성 근로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다 요리와 꽃꽂이 예절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함께 노동법 강좌와 영어회화 등 근로 여성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었다 적게는 기숙생 크게는 안양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프로그램은 근명여성 교사와 각급 사회단체장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되었는데 개발할 때의 의욕과는 달리 큰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회관은 당시 보건사회부에 올리는 보고 자료(71년도)에서 이렇게 평가 했다

운영자본의 부족으로 해서 좋은 강사를 영입할 수 없으며 수년동안 학업을 중단한 근로자들이다보니 지식습득의 열의가 육체적 피곤을 이기지 못해 기대 보다 적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70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자습실(독서실) 운영 사진 및 소개

회관이 지역민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한 것은 1970년부터였다 낮에는 프로그램이 없어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겸 지역민들의 복지를 위해 무료로 제공한 자습실은 지역내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시립도서관조차 없어 마땅히 공부할 곳이 없었던 젊은이들 대개는 주경야독하는 근로 청소년들과 공무원 시험 등의 취업 준비를 하는 젊은이들이 타 지역에서부터 몰려들었던 것이다

70년대 초반 회관의 자습실을 이용했던 신광순(시인 자영업)은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다 회관의 자습실요? 그곳은 나의 모교요 내 꿈의 산실입니다 그곳에서 독학으로 중고등학교 검정고사를 패스했고 거기서 날마다 나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으니까요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73년 3월 안양지역 노동절행사 실시 사진 및 소개

1973년 3월 10일 오후 안양지역에서는 보기드문 행사가 <근로자 회관>에서 있었다 <근로자 회관>의 노동절 연구회가 노동절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근로자 노래 자랑 이 노래 자랑에는 인근에 있는 17개 회사에서 70여 명의 근로자가 참가 회사 소개와 함께 저마다 가꾸어온 노래 실력을 자랑했다 가수 김상국씨가 진행하는 이 행사를 보기 위해 4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관으로 몰려왔었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75년 근로자 회관내 도서실 개관 사진 및 소개

1970년대 중반이 되면서 <근로자 회관>은 안양지역 노동자의 집에서 지역 사회 속의 집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관 내에 도서실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였다 도서실을 매개로 <근로자 회관>을 드나들었던 지역민들이 훗날 회관의 프로그램에 봉사자로 참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지역 속에 <근로자 회관>을 알리고 지역민들이 가진 나눔의 힘을 끌어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77년 6월 77수해 안양 수재민들에게 회관 개방사

### 진 및 소개

<근로자 회관>은 당장에 갈 곳이 없는 수재민들을 위해 1층 강당을 개방했고 수해를 당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수재민들을 골라 무상으로 주택복구비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때 수재민들을 위해 만감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집은 지으려고 계획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정착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도움을 줄만한 수재민이 없었다 이에 회관은 새로 지은 임대아파트 일명 장내존아파트를 지역 내 영세민들의 자활을 돕고자 하는 뜻에서 싼값으로 임대해주시기로 결정했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78년 3월, 노동절 기념 사진경시대회 및 전시회 개최 사진 및 소개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기숙사업이 자리튼 잡아가면서 회관은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근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도움과 배움의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게된다 이 고민은 포우크댄스와 음악감상회 등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양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80년대 근로자회관의 두 얼굴 사진 및 소개

1980년대 <근로자 회관>이 가지고 있었던 얼굴은 두 개였다 하나는 기숙생들이 살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기업이나 기업주 경찰들과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70년대 전두환 정권과 5.18광주민중화운동으로 인해 인권이 짓밟히고 핍박받는 사람들 특히 하고 노동자나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얼굴이었는데 이 얼굴 때문에 정부 기관의 눈총을 많이 받았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80년대 노동문화제

1970년대 근로자회관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주요 공간이 되었다 1987년을 전후해 안양에서 미술학교 민요연구회 독서회 등 문화운동이 근로자회관을 발판으로 지역사회로 퍼져나갔다

[안양시사4권 p 앞 사진집]

### 1986년 3월, 근로자를 위한 체육관 개관 사진 및 소개

<근로자 회관> 뒤뜰에 아담한 체육관이 세워졌다 명칭은 <청소년의 해 기념 체육관> UN이 정한 청소년의 해의 뜻에 따라 건립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87년 3월, 일하는 사람들의 놀이 한마당 사진 및 소개

노동의 힘겨움을 신명으로 씻어낸다! 일하는 사람들의 놀이마당은 1987년 노동절을 맞아 회관에서 주최한 행사였다 안양지역 노동자와 지역 주민 3백여 명이 참가해서 신명을 돋우었던 이 행사는 탈춤과 사물놀이 민요와 놀이마당 등으로 꾸며졌는데 이 공연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개 회관에서 운영했던 탈춤반과 풍물 교실 등에서 숨겨진 수많은 수재생들이었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1989년 후원자의 날 행사 사진 및 소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의 원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여전히 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회관은 운영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와 만물상 베풀기 시장 등으로 자금

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국내 후원자와 후원 단체를 모색하였다. 회관은 전 직원과 기숙생들로 이루어진 근우회 모임과 교우 상인들의 모임인 하나회를 후원 단체로 육성할 필요성을 느꼈고 후원자의 날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유대를 가졌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근우회와 하나회는 80년대 후반 회관의 든든한 후원단체로 활동하였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첩]

**1995년 4월, 전진상 어린이집 개원식 사진 및 소개**

1995년 4월 95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교사 8명과 직원 3명은 뽑고 어린이집을 개원을 했다. 재정의 일부는 안양시에서 보조를 받지만 대부분의 재정은 근로자 회관의 지원은 받아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첩]

**1997년 3월, 제3대 관장 이금연 세실리아 취임 사진 및 소개**

이금연 세실리아 관장은 1961년 7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농부였지만 땅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직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자란 그녀는 80년경 기숙생으로 <근로자 회관>과 인연을 맺었다. 4년에 걸쳐 제법한 혹독한 공장 생활 속에서 그녀는 산업역군이라는 미명하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전실히 체험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노동자든 비록 사회의 구조악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첩]

**1998년 3월, <전진상 사회복지관> 헌관식 사진 및 소개**

시대가 변하고 안양이 달라지고 있었다. 대규모 공장들이 안양을 떠나고 남아있는 청소년들은 땀과 기름때 냄새 배인 공장 대신 새롭게 형성되는 위탁 유흥업소로 일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내국인들은 3D 업종이라 하여 기피하는 소규모 공장의 일자리를 메우는 외국인 노동자였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회관은 80년대 후반부터 시대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걸맞는 새로운 사업과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성을 느꼈고 1997년 4월 기숙사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심한 갈등과 진통을 겪고 1998년 4월 <전진상 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첩]

**교육관, 기공식 광경 1980**

1980년 10월 5일 교육관 기공식 광경이다. 아래 사진은 당시 사목회 부회장 윤세호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모습이고 아래 사진은 오늘날 성모동상에서 바라본 교육관 전경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근로자회관 1970년대 강좌 모습들**

안양근로자회관에서는 근로자든 상대로 노조의 필요성과 건전한 노동운동에 대한 강의든 하기도 했고 여성근로자를 위한 건전한 결혼생활에 대한 강좌도 개최했다. 또한 근로자회관 안에 도서실은 개관하여 근로자든이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양시사8권 p 216]

**전진상복지관**

전진상은 국제가톨릭형제회(AFI)의 영성인 전(순은 온건한 자아봉헌) 진(眞은 진정한 사랑) 상(常은 끊임없는 기쁨의 정신)의 정신에 따라 소외되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의료사회사업은 행한다. 1969년 독일과 오스트리아 가톨릭교회 도움으로 국제가톨릭형제회에 의하여 근로자회관이 설립되었다

[안양시사4권 p 185]

**전진상복지관 노조교육(1972)**

1972년 당시 근로자회관에서는 기숙생인 근로청소년들에게 노동법과 노조교육을 실시하였다

[안양시사4권 p 앞 사진첩]

**1998년 3월, 어머니 학교가 좀머 스쿨로 명칭 변경 사진 및 소개**

<근로자 회관>은 근우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문해 교육을 1970년대부터 한글과 영어를 모르는 기숙생들은 가르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시대가 변하고 문해 교육이 필요한 주부들은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등을 가르치는 어머니 학교가 1993년 문은 연어 자원봉사자와 회관의 사감들을 주요 강사로 해서 5년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1998년 회관의 설립자인 서정림(Wilgefort Sommer) 관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Sommer School)로 이름은 바꾸어 진행했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첩]

**1954년 건립된 최초의 목조성당**

1954년 건립된 최초의 목조성당의 모습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1956년 건립 후의 장내동성당**

1959년 건립 후의 모습에서 장내동성당은 24평 목조 성당이였다

[안양시사5권 p 569]

**1959년 건립 직후의 현 성당 전경**

1959년 건립 직후의 장내동성당 전경이다. 당시에는 바로 옆에는 최초의 목조성당도 함께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1963년 전주교 수원교구가 서울교구에서 분리 설정됨**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0-1965.12)의 영향으로 가톨릭 교회에 쇄신과 개방 토착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60년대에 안양 본당은 사제관 신축 전교수녀의 부임 등으로 기반은 확충하고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1960년대 또 하나 큰 변화는 1963년 수원교구가 서울대교구에서 분리 설정됨에 따라 서울대교구에 속해 있던 안양본당은 수원교구에 속하게 된 일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91]

**1965년 건축된 성당**

1965년에 건축된 하우현 성당의 모습과 김영근 베드교 신부의 사진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본당 최초의 건진성사 기념 목조성당 시절, 1959**

1956년 11월 11일 본당 최초의 건진성사 기념의 사진이다. 당

시에는 목조성당 시절이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제1편 사진집]

**본당의 날 구역별 장기대회 본부석, 1988**  
본당의 날 구역별 장기대회 본부석 사진이다 안양유지원과 교  
육관 현판이 보인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제1편 사진집]

**본당의 날 행사, 수리산 성지순례 출발 준비 1985**  
1985년 6월 수리산 성지순례 및 배구대회 사진이다 장내동  
성당의 뿌리를 찾자 라는 현수막이 보인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제1편 사진집]

**본당의 날 행사, 체육대회 줄다리기 1985**  
1985년 성지순례와 함께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줄다리기 장  
년 넘어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잔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제1편 사진집]

**사제관 모습**  
1963년 11월 현 주일학교인 최초의 사제관이 준공되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앞 사진집]

**성당 낙성식, 본당 후보 성모성심 명명장(라틴어)**  
성당 낙성식 본당주보에 성모성심 명명장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이 소개되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제1편 사진집]

**성당 담장 설치 이전과 설치 후 모습**  
성당 담장 설치 이전과 설치 후 모습이다 설치 이전에는 확 트  
인 개방된 공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제1편 사진집]

**성당 전경(가로 전경)**  
전주교 장내동 성당의 가로 전경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제1편 사진집]

**안양교도소 재소자 영세기념 1971**  
1971년 4월 15일에 안양교도소 재소자 영세기념 사진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제1편 사진집]

**안양성당에서 거행된 최초의 사제서품식 기념 1969**  
안양성당에서 거행된 최초의 사제서품식 1969년 12월에 있  
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제1편 사진집]

**장내동성당 1956**  
장내동성당은 중앙성당의 옛 이름으로 1954년 안양에 세워진  
최초의 성당이다 두 번째 사진은 전주교 교리 교육은 마친 학  
생들이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이다  
[안양시사8권 p.190]

**장내동성당 건진기념 1967**  
세례를 받은 뒤에 건진교리 공부를 시키고 잠고(시험)를 한 다  
음에 건진 자격을 준다 건진성사를 받는 나이는 시대에 따라  
자이가 많았는데 사진에서는 조동학교 저학년쯤으로 보인다  
여학생들은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다

[안양시사8권 p.192]

**장내동성당 부활절 적 영성제 1961**  
세례를 받고 적 영성제를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마치 결혼  
식을 하는 신부처럼 자러입었다  
[안양시사8권 p.191]

**장내동성당 체육대회 1970**  
성당에서는 교우들 간의 친목을 위해 1년에 한 두 차례 체육대  
회가 열렸는데 청년 학생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  
[안양시사8권 p.193]

**장내동성당 최초의 레지오 마리아 1961**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님의 군사란 뜻으로 신부가 아닌 신자로  
구성된 수도회의 일종이다 가운데 화환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장내동성당의 신자 중에서 제일 먼저 레지오 마리아에 지명된  
것을 기념하는 사진이다  
[안양시사8권 p.191]

**중앙성당**  
1954년 9월 7일 24평의 목조 성당으로 설립되었다 1954년 12  
월 안양본당으로 장설되었고 1956년 5월 4일 안양유지원을 개  
원했다  
1900년에 하우현본당의 관할인 수리산공소가 중앙성당의 전  
신인 안양본당(장내동성당)으로 승격된 것이다  
[안양시사5권 p.572]

**중앙성당 1937년 9월 5일 안양 중심지 6 657평 평당  
2원씩 매입**  
서울교구는 1937년 9월 5일 경향잡지사 총무 김한수(라우렌  
시오)를 안양에 파견하여 수원 소재 주식회사 제일사(第一社,  
대표 李九堧) 사유이던 안양 중심지의 토지 6 657평을 평당 2  
원씩에 매입하고 동년 9월 29일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다 지면  
은 678 13부터 681까지였고 지목은 논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이 땅에는 밤나무 100여 그루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매입  
한 이 땅을 보통 안양 밤나무 밭 이라고 불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78]

**중앙성당 1960년대 1962년 초대 구전우 신부 재임시  
착공 사제관 1963년 11월 준공**  
1962년 초대 구전우(요셉) 신부 재임시 착공된 신축 사제관이  
1963년 11월 준공되었다 지중과 1층이 각각 50평으로 연건  
평이 150평인 이 첫 번째 사제관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  
색없는 훌륭한 현대식 사제관 건물이었다 이 사제관은 신부  
숙소 외에 주일학교 교실과 각 단계 회의실 등 다목적으로 사  
용되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99]

**중앙성당 1960년대 1963년 2대 정원진 신부 활동**  
정원진 신부는 1963년 5월 23일 수리산 최경환 성지 묘지 앞에  
순교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97]

**중앙성당 1960년대 1963년 안양 본당의 교적상 총신  
자수 약 2천명**  
1963년 말 현재 안양 본당의 교적상 총신자수는 공소를 포함  
하여 약 2천명이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99]

**중앙성당 1960년대 1966년 안양교도소 미사**

1966년부터 군교(구군교) 소재 안양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01]

**중앙성당 1960년대 가톨릭 노동정년회(JOC) 활동**

관찰 판단 실전을 활동구범으로 삼는 가톨릭 노동정년회(JOC)는 젊은 노동자들에게 크리스찬의 이상은 심어주는 액선단체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93]

**중앙성당 1960년대 가톨릭 여자정년회(JOCF) 활동**

정년회 회원 중 가톨릭 여자정년회(JOCF)는 가톨릭 노동정년회(JOC) 단체에서 1958년 11월 서울 명동 성당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9명의 여자회원들이 투사선서한 직후 JOCF가 발족하여 금성방직 근로자 손홍순(막달레나)과 고려고무석면 근로자 원홍자(수산나)가 지도투사로 활동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93]

**중앙성당 1960년대 남녀 헌금 따로 집계 자료**

1962년 7월 29일 남자 181원 여자 160원 합계 341원 1962년 8월 15일(성모몽소승전 대축일) 남자 460원 여자 510원 합계 970원 이처럼 헌금액수는 남녀 신자별로 집계된 것은 미사예절 때 신자좌석이 남녀 별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95]

**중앙성당 1960년대 대철클럽 활동**

대철클럽은 1839년 기해박해 때의 소년 순교자인 유대철(베드로)의 이름을 딴 중 고등학생 단체인 주일마다 조를 편성하여 금정리 공소와 일동리(관양동) 공소에 가서 공소 어린이들의 첫영성제 교리를 도와주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94]

**중앙성당 1960년대 보리쌀 식당 1964년 12월 NCWC 밀가루 원조 중단 중단**

JOC 안양 본당 섹션은 1964년 4월 15일 보리쌀 식당을 개관하였다 국수 재료인 밀가루는 NCWC(미국 가톨릭 구제회)에서 원조를 받았다 1964년 12월 NCWC의 밀가루 원조 중단으로 8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99]

**중앙성당 1960년대 보리쌀 식당 JOC 회원 7명 말아 일함**

안양 보리쌀 식당운영은 JOC 회원 7명이 맡았으며 금성방직 태평방직 여성 근로자들도 와서 봉사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99]

**중앙성당 1960년대 보리쌀 식당 개관**

1964년 3월 15일 성당 앞 길모퉁이 공지에 50여 평의 건물을 착공 1개월 만에 완공하여 4월 15일 보리쌀 식당은 개관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99]

**중앙성당 1960년대 성당 담장 및 장계를 제작 설치**

한국전쟁 후 혼란과 행정의 공백을 틈타서 드넓은 안양 성당

대지에는 무허가 판자집들이 우주죽순처럼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성당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집을 짓고는 권리금도 받고 팔아넘기는 자들도 있었다 1969년 9월 기금을 모아 성당 주위에 담장은 설치하여 성당 대지를 보호하고 성당 안에 신자용 장계를 90개본 제작 설치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04]

**중앙성당 1960년대 성당 앞 근로자회관 건립 자료**

1965년 근로자회관 건립 사업은 국제가톨릭경제회(AFI)가 맡아 근로자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1969년 9월 10일 안양 성당 앞에 위치한 1천평의 대지에 오지리 가톨릭부인회와 독일 미제레오르(Missercor) 등의 원조금 12만 3천 달러(한화 약 3천 3백 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상 3층(연건평 430평)의 현대식 여성 근로자 기숙사를 완공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05 106]

**중앙성당 1960년대 세시리아 성가단 활동**

세시리아 성가단은 안양 본당 최초의 남녀혼성 성가대로서 미사전례의 활성화에 한 몫을 담당하였다 1962년 5월 10일 여자단원들로만 구성된 세시리아 성가단을 재편성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93 94]

**중앙성당 1960년대 손태섭 신부 수녀의 필요성 한국 순교복자수녀회에 수녀 파견 요청**

손태섭(마르코) 신부는 본당에 부임한 즉시 본당의 발전을 위해 수녀들의 필요성은 느끼고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수녀 파견해 준 것은 의뢰한 결과 1966년 3월 김복례(마르타) 수녀와 황베드로 수녀가 본당전교수녀로 부임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00]

**중앙성당 1960년대 수녀와 유지원 입학 관련성**

성당의 안양유지원은 수녀들이 유지원 원감으로 과견되어 왔다 수녀들은 우선 그 수도복 차림으로 인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안양의 젊은 어머니들에게 인기가 얻어 유지원 입학 원소도 날개 돌린 듯 배부되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00]

**중앙성당 1960년대 순교자의 모후 활동**

1961년 11월에 안양 본당 최초로 순교자의 모후 레지오가 설립되었다 레지오 단원들은 각 공소에도 과견되어 예비자본당으로 인도하여 교리반에 권입시키는 등 본당의 전교활동은 지원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92]

**중앙성당 1960년대 여자 교우 옷차림 제한**

여자교우들은 삼복 더위에도 맨살이 드러나는 짧은 지마나 스커트 짧은 팔소매 상의 차림으로는 감히 성당에 입당한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96]

**중앙성당 1960년대 제5대 장금구 신부 교무금 의무로 교무금 증가**

제5대 장금구 신부가 부임한 해(1968년)의 교무금 수입 총액은 28만원이었다 그후 장금구 신부가 교무금에 대한 의무강조한 결과 1969년 60만원 1970년에 9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03 104]

### 중앙성당 1960년대 학생회 활동

학생회는 1962년 11월 4일 창립되어 학년별로 셀(cell)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94]

### 중앙성당 1970년대 1970년 3월 29일 전자오르간 설치

1970년 3월 29일 박건순 신부는 성당에 전자 오르간을 강복하였다 전자 오르간은 최명준(베드로) 회장이 근로자회관 부지와 인연을 끊을 때 교구정에서 그에게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한 20만원을 고스란히 전자 오르간 구입비로 본당에 봉헌하여 그 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안양지역 최초의 전자 오르간이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06]

### 중앙성당 1970년대 1971년 교무금 및 주일헌금 수입 금액

1971년 11월말 현재 교무금수입은 709 177원 주일헌금 수입은 1 042 432원이었다 당시 1원단위의 현금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11]

### 중앙성당 1970년대 1978년 11월 새안양 신용협동조합 창립

1978년 10월 사목협의회 운영부장 한성찬(요한)과 안양주보 편집자 정광숙(엘리사벳)을 한국협동교육연구원에 보내 지도자 강습을 받게 한 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한국협동교육원 부원장 박성호와 신용협동조합 경기지구 평의회 임원들을 강사로 조빙하여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11월 19일 새안양 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34]

### 중앙성당 1970년대 77수해 구호 활동

본당 관할구역인 율목동 냉전동 비산동 북부동 석수동 유원지 양지동 시대동 구역의 피해가 특히 막심하여 신자7명이 사망하고 12동의 가옥이 파손되었다 성금을 모으고 당장 필요한 옷과 집구 쌀과 부식 생필품을 수집하여 전달하였다 그리고 근로자회관 강당에 300여 명을 수용하고 마당에 천막을 가설하고 음식을 제공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23]

### 중앙성당 1970년대 노동장년회(MOFC) 활동

노동장년회(MOFC)는 과거 JOC 안양 분당 섹션 조장기에 투사로 활동했던 회원들로 1965년에 발족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12]

### 중앙성당 1970년대 명학동 분당

1978년 10월 4일 안양 분당에서 분리하여 명학동 본당을 창설한 것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29]

### 중앙성당 1970년대 성서회 활동

성서회는 성서 성필 관대소를 운영하던 활동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12]

### 중앙성당 1970년대 학생회 활동

1972□1973년 학생회 고등부 셀(cell) 회원들이 연극 <주마>과

<삼종>을 공연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13]

### 중앙성당 1980년대 1983년 새안양 신용협동조합 회관 준공

새안양 신용협동조합은 1983년 9월 10일 장내동 성당 경내에 7천 5백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조합 회관 건물(연건평 149평)을 준공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47]

### 중앙성당 1980년대 1984년 4월 8일 신협회관 지하실에 만남의 집 개장

본당 율트레야주관으로 1984년 4월 8일 신협회관 지하실에 신자들이 자를 마실 수 있는 만남의 집을 개장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49]

### 중앙성당 1980년대 1987년 사무실 컴퓨터 설치

1987년 본당 사무실에 컴퓨터를 도입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57]

### 중앙성당 1980년대 교육관 건립과 1천명 돌파

교우들의 성금 봉헌으로 1980년 10월 5일 11시 미사 후에 교육관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1981년 말에 연건평 342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교육관이 완공되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40]

### 중앙성당 1980년대 교육관 건립에 개인 1회 100만원 대 헌금

1980년 교육관 건립을 위한 봉헌 금액 내역을 보면 최고 200만원을 봉헌한 사목위원들이 다수 있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41]

### 중앙성당 공사비 조성 NCWC(가톨릭 구제회) 구제물자 활용

NCWC(가톨릭구제회)에서 지급한 구제물자는 의류 밀가루 옥수수가루 식용유 따위였다 목조 성당에서 신축성당을 조성하기 위해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NCWC 구제물자 중에서 절반은 현금으로 구입하는 형식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였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87]

### 중앙성당 공사비 총 2천1백50만원 1959년 8월 20일 준공

우여곡절 끝에 안양 성당은 드디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연건평 170평(1층 150평 2층 10평)이고 종가 높이는 110척(약 33m)이었다 총 공사비는 2천 1백 50만원이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88]

### 중앙성당 독일에서 들여온 성당 종

안양 성당종은 독일에 주문하여 들여온 종이다 이 종은 구천우(요셉) 신부택 식모이던 문 마리아가 봉헌한 100만원으로 구입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89]

### 중앙성당 분배된 성당 토지 6천여평 반납

1937년부터 교회 소유가 된 6천여 평의 넓은 토지는 1949년 6월 21일 공포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이 법령 시행 이전부터

이 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27명의 연구자들에게 대부분 분배되었다 토지관리인 최명준(베드로)은 6전여 평 중 4전평을 분배받았다 분당 성전건축을 위해 무상 반환해준 것은 요청했고 최명준(베드로)의 4전평을 출산하여 반납하였다 이어 25명이 끼여 토지포기각서에 서명하고 2명만이 분응하였다 이는 1954년 3월 1일 <경향잡지>에 보도되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82 83]

**최초의 사제관, 현 주일학교 1963**

1963년 11월에 준공된 최초의 사제관 모습이다 현재는 주일학교로 이용되고 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최초의 전자오르간 강복식 1970**

1970년 3월 29일 최초의 전자오르간 강복식이 있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평신도 재교육 1971**

1971년 5월 7일 평신도 재교육 장면이다 좌측에 양병묵 신부 우측에서는 강사인 현석호(요한)씨가 강의든 하고 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하우현 성당 옛 사제관**

하우현 성당의 옛 사제관의 모습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1970년대 중앙시장**

1963□1964년에 중앙시장이 생기고 5일장이 상설시장화되었다 그런데 중앙시장이 좁다 보니 교통이 곤란 마비되어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혼잡했고 아울러 화재 위험도 높았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건물은 지어서 장사를 하는 고정된 상설시장이자 보니 자동차도 드나들어야 했고 때문에 넓은 길이 필요했다 1970년대 중앙시장의 사진에서는 자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양시사2권 p17]

**1985년 6월 한성인관장 국민훈장 목련상 수상 사진 및 소개**

1985년 6월 <근로자 회관>이 안양지역 근로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해온 공로로 인정을 받아 한성인관장이 국민훈장 목련상을 수상했다 이 수상식의 인터뷰에서 한성인관장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회관은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기숙생들 사이에 만연해있던 직장간의 경쟁의식을 없애고 원만한 관계론 유지하도록 하는 일이었다 이즈음 들어서 느끼는 어려움은 근로자들의 순수한 모임이나 화합조차도 색안경은 끼고보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랄까 현실이었습니다  
[기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첩]

**항아리 골목**

안양의 항아리 골목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까지 활기찬 띠었다  
[안양시사7권 p122]

**1970년대 근로자회관**

1970년대 근로자회관은 담과 대문이 있었다 대문 앞에 근로자회관 근로청소년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고 개 한 마리가 꼬리

를 흔들며 앞발을 들고 있다  
[안양시사3권 p576]

**근로자회관의 안양지역 노동절행사**

안양 근로자회관은 1970년대 초반부터 노동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1972년에 교우근로자 모임은 노동절연구회 큰 만들어 노동절 행사(3월 10일 근로자의 날)를 기획하였다 1975년부터 노동자 상담 시작하였고 1979년부터는 탈춤반은 만들어 활동하였다  
[안양시사3권 p584]

**1960년대 말 중앙시장 주변 사진**

1960년대 말 중앙시장 주변 사진 주변의 모습이다 넓은 도로에 자전거 한 대가 유유히 지나가고 있다  
[안양시사7권 p 앞 사진첩]

**삼덕제지 1960년대**

1961년 안양중앙시장 옆에 설립된 삼덕제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과서용 서적지른 생산하던 곳이다  
[안양시사8권 p202]

**삼덕제지(1960년대)**

1960년대 삼덕제지의 모습에서 자연하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암전이 보이고 삼덕제지주식회사가 적힌 굴뚝이 눈에 보인다 수암전과 삼덕제지 사이에 집들이 있었다  
[안양시사3권 p 앞 사진첩]

**삼왕제지**

삼왕제지(구 삼덕제지 편 삼정펄프)  
[안양시사5권 p491]

**문화자원 향토설화자원**

**안양4동 연혁**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장내리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4리와 5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4동이 되었다  
안양의 상권 중심지인 안양4동은 동쪽으로는 안양1동 서쪽으로는 안양3동 남쪽으로는 안양5동 북쪽으로는 안양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마을로는 장내동이 있다 안양4동은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이 밤나무가 무성한 밤동산(栗園)이었다 특히 지금의 2001아울렛(구 벽산쇼핑) 일대에는 좌백울원(左白栗園)이라는 대단위 울원이 조성되어 해마다 유료로 밤줍기대회 큰 개최했는가 하면 이곳의 자연마을인 장내동이란 마을명도 밤나무 안에 민가가 웅기종기 모여 있다 하여 유래될 만큼 전지역이 밤나무 밭이었다  
이렇듯 밤동산이었던 안양4동이 점차로 개화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 삼덕제지 앞에 안양변전소가 설치된 후 삼덕제지와 삼길양산 등의 공장과 1954년 전주교 장내동 성당이 건립되면서 부터이다 그 중 장내동성당은 서울교구가 1937년에 밤나무밭 6 657평을 교회부지로 매입한 후 1954년 서울교구의 구전우 신부에 의해 신부가 거저한 2개의 방이 달린 목조 함석지

봉 성당(24평)을 건축하고 노기남 주교의 주례로 축성식을 가졌고 이는 당시 시흥군 안양읍 유일의 천주교 성당이였다 2년 후(1956) 5월 4일 동 성당내에 안양 최초의 유치원이 개설되어 안양지역 유아교육사의 새로운 장은 여는 계기가 되었다  
5 15군사쿠테타 후인 1961년 11월 6일에는 안양1등 시대동에 있던 안양시장이 중앙동으로 이전하여 중앙시장으로 명명된 후 중앙로의 개통과 이어 벽산쇼핑과 풍물시장이 개장되자 한 때는 안양시민의 생활필수품의 약 60%가 유통될 만큼 명실공히 안양의 시장 상가지역으로 자리를 굳혔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78 81]

### 수태골 전설

이 골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금실이 좋은 중년 부부는 자녀가 없어 골짜기 샘 근처에 지극 정성으로 산신령님께 백일기도를 하였다 곧 부부는 사내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훗날 나라의 큰 인물이 되었다 이 소식은 인근 마을로 소문이 퍼져나가 자녀가 없는 부인들이 찾아와 정성들이고 자녀를 얻었다고 한다 이런 연고로 이 골짜기를 수태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4]

## 인적자원 과거인적자원

### 본당 최초의 레지오인 지명자의 모후 Pr 1961

본당 최초의 레지오인 지명자의 모후 Pr 1961년 11월 1일  
[천주교 장내동교회사 p.제1편 사진집]

### 1968년 제1대 관장 서정림 말가리다 사진 및 소개

서정림 말가리다(Wilgefort Sommer) 선생은 1926년 6월 독일의 아름다운 산악 마을인 베히티스가든에서 선생했다 1959년 AFI(국제 가톨릭 형제회)에 입회 3년 후에 한국에 파견된 그녀는 한국 JOC국제 담당자를 거쳐 1968년 <근로자 회관> 초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1974년 퇴임할 때까지 노동자야말로 회관의 주인 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원칙으로 일관해온 그녀는 하늘은 사랑이시다(요한 4:4)는 신앙 고백을 삶의 모토로 삼아 평생을 살아왔지만 기숙생들을 대상으로 영세자 수를 늘려야한다는 한 신부의 요구에 대해 우리 회관은 크리스찬을 생산하는 공장 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함께 복음적 삶은 충분히 나누고 있습니다 라며 서류 속에 기록되는 신앙이 아닌 사랑의 실천을 통해 타인의 삶 속에 족족이 스며드는 신앙을 살아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박두진(1916 1998)

시인 호는 혜산(尙山)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1939년 정지용의 추천으로 시단에 데뷔했다 박목월 조지훈과 함께 정록파 시인으로 불린다 1942년 안양으로 이사한 후 금융조합과 삼덕제지에 근무하며 1950년 서울로 이사할 때까지 안양에서 직장생활과 시작(詩作) 활동을 병행하였다 안양에 거주하던 지역이 어디인지 확실치 않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하여 세를 얻어 살며 집 근처에 관악산이 있고 관악산 연주암을 연우암으로 부르며 직장까지 도보로 30여 분 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관양동 인근 지역이 아닌 가 한다  
안양에 거주하면서 신앙 생활과 시문학 활동에 열심이었다 1944년에는 박두진 본인과 가족들이 안양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1947년에는 안양리교회 제3대 장로에 취임하였다

이 당시 박두진은 삼덕제지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며 교우들과 노방전도근 활발하게 하는 등 신앙심이 깊었다  
[안양시사2권 p 574]

### 박두진 장로 장립식 1947 안양중앙교회

박두진 장로는 안양중앙교회 제3대 장로로 임직 받았다 아래 첫 번째 사진은 공사비 15만원을 들여 증축한 교회 앞이다  
[안양시사8권 p 187]

### 박두진과 삼덕제지

박두진은 안양에 거주하면서 신앙 생활과 시문학 활동에 열심이었다 1944년에는 박두진 본인과 가족들이 안양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1947년에는 안양리교회 제3대 장로에 취임하였다 이 당시 박두진은 삼덕제지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며 교우들과 노방전도를 활발하게 하는 등 신앙심이 깊었다  
[안양시사5권 p 223] [안양시사2권 p 574]

### 안양리교회 박두진 장로 장립식(1947)

정록파 시인의 한 사람인 박두진은 1942년 8월에 안양으로 이주해 금융조합 사무직으로 취업했다 1944년 가족 5명 모두가 안양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박두진은 1947년에 장로에 장립되었다  
사진은 안양리교회 박두진 장로 장립식 때 모습이다  
[안양시사5권 p 223]

## 인적자원 현재인적자원

### 성당 낙성식, 구전우 신부의 경과보고(1959)

1959년 8월 20일 성당 낙성식에서 구전우 신부의 경과보고 모습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지1편 사진집]

### 중앙성당 1980년대 1987년 제11대 김화태 신부

1987년 2월 19일 교구사제 인사이동 발령으로 제11대 주임신부로 김화태 신부가 부임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57]

### 문진수 이주노동자 귀화

방글라데시인 엠디 에나물 하크씨는 이주노동자로 안양에 있는 전진 상복지관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문화에 스며들었다 그는 일요일이면 전진 상복지관에서 봉사하며 하루를 보낸다  
[안양시사7권 p 389 391]

### 중앙성당 1980년대 1980년 제9대 박건순 신부

1980년 4월 16일 교구사제 인사이동 발령에 의하여 박건순 신부가 제9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40]

### 중앙성당 1970년대 1975년 제7대 서강하 신부

1975년 10월 16일 서강하 신부가 제7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15]

### 1968년 AFI 서정림(말가리다)와 한성인(벨파) 함께 찍은 사진 및 소개



수원교구가 AFI(국제 가톨릭 평제회)에게 정식으로 노동자 사목을 위임한 것은 1965년 윤주교가 안양을 중심으로 평택과 수원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의 노동자 사목은 한국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AFI에게 맡긴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바로 평신도 사조직 단체로서 AFI가 가지는 독특한 소명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형제애를 무기로 살아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윤주교의 요청에 따라 AFI에서는 여러 차례의 모임과 개인 면담은 통해 이 일에 헌신할 사람을 찾았지만 이 불모지나 다름없는 어려운 일은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저마다 맡은 소임이 바빠있고 자아개발을 위한 곳으로서는 안양이 적합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하지만 1968년 서정림 말가리다와 한성인 벨파 회원이 이 일을 맡겠다고 자원함으로써 구상단계였던 <근로자 회관>의 설립과 건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첩]

**최 말지나, 안양 유치원 건립 제안자**

안양유치원은 태동시킨 최 말지나란 과거 샬트르 성 바오로수녀회 수녀였던 최순금(최 말지나)으로서 수녀시절에 유치원에 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85]

**중앙성당 1960년대 1966년 제3대 손태섭 신부 부임**

1966년 1월 3일 안양 본당 제3대 주임신부로 손태섭(마르코) 신부가 부임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00]

**초대 교구장 윤공희 주교 1971**

1971년 5월 31일 초대 교구장 윤공희 주교가 사목 방문 했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만촌당 오기동 장업주**

안양4동 676-215번지에 위치한 만촌당현의원의 장업주 오기남 원장은 1927년 평안남도 성전군 훈생해 1947년 6월 이남으로 내려왔다. 1948년 수원도립병원 약제과에 근무하면서 약사 자격증의 필요성은 느껴 6년 뒤인 1954년에 경기도 시행 약종상 시험에 합격했다. 같은 해 구시장 입구에 만촌당 약방을 차렸다. 1964년 2월 지금의 경희대학교인 동양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안양시사7권 p 228]

**중앙성당 1960년대 인보성제회 수녀 파견**

1966년 3월 본당에 수녀가 부임하였지만 한 밤 중에 수녀들의 방에 도둑이 침입하여 젊은 수녀들이 크게 놀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당은 예산부족으로 수녀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 강구하지 못하자 1967년 7월 말 순교복자회 원장수녀의 지시로 서울로 결수한다.

이후 손태섭 신부는 인보성제회에 수녀 파견을 요청하였다. 순교복자회 수녀들이 결수한지 1개월만인 1967년 8월 28일 인보성제회 윤 라우렌시오 신부는 수녀를 안양유치원으로 파견해 주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00]

**중앙성당 1960년대 1968년 12월 제5대 장금구 신부**

1968년 12월 5일 제5대 주임신부로 장금구(크리소스토모) 신

부가 부임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03]

**전진 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거리시위**

전진 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거리시위 장면이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하라 연수 취업제 철폐하라 큰 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안양시사7권 p 앞 사진첩]

**중앙성당 1980년대 1984년 제10대 정지웅 신부**

1984년 2월 21일 교구 총대리를 역임하였고 성남 수진동 본당에서 사목한 바 있는 정지웅 신부는 제10대 주임신부로 맞이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48]

**중앙성당 1960년대 1967년 7월 말 3명의 수녀 철수**

1966년 3월 본당에 수녀가 부임하였지만 한 밤 중에 수녀들의 방에 도둑이 침입하여 젊은 수녀들이 크게 놀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당은 예산부족으로 수녀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하지 못하자 1967년 7월 말 순교복자회 원장수녀의 지시로 서울로 결수한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00]

**장석분 중앙시장 40년**

안양중앙시장에서 40년간 세월을 보내신 장석분 할머니

[안양시사7권 p 467-470]

**중앙성당 1970년대 1976년 새 주보 발행 초대 편집장 최병렬(알풍소)**

1976년부터 세로 12cm 가로 45cm의 기다란 모양의 새 주보가 발행되었다. 주보 초대 편집장은 고등학생 시절 본당 학생회 간부였고 주일학교 교사 미사해설자(1974-1975)로 봉사한 최병렬(알풍소)이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19 120]

**중앙성당 1970년대 학생회 고등부 셀(Cell) 최병렬(알풍소)**

학생회 고등부 셀(cell) 회원들은 1972년 12월에는 종교사극 <주막> 1973년 12월에는 풀 꼬로호텔 원작 <삼중>을 공연하였다. 이 연극의 기획은 최병렬(알풍소) 연출은 홍승식(아우구스티노) 신학생이 맡고 정낙경 임부경 홍기훈 김현숙 이미연 홍석문 등 12명이 출연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13]

**중앙성당 1970년대 1978년 제8대 최재용 신부**

1978년 4월 6일 최재용(발토로메오) 신부가 제8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24]

**1974년 1월 제2대 관장으로 한성인 벨파 취임 사진 및 소개**

한성인 벨파 선생은 서울에서 출생했다.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1960년 9월 성균관대학 화학과를 졸업하고 자신에게 맞는 성소를 찾아 1963년 10월 AFI(국제 가톨릭 평제회)에 입회하였다. 전주 가톨릭 센터 기숙사와 명동 전진 상 교육관에서 소임은 맡았던 그녀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루가 10 2)는 말씀에 주저 없이 안양으로 왔

고 1974년 관장으로 취임했다 재임기간 동안 그녀는 기숙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회관을 근로자 복지의 모델로 부각시켰는가 하면 노동자들에게 더욱 압울하고 고통스러웠던 80년대에 묵묵히 <근로자 회관>을 지켰다 1997년 퇴임하면서 <근로자 회관>을 떠난 그녀가 살아내려 애썼던 영성은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론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필립 3 13 14)의 말씀이다

[가난한이들을 향한 선택 p 앞 사진집]

### 중앙성당 1960년대 1968년 5월 제4대 한중훈 신부

1968년 5월 10일 한중훈 신부가 제4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02]

### 전재준 삼덕제지 부지 기증

42년 전 안양4동에 공장을 설립한 후 안양시민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회사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많은 피해를 겪었어요 그러니 이 땅은 안양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도리지요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

[안양시사 17권 p 397 399]

## 안양5동

### 자연자원 경관자원

#### 분상골

산소가 많은 곳이라 하여 분상골이라 일컫는다 지금의 안양우계국 안양샘병원 안양등기소 일대로 일제강점기 중엽에 일제에 의해 정비가 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1]

### 자연자원 지역자원

#### 안양5동 경인일보 안양지사 1960년대

자료에는 1960년대 판잣집으로 된 각 신문사 지사의 현판이 있었다 총 8개 지사가 있으며 경인일보사 안양지사(京仁日報社 安養支社) 현판이 제일 크게 걸려있었다

[안양시사 8권 p 95]

#### 교하동

남부동과 주침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구한말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이 소나무가 무성했던 곳이나 일제강점기 후 왜병의 군사훈련장으로 되었다가 1927년에 안양초등학교(안양5동 387 1)가 설립되자 학교 주변에 민가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54]

#### 근명여자중학교

1962년 3월 14일 재단법인 근명학교 설립 인가 초대 안양보육원의 사태현 이사장 취임 1962년 3월 17일 각 학년 2학급으로 근명중학교 설립 인가 1973년 근명여자중학교로 교명 변경 2009년 남녀공학 입학 2011년 현재 26학급 편성되었다

[안양시사 5권 p 93]

#### 근명정보고 근명원예기술학교 1960년대

자료는 근명원예기술학교 졸업식 장면이다 안양보육원의 사태현 이사장이 설립한 학교로 근명여자중학교와 근명여자상업고등학교의 모태가 된다 근명(近明)이라는 이름은 사태현 씨가 만주에 있을 때부터 설립했던 교육기관의 명칭이었다 근명원예기술학교는 보육원 원아들뿐 아니라 외부 학생들도 수강했다 교육내용은 주로 농사에 대한 일반지식 외에 특수작물 재배법 등이었다

[안양시사 8권 p 119]

#### 근명정보고 관현악부

근명정보고 관현악부 관악원드오케스트라는 1970대 장단되어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로 구성된 합주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양의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행사에도 참가해 명성을 날리고 있다

[안양시사 7권 p 576-578]

#### 냉전로(冷泉路)

삼덕공원 앞에서 성결대학교에 이르는 폭 15m 연장 2100m의 길로 안양5동 소재 냉전동을 통과하는 도로라 하여 냉전로라 일컫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59] [안양시사 2권 p 384]

**냉천약수(冷泉藥水)**

충혼탑 아래 안양5동 617-46번지에 있다 조선 초에 한발이 극 심하자 어느 부부가 수리산 정상에서 지성을 드린 후 맑은 샘 물이 지숫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1989년 1월에 구성된 안양 5동 노인회가 관리하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05]

**만안정소년수련관**

안양8동 462 5번지에 2009년 2월 3일 개관하였다  
[안양시사4권 p 310]

**1974년 안양5동 새마을운동 거리청소**

안양에서는 매월 1일과 15일은 새마을 대정소의 날로 정하고 학교별로 거리 정소에 나섰다 또 대정소의 날에는 동네 골목 정소에 한 집에 한명씩 꼭 참석해야 하였다  
[안양시사4권 p 310]

**은성고등공민학교와 안양대학교**

은성고등공민학교는 중앙시장 안에 있는 순복음교회 안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인가가 나지 않아서 현재의 안양대학교 자리에 대지든 확보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만 비용부족으로 포기했다 이후 이세종씨가 인수해서 김인해씨 받아있던 현재 안양대학교 자리 대지를 샀지만 건물 지은 경비론 마련하지 못했다 이 세종씨는 안산에 사는 남봉우씨에게 월 4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비탈밭 3 000평은 모두 샀다 그 후 이세종씨는 박달동 공병부대와 석수동 미군부대의 도움으로 대지를 정비하고 건물 짓고 필요한 물품을 도움 받아 어렵게 학교를 운영해 나갔다 시설 등 학교 규모가 갖추어지자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첫 졸업생 20명을 배출했던 것이 전성기에는 학년당 5학년씩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교사수도 늘어나 10명의 교사와 서무직원 요즘 기간제 교사와 비슷한 강사론 채용하기도 했다 고등공민학교를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중학교 학력을 그대로 인정해서 별도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을 지르는 검정고시제가 시행되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경제적인 여건이 점차 나아져 갔다 그러나 학생수가 줄자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 1981년 폐쇄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안양대학교가 들어섰다  
[안양시사7권 p 181]

**안양보통학교**

안양보통학교는 1929년에 개교했고 당시 4년제였다 교사(校 舍)는 일본식 목조건물이었는데 교무실 한 칸과 교실 두 칸의 세 칸짜리 건물이었다 교실이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실 하나에서는 1 2학년이 또 다른 교실에서는 3 4학년이 함께 공부할 해야 했다 교직원은 모두 세 명이었는데 일본인 교장 내외와 조선인 교사(김규장) 한 명이였다 1927년 동아일보에는 안양보통학교 개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지난 3일 오전 11시부터 사흥군정 회의실에서 시흥학교 평의원회의는 신미군수의 개회사로 개최하고 소와 2년도 학교비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후 3시에 폐회하였는데 예산액은 (전부 6개 공보교와 1분교장) 중 지출 6만9천3십1원인데 그중에는 임시지출 1만3천7백4십원으로 안양공립보통학교를 신설하기로 계상하였으며 서면분교장은 금년도부터 공립보통학교로 독립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로 동군에서는 우급 인가 신청 중이었는데 자로써 시흥군 10면에 대하여 공보교 8개소와 사립 2개소 합 10개교가 됨으로 실로 일면일교의 실시가 완전히 되리라더라 (동아일보 1927년 3월 5일 4면 「2개 공보校 증설 학교 평의원회서 결의 시흥은 1면1교 시설」  
최갑환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에 의하면 소와12년(1937년)에 안양보통학교 제6회 졸업생들과 선생님 지방유지들이 함께 기념 촬영한 사진이다 동기생은 모두 31명이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을 위해 따로 사진 찍어 상단에 넣어 주었다 가운데 줄 오른쪽 맨 끝에 기모노른 입고 있는 사람은 교장의 부인이다  
[안양시사2권 p 8] [안양시사5권 p 6 8]

**1963년 안양초교 아래 교하동**

1963년 안양초등학교 아래 교하동 마을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연인의 사진이다 인물은 언덕위에 있고 아래 집이 있으며 건너편에 굴뚝이 있는 공장과 마흔뜰이 보인다  
[안양시사8권 p 331]

**1950년 안양초등학교 소풍**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두 달 전인데 아이들은 시대의 분안과는 상관없이 전진스러운 모습이다 긴바지를 반쯤 걷어오린 것이 계곡의 물에 들어갔다 나온 듯한 데 하나같이 검정고무신을 신고 있다  
[안양시사5권 p 1] [안양시사8권 p 112]

**1970년대 안양초등학교 앞 철도건널목**

현재는 육교로 되어 있는 안양초등학교 앞 풍경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철도 건널목을 지나야 했다 전철이 철도 위를 지나고 있고 전철 너머로 덕전마을 입구가 보인다  
[안양시사8권 p 30]

**안양초등학교**

1929년 12월 20일 안양공립보통학교 개교(2학년 편성) 조대 후지노 코우시 일본인이 교장으로 취임했다  
[안양시사5권 p 41]

**운암불교회관**

안양대학교 기숙사 옆에 위치해 있으며 1986년 6월 8일에 개관되었다 운암은 한병익 스님의 법명으로 운암은 건양 원년(1896년) 12월 24일 평양에서 출생하여 1924년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광복 후인 1949년 법주사에서 백용성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57년 법주사에서 하동산 스님을 계사를 비구계 받은 후 이듬해(1958년) 영주 부석사 주지로 있다가 1982년 87세로 일기로 삼막사에서 입적하였다 이에 불자들이 스님의 거룩한 뜻을 되새겨 모든 이에게 운암사상을 널리 펼치고 스님의 자취를 길이 보존함은 물론 이리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운암불교회관을 건립한 것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83]

**장안사**

1968년에 장건된 사찰로 충혼탑 아래에 위치해 있다 태고종인이 사찰은 불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안심도량을 수행하는 곳이라 하여 장안사(長安寺)라 일컬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84]

**찬우물**

주점동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안양5동 15통에 속한다 중혼탑 아래(안양5동 590 5)에 잔 샘우물이 있어 그 인근을 잔우물(畝泉洞)이라 불렀었다 이 우물은 일제강점기만 해도 식수와 농업용수에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약수(식수)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 난민들이 잔우물 위쪽에 정착하고 우물 아래의 농경지가 택지로 번도되면서 부터인데 현재는 안양5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장미아파트 건흥연립 원불교 현충탑 장안사 등이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98]

### 1970년대 안양5동 하천 청소

1970년대만 해도 동네 도로는 포장 안돼서 자가 지나가면 길이 푹 파이고 비만 오면 하수도가 역류해 물이 빠지지 않았다 하수도가 없는 집도 많아 집 안에서 버린 생활하수가 음식 찌꺼기 채로 동네 도로에 버려지기도 하고 장마 때면 하수도의 범람으로 주택가가 침수되는 일도 빈번했다 [안양시사8권 p 235]

### 중혼탑

현충일에 주춧돌이 열리는 중혼탑은 1971년 재건되었는데 현충일뿐만 아니라 새해 첫날에도 많은 참배객들이 찾는 장소이다 [안양시사8권 p 276]

### 경향서점 고서적(아단문고)

안양5동 627-60번지 대한민국 중고 책 판매 1위 아단문고가 있는 곳이다 아단(亞旦)이란 아시아의 아집이란 뜻으로 수리산 정상에서 경향서점 주인인 한상돈씨가 스스로 작명했다고 한다 한상돈씨가 전채과 인연은 맺은 것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책을 사서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한 게 전채과 더불어 어언 30년이 훌쩍 넘었다 [안양시사7권 p 224 227]

### 안양공립국민학교 입학기념 1945

전진한 단발머리 어린이들이 사진 촬영 때문인지 조금 긴장한 표정이다 대부분 한복은 입고 있지만 세라복도 눈에 띄고 코트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어린이도 있다 지금은 이름표를 달지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슴에 흰 수건을 달았었다 [안양시사8권 p 108]

### 안양공립국민학교 제16회 졸업 1948 제18회 졸업 1950 5 6 제21회 졸업 1953, 제30회 졸업 1962

안양초등학교 졸업기념 사진의 글씨를 살펴보면 학교 명칭과 복장의 변화가 금방 눈에 띈다 공립보통학교라는 명칭은 1941년에 안양공립국민학교로 한국전쟁 이후에 안양국민학교로 바뀌었다 또 1953년까지 단기로 사용했던 연도표시가 1963년에는 서기로 바뀌어 있다 날짜도 6월에서 5월 다시 3월 2월로 바뀌어 가고 있다

30여 명이었던 졸업생들도 70여명으로 늘어나고 교복 사이에 섞여 있던 한복과 평상복도 사라졌다 그러나 남학생들 머리는 하나같이 삭발머리이다 이발비도 아끼고 머리에 이 생기는 것도 방지하기 때문인지 그 선도도가 오래도록 유지되었던 것 같다

1962년 30회 졸업사진은 보면 선생님들까지 학생들 교복과 흡사한 옷차림인데 1960년대의 재건복인 듯하다

[안양시사8권 p 110]

## 문화자원 시설자원

### 이슬람 안양성원

안양5동 안양대학교 정문 왼쪽에 있는 이슬람 안양성원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이슬람 신자(대부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등록되어 있다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예배에는 100여 명이 참석한다고 하며 한국인 이슬람 신자는 10명 정도 있다고 한다 현재 이슬람 성원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이자 공동체의 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양시사5권 p 601-602]

## 문화자원 향토설화자원

### 안양5동

안양5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안양리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6리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령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5동이 되었다

1996년 1월 1일 시조례 제1392호에 따라 동의 일부가 안양1동 안양4동에 편입되었다 안양5동은 동으로는 안양7동 서로는 안양9동 남으로 안양6동 북으로는 안양4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마을로 교하동(교화동) 과 잔우물 등이 있다 안양의 중심부를 남 북으로 가로지르는 중앙로를 따라 서편에 위치한 잔우물과 그 동편에 위치한 교화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안양5동은 현대적 의미에 있어 안양의 첫 교육시설인 안양초등학교가 설립되자 안양교육의 메카였다

192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안양의 교육은 불모지여서 먼거리에 있는 과전초등학교와 안산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다가 1927년 임기승 조한구 등 안양유지의 눈부신 활동으로 안양공립보통학교 기성회를 조직하고 학교 설립에 박자를 가했으나 건립에 필요한 자금염출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동아일보」가 이러한 딱한 사정을 연일 보도하자 전국에서 모금이 답지하여 신문지상에 이들의 성명과 성금액이 보도되었다 이에 당황한 일경이 국민의 단합을 이유로 방해했으니 국민들의 줄기찬 성원에 힘입어 1927년 12월 20일 개교를 보았는데 이것이 안양교육의 시발이 되었다 이어 근명여중 여상 안양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들어섰고 공공기관으로는 안양전화국 안양우체국 안양소방서 안양등기소가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81 83]

### 교화동의 유래

안양초등학교 부근의 옛 이름은 교화동이었다 이 마을이 교화동이라고 불리게 된 데는 내력이 있었다

옛날 5동 관내 대부분의 지역이 수리산의 연장으로 낮은 야산을 이루고 있던 시절에 이곳엔 뒷산과 앞 연못이 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시골 동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고을에 한 가난한 부부의 외아들은 돈이 없어 서당을 다니



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굶을지라도 글공부만 하기 위해 서당을 기웃거리며 봉장 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따라 혼자 배웠다 이른 본 서당 선생이 감동하여 글은 무료로 배우게 해주었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관직에 오른 수 있는 과거에 합격하였다  
가난으로 어렵게 공부한 그는 기쁨의 감격은 안고 임금 앞에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관직은 마다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향교를 짓고 글을 모르는 백성은 가르칠 뜻을 아뢰었고 그의 뜻에 감탄한 임금은 그에게 커다란 집을 지어 주고 교화당이라 명명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그 동네는 교화동이 되었으며 그 자리가 지금의 안양초등학교 자리인 것이다  
[안양시사2권 p 239]

**1953년 김영례, 5학년을 마치고**

1953년 3월 28일 5학년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단발머리의 친구들이 그리워 진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21]

**1974년 최해분, 안양초등학교 소풍**

즐거운 소풍날 아이들의 환한 미소에서 경제적인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101]

**인적자원 과거인적자원**

**경향서점 주인 한상동**

한상동씨가 현책과 인연은 맺은 것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책은 사서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한 게 현책과 더불어 어언 30년이 훌쩍 넘었다  
[안양시사7권 p 224-227]

**은성고등공민학교 교사**

1965년 은성고등공민학교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안양시사7권 p 180]

**인적자원 현재인적자원**

**신성고 수영부**

신성고등학교 수영부는 1978년 전국수영대회에서 우승은 자지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2005년 울산에서 열린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도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안양시사8권 p 179 293]

**안양초등학교 농구부**

1949년 성남중학교가 관내 전국 초등학교 대항 농구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안양초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을 기념하며 안양초등학교 교정에서 찍은 사진에서 뺨뺨 머리 입술을 굳게 다문 학생들과 우승의 의미를 읊미하는 선생님의 젊은 미소가 대조근 이구고 있다 중앙의 한 아이 옷에서 안양 글씨를 거꾸로 되어 있다  
[안양시사8권 p 181]

**1942년 박용덕 안양초 졸업**

여자는 앞줄 남자는 뒷줄로 배치된 졸업사진에서 사람들의 얼굴에 열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리운 친구들이 생각나서 사진은 뜯어다 보면서 옛 추억은 떠올리며 그런 동그라미가 컷어 아닐까?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11]

**1948년 김옥용, 안양초등학교**

한옥 지붕이 보이고 소나무 숲에 한복과 양장 자림의 여자들이 앉아 찍은 사진이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13]

# 안양6동

## 자연자원 경관자원

### 곡내동

성문중학교 아래(동쪽)이 곡내동(谷內洞)으로 일컫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9]

### 뒷뫼

만안구정 뒤에 있는 산으로 주점동마을 뒤(서쪽)에 위치한 산  
이므로 뒷뫼 라 부른다 만안구정 바로 뒤에 있는 우물은 일제  
강점기에 입업시험장에서 표고버섯 재배에 이용하기 위해 판  
것이라고 한다 가뭄에도 샘물이 끊기지 않아 주점동 주민들이  
대동우물이 마르면 이용했었다고 전해진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31]

### 대동우물

가뭄에도 샘물이 끊기지 않아 주점동 주민들이 대동우물이 마  
르면 이용했었다고 전해진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31]

### 범바위

만안구정과 안양세무서 사이 뒷뫼 북쪽에 있는 바위로 범의  
머리형상을 한 바위라 하여 범바위라 일컫는다 일설에는 예  
전에 범이 이 바위에 앉아 주점동을 향해 울었다하여 범바위  
라 했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3]

### 소골안

소골동(小 谷洞 昭谷洞)이라고도 한다 안양6동 안양세무서에  
서 서쪽으로 수리산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다  
[안양시사2권 p 349]

### 장수바위

소골안과 곡내동 경계 야산에 있는 바위이다 옛날에 어느 장  
수가 갖다 놓은 바위라고 전해진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9]

### 지치밭골

옥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수리산 낙택으로 예전에 주  
점동 주민들이 이곳을 밭으로 일구고 지지를 재배했다고 하  
여 지치밭골이라 정하는데 지금은 지지는 없고 잡초와 잡목  
만 무성하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3]

### 장바위

바위의 색깔이 푸른 심정색(深青色)이라 하여 장바위 라 일컫  
는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장박골 주민들이 해마다 음력 7월  
이면 길일을 택해 마을의 안정을 위해 제(祭)근 지냈으며 요즈  
음도 바위가 영험하다 하여 지성을 드리는 부녀자들과 자장 도  
사(道士)라고 자처하는 역술인들로 성시를 이룬다  
사진은 장바위 왼쪽 뒷부분 바위 위에 촛불이 보인다(1996)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51]

### 칼바위

안양6동에 있는 범바위에서 서쪽 능선 너머에 있는 바위이다  
칼처럼 뾰족하게 생겼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51]

### 형제고개

안양초등학교 동편 만안로에 있던 고개로 길마형태의 두 고개  
가 마치 형제같다 하여 형제고개 라 불렀는데 일제강점기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고개를 낮추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3]

## 자연자원 지역자원

### 77수해 안양6동 성문여중 앞 수해현장

안양6동 성문여중 앞 수해현장이다 수마가 높고 간 저장한 모  
습의 학교진입로는 마치 깊게 파여진 계곡처럼 보인다  
[안양시사8권 p 351]

### 거화예식장 앞 육교

1974년 준공 1984년 확장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2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구 가족위생검사소)

가족의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연구 기능을 하는 국립수  
의과학검역원은 지상3층 건물로 T자 모양의 평면으로 되어 있  
는데 내부에는 항상 항습실 무균작업실 같은 특수 시설을 갖  
추고 있다  
[안양시사1권 p 482-483]

### 수의과학검역원 1970년대와 1988년

일제시대까지 주점동 일대가 밤나무 숲으로 덮여 있었다 1970  
년대 공장과 집들이 듦성듬성 있었으나 1988년에는 턱턱한 주  
택가로 변화였다  
[안양시사8권 p 38]

### 수의과학검역원 앞 육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앞에 있는 육교이다 육교의 총 길이  
29 1m에 교폭은 4m로 1995년 개설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21]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99]

### 국립종자원

안양의 남부 지역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이곳은 서쪽  
길 건너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같은 대지의 영역에 속하였  
다 지금은 북쪽으로부터 국립종자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이 각각 독립기관으로 들어서 있고 부지도 각  
각 소유하고 있다 건물의 건립 연대를 살펴보면 국립종자원  
1975년 국립식물검역원 1986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986  
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국립  
생사검사소가 1974년에 건립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 있다  
[안양시사1권 p 485-486]

### 도서관길(보조간선)

만안로에서 냉전남로로 이어진다 주요 시설물인 안양시립만  
안도서관의 이름을 반영하였다  
[안양시사2권 p 387]

### 만안약수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뒤에 있다 추로 안양6동 주민들과 학생  
들이 이용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06]

**만안구보건소**  
만안구청 옆에 있다  
[안양시사3권 p 282]

**만안구청(구 안양시청사)**  
현 만안구청부터 북쪽으로 국립농산물검사소(현 국립종자관  
리소)까지는 경기도 임업시험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이곳  
에 농업 관련 연구와 행정시설들이 속속 세워졌다 1973년 시  
로 승격되었고 1975년 7월 1일 현재 자리에 새로운 시청사를  
건축하게 되었다  
[안양시사1권 p 489-490]

**안양시 개청(읍사무소 자리, 1973)**  
안양은 급진적인 발전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읍  
이었던 소도시가 시로 승격되어 시청사가 개청되었다 일제시  
대에 포계동에 있었던 서이면사무소가 안양1동(현 삼원프라  
자호텔 옆)으로 이전하였고 1945년 시흥군청사가 영등포에서  
안양1동(현 삼원프라자호텔)으로 이전하였다 읍으로 승격되  
면서 읍사무소를 안양면사무소 좌측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읍  
은 다시 시로 승격되어 읍사무소 자리에 시청이 개청되었다  
그러다가 임업시험장 자리(현 만안구청)에 안양시청사를 신축  
하여 기슭을 올렸고 시 승격 2주년은 맞아 현 만안구청 자  
리에 시청사를 준공하였다 당시 안양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만  
안 동안 출장소를 개소하였다  
[안양시사8권 p 83]

**안양시의회 현판식(1991)**  
1991년 4월 15일에는 제1대 안양시의회가 개원되었다  
[안양시사3권 p 14]

**안양시청사 기공식(1974)**  
1973년 7월 1일자로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1974년 당  
시 임업시험장이었던 자리에 안양시청사(현 만안구청)를 신축  
하였다 근면자조 협동으로 복지안양 건설하자 1974년 당시  
복지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안양시사1권 p 앞 사진첩 481]

**안양시청사 준공 1975**  
1974년 안양시청사 신축 기공식이 있는 후 1년후인 1975년 시  
승격2주년 기념 및 시청사 준공은 경축하여 현관앞에서 여성  
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안양시사8권 p 85]

**만안로(보조간선)**  
명학육교에서 중앙로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만안교 만안구에  
서 이름은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383]

**명학로**  
안양경찰서 앞에서 경수산업도로에 이르는 폭 30m 연장  
1 200m(중선 1 250m)의 길로 명학동에서 명학대교를 통과하  
는 도로에서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60]

**방축로(보조간선)**  
방축로는 방축말에서 유래되었다 경수산업도로에서 명학역  
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방축로(防築路)로 되어 있는데 「도로  
명 부여조서」에는 방축로 라고 되어 있다 부여 사유에 기존  
도로명칭 반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존재한 마을의 이  
급이 방축말이 아니라 방축말인 것으로 보아 방축로로 하여  
야 하 것이다  
[안양시사2권 p 384]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61]

**빛진 자들의 집**  
작은 기쁨이 모여 큰 행복은 이룬다는 빛진 자들의 집은 지난  
1992년 빛진교회 최장남 목사가 건립했다  
지역의 빈곤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보호 교육 상담하고 문  
화활동은 통한 심리 정서적 지원 문화활동은 통한 심리 정서  
적 지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 예방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달팽이 지역아동센터 달팽이 도서관 만나 밥집 몰래산타 이  
야기 사업은 한다  
[안양시사7권 p 519-521]

**새마을 대정소 1990 안양6동**  
1990년대 새마을 대정소의 풍경은 1980년대 빛자루로 골목길  
은 쓴던 모습에서 집게와 비닐을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큰 줍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새마을운동 재점화 라는 글에서 과거로  
의 회귀된 희망하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229]

**소곡약수**  
소곡안 마을 위에 있다 체육시설은 100㎡이고 관리는 소곡  
약수터 자연보호회가 맡고 있다 소곡(昭谷)은 소골안의 한자  
경정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1]

**소안골**  
안양세무서에서 서쪽으로 수리산의 작은 골짜기 안에 자리잡  
은 마을이라 하여 소골안(小 谷 間)이라 일컫는다 1980년대부  
터 소곡(昭谷)으로 개칭해 사용하기도 한다(소곡새마을금고  
등) 1996년 5월에 인덕원에 있던 신성중 고등학교가 마을 위  
로 이전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82]

**소안골 한국전쟁 피난민 이주단지**  
소안골 마을은 광복 직전까지만 해도 주집동 주민 3가구가 이  
주해 살던 한촌이었는데 한국전쟁 직후 강원도 철원 등지의  
난민들이 안양1동소재 진흥아파트단지(구 태경방직)에서 수  
용소 생활을 하자 소유주의 양해를 받아 이주른 시킨 곳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82]

**소울음화실**  
장애인그림공간 소울음화실은 안양6동 밭대리 골목 안에 화실  
은 연구 전국의 중증장애인들은 하나둘씩 받아들였다  
[안양시사7권 p 406]

**수왕약수**  
소곡약수에서 동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있다 1987년에 체육  
시설이 설치되어었는데 그 면적은 35㎡이다 1일 이용자 수는  
약 300명으로 주로 등산객이 이용한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413]

### 신필름인스티튜트 준비모임 2002년

2002년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미국에서 돌아와 안양경찰서가 있던 자리의 시설을 임대해 신필름인스티튜트 라는 교육시설을 개원했다

1970년대 석수동에서 신필름으로 잠깐 동안의 인연이 있는 후 30년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안양6동에서 잠깐 동안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안양시사5권 p 401]

### 1970년대 안양경찰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우리땅에 뿌리박자 구국의 유신이다 새역사를 창조하자 통일위한국영단 너도나도 지지하자 1970년대 관공서는 그들의 목소리보다 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구국의 유신이다 새역사를 창조하자 에서 볼 수 있듯이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구국의 유신은 얼마가지 못했다 안양6동으로 옮기기 전의 안양경찰서 모습이다

[안양시사7권 p 132]

### 구 안양경찰서

안양읍이 1973년 시로 승격하여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인제강점기의 건축물을 이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현대적 새로운 정사들이 지어졌다

구 안양경찰서 건물은 본관과 민원실 전투경찰 숙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관은 중북도형으로 사무실과 취조실 그리고 이어져 있는 유지장이 있다 1층의 출입구 자양은 당시의 관공서 건물로서는 단순하게 저리하고 지면과 현관 바닥의 높이 차이를 줄여서 권위적인 요소는 상당히 많이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2층의 정면(남쪽)에 설치한 장은 옆으로 긴 띠장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각 경간(間)마다 가람 벽을 돌출시켜 단조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중앙 현관에서 뒤편으로 바로 이어지는 유지장은 부채꼴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감시실에서 사방으로 펼쳐진 유지실 각 방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였다 시선은 중앙에서 각 방으로 되어 있지만 복도도 부채꼴의 넓은 변방향 즉 바깥쪽에 띠 모양으로 연결시켜 각 실의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동선 처리를 하였다 중앙감시실의 지붕을 유지장의 지붕보다 높게 하고 그 사이에 높은 장은 두어 감시실 쪽으로 빛이 들어오도록 배려하였다

[안양시사1권 p 487-488]

### 만안담교놀이 자료집

1988년 안양문화원에서 발간한 만안담교놀이는 만안담교놀이의 유래와 역사 절차 실태등을 조사 발굴하여 단행본을 간행하였다 안양 만안담교놀이 대본관에 다리모형도 깃발모형도 길놀이 대형 길놀이진행도 다리밟기 진행도 무동중판 선소리판 대동놀이관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안양문화원 40년사 p 158]

### 만안문화제 개막식 공연(1989)

안양시에서는 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1986년부터 종합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만안문화제 라는 명칭으로 담교놀이 어가행렬(정조의 파승 행사) 전통혼례 음악제 둔화논단 안양미협전 가훈전 연극제 관악백일장 문학강연 사진전 및 강좌 수석전 전국시조 경창대회 체육대회 등을 안양문화원에서 주관으로 개최했다 특히 어가행렬은 정조대왕이 만안구의 어원적 모태인 만안교를

거저 수원으로 능행을 한 역사적 사실을 재연한 것으로 안양 시민축제 때 개막을 알리는 안양의 상징적 행사가 되었다 사진은 1989년 만안문화제 개막식 공연 장면이다

[안양시사5권 p 198]

### 만안유치원 생일잔치(1981)

1981년 만안유치원 생일잔치 사진이다 유치원생들의 세라믹 유니폼에서 당시 경제적 풍요를 읽을 수 있다

[안양시사5권 p 앞 사진집]

### 안양문화원

안양문화원은 1970년 1월 10일 이상운을 초대 원장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사단법인으로 공식 허가를 취득한 것은 제2대 원장 박경제의 재임 시인 1972년 5월 15일이다 즈장기의 안양문화원은 안양지역의 문화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최초의 법인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대외적으로 펼치기 시즈 한 것은 1972년 9월 9일 취임한 김정대 원장때이다

[안양시사5권 p 197 201]

### 안양문화원 사무실 1979년 사진

1979년 안양문화원 사무실의 모습이다 제22회 밀양아랑제 소년소녀 피아노 음악의 밤 단풍제 포스터가 붙어져 있다

[안양문화원 40년사 p 앞 사진집]

### 1970년 안양상공회의소 발족식

1970년 3월 21일 안양 상공인들과 각 기관장들이 모여 안양 삼원극장에서 안양상공회의소 창립식을 개최하였으며 4월 15일 안양상공회의소 설치인가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상공부장관으로부터 1970년 6월 5일(상역상 허가 제497호) 안양상공회의소 설립을 인가받았다 사진은 1970년 안양상공회의소 발족식을 기념하기 위해 안양 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사3권 p 459]

### 근로문학상 입상자 시상식 1980, 안양상공회의소

안양 근로문학이 제정된 것은 1973년 안양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근로자들의 작품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18년간 시행 해 오다가 상공회의소 내부 사정에 의해 중단되었다 입상자들이 근로문학회를 결성하였는데 후에 서독문학 글길문학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07년 현재까지도 동인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170]

### 문학강연 1986, 안양상공회의소

제1회 만안문화제 개최기념 행사의 하나로 한국문인협회 안양시지부에서는 소설가 정을병 선생을 초청하여 안양상공회의소에서 문학강연회를 열었다 사진 오른쪽이 정을병 선생이고 왼쪽은 김대규 시인이다

[안양시사8권 p 171]

### 안양상공회의소 발족식 1975

1975년 안양상공회의소 발족식이 있었다 행사장 오른쪽에는 풍사가 한장이다

[안양시사8권 p 97]

### 안양상공회의소 부기검정시험 1975

아래 사진은 학생들이 부기검정시험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앞



에 보이는 여학생은 가슴에 근명여자상업고등학교 교표를 달고 있다 1990년대로 접어들기 이전까지 상업학교 학생들의 기본 목표는 부기 2급 주산 2급을 취득하는 것이었다 실제 기업체에 취직하려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했다  
[안양시사8권 p 124]

**안양상공회의소 창립총회(1970)**  
1970년 3월 21일 안양상공회의소 창립총회 사진이다  
[안양시사1권 p 299]

**안양시상공회의소**  
만안구청 맞은편 안양상공회소 건물 사진이다  
[안양시사3권 p 633]

**안양세무서**  
안양세무서는 내국세와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1966년 3월 발족한 국세청 소속 중부지방국세원(수원시 소재)의 26개 일선 세무행정관서 중의 하나로 1급 세무서이다  
[안양시사3권 p 373]

**안양세무서 옆 등나무**  
안양세무서에서 신성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삼거리 모퉁이에는 아름드리 등나무가 있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휴식은 취할 수 있다  
[안양시사3권 p 373]

**구 안양소방서(현 안양119안전센터)**  
시 승격 당시인 1973년에는 안양경찰서에서 관장하던 의용소방대로 있다가 1975년 7월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안양6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다 현재는 절근콘크리트 구조에 본체 3층 방대담신 7층으로 되어 있다  
[안양시사1권 p 490] [안양시사3권 p 362]

**안양소방서 경기도지사 시찰 1977**  
1977년 경기도지사가 당시 안양소방서 망루에 올라 망원경으로 안양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당시 안양소방서의 망루대에서는 안양시내의 모습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안양시사8권 p 97]

**안양직물공장터**  
안양직물공장은 호계동 방죽말 출신 한흥이(韓興履 1897-1979)가 1945년 10월 30일에 설립한 공장으로 현 정기와 주유소와 주점지하차도에 이르는 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본건(本館)과 인건(人館)은 생산했던 안양직물은 1949년 현재 공장 평수가 351명에 종업원은 36명(남자 9 여자 27명)이었다 이 공장의 제품은 쇠가죽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은 만큼 질 위주로 튼튼하고 견실하게 만들어져 어떤 양제상인들은 이 회사제품에 외제상표큰 붙여 판매하기까지 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52]

**한국전쟁 당시 안양직물공장터 유엔군 폭격**  
안양직물공장터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남하하는 인민군 보병부대가 잠시 쉬어가곤 해서 유엔군의 집중포화로 소실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53]

**1939년 독립 입업시험장 신설 목적 자료**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안양지역도 일제의 전시동원체제로 휩쓸려 들어갔다 전시상황에서 목재의 필요성에 따라 1939년에 독립 입업시험장이 신설되고 경방단이 결성되었다 중일전쟁에 참가했던 안양지역의 일본인 청년이 전쟁 중에 사망하여 유콘로 돌아왔는데 시흥군사후원연맹장으로 안양소학교 교정에서 고별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안양문화원 40년사 p 323]

**안양6동 입업시험장(현 만안구청 1968)**  
1968년 안양6동 입업시험장(현 만안구청)의 모습이다 일제가 전시상황에 목재가 필요하여 1939년에 독립 입업시험장을 설치했는데 해방후 아릅드리 나무로 자라났다 하지만 이 나무들은 1975년 안양시정사 건립과 함께 안양시에서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안양시사8권 p 95]

**입업시험장터**  
입업시험장 터는 지금의 안양시정사(현 만안구청)를 비롯하여 그 인근의 안양상공회의소 안양분예회관 만수원주택단지 안양주유소에 이르는 제 지역으로 안양6동의 가장 핵심지역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60]

**입업시험장터 일본인 나가사끼 가옥**  
입업시험장 터는 일제시대만 해도 이곳은 밤나무가 무성한 울원(栗園)으로 동아아파트 북쪽에 상어(上車)집만 한 채 있었던 뿐 민가라고는 안양시정과 만안로 사이에 나가사끼라는 일본인 가옥 뿐이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60]

**잠업검사소 앞 육교**  
안양6동 명학역진입과 안양8동 경기도가족위생시험소 잠업검사소를 연계하는 육교로 중앙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육교의 통과높이 4.7m에 총 길이는 28.7m 교폭은 5m로 1995년에 개설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98]

**주점동**  
교하동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의 주점동은 현재의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은 동정했으나 도시화의 추세로 인구가 증가하자 분가 또는 분동되자 현재는 안양시정 안양상공회의소 만안구청 주변을 일컫는다 이 마을은 정조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정조가 수원 파성은 갈 때 서울 과전 언덕원 사근(현 의왕시)을 잇는 로정을 택했다가 1795년에 안양에 만안교를 가설한후부터 서울 시흥(현 서우 금전구 시흥동)은 잇는 시흥로정(또는 금전로정)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안양1동에 안양행궁을 짓고 안양경자서 뒤 동아아파트 부근에 정각(正閣 또는 政閣)을 세워 능행과 환궁 때 잠시 쉬어 갔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을 주점동(住店洞)이라 불렀다고 한다 보통 「주점이」이라 칭하며 문헌에 따라 주점리(酒店里)로 되어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97]

**1976년 중앙로 확장공사**  
1976년 중앙로 확장공사 현장의 모습에서 여성들이 작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사8권 p 11]

### 명학역 옆 절공소 거리

아무도 관심은 보이지 않는 명학역 옆 절공소 거리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힘겨운 노동의 현장으로 남아있다

### 한마음약수

소골안 육각정 옆에 있다 주로 안양6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1일 이용자수는 약 300명이다 체육시설의 조성면적은 130m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7]

### 현충로

만안로에서 냉전남로로 이어지는 도로다 현충탑 가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현충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안양시사2권 p 382]

## 문화자원 시설자원

### 임금이 쉬어간 주점동

만안교를 지난 능 행렬은 국도를 따라 남으로 전진하다가 안양역 부근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만안교를 가설하기 1년 전인 1794년 지금의 안양1동에는 임금이 쉬어갈 수 있도록 안양주필소(안양행궁)가 당시의 경기 감사 서용보에 의해서 건립되었다

구 안양경찰서 뒤 동아아파트 부근은 수리산 끝자락인데 예로부터 밤나무 숲이 무성했던 곳으로 평촌들과 관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풍광이 좋은 곳이었다 정조는 이곳에 정각을 세워 능행과 환궁 때 잠시 쉬어 갔다 이곳에는 정조가 모친 혜경궁 홍씨에게 미음과 다과를 드렸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마을 이름도 임금이 쉬어갔다고 해서 주점동이라 불렀다

정조대왕이 다닌 길의 흔적을 새기기 위해 이 동네의 사방 길을 능행1로에서 능행9로까지 명명했다 안양시가 19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새 주소 사업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주소 이름이다 그때 붙여진 이 국도의 이름은 만안로다

[안양시사7권 p 110]

## 문화자원 향토설화자원

### 뒷메 유래

뒷뿔 뒷미 라고 부르기도 한다 안양6동 주점마을 위에 위치한 산이라는 뜻이다 이 산 북쪽에 범바위가 있고 산 아래에는 만안구청 안양세무서 안양만안시립도서관이 있다 최근에는 만안구 여성회관 복지회관이 들어서 있다 메와 미는 산의 순우리말인 뾰의 경기도 사투리이다

[안양시사2권 p 430]

### 만안약수 유래

안양6동 안양만안시립도서관 뒤에 있다 만안교와 여기서 파생한 이름인 만안구에서 그 이름은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 명학역 유래

수리산 줄기가 학(鶴)의 모양으로 펼쳐졌다 해서 명학동이 되었는데 명학동에 있다하여 명학역이 생겼다

[안양시사2권 p 235]

### 범바위 유래

안양6동 만안구청과 안양세무서 사이 뒷산 북쪽에 있다 범의 머리 형상을 한 바위라고 하여 범바위가 되었다 또는 범이 이 바위에 앉아 주점동을 향해 울었다고 해서 범바위라고 한다는 설도 있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 범바위 전설

예로부터 이 바위 부근은 명당으로 소문났는데 한말에 어떤 사람이 부모의 묘를 이 바위 위에다 썼다 그런데 후손들이 성묘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죽었다 이곳이 풍수적으로 범 머리에 해당하는 범두털이기 때문에 범을 끌어들이려 호환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 후 후손들은 호환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서리재고개에 가서 이 바위를 향해 제를 지냈다고 한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 소곡약수 유래

안양6동 마을 소골안 위에 있다 소곡(소골)의 이름을 따서 소곡약수라고 부른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 소골안 유래

소곡동(小谷洞 昭谷洞)이라고도 한다 안양6동 안양세무서에 서 서쪽으로 수리산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의 명칭 유래는 두 가지 이견이 있다 첫째는 수리산 작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소골안(小谷安)이라는 설이다 둘째는 골짜기 안이 소(牛)를 많이 기르던 곳이라 하여 소골안(牛谷)이라는 설이다

1980년대 이후는 소골이 어감상 좋지 않다고 해서 한자어 소곡(昭谷)으로 사용하였다

[안양시사2권 p 349]

### 소골안전 유래

안양6동에 있다 소골안에서 발원하여 안양세무서 옆을 거쳐 안양천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길이 1.1km 하폭 3.5m 물리면적 1.2ha이다 소골안에서 이름을 취했다 소곡천(小谷川)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안양시사2권 p 458-462]

### 안양6동 연혁

안양5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안양리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7리가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6동이 되었다 이어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로 안양6동은 안양6동 안양7동으로 분동하였고 다시 1985년 11월 5일 안양6동을 안양6동 안양8동으로 분동하였다

안양6동은 동쪽으로는 안양7동 서쪽으로는 안양9동 남쪽으로는 안양8동 북쪽으로는 안양5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리락으로는 소골안과 주점동이 있다 행정의 1번가로 불리워지는 안양6동은 조선후기에 정조대왕이 부왕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전장하고 능행을 위해 지금은 안양경찰서 뒤에 정각

을 짓고 잠시 휴게했다는 연유로 주점동이란 마을명이 유래되었고 이어 한국전쟁 직후 안양1동 진흥아파트(구 태평방직) 자리에 있던 강원도 철원군 난민들을 수리산 골짜기에 집단 이주시키면서 소골안이란 취락이 생겼다

이곳의 관가는 1938년에 밤나무밭이라던 자리에 안양식림묘표(→경기도입업시험장)를 설치한 후 수의과학검역원(안양6동 480) 국립식물검역소(안양6동 480) 한국담배인삼공사 안양지점(안양6동 437) 국립종자보급소(안양6동 433) 안양세관(안양6동 584 1) 안양시의료보검조합(안양6동 504 1) 등과 1975년 당시 안양시 신정사(안양6동 530) 1977년에 시흥군정사(→만안구청 만안구보건소 안양6동 477 1) 안양세무서(안양6동 582-4) 안양상공회의소(안양6동 502 2) 등이 들어서면서 관가의 중심지가 되었고 1979년에 안양7동 1985년에 안양8동을 각각 분리시켰을 만큼 인구의 급격한 추세를 보였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83 85]

**옥적골 유래**

피리골 이라고도 부른다 안양6동 소골안 약수터 부근에 있는 산골짜기다 풍수로 보아 옥적역(玉筮穴)이라고 한다 옥적근이란 명칭은 풍수지리설과 관련하여 유래된 것으로 피리근이 한자어로 정착된 이름이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주점동 유래**

이 마을은 정조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정조가 양주 배봉산(拜峯山)에 있던 부왕(사도세자)의 묘(永祐園)를 1789년 수원 파산으로 전묘한 후 처음에는 서울 과전 인덕원 사근(현 의왕시)에 있는 로정을 택했다가 1795년에 안양에 만안교를 가설한후부터 서울 시흥(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을 잇는 시흥로정(또는 금전로정)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안양1동에 안양행궁을 짓고 안양경찰서 뒤 동아아파트 부근에 (亭閣 또는 政閣)은 세워 능행과 환궁 때 잠시 쉬어 갔다고 한다 그후부터 이 마을은 주점동(住接洞)이라 불렀다고 한다 보통 주점이 주점이라고도 불렀다 문헌에는 주점리(住占里)로 기록되어 있다

[안양시사2권 p 375]

**지치밭골 유래**

수리산 줄기에 있는 골짜기이다 안양6동 옥적골 동쪽에 있다 예전에 주점동 주민들이 이곳을 밭으로 일구고 지지를 재배했다 하여 지지밭골이라 불렀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칼바위 유래**

안양6동 범바위 서쪽 능선 너머에 있다 칼처럼 뾰족하게 생겨서 칼바위라고 부른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한마음약수 유래**

소골안 육각정 옆에 있다 주로 안양6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용객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형제고개 유래**

안양조동파교 동편 만안로에 있던 고개로 길마행태의 두 고개가 흡사 형제같다 하여 형제고개라 칭했는데 일제강점기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고개를 낮추었다

갈마란 짐을 실으려고 소의 등에 얹는 안장이다 [안양시사2권 p 466-472]

**인적자원 과거인적자원**

집성촌-안양6동 나주정씨 삭녕 최씨 함평 이씨 전주 이씨 주점동은 교하동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인데 정조(1776-1800)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으로 전장하고 시흥로로 개척하면서 번성하게 되었는데 주점동이라는 마을 이름은 임금 행차가 쉬어 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 나주 정씨가 정착하게 된 연유는 분명하지 않다 고함공과 16세손으로 알려진 신원 미상의 인물이 주점동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정조대 무렵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점동에 세거해 왔던 나주 정씨가 비옥한 토지를 찾아 방축말로 이거하였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1900년대 초반이었다 방축말로 이주해 간 나주 정씨들은 그곳에서 5대째 살고 있다 전주 이씨 후손들도 주점동에 정착하여 세거해 왔는데 시기는 역시 정조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0여 호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3가구 정도만 마을을 지키고 있다

[안양시사2권 p 512]

**일본인 나가사끼**

일제시대 때에 입업시험장 터는 일본인 나가사끼가 일본인 가옥을 짓고 살고 있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60]

**인적자원 현재인적자원**

**김정대와 안양문화원**

1972년 9월 9일부터 원장은 만계 된 김정대 선생은 4대에 이르기까지 3년의 임기와 4년의 임기는 3번 모두 15년여의 세월은 안양문화원과 함께 보냈다

[안양시사7권 p 362 364]

**신성중고등학교 수영부**

1976년에 창단하여 30년을 넘긴 수영부는 지금까지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30여 명의 국가대표 코치 등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였다

[안양시사5권 p 471]

**1960년 라기봉, 안양6동 안양절길 양산 쓰고 나들이 추정 사진**

1960년대 경부선절길의 풍경은 저 먼리 육교 위에 자가 지나가고 기차길 옆 오막살이 큰 연상시키는 집들이 있다 휴일 친구들과 오붓하게 절길을 거닐던 낭만의 시절이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43]

**오용길 화백**

안양6동 은혜와 진리교회 큰길에서 조금 들어간 주택가 골목 언뜻 보기엔 콘크리트 구조물의 창고 같은 건물이 보인다 건물 내부는 밖에서 상상한 것과는 다르게 아래 위층 구분 없이 탁 트인 공간이다 특이하게도 전장이 아주 높은 건물이어서 중앙은 비어 있고 나선형으로 1 2 3층이 평면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건물은 이화여대 예술대학장 오용길 화백의 작업실이다

### 최진섭 화가

장애인그림공간 소울음화실 최진섭 화가

[안양시사7권 p 406]

### 한홍이 안양직물 설립자(한항길)

독립운동가 교육자 본관은 정주 또는 풍당 전유의 손자이고 용익의 장남으로 경기도 부천군 문학면 동촌리(현 인천시 남구 동촌동)에서 태어났다. 원명은 한홍이(韓弘伊) 태어난 후 멀다 되지 않아 1906년 경기도 과천시 상서면 호계리(현 안양시 호계동)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다

안양직물공장은 호계동 방죽말 출신 한홍이(韓興履 1897 1979)가 1945년 10월 30일에 설립한 공장으로 현 정기와 주유소와 주점지하차도에 이르는 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본권(本權)과 인견(人絹)을 생산했던 안양직물은 1949년 현재 공장 평수가 351경에 종업원은 36명(남자 9 여자 27명)이었다

당시 최고의 명문이자 선망의 대상인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 후 학생독립운동에 뜻을 두어 경성고등보통학교 2학년 재학 중 3 1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특히 3월 5일 학생단의 주도로 이루어진 서울역(당시 남대문역) 앞의 시위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날 서울역 앞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이라고 쓴 깃발은 휘날리며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시위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서대문 감옥에 구금되었다. 그는 학생 신분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면 풀방될 수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아 3년간의 옥고를 지냈다. 학교에서도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에 대한 경성지방법원 신문조사를 보면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르고 다니면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강화회의 결과 독립을 희망하는 나라는 독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도 만세를 부르고 다니면 독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다닌 것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장래에도 독립운동을 할 생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서슴지 않고 조선인이니까 조선이 독립할 시기가 오면 그때 또 할 작정이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3년간의 옥고를 지르고 나왔지만 요시찰인물로 지목되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경기보통학교 교원양성소에 지원하여 수석합격하였으나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공립학교 대신 사립 학교에서 3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한 조건이 붙기도 했다. 그 후 경성보인학교에 부임하여 교무주임 등의 중책을 잘 수행한 모범 교원이 되었다. 그 공으로 일본학사시찰단 일원으로 선발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일본을 시찰하는 동안 한국 경제의 낙후성과 우리의 학교 교육도 일본인 양성정책의 일환이란 생각이 들어 귀국 후 바로 사직하였다

일본 시찰 중 절감했던 법률 지식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1925년 경성법정학교 야간부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고 1928년 3월에 졸업하였다. 다음 달 4월 경성매일신문사 기자로 입사하였다가 일본인들의 배척을 받아 바로 퇴사당한 후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포천의 연조 판매소 사원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였다. 요시찰인물이었기 함경남도 영흥 강원도 양구 등 벽촌을 전전하면서 근무하였다

[안양시사2권 p 561 563] [안양시 지역유래집 p 452]

## 안양7동

### 자연자원 경관자원

#### 안양7동 주변의 안양천(1970년대)

안양천 독방길에 있는 미루나무가 하늘 높이 솟아있다. 1970년대의 안양천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고 있었다

[안양시사8권 p 24]

### 자연자원 지역자원

#### 군포옹덩이

삼익아파트 1동에서 안양천을 건너 제방에서 서쪽으로 약 50m 지점에 큰 옹덩이가 있었는데 이를 일컬어 군포옹덩이라 불렀다. 이곳에 미꾸라지 붕어 등 민물고기가 많았었다

[안양시 지역유래집 p 405]

#### 덕천교

안양7동과 비산2동에 걸쳐 있다. 덕천마을에서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12]

#### 덕천마을

주점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는 주점동과 한 마을이었다. 이곳에 사람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초에 시흥시 정왕동 출신인 원정상(元貞相)이 분가를 하면서 지금의 안양7동 213번지에 정착했고 이어 전주 이씨 장령 성씨 등이 살면서 마을이 발달되었다

이곳은 1960년대만 해도 대부분이 농경지였었다. 명학역과 주점 지하도에 이르는 경부선 철도변은 아카시아 동산이었으며 안양냉동사(안양7동 196-15) 자리는 농경지(논) 주식회사 삼풍(안양7동 199) 자리는 논과 도밭 대영모방주식회사(안양7동 196-12) 자리는 자두밭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안양7동 189) 자리는 농장이었다

이 마을이 오늘날처럼 번창하기 시작한 것은 토박이 원중만의 공로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씨는 허허벌판인 이곳에 덕천수퍼전물을 신축한 후 7동 새마을금고(안양7동 130 27)를 비롯하여 덕천초등학교(안양7동 192 5) 덕천우편취급소 등의 기관과 유수의 공장을 유지하는 데 공헌했다

이 마을 본래의 이름은 넓은 들판에 있다고 하여 벌터(圩村)라 칭했는데 77대홍수 때 안양천의 범람으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자 수재민촌(水災民村)으로 불리웠고 이 해 9월에 안양의 시내버스(삼영운수)가 이곳에 버스노선을 개설하면서 버스 안내판에 수재민촌으로 명기하자 당시 이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였던 최돈세(崔焮世)가 중심이 되어 긴급 주민회의를 개최한 결과 수재민촌이란 마을명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자 2세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자체에 새로운 마을명을 짓자는 제의가 많아 큰 하천인 안양천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덕(德)자에 내(川)자를 취해 덕천마을(德川洞)로 명명했다. 그러나 안양천의 오염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1년만인 이듬해(1978년) 9월에 이곳 어린이들이 샘솟듯이 씩씩하게 자라서 나라에 큰 일꾼이 되라는 뜻으로 큰 덕(德)자에 샘(泉)자를 취해 덕천마을(德泉洞)로 개정하고 마



은입구에 덕천마을이란 표석을 설치했다 자료에 의하면 죄 세돈씨가 덕천마을 표석을 설치하고 미장하고 있다 30여년간 까이 덕천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62]

옛날 덕천마을은 유원지 외에도 인기 있는 데이트코스로서 덕천마을의 포도밭 종족장 학교 마당 등이 있었다 특히 1963년 당시 덕천마을에는 포도밭이 준비해서 서울시민들의 내왕이 끊이지 않았고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많았다

[안양시사8권 p 331]

덕천마을에 비라도 오는 날은 버스정류장에 진풍경이 벌어졌다 서운 쪽에서 오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건너서 들어가야 하는데 길이 진장이라 발이 폭죽 빠졌다 그래서 정류장에 내려서는 신고 왔던 신발을 벗고 장화로 갈아 신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마누라 엮이는 살아도 장화 엮이는 살 수 있는 동네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

반대로 맑은 날에는 분지인데다 눈과 발이 많아서 버스가 지날 때마다 뿌연 흙먼지를 일으켜 얼굴은 들 수가 없었다 지금 다니는 10번 버스가 1977년 9월부터 개통되긴 했어도 시골처럼 교통이 불편했다

[안양시사7권 p 148]

**덕천초등학교**

안양7동 192 5번지에 소재한 학교로 1983년 7월 18일에 29학급으로 개교하고 2011년 현재 24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안양시사5권 p 56]

**덕천도**

덕천마을에 있던 덕천초등학교의 이름은 반영한 이름이다

[안양시사2권 p 387]

**동일테크노타운**

1996년에 준공한 동일테크노타운은 안양7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명학육교 아래에 있다

**동화약품**

1972년 만안구 안양7동 189번지에 동화약품 안양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덕천마을의 경계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잘나가는 제약회사가 덕천마을에 공장을 세운 것은 안양의 경사였다

[안양시사7권 p 147 148]

**명학대교**

(주)효성 안양공장 앞의 안양전에 위치해 있다 명학동에 있는 큰 다리라 하여 명학대교 라고 칭한다 종연장 90m 교폭 30m 교각 5개 높이는 7m이다 1978년 9월 26일 착공하여 1979년 8월 29일에 준공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12]

**명학역보도육교**

안양7동과 안양8동에 걸쳐 있다 1974년 명학역사를 건립한 때 함께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육교의 통과 높이는 4.3m이다

[안양시사2권 p 420]

**명학육교**

안양7동과 안양8동에 걸쳐 있는 안양경찰서 앞 명학로와 만안로에 위치한 육교다 1902-1903년 경부선 부설 때 처음 건설된 이래 1938년 경부선 복선공사 때 다리 폭은 넓혔고 다시 서울 수원간 경부선(전철) 복복선 공사로 1979년 12월 31일에 준공

되었다 육교 이름은 명학전철역과 명학동의 이름은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20]

**비산대교와 비산고가**

1975년에 준공된 비산대교는 경수산업도로와 시내 중앙로를 이어주는 중심 다리로 당시 중심지의 교통난을 크게 해소시켜 주었다 비산고가는 경부선 철도를 가로지러 농인 육교로 안양의 동서를 연결하여 안양은 양적으로 팽창시켰다

[안양시사8권 p 29]

**비산대교 건설**

안양역에서 남부시장을 지나면 안양초등학교 앞 국도 위를 가로지르며 하늘은 가로막는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끝에 비산대교가 있다 이 다리는 1975년 6월에 완공되었는데 2005년에는 양쪽 인도와 6차선 도로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간조명까지 갖춰 세련된 스타일의 아름다운 교량이 되었다

[안양시사7권 p 139]

**1973년 안양7리 새마을운동축진대회사진**

안양7리 마을에 주민들이 모여 새마을축진대회를 열고 있다 장소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진행되었다

[안양시사8권 p 240]

**수재민촌**

1977년 7월 대홍수 때 안양천의 범람으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자 수재민촌으로 불리웠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62]

**쌍용제지**

안양7동에 있던 쌍용제지 앞은 모두 밀밭이었다 이 자리에는 1992년 유전 패토피아가 들어섰다 사진은 1960년대 말 쌍용제지 공장과 밀밭이 보이고 있다

[안양시사8권 p 203]

**전파교**

안양7동에 있다 안양전에 있으며 인접해 있는 전파연구소에서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문화자원 향토설화자원**

**덕천마을 유래**

덕천마을 이름은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다

벌터 → 수재민촌 → 덕천마을(德川, 洞) → 덕천마을(德泉 洞)  
 벌터는 이 마을 초기의 이름이다 넓은 벌에 마을 터가 들어섰다는 의미다 그런데 1977년 7월 대홍수 큰 당하여 안양천이 범람하자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고 이곳은 수재민촌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977년 9월에 안양의 시내버스(삼영운수)가 이곳에 버스노선은 개설하면서 버스 안내판에 수재민촌 으로 명기하자 당시 이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였던 최돈세(崔敦世)가 중심이 되어 긴급 주민회의를 개최하였다 수재민촌이란 이름은 어감이 좋지 않고 장자 2세 교육은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새 이름을 짓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큰 하천인 안양전변에 있다고 하여 큰 덕(大) 자에 내 전(川) 자를 취해 덕천마을(德川, 洞)로 명명했다

그 후 1978년에 안양전에 오염문제가 커론되면서 전(田) 대신에 이곳 어린어들이 샘물 솟듯이 식각하게 자라서 나라에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전(泉) 자를 사용하여 덕전마을(德泉洞)로 개칭하고 마을 입구에 덕전마을 이란 표석을 설치했다 이것은 하천이 잠잠하여 더 이상 수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처럼 덕전마을은 자연마을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생긴 이읍이다  
[안양시사2권 p 337]

### 정씨(鄭氏)와 그의 제자들\_덕전마을 구비전승

한양(漢陽)에서 몰락한 양반이 홀로 시골(僻 德전마을)로 내려와서 성은 정씨이고 학문이 있어 방 한 칸 정자 한 칸으로 된 집을 구해 서당(書堂)을 내고 학동(學童)들을 가르쳤지 정씨는 학동들을 가르침에 있어 언행을 가지런히 해서 늘 학동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오고 있었어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다 하루는 정씨가 심심해서 집 앞에 배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는데 크게 자라서 배가 많이 열렸다 본래 정씨가 정성껏 키운 것이기에 배가 몇 개 달렸는 지조차도 알았다 하루는 배가 하나 떨어져 혹시나 해서 이를 날 학동들이 서당에 왔기에 누가 배를 따느냐고 추궁했으나 아무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갔다 또 어느 날 배 하나가 떨어져서 학동들에게 물어 보았으나 안 길이 없었고 자꾸 묻기도 민망해 자신이 직접 주척해보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한쪽에서 숨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조화인지 배 하나가 땅에 떨어져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 배는 굴러굴러 어느 불커진 집으로 들어 갔다 정씨는 이상한 생각에 그 집에 뒤따라 들어가니 한 가련한 처자(妻子)가 문을 열고 나오기에 이상히 여겼다 이때 처자가 말하기를 이리 들어오셔요 오늘밤 지내시고 가시면 자식은 하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정씨는 양반 입장을 생각해 화를 내며 되돌아왔다 얼마 후 정씨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돈이 없어 제사(祭事)를 못 지낼 형편에 처했다 이에 학동들이 땅을 사서 제사근 지냈으나 집이 너무 작아 인근의 절을 사서 그것을 뜯어 집을 다시 잘 지어 연연히 제사를 지내 왔다  
[안양시사2권 p 228]

### 안양7동 연혁

안양7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진군 하서면 안양리(果川郡 下西面 安養里)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7리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6동이 되었다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에 의거 안양6동을 분동해 덕전마을 지역을 안양7동이라 칭했으며 1989년 5월 1일 시조계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 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안양7동은 동쪽으로 부흥동 서쪽으로 안양6동 남쪽으로 호계2동 북쪽으로 안양1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덕전마을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으로 대부분 농경지였었다가 일제강점기 초에 시흥시 정왕동에 살던 원정상(元正相)이 분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살기 시작하자 근처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벌터(FF)라 칭했다가 1977년 7월 8일 이른바 77수해 때 안양전의 범람 후 안양시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자 주변인구의 급증으

로 크게 번창되었다  
1978년 마을의 유지들에 의해 덕전마을로 개정되었고 이듬해 5월 1일 안양6동에서 분리되어 안양7동이 되었다 지역적으로 안양전을 끼고 만안로 관악로 명학로 및 경부철도가 관통되어 1960년대부터 대 중소기업체가 들어서기 시작하여 면적의 70%가 500여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의 밀집으로 인구가 과밀하며 토작면보다 외부 유입 주민이 절대 다수인데다가 저소득층의 과다유입 빈번한 이동이 있는 지역이다 교육시설로는 덕전초등학교(안양7동 192 5) 풍명실업고(안양7동 199)가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는 노동부 안양사무소(안양7동 190 10)가 있고 아파트로는 준마아파트(안양7동 192 9) 은하아파트(안양7동 159 7) 동아아파트(안양7동 190 11)가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p 85 87]

## 인적자원 과거인적자원

### 안양7동 원주 원씨

덕전동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00년경부터이다 시흥시 정왕동에서 대대로 살아 왔던 원주 원씨 출신의 원정상이 분가한 하면서 지금의 안양7동 213번지에 처음으로 정착했다  
[안양시사2권 p 513] [안양집성촌자료집 p 84]

### 안양7동 전주 이씨

안양7동에 원주 원씨 출신의 원정상이 처음으로 이사와 정착하고 이후 전주 이씨가 살기 시작하였다  
[안양시사2권 p 513]

### 안양7동 창녕 성씨

안양7동에 원주 원씨 출신의 원정상이 처음으로 이사와 정착하고 이후 창녕 성씨가 살기 시작하였다  
[안양시사2권 p 513]

## 인적자원 현재인적자원

### 1958년 권명남, 덕전마을 사진

사진은 권명남씨의 가족사진으로 추정되며 1958년 덕전마을의 풍경이 인물 뒤로 보인다 넓은 들에 건물이 새재가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농촌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39]

# 안양8동

## 자연자원 경관자원

### 곡내전

성문여중 뒷산(관모봉)에서 발원하여 안양전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길이 730m 하폭 2m 물리면적 0.3ha이다 곡내동앞으로 흐르는 하천이라 하여 곡내전(谷內川)이라 일컫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92]

### 골안

주점동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본래 주점동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1962년에 성결대학교(안양동 산 147 1) 1971년에 성문여중(안양동 산 117 1) 등이 설립되면서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주점동에서 분리되어 골안동(谷內洞)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골안동(谷內洞)이란 관모봉(성문여중 뒷산) 골짜기 안에 형성된 취락이란 뜻이다 이곳엔 일찍이 전주 이씨와 여흥 민씨가 세거하면서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50]

### 관모봉

안양8동과 군포시 산본동에 걸쳐 있다 산세가 관모(冠帽) 모양 같이 생겨서 관모봉(冠帽峯)이라 일컫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04]

### 명학바위

안양8동 안양경찰서와 명학초등학교 사이 산등성이에 있다

### 명학봉

안양중앙병원(현 메트로병원) 뒤에 있는 산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32]

## 자연자원 지역자원

### 구 가족위생시험소 명학공원

구 가족위생시험소가 이전한 부지는 현재 명학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구 가족위생시험소가 명학공원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기까지는 10년의 세월동안 수차례 무산 위기가 있었다 만안구 도심공원 조성은 위한 안양시민의 열망은 위기를 극복하고 공원 조성운동이 시작된 지 10년 만인 2008년 6월 만안근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 조성이 시작되어 현재의 명학공원이 탄생하였다  
[안양시사4권 p 511 p 512]

### 고려장터1

구전에 따르면 안양8동 성문교회 뒤(서북쪽)에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 지역이 밤나무 등이 무성했으나 1970년대부터 택지로 개발되면서 현재의 주택단지가 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0]

### 골안공원

안양8동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면적은 10,818㎡ 이고 팔각형여퍼기 여러돈리기 복합점봉 농구대 배드민턴장 시설물이 있다  
[안양시사5권 p 455]

### 명학극장

안양7동 신진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명학역을 거쳐 안양8동 명학극장을 연계하는 육교로 만안로와 경부선 철도위를 동서로 놓여있다  
옛날에는 명학역앞에 명학극장이 있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95]

### 명학동

주점동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평산 신씨 함경 이씨 등이 처음으로 정착했다고 전해진다 예전에는 명학초등학교 아래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가 1974년 서울 수원간 전철개통과 동시에 명학역의 건설 1976년의 명학초등학교 중앙병원(현 메트로병원)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67]

### 명학성당

수원교구 안양대리구 안양1지구 명학성당은 모태가 주점리 공소(당시 시흥군 소이면 주점리)이다 주점리공소는 안양지역 최초의 공소인 수리산공소의 성인 최경환의 전교로 시작되었고 초기 하우현본당(1900)의 공소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소였다 1954년에 안양본당이 설립되면서 그 관할로 들어가게 된 주점리공소는 안양본당은 모 본당으로 하여 현재의 성당터에 성당을 신축하고 안양8동성당으로 분당 1978년 10월에 창립되었다  
[안양시사5권 p 576]

### 명학초등학교

1978년 3월 1일 명학국민학교가 13학급으로 개교하여 2010년 현재 22학급으로 발전하였다 안양8동 349 13번지에 있다  
[안양시사5권 p 50]

### 봉수정 약수

성문여중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다 관모봉(산) 봉우리 아래에 있는 약수라 하여 봉수정약수(峯水井藥水)라고 일컫는다 1988년 8월 6일에 구성된 봉수노인회가 관리하고 있다 주로 안양6 8동 주민들이 이용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08]

### 상록 약수

성결대학교에서 동쪽으로 약 50m 지점에 있다 주로 안양8동 주민들이 이용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0]

### 상록마을

안양8동 11통 지역으로 골안 동쪽에 위치해 있다 예전에는 야산으로 돈이 많았던 곳인데 동적개발의 정덕한(鄭德漢)이 30여 주택은 지은 후부터 마을이 이루어졌다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 하여 상록마을(常綠洞)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곳은 수리산 삼림욕장의 준발지가 되며 지대가 높아 선풍기가 있어도 한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만큼 최적의 주택지로 손꼽힌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78]

### 성문고등학교

1983년 11월 21일 성문여자고등학교 9학급으로 개교하여 36학급으로 발전하였다 안양8동 501 28번지에 있다  
[안양시사5권 p 129]

### 수리전 약수

만안여성회관 뒤에 있다 예전에는 주점동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되기도 했다 1993년 만안구정에 의해 새로 개발된 약수터는 샘물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으므로 인근 지역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만양시지명유래집 p 412]

### 봉용사

메트로병원 옆 약사사 위에 있다 풍수로 보아 용혈(龍穴)에 자리 잡은 사찰이라 하여 용봉사(龍峯寺)라 일컫는다 1985년에 창사되었으며 종파는 태고종이다

[만양시지명유래집 p 256]

### 약사사

메트로병원 아래에 있는 사찰로 경기도 성남시 은행동 소재 약사사의 말사(末寺)로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은 봉안한다 하여 약사사(藥師寺)라 일컫는다 1975년에 창사되었고 종파는 법화종이다

[만양시지명유래집 p 279]

### 내고장 문화논단 1985 안양문예회관

1985년 11월 15일 안양문화원이 주최한 내고장 문화논단에 소설가 김동리 선생이 초청되었다 <인본주의와 문학>이라는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는데 400여명이 참석하여 2시간 동안 대성황을 이루었다

[만양시사8권 p 170]

### 안양문예회관

현 안양아트센터의 옛날 명칭이다 안양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휴식 공간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서 안양8동에 위치해 있다

[만양시사3권 p 656]

### 안양문예회관 야외공연장

온 가족이 영화나 국악 한마당은 즐길 수 있는 200여 평의 원형 공간인 야외 공연장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여름 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축제를 제공했었다

[만양시사3권 p 697]

## 문화자원 향토설화자원

### 관모봉 유래

안양8동과 군포시 산본동에 걸쳐 있다 산세가 관모(冠帽) 모양 같이 생겨서 관모봉(冠帽峯)이라 일컫는다

[만양시사2권 p 430-439]

### 명학동 유래

속전에 따르면 명학봉이란 산명이 붙기 시작한 것은 조선 인조 때 부터라고 한다 1623년(인조 1년)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올라 후에 좌의정을 역임한 심기원(沈器遠 - 1644)이 그의 아버지 심간의 묘를 대림대학 뒤에 쓰기 위해 땅을 파는데 돌 밑에 학 두 마리가 앉아 있다가 그 중 한 마리가 명학초등학교와 안양경찰서 사이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서 울고는 어디론가 날아갔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바위를 명학바위(후에 미약바위)라 불렀고 아울러 그 산을 명학봉(鳴鶴峯)이라 불렀다고 한다

명학봉이란 산명이 문헌에 최초로 기록되기는 정조 대왕의 수원 현릉원능행에 관해 편찬된 □원행정례(國幸定例) □적후조에 林川俊峯 鳴鶴峯 以上 이라 하여 정조의 능행을 위해 명학봉에 적후를 설치하여 장교 1인과 군인 3명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이어 정조 19년(1795년)에 정조의 어머니(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수원에 있는 화성행궁에서 거행하기 위하여 이 앞을 지나가자 역시적후와 복병(伏兵)을 설치하여 장교 1인과 군인 3명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만양시사2권 p 355]

### 명학바위 유래

조선 중엽에 정풍군수를 지낸 심간(沈兼)의 묘를 쓰기 위해 지금의 대림대학 뒤를 파는데 돌 밑에 있던 두 마리 학(鶴) 중 한 마리가 이곳 바위에 날아와 울었다 하여 명학(鳴鶴)바위라 일컫는다 이 바위로 인해 명학동 명학역 명학대교 명학봉 등의 명칭이 탄생되었다고 한다

[만양시지명유래집 p 342] [만양시사2권 p 481]

### 명학봉 유래

안양8동 성결대학교를 지나 성문중고등학교와 메트로병원 뒤에 있는 산이다 1623년(인조 1년)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올라 후에 좌의정을 역임한 심기원(沈器遠 - 1644)이 그의 아버지 심간의 묘를 대림대학 뒤에 쓰기 위해 땅을 파는데 돌 밑에 학 두 마리가 앉아 있다가 그 중 한 마리가 명학초등학교와 안양경찰서 사이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서 울고는 어디론가 날아갔다고 한다 아울러 그 산을 명학봉(鳴鶴峯)이라 불렀다고 한다

[만양시사2권 p 439]

### 안양8동 연혁

안양8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현서면 안양리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7리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규 제2597호에 따라 시로 개편되면서 안양6동이 되었다

1985년 11월 15일 시 조례 제739호에 의거 안양6동을 분동해 명학동 곡내동 상록마을의 지역을 안양8동이라 정했으며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파출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만양시지명유래집 p 87 89]



# 안양9동

## 자연자원 경관자원

### 가능골

담배촌 소재 집뒤곶과 병풍골 사이에 있다 곤짜기가 어찌나 좁고 가는지 예전에 담배촌 주민들이 입담배 큰 지게에 걸머지고 이곳을 지나지면 호랑이가 지게에 달린 바소구리(짜리로 만든 삼태기)를 잡아 당겼다는 우화가 구전되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4]

### 갈미봉

담배촌 큰 골 위에 있다 이 산 서북쪽에 있는 산은 수암봉이고 동남쪽에 있는 산은 태양산이다 산 정상에는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전지개벽할 때 산봉우리가 갈매기의 꼬리만큼 남았다하여 갈미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04]

### 개미골

송쟁이골 서쪽에 있다 개미같이 작은 곤짜기라 하여 개미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5]

### 굴뚝골

굴뚝처럼 좁고 길게 생긴 골짜기로 담배촌 안골 서쪽에 있다 골짜기 조입에 경기도 임업 시험장 관리 사무실이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6]

### 노랭이골(굴)

조선시대 어느 전란 때 어떤 사람이 이곳에 피신했다가 불이 나자 노랗게 타 죽었다는 고사가 전해지고 있다 굴뚝만 남쪽에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6]

### 노적봉

율문동 뒤에 있는 산으로 곡식을 쌓아둔 노적가리처럼 생긴 산이라 하여 노적봉이라 부른다 1933년과 1934년 『신가정(新家庭 여성동아의 전신)』과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전국 부인 밤 즐기 대회가 개최되어 밤의 명산지로 이름이 났으며 산정에는 잠나무가 있어 이곳 원주 원씨가 가문의 안정을 위해 해마다 지성을 드렸으나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인근의 주민들이 떨감으로 베어갔다 산중턱에는 1983년에 안양예술고등학교가 세워졌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30]

### 도장골

지루골 남쪽에 있으며 뗏골과 지루골 사이에 좁고 길게 생긴 골짜기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7]

### 뒤뜸이 고개

담배촌과 안산시 수암동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일제시대 때 안양 박달동 안산시 수암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안양과 안산길을 왕래하는 큰 통로였다 조선시대에는

작은재(小嶽)라 불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6]

### 등잔골

병풍골 서쪽에 있는 곤짜기로 옷말 안산내미골과 병풍골 사이에 있다 등잔처럼 저운은 좁으나 뒤는 넓게 생겼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8]

### 문동바위

장박골과 병목안 사이에 있는 삼거리 삼오상회에서 남쪽으로 약 1km 지점에 있었던 바위로 예전에 나무꾼들의 쉼터로 이용되었으나 1970년대 장배근이 별장을 신축하면서 죽대안에 파묻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2]

### 문바위

수암봉과 담배촌 중간에 두 개의 바위가 있는데 하나는 지붕 형상은 또 하나는 문처럼 생겼는데 이른 문바위라 부른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3]

### 문바위골

수암봉과 담배촌 사이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 이곳에 문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이 인대른 문바위골이라 부른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0]

### 병목안 삼림욕장과 석탑

병목안은 마을의 지세가 조입은 좁으나 안으로 들어서면 골이 깊고 넓어 병목과 같다고 하여 예로부터 불리워진 안양9동의 명징이다 계곡이 깊고 경치가 수려하며 맑은 물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병목안 삼림욕장 석탑은 주변의 쓸모없는 돈무더기들을 이용해서 자연의 조화와 인공의 미근 살린 수리산 삼림욕장의 명물이며 이정표 역할을 한다

[안양시사6권 p 666]

### 병목안시민공원 인공폭포

병목안시민공원에 설치된 인공폭포로 멋진 경관은 연출한다 길이 65m 넓이 95m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인공폭포로 동굴 징검다리 등은 설치하여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안양시사3권 p 650]

### 비지개골

장박골 뒤(서쪽)에 있다 이곳에 빗돌(碑石)이 있어 비지개골 또는 비재골이라 불렀다 이 골짜기에서 서쪽으로 넘어면 박달동 선녀골에 이른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2]

### 삿갓바위

수리산 삼림욕장 입구 오른쪽에 있는 바위로 삿갓처럼 생긴 거암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7]

### 서울제지발전

서울제지에서 발원하여 수암전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길이 450m 하폭 3.5m 물리면적 1ha이다 발원지인 서울제지에서 하천명은 취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96]

### 송지골

송정이골 서북쪽에 있다 이곳은 산세가 험해 소나무가 많아 소나무 줄기에서 분비되는 수지 즉 송지가 많으므로 송지골이라 한다 일설에는 조선시대 송지의 벼슬을 지낸 분의 묘가 있어 송지골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송지란 조선시대 송지원의 도송지 좌송지 우송지 좌부송지 우부송지 동부송지를 총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2]

### 송쟁이골

담배촌 조입 서남쪽에 있다 송정승이 살던 곳이라 하여 송정승골이라 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송쟁이골로 불리운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3]

### 송정내미골

담배촌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을 넘으면 군포시 산본동 골안에 이른다 1950년대 까지만 해도 담배촌 주민들이 군포장(또는 군포시장)을 보러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했다 한국전쟁 직후 경기도 입업시험장에서 조립을 실시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3]

### 수리바위

수리바위골 중앙에 있는 바위이다 독수리의 서식처라고 한다 광복 직후 군포시 금정동 주민이 이곳에서 나무를 하다가 실족사(失足死) 했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8]

### 수리바위골

담배촌 송정내미골 서남쪽에 있다 골짜기가 좁고 급경사 절을 뿐만 아니라 음침하고 험준해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골짜기 중앙에 수리바위가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3]

### 수리산

안양시와 안산시 장상동과 군포시 산본동 및 속달동에 걸쳐 있는 산 해발 474m이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충환(李忠煥 1690~1756)은 그의 저서 「택리지(澤里志)」에서 수리산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중주의 서쪽은 경기도의 죽산 여주와 경계한다 죽장의 절장산은 기호(畿湖)경계에 우뚝 솟았고 서북으로 뻗어 수유현(水踰顯)에서 크게 끊어져 경지가 된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 용인의 수이산(修李山)이 되어 서해로 들어간다 고 하여 수리산이 광주산맥의 한 자락임을 밝히고 아울러 수리산을 또 다른 이름으로 수이산(修李山)임을 기록하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42]

### 수암봉

안양시 안양9동과 안산시 수암동에 걸쳐있다 해발 395m 높이의 산이다 수리산의 연봉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44]

### 수암전

수리산의 연봉인 수암봉에서 발원하여 안양3동과 안양2동을 거쳐 안양대교에서 안양전과 합류되는 하천이다 총연장 5.5km에 폭은 20m에 이른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96]

### 시계능골

시계능골이란 야생풀이 많이 자생한다고 하여 시계능골이라고 한다 1977년에 안양전문대학(현 안양과학대학)이 들어섰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5]

### 신부골

병목안 서쪽에 있는 골짜기 본래 농경지였었는데 1969년 민가가 생기면서 새마을로 불리고 있다 예전에는 한글로 신부골이라 칭했는데 병목안 주민들이 농사꾼 잘 지어 부자마을이 되라는 의미로 새 신(新)자와 부자 부(富)자를 취해 신부골(新富谷)로 호칭하기 시작 했다고 한다 한 때는 병목안과 신부골 일대를 통칭해 신부동으로 명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까지 했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5]

### 안산내미골

담배촌과 수암봉 사이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담배촌 병목안 주민들이 안산장(수암시장으로 안산시 수암동 개다리에 있었음)을 보러 갈 때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했다 보통 안산골(案山谷)이라 한다 일제 때 안양 뚝고개 안산간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주요 교통로였으나 광복 직후부터 폐로가 되어 잠복만 무성하다 안산내미란 안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란 뜻이라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5]

### 약사골

안양과학대학 안양여상 안양서초등학교 등이 위치한 곳으로 예전에 사찰이 있었다가 빈대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전해진다 이곳의 약수가 피부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5]

### 웃능골

병목안 서쪽에 있다 예로부터 명당지(明堂之地)라고 전해진다 이곳에 고종과 밤나무가 많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8]

### 웃말 안산내미고개

등잔골 서쪽으로 안산시 수암동과 담배촌 사이에 있는 고개 예전에 담배촌 주민들이 안산장(수암장)을 이용할 때 또는 안산읍에 사는 전주교 신자들이 담배촌에 있는 수리산공소에 예배를 보기 위해 이용했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0]

### 작은창배안골

예비군 교육장 정문일대를 말하며 큰창배안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0]

### 작은태양산골

큰태양산골과 송정내미골 사이에 있는 좁은 골짜기 큰태양산골 아래에 있으므로 작은태양산골이라 하며 일명 작은태양산골이라 부른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0]

### 접시골

접시처럼 둥글게 생긴 골짜기 담배촌 소재 기도원에서 구도로

약 50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2]

**지붕바위**

문바위골에 있다 지붕처럼 큰 바위라 하여 지붕바위라 한다 이 바위 옆에 문바위가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50]

**집뒤골**

수리바위골 남쪽에 일제시대 때 초가 두 집이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집뒤골이라 부른다 이곳에 유명한 약수가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3]

**치루골**

안양재식장은 지나 동이점 입구에 있다 이곳에 7가지 보배스러운 것이 있어 치루골이라 한다 또 골짜기 칠리(七里)가 되므로 칠리골이라 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치루골로 불리고 있다는 설도 있으나 7리가 될 만큼 길지는 않다 예전에는 안양 일대의 주민들이 이곳의 구들장을 채석해 방구들을 설치했다고 한다 지세가 수려해 안양시에서 1989년 수리산 삼림육장이 개설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3]

**큰골**

담배존에서 제일 큰 골짜기 담배존 남쪽에 있다 이곳을 넘으면 군포시 속달동 소재 수리사에 이른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4]

**큰장배안골**

장박골 서남쪽으로 이곳에 장바위가 있으며 현재는 예비군 교육장이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5]

**큰태양산골**

작은태양골 동쪽으로 태양산 낙백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이곳에 성인 괴경환의 묘(묘는 1930년에 명동성당으로 전묘되었고 현재는 서울 절두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가 있으며 남쪽은 군포시 산본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5]

**태양산**

수리산의 연봉으로 담배존에서 제일 큰 산이다 담배존 동쪽에 있어 이 산 능선은 따라 해가 뜬다 예전에는 이곳 주민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 봉화를 올렸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46]

**햇골**

동이점 남쪽에 있는 넓고 긴 골짜기이다 삼림이 울창해 낮에도 햇빛을 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햇골이라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6]

**후두미동(현 병목안)**

후두미동(後頭洞)은 현재 병목안이라고도 불리는데 마을의 지세가 병목처럼 입구는 좁으나 안쪽은 깊고 넓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중환의 택리지의 내용 중 북겨총군에서 말하는 난을 괴할 수 있는 괴병지(魁兵地) 사회가 혼란한 때 사대부

가 숨어 살 만한 곳인 괴세지(避世地)로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안양시사1권 p 107 108]

**후두미전**

후두미동에서 발원하여 수암천에 유입된다 길이 520m 하폭 4m 물리면적 0 1ha이다 발원지인 후두미동의 마을 명칭을 따서 후두미전이라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1]

**자연자원 지역자원**

**77수해 울목마을**

1977년 수해 당시 안양9동 울목마을에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안양시사8권 p 349]

**가재골과 탁족(濯足)**

1970년대 초반 해도 민가가 드물어서 계곡의 최상류 골짜기는 물이 수정처럼 맑았다 왕래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지 않아 골짜기에서 탁족(濯足)을 했다 그 골짜기를 가재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이 맑아 일급수에 사는 버들지 가재 물메기 등의 어종은 요즘도 가끔 볼 수 있다  
[안양시사7권 p 168]

**공원교**

수리산길 노선에 해당하며 수암천에 있다 공원과 인접해 있으므로 공원교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수리산 노랑바위의 전설**

옛날 옛적 늦도록 자식을 얻지 못한 어느 임금이 지성을 드러 말년에 왕자큰 얻었다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나자 왕족들이 궁궐을 떠나 강화도로 피난을 떠나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전복되고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 왕자를 업고 헤엄쳐 나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수리산 중턱이다 며칠은 굶은 왕자를 위해 거북이가 음식은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다 그러나 왕자는 거북이가 자신은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오해된 하고 분한 마음에 바위탄 한껏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순간 전지른 뒤흔드는 평음과 함께 바위가 무너져 왕자를 덮었고 막 음식은 구해서 돌아온 거북이도 함께 숨을 거두었다 왕자가 그 자리에서 노란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 후부터 왕자의 피가 흐른 바위를 노랑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안양시사7권 p 268]

**능곡약수**

안양서여자중학교에서 동남쪽으로 학교 담과 붙어 있다 옷이 오르면 특효가 있다고 하여 일명 옷우문이라고 부른다 1989년 1월에 조직된 능곡회가 관리하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06]

**능골**

현 안양서여자중학교 뒷산이 흡사 능의 환개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능골이라 한다 일설에는 조선조 제21대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생전에 내가 죽으면 연은 띄워 떨어지는 곳

에 묻어 달라 유언은 하며 연을 띄웠는데 그 후 신하들이 연 떨어진 곳을 살펴보니 그곳이 바로 능골이었다는 것인데 그 후부터 능 후보지였다는 연유로 능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은 구전에 불과할 뿐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산능성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담안(안양4동)에서 이 마을은 바라볼 때 산등성이 너머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능골로 붙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57]

### 능골 대리석 십자가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능골에서 1979년 안양서여자중학교를 신축할 때 대리석으로 된 대형 십자가가 출토된 것을 이 학교 화장실 부근에 묻었다고 하여 1996년 12월 안양시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57]

### 담배촌

담배촌은 후두미동(현재 병목안)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와 골짜기 깊숙한 곳에 뒤뜸이라는 곳이 있었다 본래 아무도 살지 않는 뒤뜸이는 조선 후기 전주교 박해를 피하기 위해 전주교인들이 들어와 정착한 마을이다 일제시대 지도에는 신촌(새말)이라 적혀있고 담배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한 탓에 사람들은 담배촌으로 불렀다

[안양시사1권 p 108 203]

### 담배촌교

안양9동 수암전에 위치한다 담배촌에서 이름은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도예교

안양9동에 수암전에 위치한다 담배촌 아래 지역에서 도자기 글 구웠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동이점터

안양재석장 자리에 조선 말엽부터 동이를 구워오다가 1930년대 초에 재석장개장(1989년 폐장)으로 폐점되었다 현재도 길 그릇 파견 등이 출토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8]

### 만남의 다리

안양9동 병목안시민공원 입구에 있으며 수암전에 위치한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밤 줍기 대회

1933 1934년에는 동아일보의 여성 월간지 「신가정」 발간 기념으로 노적봉에서 전국여성 밤 줍기 대회(습물 대회)를 개최했다 안양은 밤의 명소로 고구려 때는 울묵이라고 불렀다

안양3동 번원신 씨에 따르면 안양9동 19동 20동에 속하는 마을은 밤나무밭으로 불렀다고 한다

[안양시사7권 p 195 198]

### 밤 줍기와 근대 여성의 영향관련 기록

1928 1929년에는 조선일보가 1933 1934년에는 동아일보 신가정에서 주최한 부녀자 밤 줍기 대회(습물 대회)가 안양에서 열렸다 울림에 이르니 안양 일대는 자못 여자만의 세계인 듯하다 라고 당시 조선일보는 기록하고 있다

[안양시사7권 p 198]

### 백영약수

수리산 삼림욕장 석탑에서 남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다 안양4 9동 주민들과 등산객이 주로 이용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07]

### 병목안

새마을교에서 안양 재석장에 이르는 지역으로 마을의 지세가 병목처럼 마은 초입(새마을교)은 좁으나 마을에 들어서면 골이 깊고 넓다하여 병목안이라 부르며 조선시대에는 수리산 뒤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뒤뜸이(後頭尾)라 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72]

### 병목안 6 25 격전지

수리산 일대는 6 25전쟁 당시 대단한 격전지였다 산간 오지의 마을이라 그 당시에 인민군 본부가 주둔하기도 했다

[안양시사7권 p 168]

### 병목안 동네인 범배

서울교구장 뮈텔(閔德孝 아우구스티노) 주교도가 서울에서 왕림본당으로 사목방문을 가는 길에 수리산 공소를 방문한 사실이 그의 1881년 일기에 나온다

6월 11일 가마를 타고 갖등이로 떠나다 우리는 노들과 시흥을 통과하여 저녁 때 산밀 용기촌 마을에 이르렀다 두세 신부가 말을 타고 동행하였다

6월 12일 질식할 정도로 웅색한 산밀 공소에서 미사와 견진성사 갖등이로 떠날 성대한 환영을 받다

6월 15일 갖등이를 떠나 뒤뜸이로 향하다 저녁 때 잠시 수리산 마을을 방문하다 햇불을 들고 용기촌으로 돌아오다

위에 등장하는 산밀 공소는 당시의 시흥군 남면 하산분리(현 군포시 산본동) 공소로서 신자들이 용기를 구우며 생계를 유지하던 교우촌이다 공소 설정연대는 1890년이다 담배농사와 함께 교우들의 주 생업이었던 용기점은 수리산 병목안 동네인 범배에도 있었다

[전주교 창대동교회사 p 67]

### 병목안과 절길

일제강점기 때는 수리산에 들을 캐는 석산이 있어 절로가 농이기도 했었다

[안양시사7권 p 168]

### 병목안길(보조간선)

만안로에서 병목안삼거리에 이어진다 병목안의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384]

### 새마을

병목안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농경지로 처음에는 신부밭으로 불리다가 1969년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마을로 개칭되었다 시흥군 안양읍 당시 공설운동장 설치 계획을 세웠다가 협소하다 하여 신 안양리 신촌(현 럭키아파트 자리)에 조성되었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79]

### 새마을교

안양9동 새마을 진입로에 있는 다리이다 마을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석탑교

안양9동 수암전에 위치한다 근처에 두 개의 석탑이 있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성지교

안양9동 수암전에 위치한다 전주교 순교자 최경환 성지와 관련하여 종교적인 의미가 가미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수리교

안양9동 수암전에 위치한다 수리산에서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수리산 조선시대 이름 역적산 또는 귀양산

조선시대 조엽에는 역적산(逆賊山) 또는 귀양산(歸養山)으로 불렸다는 수리산은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성인의 한분인 최경환과 그 부인 이상례가 지명하기 전 생애의 마지막으 보낸 유서깊은 교우촌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53]

### 수리산약수

수리산 줄기에 있다 하여 수리산약수라 한다 또 담배준 옷말(공군부대)에 있으므로 옷말약수라 부르기도 한다 걸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약수를 마신 후 혼자 걸어갔다고 할 만큼 효험이 있다고 한다 체육시설 조성면적 50㎡로 수리산사인회(1983년 5월에 구성됨)가 관리하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2]

### 수리산 전투

6.25전쟁 당시 수리산 전투는 1951년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전개되었다 미군 제8군의 서부전선은 담당할 미군 제1군단의 600여명, 미군 제25사단 제35연대 터키 여단으로 편성된 공격제대는 1월 31일부터 안양 남쪽의 수리산과 모락산은 공격하였다 수리산은 영등포로 통하는 국도와 반월리(半月里)를 거쳐 소사 또는 인천으로 통하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고지였다

첫날 수리산 부근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을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쉽게 무전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중공 제150사단과 주야로 수리산의 주인이 바뀌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은 펼쳐지게 되었다 사단은 적의 계속되는 증원과 야간 공격 수류탄 공격은 물론 터키 여단과의 언어 장애로 말미암아 협조된 공격이 부진하자 사단 예비인 미제 27연대 큰 터키 여단 쪽으로 투입하여 수리산 일대의 일부 진지를 점령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때 국군 제15연대도 31일 미국 전차의 지원 아래 2개 대대 병진대 형으로 모락산은 공격하였으나 미군 제35연대의 수리산 공격이 지연되어 일시 방어 태세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격 개시 5일 만에 지열한 백병전은 지른 끝에 이른 점령하였다

[안산시 디지털안산문화대전]

### 수리산전투 상황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1권에 수리산전투 상황도가 우군과 아군의 공격과 이동 경로 적진지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다

[안양시사1권 p 277]

### 수리산공소

수리산공소는 안양 장내동성당(현 중앙성당)이 건립되기 이전에 1888년에 본당이 된 왕림본당의 관할아래 있다가 1900년에 하우현성당에서 관할했었다 수리산공소는 1954년 9월 7일에 안양 최초의 본당인 장내동 성당이 되었다  
[안양시사5권 p 569]

### 중앙성당 1889 수리산 공소와 한 노인 예배자 스토리

왕림 본당 앙드레 야코보 신부가 1889년 가을 관공 때 수리산 공소에 가서 본 한 노인 예배자에 관한 소박한 이야기로서 당시의 신자들의 열성이 어떠한가 잘 말해 주고 있다 마지막 공소인 수리산에서도 한 예배자가 교우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예배자는 안산(安山)에 사는 83세의 할머니였습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세례 받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만이 내가 수리산에 오는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날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어머니 몰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우선 가서 신부님은 뵈고 어머니의 세례문제를 신부님과 의논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는 것을 알아채고 멀쩡 감지 뒤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안산읍에서 수리산 동네에 내려온 후 아주 험한 산을 손바닥 만한 소리로 몇 번은 오르내려야 하는데 노인은 그런 것은 상관지 않고 지팡이 든 짚고 숨을 헐떡이며 산을 기어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폭설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구사일생으로 해질 녘에 수리산에 도착한 이 노인을 보고 교우들은 어안이 병병하여 할머니 언세로 어떻게 눈이 오는 산은 올라오셨나요? 라고 묻자 노인은 성세된 받으러 오는 데 어려움이 어디 있던 말이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하고 대꾸했습니다

내가 그 노인에게 세례를 주었던 노인은 대단히 기뻐하며 아들 며느리와 함께 오던 길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67]

### 중앙성당 1889년 현재 공소와 신자수 131명 현황 자료

1889년 당시 왕림 본당 설정 초기의 본당 관할구역은 봉담면의 가마리와 독정리 왕림리로서 이 세 동네의 신자수는 230명이었으며 과전군 수리산(하서면 후두미동 수리산) 131명이다 수리산 공소는 왕림 본당의 20여 공소 중 신자수 100명 이상의 큰 공소였음을 알 수 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67]

### 중앙성당 1881년 수리산 공소 뒤편 일기 내용

서울교구장 뒤편(閔德孝 아우구스티노) 주교도 서울에서 왕림 본당에 사목방문은 가는 길에 수리산 공소를 방문한 사실이 그 이 1881년 6월 11일 12일 15일에 나온다 일기에는 수리산 뒤편이와 웅기촌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68]

### 중앙성당 1980년대 1985년부터 시작된 수리산 성지 개발 사업

수리산 성지 개발 사업은 1986년 12월 2일 교일 본당 박상태(박오로)의 책임하에 풍익대 학교 조소과 학생들은 동원 수리산 공소에서 성로 14저상 조각작업은 시작하여 1987년 3월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55]

**중앙성당 1980년대 1987년 5월 수리산 성모상 건립**

1987년 5월 수리산에 성모상이 건립되어 최경환(프란치스코) 성인의 후손인 원주교구 최기식(베네딕도) 신부가 축성하였다 이 성모상은 성인의 후손들이 건립한 것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158]

**중앙성당 하우현 본당 관할 공소 중 수리산공소 자료**

왕립 본당 관할 공소 중에서 1896년에 미리내(美山里) 공소가 첫 번째로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초대 본당신부는 강도영(마르코) 신부였다  
그리고 1900년에는 그 옛날 광주부 의곡면의 한 부락이었던 정계리 하우현(하우고개)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어 수리산 공소도 이 본당에 속하게 되었다 하우현은 행정지역의 개편으로 광주군에서 수원군 의왕면에 편입되었다가 그후 시흥군 의왕읍에 속하게 되었다 안양에서 하우현까지 거리는 20여 리다 1921 1922년간의 하우현 본당 관할 공소에는 시흥군 수리산(서이면 안양리)로 되어 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75 76]

**수리산도예연구소**

1996년 9월 단국대 도예학과 김석환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졸업생들이 함께 만들었다 대지 1 500평에 전시실 및 실습동 전통 장작가마와 현대의 가스가마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올창한 숲과 어우러진 넓은 대지 위에 각종 도예작품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안양시사3권 p 659]

**수암교**

수리산길 수암전에 위치한다 원래는 금용2교였지만 수암교로 변경했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신안약수**

신안초등학교에서 서쪽으로 약 50m 지점에 있다 주로 안양 3 9동 주민들이 이용하나 수원이 시원지가 많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3]

**신안중학교**

안양9동 728번지에 위치한다 1980년 1월 4일에 18학급으로 설립인가 되었다  
[안양시사5권 p 98]

**신안초등학교**

안양9동 730번지에 위치한다 1977년 12월 30일에 설립인가 되었다  
[안양시사5권 p 51]

**신양지약수**

양지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져 있다 주로 안양9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1일 이용자는 약 100명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4]

**안골**

담배촌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양9동 13통에 속해 있으며 정주 한씨와 하동 정씨의 세거지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도자기를 굽던 곳으로 마을의 지세가 아늑하고 물맛이 좋아 사람살기 좋은 곳이라 하여 안골 이라 한다고 하나 수

리산 골짜기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안골 이라 부른다는 설도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서울대 국문과 장덕순(1922 1996)교수가 이곳 윤모 씨의 주택과 토지등 매입해 요지(空地)를 설치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87]

**안양9동 야학 장소**

안양역 동학생회 학생들은 문맹퇴치 운동에 참여하면서 야학 활동을 했는데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현재 안양9동 프라자 아파트 자리에 있던 회관에서 열었다 3명씩 분담하여 상급반과 하급반으로 나누어 지도했다  
[안양시사7권 p 184]

**안양서여자중학교**

안양9동 728번지에 위치한다 1979년 1월 3일 18학급으로 설립인가 되었다  
[안양시사5권 p 97]

**안양서중학교**

안양9동 1055 3번지에 위치한다 1989년 1월 26일 36학급으로 설립인가 되었다  
[안양시사5권 p 104]

**안양양지초등학교**

안양9동 77 1번지에 위치한다 1988년 2월 6일 설립인가 되었다  
[안양시사5권 p 63]

**양능교**

양지마을과 능곡마을에서 한 자씩 따와서 합성한 이름이다 노적봉길 선상 수암전에 있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원광사**

장박골에 있다 모가 나지 않고 등글게 빛내며 중생을 계도하는 사찰이므로 원광사라 한다 종과는 태고종이며 1981년에 창사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83]

**1960년대 울목교**

1960년대 수암전에 위치한 울목교의 다리는 한 사람만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다리였다  
[안양시사7권 p 앞 사진집]

**울목1교**

안양예술고등학교 정문에서 서쪽으로 약 100m 지점인 울목동 양지빌딩과 프라자아파트 202동 203동에 걸쳐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85 386]

**울목2교**

울목동(1977년 7월 대 홍수 때 산사태 난 곳)에서 프라자아파트 205동 사이에 있는 다리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85 386]

**울목3교**

새마을교와 울목이교 사이에 있는 다리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85 386]

**율목교 개통식 관료들(1960년대 중반)**

1960년대 수암전에 있는 율목교 개통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당시 안양읍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함께 개통식 축하를 했었다.  
[안양시사8권 p 27]

**율목동**

안양9동 19통 20통에 속해 있는 마을로 노적봉의 산세에 따라 동서로 길게 생겼다. 밤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율목동이라 하고 있는데 1933년과 1934년에는 전국 부인 밤줍기대회가 열릴 만큼 밤의 명산지로 유명했던 마을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9]

**1960년대 율목마을 사진**

1960년대 율목마을의 집들은 수암전변 가까이 있었고 사람들은 수암전변에 있는 작은 길로 지나다녔다.  
[안양시사7권 p 155]

**장수전약수**

안양서여자중학교에서 동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다. 주로 안양3동 안양9동 주민들이 이용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5]

**창박골**

안양9동 10통에 속한 마을로 병목안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 유래에 대하여 설이 구구한데 2가지 설이 있다. 첫째 이 마을이 산골이라 바위가 많은데 이곳 바위의 색깔이 유독 푸른 심정색이라 하여 장박골이라 불렀고 둘째 안양예비군교육장 서쪽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 마치 창과 같다 하여 창바위라 불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99]

**장암약수**

본래의 명칭은 장박골약수로 예비군훈련장 옆에 있다. 일제시대에는 장박골 주민들이 산신제는 지내던 곳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5]

**수리산 성지 성로14처, 십자가의 길 14처**

1986년 12월 2일 포일 본당 박상태(박오로)의 책임하에 홍익대학교 조소과 학생들을 동원 수리산 공소에 성로 14저상 조각 작업은 시작하여 1987년 3월에 설치된 완료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 제1편 사진첩]

**수리산성지터**

안양 최초의 전주교 전래로 알려지고 있는 죄경한이 신자 60여명과 함께 교수존을 형성하였는데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 때 순교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33]

**칠조사**

병목안 소재 한창당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범상종으로 1982년에 장사되었다. 칠조사의 칠(七)은 행운의 복두칠성을 뜻하며 조(冢)는 새로운 것은 창조하는 아침을 의미한다. 즉 아침에 일어나 예쁜 옷을 올리면 행운과 기쁨이 함께 온다고 하여 칠조사라 칭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84]

**팔팔약수**

백영약수에서 서쪽으로 약 50m 떨어져 있다. 주로 안양9동 주민들과 등산객이 이용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7]

**폭탄저리장 저지운동**

수원시 파장동에 설치된 폭탄저리장은 병목안 수리산 서쪽 중턱에 새로운 폭탄저리장을 설치하기로 결정된 뒤 공사는 하기 위해 필요한 시멘트를 옮겨다 놓은 일이 있었다. 이를 알게된 주민들이 1969년 11월 적극적인 저지운동에 나섰다.  
[안양시사7권 p 170-172]

**효달암**

채석장 정문에서 서남쪽으로 약 350m에 있는 사찰로 1970년에 장건되었다. 이 절은 1968년경 박중규가 신병을 치료자 계룡산 자연동굴에서 49일간 불공을 드리는 도중 어느 날 갑자기 섬광이 비취더니 불지의 병이 지유되어 아호를 효달이라 하였고 아울러 사찰 이름도 그의 아호를 취해 효달사라 칭하였다. 종파는 원효종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85]

**후두미교**

병목안 입구에 있는 절교로 일제시대 때 채석장을 설치하면서 절도부설과 함께 나무다리로 가설되었다가 1966년에 다시 나무다리로 가설되었고 이어 1990년에 화장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91]

**1960년대 후두미다리**

1960년대 후두미다리 뒤편으로 보이는 수리산 자락의 풍경은 반이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모두 주택단지로 변했다.  
[안양시사7권 p 앞 사진첩]

**문화자원 시설자원**

**관음사**

창박골에 있는 사찰로 1975년경에 장사되었다. 종파는 조계종이다. 관음사란 사명은 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의 협시로서 부처님의 교화를 돕고 있는 관세음보살에서 취한 것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50]

**병목안시민공원**

병목안시민공원은 안양9동에 10만 1 238㎡(3만 624평) 규모로 자리 잡은 병목안시민공원은 2006년 5월 24일 개장했다. 이곳 삼거리 부근에는 1930년부터 1980년대까지 철도정에서 철도용 자갈을 채취하던 채석장이 있어 생산된 자갈이 경부선 복선과 수인선 철도를 부설하는 데 사용되었다. 공원 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기차길과 자갈 화물차량 전시장을 마련하여 철도용 자갈은 실어 나르기 위해 병목안에서부터 안양역까지 연결되었던 철로인 일부 복원하면서 철도용 자갈을 실어 나르던 화차 2량도 전시하였다.  
[안양시사3권 p 650]

**문화자원 향토설화자원**

### 개미골 유래

안양9동 송쟁이골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개미처럼 작은 골짜기라 하여 개미골 이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41-457]

### 굴뚝골 유래

안양9동에 담배촌 안골 서쪽에 있다 좁고 길게 생긴 골짜기의 모양이 굴뚝과 같다 하여 굴뚝골 이라고 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노랭이골(굴) 유래

안양9동 굴뚝골 남쪽에 있다 조선시대 어느 전란 때 이곳에 피신했다가 불이 나서 노랗게 타 죽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노적봉 유래

안양9동 울목동 뒤에 있는 산이다 마치 곡식을 쌓아 둔 노적이 리처럼 생긴 산이라 하여 노적봉 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30-439]

### 능곡천 유래

안양9동 능곡에서 발원하여 수암천에 합류된다 발원지인 능곡에서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58-462]

### 담배촌 유래

담배촌은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1821-1861)의 아버지 최경환 성인은 비롯한 전주교도들이 조선 후기 전주교 박해근 피해 1837년(헌종 3년) 7월 이주해 오면서 담배를 경작하여 생계를 이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양시사2권 p 241 367]

### 도장골 유래

안양9동 지루골 남쪽에 있으며 햇골과 지루골 사이에 좁고 길게 생긴 골짜기이다 그 모양이 도장과 같다 하여 도장골이 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동이점골 유래

안양9동 담배촌에 속한 골짜기로 예전의 재석장과 지루골 사이에 있다 조선 말기에 동이근 굽던 곳인데 골이 짧고 평평하다 동이는 향아리근 굽던 곳이라는 뜻이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뒤뜸이고개 작은재

안양9동 담배촌과 안산시 수암동 사이에 있는 고개다 조선 시대에는 작은재라 했다 뒤뜸이란 후두미의 손 우리말이며 후두미에서 따온 이름이다 박달동 안산시 수암동은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안양과 안산을 왕래하는 큰 도로였다  
[안양시사2권 p 466-472]

### 등잔골 유래

안양9동 병풍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다 등잔처럼 앞은 좁고 뒤는 넓게 생긴 형상을 반영한 이름이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문바위골 유래

안양9동 수암봉과 담배촌 사이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로 문(門)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이 일대를 문바위골 이라 부른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병목안 여러지명 자료

여섯 살 때 수리산 기슭 병목안으로 이사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조종성 용(81세 안양9동 거주)이 전하는 병목안의 여러 지명을 살펴보면 수리산 한중막이 있는 일대는 담배골 병목안 석탑 가는 길목을 지록골 성지 바로 앞 동네가 안골 입입 시험장 사무소 부근이 굴뚝골 성당이 있는 위쪽이 송쟁이골 공군부대 오르기 직전이 고욤나무골 예비군 훈련장이 장박골이다  
[안양시사7권 p 166]

### 병목안 유래

병목안은 안양9동 새마을교에서 옛 재석장에 이르는 지역이다 병목안 유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마은의 지세가 병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여된 이름이다 둘째 수리산 뒤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하여 뒤띠미 혹은 뒤뜨미로 일컬으며 한 자로는 후두미동(後頭尾洞)이라는 설이다 셋째 2006년 새물계 재룩한 것으로 군사촌 모집하는 기관이라는 뜻으로 병모관(兵募關)이라는 설이다  
[안양시사2권 p 340]

### 병풍골 유래

안양9동에 있다 골짜기가 병풍을 두른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병풍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비지개골, 비재골 유래

안양9동 장박골 뒤(서쪽)에 있다 이곳에 빗돌(碑石)이 있어 비지개골 또는 비재골 이라고 불렀다 이 골짜기에서 서쪽으로 넘어면 박달동 선녀골에 이른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수리산 전설

이 산에는 아직까지도 조개껍질과 굴껍질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유는 아주 오랜 옛날 전지개벽 때 세상의 온 전지가 물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의 맨폭대기가 빙아리를 잘 채어가는 수리가 앓을 정도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산을 가리켜 수리가 앓을 정도의 공간만 남았다고 해서 수리산이라 불렀고 그때 물에 잠겼던 곳에는 조개껍질과 굴껍질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안양시사2권 p 244-246]

### 새마을 유래

안양9동 병목안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농경지 마을이다 처음에는 부자를 꿈꾸며 새 터를 일구었다고 하여 마은 이름을 신부골(新富谷)이라 부르다가 1969년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새마을 이라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안양시사2권 p 377]

### 송지골, 송지골 유래

송쟁이골 서북쪽에 있다 이곳은 산세가 험해 소나무가 많아 소나무 줄기에서 분비되는 수지 즉 송지가 많으므로 송지골



이라 한다 일설에는 조선시대 승지의 벼슬을 지낸 분의 묘가 있어 승지골 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승지란 조선시대 승지원의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란 중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송쟁이골 송정승골 유래**

담배촌 조립 서남쪽에 있다 송정승이 산던 곳이라 하여 송정승골 이라 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송쟁이골로 불리운다고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송정내미골 유래**

송정내마골 이라는 이름은 가까이 있는 송쟁이골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송쟁이로 넘어가는 고개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수리바위골 유래**

안양9동 담배촌 송정내미골 서남쪽에 있다 골짜기가 좁고 음침하며 가파르고 험준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골짜기 중앙에 수리바위가 있기 때문에 수리바위골이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수리산 유래**

수리산 유래는 첫째 수리산 남쪽에 위치한 신라 진흥왕 때 장건된 수리사(修理寺)에서 나왔다는 설 둘째 안양지역이 옛날에는 바다여서 木(木)자와 다스린 리(理)로 물은 다스린다는 수리산(水理山)인데 일제시대 때 현재 사용되는 한자어로 이름이 정리되었다는 설 셋째 수리산의 수리를 조류인 독수리와 연계시킨 설 넷째 취나물의 일종인 수리취라는 산채에서 파생된 설 다섯째 이종환의 대리지에서 수리산은 조선시대 이씨(李氏) 왕손이 수행(修行)을 하던 산이라고 하여 수리산(修李山) 등 다양한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안양시사2권 p 428-429]

**수리산약수, 웃말약수 유래**

안양9동 수리산에 위치해 있다 담배촌 웃말 산이 깊은 곳에 있으므로 웃말약수라고도 부른다 이 약수는 걸지 못하는 사람은 걸게 할 정도로 효력이 있었다고 전해온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수암봉 유래**

수리산에 속 이어져 있는 산봉우리다 이 산은 조선 초기부터 옛 안산군의 진산이었다 본래의 산명은 산봉우리가 마치 독수리와 같다 하여 취암(鷲岩)이라 했는데 취른 우리말로 하여 수리암이라고 했다 수리산이라는 명칭 또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유력하여 수암봉은 안양의 지명유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조선 말기에 산봉이 수려하다 하여 현재의 명칭인 수암봉(秀巒峯)으로 되었다 1914년에는 산 이름이 바뀌어서 수암면 이란 면 이름과 수암동 이란 동 이름이 만들어졌다  
[안양시사2권 p 430-439]

**수암전 유래**

수리산 수암봉에서 발원하여 안양3동과 안양2동을 거처 안양

전으로 합류한다 발원지인 수암봉에서 이름은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58-462]

**시계능골 유래**

시계능골이란 야생풀이 많이 자생한다고 하여 시계능골 이라 한다고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신부골 유래**

옛날에 병목안 주민들이 농사꾼 잔 지어 부자마음이 되라는 의미로 새 신(新)자와 부자 부(子)자를 취해 신부골(新婦谷)로 호칭하기 시작 했다고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신안약수 유래**

안양9동 신안초등학교에서 서쪽으로 약 50m 지점에 있다 신안초등학교에서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신양지약수 유래**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다 양지마음에서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안골 유래**

안양9동 담배촌 북서쪽에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도자기를 굽던 곳이며 최근까지 개인 소유의 절그릇이나 사기그릇기와 따워든 굽는 가마터가 남아 있다  
안골의 유래는 권안할 안(安)자른 넣은 설과 수리산 골짜기 안(內)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전해져 온다  
[안양시사2권 p 343]

**안산내미골 유래**

안양9동 담배촌과 수암봉 사이에 있는 골짜기다 예전에 담배촌과 병목안 주민들이 안산장 또는 읍내장 수암시장에 가려면 반드시 이곳은 지나가야 했다 애초에 안산을 넘어가는 골짜기로 불리다가 안산내미골로 이름이 정착되었은 것이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안양9동 연혁**

안양9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후두미동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3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3동이 되었다 1985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초장소에 편제되었고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에 따라 안양3동에서 분동해 안양9동이 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89-91]

**약사골 유래**

안양9동 안양대학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안양서초등학교 등이 위치한 곳으로 예전에 사찰이 있었다가 빈대 때문에 폐사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곳의 약수가 괴부병에 효력이 있다고 하

는데 약사골 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웃능골 유래

안양9동 병북안 서쪽에 있으며 웃능은 신분이 높은 사람의 무덤을 뜻하는 설과 위에 있는 능골이라는 의미의 설이 있다 예산르부터 명당지(明堂之地)라 전해온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웃말안산내미고개 유래

안양9동 등잔골 서쪽으로 안산시 수암동과 담배촌 사이에 있는 고개다 예전에 담배촌 주민들이 안산장이나 수암장으로 갈 때 또는 안산읍에 사는 전주교 신자들이 담배촌에 있는 수리산공소에 예배 보러 갈 때 이용했었다 안산내미고개는 안산으로 넘어가는 고개 라는 말이 이름으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안양시사2권 p 466-472]

### 울목동 피난민촌 유래

밤나무 숲으로 유명했던 울목동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당시 시흥군 안양읍에 강원동 평강(平康) 등지의 피난민들을 집단 이주시키면서부터이다 이 때문에 이 마을을 피난민촌이라고 했다  
1977년 7월 8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불과 4시간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해발 110m 노적봉에 산사태가 나서 이 마을 주민 8가구 29명이 매몰되는 슬픈 과거사를 안고 있기도 하다  
[안양시사2권 p 371]

### 작은태양산골 작은탕산골 유래

안양9동 태양산 줄기에 있는 골짜기다 큰태양산골 아래에 있어서 작은태양산골이라 부르며 이름을 줄여서 작은탕산골이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접시골 유래

접시처럼 둥글게 생겼다고 해서 접시골로 불린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집뒫골 유래

안양9동 수리바위골 남쪽에는 일제강점기에 조가집 두 채가 있었는데 그 집 뒤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장바위 유래

바위 색이 푸른 장(蒼) 자른 따서 장바위라 했다 이 바위 색깔이 유난히 질푸르기 때문에 영엄하다고 여겨져서 민속신앙의 대상으로 숭배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 장박골 유래

안양9동 병북안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장박골의 유래는 첫째 바위 색깔이 심정색이라는 설 둘째 예비군교육장 서쪽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 마치 장(蒼)과 같다는 설이다  
[안양시사2권 p 353]

### 장암약수 유래

안양9동 예비군훈련장 옆에 있다 본래 장박골약수라고 했다

예전에는 장박골 주민들이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 치루골 유래

치루골의 유래는 첫째 일곱 가지 보배스런 것이 있었다는 설 둘째 골짜기가 칠리(七里)가 되므로 칠리골로 부르다가 치루골로 된 설이 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큰골 유래

안양9동 담배촌에서 가장 큰 골짜기이다 담배촌 남쪽에 있다 이곳을 넘으면 군포시 속달동에 있는 수리사에 이른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큰창배안골 유래

안양9동 장박골 서남쪽으로 장바위가 있는 예비군교육장이다 큰바위안골이 축약되어 큰창배안골로 변한 것이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큰태양산골 유래

안양9동 작은태양산골 동쪽으로 태양산 줄기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태양산 유래

순 우리말로 헛님산이라고 부르던 산이다 안양9동에 속하며 담배촌에서 가장 큰 산이다 담배촌 동쪽에 있어 이 산 능선을 따라 재가 뜬다 태양산이란 이름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이곳 주민들이 산 정상에 올라 봉화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안양시사2권 p 430-439]

### 햇골 유래

안양9동 동이점 남쪽에 있는 넓고 긴 골짜기로 산림이 울창해 낮에도 햇볕 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햇골이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후두미전 유래

안양9동 수리산 후두미동에서 발원하여 수암전으로 유입된다 발원지인 후두미동에서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58-462]

## 인적자원 과거인적자원

### 이성례(1800 1840)

조선 후기 전주교 순교자 본관은 경주 세례명은 마리아 성인 프란체스코 최경환의 아내이고 한국의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의 어머니이며 전주교 순교자로 내포의 사도로 불리는 이 존장의 후손이다  
18세 때 결혼하여 고향 흥주를 떠나 서울 병거지골로 이사하여 살다가 강원도 금성과 경기도 부평을 거쳐 안양9동 후두미동에 정착하여 교우촌을 이루고 담배를 경작하며 살았다  
1839년(헌종 5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이듬해 용산 당고개에서 6명의 교우와 함께 잠수되어 순교하였다  
[안양시사2권 p 550]

**집성촌-안양9등 진주 류씨**

구전에 따른 병목안에 진주 류씨 부자가 살았었다 날마다 찾아오는 식객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주하러 온 스님이 있어 방도를 물었더니 마을 조입(새마을교) 산 밑에 모든 쓰고 탑을 세우라"고 말한 후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 류 부자는 하인과 가족이 죽으면 스님이 일러준 대로 묘를 쓰고 그 옆에 탑은 세워 정성을 들였는데 식객 발길이 끊겼은 뿐 아니라 진주 류씨도 일거에 폐가했다고 한다

[안양시사2권 p512]

**최경환 1791년 신해박해, 최경환 조모가 어린 아들 인주를 데리고 유랑 홍주 다락골 낙향**

최경환(프란지스코)은 1804년 홍주 누곡(현 충청남도 정양군 파성군 농암리)에서 경주에 본관을 둔 최인주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선대는 본래 서울에 살면서 이조판서 등의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이었으며 전주교든 민기는 조부인 최한일 때부터다 최한일에게 전교한 사람은 한국교회 조창기에 중정도 지방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내포의 사도로 칭송을 받은 이존장(구도비교)이었다

최씨 일가가 서울에서 홍주 다락골로 낙향한 것은 정조 연간에 일어난 신해박해(辛亥劫 1791) 때 최경환(프란지스코)의 조모가 어린 아들 인주(12세)를 데리고 이곳 저곳을 유랑하다가 정착한 것이 그 저음이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54]

**최경환 1839년 9월 12일 최경환 신부 옥사(당년 36세)**

최경환(프란지스코) 신부는 수리산 교우촌에서 배신자의 밀고로 포졸들에게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 혹독한 형벌에도 굴복하지 않은 최경환(프란지스코)은 마침내 그해 1839년 9월 12일 옥사함으로써 승리의 월계관은 받을 수 있었다 이때 그의 나이 36세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59]

**최경환 1839년 기해박해와 수리산 교우촌 형성**

안양 시흥지역에 언제 누구에 의해 최초로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지 그 기원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늦어도 1839년 기해박해(己亥劫)가 일어나던 때는 안양에서 서쪽으로 10리 상거한 수리산 산록에 박해시대의 전형적인 교우촌(敎友村)이 형성되어 60여 명의 신자들이 살고 있었다 한국교회 조창기부터 시흥과 안양은 서울에서 중정도 지방으로 전교여행을 떠나는 주교와 신부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기도 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53]

**최경환 1929년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교수인 삐송 신부의 최경환 묘지 찾기 과정**

1839년 9월 12일 순교한 최경환(프란지스코)의 시신은 광희문 1 밖에 다른 순교자들의 시신 덩이 속에 버려진 것을 그의 만행인 최영설(야고보)이 가두어 광희문 근처의 야산에 표시한 해서 가매장에 두었다가 군난이 진정된 후에 수리산 교우촌으로 옮겨와 수리산 대령봉(臺嶺峰) 아래에 안장하였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최경환(프란지스코)의 묘지는 자츰 잊혀진 묘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묘인지조차 식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최경환(프란지스코)의 묘 외에 또 다른 2기(墓)의 가 있었는데 그 어느 묘에도 묘비나 묘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 당국에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최경환(프란지스코)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경환(프란지스코)이 순교한지 90년 만인 1929년에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교수인 삐송(Pichon 宋) 신부가 조선 성교회사(聖敎會史)와 순교자들의 행적은 연구 조사하던 중 복자 최경환의 무덤이 수리산에 있음은 발견함에 따라 세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삐송 신부는 곧 수리산으로 가서 복자의 무덤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아무 표지도 없는 무덤이 3기나 있어 어느 것이 복자 최경환(프란지스코)의 묘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이 소문은 듣고 강원도 풍수원 본당의 정규하(아우구스티노) 신부가 그 본당 신자인 송 아가다가 죄양업(토마) 신부의 넷째 제수이고 수리산에 살았으므로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송 아가다를 서울로 보내게 되었다

1929년 6월 18일 송 아가다는 삐송 신부 이기준(토마) 신부 김윤근(요셉) 신부 등과 함께 수리산으로 가서 92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아버지인 복자 최경환(프란지스코)의 묘를 정확히 알아보았다 복자 최경환(프란지스코)의 전묘(遷墓)는 송 아가다에 의하여 확인된 이듬해인 1930년 5월 26일에 있었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60-62]

**최경환 다락골은 미신행위로 신앙생활 방해 > 서울 병거지골로 이사**

최경환(프란지스코)의 중정도 홍주 다락골(현 충남 정양군 파성군 농암리)에서 15세 때 자신보다 세 살 위인 18세의 이성례(마리아)와 결혼하였다 이성례(마리아)는 홍주 태생으로 앞에서 말한 이존장(구도비교)의 후손이다 다락골의 죄끼 문중에는 미신행위론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므로 최경환(프란지스코)은 행든은 선득하여 25명의 일가와 함께 과감히 고향을 떠나 서울 병거지골로 이사하였다

[전주교 장내동교회사 p54]

**최경환 복자 최경환의 전묘 상황 보도<경향잡지> 1930년**

복자 최경환(프란지스코)의 전묘 상황을 보도한 당시의 1930년 6월 15일자 <경향잡지>는 다음과 같다

포정에서 죽인 죄수의 시체는 의례히 수구문(廣희門) 밖에 갖다 버리는 전례이라 복자의 귀한 시체도 이와 같은 전대를 받았는데 그 장정(복자는 6남매 중 맏째) 야고보가 지명 동생의 시체를 갖아 그 근처에 임시로 매장하였다가 5년 후 교우들이 적이 숨길 때를 당하여 수리산 복자가 살으시던 동리 옆에 이장하였더라 전래하는 말에 의하건대 수구문 밖에서 뒤편 팔 때에 벌거 분명히 알지 못하게 되어 분묘 4 5장은 과다가 마침내 지석(誌石) 대신으로 사발 안에 글자를 기록하여 넣었던 것을 만나 의심없이 이장하였다 하더라

복자의 분묘 좌우에 다른 분묘 각 1장이 있는데 작년에 복자의 제4자부 송 아가다(92세 부인)가 증거하기를 자기의 시부 복자의 분묘는 가운데이요 그 우편에는 어떤 교우의 분묘이요 좌편에는 기해년 지명자 이 에메렌시아의 분묘라 하더라 이번 전묘시에 지명자 이 에메렌시아의 유골을 혼자 버려두기가 섭섭하고 또 제3분묘도 아마 어떤 지명자의 분묘인 듯 하기로 분묘 3장을 다 파서 복자에 대한 무슨 일정한 증거도 얻고자 하였는데 3분 묘 광중 내에 지석은 하나도 없고 세 광중이 다 좁고 저르고 또 곤경이 어지러이 놓인 것을 보면 첫 번째 매장한 것이 아니요 셋 다 백골로 이장한 것이었더라 여교우 이 에메렌시아는 옥중 지명으로 복자위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위주지명하신고로 서울 교중에서 경성교회 묘자에 되서 그 묘소를 영화롭게 하고 다근 남교우의 유골도 아마 지명자인 듯 하기로 또

경성교회 모지에 모셨더라  
[전주교장내동교회사 p 64]

### 최경환 서울에서 여러 해 부유하게 살다, 억울한 송사(訟事)로 가산 잃게 되고 전주교인 탄로로 가족들 뿔뿔히 흩어짐

서울 홍주 다락골로 낙향한 최경환(프란지스코) 일가는 다락골의 죄끼 문중에 미신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신양생활에 방해가 되므로 형을 설득하여 25명의 일가와 함께 고향을 떠나 서울 병거지골로 이사하였다  
서울에서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제법 부유하게 살았으나 탐욕스러운 외교인들과의 빈번한 접촉의 결과로 인해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 가산을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전주교도인입이 탄로날 위험에까지 놓이게 되어 교우들이 숨어살고 있는 산간벽지로 쫓겨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때 최경환(프란지스코)의 탈영 영실은 중정도 목전(현 충남 청원군 병전면) 서덕골로 둘째 형 영겸은 경기도 용인 한덕골로 그리고 경환 자신은 서울에서 50-60리 상거한 경기도 과천 수리산으로 각각 피신하게 되었다  
[전주교장내동교회사 p 54]

### 최경환 최경환과 교우들 포졸 압송 장면 묘사

7월 31일 새벽 마침내 수리산 교우촌도 배신자의 밀고로 서울 포졸들의 습격은 받아 평화롭던 이 작은 공동체는 북발이 되었다 포졸들은 그들의 첫 번 표적인 공소회장 최경환(프란지스코)의 집부터 텃밭 마을에 소동이 일어나자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장 집으로 달려온 많은 교우들이 잡히고 그렇지 않은 10여 명의 교우들은 재빨리 산 속으로 피신하였다  
최경환(프란지스코)과 이성례(마리아)는 겁에 질린 다른 교우들과는 달리 포졸들에게 조금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주님을 위해 순교하기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최양업(토마) 신부의 말처럼 오히려 이날이 오기만 기다린 듯 담담한 표정으로 포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있는 이 교우들은 절대로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면길에 일찍 오시느라고 괴곤하건만 저 방에 가서 쉬신 다음 조반을 드시고 일을 떠납시다”  
포졸들이 자기들은 순남처럼 접대하는 최경환(프란지스코)의 예의 바른 말과 결연한 태도에 압도되어 아무 대꾸없이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동안 이성례(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였다 얼마 후 포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자 이성례(마리아)는 새옷을 꺼내어 남루한 옷을 걸친 포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포졸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잠 전주학(天主學)쟁이다 라고 감탄해 마지 않았다  
포졸들은 교우들은 오랏줄로 묶지 않고 서울로 압송하였다 압송된 교우 수효는 40 50명으로 남자들은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을 앞세우고 어머니들은 젖먹이를 등에 업고 길을 떠났다 일행은 한여름의 폭염과 배가 고과 울어대는 아이들 때문에 팔리 걸지 못하였다 길가의 구경꾼들 중에는 이 한 떼의 행렬을 보고 샅대질은 하며 이 흉양무도한 놈들이 그 귀여운 자식들은 데리고 어떻게 죽으려 간단 말이나? 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죄도 없이 죽으려 가는 사람들이라고 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전주교장내동교회사 p 58]

### 최경환 최한일 최경환 신부 조부

최경환(프란지스코)은 1804년 홍주 누곡(현 충청남도 정양군

파성군 농암리)에서 경주에 본관을 둔 최인주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선대는 본래 서울에 살면서 이조판서 등의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이었으며 전주교를 믿기는 조부인 최한일 때부터다 최한일에게 전교한 사람은 안국교회 조장기에 중정도 지방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내포의 사도로 칭송을 받은 이존장(루도비코)이었다  
[전주교장내동교회사 p 54]

### 최경환 파묘작업 수리산 교우 생존자 정태진 증언 내용

복자 최경환(프란지스코)의 전묘는 송 아가다에 의하여 확인된 이듬해인 1930년 5월 26일에 있었다 이날은 마침 서울 교구 신부들의 연례회경 다음 날이어서 라리보9(아드리아) 보좌주교를 비롯 20여 명의 신부들이 수리산으로 내려와 전묘예절을 참례하였다 서울 문안 문밖 본당 회장들과 100여 명의 신자들이 신부들과 같이 왔고 수리산과 하우면 신자들도 참례하였다  
그리고 멀리 강원도에 살고 있는 복자의 후손들도 순례정신을 발휘하여 수백리 길을 걸어와서 예절에 참례했는데 그들은 복자의 손자인 최상중(빈젠시오)을 비롯하여 손녀 최 루시아 손부인 박요안나와 윤요안나 손서 김낙호(야고보) 증손자인 최수만(에드워드) 최수억(요셉) 형제 증손녀인 최 비리시다와 최 마르타와 최 안나 증손서 송석중(베드로) 외원손녀 윤구도비카 삼종손자 최찬중(마태오) 삼종손부 류도미딜라 사종 증손자 최진수(알렉산델) 등 15명이었다 그들 중 여자들은 광목으로 지은 상복 자람이었다  
파묘작업은 수리산 교우 4명이 했는데 그들 중의 유일한 생존자인 정태진(바로로 1910년 생)은 59년 전의 일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서울 원 주교님께서 신부 수녀 회장들을 데리고 2 3차 오셔서 복자 최 방지거의 산소를 조사해 가시더니 어느 화창한 날에 또 오셔서 공소회장 한안드레아에게 열흘 후에 복자의 산소를 파러 올 터이니 그날일할 인부들 전주교 신자로 4명만 선발해 놓고 기다리라고 이르고 가셨습니다 교회의 큰 행사인데다가 원 주교님께서 과묘하는 인부들에게 수고비까지 주신다는 바람에 너도 나도 지원했는데 뽑힌 사람은 한상봉(발라바) 유상준(방거지) 한수동(스티왕) 그리고 저였습니다 그 당시 담배존에는 60여 호이던 신자 세대가 그동안 타지방으로 많이 떠나고 10여 세대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묘하던 당일은 수리산 공소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파묘 작업은 원 주교님의 주모경으로 시작되었으며 산소 네 귀둥이에 말뚝을 박고 새끼줄로 금줄을 쳐서 인부 네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무덤에 접근을 못하게 하였지요  
우리 인부 넷은 조심스럽게 무덤을 파서 손톱 하나라도 빠질세라 두곤 늑골 각골 세골은 따로 따로 정성드려 싸서 께깍에 넣고 후 자물쇠로 잠그고 비단보자기로 께깍을 싸놓은 다음 파묘한 자리론 대중 매우고 애송 한 구르를 옮겨다 심었지요  
그리고 나서 원 주교님께서 과묘 자리와 참례자 일동에게 강복하시고 우리 인부들에게는 1원짜리 지폐 한 장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자의 유해는 안양역으로 운구되어 기차편으로 서울로 갔습니다  
[전주교장내동교회사 p 63]

### 최경환(1805 1839)

조선 후기 전주교 순교자 성인 본관은 경주 일명 영환(永煥)이라고도 한다 세례명은 프란제스코 한국의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의 아버지이다 충남 홍주 다래골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전주교 집안이었으므로 어려서 교리를 배워 입교하



였다

1839년(헌종 5년) 기해년의 대박해가 일어나고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많은 의연금은 모아 순교자들의 유해를 안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었다  
그해 7월 한양에서 내려온 포졸들에게 잡혀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 옥중에서 순교했다

[안양시사2권 p 551]

**죄장업 신부**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이고 죄경환 성인의 장남이다 프랑스인 신부 모방(Maubant 베드로)에 의해 김대건 및 죄방제와 더불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1836년 마카오의 신학교로 유학은 떠났다

[안양시사5권 p 569]

**인적자원 현재인적자원**

**김석환 교수 가마**

병모안 입구에서 500m쯤 되는 산기슭에는 도예가 김석환 교수(단국대 도예과)의 가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점을 하는 사람에게 세를 주었는지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다

[안양시사7권 p 169]

**김종수 씨 77수해 소방대원**

1977년 수해 당시 소방대원으로 현장 발굴에 참여했던 김종수 씨는 집을 덮친 토사문 제쳐 보니 막 밥은 먹으려 했던지 어린 소녀는 밥그릇에 얼굴이 묻혀 있었고 만이인 듯한 소년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동생들은 보호하려 했던 듯 어린 동생들은 양 팔로 겨안은 채 죽어 있었다 했다

[안양시사7권 p 174]

# 석수동

## 안양의 문화와 예술이 넘쳐나는 보물창고

석수동은 보물 제4호 중초사지 당간지주,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마애종, 안양의 지명유래가 된 고려 태조 왕건이 세운 안양사 터, 천년고찰 삼막사 염불암 반월암 불성사,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삼성천 안양폴장, 보면 볼수록 신기한 삼막사 남근바위 여근바위, 묵묵히 600년 세월을 지켜온 석수동 할아버지나무, 만년동안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만안교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유유산업,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안양예술공원, 동양의 할리우드라 불리던 수도영화사 안양촬영소 신필름, 석수동 미군부대에서 근무한 닐 미샬로프의 사진, 생활 속의 예술공간 스톤앤워터(Stone & Water)는 지금도 문화예술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안양의 보물창고다

# 석수동

## 자연자원 경관자원

### 가운데벌

중훈부 마을과 아랫벌 사이에 있는 벌(들) 1984년 주공아파트와 민가 등이 들어섰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52]

### 가죽재고개

고개길이 급경사져서 쇠가죽처럼 미끄러운 고개 쟁반처럼 미끄럽다 하여 일명 쟁비탈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삼막골과 유유산업 사이에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2]

### 갈매골

안양자동차학원 서북쪽에 있다 갈매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갈매골이라 부른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5]

### 갈매산

안양육교 서북쪽에 위치한 얇은 산이다 갈매나무가 많이 자생하므로 갈매산이라 한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04]

### 광석바위

안양유원지 주차장 옆에 있다 바위가 크고 넓다하여 광석바위라 부른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7]

### 괭이두턱골

학부봉 정상과 키다리굴 사이에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5]

### 괭이바위

안양시 위성지리사업소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8]

### 굴바위

두루미골 서쪽 계곡 옆에 있는 바위에 큰 구멍이 나 있어 굴바위라 칭하는데 박쥐의 서식지라고 한다 근래에는 지성을 드리는 아낙네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8]

### 권의선

삼봉산 중턱에 돌이 많아 그 일대는 석바위라 하는데 일제시대 때 권의선이 농장을 위해 일시 살았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7]

### 큰절골

삼막사 밑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큰 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초석 돌절구 와권 등이 출토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4]

### 금관바위

수도사 경내에 있다 면관류처럼 생긴 바위라 하여 금관바위라 칭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9]

### 꼬쟁이고개

꽃쟁이와 벌터 사이에 있는 고개 비포장 소로이다 이곳에 박서(1602 1653)의 묘가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4]

### 꼬쟁이골

작별산 남쪽 기슭으로 꼬쟁이와 벌터 사이에 있다 마은명은 취해 꼬쟁이골이라 칭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6]

### 꼬쟁이벌

꼬쟁이마을 앞에 있는 들(벌) 일제강점기 대만 해도 절곡이 많았다고 한다 1980년대 조부터 택지로 변모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52]

### 꽃쟁이 지명

꼬쟁이 고개가 꽃쟁이와 벌터 사이에 있는 고개라고 소개된다 꽃쟁이라는 위치 파악 필요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4]

### 삼막사 남근바위 여근바위

삼막사 마애삼존불 옆에는 남근바위와 여근바위가 나란히 있다 자연바위인데 그 외양이 남녀의 성기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남근석이라고 한다 질성신앙과 다산신앙이 결합한 민간신앙과 불교의 결합상태는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안양시사2권 p 193]

### 넙적바위

상불암 못미처 약 500m지점에 있다 바위가 크고 마당처럼 넓으므로 넙적바위라 칭한다 바위가 영험하다 하여 지성을 드리는 부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9]

### 동이바위

삼막사 서편 산 중턱에 동이처럼 둥근 평상을 하고 있는 바위로 흔들거린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0]

### 두루미골

동이바위 북쪽에 있다 삼성산 낙맥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8]

### 뒷골2

꽃쟁이 서쪽으로 중훈부 뒤(동쪽)에 있으므로 뒷골이라 칭한다 이곳에 광주 이씨 선현 묘가 있었는데 1990년 5월 7일 화성군 남양면 문호2리로 이장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8]

### 뒷골1

학부봉 뒤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뒷골이라 칭한다 염분암에 서는 북쪽에 해당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8]

### 들어가는 속골

삼막사 아래로 한중막터에서 남쪽으로 골짜기가 둘이 있는데 그 중 한 골짜기는 아무 장애물 없이 왕래할 수 있는 골짜기라 하여 들어가는 속골이라 칭한다 학무봉 서쪽에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8]

### 디디미골

조양골 북쪽에 있다 예전에 삼막골 주민들이 서울 신림동 봉전동을 가자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할 만큼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 골짜기 인근의 삼성산과 관악산 학무봉이 험한 산이라 예로부터 영악인 산삼이 많아 산삼을 채취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곳 일대에 집단으로 살았으므로 디디미(심마니)골이라 불려진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9]

### 마귀할미-불돌바위

학무봉에 있다 예전에 마귀할머니가 불들로 사용하던 바위라고 전해진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1]

### 마당바위

마당같이 넓고 큰 바위이다 망월암에서 동쪽으로 약 30m 지점에 있으며 영험한 바위라 하여 지성을 드리려는 불자들이 많이 찾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1]

### 마리아바위

바위의 둘레 2m 높이 20m 정도의 거암이 우뚝 서 있다 성모마리아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성모마리아바위라 칭했고 다시 마리아바위로 통칭되고 있으나 불래의 이름은 좁아 개의 생식기와 같다고 하여 개좃바위라 불리워 오다가 주민들이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하여 개징했다고 한다 속전에 따르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녀자들이 이 바위에다 지성을 드리면 득남을 한다고 하여 예전에는 부녀자들이 길일의 새벽이면 성시를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안양소년원 북쪽으로 학무봉 아래에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1]

### 만두바위

키다리골 팽팽어두턱골 사이 산 능선에 있다 만두형상을 한 거암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1]

### 매바위

삼성산 정상 국수봉 아래에 있다 바위에 매가 응시하며 서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바위 중앙에 종서로 「南無何彌陀佛 大清光緒二十年 甲辰三月日」이라고 쓴 글씨가 암각(1894)되어 있는데 그 크기는 폭 40cm에 높이는 185cm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2]

### 못들어가는 속골

삼막사 아래로 한중막터에서 남쪽으로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중 학무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가 암벽이 가로 막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못들어가는 속골이라 칭한다 돌이 무수히 많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9]

### 박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박미 뒤에 있다 산 중턱에 절터가 있으며 이 산으로 인하여 박미라는 마을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33]

### 배순이전

배순이에서 발원하여 삼막전을 거쳐 안양전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길이 1500m 하폭 2m 물리면적 0.2ha이다 발원지인 배순이에서 하천명을 취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94]

### 뱀골사지

안양사에서 뱀골이라 불리는 계곡으로 나 있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곳의 북서쪽에 뱀골사지가 위치해 있다

[안양시사1권 p 382]

### 벌터 지명

꽃쟁이와 벌터 사이에 있는 고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4]

### 보습바위

보습처럼 생긴 바위 동이바위 북쪽 약 500m 지점에 있다 보습이란 쟁기의 술바닥에 맞추는 삼 모양의 쇠조각을 말함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4]

### 삼귀자바위

삼막사에서 서쪽으로 약 30m 지점에 있는 바위로 백련암터 서쪽 암벽에 거북 귀(龜)자 세 글자가 음각되어 있는데 이를 일컬어 삼귀바위라 칭한다 274×96cm의 귀(龜)와는 제각기 독특한 형태의 글씨이다 이 글씨는 구한말 수구과로유 불선(儒佛仙) 및 시 서 화(詩書畵)에 능통했던 지운영이 삼막사 주지로 있을 때인 1920년에 음각한 것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5]

### 삼막골 사지

삼막사로 오르는 도로 오른쪽에 형성되어 있다 사지에는 대형 석재로 지석하여 축대를 조성한 건물지들이 남아 있다

[안양시사1권 p 384]

### 삼막전

삼막사에서 발원하여 삼막골을 거쳐 관악역 남쪽 400m 지점에서 삼성전과 만난다 삼막사와 삼막골에서 이름을 따왔다 유역면적 5.03km<sup>2</sup> 하천길이 3.5km이다

[안양시사1권 p 17][안양시지명유래집 p 295]

### 삼성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과 안양시 석수동에 걸쳐 있는 455.8m의 산이다 안양의 시원지가 되는 이 산에 대하여 관악산과 동일한 산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성종 때(1484) 노사신(盧思愼)등이 성종의 명을 받들어 「대명일통지」를 본떠 저술한 「동국여지승람」, 금전현 산전조에 삼성산 현동쪽 10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三聖山在縣 同十里 鎮山)이라 하였고 같은 책 과천현 산전조에 관악산 현 서쪽 5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冠岳山在縣 西五里 鎮山)라고 하여 삼성산은 금전현의 관아가 있던 지금의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에서 동쪽으로 10리 지점에 있는 산으로 금전현의 진산(鎭山) 각 고을을 진호하는 주산)이며 관악산



은 지금의 과천시 관문동 소재 온온사가 있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5리 지점에 있는 산으로 과전현의 진산이어서 이들 두 산이 별개의 산임을 밝히고 있다 또 삼성산과 관악산의 산계(山序)에 대해 아양의 원로들이 증언하는 바를 종합하면 대체로 삼막사 동쪽에 있는 계곡을 따라 동쪽이 관악산이고 그 서쪽에 한 지역이 삼성산인데 이산계가 조선시대에는 과전현과 금전현의 현계(顯界)가 되었고 후에는 과전사와 안양시의 시계(市界)가 되었다고 한다

삼성산의 유래 또한 설이 구구하다 보통 원효 의상 율필의 세 고승이 신라 문무왕 17년(677)에 조그마한 암자를 짓고 수도에 정진하던 곳이 삼막사의 기원이며 아울러 삼성산의 산명도 이 세 고승을 성화시켜 삼성산(三聖山)이라 칭했다는 설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불교계 일각에서는 불가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의 교주(教主)인 아미타불과 그 왼쪽에 있는 관세음보살 및 오른쪽에 있는 대세지보살을 삼성(三聖)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산명이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간행된 『시흥읍지』, 『시흥현읍지』, 『시흥근읍지』, 『경기읍지』, 『기전읍지』 등 읍지와 지리지 등에 따르면 고려말기에 불교계를 이끌던 나옹(懶翁 1320-1376) 무학(無學 1327-1405)과 인도승려 지공(指空 >1363)이 이곳 삼성산에 올라가 작기 수도할 자리를 잡고 정진했다는 연고로 삼성산(三聖山)이라 했다(三聖山在縣東十里無學懶翁指空三釋各卜精廬而居之因名三聖山焉)는 것인데 이상의 세 유래 중 두 번째는 입증할 문헌이 전혀 없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간결같이 당대의 고명한 세 고승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는 삼막사가 장사한 677년 주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료가 없고 극히 일부의 사사(寺史)에만 그 기록이 전래되고 있을 뿐이며 후자는 사사가 아닌 읍지 지리지 등 관찬과 사찬 등의 여러 문헌에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후자의 지공 나옹 무학의 삼성설이 가장 믿을만한 정설로 생각된다 산중에는 삼막사뿐 비롯하여 염불암 망월암 안양사 성주암(서울) 삼성사 등의 사찰이 있으며 임진왜란 때(1592) 병조판서든 다섯 번이나 역임하고 후에 우의정은 지낸 백사 이항복(白沙 李恒福 1556-1618)이 생전에 이산에 올라 은 자유삼성산은(次遊三聖山韻)이란 장시와 일제강점기에 고백록(高百祿)의 시조가 전해진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234]

### 삼성산산림욕장

삼성산산림욕장은 안양예술공원-삼막사 서울대 수목원으로 면적은 1ha 50km이다  
[안양시사3권 p 311]

### 삼성천

조선조기 금전현의 진산인 삼성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유원지를 거쳐 안양대교에서 안양천과 합류한다 『과전읍지』에는 과전현 서쪽 20리에 안양천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안양천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때 현재의 삼성천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1932년 일본인들에 의해 安養プール(안양 풀 pool)이라는 수영장을 만들어 이용했었다 현재 삼성천에는 安養プール(안양 풀 pool)가 새겨진 바위가 존재한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295]

### 삼막사 느티나무

역사가 깊은 삼막사에는 원효대사가 지팡이든 꽃아 든 것이 은행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을 알고 있는 은행나무와 의상대사가 심었다는 진년 거목 느티나무가 입구에 서서 반겨준다

[안양시사7권 p 298]

### 석수동 향나무

석수동 할머니 나무로 불리는 석수동 향나무는 삼막교 입구에 심어져 있으나 살아 있는 나무가 아니다 1977년 안양의 77수해 때 뿌리채 뽑혀 하천으로 쓸려 내려온 것을 주민들이 건져 현 위치에 심어 놓은 것이다 향나무 수령은 5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양시사1권 p 453]

### 석수동 느티나무

석수동 할아버지 나무로 불리는 석수동 느티나무는 삼막교 하류 쪽으로 150m 지점에 있는 거목이다 높이 25m 둘레 53m로 수령은 약 500년 추정된다 석수동 향나무와 더불어 한 쌍을 이루어 삼막마을의 평안과 행운을 주고 재액을 막는 신령스런 당나무로 지금도 매년 음력 10월에 나무를 대상으로 제를 올린다

[안양시사1권 p 452]

### 서리재고개

동아제약 입구에 있는 안양육교 부근이 원래는 높은 고개였는데 이곳이 서리재고개이다 현재는 슬개고개라 하는데 예전에는 이 일대가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져 으스스한 곳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나 보부상들이 이곳에서 강도의 습격을 많이 받았었다 석수동 연련마을 주민들이 이 근처에서 수박과 잡의 등 정과물을 재배했었는데 서리를 많이 해가는 바람에 농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308]

### 석바위

삼봉산 종턱에 돌이 많으므로 그 일대를 석바위라 칭한다 일제 때 권의선이 농작을 위해 일시 살았다고 한다 이곳 일대가 명당자리라고 전해진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347]

### 석수동 보리수

석수동 보리수 나무는 염불암 대웅전 앞에 있다 수령은 약 600년으로 높이 12m 둘레 12m로 이곳에서 수도하던 고승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안양시사1권 p 453]

### 석수동 촉백나무

안양노인전문요양원 뒤편에 심어져 있다 수령은 약 200년이다

[안양시사1권 p 454]

### 석수동 회화나무

유유산업 정문 앞 유유로와 광산길이 교차하는 삼거리의 가정집 대문 왼쪽에 심어져 있다 마을 주민들이 보호울타리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수령은 약 150년이다

[안양시사1권 p 454]

### 선녀골

선녀골에서 발원하여 삼막전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길이 1000m 하폭 3m 물리면적 0.1ha이다 발원지인 선녀골에서 하천정비를 취했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296]

### 선녀전

선녀골에서 발원하여 삼막전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길이 1 000m 하폭 3m 물리면적 0 1ha이다 발원지인 선녀골에서 한천명을 취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96]

### 십자바위

삼성산 중턱으로 안양사 뒤에 있다 바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 십자바위라 칭한다 이 바위 밑에 석실분(기념물 제126 호)이 있다 석실의 길이 4 5m 폭 1 8m 높이 1m에 이른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8]

### 아랫벌

중흥부 서쪽에 있는 벌판 인근에 민가와 아파트 등이 들어서자 1984년부터 8 9 11번 시내버스 종점 주차장으로 변모되었다 일명 벌말이라 부른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55]

### 안양예술공원 전망대

2005년 11월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조성된 전망대이다

[안양시사3권 p 648]

### 1963년 안양유원지 입구

1963년 당시 안양유원지 입구 모습은 자가 한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비포장 길에 나무 전봇대가 있었고 ANYANGRESORT™ 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구조물이 있다 이곳에는 유류산업이 있었는데 구조물에는 유류산업과 마크도 있었다

[안양시사7권 p 186]

### 언추리골

호암산 줄기로 분투골 북쪽에 있다 골짜기가 Y형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6]

### 염불암골

염불암 앞(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염불암골이라 부른다 이곳에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사찰의 이름과 장사 및 폐사 연도 등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6]

### 영랑성 북벽

영랑성은 안양의 유일한 관방유적으로 삼성산의 삼막사와 염불암 사이에 있는 해발 458m 국기봉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금전현 고적조에는 삼성산에 석축으로 쌓은 영랑성의 둘레는 3 750척에 중앙에 대정이라는 우물이 있다 는 기록이 있다

1908년 육당 최남선이 지은 「경부철도가」 8절에는 관악산 개인경을 우러러 보고 영랑성 목은 터 바라보면서 잠시 동안 시흥역을 거쳐가지고 날개 있어 나는 듯 안양 이르러 라는 구절이 있어 최근까지 존재에 대해 알려져 있었다

[안양시사1권 p 440]

### 웃삿갓골

삼막골과 서울시 금전구 시흥동 막미 소재 박산 중간에 있다 삿갓모양을 한 골짜기라 하여 웃삿갓골이라 칭하며 예전에 까지가 많았다는 연유로 일명 웃새까지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8]

### 웃절터골

고려 태조인 왕건이 장건한 안양사(석수1동 산 27) 위에 있는 절터이므로 웃절터골이라 칭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8]

### 자그나무골

수리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절쪽 전달래 등 작은 나무가 많아 자그나무골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 오면서 자그나무골로 불리운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8]

### 작별산

석수2동사무소 서쪽에 있는 돌산이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 중엽에 낙향한 어느 선비가 증직한 제자와 함께 이 산 중턱에서 토굴을 파고 함께 살았는데 제자의 큰 뜻을 스승이 헤아려 주지 않아 제자가 이 산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부터 스승과 제자가 작별한 산이라 하여 작별산이란 산명이 붙여졌다고 하나 아무래도 후대에 와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에 만안교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 복원하자 안양의 원로들이 작별이란 어감이 좋지 않으므로 만안산으로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일명 앞산으로 칭하기도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45]

### 작은바랑골

큰바랑골 북쪽으로 호암산 남쪽에 있다 이곳에 기괴한 돌이 많아 탐방객이 끊이지 않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0]

### 장군바위

망월암 서쪽 약 40m 쯤에 위치해 있다 장군처럼 우람하게 큰 바위로 일명 장사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9]

### 절골

삼막사 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여 절골이라 칭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1]

### 조암골

삼막골 뒤에 있다 이곳에 작은 암자가 있어 조암골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 오면서 조암골로 불리운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3]

### 큰바랑골

삼막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시흥시 금전구 시흥동 뒷산인 호암산 낙맥에 있다 본래의 이름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곳이라 하여 큰 바람골이라 칭했는데 후대에 내려 오면서부터 큰바랑골로 불리운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4]

### 키다리골

좁고 긴 골짜기라 하여 키다리골이라 칭한다 학무봉 동쪽에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5]

### 학무봉

삼성산의 연봉으로 삼성산 서남쪽에 있다 산봉이 흡사 학이 날 개를 펴고 춤을 추는 형상이므로 학무봉이라 장한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46]

### 혜인천

혜인증기 앞(동쪽)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전에 합류된다 길이 150m 하폭 2m 물리면적 2ha이다 혜인증기의 사명을 취해 혜인천이라 정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0]

### 효암산

삼막골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걸쳐 있는 산 조선 중기에는 금전현(후에 시흥현 시흥군으로 개칭)의 진산이었다 호암(虎岩)이란 산명은 범모양과 같은 바위가 이 산에 있기 때문인데 이 범바위는 산 정상에서 서울 시흥동 쪽으로 면면히 뻗어 오다가 부러지듯 단절된 곳에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46]

## 자연자원 지역자원

### 1번국도

일제시대 총독부는 1911년 「도로규칙」을 공포하고 이어서 1917년까지 시행하여 서울-목포간 1등 도로를 만들었다 이것이 1번 국도가 된다 [안양시사1권 p 79]

### 77수해 안양대교

1977년 안양 대홍수로 안양대교의 지반이 흔들려 내려가는 바람에 교각과 상판 슬래브가 무너져 내려앉아 자량통 행이 통제되었다 그 때 공병대대가 나서 임시로 자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장간조립교를 건설하였다 [안양시사8권 p 28]

### 2006 석수시장 프로젝트 가가호호

안양지역 공공예술의 출발점인 Stone & Water 는 2002년 재건 축프로젝트 2003년 희망시장전 과 상상도서관전 2004년 안양전프로젝트 FLOW와 버스를 기다리며 2004 2005년 석수시장 프로젝트 OPEN THE DOOR 2006년 석수시장 프로젝트 가가호호 등 전시장이 아닌 바깥에서 미술이 어떻게 생활과 소통이 되는지 일깨워 주었다 [안양시사7권 p 355]

### 경수산업도로

이 길은 서운시 시흥동에서 안양시와 의왕시를 거쳐 수원시에 이르는 도로로 1976년 개통되었다 1970년대 서우과 수원 간 산업 물동량은 원활하게 수송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까지 안양시를 통과하는 중심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석수동 경수산업도로에 서울 안양 경계 표시가 있다 [안양시사2권 p 387]

### 경인대교길(보조간선)

예전에는 석산길 이라고 했는데 경인교대가 설립된 이후로 이름은 변경하였다 [안양시사2권 p 387]

### 관악교

석수1동 삼성전에 있다 1980년 11월에 준공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65]

### 관악역

석수2동 244 1번지 경부선 전철 1호선 서울 기점 21.6km 지점에 있다 1974년 7월 5일 준공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85-486]

### 관악역보도육교

석수1동과 석수2동에 걸쳐 있는 육교이다 관악역사로 이어진다 [안양시사2권 p 419-21]

### 구룡교

석산길 위에 있으며 삼막전에 놓여 있다 구룡마을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구룡마을

관악역 동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한국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동국실업(석수동 165 1968년 설립) 주변에 10여 호의 민가가 있었고 그 밖의 지역은 밤나무 참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있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52]

### 금전현

조선시대 안양지역 군현과 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도에는 현재의 안양지역 중 조선시대에는 금전현에 속해 있었다 석수 1 3동은 금전현 현내면의 안양리로 기록되어 있다 [안양시사6권 p 13]

### 금전현 지도에서 안양리 위치

조선시대 「해동지도」, 금전현 지도에 의하면 석수 1 3동 지역인 안양리는 삼막사 부근이라고 되어 있다 [안양시사6권 p 13]

### 꼬쟁이

중흥부 동북쪽에 있다 이곳은 조선조 말엽까지만 해도 미곡을 저장하는 창고와 걸쭉반이었으나 일제시대 초에 광명시가 학동 공석골 출신 성만제(1890 1959)씨가 이 마을에 처음으로 정착한 후 뱃나무 등은 식재하면서 각종 꽃이 채배되기 시작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56]

### 대림아파트앞보도교

석수1동 인근 대림아파트에서 이름은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독점터

석산개발사업소내 동아건설이 자리잡은 곳이 예전에 두은 굽던 곳이라 하여 그 주변은 독점터라 칭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7]

### 1980년 박카스 GMP 공장 설립

1932년 서울 종로구 중학동의 조그만 약가게인 강중희 상점을 출발한 동아재약은 1961년부터 박카스를 생산해 왔다 박카스는 1963년 드링크제로 재발매한 후부터 눈부신 발전은 하며

동아제약이 제약업계 1위의 기업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했다  
1980년 석수동에 최진시설을 갖춘 GMP공장이 설립되면서 박카스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안양시사7권 p 149]

### 석수1동 옛 땡땡이거리 1960년대

석수1동에는 경부선 철도를 지나기 위한 철도 건널목이 있었다 이곳을 사람들은 땡땡이거리 라고 했다  
[안양시사8권 p 49]

### 만안교 역사적 배경

만안교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한두 사람이 겨우 지나는 작은 다리였다 정조의 능행차가 있을 때 임시로 나무다리를 만들어 이용했었다 정조의 능행이 정기적인 행사가 되면서 항구적이고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돌다리의 필요성이 생겼다 1795년 정조의 명에 의해 7월 착수하여 9월 완공했다 경기 관찰사가 지휘하였다  
[안양시사2권 p 409-411]

### 만안교 이전복원공사 1979-1980

만안교 이전복원공사 현장의 사진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75]

### 만안교 이전의 의미 세가지

첫째 문화재는 본래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아울러 원형보존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만안교는 역사적으로 옛 과전군과 시흥군(금천)의 군계여서 경계교 역할도 함께 수행했으나 이전된 자리는 옛 시흥군 영역의 보도로 이용되는 외에는 역사성 등의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복원 이전된 후 그 자리에 표석이라도 세워 선조들이 남긴 훌륭한 문화유적지를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런 표석이 없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77]

### 만안로

명학육교에서 중앙로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만안구 만안교에서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383]

### 만안삼성교

석수2동 안양교에서 북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있는 다리다 도로명 만안로와 하천명 삼성천의 이름을 합하였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박산약수

박미 서쪽에 있다 물이 자며 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주로 서울시민들이 이용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07]

### 박석교

박달1동과 석수2동을 연결하는 다리다 안양전에 놓여 있고 박석교의 박 자는 박달동 석 자는 석수동에서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박의원안양양로원터

석수동 수영장 건너편 산속에 있었다 이 양로원은 이윤영이 사회복지관으로 재직 중이던 1949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1950년대 현재 수용자는 모두 46명인데 언제 폐지되었는지

는 알 수가 없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8]

### 백련암지터

백련암 밑에 있던 연못 지운영이 삼막사 주지로 있을 때 백련암과 함께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백련암과 함께 1977년 7월 8일 집중호우로 매몰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8]

### 백련암터

삼귀자바위 동쪽 약 5m 지점에 있던 암자 이곳은 구 한말에 서화가이자 유불선에 통달한 명사로 그 이름이 높았던 지운영(1852 1935)이 은거하며 작품생활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1977년 수해로 매몰되었다 백련암이라 암각한 바위도 함께 매몰되었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8]

### 벌터

중흥부 북쪽에 의지했던 마을 서쪽으로는 광명시 일직동 자결이와 북쪽으로는 시흥시 금천구 시흥동 바리마을 동쪽으로는 꽃쟁이 마을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다 허허벌판 모래땅 위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벌터라 불렀는데 일명 벌말이라 칭하기도 하고 또 일제 때는 밤의 명산지라 하여 밤골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70]

### 1947년 사태현 장로 안양보육원 장립

만주에 있을 때부터 교육사업과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해 왔던 사태현장로는 1947년에 안양보육원을 장립하였다  
[안양시사8권 p 254]

### 삼막골

밀양 박씨 진주 하씨 청송 심씨 등의 누대 세거지로 진주 하씨의 집성촌이라 하여 보통 하씨촌으로 불리워 오고 있다 이 마을에 진주 하씨가 처음 살기 시작하기는 진주 하씨 문효공파(세종 때 영의정을 역임한 하연(河演)을 말함) 후손인 하우정(1561 1622 호는 낙선재이며 의금부도사를 역임)의 묘를 이곳 뒷산에 쓴 후에 그의 후손들이 묘하에 세거하면서 부터이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에 성재이에 있는 느티나무(마을에서는 서낭할아버지로 통칭)와 옷말에 있는 향나무(옷말 서낭할머니로 통칭) 앞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77]

### 삼막골교회터

삼막골 마을 성재이 조입 할아버지 느티나무 옆(하천)에 있었다 일명 아랫서낭 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이 느티나무는 안양에 현존하고 있는 노거수 중 가장 오랜 나무로 예로부터 삼막골의 안정과 풍년을 기원하는 신목이다 이곳에 교회를 최초로 세운 사람은 석수동 지역 최초의 기독교인인 하영홍(1879 1915)이다 그는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하연의 17대손이고 삼막골에 최초로 입향한 하우정의 10대 손으로 아버지 하진찬과 어머니 남평문씨 사이에 3남 중 막내로 삼막골에서 태어났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31]

### 삼막1~3교

삼막교와 별도로 붙여진 이름이다 삼막전에 있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삼막교**

석수2동 삼막전에 가설되어 삼막교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삼막부락약수**

삼막골 성재이 뒤(서쪽)에 있다 이 우물은 마시면 삼신할머니가 아들은 접지해 준다고 하여 일명 삼신우물 이라 부른다  
1989년 1월에 구성된 삼막약수회가 관리하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09]

**삼막사약수**

삼막사 주자장 아래에 있다 사갈명을 취해 삼막사약수라 칭한다 약수회는 1988년에 구성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09]

**삼성1~7교**

석수1동과 석수2동에 있다 하전명은 삼성전이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삼성약수**

동아건설(주) 뒷산 중턱에 있다 주로 관악산 삼성산 등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이 이용한다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물맛이 좋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09]

**삼성정**

석수동 신필급 촬영장 인근에 식사 겸 해장국은 파는 삼성정이 있었다 그 당시 유명배우 감독 스텝 등이 주로 단골이었다  
[안양시사7권 p 35 37]

**삼성천 소규모댐**

삼성천 상류에는 높이 7m 담수용량 3만 2 000톤 규모의 소규모 댐은 2002년 9월 3일 완공하였다 그 결과 하전이 마르는 것을 막고 진수 생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안양시사4권 p 466]

**삼성초등학교**

석수1동 169번지에 위치한다 1946년 9월 1일 시흥공립초등학교 삼성분교로 인가되어 1949년 3월 1일 안양초등학교 삼성분교로 전환 1954년 4월 1일 삼성초등학교로 개교했다 1971년 8월 25일에는 수영장은 개장했다  
[안양시사5권 p 45]

**석수동 향나무**

삼막골 성재이 새마을다리 옆에 있는 나무 본래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었는데 1977년 대홍수로 떠내려와 주민들이 현재의 위치에 옮겨 심었다 마을에서는 웃말 서낭님이라 하여 지성은 드린다 향나무가 할머니란 뜻하는 나무라 하여 1978년 마을 주민들이 그 옆에 은행나무를 식재했다 수령은 500년 이상이라고 하나 근년에 이르러 고사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02]

**석산개발사업소**

옛날 한마을 선원 근처에 석산개발사업소 입구 삼거리가 있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85]

**동네 앞마당 1960년대 석수1동사무소 앞**

옛날 석수1동 동사무소 앞에는 광명당 시계점이 있고 건너에는 넓은 마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 논기에 좋은 곳이었다  
[안양시사8권 p 314]

**석수1동 골목길 풍경 1960년대**

석수1동 동사무소 아래에 있는 마을은 당시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약국이며 세탁소 양화점 등이 있어 당시엔 제법 활기 있는 큰 마을이었다  
[안양시사8권 p 48]

**석수교**

석수1동 경수산업도로에 해당된다 □과전읍지□ 교량조에 “안양전석교 과전현 서쪽 20리에 있다 는 기록으로 과거에는 이 자리에 안양전석교 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 이 다다른 경계로 북쪽이 금전현 남쪽이 과전현이었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석수교회**

1955년 3월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에서 가정예배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1957년 8월 석수1동 산5번지에 예배당 신축했다 현재는 석수2동 270 2번지에 있다  
[안양시사5권 p 563]

**석수도서관**

석수도서관은 특색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첨단정보전자도서관으로 석수2동 산159 23번지에 있다  
[안양시사3권 p 295]

**석수동사무소 1970년대**

1970년대 동사무소에는 반공정신이 투철했던 시절이었던 만큼 반공 방점 간접신고 113 이라는 표어가 동사무소에 붙어 있었다  
[안양시사8권 p 89]

**미군을 위한 상점 1960년대**

석수동 미군부대 인근에 있던 상점들은 주요 고객인 미군들이었다 잠화점 쇼윈도에는 술병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고 가관에는 초콜릿이 쌓여 있었다 PAWNSHOP란 간판이 있는데 전당포의 의미로 골동품 가게도 있었다  
[안양시사8권 p 318]

**석수동 미군부대와 기지촌**

관악역 철도건널목 남으면 현재 주공아파트 조임쯤에 미군부대가 있었다 이곳에는 전쟁이 나면서 미군부대가 들어서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지촌도 있었다  
[안양시사7권 p 112]

**석수동 미군부대와 대동버스**

석수동 미군부대가 있는 곳에는 당시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급행버스인 대동버스 라고 일반버스보다 크기도 컸고 모양도 꽤 세련된 버스가 정차했었다 영등포로 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대동버스를 타고 갔었다  
[안양시사7권 p 112]

**석수로(보조간선)**

경수산업도로 안양예술공원 사거리에서 중훈부까지 이어지

는 길이다

[안양시사2권 p 385]

### 석수육교

석수1동과 석수2동 사이에 있다 옛날 성혜의원 사이를 연계하는 육교라 해서 성혜육교라 하였다

[안양시사2권 p 419-421]

###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석수1동 806호 주민자치센터 4층에 있다 장작공방 동아리방 공연연습실 다목적 홀 음악연습실 등의 시설이 있다 2005년 1월 5일 개소했다

[안양시사4권 p 309]

### 석수체육공원

석수2동에 7만 7786m 규모로 2006년 5월 23일 개장하였다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어린이 놀이터 생태연못 숲속교실 지압보도 헬스기구 석수대 산책로와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양시사3권 p 651]

### 석수초등학교

석수3동 655 77번지에 있다 1981년 2월 4일 설립인가 났고 1981년 10월 10일 개교했다

[안양시사5권 p 54]

### 석수하수처리장

석수하수처리장은 1일 300 000톤의 시설용량으로 2002년 4월에 완공되었다

[안양시사3권 p 305]

### 석전로(보조간선)

만안로와 박석로 사이에 있다 삼막전과 석수시장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안양시사2권 p 386]

### 석전약수

석수2동 체육공원에서 서쪽으로 산중턱에 있다 주로 석수2동 주민들이 이용하나 샘물은 시원지가 않다 관리는 1980년 초에 구성된 석전약수회가 맡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0]

### 1950년대 수도영화사 촬영소

석수2동 관악전철역 서쪽 만안로변은 옛날에 신촌으로 불리었다 이곳에 1956년 7월 수도영화주식회사가 약 2만 2 000평의 대규모 촬영소를 건설하여 안양영화의 메카가 되었다

[안양시사2권 p 377]

###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석수2동에 자리한 스톤앤워터는 서플먼트 스페이스(supplement space)로 기존의 전시공간을 보충 대리하는 공간을 뜻한다 따라서 스톤앤워터는 좁은 미술의 영역은 생활 속으로 확장하여 부재 결손 부족 손상된 도시 환경과 생활조건들을 보충 보충 대리하는 적극적인 예술공간이다 Stone & Water는 돌(石)과 물(水)의 영어식 표기이다

[안양시사3권 p 657-658]

### 신신양장점과 시계가 걸려있는 가게 1960년대

석수동에 미군부대가 들어서고 상거래가 활발 해지자 가정집을 개조한 상점들이 생겨났다 벽을 허물어 미닫이 유리문으로 바꾸거나 집에 잇대어 쇼윈도를 만들기도 했다

[안양시사8권 p 321]

### 신촌

관악역 서쪽으로 만안로변 옆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말엽까지만 해도 대부분 농경지였으나 일제시대 이후 새로 주택이 들어서자 신촌이라 칭했다 이곳은 1956년 7월에 수도영화주식회사에 의해 대규모 촬영장소인 안양촬영소(대지 22 000여평)를 건설하여 한국의 할리우드로 불리워질 만큼 한 때는 한국영화의 메카였었다 전원 광선이 충분하고 우량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이곳을 적지로 택하게 된 것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86]

### 신촌교

석수1동 삼성초등학교 정문 앞 삼막전에 있으며 경수산업도로 선상에 있다 신촌마을에서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신촌약수

청수정약수에서 동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있다 주로 석수2동 주민들이 이용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4]

### 안양교터

조선시대 만안교와 함께 안양에 있던 대표적인 다리이다 그러나 다리가 소재한 지점은 문헌마다 다른데 예컨대 『여지도서』에는 현(지금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서 남쪽 15리로 기술된 반면 『동국여지』에는 16리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시흥군읍지』에는 10리 지점으로 과전군과 경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고종 때 발간된 『과전군읍지』에는 안양전석교로 기술되어 있어 이 다리가 돈다리로 일명 안양전석교라 칭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정조 때 발간된 『원행정례』에는 엽불교란 교명이 있는데 안양교와 동일한 교명으로 생각되며 그 지점은 석수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석수교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안양교는 안양전(현재는 삼성전으로 칭함)위에 있던 돈다리를 일명 안양전석교 또는 엽불교로 칭했던 것 같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41]

### 안양노동상담소 개소식

안양노동상담소는 지역의 민주노조 건설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와 상담 민주화운동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안양노동상담소이다 하지만 안양시사 자료에 의하면 안양노동상담소 로만 소개된다 현판식 기념 촬영장에는 전태일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님도 함께 참석하였다 석수동 주택가에 상담소 사무실은 마련했다

[안양시사3권 p 586]

###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석수1동 238-4번지에 있는 요양원이다 2004년 10월 20일 개원했다

[안양시사7권 p 591 593]

**안양대교 밑 안양전 스케이트장(1970년대)**

1970년대 안양대교 밑의 안양전은 종종 언어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이용했었다  
[안양시사8권 p 23]

**안양사 추정 가람 배치도**

[안양사지\_현장설명회자료집 p]

**안양사 터**

기초에만 있던 안양사 터가 유유산업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론 통해 2010년 9월 안양사 터가 발굴되었다

**안양의 유래를 간직한 안양사**

고려 태조 왕건이 남쪽을 정벌하러 지나가다 삼성산에 오색구름이 채색은 이루는 것을 보고 농정 스님은 만나 안양사는 세웠다고 전해진다 안양(安養)은 불가에서 아미타분이 상주하는 정정한 극락정토의 세계를 뜻한다  
[안양시사7권 p 271]

**1963년 신상옥 안양영화촬영소 인수**

신상옥 감독의 신필름은 「로맨스비바」로 작품성과 흥행 면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후 1963년에는 안양촬영소를 인수하여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신필름 전성시대에는 신필름과 그 외 영화사들 이라는 말이 톤만큼 신필름의 위세는 압도적이었다  
[안양시사5권 p 400]

**수도영화사 안양촬영소 상량식**

석수동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 크기로 2만 5 000평에 달하는 대지에 건설된 수도영화사 안양촬영소가 세워진다 같은 시기에 세워진 정릉스튜디오(서울) 군자동 삼성스튜디오(서울)가 100-200평인 것과 크게 비교가 된다  
[안양시사3권 p 703]

**안양예술공원 알바로시자홀**

안양예술공원에 있는 알바로시자홀은 단층 건물의 160평 남짓한 전시실이다 관람자로 하여금 동선상 3D 입체감은 느낄 수 있는 공간성과 독립된 내부구조로서 곡선화된 open space를 구성해 조형물속에 작품이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안양시사3권 p 203]

**안양워터랜드**

관악산과 삼성산의 깊은 계곡에서 흐려내려오는 맑고 깨끗한 물은 이용하고 있으며 안양예술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안양시사3권 p 652]

**안양유스호스텔(블루몬테)**

안양시 최초의 유스호스텔로 안양시민의 휴식공간 및 문화 예술의장을 제공하고 있다 1998년 12월 30일 석수1동 241-43에 위치하고 있다  
[안양시사4권 p 316]

**1970년대 안양유원지 보트장 데이트 사진**

1970년대에 안양유원지에는 보트장이 있었다 두 사람이 단수 있는 배에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했다  
[안양시사7권 p 152]

**77 수해 안양유원지 사진**

1977년 대홍수는 안양유원지에 상류에서 내려온 토사와 자갈 엄청난 바위로 계곡 전체가 매워지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인공구조물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77 수해로 인해 안양유원지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안양시사7권 p 192]

**안양국민학교 볼 소풍 1950 4(유원지)**

안양초등학교 3학년 3반 아이들이 1950년 4월 15일 한국전쟁이 한달전에 안양유원지에 소풍은 갔었다  
[안양시사8권 p 112]

**안양유원지 포도판매(1969)**

안양의 포도는 워낙 유명해서 유원지로 오는 인파가 많았기 때문에 포도 관리는 어렵지 않았다 심지어 유원지로 포도른 먹으러 놀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안양시사7권 p 194]

**안양유원지의 역사**

안양유원지는 1932년 당시 일본인 안양역장 혼다 사고코(本田貞五郎)가 절도수입 증대와 안양리 개발을 위하여 조한구 서이 면장과 야마다(山田) 시흥 군수 및 지역유지들은 설득하여 1 500원의 예산으로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의 계곡은 막아 2조의 천연수영장을 만들어 안양풀이라 했는데 안양유원지의 준반점이다  
[안양시사7권 p 186]

**오토바이 자연보호 순찰대 발대식 1987 유원지**

거리질서 캠페인이 후에 질서지도 형태로 변형되었고 서서히 자연보호 캠페인으로 이동하였다 1987년에는 안양유원지에 오토바이 자연보호 순찰대가 발대식은 가졌었다  
[안양시사8권 p 249]

**유원지 게임시설 1960년대**

1960년대 유원지에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호기심으 유발하는 게임시설이나 놀이기구가 많이 있었다  
[안양시사8권 p 75]

**유원지 나들이 1937 (나막신이 인상적임)**

1937년 8월 5일 안양유원지에 나들이 온 신사들의 모습에서 나막신을 신고 있는 모습이 있다  
[안양시사8권 p 329]

**유원지 뽕드장 1970년대**

유원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뽕드장이다 유원지 뽕드장은 계곡의 물을 막아 만든 자연적인 뽕드장도 있었고 인위적으로 만든 뽕드장이 있었다 유원지 뽕드장은 연인들이 즐겨 찾는 데이트코스 중의 하나였다  
[안양시사8권 p 70]

**유원지 뺑다리 1960년대**

1960년대 안양유원지에는 구멍철관다리인 뺑다리가 있었다  
[안양시사8권 p 76]

**유원지 입구 1960년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기 전의 유원지 입구 모습에는 사각의 구조물 양질 현판에 산에 나무 가꾸고 뜬에 꽃은 심고 마에 사

량을 심어 우리도 아급답게 살아 봅시다 라는 표어가 있다  
[안양시사8권 p 332]

### 유원지 입구 매표소 1970년대

1970년대 안양유원지는 입구에 매표소를 갖추고 입장료를 받았었다  
[안양시사8권 p 73]

### 유원지 주차장 확장공사 1982

1982년 안양유원지에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해서 입구에 주차장 확장공사를 했다  
[안양시사8권 p 77]

### 유원지 출렁다리 1970년대

1970년대 나무발판으로 만든 출렁다리가 있었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즐렁거린다고 하여 출렁다리라 했다  
[안양시사8권 p 76]

### 유원지 출렁다리 2007

1970년대 유원지 출렁다리는 2007년 안양예술공원 작품 중의 하나로 아지형의 웅장한 다리로 변모했다  
[안양시사8권 p 76]

### 행락질서 지키기 캠페인 1970년대 유원지

안양유원지는 1970년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쉼터였다. 당시 행락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불쾌한 일이 많았었다. 새마을 캠페인 운동으로 안양유원지 행락질서 지키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피켓에는 오늘도 조용히 너도 나도 기쁘게 생각하여 행동하고 행동으로 명랑 잭자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안양시사8권 p 245]

### 안양유원지 대형 풀장

1970년대 안양유원지는 대형 풀장으로 호황을 누렸었다. 만안 각 풀장, 관광호텔 풀장 등은 인파와 만국기가 어우러져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안양시사8권 p 67]

### 안양유원지 풀장(옛날 사진)

안양유원지는 1969년 1월 21일 국민관광지로 승인받았다. 당시 안양유원지에 풀장이 6개소 있었다  
[안양시사1권 p 337]

### 안양풀장 1958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삼성전을 정비해서 만든 안양풀장은 해방 후에도 안양은 물론이고 서울시민들에게도 유명한 여름 휴양지였다. 1958년 안양풀장 사진에 의하면 하천변에 계단이 있고 넓은 뜰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다  
[안양시사5권 p 413]

### 안양육교

석수1동과 석수2동을 통과하는 경수산업도로에서 중앙로의 기점이 되는 곳이다. 옛날에는 서리재고개라고 하는 험준한 고개길이었다. 1901□1903년 경부선 철도공사를 실시하면서 육교가 건설되었다. 1905년 11월22일 이토 히로부미가 지나가다 원태우 지사에게 저격을 당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안양시사2권 p 419-421]

### 안양자동차극장

석수동 507 2번지에 안양자동차 극장이 있었다. 2006년 폐관되었다  
[안양시사5권 p.395]

### 안양자동차학원

석수동에 있는 안양자동차 전문학원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중등에 중장비 운전기사 붐이 일어나면서 골작기, 트레일러, 지게차, 크레인 운전교습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적이 있었다  
[안양시사7권 p 248, 251]

### 안양중학교

1947년 7월 14일 재단법인 시흥학원 안양중학교로 인가되어 1948년 3월 15일 안양중학교로 개교했다. 1949년 1월 20일 안양중학교(공립) 6년제로 인가되었고 1952년 8월 31일 학제 개편으로 안양중학교와 안양공업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1987년 9월 1일 석수3동 752번지 신축교사로 이전했다  
[안양시사5권 p 90]

### 안양중학교 설립 내용

안양중학교는 1947년 12월 안정호 이영섭 광영근 서병선 씨 등이 기증한 토지와 임야 1만 6 150평에 이재형 씨가 기부한 25 만 원을 합하여 설립된 기성회가 이해 안양중학교 개교 인가를 받고 재단법인 시흥학원을 설립함으로써 출범하였다. 당시까 지 지역 내에 중등학교가 없었으므로 그 설립은 지역주민들로서는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의미가 상당했던 듯하다  
[안양시사5권 p 12]

### 안양중학교 염색과

1949년 1월에는 공립학교로 변경되면서 안양지역 내 공업기술자 수급이라는 목적하에 공업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때 염색과 6년제 6학급이 있었다. 당시 안양에는 일제시대 만들어진 조선직물주식회사가 있어서 염색과가 필요했던 것이다  
[안양시사5권 p 13]

### 안양해솔학교

특수학교로 석수동 1 3번지에 있다. 2004년 2월 27일 안양해솔 학교로 설립인가 받고 2004년 5월 1일 개교했다  
[안양시사5권 p 169]

### 안양호암초등학교

석수1동 229 1번지에 있다. 2006년 3월 1일 개교했다  
[안양시사5권 p 87]

### 연현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박미마을과 접경지역으로 석수전철역 주변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초입인 안양육교 부근(서리재고개)이 풍수로 보아 솔개가 날개를 끈 형세라 하여 연현(鸞峴)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곳은 195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이 농경지였으나 태양당인쇄(석수동 433-1 1968년 6월 28일 창립) 동아제약(석수동 410 1972년 설립) 삼풍유지 등의 공장과 석수역이 생기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안양죄복



단에 위치한 마을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90]

**연현중학교**

석수2동 442 5번지에 있다 2001년 4월 26일 설립인가 받고 2002년 3월 1일 11개 학급 461명으로 입학식을 거행했다  
[안양시사5권 p 113]

**연현초등학교**

석수2동 485 15번지에 있다 1996년 1월 13일 설립인가 받고 1996년 3월 2일 11개 학급으로 개교했다  
[안양시사5권 p 79]

**예술공원교**

경수산업도로 선상에 있다 안양예술공원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예술공원길(보조간선)**

최근에 조성한 안양예술공원의 이름은 반영하였다 예전에는 유원지길 이었다  
[안양시사2권 p 387]

**원태우지사이등박문저격터**

관악전철역에서 서울방면으로 400여 미터 지점인 안양육교는 서울에서 안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지금은 하루 200여회 이상은 전철이 오가고 서울과 안양은 통과하는 각종 차량들이 24시간 뚫리는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기 이전에는 산림이 우거지고 산세가 험악해 삼남지방에서 온 라오는 과객이나 보부상 등은 항상 수난을 당하는 가파른 고개길(서리재고개)이었는데 일본제국주의가 경부선을 부설하면서 고개를 낮추었지만 워낙 경사가 급해 열차가 서행하던 곳이였다 이곳은 안양출신 원태우 지사가 1905년 을사조약 후 수월 일대에서 사냥을 한 후 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돌을 던져 안양인의 기개를 한껏 과시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55-458]

**유유산업**

유유산업 건물은 현대 건축계의 거장 김중업이 설계한 작품이 있는 곳이다 이 건축물은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절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장식적인 군더더기는 절저히 배제하고 주로 구조적인 요소들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경쾌한 모습을 하고 있다 현재 주식회사 유유는 제전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안양시에서는 이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 중이다  
[안양시사1권 p 492-493]

**유유산업 건물**

유유산업(주) 공장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고 김중업의 초기 건축 작품이다 이 건축물은 김중업이 설계한 유일한 공장 건물이라는 점과 건물 자체가 건축연구의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57년 설계하고 1959년 5월에 준공하였다  
[안양시사7권 p 252 255]

**이승만 대통령 안양영화촬영소 상량식 참석 1956**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은 수도영화사 안양촬영소 상량식 행사에 참석했다  
[안양시사8권 p 296]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구 안양소년원)**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 등을 보호하여 학교교육이나 재범방지교육 사회적응교육 등 교정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1946년 10월 1일 서울소년원 안양분원으로 개원하여 안양소년원으로 불리다가 2000년 8월 30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로 공식 명칭도 변경하여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안양시사3권 p 387 389]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동에서 인천 중구에 이르는 길이 27km 고속도로이다 1996년 12월 18일 개통되었다 인천과 서울 강남지역의 물동량은 원활하게 수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안양시사3권 p 713 714]

**조선건직터**

시흥군 동면 안양리 191(현 안양시 석수1동 석수주공아파트)에 있던 회사 본래의 공장은 1923년 서울 동대문 밖 송인동에 공장은 설치하고 문직기 108대와 준비기 등 일제를 설치하여 견직물 제조를 개시한 후 1939년에 불행하게도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모두 소실되어 휴면상태에 있다가 이해 10월에 동면 안양리 191에다 공장을 설립하고 견직기 100대 외에 준비기 일제를 완비하고 조업을 개시하였다 1949년 이 회사의 현황을 보면 종업원 210명(남자 40 여자 170) 공장경수 1 026평이었다 장차 종업원을 모집하여 3부제로 월 15만마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이듬 해 한국전쟁으로 모든 시설이 전소되자 미군부대가 주둔했다가 1978년 경에 석수주공아파트가 들어섰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62]

**중앙로**

석수동 안양육교부터 군포시에 이르는 큰 규모의 도로이다 안양시의 중심가를 따라 도로가 개설되어 시의 중심 도로 역할을 하여 중앙로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382]

**중초사터**

지금의 유유산업주식회사 자리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 일대가 포도밭이었으나 1959년 9월 유유산업이 건립되어 가람의 규모 등을 알 수가 었다 이곳은 중초사터라고 칭하는 이 유는 서쪽 지주의 외면(서측면)에 각자한 주기가 있어 이 명분에 의한 것이다 이 당간지주는 중국 당나라 보려 2년에 제작해서 다음 정미년에 성립하였다는 명기가 있는데 정미년은 신라 흥덕왕 2년(827)에 해당된다 명문은 6행 해서제 음각으로 자경은 6-7cm인데 내용중에 주동 황용사 혹은 제 법사의 범명 등이 있음을 볼 때 당대에는 꽤 알려진 사찰로 일컬어진다 경내에는 당간지주(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호로 지정됨)와 삼층석탑(1963년 1월 21일 보물 제5호로 지정되었으나 1996년 12월에 해제됨) 등 2개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다 삼층석탑은 당간지주보다 연대가 훨씬 후대로 내려와 고려중기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중초사는 신라시대 창건되었다가 고려 중기 이후에 폐사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65]

### 삼막골 하씨촌

석수1동 구룡마을에는 진주 하씨 집성촌이라 하여 하씨촌이라 했다  
[안양시사2권 p 361]

### 전인암

망월암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1908 1910년 사이에 여주출신 문경월파 보살에 의해 장사되었다 종과는 태고종으로 하늘과 사람 즉 우주와 인생은 같다는 의미로 전인암이라 칭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84]

### 정란약수

석수3동 사무소 뒤에 있다 1일 이용자는 약 300여명으로 주로 석수3동(중훈부) 주민들이 이용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5]

### 청수정약수

안양자동자학원에서 남쪽으로 약 400m 지점으로 산 기슭에 있다 1980년대 재육시설이 설치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5]

### 중훈고등학교

석수3동 595 3번지에 있다 2002년 2월 중훈고등학교 36학급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안양시사5권 p 143]

### 중훈1~2교

박달동과 석수3동에 걸쳐 있으며 안양전에 있다 석수3동 옛 중훈부 관아와 마을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중훈로(보조간선)

석수로 선상의 중훈교에서 시작하여 같은 선상의 중훈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  
[안양시사2권 p 385]

### 중훈부

조선시대 국가의 공훈이 있는 신하들이 있던 중훈부란 관아가 있었으므로 관아 인근에 민가가 생기면서 취락을 형성하자 관아의 명칭을 취해 중훈부라 불리운다고 한다  
1906년 당시 시흥군수였던 남기선에 의해 보고된 『시흥군진 중훈부진진군영양둔내장사주수기』에 의하면 진군영의 둔토는 소하리(현 광명시 소하동) 유등리(현 광명시 가학동 공세동) 읍내(현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사성리(현 광명시 절산동) 가리봉(현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신림리(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절산리(현 광명시 절산동)의 연간 도지가 10석(石) 5두(斗) 5승(升)이며 중훈부 둔토는 사성리를 비롯하여 우두리(현 광명시 절산동 광명시정 인근에 있던 마을) 광화대리(현 광명시 광명동)에 소재해 있었는데 연간 도지가 3석(石) 2두(斗)였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 지역에 있던 진군영과 중훈부의 둔토에서 일반 농민에게 경작하게 하고 주수 때 도지를 받아 그것으로 중훈부 관리 운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포쟁이 남쪽에 위치한 중훈부 마을은 일제시대만 해도 안양전반에 밭나무가 무성해 밭의 명산지로도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에 당시 시흥군에 의해 화훼 및 고등소재 육성마을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 마을에 최초로 세거한 성씨는 광주 이씨로 폐동 전(1982)

에는 60여 호가 있었는데 그 중 광주 이씨가 33호로 대상을 이루었다 1983년 폐동되자 주공아파트가 들어섰고 농경지였던 곳에는 석수초등학교(석수3동 655 1981년에 설립)와 안양중학교(석수3동 752 1948년에 설립)가 각각 들어섰다 마을에서는 폐동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10월 1일이면 마을 동쪽에 있는 꽃대산 정상에서 당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정과 풍년을 기원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01]

### 신안양3리사무소 내 중훈탁아소 1971

1971년 신안양3리사무소에는 중훈탁아원이 있었다 보전소에서 나와 마을사람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아주기도 했으며 탁아원에서는 농번기에 어린이들을 맡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안양시사8권 p 102]

### 중훈탁아원

1980년대 산업구조의 재편과 노동자들의 학력 증가 생계비 등의 상황으로 기존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대거 들어오면서 기존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 여성 주부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의 아이들은 사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탁아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중훈탁아원도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당시 신안양3리 사무소에 있었다  
[안양시사4권 p.335]

### 통일천약수

석수2동 체육공원 서쪽 산중턱으로 석전약수에서 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있다 체육시설의 조성면적은 160m 이고 1일 이용자 수는 약 400명으로 석수2동 주민들이 이용한다 관리는 1988년 1월 10일에 구성된 통일천약수회가 관리하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6]

### 한마음 선원

석산개발사업소 입구 삼거리에서 서북쪽으로 약 50m 지점에 있는 선원으로 1972년에 창설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인 이곳은 주로 참선을 가르치는 곳으로 우리가 다 모두라는 뜻인 한 마음을 개발해서 지상진국을 건설한다는 의미로 한마음 선원이라 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85]

### 한증막터

예전에 삼막사와 삼막골 중간지점에 한증막이 있었다 지금은 잡목만 우거져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68]

### 현대건설 앞약수

현대건설 석산 조입 다리 옆에 있다 1988년 10월에 구성된 현대약수회가 관리하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7]

### 화창교

안양전에 있다 포쟁이마을(화창)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11-418]

### 화장약수

중흥부에서 동쪽으로 산 중턱에 있다 주로 석수3동(중흥부) 주민들이 이용하고 1일 이용자 수는 약 250명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417]

**화장초등학교**

만안구 석수2동 848 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 1월 5일 설립인가 되었고 2005년 3월 2일 개교하였다  
[안양시사5권 p 84]

**문화자원 시설자원**

**금강사**

삼막골 뒷 산에 있다 금강사란 사경은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이란 불경에서 취했다 종파는 법과종으로 1960년대 초에 창사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50]

**정조 1795년 6차 원행**

1795년 6차 원행은 다른 해에 비해 매우 특별하였다 우신 정조가 즉위 20년은 맞는 해이며 왕이 거동 길에 잠시 머무르거나 묵어갈 수 있는 안양주필소가 새롭게 단장을 한 해였다 시흥로 개설 후 첫 원행이었고 무엇보다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윤2월 13일 화성행궁의 정당인 봉수당에서 성대하게 개최키로 한 뜻 깊은 해이기도 했다  
정조는 윤2월 9일 새벽 장덕궁을 떠나 노량진 용양봉저정에서 점심을 든고 당일엔 시흥행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다 다음날 아침 시흥행궁을 출발하여 석수 전철역 부근인 대박산 앞길과 관악역 근처의 염불교 그리고 안양전에 놓인 나무 만안교를 건너 안양행궁 앞에 이르게 되었다  
[안양시사7권 p 289]

**나무다리 만안교 자료**

나무다리였던 만안교가 비탄 내리면 비에 떠내려가 마침내 1795년(정조 19년) 3개월 공사 끝에 이지형 홍예석교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안양시사7권 p 290]  
**만안교비**  
만안교 다리 옆에는 만안교비가 있는데 경기관찰사 서유방이 글을 짓고 문신 조윤형이 비문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안양시사1권 p 194]

**정조와 현릉원행과 만안교**

정조는 어린 세자가 15세만 되면 왕위론 물려주고 한 많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행궁에서 살면서 못 다한 효도를 하려 했었다 하지만 세자가 일찍 죽어서 뜻은 이루지 못했다 그 대신 아버지 묘소에 참배하는 것은 정례화 하였다 원래 화산능행 노정은 노량의 배다리든 건너 용양봉저정 만안고개 금불암 금불고개(현 송실대 부근) 사당리 남태령 과전행궁 잔우물점 인덕원전교 갈산점 원동점 사근참행궁 지지대고개를 거쳐 화성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전 근신으로 사도세자를 죽게 했던 감상로의 경 길약로 무덤이 있어 노정은 시흥-안양을 거지도록 바꾸었다 이리하여 제6차 원행길인 1795년부터 시흥-안양 길은 태하였다 안양행궁이 지어진 이듬해인 1795년에는 시흥전과 과전전 경계지점에 만안교를 건설하였다  
[안양시사1권 p 190-201]

**망월암**

염불암 동쪽 약 1km 지점에 있는 사찰이다 창사연대는 알 수가 없으나 조선시대 태종 때(1407) 신미 스님이 왕명으로 5층 탑을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이전에 창사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후 정조3년(1779) 동포 스님에 의해 중창되었다 경내에는 3층석탑을 비롯하여 극락전 요사재 용신각 등이 있다 170년생 노송 두 그루가 사찰의 분위기를 한층 일신 시킨다 조선 만엽에 발간된 『기전읍지』 『시흥읍지』 사찰 조에 삼성산에 망월사가 있다는 기록으로보아 처음에는 망월사라 했다가 후대에 현재의 이름인 망월암으로 개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50]

**망월암 극락전 소조여래좌상**

망월암에는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소형의 소조여래좌상이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다  
[안양시사1권 p 379]

**망월암 전경**

삼성산 중계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안양시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망월암에는 고려시대 건립된 삼층석탑은 비롯하여 극락전 요사 등이 남아 있다  
[안양시사1권 p 379]

**반월암**

삼막사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다 종파는 태고종으로 고려말의 고승인 나옹(1320 1376)에 의해 창사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져 낮 12시가 되어야 해돋이 본 수 있고 밤 12시가 되어야 달은 본 수 있다 하여 해와 달을 각각 반 밖에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간이므로 반월암이라 칭한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55]

**반월암 백운당부도와 명성당부도**

반월암에는 백운당부도와 명성당부도가 경내에 나란히 세워져 있다 조선 말기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사1권 p 404]

**반월암 서영당마애부도**

이 마애부도는 반월암에서 삼성산 정상으로 오르는 넓은 등산로의 오른쪽 암벽에 조성되어 있다  
[안양시사1권 p 406]

**백련암지**

백련암지는 현재 삼막사 월암당과 그 주변 일대이다 삼막사 사적비 기준으로는 남쪽이며 등곡대 아래쪽으로 1-2동의 소규모 건물들이 들어설 만한 좁은 지형이다  
[안양시사1권 p 384]

**보장사**

현재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있는 사찰이다 보장사 무량수전에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목불이 봉안되어 있고 영각당과 요사르 비롯한 다수의 가람이 현대식 건물로 조영되어 있다  
[안양시사1권 p 381]

**보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이 불상은 보장사 무량수전 내봉 높게 마련된 불단 위 우리장 안에 모셔져 있다 불상은 사각형에 가까운 얼굴형은 하고 있으며 이마 중간에 백포가 표현되어 있다

[안양시사1권 p 402]

### 불성사

현재 태고종 사찰로 관악산에 소재하고 있다 『불성사약력』에 의하면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안양시사1권 p 377]

### 불성사 각원선사 마애부도

이 마애부도는 불성사 요사의 북서쪽에 형성된 암벽에 조성되어 있다

[안양시사1권 p 405]

### 불성사 대웅전 소조여래좌상

불성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현재는 개금되어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머리는 나발로 표현되었으며 정수리 부분에는 낮고 작은 육계가 있고 중앙에는 제주가 표현되었다 17-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사1권 p 402]

### 불성사 만력십팔년조(1590년) 각자

불성사에는 1590년 새겨진 마애명문이 남아있다

[안양시사1권 p 377]

### 삼막사

삼막사는 조계종 사찰로 용주사의 말사이다 『사적기』에 의하면 신라시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율필거사가 창건하여 산의 이름도 삼성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안양시사1권 p 375]

### 삼막사 3층석탑

이 탑은 육관음전 왼쪽 축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높이는 약 255cm에 달한다 지방유형문화재 제112호 일설에는 고려 고종19년 1232년 김윤주 스님이 몽고군 장수 살리타이를 파살 하나로 쓰러뜨린 기념으로 이 탑을 세웠다는 내용이 구전으로 전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아울러 탑의 위치도 원래부터 세워져 있던 곳일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탑의 모습은 1979년에 중수하면서 일부 보수된 것이다

탑 기단부의 하층 기단저석과 중층은 4매의 장대석으로 구성되었고 갑석은 2매의 판석으로 이루어졌다 상층 기단의 면석은 4매석으로 이루어졌는데 모서리에 우주의 표시가 보이고 갑석은 한 귀퉁이가 깨져 있는 상태이다 탑신부는 탑신과 옥개석이 각 1매로 조성되었으며 옥개석의 낙수면은 경사가 완만한 편이고 옥개석 받침은 각기 3단씩이다 탑의 규모는 그다지 큰 편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고려시대 석탑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66]

### 삼막사 감로정 석조

석조는 삼막사 삼층석탑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귀부형과 원통형의 2기가 현존한다

[안양시사1권 p 401]

### 삼막사 대웅전

삼막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 건축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목조

건축물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1990년의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 전체가 소실되었으며 법당 내부에 있던 각종 불화와 법종(일명 혜독종이라고 하였음) 등도 함께 불타버리는 안타까움을 겪었다 현재는 대웅전을 육관음전이라고 개명하여 불상 봉안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는 비록 현존하는 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물의 옛모습을 되돌아 본다는 의미 그리고 육관음전의 내력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옛 대웅전의 면면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대웅전은 신라 때 건축되어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중건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남아있던 대웅전은 조선후기 양식에 속했으며 석조 기둥이 무학대사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맞배지붕에 한지 골기와 그리고 좌우에 방풍판이 있었던 이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정면 939cm 측면 659cm의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법당 구조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우진각 지붕 단정다포계양식의 건물로 공간포가 1조씩 배치되어 있었으며 4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다듬어진 4각 조석을 놓고 그 위에 8자 석주를 세운 형태였다

대웅전 안에는 1905년에 조성된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 현황탱화 독성탱화 등 각종 불화와 대존제보살상 전불상 등의 불상 그리고 1625년에 제작된 동종 등이 있었으나 화재 발생 때 모두 소실되었다 현재는 대웅전 자리에 육관음전이 새로 건축되었으며 내부에 봉안할 육관음상과 탱화가 제작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64]

### 삼막사 도선국사

『삼성산삼막사사적』에는 신라말 도선스님이 이곳에 와서 잡초만 무성한 절터에 사찰을 세우고 관음사라 하였다는 내용과 그 문도들이 중국 소주의 삼막사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므로 이 사찰의 이름을 삼막사로 부르기로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62]

### 삼막사 등곡대

삼막사에는 등곡대가 전해지고 있다 등곡대는 조선 초기 크게 활약한 학조 등곡화상(燈舍和尚 1432-1514)과 관련이 있는 유적으로 추정된다 이는 학조 등곡화상이 조선 초기에 이곳에 머물면서 수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사1권 p 376]

### 삼막사 마애삼존불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4호로 삼막사의 절보전에 모셔져 있는데 원래는 칠성각이다 산의 능선에 형성된 암벽을 깎아 닦은 감실을 만들어 삼존불을 양각했다 마애삼존불은 1763년(영조 39년) 승려 오심의 발원과 서세준의 시주로 조성되었다

[안양시사1권 p 392]

### 삼막사 명왕전

육관음전 앞뜰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명부전이라고도 한다 1880년에 의민 스님이 건립하고 1975년에 이르러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잘 다듬은 장대석으로 2단을 겹쳐 축대를 쌓았으며 높은 화강암 주조석으로 기둥을 받치고 있어 기초를 튼튼하게 구축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었으며 좌우에는 방풍판을 설치해 놓고 있다 문살을 일부 보수하였을 뿐 다른 부재는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총 103평



에 달하는 면적이다 내부에는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귀왕 지장시왕 등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고 1905년에 제자된 지장 탱화도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65]

**삼막사 삼귀자**

삼귀자명은 삼막사 경내에서 칠성각으로가는 등산로 좌측 암벽에 음각되어 있다 1920년 지운영 꿈에서 관음보살을 본 후 이 글을 새겼다 귀(龜)자른 횡으로 크게 세자 음각했는데 암각명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  
[안양시사1권 p 398]

**삼막사 삼층석탑**

이 석탑은 삼막사 경내의 전불전 뒤편으로 구축된 석축 상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안양시사1권 p 393]

**삼막사 사적비**

사찰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비대가 거의 땅에 묻혀 있어 뒷면만 드러나 있는데 별다른 꾸밈이 없는 방형의 대석이다 목조건축의 팔각지붕 형태인 개석에도 기왓골 등의 꾸밈이 가해지지 않은 평범한 모습이다 비문의 전체 내용은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한데 강희 46년 즉 1707년이라는 건립 연대를 알게 하여주는 명문이 판독되었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67]

**삼막사와 무학대사**

「삼성산삼막사사적」에서는 조선 태조는 지리학에 능통한 무학스님을 궁중으로 초청하여 수도본 정하는 과정에 자문을 받았는데 스님은 한양의 지세를 누르고 보호하기 위하여 동서 남북의 네 곳에 사찰 건립을 하였다 삼막사는 남쪽의 지세를 담당하는 사찰이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63]

**삼성산 매바위 각자**

삼성산 매바위에는 나무야미타불 대정 광서 20년(1894 고종 31) 갑오 3월 일 이라고 적혔었다  
[안양시사6권 p 188]

**상불암**

망월암에서 위로 조금만 넘어가면 그곳에 절벽을 기대인 양 자리잡고 있는 작은 암자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태고종 산하의 상불암이다 높은 산봉에 자리잡은 사찰이라 하여 상불암이란 사명이 붙여졌는데 절 입구에 조그마한 화전이 있어 주승의 근검은 짐작하려니와 이 암자에는 일찍이 화성군 봉담내리 정궁 출신 홍선관이란 분이 중북 박달산 출신 지선녀와 함께 1914년 3월 3일부터 이곳 자연동굴(상불암 법당내에 있는 동굴) 속에서 수도하다가 1918년 3월에 자연동굴과 연결된 현재와 같은 위치에 법당을 짓고 상불암이라 명명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68]

**상불암 창건주 홍선관**

상불암 창건주 홍선관은 1856년 남양 홍씨 판중주과 제15대 손인 홍익현과 인동 장씨 사이의 2남중 장남으로 태어나 14세 때

(1870)에 출가 입산하여 금강산 묘향산 등을 찾아 수도하던 중 1899년 3월에 득도하고 49세 때에(1905) 중북 박달산에서 수도 중이던 지선녀와 결혼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68]

**상불암 창건주 홍선관 저 지선녀 명기 출신 설**

일설에는 홍선관의 저 지선녀가 명기(名妓)출신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규태의 「인맥 39 조선일보 1969 9 18」에는 지선녀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제 때 이 명기(지선녀)는 요염하기로 이름이 나 경수간의 잦은 오입장과 접하였고 속칭 전석꾼 전명을 녹였다 할 만큼 분방하였다고 전한다 그래도 잉여된 애욕을 가늘 길이 었었던 그는 어느 하루 한 도승(홍선관)은 찾아가 그 애욕이 충족 될 길을 물었다 불 속에 불을 던지면 불은 분다 크게 타 오르지만 던져진 불은 없어진다면서 불(火)산인 삼성산에 입산하면 애욕의 불을 불산에 옮겨 타고 자신의 불은 그 큰 불석에 있는 것이 된다 하였다

이 명기는 그 많은 가산은 정리하고 삼성산 절벽 밑 동혈에다 조막은 짓고 입산 하였다 그 곳은 역시 불산인 관악의 주봉이 맞 바라보이는 화택(火宅)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화전을 가꾸고 살았다 도구라고는 가야금과 장고와 호미 한 자루-

일제말 그 동혈의 맞바라지인 망월암에 살았던 한 스님을 필자(이태규)는 만난 일이 있다 상불자라 범명을 삼은 이 기생은 통곡도 하였고 밤세워 기성은 지르는 일도 있었으며 저량한 금소리에 자신의 수도가 크게 시련 받기도 하였었다고 말하였다 그런 소리들은 한 여인이 그의 본(情心)은 큰 불속에 공북 듯 달달 볶아 무화(無化)하려는 그런 과정의 시련에서 나온 것일게다 그는 크게 잊은 공(空)의 경지를 풍수가 유도한 대로 살았다 광복 직후까지 그곳에 살았던 것은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며 그가 수도한 곳은 지금 상불암으로 조라하게 남아 있다 지금도 그 근처를 과보면 이 상불자가 밥지어 먹은 재가 나온다고 한 보살이 말해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69]

**석수동 마애종**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로 대정 암벽을 비교적 고르게 다듬은 다음 음각과 양각을 환용하여 조각하였다 석수동 마애종은 바위 면에 범종을 조각한 유일한 것으로 범종 연구뿐만 아니라 장인의 장의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안양시사1권 p 388]

**석수동 석실분**

안양시 북쪽을 의호하고 있는 삼성산 줄기가 남서쪽으로 뻗어 내려 형성한 구릉의 중턱에 석수동 석실분이 자리 잡고 있다 북벽과 동서벽을 쌓고 3매의 큰 관석형 뚜껑들로 지붕을 덮은 후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한 다음 남쪽에 관석형 돌을 막아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석실분으로 판단되지만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안양시사1권 p 409]

**수도사**

「기아의 집(구 안양관광호텔)」 위에 있는 사찰로 종가는 도덕회에 속해있다 이 사찰은 신라시대의 고승인 원표대사 의상대사 율필거사 등 삼사가 이곳에서 3년간 노전참선은 하며 수도하던 곳이라 하여 수도사라 하였다 사찰측에 따르면 1942년 현재의 사찰을 지을 때 도막사라 암각된 바위가 출토되

었는데 무지한 석공이 포개 없애 버렸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70]

### 안양사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위치한 삼성2교를 건너 보장사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도로를 따라가면 나온다 안양사는 오늘날 안양시 지명이 유래된 사찰이기도 하다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장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최근 유류산업 문화재 발굴에서 안양사 전탑지와 안양사 기와가 출토되었다  
[안양시사1권 p 앞 사진첩]

### 안양사 귀부

안양사 대웅전 앞에 석조부도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3호로 지정되어 있다 안양사 귀부는 고려시대 석조미술과 비슷한 형식과 양식을 보이고 있어 11세기 후반경이나 12세기 전반경에 건립된 것을 보인다  
[안양시사1권 p 390]

### 안양사 석조부도

안양사 대웅전 앞에 귀부와 나란히 함께 세워져 있다  
[안양시사1권 p 앞 사진첩]

### 안양사 전탑지

안양사 7층저탑은 신륵사전탑과 함께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탑과로 당시 안양사가 왕이나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최근 유류산업 발굴을 통해 전탑지가 발굴되었다  
[안양시사1권 p 374]

### 안양사 칠층전탑(七層塼塔)

안양사에 위치한 칠층전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미술사적 역사적 의미가 매우 높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송인의 「탑묘중신기」가 남아 있어 칠층전탑의 위용이 어떠한지 잘 나타나 있다 최근 유류산업 발굴 현장에서 칠층전탑지가 발견되었다  
[안양시사1권 p 120]

###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양사탑중신기 부분

여기서는 칠층전탑의 위용 탑이 무너져 다시 세우게 된 과정 여기에 들어간 인력과 비용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1381년(우왕 7년) 좌영 장군과 혜겸이 증건한 것으로 공사 기간은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낙성식에서 우왕이 내시 박원계를 통해 향을 내렸고 승려 1000여명이 모여 불사를 거행하여 사리 12개와 불아 하나를 봉안하였는데 시주한 사부 대중이 무려 3000명이 이르렀다고 한다  
[안양시사1권 p 120]

### 금주안양사탑중신기 안양사 자료

안양사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한 자료가 전해지는데 이송인(1349 1392)의 「금주안양사탑중신기」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71]

### 염불암

현재 조계종 사찰로 용주사 말사이다 고려 태조대에 안양사글장건한 능정 스님에 의하여 장건되었다고 한다  
[안양시사1권 p 앞 사진첩]

### 염불암 부도군

염불암에는 서영당부도 인봉당부도 운수거사부도 현전당마애부도 여산송씨마애부도 등 조선 후기 염불암의 연혁을 살피는 데 귀중한 부도군이 있다 또한 마애부도는 조선 후기 석조부도의 변천사를 살피는 데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안양시사1권 p 378]

### 중조사지 당간지주

중조사지 당간지주는 보물 제4호로 안양예술공원 유류산업 마당에 중조사지 삼층석탑과 함께 나란히 세워져 있다 당간지주 서쪽면에는 명문에 의하면 이곳이 중조사입과 동시에 826년(공덕왕 1년) 8월 6일 재석하여 827년 2월 30일에 당간지주근 완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양시사1권 p 앞 사진첩]

### 중조사지 삼층석탑

중조사지 삼층석탑은 중조사지 당간지주에서 동북쪽으로 60m 정도 떨어진 사찰 중심공간으로 추정되는 곳에 남겨져 있었는데 1960년 유류산업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워졌다고 한다  
[안양시사1권 p 387]

### 호암사

호암산에 호랑이를 짓누르기 위해 호암사를 지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47]

### 호암산성

호암산에는 호암산성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급전편 고적조에 호암산성 석축이며 둘레는 1천6백81척이다 성안에 큰 못이 있는데 날씨가 가문면 기우한다 고 기록되어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49]

## 문화자원 향토설화자원

### 가운데벌 유래

석수3동 마을 중훈부와 아랫벌 사이에 있는 벌이다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가운데벌이라 이름을 붙였다 1984년 주공아파트와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안양시사2권 p 488-490]

### 가족재고개 정비탈고개 유래

석수1동에 있다 고갯길이 경사가 심해 쇠가죽처럼 미끄러운 곳이라 하여 가족재고개라 불렀다 정반처럼 미끄럽다 하여 일명 정비탈고개라 부르기도 했다  
[안양시사2권 p 466-472]

### 갈매골 유래

석수2동 안양자동차학원 서북쪽에 있다 갈매산 밑의 골짜기이므로 갈매골이라 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 갈매산 유래

석수2동 안양육교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낮은 산으로 이 지역에 갈매나무가 많이 자생하였는데 이 식물의 이름은 따서 갈매산이 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30-439]

**거북골 유래**

석수1동 웃전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다 지방유형문화재 제 93호 안양사 귀부가 있다 안양사 귀부가 있어서 거북골 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관악역 유래**

석수2동 244 1번지 경부선 전철 1호선 서울 기점 21.6km 지점에 있다 1974년 7월 5일 준공되었다 인접 지역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관악산에서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85-486]

**광석바위 유래**

석수1동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옆에 있다 바위가 크고 넓다 하여 광석바위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괭맹이두터골 유래**

석수1동 학무봉 정상과 키다리골 사이에 있다 골짜기가 마치 괭맹이(등간반이)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괭이바위 유래**

석수2동에 있다 고양이 얼굴처럼 생겼다고 해서 괭이바위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굴바위 유래**

석수1동 두리미골 서쪽 계곡 옆에 있다 그 바위에 큰 구멍이 있어서 굴바위가 되었다 굴이 커서 박쥐가 살았으며 영험한 바위로 알려져 지성은 드리기도 했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금관바위 유래**

석수1동 수도사 경내에 있다 바위 모양이 면류관처럼 생겨서 금관바위라고 한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꼬쟁이 고개 유래**

석수2동 꼬쟁이와 벌터 사이에 있다 마을이름에서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66-472]

**꼬쟁이, 꽃창동, 화창동 유래**

석수2동 중훈부 동북쪽에 있다 꼬쟁이 라는 지명유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전해지고 있다 예전에 장고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꼬쟁이 봄이 오면 철쭉이 많이 피어서 꼬쟁이 안양전변에 위치한 꽃이었던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조선시대에는 꽃창(花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꽃창 이라고 불리던 지명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꼬쟁이 로 변화되었다는 설이 있다

[안양시사2권 p 374]

**꼬쟁이골 유래**

석수2동 작별산 남쪽 기슭 꼬쟁이와 벌터 사이에 있다 마을이름 꼬쟁이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꼬쟁이별 유래**

석수2동 자연마을 꼬쟁이 앞에 있는 들이다 꼬쟁이별 은 여기에서 연유된 이름이다 1980년대부터 택지로 변모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88-490]

**꽃피산 유래**

석수3동 중훈부 동쪽에 있다 중훈부 최초의 세거 성씨인 광주 이씨 선조의 묘가 있으며 4개이 약수터가 있다 돌이 많은 산이다 애초에는 꽃이 많다는 의미로 단순히 꽃피 또는 꽃미라고 불렀을 텐데 관습적으로 꽃피산 이라 부른다

[안양시사2권 p 430-439]

**넓적바위 유래**

석수1동에 있다 바위가 크고 마당처럼 넓어서 넓적바위라고 한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단오제 그네뛰기 대회 1982, 1983 유원지**

안양문화원에서 주관한 단오제는 1979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안양유원지 대형풀장 오른쪽 공터에 세워져있던 개인 유료 그네터런 임대하여 단오절 행사를 지냈는데 단그네와 쌍그네 타기가 행사의 전부였다

[안양시사8권 p 150]

**둥이바위 유래**

석수1동 삼막사 서쪽 산 중턱에 있다 돌둥이처럼 둥근 형상을 띠 있는데 흔들거리기도 한다고 한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두리미골 유래**

석수1동 둥이바위 북쪽에 있다 삼성산 낙맥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이다 예전에는 이곳이 깊고 그윽하여 두루미의 서식지였을 가능성이 있고 두루미의 형상이 목이 길고 다리가 길다는 점은 생각하면 이 이미지가 골짜기 이름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뒷골 유래**

석수3동 꼬쟁이 서쪽 중훈부 동쪽 뒤에 있어서 뒷골 이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들어가는속골 유래**

석수1동 삼막골 아래 한중막터 남쪽으로 골짜기가 두 개 있다 그 중 학무봉 서쪽 골짜기는 사람이 왕래할 수 있어서 든어가는속골 이라 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디디미골 유래**

석수1동 조양골 북쪽에 있다 예전에 삼막골 주민들이 서울 신림동 봉천동 등지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은 거쳐야 할 만크 요긴한 교통로였다 이 골짜기 근처에 산삼을 채취하는 것으로 삼는 심마니들이 이 일대에 집단으로 살았으므로 디디미(심마니)골 이라고 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마귀할미불돌바위 유래**

석수1동 학무봉에는 예전 마귀한미가 불들로 사용하던 바위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마리아바위 유래**

석수1동 학무봉 아래에 있다 둘레 2m 높이 20m 정도의 거석이다 성모마리아 형상을 해서 성모마리아바위라고 했다가 마리아바위라 부르고 있다 원래는 모양이 개의 생식기와 같다 해서 개좃바위로 불리다가 주민들이 어감이 나쁘다고 변경했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만두바위 유래**

석수1동 키타리굴과 팽맹이 두턱골 사이 산 능선에 있다 만두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두바위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만안교 담교놀이**

안양지역에는 호계교와 만안교 담교놀이가 유명하는데 만안교 담교놀이는 1920년경까지 놀았으나 그 이후로는 사라졌다 일제의 식민 작위가 시작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고 인심도 각박해져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점차 시들어가면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담교놀이는 농악대의 악기 연주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길놀이를 하면서 다리밟기를 하고 담교 위에서는 무동춤을 비롯해 주민들 스스로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밤새 놀았다  
[안양시사2권 p 219]

**망해산 유래**

비산1동과 석수1동 및 안양2동에 걸쳐 있는 산이다 이 산 정상에 올라가면 멀리 서해가 한 눈에 들어온다고 하여 망해산이다  
[안양시사2권 p 430-439]

**모이골 유래**

석수1동 삼막사에서 큰절골 쪽으로 올라가다가 동북 방향으로 깊숙이 들어간 골짜기다 야생 조수의 서식지인 것과 관련해서 모이골이라 했다 예전에는 짐승의 먹이도 모이라고 했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못들어가는속골 유래**

석수1동 삼막골 아래 한중막터 남쪽으로 골짜기가 두 개 있다 그 중 학무봉 서쪽 골짜기가 암벽이 가로막혀 깊이 들어갈 수 없어서 이 골을 못들어가는속골이라 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박산 유래**

애조의 이름은 박피 박미다 석수1동에 있다 서울시 금전구 시흥동 박미마을 뒤에 있으며 산 중턱에 절터가 있다 산이 넓고 평평한 형상을 보고 박피라고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박미의 미는 피의 경기도 사투리이다  
[안양시사2권 p 430-439]

**배순이천 유래**

석수1동 배순이에서 발원하여 삼막전을 거쳐 안양전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발원지인 배순이는 안양해솔학교와 경인교대 사이의 계곡 일대를 말한다

[안양시사2권 p 458-462]

**벌터, 밤골 유래**

석수2동 중훈부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허허벌판 모래땅 위에 자리 잡은 마을이므로 벌터라고 불렀다  
[안양시사2권 p 339]

**보습바위 유래**

석수1동 동이바위 북쪽 약 50m 쯤에 있다 농기구의 일종으로 쟁기의 술바닥에 맞추는 삼 모양의 쇠조각 보습처럼 생겨서 보습바위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복바위 유래**

석수1동 학무봉 중턱에 있다 예전에 산막골 부녀자들이 이 바위 앞에서 소원 성취를 기원했는데 그때마다 복이 내렸다고 하여 복을 주는 바위 즉 복바위라고 전해진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부영골 유래**

석수1동 예전 안양유원지 관리사무실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부영이가 서식했다해서 부영골이라 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분투골 유래**

석수1동 작은 바랑골 북쪽에 있다 이곳 골짜기의 토질이 붉다 하여 분투골이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삼귀바위 유래**

석수1동 삼막사에 지운영이 삼막사 지주로 있을 때인 1920년에 음각한 삼귀바위가 있다 거북이 귀(龜) 자세 글씨가 있어 삼귀바위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삼막골 유래**

석수1동 삼막골 뒤에 있는 골짜리이다 마을명인 삼막골에서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삼막부락약수, 삼신우물 유래**

석수1동 151번지 삼막골 성재이 뒤에 있다 이 우물을 마시면 삼신할머니가 아들을 접지에 준다고 하여 일명 삼신우물이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삼막사 은행나무 전설**

삼막사의 은행나무는 원포대식 지팡이를 꽂아 둔 것이 은행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을 안고 있다  
[안양시사7권 p 298]

**삼막사약수 유래**

석수1동 삼막사 주차장 아래에 있다 사찰 이름은 따라 삼막사약수라고 한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삼막전 유래**



석수1동에 있다 삼막사에서 발원하여 삼막골을 거쳐 관악역 남쪽 방향 약 400m 지점에서 삼성전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발원지인 삼막사와 삼막골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안양시사2권 p 458-462]

**삼성산 유래**

삼성산의 삼성 유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신라677년 원효 대사 의상대사 율필거사 세 고승이 암자를 짓고 정진하던 곳 삼막사의 기원 둘째 고려 말 분교계의 중심 인물인 나옹화상과 무학대사 그리고 인도 승려 지공이 이곳 삼성산에서 수도했다는 기원 셋째 불가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의 교주인 아미타불과 그 왼쪽의 관세음보살 및 오른쪽의 대세지보살을 삼성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산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주장이다 [안양시사2권 p 427-428]

**삼성약수 유래**

석수1동 (주)동아건설 뒷산 중턱에 있다 주로 관악산 삼성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이 이용한다 삼성산에서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삼성천 유래**

조선 조 금전현의 진산 삼성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예술공원을 거쳐 안양대교에서 안양천과 합류한다 조선시대에는 안양천으로 불렸다가 일제강점기에 현재의 이름인 삼성천으로 개칭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58-462]

**서낭고사**

석수동 삼막동에서 서낭할아버지와 서낭할머니 나무에게 서낭고사라는 마을제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안양시사5권 p 599]

**석수동 삼막골 할아버지 할머니제**

삼막골 석수1동은 하씨 집성촌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주민들은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 날을 정해두고 당주집과 당나무에 금줄치기 부부생활 엄금하기 조상집에 가지 않기 등의 금기를 지키며 할아버지 할머니 나무에게 제를 지냈다 [안양시사2권 p 172 176]

**서리재고개 유래**

현재는 숲개고개라 부르고 있다 조선시대 말까지만 해도 이곳은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져 으스스한 곳이었다 과거를 보러 가거나 보부상들 및 행인이 한양을 가자면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야 했다 그때면 으레 산적과 강도의 습격을 받았었다 지금의 연립마을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곳 일대가 농경지여서 삼외 수박 등 정과물들이 서리를 많이 당했다 서리를 많이 해갔다 해서 서리재고개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241]

**석바위 유래**

석수1동 삼성산 중턱에 돌이 많으므로 그 일대 큰 석바위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석수1동 연혁**

석수1동은 조선시대에는 금전현 현내면 안양리였다가 제22개 정조 19년(1795) 음력 윤 2월 1일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로

되었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5일 직령 제98호에 의거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로 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동면 안양리로 했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 신안양리로 되었다 이어 1964년 1월 1일 신촌 삼막골 구룡동 지역을 신안양1리로 각각 개편한 후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석수동이 되었다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에 따라 석수동은 분동해 삼막골 신촌 구룡마을 등의 지역을 석수1동이라 했으며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다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91 93]

**석수2동 연혁**

석수1동은 조선시대에는 금전현 현내면 안양리였다가 제22개 정조 19년(1795) 음력 윤 2월 1일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로 되었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5일 직령 제98호에 의거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로 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동면 안양리로 했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 신안양리로 되었다 이어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신안양23리로 각각 개편한 후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석수동이 되었다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에 따라 석수동을 분동해 중훈부 고쟁이 등의 지역은 석수2동이라 했으며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에 따라 광명시 소하1동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93 96]

**석수3동 연혁**

석수1동은 조선시대에는 금전현 현내면 안양리였다가 제22개 정조 19년(1795) 음력 윤 2월 1일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로 되었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5일 직령 제98호에 의거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로 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동면 안양리로 했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 신안양리로 되었다 이어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신안양23리로 각각 개편한 후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석수동이 되었다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에 따라 석수동을 분동해 중훈부 화장동 등의 지역을 석수2동이라 했으며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다 1990년 1월 1일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석수2동 중 중훈부역을 분동해 석수3동이라 하였다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96-98]

**석수동 유래**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석수동(石手洞)이라고 했다 석공(石工)을 뜻하는 석수(石手)라는 직업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초에 마을 앞 삼성전에 석수동수영장이 생기면서 석수(石水洞)이 되었다고 한다 [안양시사2권 p 363]

**석수역 유래**

석수2동 422 3번지 경부선 전철 1호선 서울 기점 19.6km 지점에 있다 1982년 8월 2일 준공되었다 석수동에 위치한 역이기 때문에 석수역이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85-486]

**석전약수 유래**

석수2동 제육공원에서 서쪽으로 산 중턱에 있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선바위 유래**

석수1동 석산개발사업소와 삼막사 중간쯤에 있다 우뚝 서 있어 선바위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수리골 송아지웅덩이, 새지웅덩이 유래**

석수2동 안양시 위생처리사업소 일대를 일컫는다 예전에 이곳에 큰 웅덩이가 있어 각종 민물고기가 많아 수리가 서식했다고 한다 다른말로 송아지웅덩이 또는 새지웅덩이라 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신촌 유래**

이 마을은 조선 말기까지 대부분 농경지였다가 8 15광복 후부터 사람들이 점차 들어와 살면서 신촌이 되었다  
[안양시사2권 p 377]

**신촌약수 유래**

석수2동 정수정약수에서 동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있다 주로 석수2동 주민들이 이용한다 신촌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십자바위 유래**

삼성산 중턱으로 안양사 뒤에 있다 바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 십자바위라 정한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아랫밭 유래**

석수3동 중흥부 서쪽에 있는 벌판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아랫밭이라 불렀다 인근에 주택단지과 아파트 등이 들어서자 1984년 시내버스 종점 주차장이 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88-490]

**안양천 유래**

조선시대에는 삼성천을 안양천이라 했다 1930년대 일본인들에 의해 삼성천으로 변경했다 현재의 안양천은 안양 시가지를 흐르는 하천을 뜻한다  
[안양시사2권 p 458-462]

**연추리골 유래**

석수1동 호암산 줄기로 본투골 북쪽에 있다 골짜기가 Y자 형상을 하고 있다 연추리는 꽃 이름 원추리 의 단음화 현상으로 나타난 이름이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염불암 창건설**

불가에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며 부처의 상모 공덕을 억념하는 일을 염불이라고 하는데 염불암이란 사찰 이름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염불암은 고려 태조 9년(926)에 장건된 안홍사가 모제라는 설과 삼막사의 예와 같이 원효 의상 율필의 세 성인이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80]

**염불암골 유래**

석수1동 염불암 앞에 있는 골짜기여서 염불암골 이라 했다 이곳에 시냇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사찰의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와룡산 유래**

석수동 중흥부를 감싸고 있는 산이다 풍수적으로 산의 형세가 와룡(용이 누운)의 형상이라는 뜻이다  
[안양시사2권 p 430-439]

**웃삿갓골, 웃새까지골 유래**

석수1동 삼막골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박미 소재 박산 중간에 있다 삿갓 모양의 웃삿갓골 이라 했고 예전에는 까지가 많아 웃새까지골 이라 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웃절터골 유래**

석수1동 고려 태조 왕건이 장건한 안양사 위쪽에 있는 절터이므로 웃절터골 이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자그나무골 유래**

석수2동 수리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다 절쪽 진달래 등 키 작은 나무가 많다고 해서 자그나무골 이라 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작별산 유래**

일명 앞산 이라고도 부근다 석수2동사무소 서쪽에 있는 돌산이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 중기에 낙향한 어느 선비가 중직한 제자와 함께 산 중턱 토굴에서 살았는데 스승이 제자의 큰 뜻을 헤아려 주지 않자 제자가 먼저 이 산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부터 스승과 제자가 작별한 산이라 하여 작별산 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안양시사2권 p 430-439]

**작은바랑골 유래**

석수1동 큰바랑골 북쪽으로 호암산 남쪽에 있다 이 일대에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랑골 이라 했다 위에 큰 쪽은 큰바랑골 이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장군바위, 장사바위 유래**

석수1동 망월암 서쪽에 있다 장군처럼 우람하게 생겼다 하여 장군바위 가 되었다 다음 이름인 장사바위 도 같은 의미이다  
[안양시사2권 p 476-484]

**절골 유래**

석수1동 삼막사 밑에 있다 절 밑에 있거나 혹은 절로 통하는 골짜기라 하여 절골 이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재석요**

재석요는 석수동의 재석장에서 가장자들이 쇠메에 징은 때리며 하는 소리이다  
[안양시사2권 p 260]

**초암골 초암골 유래**

석수1동 삼막골 뒤에 있다 이곳에 작은 암자가 있어 초암골이라 불렀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초암골로 불린다고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큰바랑골 유래**

석수1동 큰바랑골 북쪽으로 호암산 남쪽에 있다 이 일대에 바랑이 많이 붙어 바랑골이라 했다 위에 큰 폭은 큰바랑골이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큰절골 유래**

석수1동 삼막사 밑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큰 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조석 돈절구 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키다리골 유래**

석수1동 학무봉 동쪽에 있다 좁고 긴 골짜기라 해서 키다리골이라 했다  
[안양시사2권 p 440-457]

**학무봉 유래**

석수1동에 있다 삼성산의 연봉으로 삼성산 서남쪽에 있다 산봉이 마치 학이 날개튼 꾀고 춤을 추는 형상이므로 학무봉이라 했다  
[안양시사2권 p 430-439]

**현대건설암약수 유래**

석수1동 현대건설 앞 석산 조립 다리 옆에 있다 현대건설에서 이름은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혜인천 유래**

석수1동 혜인중기 앞산(앞동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에 합류한다 혜인중기라는 회사명에서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58-462]

**호암과 호랑이 관계**

호암이란 산경은 범모양과 같은 바위가 이 산에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47]

**호암산 유래**

석수동 삼막골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걸쳐 있는 산이며 호암산성이 있다 금주산 금지산 금산 검지산 등이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호암산이라는 이름은 산에 범(호랑이)의 형상을 한 바위 즉 범바위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다  
[안양시사2권 p 430-439]

**화창약수 유래**

석수3동 충훈부에서 동쪽으로 산 중턱에 있다 마을 꼬쟁이의 한자 이름으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492-499]

**인적자원 과거인적자원**

**김중업**

1922년 3월 9일 평양에서 태어났다 1941년 일본 요코하마(横浜)공업고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1952년 한국 현대건축가로는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하여 근대 건축의 프랑스의 르코르뷔지에 건축연구소에서 4년간 수업하고 귀국 1956년 홍익대학교 건축미술과 교수 같은 해 김중업 합동건축연구소장이 되었으며 1956~1965년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50년 김중업은 유득한을 만나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유산업 건축물은 만든다

**김약노의 동생 김상로의 무덤(만안교 건설 제공 원인)**

정조의 수원 능행이 당초 동작동 파전을 거쳐 가는 것이 바른 길이었으나 그 길 도중에 정조의 숙원인 김상로의 무덤이 있다고 해서 이를 피해 금전 안양의 새 길을 택했던 것이다 대제학 김유의 아들인 김상로는 좌의정 김약로의 아우로 영조 때 호조판서 좌의정 영의정을 역임한 정승이었는데 영조와 장현세자간을 가운데 든어 이간하고 두 권을 오가면서 고자질하여 서로 시키게 하여 끝내는 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이게 한 원인이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75]

**박서 1602 1653**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밀양 자는 상지 호는 현계 장단 부사를 지낸 용의 손자이고 병조 좌랑을 역임한 효남의 아들이다 효종의 두터운 신임은 받아 병권을 총괄하는 병조 관서로 있으면서 군사력 정비에 힘썼다 묘는 석수2동에 있다  
[안양시사2권 p 533]

**불성사와 서산대사**

675년(신라 문무왕 15) 의상대사가 장건된 불성사는 이후 조선 선조 때 서산대사(1520-1604)가 중장한 절이다  
[안양시사7권 p 281]

**불성사와 의상대사**

삼성산 정상 바로 아래 아늑한 분지에 자리 잡은 불성사는 삼막사 염불암 연주암 호암사와 역사를 같이 하는 전년 고찰이다 675년(신라 문무왕 15) 의상대사가 장건하였다  
[안양시사7권 p 280]

**사태현(1908 2003)**

사회사업가 교육자 본관은 정주 호는 실원 상의의 아들이다 와세다대학에서 통신 강의로 법률 관련 공부를 한 후 중급 연번으로 가서 재만 교포 문맹퇴지를 위한 계몽소를 설립 운영하였다 1946년 귀국하여 안양보육원 안양양로원을 설립하였다 묘는 석수1동에 있다  
[안양시사2권 p 567 569]

**성한제(1909 1982)**

석수동에서 태어나 1961년부터 10년간 시흥군 농업협동조합장을 역임하였다 1970년 안양상공회의소 초대위원을 지냈다  
[안양시사2권 p 569]

**능정(고려시대 사람)**

신라 말 고려 초 승려 안양시 명정의 유래가 되는 안양사란 장건했다 900년(신라 표공왕 3) 왕건이 경기도의 금주 파주군 정벌하기 위하여 안양시 석수동 아래를 지나갈 때 능정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이때 삼성산 정상에는 오색 구름이 피어 오르고 있었는데 이른 상서로운 징조라고 생각한 왕건과 능정

의 마음이 맞아 안양사를 장건했다고 한다 977년(고려 경종 2) 도승통에 추시되었다  
[안양시사2권 p 546]

### 안양사와 왕건

안양사와 왕건이 관련되었다는 기록은 『금주안양사탑중신기』에 나와 있다 그 내용은 혜집이 와서 말하길 사승을 보니 예전에 태조께서 장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징벌하실 때 이곳을 지나다가 산 위에 구름이 오색 잔란함을 바라보시고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가서 보게 하였습시다 과연 늙은 중이 구름 아래 있었는데 이름을 능정이라 하였습시다 그와 더불어 말하여 보니 뜻에 맞았습시다 이것이 이 절이 세워진 유래입니다 하였다  
[안양시사1권 p 156-162]

### 안양영화촬영소 기공식 참석한 이승만대통령

이승만대통령은 1956년 10월 17일 오후 안양에 세워진 수도영화사 촬영소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안양시사5권 p 370]

### 안양촬영소를 설립한 흥찬 부부

안양촬영소를 설립한 흥찬은 일제강점기 때 “나그네 (이규환 감독 1937년) “군용열차 (서광제 감독 1938) 등을 제작했던 성봉영화원의 대표였다 서울과 인접하고 기차로 수송이 가능한 지역이며 여유 있고 넓은 규모의 평지가 있는 석수동에 안양촬영소를 건설하였다  
[안양시사5권 p 370]

### 유유산업과 김중업

1952년 한국 현대건축가로는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하여 프랑스 르코르뷔지에 건축연구소에서 4년간 수업하고 귀국하여 (주)유유산업 안양공장을 설계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시대에 공장 건물에 예술을 가미해 건축했다는 것은 김중업의 높은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안양시사7권 p 253]

### 자초(1327-1405)

고려 말 조선 조 승려 1393년 수도를 옮기려는 태조를 따라 계룡산과 한양 등지를 돌아다니며 풍수지리를 따져 마침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는 도움을 주었다 자초와 안양의 인연은 삼성산 유래에서 비롯된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읍지나 지리지들 보면 자초가 스승인 지공 혜근과 함께 거주한 산이라 하여 그 산을 삼성산이라 했다  
[안양시사2권 p 549]

### 조하경 1635 1710

조선 후기의 문신 1660년(현종 1) 생원시에 합격하고 1673년(현종 14) 통덕랑으로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묘는 석수1동에 있다  
[안양시사2권 p 533]

### 절주통 항장화상

당간지주를 세운 스님으로 절주통이란 승려의 계급 중 하나이다 신라의 승려계급 중 가장 높은 승려가 국통 다음으로 주통이었다 주통은 전국 9주에 한 명씩 두었다 역사상 안양은 신라의 한주에 속했으므로 항장화상은 한주의 주통이었음이 분명하다

[안양시사7권 p 284]

### 지공(고려시대 7-1363)

고려 말의 고승 인도 출신으로 마가다국 만왕의 아들이다 지공은 삼성산에서 불법을 닦았는데 이후 혜근 자초가 이곳에서 불법을 닦아 이 산의 명칭을 삼성산이라 한다

[안양시사2권 p 547]

### 지운영(1852 1935)

한말 일제강점기의 문인화가 종두법 시행의 선구자인 석영의 형이다 1895년 유배생활에서 풀려나 안양시 석수동의 삼막사 위에 백련암이란 암자를 짓고 그곳에 은거하여 시와 그림을 그리며 여생을 보냈다 삼막사 월암당 남쪽 암벽에 삼귀자를 1920년에 암각하였다

[안양시사2권 p 554]

### 집성촌-석수1동-진주 하씨

석수1동 삼막골은 하연의 5대손 하우정이 벼슬을 그만둔 후 저가 동네였던 삼막골로 이주하면서 집성촌이 되었다  
[안양시사2권 p 514]

### 집성촌 석수동-장녕 조씨

장녕 조씨 안양 입향조로 알려진 조난서는 잡전 군수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의 손자 조하경 역시 문과를 거쳐 외직을 거쳤다 최초로 거주했던 곳은 정확치 않으나 번장할 때는 10여 호가 넘었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양시사2권 p 513]

### 최남선의 경부철도가

1908년 육당 최남선이 지은 장편 기행체의 장가로 원제목은 경부 도노래 이다 최남선은 경부철도가 지나가는 삼성산과 관악산의 모습을 경부철도가에 잘 묘사했다  
[안양시사7권 p 113]

### 하영홍(1879-1915)

종교인 항일투사 본관은 진주 세종대에 영의정을 지낸 하연의 15대손으로 진찬의 아들이다 석수동 삼막골에서 태어났다 1900년 안양시 석수동 지역에서 기독교를 믿은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안양시사2권 p 559]

### 하우정 1561 1622

조선 중기 문신 세종대에 영의정을 지낸 하연의 5대손이다 묘는 석수1동에 있다  
[안양시사2권 p 531]

### 혜근(1320 1376)

고려 말 고승 1347년(충목왕 3) 원으로 건너가서 연경의 법원사에 머무르며 인도 승려인 지공의 가르침을 받았다 삼성산에서 수도하였다  
[안양시사2권 p 547]

### 흥찬

수도영화사 안양촬영소 설립자  
[안양시사5권 p 372]

## 인적자원 현재인적자원

### 김동진

1967년 3월 1일 장단된 안양중학교 축구부 출신의 국가대표 선수이다

[안양시사5권 p 465]

### 이태규(조선일보 기자, 1976년 만안교 글 작성)

언론인 이규태 씨는 1976년 만안교를 둘러본 후 주간조선(1976 9 16)에 「만안교」란 제하의 글을 기고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75]

### 박찬응

2002년 6월 16일 오전 11시 석수시장에 문을 연 안양의 보충대 리공간 Stone & Water 을 개관하여 미술계에 신선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미술의 대중화에 한발 다가선 의미 있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박찬응 Stone & Water 관장이다

[안양시사7권 p 353 355]

### 안양중학교 축구부

안양중학교 축구부는 1967년 3월 1일 장단하여 이영표 김동진 등 수 많은 유명한 선수들은 발굴하였다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안양중학교 축구부는 안양축구 역사의 중심에 있다

[안양시사5권 p 465]

### 이영표

안양중학교 축구부 출신의 국가대표이고 2002년 한 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다

[안양시사5권 p 465]

### 이정범

서울에서 사진관 기사로 일하다 1968년에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지금의 석수동)로 전입하면 안양과 긴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73년 제대한 후 안양유원지 입구에서 사진부튼 시작으로 해서 1980년 시정 새마을과 사진기사로 채용되었다

[안양시사7권 p 448-450]

### 평양검무 이봉애

1923년 평양에서 태어난 이봉애는 열네 살 무렵에 검무를 처음 접하였다 25세 되던 해 남쪽으로 넘어와 이봉애 나름의 평양검무를 복원하기 시작하였다 안양에 평양검무보존회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안양시사1권 p 471]

### 하귀용 통장

석수1동 삼성산 자락 삼막골에는 16대째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진주 하씨 집성촌이라 하여 일명 하씨촌으로 불리는 마을이 있다 하귀용씨는 하씨촌의 통장이다

[안양시사7권 p 356-358]



# 박달동

## 수리산 골짜기만큼 사연 많은 박달동

박달동은 수리산 깊은 골짜기를 따라 12개 골짜기(능골, 막상골, 붓골, 선녀골, 용골, 햇골, 절골 등)에 12개 마을이 대를 이어 살아왔었다 이곳은 기름진 땅과 마르지 않은 수자원으로 해마다 풍년으로 가득해 작대들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제는 평양육군병기창 안양분창을 이곳에 설치하고 탄약고를 만들어 버렸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마을 주민은 뿔뿔이 흩어졌다 붓골에 살던 권공선씨는 땅이 메말라 퇴비를 아무리 주어도 수확이 되지 않는 멍해이들로 이사했다

호랑이가 살았다는 범고개를 지나가는 작은 오솔길은 박달로가 되어 차가 지나갈 수 있게 넓어져, 안양에서 안산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안산(지금의 수암)으로 가는 지름길인 장군재고개는 사람의 왕래가 사라져 무성한 숲이 되었다

길은 마을을 만들고 마을은 사람을 불러 모았다 전국에서 안양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멍해이들로 모여들었고, 그곳에 생긴 박달시장은 언제나 활기찼다

안양의 공업화는 계속 확장하여 호현마을 호현들에 노루표페인트 등 많은 기업이 몰려왔고 지금도 삼봉산 아래에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다

# 박달동

## 자연자원 경관자원

### 가운데봉

시흥시 목감동 읍포와 박달2동에 걸쳐 있으며 무쇠봉과 목감동 소재 계골봉 사이에 있는 산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04]

### 감투바위

박달동 범고개마을 서쪽 용골에 위치하고 있다 바위가 마치 감투처럼 생겼기 때문에 감투바위가 되었다  
[안양시사2권 p 476]

### 농바위

범고개마을 뒷편 요골 중간에 있다 장롱처럼 생겼으며 농바위에서 동쪽으로 100미터쯤 위치에 감투바위가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39]

### 능골

박달2동 범고개 서쪽에 있는 마을로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과 인접한 마을이다 능골 명칭 유래는 두 가지가 전해지는데 첫째 능선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능골이라는 설과 둘째 마을에 무덤 2 능이 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는 설이다  
[안양시사2권 p 366]

### 돌머리들

박달2동 범고개에서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로 들어가는 어귀에 있는 돌이다 큰 바위 때문에 돌머리들 이란 이름이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사2권 p 488]

### 동샘천

동샘에서 발원하여 박달전을 경유하고 안양전에 합류된다 하천의 길이는 500m 하폭 2m 물리면적 2.02ha이다 발원지인 동샘에서 하천명은 다른 것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93]

### 막상골

박달2동 붓골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 권씨 밀양박씨 김해 김씨 등 15호 남짓한 마을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군사용으로 건설되면서 폐동(廢洞)되었다 현재는 군부대가 위치해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65] [안양시사2권 p 376]

### 무쇠봉

박달동과 시흥시 목감동 읍포마을에 걸쳐 있으며 산세가 흡사 브레(씨레)처럼 생긴 산이다 무쇠가 매장되었다고 전해진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33]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44]

### 미름물

셋터말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마을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대동우물을 미름물이라 했는데 마을명도 우물명은 취해 미름물이라 칭했다 이 마을에 대대로 살아온 성씨는 최씨 김해 김씨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5호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으

나 일제강점기때 평양 육군병기장 안양분장이 들어서자 폐동(廢洞)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67]

### 박달동 향나무

안양고등학교 교정에 있었던 나무로 박달동에 거주하는 권공선 소유였었다 인근에서 농작을 하다 비가 오거나 실 때면 정자목으로 이용되던 나무였는데 1970년대 초에 고사(故死)되었다 1983년 이곳에 안양고등학교가 건립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 향나무 주변에 있는 들은 향나무들이라 불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01]

### 박달천

양단말에서 발원하여 안양전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연장 1590m 하폭 5m 물리면적 15ha이다 박달동에 소재한 하천이라 하여 박달천이라 일컫는데 발원지인 양단말을 안양3동의 양짓말(양지동)으 지칭하는지 아니면 옛 박달리의 지명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94]

### 범고개

박달동 진목마을 남쪽으로 박달로변에 위치해 있다 범고개(虎峴) 아래에 자리 잡은 마을이므로 고개이름을 따와서 범고개(虎峴洞)라 불리운다 구술자 이세종 교수에 따르면 예전에 이곳은 호랑이가 번번이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 서산시 금진구 시흥동에 거주하는 전병국은 어렸을 때 이곳 산에 갔다가 쓰러 텃밭 사이에서 호랑이 새끼 두 마리를 꺼내 목에 즙을 때서 동네에 끌고 다녔는데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서울 동문원에 팔았다고 하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71] [안양시사2권 p 356]

### 범바위

범고개(虎峴)마을과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신촌) 사이에 있는 범고개 산중턱에 있다 호랑이가 남쪽은 응시하며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43]

### 부골 붓골

박달2동 공군아파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애초의 이름은 부골 즉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는 뜻이다 능성구 씨가 처음으로 정착한 이래 안동 권씨 전주 이씨 김해 김씨 등이 40여 호의 촌락을 이루었다 예전에 이곳은 해마다 풍년이 들어 부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은 부골(富谷)이라고 불렀다 일제강점기에 마을 이름은 한자로 표기하면서 그 의미론 축소시켜 필동(筆洞)이라고 표기했고 이를 다시 우리말로 새겨서 붓골이 되었다  
[안양시사2권 p 361]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75]

### 삼봉마을 섬마을 말무덤

박달2동 삼봉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삼봉이라는 산봉우리명을 따서 삼봉마을이 되었다 예전에 논 가운데 큰 묘가 있는 풍경이 마치 섬과 같다고 하여 일명 섬마을이라고 했으며 마을 주민이 이 묘를 말무덤이라고 불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78] [안양시사2권 p 356]

### 삼봉산

삼봉마을 뒤에 있는 산이다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 삼봉산(三峯山)이라 칭한다 속전에 따르면 조선 증엽에 어떤 사람이 석수3동 소재 증훈부라는 관아를 찾아와서 증훈부의 장을 몰아내려는 의도아래 조선조의 개국공신으로 이방원(李芳遠 태종)에게 주살된 정도전(鄭道傳)의 호가 삼봉(三峯)이고 이 산 또한 삼봉산인 점에 착안하여 관아의 정문이 삼봉산은 향해 있다고 외지자 이 소리를 들은 증훈부의 장(長)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관아의 정문은 다른 방향으로 바로 잡았고 전해진다 이 산아래에 있던 구만(口)의 정문(旌門)은 일제강점기에 군용지가 개설될 때 훼손되었다 산중에는 석바위와 삼화제면공업사가 동남쪽에는 삼봉마을과 삼신아파트 삼에 기업 동북쪽에는 대한페인트 잉크(주) 동아유리공업 등이 각각 소재해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33]

### 삼봉천

박달2동 삼봉로와 박달로변을 따라 흐르다 안양천에 합류하는 소하천이다

[안양시사4권 p 439]

### 셋터말

박달2동에 속하며 동수암과 분골 사이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셋터말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다는 뜻으로 사이의 준말 새와 터가 합쳐져서 셋터가 되었다 조선중기에 영일 씨가 살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달성 서씨 김해 김씨 등이 대대로 살아 왔었다 일제강점기에 군사용지가 건설되자 폐동(廢洞)였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80] [안양시사2권 p 349]

### 선녀골

곤두레미고개 밑에 있던 마을로 이곳 골짜기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수리산의 습한 기운 때문에 안개가 많이 생겨 마치 선녀가 사는 고을 같다 하여 선녀골(仙女谷)이라 불렀다고 한다 선녀골은 조선 태종의 11남인 후령군(厚寧君)의 묘를 이곳에 쓴 후 그의 후손들이 묘하에 대대로 살아오면서부터 마을락이 형성될 만큼 전주 이씨 후령군파가 집성(20여호)을 이루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 평양육군병기장 안양분장이 건설되면서 폐동되었고 후령군의 묘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으로 이장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81] [안양시사2권 p 342]

### 양단천

양단말에서 발원하여 포현천은 거처 안양천에 유입된다 길이 700m 하폭 3ha 물리면적 0.2ha이다 발원지인 양단말명을 따와서 양단천이라 일컫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99]

### 요골 용골

범고개마을 뒤편(서쪽)에 있다 이곳은 본래 안동 권씨의 사패지(賜牌之地)로 이 골짜기 위에 대제학을 역임한 권모의 묘가 있다 용골(龍谷)이란 지명은 이 일대가 풍수상 좌정룡(左靑龍)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1985년경에 군부대가 주둔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27] [안양시사2권 p 455]

### 웃박달리

상박달리(上博達里)라고도 한다 웃박달리는 박달2동 선녀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과평 윤씨 김해 김씨 등이 집성하여 살았고 일제강점기에 군사용지로 흡수되었다 박달리의 유례로는 첫째 조선시대 박달리에는 모두 12개의 골짜기에 자연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웃박달리라고 했다는 설이다

[안양시사2권 p 352]

### 진목마을

박달2동 범고개마을 북쪽에 위치해 있다 마을 명칭은 관악로변과 안양역 주변의 절거민들이 서로 친하고 화목하게 잘 살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고총(古塚)이 많은 산간지대로 면적이 1,850경에 이르렀다 일대가 범고개 출신 임종대 소유였다가 안양보육원에 매도되었고 이를 다시 안양읍에서 매입하였다 1966년 비산동네거리에서 인덕원네거리에 이르는 관악로 개설로 생긴 도로변과 안양역 주변의 절거민들을 이곳으로 집단 이주시켜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02] [안양시사2권 p 378]

### 학림산

범고개마을 동북쪽에 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범고개 중턱 범바위 밑에 어느 부자가 살았다고 한다 부자집 부인은 늘 찾아오는 식객(食客)들로 골머리를 앓곤 했는데 하루는 시주하러 온 교명한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식객이 오지 않느냐고 방도를 물었다 그러자 스님이 범바위돌 깨트리면 식객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그 후 부인이 머슴을 시켜 범바위를 깨트렸는데 바위 속에 학(鶴)이 포그리고 앉아 있다가 슬피 울며 이곳 산으로 날아와 숲속에 앉았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산을 학림산(鶴林山)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산세가 험하고 나무가 많으므로 항상 도둑이 끊이지 않아 일명 도둑피(도둑산)라 불리기도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46]

### 호현들(호현들녘)

박달동 호현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 들이며 호현들은 마을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1986년부터 안양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로 사용했다

[안양시사2권 p 490]

### 호현천

중단말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길이 520m 하폭 4m 물리면적 0.1ha이다 호현마을(虎峴) 이름을 따와서 호현천이라 일컫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1]

### 헛골

수리산 골짜기다 김해 김씨 장원 황씨 등의 대대로 살아온 터로 10여 호의 작은 마을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평양육군병기장 안양분장이 건설되자 폐동(廢洞)되었다 선녀골 서북쪽에 있었던 이 마을은 예로부터 웅기로 유명했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조선시대 어느 안산군수가 부임자 안산(현 안산시 수암동에 관아가 있었음)으로 가던 중 이곳에 이르러 이 일대가 한낮에도 해를 볼 수가 없을 만큼 삼림(森林)이 우거진 점에 착안하여 헛골이라 했는데 그 후 마을이름도 헛골이라 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헛골로 불리웠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203] [안양시사2권 p 345]

### 박달동 목장

1968년 재정임 박달동 목장 사진이다 넓은 목장 초원에 젓소 8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그 뒤편으로 시민이 휴식은 취하고 있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84]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07]

### 박달1동

1994년 7월 1일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으로 박달동에서 분동되었다

[안양시사3권 p 338]

### 박달2동

1994년 7월 1일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으로 박달동에서 분동되었다

[안양시사3권 p 339]

### 박달고개

범고개마을과 붓골 사이에 있다 예전에 이 고개를 넘어야 원박달리를 갈 수 있다하여 박달고개라 일컬었다 비포장의 작은 길로 되어있다 시흥시와 광명시의 관문이였으며 시 경계 진입 지역이다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5 4km)과 군사보호 구역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7]

## 자연자원 지역자원

### 곤두래미고개-곤두박이고개

안양에서 안산가는 큰길이 개설되기 이전에는 이 고개길이 유일한 통로였다 이곳은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인데다가 민가가 엮어 산적이나 강도 등이 많아 이곳을 지날 때면 곤두박질하듯 황급히 서둘러야 지나칠 수 있다고 하여 곤두박이고래라 불렀다고 하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곤두래미고개라 일컫는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군사용지가 개설되면서 길이 폐쇄 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3]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3]

### 대관페인트잉크(주)

박달2동 615번지에 소재한 기업체이다 1976년에 안양공장이 준공되었다

[안양시사3권 p 523]

### 달래고개

박달동 우성아파트와 안양3동(양지마은)에 걸쳐있는 고개길이다

### 1968년 우성아파트 인근 고개길

1968년 채임터 박달1동 우성아파트 부근 사진이다

[옛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재발견 p 85]

### 동수암

이 마을은 파주 옆씨 광주 이씨 등 15호 남짓한 마을이었는데 이 일대가 군사용지로 편입되자 살던 주민 대부분이 인근 지역인 시흥시 목감동 더풍물(신촌)과 박달2동 능골로 분산이 주했다

[안양시사2권 p 354]

### 막은고개

박달동과 시흥시 조남동 장승박이 사이에 있다 예전에 시흥시 조남동 장군재 새미 방화주민이 안양을 왕래할 때 다니던 고개인데 일제 때 군사용지 건설로 폐로가 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6]

### 먹해이들

현재 박달1동사무소 일대를 말한다 땅 자체가 메마른 땅이라 두염(퇴비)은 아무리 주어도 결실이 되질 않아 농부가 빗자락만 들고 한숨만 내쉬던 버려진 들판이었다고 한다 이곳에 사람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말쯤이었다 붓골에 살던 권공선(權公先)이 경양 육군병기장 안양분장 건설로 마을이 폐동(廢洞)되자 1937년경 농사를 짓기 위해 처음으로 정착하면서 마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54]

### 박달약수

박달2동 신안아파트 뒤에 있는 약수이다

### 박달1~2교

박달우회도로 선상에 있으며 안양전에 놓여 있다 박달동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안양시사2권 p 413]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78]

### 박달도서관

2006년 3월 박달2동 114 7번지에 개관했다

[안양시사4권 p.37]

### 현내1~6로

박달1동 작은 길로 조선시대 행정구역인 현내리에서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390 p 394]

### 순미길

박달1동 작은길로 순미전에서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390 p 394]

### 새터1~4호

박달1동 작은길로 새터마을 신말에서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390 p 394]

### 박석1~5호

박달1동 작은길로 박달동과 석수동의 이름 합성에서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390 p 394]

### 삼아길

박달2동 작은 길로 삼아제면에서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390 p 394]

### 약수길

박달2동 작은 길로 약수빌라에서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390 p 394]

### 정산길

박달2동 작은 길로 정산빌라에서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390 p 394]

**아트1~2로**

박달2동 작은 길로 아트빌라에서 나왔다

[안양시사2권 p 390 p 394]

**박달초등길**

박달2동 작은 길로 박달초등학교에서 나왔다

[안양시사2권 p 390 p 394]

**박달로**

화단극장 앞에서 박달동 범고개(시흥시 경계)에 이르는 폭 20-25m(중전에는 12-20m) 연장 4 000m의 지방도로로 도로명은 안양-오류선이며 노선번호는 397번이다 박달동의 동명을 취해 박달로로 칭하였고 1991년에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 이 길은 1930년대 군사용지(평양육군병기장 안양분장)가 건설되자 우회도로로 개설되었다 1976년경에 첫 포장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61]

**박달삼거리육교**

박달삼거리에 있다 이 곳은 안양 광명 안산방면 도로가 갈라지는 곳으로 사업비 3억원(보상비 포함)으로 개설했다 총 길이 25m 폭 5m 높이 4.5m의 강철판교이며 1992년 8월 26일에 준공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96]

**박달시장**

박달시장은 박달우회도로와 박석로 사이에 위치한 시장으로 박석교를 지나면 박달시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시장이 형성된 것은 1979년이며 2005년에야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다

[안양시사3권 p 614]

**박달우회로**

경수산업북로에서 박달로까지 이어진다 박달로를 우회하는 길이다

[안양시사2권 p 383]

**박달초등학교**

박달2동에 소재하고 있다 1983 10 15 개교 12학년 12학급에서 2011년 현재 41학급 편성으로 발전했다

[안양시사5권 p 58]

**박석로**

박달로 박달네거리와 석수동 교쟁이 입구를 잇는 도로다 박달동에서 박자를 석수동에서 석자를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386]

**범고개 약수터**

범고개마을과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 사이 도로변에 있던 약수터로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 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 때는 어느 무당이 약수 뒤에 사당을 짓고 지성을 드렸으나 1976년 안양논곡간 도로가 포장되면서 약수는 폐정되었고 사당도 헐리게 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9]

**삼봉초등학교**

박달2동에 소재하고 있다 2001 3 1 17학급 683명으로 개교했다 옛날 만도기계 부지가 한라비발디 아파트단지로 재개발되면서 신축된 학교이다

[안양시사5권 p 80]

**삼아알미늄**

박달2동 111 2번지에 소재해있다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안양시사3권 p 535]

**송림 약수**

우성아파트 뒤편에 있다 약수 주위에 소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송림약수(松林藥水)라 일컫는다 1989년 6월 21일에 구성된 송림약수회가 관리하고 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2]

**안양고등학교**

박달2동에 소재하고 있다 1983년 3월 3일 8학급으로 개교 2011년 3월 1일 46개 학급 1 768명으로 발전하였다

[안양시사5권 p 16 p 128]

**안양시 환경사업소**

박달2동 655번지 일원과 석수2동 산140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다

[안양시사3권 p 306]

**양지로**

박달1동과 안양3동을 경유하여 벽산로와 만나는 도로다

[안양시사2권 p 385]

**양회다리**

곤두래미고개 조입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양회로 가설된 다리가 있었는데 이곳에 민가5호와 주막(酒幕)이 있었으나 일제 때 군사용지가 건설되면서 폐동되었다 다리의 재질에서 기인한 준명칭이 이름으로 정착된 것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90] [안양시사2권 p 357]

**어수물들**

박달1동사무소 동남쪽(구 대농단지)에 있던 들 정조(正祖)가 갈증이 나자 마셨다는 어수정(御水井)이 이곳에 있어 이 일대를 어수물들이라 불렀다 이들은 본래 박달로(도로)보다 낮았으나 1950년대 말에 금성방직에서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속정 떡산(우성아파트 뒷산)에 흙을 돌우면서 공장부지(금성방직 → 대농단지)로 변모되었고 그 후 1977년 민간에게 택지로 분양되어 주택지로 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55]

**어수정**

정조(正祖)가 수원 화산에 있는 부왕(사도세자)의 묘(현금원)를 참배하고 환궁하는 길에 안양행궁(女峯行宮 안양1동 674 67)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갈증이 나자 신하가 구 대농단지(박달동에서 양지동 가는 어귀)내 샘물에서 물을 길어다 드렸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우물을 임금이 마신 물이라 하여 어수정(御水井)이라 불렀다 1950년대 말엽에 금성방직 확장으로 폐정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14]

**일직로**

박달로에서 광명시 경계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일직동의 이름을 따왔다



[안양시사2권 p 383]

### 작대들

붓근(笏根) 위에 있는 들이다 예전에 이곳 뒷산의 산림이 우거져 낙엽 등 부식물로 인해 토질이 좋아 농사짓기 좋으면 작대기로 받쳐야 할 만큼 결실이 좋았다 하여 작대든 이라 일컬었다 특히 미질(木質)이 좋아 서울 사대부가에서 작대들 쌀 이라 하면 장안에서 최고가로 팔렸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56]

### 장군재고개

예전에 안산(주서 시흥시 조남동 장군재) 사람들이 안양 다닐 때 이용하던 고개 햇볕과 장군재 사이에 있다 비포장 소로(小路)로 이미 폐로가 되었다 고개 마루터기에 서낭이 있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2]

### 절골고개

비포장 농로(農路)로 동수암과 시흥시 목감동 터널물 사이에 있다 이곳(동수암)에 절터가 있으므로 절골고개 라 칭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2]

### 정문고개

범고개마을과 군사용지 사이에 있는 고개 임진왜란 중신이었던 구만의 정문(旌門)이 있어 정문고개 라 했는데 이 정문은 일제강점기 때 군사용지가 건설되면서 훼손되었다고 한다 비포장으로 고개가 낮으며 현재는 군사용지에 속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13]

### 박달동 주택보수

새마을 사업은 조가지붕을 바꾸고 길을 넓히고 수로를 만들고 하천을 고치고 다리를 놓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리어카로 벽돈을 나르고 남자들과 동일하게 참여했다

[안양시사8권 p 231]

### 향나무들

예전에 현재의 안양고등학교 자리에 큰 향나무가 있었다 그 주변의 들은 향나무들 이라 불렀다 이 향나무 주변에는 인가가 없어 농사철이면 농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었다 1970년대 말에 자연사 되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57]

### 현대양행

1960년대에 안양읍 박달리(박달동)의 포도밭을 매입하여 공장을 건립했는데 자동차 부품을 생산했다 기계를 만드는 곳은 손수레를 제작하는 대장철공소가 유일했던 시절에 현대양행은 안양의 첫 번째 기계공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타지로 이전하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안양시사8권 p 204]

## 문화자원 향토설화자원

### 고려장터

곤두래미고개 중턱 노년에 있다 지면에서 약 5m 높이에 있는데 유물은 일제강점기에 도굴되었다고 한다 고려장은 고려

시대 늙고 병든 사람을 산 채로 광중에 두었다가 죽으면 그것에 매장한 장례법을 일컫는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420]

### 달래고개유래

옛 어르신들의 전래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양지동에서 마음씨 작하고 의중기로 소문난 오누이가 박달1동 먹해이들에 일하러 갔다가 오는 도중에 소나기든 만나 흠뻑 젖은 누이 동생을 보고 욕정을 느낀 오빠가 자신의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에 자결한 것을 보고 누이는 죽지나 말고 달래나 보지 하면서 통곡했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달래고개 라고 했다고 한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5]

###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1984년(박달동체육회 부녀회 주관)과 1989년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모습은 농악으로 흥은 돋우고 율놀이(척사) 대회든 하는데 보통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에서 전막에 매달아 놓은 쪽지에는 잔조금을 기부한 지방 유지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있다 당시 척사대회의 우승 상품은 대개 술이나 생활용품이었다

[안양시사8권 p 149]

### 동수암 유래

박달2동에 있다 작대들에 소재한 골짜기 중 가장 큰 골짜기에 있던 마을이다 동수암 유래는 두 가지가 전해오는데 첫째 고려 때 장건한 동수암사라는 사찰 이름에서 비롯했다는 설 둘째 옛 시흥군 수암면 동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동수암 이라는 설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163]

### 박달동 유래

박달 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현재 채록된 것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달은 밤다에서 과생되었다는 설 둘째 박달은 박지기에서 알 수 있듯이 머리에서 과생되었다는 설 셋째 달풀이 있는 바깥 마을 이라는 설 넷째 예전엔 이곳이 달동네였는데 안양의 중심부에서 볼 때 박이라고 하여 박달동네 라고 불렀고 그 후 박달동이 되었다 그러나 박달리(博達里) 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조선 정조대이다 박달동의 유래에 대한 주민의 구술 내용은 이러한 행정구역 변천 외 역사와 부합하지 않는다

[안양시사2권 p 328]

### 범고개 유래

이 고개의 유래에 대하여 여러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조 중엽 범고개마을에 어느 부자(과평 윤씨라고 함)의 시종을 호랑이가 물고 이 고개 큰 넘어 시흥시 목감동 방향으로 간대 유래했다는 설 둘째 이 고개 산중턱에 호랑이가 다리를 조아라고 고갯길은 향해 응시하고 있는 범바위에서 유래했다는 설 셋째 일제강점기 초까지만 해도 고갯길이 험준하고 산림이 울창해 으스스해서 호랑이가 많아 이 고개를 넘자면 어른 5명 이상이 함께 동행해야 무사히 지나쳤다는 호랑이의 서식처설 등이다

[안양시 지명유래집 p 307]

### 삼봉산과 정도전

속전에 따르면 조선 중엽에 어떤 사람이 석수3등 소재 중훈부라는 관아를 찾아와서 중훈부의 장(長)을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조선조의 개국공신으로 이방원(李芳遠 태종)에게 주살된 정도전(鄭道傳)의 묘가 삼봉(三峯)이고 이 산 또한 삼봉산인 점에 착안하여 관아의 정문이 삼봉산을 향해 있다고 외지자 이 소리를 들은 중훈부의 장(長)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관아의 정문을 다른 방향으로 바로 잡았다고 전해진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234]

### 장군재유래

조선조 인조 때 인조반정 공신으로 신평부원군(新豊府院君)에 봉해진 장유(張維 1587-1638)의 묘가 시흥시 조남동 장군재에 있는데 장(張)은 장유에서 군(君)은 부원군에서 각각 따왔다  
[안양시지명유래집 p 312]

## 인적자원 과거인적자원

### 권동선

박달2동 붓골에 살던 권동선 씨가 1937년 일제강점기 때 평양 육군병기장 안양분장 건설로 마을이 폐동되자 1937년경 농작을 위해 처음으로 현재 박달1동사무소가 있는 멩해이들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안양시사2권 p 491]

### 영월 엄씨

미름골(박달2동 구릉지)에 영월 엄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미름골은 엄성(嚴屋 1575 1628 응교) 엄황(嚴隍 1580 1653 영흥부사) 엄정구(嚴鼎九 1605 1670 한성좌윤) 등 영월 엄씨 선대의 묘가 많았다  
[안양시사2권 p 515]

### 인동 장씨

박달2동 현재의 안양고등학교 안쪽 공병부대가 있는 구릉지는 인동 장씨의 집성촌이다  
[안양시사2권 p 515] [안양집성촌자료집 p 172]

### 전주 이씨

박달2동 선너골에 1490년(성종 1년) 3월에는 조선 3대 임금인 태종(太宗)의 7남 후령군(厚寧君)의 묘를 이곳에 쓴 후 그 후손들이 묘 아래에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1941년 일본군 병기장이 들어서며 농토를 잃게 되자 후령군 묘소를 수원시 장안구 이북동으로 이전하였고 약 30여 호에 이르는 후손들이 안양 인근에 흩어져 살고 있다  
[안양시사2권 p 515]

## 인적자원 현재인적자원

### 방짜유기장 이형근

방짜유기장 이형근씨는 현재 방짜유기 제작에 있어 첫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장인인 이봉주(李鳳周)의 아들이다 이봉주는 1982년 전승공예전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1983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의 방짜유기 부문의 기능보유자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1958년생인 이형근씨는 15세부

터 아버지로부터 유기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다 1979년 전국공예품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아버지 이봉주에 버금가는 기술을 인정받았다 현재 이형근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방짜유기 부문 전수조교로 지정되어 있다  
[안양시사1권 p 475]

### 악기장 임선빈

악기장 임선빈(林善彬)씨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0호 악기장 북매우기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박달2동에 거주하고 있다 12살 즈음 장터에서 스승 광용옥과 우연히 마주침이 계기가 되어 북매우기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의 나이 24살 때 스승이 돌아가실 때까지 다양한 북 제작 기술과 재료 다루는 법을 익혔다 뿐만 아니라 판소리 북을 만드는 박일오에게 털가죽 배끼는 과정을 전수받고 대구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인 김중문의 공방에서 북 제작을 연마하기도 했다 임선빈씨는 88올림픽 대북 임진각 통일의 북 정와대 춘주관 북 대전 엑스포 북 안양시민의 소리북 등 40여년 가깝게 가슴으로 북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장인의 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다  
[안양시사1권 p 461]

### (Endnotes)

- 1 시구문(屍龜門) 수구문(水口門)이라고도 하였으며 서소문(西小門)과 함께 시신(屍身)을 내보내던 문이다
- 2 몽리면적 [蒙利面積]이란 <농업> 논밭 따위가 저수지 보 양수장과 같은 관개 시설에 의하여 물을 받게 되는 면적

〈참고문헌〉

- 구해근 2002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사회평론  
김옥섭 1977 「노동자가 본 예수(2) 동일방직」 『씨알의 소리』  
만안의 기억 구술사 연구팀 내부 자료 (구본술 문용식 우예현 이금연 구술 인터뷰 자료)  
성결대 안양학연구소 2006 『안양 근현대사 구술자료 조사보고서』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안양시사』 1-8권  
안재성 2004 『경성트로이카』 사회평론  
이시정 2007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장작과 비평사  
김대홍(2008) 그 골목이 말을 걸다 넥서스BOOKS  
김지석(1993) 안양의 민속 안양문화원  
신정일(2004) 다시 쓰는 택리지 1(경기 중정편) 휴머니스트  
신정일(2011) 신택리지(4권) 서울 경기도 타임북스  
이한구(1999) 한국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임재해(1992) 하회마을의 자연경관과 풍수지리의 이해 안동문화연구 6집 안동문화연구회  
임재해(2010) 안동 하회마을 임재해 대원사  
정진원(2007) 제비울에서 덕장골까지(문예존 문학선 170) 문예존  
최장조(2011) 사람의 지리학(최장조의 망상록) 서해문집  
안양시사편찬위원회(2008) 안양시사 1/4/8권 안양시  
안양시(2001)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연구  
동아일보 1927 6 13 1927 6 1 1927 10 21 1940 4 1  
(안양내일신문 변원신 선생이 들려주는 안양이야기) [http //blog naver com/anyang\\_naeil](http://blog.naver.com/anyang_naeil)  
(오마이뉴스)[http //5505 ohmynews 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4411](http://5505.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4411)  
(수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http //cafe daum net/susasa](http://cafe.daum.net/susasa)  
(갯바위의 루어남시)[http //blog naver com/cnspe/150032220409](http://blog.naver.com/cnspe/150032220409)  
(유한8회 고상호) [http //cafe daum net/youhans](http://cafe.daum.net/youhans)  
(다시보는 경기산하) [http //www ggcf or kr/html/history/review\\_list.asp?flag=READ&ky\\_seq=1719](http://www.ggcf.or.kr/html/history/review_list.asp?flag=READ&ky_seq=1719)  
(I LOVE 안양 사람들)[http //cafe naver com/ilovesuksu\\_cafe](http://cafe.naver.com/ilovesuksu_cafe)  
(정진원) [http //www anyangnews net/](http://www.anyangnews.net/)  
(이용구) ([http //www baekak or kr/board](http://www.baekak.or.kr/board))  
(안양지역시민연대) [http //www ngoanyang or kr](http://www.ngoanyang.or.kr)  
(다시 보는 경기산하) [http //www ggcf or kr/html/history/review\\_list.asp](http://www.ggcf.or.kr/html/history/review_list.asp)  
(안양전의 조화로운 풍경을 꿈꾸며) [http //media jungle co kr/cat\\_magazine\\_special/](http://media.jungle.co.kr/cat_magazine_special/)

## 만안의 기억 안양을 다시 읽다

2012년 2월 27일 초판 1쇄 인쇄

2012년 2월 27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안양문화원 만안구마을지편찬위원회

연구PM 김성균

연구원 김광남 박철하 이장언 한정은 김민정 김정진

발행인 안양문화원원장 원종면

편집인 김성균

발행처 안양문화원

디자인 아침미디어 031-474 2192

제작 아침미디어

펴낸곳 안양문화원

(우)430 85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53

전화 031-449-4451

팩스 031-442-0230

전자우편 anyangculture@hanmail.net

홈페이지 www.anyangculture.or.kr

사진 김성균 김정진 김지석 최병렬 닐 미샬로프 안양시정

안양중앙시장번영회 삼영운수 대동문고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

©본 텍스트의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으며 이미지의 저작권은 각 작가나 관계된 기관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만안의 기억은 안양시 보조금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여 백



여백

